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I

| 85 ~ 90 |

2021

〈 일러두기 〉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 : 경도 124~126은 서부원점, 126~128은 중부원점, 128~130은 동부원점, 130~132는 동해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3~1/6, 철기·석기 1/1~1/3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cm 미만을 세사립, 0.1~0.2cm는 사립, 0.3~0.4cm는 세석립, 0.5cm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종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叢,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여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지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하부, 우측 상·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日本農林水産省 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監修, 財團法人 日本色彩研究所 色票監修, 『新版 標準土色帖』, 2007”, “Albert H. Munsell, 『MUNSELL SOIL COLORCHARTS』,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문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58개 유적을 조사완료일별로 묶은 분책으로 총 29책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별로 수록 목록을 보고서 마지막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는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목 차

85. 평창 유동리 192번지 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85-1
86. 공주 도천리 369번지 외 2필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86-1
87. 강릉 초당동 394-3번지 유적(국강고고학연구소)	87-1
88. 제주 삼양1동 1543-13번지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88-1
89.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89-1
90. 평택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기남문화재연구원)	90-1

Ⅲ. 조사보고

85. 평창 유동리 192번지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일러두기 〉

1. 이 보고서는 평창 유동리 192번지 축사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2. 조사대상지역은 평창 유동리 192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발굴조사 1,191㎡이다.
3. 본문에 삽입된 유적 위치도와 유적 분포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25,000,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였으며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에 표시된 좌표는 GRS80이다. 본문에 삽입된 고지도는 유적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형에 맞게 실었다.
4. 유구 도면의 방향표시는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5. 유구의 토층도 및 입·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海拔高度이다.
6. 도면의 축소비는 유구 1/60, 유물 1/3을 기본으로 하였다.
7. 유구는 종류와 시대에 따라 구분하였고, 유물은 토기, 석기 순으로 분류하였다.
8. 유물의 일련번호는 설명, 도면, 사진이 같다.

※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목 차

I. 머리말	85-7
1. 조사 경위와 목적	85-7
2. 조사단구성	85-8
II. 자연 환경 및 고고 · 역사적 배경	85-9
1. 자연 환경	85-9
2. 고고 · 역사적 배경	85-11
III. 조사 범위와 방법	85-19
1. 조사범위	85-19
2. 조사방법	85-19
3. 유적의 층위	85-20
IV. 조사내용	85-22
1. 청동기시대 주거지	85-23
2. 수혈	85-42
V. 고 찰	85-44
VI. 맺음말	85-50
□ 부 록	85-83
유동리 유적의 AMS 측정 결과	85-85
자문위원의견서	85-89
출토유물 목록	85-90

지도목차

지도 1.	조사지역 퇴적양식도	85-10
지도 2.	조사지역 토양분포도	85-10
지도 3.	대동여지도(1861년)	85-14
지도 4.	근세지도(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 1917년)	85-15
지도 5.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85-16
지도 6.	조사지역 위치도(1:5,000)	85-18
지도 7.	평창 유동리 주변 청동기 유적 분포지도	85-44

도면목차

도면 1.	발굴조사 전체 현황도	85-21
도면 2.	1호 주거지	85-22
도면 3.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	85-26
도면 4.	1호 주거지 출토유물 2	85-27
도면 5.	1호 주거지 출토유물 3	85-28
도면 6.	2호 주거지	85-29
도면 7.	2호 주거지 출토유물	85-30
도면 8.	3호 주거지	85-31
도면 9.	3호 주거지 출토유물 1	85-32
도면 10.	3호 주거지 출토유물 2	85-34
도면 11.	3호 주거지 출토유물 3	85-35
도면 12.	4호 주거지	85-37
도면 13.	4호 주거지 출토유물	85-40
도면 14.	5호 주거지	85-41
도면 15.	5호 주거지 출토유물	85-42
도면 16.	1호 수혈	85-42

사 진 목 차

사진 1.	조사지역 층위	85-20
사진 2.	조사지역 제토 전경(① 1차제토, ② 2차제토)	85-53
사진 3.	1호 주거지(① 조사 전 전경, ② 조사 중 전경)	85-54
사진 4.	1호 주거지(① 조사 완료, ② 토층)	85-55
사진 5.	1호 주거지 (① 노지, ② 유물노출)	85-56
사진 6.	1호 주거지(①,② 유물노출)	85-57
사진 7.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	85-58
사진 8.	1호 주거지 출토유물 2	85-59
사진 9.	① 1호 주거지 출토유물 3, ② 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	85-60
사진 10.	2호 주거지 (① 조사 중 전경, ② 조사완료)	85-61
사진 11.	2호 주거지(① 토층, ② 유물노출, 출토유물)	85-62
사진 12.	3호 주거지(① 조사 전 전경, ② 조사 중 전경)	85-63
사진 13.	3호 주거지(① 조사완료, ② 토층)	85-64
사진 14.	3호 주거지(① 노지, ② 유물노출)	85-65
사진 15.	3호 주거지(①,② 유물노출)	85-66
사진 16.	3호 주거지 출토유물 1	85-67
사진 17.	3호 주거지 출토유물 2	85-68
사진 18.	① 3호 주거지 출토유물 3, ② 4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	85-69
사진 19.	4호 주거지(① 조사 중 전경, ② 조사완료)	85-70
사진 20.	4호 주거지 토층(① 단축, ② 장축)	85-71
사진 21.	4호 주거지 노지 토층(① 1호, ② 2호)	85-72
사진 22.	4호 주거지(①,② 유물 노출)	85-73
사진 23.	4호 주거지(① 유물노출, ② 출토유물 1)	85-74
사진 24.	① 4호 주거지 출토유물 2, ② 5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	85-75
사진 25.	5호 주거지(① 조사 중 전경, ② 조사완료)	85-76
사진 26.	5호 주거지(① 토층, ② 노지 토층)	85-77
사진 27.	5호 주거지(① 유물노출, ② 출토유물)	85-78
사진 28.	수혈(① 조사 전 전경, ② 토층)	85-79
사진 29.	① 수혈 조사완료, ② 학술자문회의 광경 1	85-80
사진 30.	① 학술자문회의 광경 2, ② 현장복토 완료 후 전경	85-81

I. 머리말

1. 조사 경위와 목적

이번 조사는 사업시행자인 박정호님이 실시하는 축사 신축공사에 따른 강원도 평창군 유동리 192번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이 지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동리 유물산포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평창군은 문화관광과-7944(2018.04.06.)호에 의거 입회조사를 실시토록하였고, (재)국강고고학연구소 최영석 입회관의 입회조사결과 2개의 문화층과 유구가 확인되어 평창군 문화관광과-11232(2018.05.15.)호에 의거하여 발굴조사로 전환토록하였다. 조사 대상지 및 대상사업은 소규모 국비발굴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2018년 05월 24일 한국문화재재단에 발굴조사 신청(2018-0524-01호)을 하였고, 한국문화재재단은 2018년 07월 09일 신속한 발굴조사 진행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조사연구1팀-1455호)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2018년 07월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허가 제2018-0931호)를 득하였고, 2018년 08월 06일 대행조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2018년 08월 30일부터 용역을 중지(한국문화재재단 조사기획팀-2419호)하였다가 2019년 04월 12일 용역을 재개하여 2019년 04월 22일부터 동년 06월 07일(실조사일수 32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8년 04월 06일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입회조사 실시
(평창군 문화관광과-7944호)
- 2018년 04월 20일 : 국강고고학연구소 최영석 입회관 입회조사 실시
- 2018년 05월 15일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회신
(평창군 문화관광과-11232호)
- 2018년 05월 24일 :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조사 접수
(2018-0524-01호)
- 2018년 07월 09일 : 신속한 발굴조사 진행을 위해 대행조사 의뢰
(조사연구 1팀-1455호)
- 2018년 07월 17일 :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허가 제2018-0931호)
- 2018년 08월 06일 : (재)고려문화재연구원과 소규모 발굴조사 계약
- 2018년 08월 30일 ~ 2019년 04월 12일 :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용역중지
- 2019년 04월 22일 ~ 06월 07일 : 용역 재개 및 발굴조사(실조사일수 32일)
- 2019년 06월 03일 : 학술자문회의 개최
- 2019년 06월 07일 : 조사완료

2. 조사단구성

- 조사단장 : 김병모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원장)
- 자문위원 : 김무중 (前(재)증원문화재연구원 원장)
 : 최종모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김아관 ((재)고려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조사원 : 김봉준 ((재)고려문화재연구원 1팀장)
- 준조사원 : 최혁진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조원 : 김근호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존처리요원 : 김정운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현장조사는 김병모의 지도로 김아관이 총괄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제반 운영에 따른 행정 처리는 김봉준이 담당하였다. 보고서 유구원고 및 유물원고는 김봉준·최혁진이 분담하였으며 유구실측 및 유물정리 등은 김근호가 담당하였다. 유구도면의 전산화는 김근호가 맡아 하였으며 유물도면 작성 및 전산화는 서화원(前(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최혁진·김근호가 담당하였다. 편집은 김봉준이 하였고, 이를 김아관이 교열 및 수정 후 최종적으로 김병모가 검토하였다.

Ⅱ. 자연환경 및 고고·역사적 배경

1. 자연 환경¹⁾

평창군은 동쪽으로 정선군, 북동쪽으로 강릉시, 북쪽으로 홍천군, 서쪽으로 횡성군, 남쪽으로 영월군에 접한다. 한반도의 중심부를 차지하며 북쪽에는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이 있고, 남쪽에는 방림면, 대화면, 평창읍, 미탄면이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8°14′~128°46′, 북위 37°16′~37°49′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영서 남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한다. 동-서 길이는 45km, 남-북은 60km로 남북이 길쭉한 형태이며, 총 면적은 1,463.745km²으로 임야 1,227.445km², 기타 91.35km² 등을 이룬다.

내부지형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쪽에는 오대산(1,563m), 계방산(1,577m), 황병산(1,407m), 동으로는 옥녀봉(1,146.2m), 발왕산(1,458m), 두루봉(1,225m), 가리왕산(1,560m) 등이 솟아있다. 서쪽으로는 태기산(1,261m), 백덕산(1,350m)이 횡성군과 홍천군과의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영월군과 접한다. 평창군은 이처럼 산악이 중첩한 산간지역으로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곳곳에 솟아 있으며, 1,000m 이상 지역에 고위평탄면이 발달해 있다.

수계는 대부분 북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을 향해 흘러내리는데, 평창군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흐르는 평창강과 진부면에서 정선으로 이어지는 오대천이 있다. 평창강은 길이 220km로 계방산에서 발원하여 속사천이라는 이름으로 남서로 흐르다 봉평면에서 홍정천과 합류하여 평창강을 이룬다. 이후 봉평과 대화를 양쪽으로 가르며 방림면의 동쪽과 평창읍을 지나 영월에서 동강과 합류하는데, 이를 서강이라 한다. 동강과 합류한 평창강(서강)은 남한강의 상류로서 단양·제천·충주호로 이어져 팔당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의 본류를 이루게 된다.

오대천은 오대산 우통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하진부와 정선을 지나 동강과 합류하는데, 이는 충청북도 영춘, 단양, 청풍, 충주를 가로질러 남한강에 이르며 팔당에서 북한강과 합수하여 한강이 된다. 이 두 하천은 본류와 지류를 형성하면서 산록의 계단상 침식면을 이루며 사이를 곡류하여 그 주변에 비교적 평탄한 침식구릉지를 형성한다. 이번에 조사할 유동리 또한 계단상 침식사면의 상면으로 평창강이 감입곡류하면서 형성된 충적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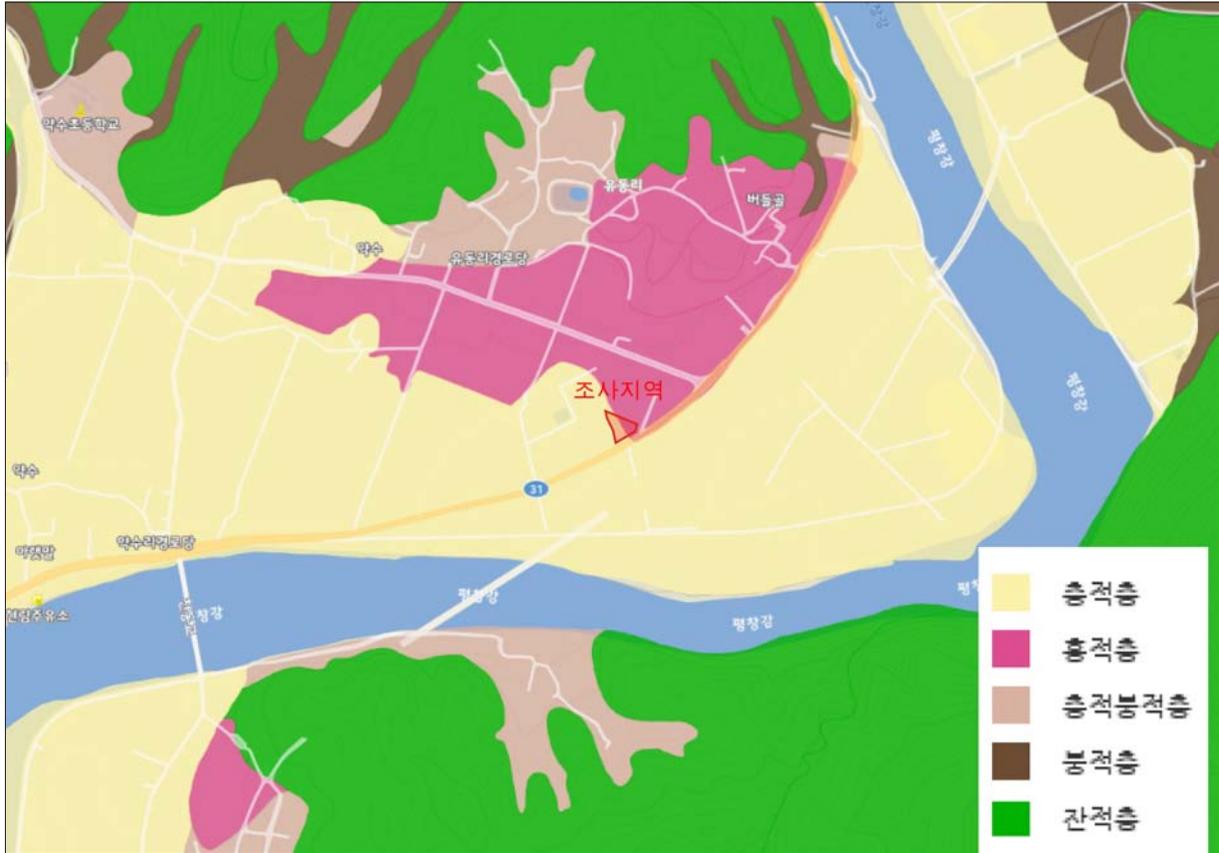
평창군의 지질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모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암석의 분포는 오랜 지질시대 동안 평창지역의 지질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화성암은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평창지역의 북부에 상당히 넓게 분포하며, 대보화강암으로 중생대 쥐라기에 형성되었다. 이 암석은 동쪽으로 강릉지역,

1) 강원대학교박물관, 1999, 『平昌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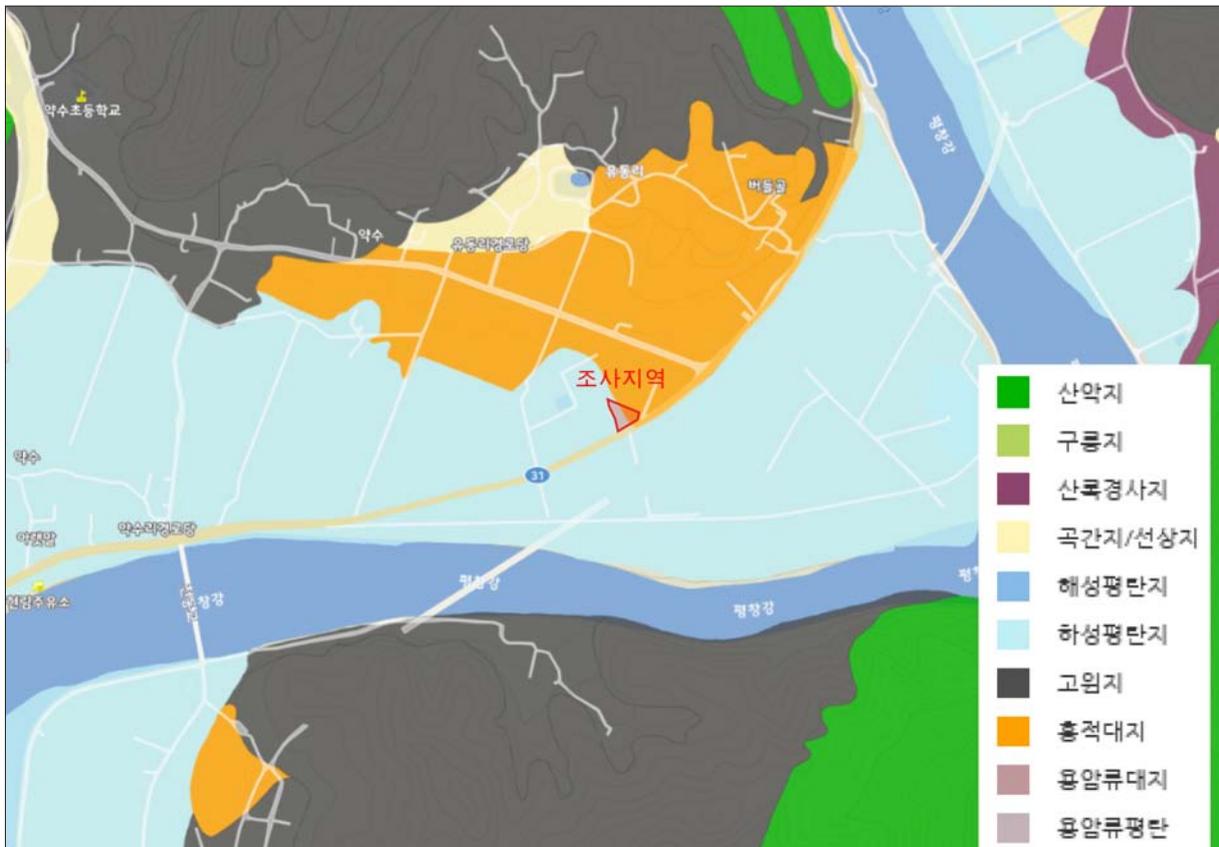
平昌郡, 2003 『平昌郡誌』.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平昌郡-』.

권혁재, 1995, 『한국지리』, 발췌 및 정리.



지도 1. 조사지역 퇴적양식도(흙토람<http://soil.rda.go.kr>/참조)



지도 2. 조사지역 토양분포도(흙토람<http://soil.rda.go.kr>/참조)

서쪽으로는 원주지역까지 넓게 분포한다. 퇴적암은 편마암 다음으로 오래된 암석으로 평창지역 남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퇴적암의 분류는 퇴적된 물질에 따라 사암, 세일, 역암, 석회암 등으로 구분되며 퇴적된 시기에 따라 지층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변성암은 평창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 평창지역의 북단과 남서단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변성암의 분포는 오대산과 계방산 일대의 고산지와 방림면 일대의 산지에 분포하며 주된 암석은 화강암질의 편마암이다. 이 암석은 고생대 이전인 선캄브리아기에 존재하던 암석이 지각변동에 따른 강한 압력과 열을 받아 변성되었다.

평창군의 토양은 지형상 높은 산지가 넓게 분포하고 산지 사이에 저지대가 좁게 형성되어 있어 지표기복이 심하므로 그 토양이 형성된 지형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평창지역의 토양은 높고, 경사가 급한 산지로부터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암석노출지 → 암쇄토 → 적황색토양 → 충적토가 차례로 분포하고 있다.

평창군의 기후는 지형적으로 80% 이상이 산지인 내륙 산간지역이므로 지역에 따라 한서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평균기온은 10.5℃, 1월 평균기온은 -6.3℃, 8월 평균기온은 24.5℃이며, 1987년 이후 연강수량이 1,000mm 이상이다. 특히 여름철(6~8월)에 연강수량의 3/4이 집중되고 있어 수해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2. 고고·역사적 배경

평창군은 1996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문화유적 지표조사²⁾ 이후, 광역지표조사³⁾를 시행하여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그리 많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최근 평창읍 천동리·마지리, 유동리·종부리, 응암리, 후평리등지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구석기시대유적으로는 지표조사를 통해 평창읍 도동리 평창강 북쪽 언덕에서 구석기시대 찍개, 찌르개, 굽개 등이 발견되었고⁴⁾, 2007년에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의 학술발굴조사에 의해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쌍굴의 발굴조사 결과 동굴 내부의 3개 층에서 구석기시대 뎀석기와 동물뼈 화석이 출토되었다⁵⁾.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지표조사를 통하여 평창강 유역의 유동리, 주진리, 후평리 일대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확인되었다⁶⁾. 그리고 용항리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더불어 다수의 야외노지와 수혈유구가 확인되었고, 후평리와 천동리 일대에서 역시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었다⁷⁾. 이러한 점을 볼

2) 강원대학교박물관, 1999, 주1)의 책.

3)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주1)의 책.

4)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주1)의 책.

5) 박영철, 2008, 「강원 평창군 기화리 쌍굴유적의 퇴적편년의 검토」, 『강원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

6) 강원대학교박물관, 1999, 주1)의 책.

7)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평창 용항리 유적』.

때 신석기시대 유적의 유존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고인돌과 돌널무덤, 선돌, 유물산포지가 알려져 있다. 고인돌은 평창읍 종부리, 상리, 후평리, 계장리, 임하리, 주진리, 대화면 신리, 하안미리, 진부면 수항리 등 비교적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지표조사를 통하여 대관령면 유천리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⁸⁾.

돌널무덤은 평창읍 종부리에, 선돌은 임하리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고인돌과 함께 지형적으로 평창강이나 그 지류를 낀 충적대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 2010년 후평리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공렬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 석기류 등이 출토된 주거지가 확인되었고⁹⁾, 후평리 유물산포지의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2010년 중부고고학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와 수혈, 경작유구, 조선시대 건물지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¹⁰⁾. 천동리 유물산포지에서는 수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주거지와 더불어 이중구연토기, 각목돌대문토기 및 공렬토기,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으며, 주구묘 및 석관묘가 확인되기도 하였다¹¹⁾. 또한 천동리 220번지 주택신축부지 발굴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이중구연에 단사선과 공렬문이 함께 시문된 토기와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촉, 석부, 석도, 방추차 등의 석기류가 확인되었다¹²⁾. 이처럼 평창군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이르는 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평창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원삼국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지표조사를 통해 평창읍 임하리, 종부리, 응암리, 중리, 마지리, 대화면 하안미리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타날문토기를 비롯하여 적석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근래 방림리에서는凸자형과 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주거지 3동과 내부에 점토띠식 및 부뚜막식 노지, 다수의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¹³⁾. 천동리에서는 철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에서는 두 줄의 짧은 고래시설을 갖춘 부뚜막이 확인되었다. 천동리 220번지 주택신축부지 발굴조사에서도 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에서 부석식+점토띠식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이형석기, 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역사시대 고분유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평창읍 하리 석실고분, 평창읍 종부1리 고분이 있으며, 방림면 계촌리에서는 고려 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창군 선사문화의 전통은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치며 삼국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¹⁴⁾.

8)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간평~횡계IC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9)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주7)의 보고서.

10)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평창 후평리 유적』.

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2, 『평창 천동리·마지리 취락』.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주7)의 보고서.

12) 강원문화재연구원, 2011, 『평창 천동리 220번지 유적』.

13)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1, 『평창 방림리 취락』.

14) 강원대학교박물관, 1999, 주1)의 책.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주1)의 책.

삼국시대의 평창군은 고구려의 내생군(奈生郡)에 속한 옥오현(郁烏縣)으로서 오랜 이름은 우오현(于烏縣)이었다. 우수주(牛首州)(지금의 춘천)에 속하였으나, 통일신라시대에는 백오현(白烏縣)으로 이름이 바뀌고 내성군(奈城郡)에 편입되어 명주(溟州)에 속하게 되었다. 후삼국시대에는 궁예와 관련이 깊었으며 궁예가 양길의 부장으로 영월을 침략했을 때 주천·영월과 함께 평창을 점령하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태조 23년(940)에 평창은 평창현으로 이름이 바뀌고 원주에 속하게 되었다. 원주의 속현이었으나, 중앙에서 지방관을 따로 파견하지는 않았다. 그 후 성종 14년(995)에 전국을 10도로 나누었을 때, 평창의 북쪽은 삭방도에, 남쪽은 중원도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평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원년에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의 비 효공왕후의 고향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되었고, 2년 뒤 강원관찰사 관할이 되면서 지군사가 수령으로 임명되었으며, 태조 4년(1395)에는 강릉의 관할 하에 있었다. 영조 36년(1760)에는 군내면, 동면, 미탄면, 남면, 북면 등의 5개면과 22개리로 되었고, 정조 13년(1789)에는 5개면 25개리로 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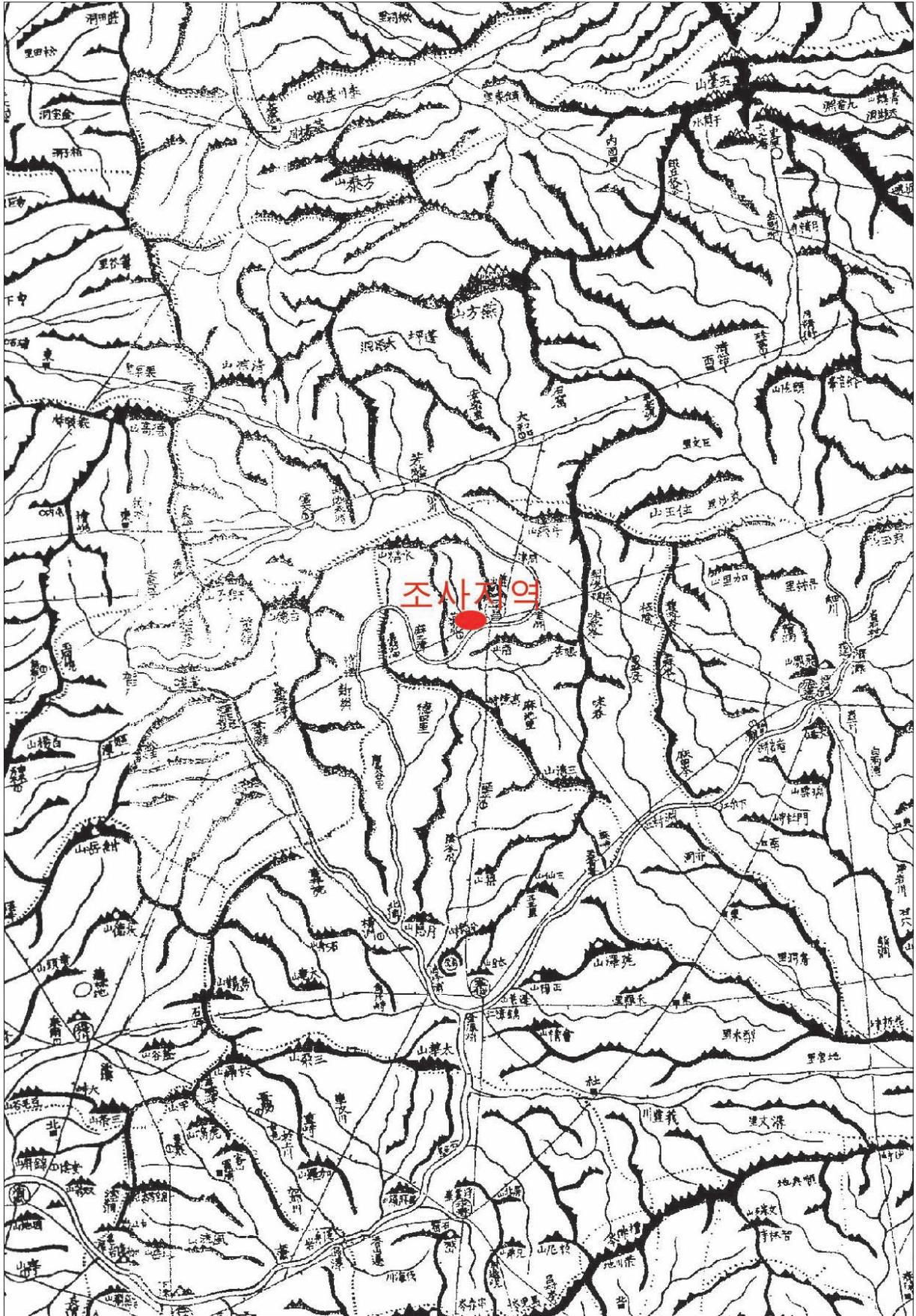
그러나 조선 초기 진관체제에서는 원주도 또는 원주진관에 속해 있었다. 1895년 5월 충주부 평창군으로 되었다가 1896년 13도제 실시로 강원도로 편입되었다. 1906년 강릉으로 부터 대화·봉평·진부 등 3면이 편입되고 동신에 신동면이 정선군으로 이관되었으며, 1914년 3월 군내, 남·북면 등 3면을 병합하여 평창면으로 부르고, 1931년 4월 정선군으로 부터 도암면이 편입되었다.

1934년 대화면의 일부인 방림·운교·계촌리가 분리되어 방림면이 되고 1973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암면 봉산리·호명리 일부는 진부면으로, 진부면 장평리가 봉평면으로 각각 편입되었으며, 1979년 5월 평창면은 평창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 2월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봉평면 백옥포리·장평리·진부면 속사리·노동리·용전리·이목정리·도사리, 대화면 신리 일부를 통합하여 용평면을 설치하였고, 1989년 도암면 호명리가 진부면에 편입되어 평창읍·미탄면·방림면·대화면·봉평면·진부면·용평면·대관령면 등 1개읍 7개면과 계촌·면은·수항·유천의 4개 출장소로 이루었다가¹⁵⁾ 1990년 1월 1일 평창읍 하6리와 도암면 횡계7·8·9·10·11·12개 리를 증설하고, 1991년 1월 17일 지번 합병에 따라 군청사를 하리 215번지에서 하리 210-2번지로 변경하였다. 1996년 3월 29일 진부면 송정3·4리를 증설하였고, 1998년 9월 25일 면은·수항·유천출장소를 폐지하였다. 2000년 10월 21일 백옥포3리와 횡계13리를 증설하였으며, 2003년 10월 4일 송정5리를 증설하여 오늘에 이른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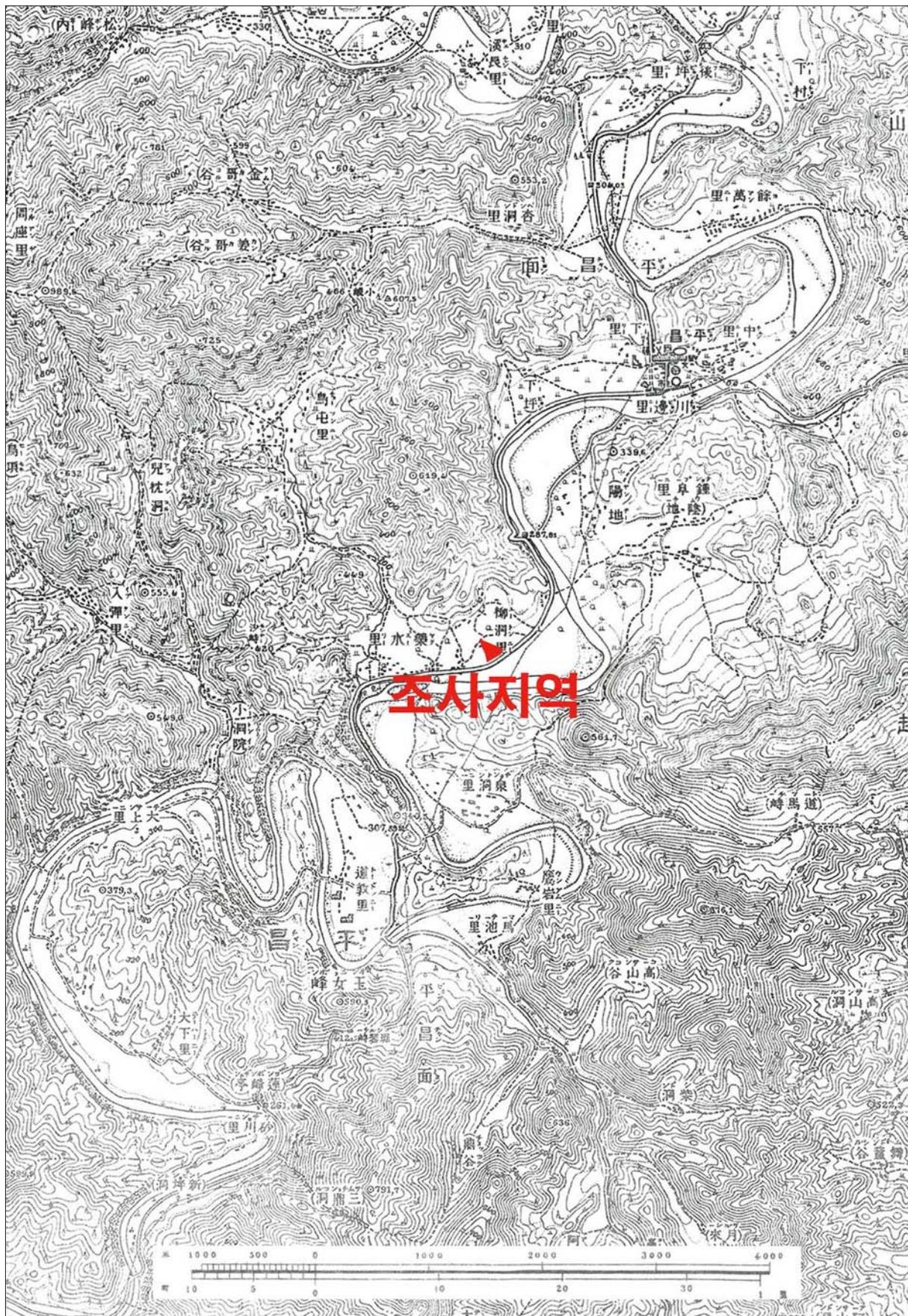
1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주1)의 책.

平昌郡, 2003, 주1)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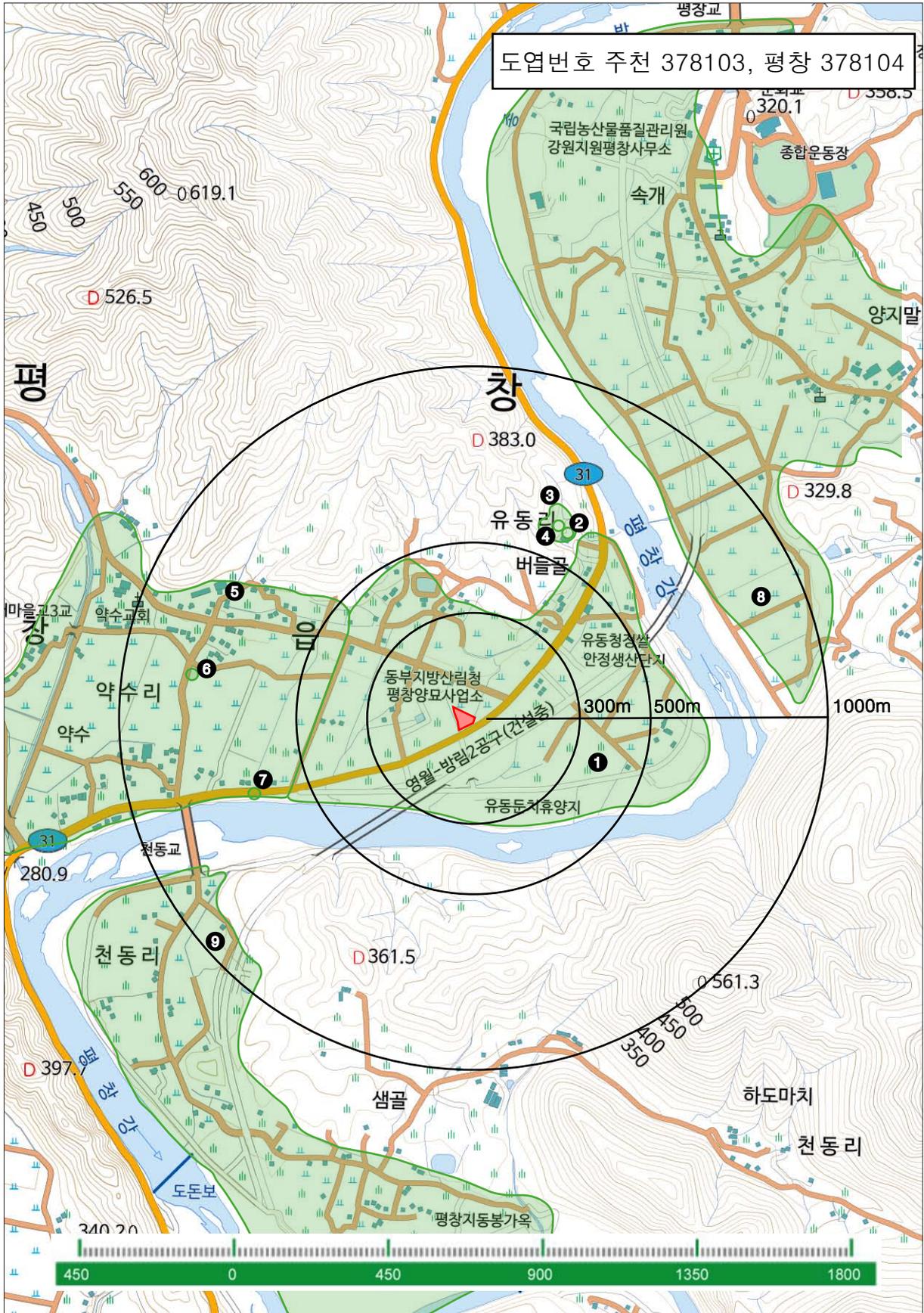
1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참조.



지도 3. 대동여지도(18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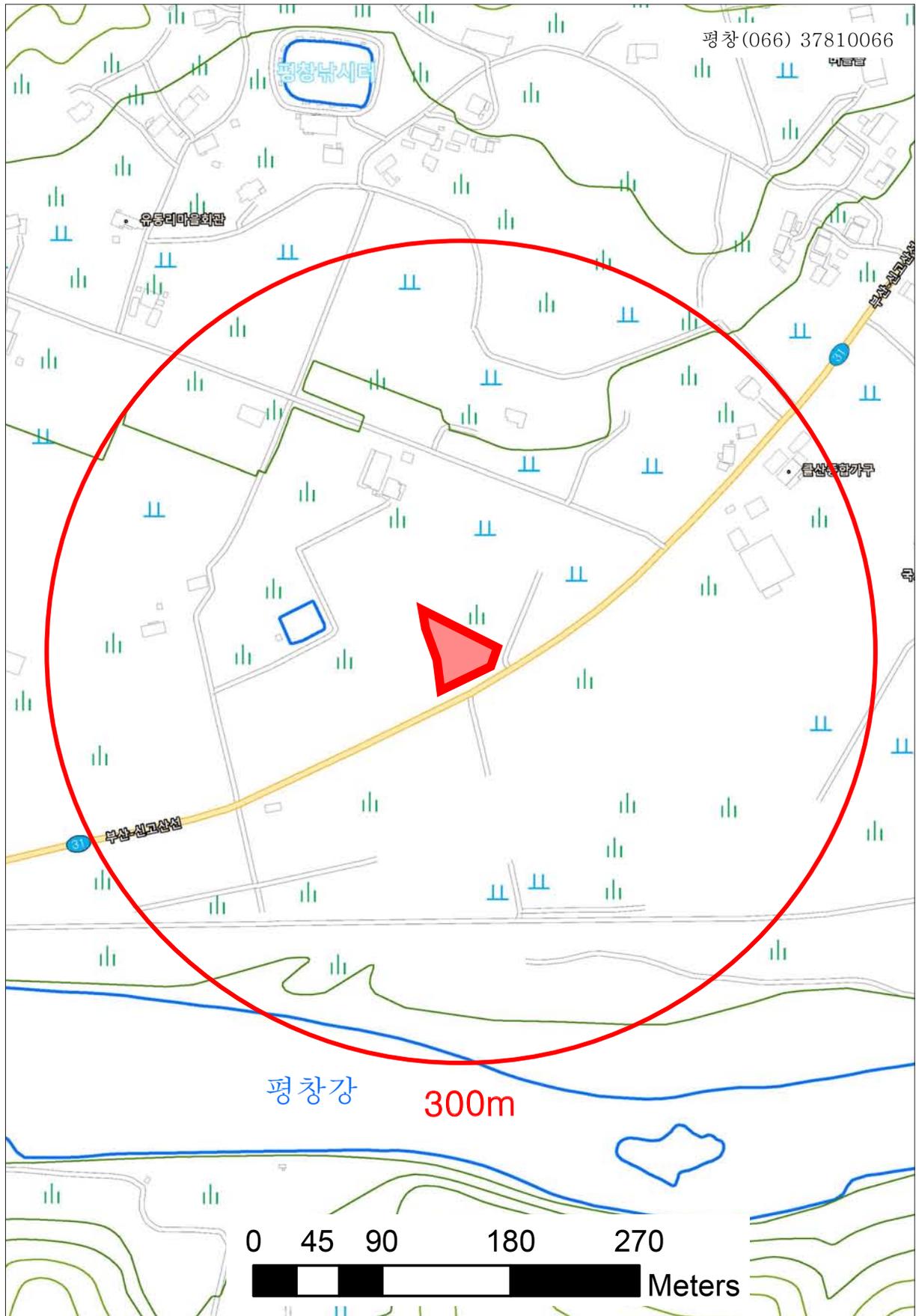
지도 4. 근세지도(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 1917년)



지도 5.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표 1】 주변유적 분포표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성격	출전
1	평창읍 유동리 유물산포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76답, 35전, 44전, 377답, 97전, 10전	신석기 ~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2	이배묘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9-1대	조선 시대	묘비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3	평창읍 유동리 사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산1임	고려 시대	사지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4	평창읍 유동리 오층석탑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9-1대	고려 시대	석탑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5	평창읍 약수리 유물산포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146전, 148전 일대, 300~310답, 352답	청동기 ~ 철기시대	유물산포지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6	평창읍 약수리 느릅나무A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87답	조선 시대	노거수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7	평창읍 약수리 느릅나무B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362-3천	조선 시대	노거수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8	평창읍 중부리 유물산포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551전, 974답, 1145답 일대, 317~415전 일대, 1087답, 1116답, 1127답, 1130답, 1028답 일대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9	평창읍 천동리 유물산포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샘골 204전~249전일대, 산37임, 산31임, 산26임, 산34임, 252답, 223답, 330전, 335전일대	청동기 ~ 철기시대	유물산포지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http://www.gis-heritage.go.kr)



지도 6. 조사지역 위치도(1:5,000)

Ⅲ. 조사 범위와 방법

1. 조사범위

조사지역은 강원도 평창군 유동리 192번지 일원으로 백덕산(1,350m)을 주산으로 하는 동남쪽 말단 구릉인 재래봉(650m)과 평창강 사이 하안충적지이다. 주변으로 평창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사행(蛇行)하다 다시 동에서 서로 굽이치는 지역으로 평창강의 퇴적사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상지 이외에도 주변으로 매우 넓게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부분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1917년 근세지도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이곳은 대부분 약수리 유물산포지 및 유동리 유물산포지, 중부리 유물산포지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조사대상지 역시 유동리 유물산포지 일부에 해당되며, 주변에 위치한 평창 약수리 취락¹⁷⁾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1기, 철기시대 주거지 3기 등이 조사되었다.

2. 조사방법

1) 발굴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①-4 가)항에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전면제토하여 유구의 외곽선 및 주변 유구의 부존여부를 파악한 후 유구 종류별로 조사방법을 달리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구조사는 중앙에 토층독을 남기고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파악된 층위를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해가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거지는 중앙에 '+'독을 설치하고, 층위를 파악한 후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하여, 출토되는 유물을 수습하고, 노출되는 내부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혈은 중앙에 토층을 남겨 층위를 파악한 후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실측 및 사진자료를 충실히 남겼다.

17)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3, 『平昌 藥水里 聚落 국도31호선 영월~방림2 도로공사구간 (유동리)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 유적의 층위

조사지역의 전체층위는 I 표토층, II 극암갈색 사질점토(Hue 7.5 YR 2/3), III 황갈색 사질점토(Hue 10 YR 5/8), IV 암갈색 사질점토(Hue 7.5 YR 3/4), V 명황갈색 사질점토(Hue 10 YR 6/8-입회조사 유구확인층), VI 명황갈색 사질점토(Hue 10 YR 6/6-입회조사 유구확인층)+모래 등으로 확인된다.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은 총 2개로 V층과 VI층에서 수혈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문화층은 1개 층으로 IV층에서 굴착면이 확인되며 유구의 바닥은 V층까지 이어진다. 이후 하단부로 VI층 및 하성퇴적층이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수혈은 트렌치 너비의 한계로 인해 좁은 면적을 확인하다 보니 하안층적층의 불규칙한 요철면이 수혈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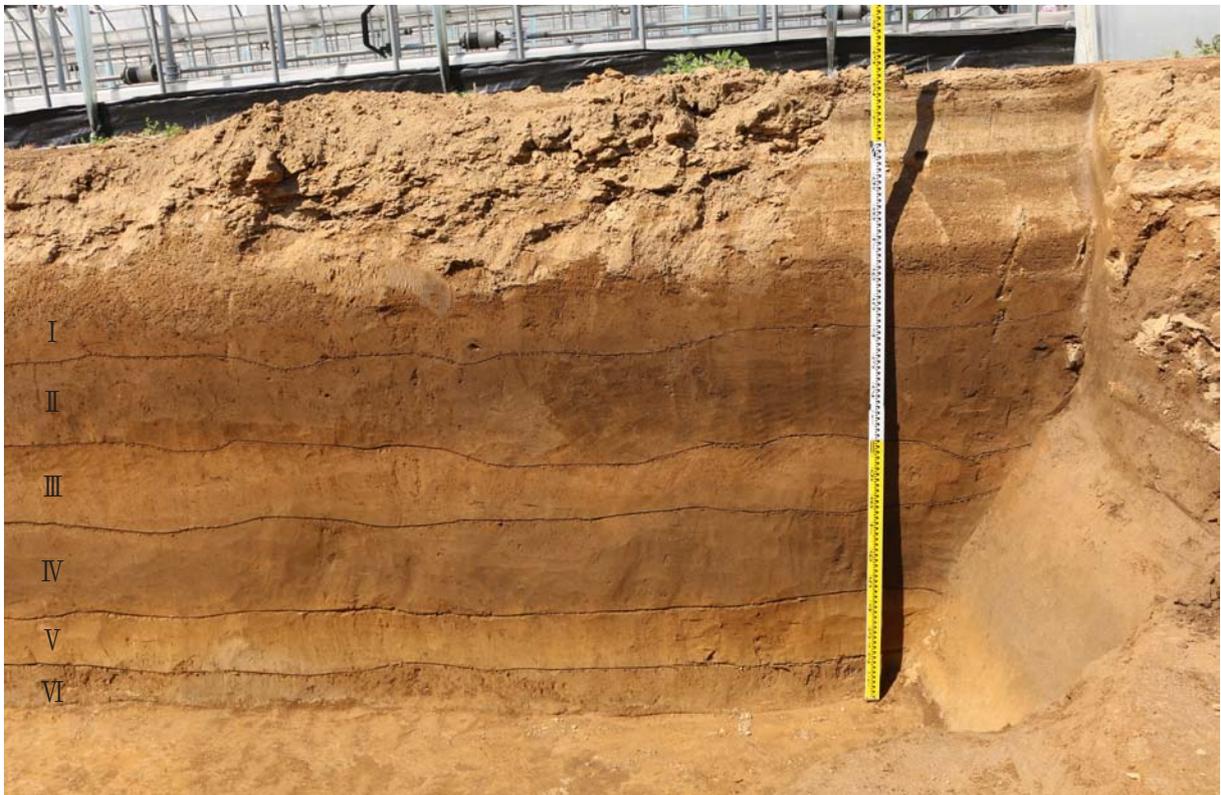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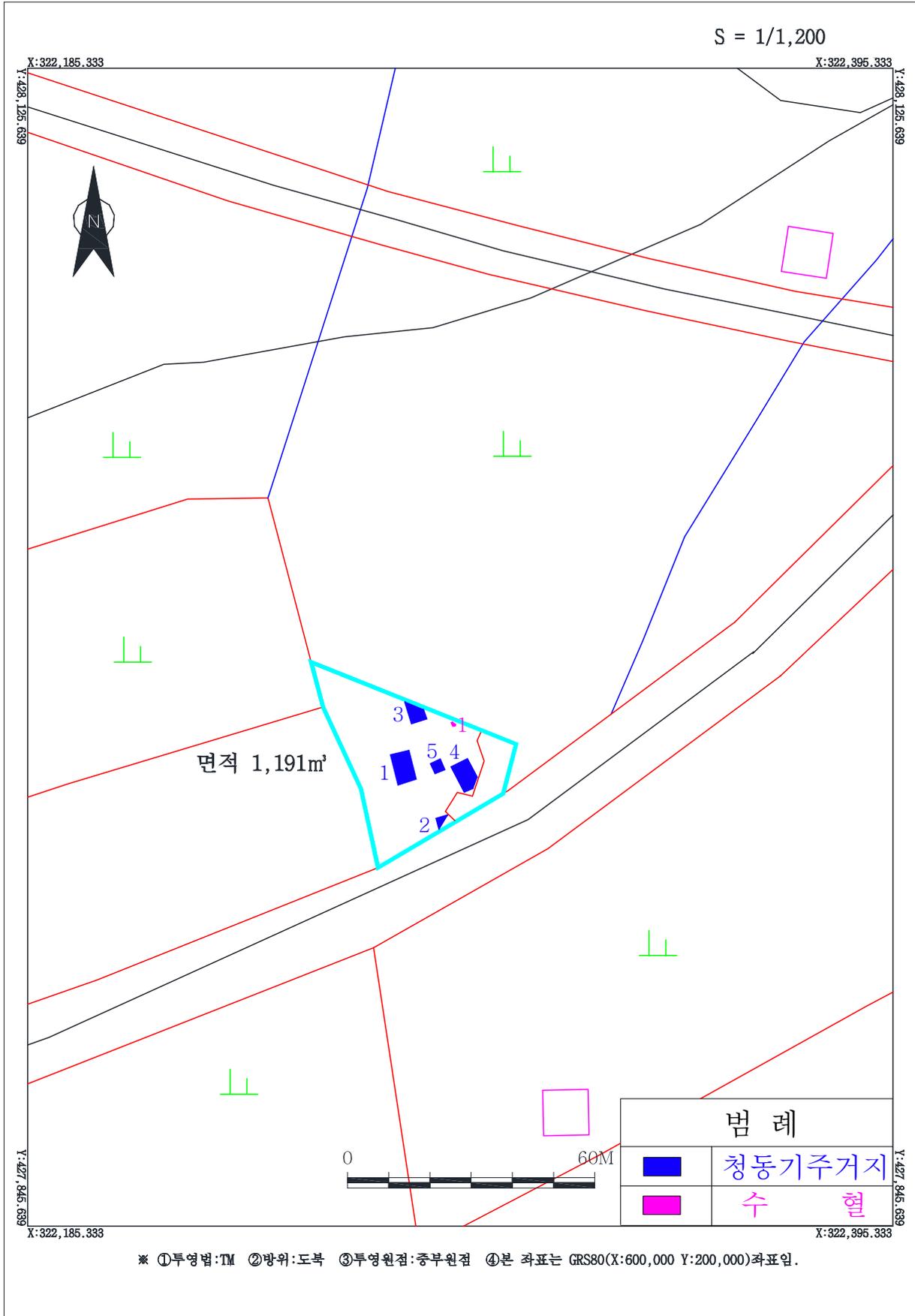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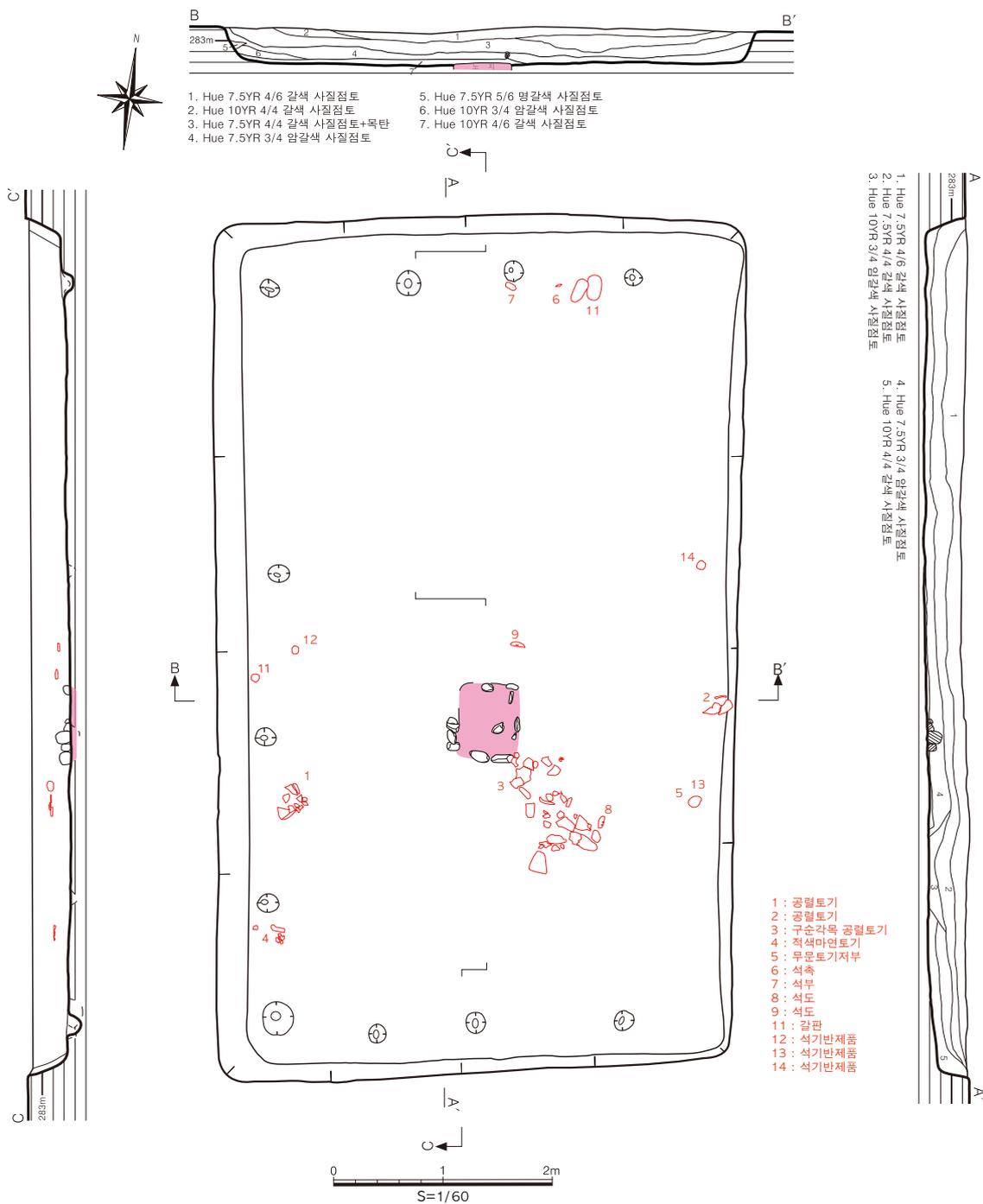
사진 1. 조사지역 층위



도면 1. 발굴조사 전체 현황도

IV. 조사내용

발굴조사는 입회조사결과에 따라 면적 1,191m²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은 총 2개층으로 황갈색 사질점토층(발굴조사 V층)에서 수혈 1기, 회갈색 사질점토층(발굴조사 VI층)에서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는 2개층을 나누어 제토하였으나 조사결과 황갈색 사질점토(발굴조사 V층)의 하단부인 회갈색 사질점토(발굴조사 VI층)에서 확인된 수혈은



도면 2. 1호 주거지

하안층적층의 불규칙한 퇴적양상으로 인한 기반토의 요철로 생겨난 현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유구는 황갈색 사질점토(발굴조사 V 층)에서 주거지 5기,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1. 청동기시대 주거지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해발 약 285m 내외에서 총 5기가 조사되었다. 2, 3호 주거지는 경계부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4호 주거지 역시 모서리 일부가 조사지역 경계부와 접한다.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 사진 3~6)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283.2m에 해당한다. 남동쪽으로 20m 지점에 2호 주거지가, 북동쪽으로 10m 지점에 3호 주거지, 동쪽으로 5m 지점에 5호 주거지가 있다. 규모는 길이 790cm, 너비 469cm, 잔존깊이 32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10°-W이다.

유구의 노출은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확인층(황갈색 사질점토-입회조사 유구포함층)의 상면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1호 주거지는 입회조사에서 노출된 유구 중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된 수혈유구에 해당한다.

조사는 중앙에 토층 독을 남기고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파악된 층위를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수직에 가까운 L자로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하단부는 화재로 인해 암갈색 사질점토와 목탄 및 재층이 얇게 퇴적되어 있다. 이 목탄층은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목탄 역시 소량 확인된다. 이는 주거지의 폐기 양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목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주거지를 해체한 후 불을 질러 폐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은 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명갈색 사질점토 등으로 총 7개 층을 이룬다. 토층의 퇴적양상은 주거지의 동쪽과 서쪽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서쪽은 벽체유입토가 확인되는 반면, 동쪽은 벽체유입토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외부토가 단기간에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동쪽 평창강의 범람으로 인한 단기간 퇴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닥면은 점토를 깔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시설로는 노지 1기, 주공 11기가 조사되었다. 노지는 길이 95cm, 너비 65cm의 위석식 노지로 주거지 중앙에서 남쪽으로 일부 치우쳐 위치한다. 위석은 15~20cm 정도 크기의 강돌을 (장)방향으로 조성하였으며 일부는 탈락된 상태이다. 트렌치 확인결과 소토의 두께 약 5cm 내외이다. 주공은 모두 벽주공으로 동벽을 제외한 전면에 총 11기가 확인되는데 약 1m 내외의 간격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다. 지름은 약 15~20cm, 깊이는 약 10cm로 확인된다.

유물은 노지주변에서 공렬토기가 확인되며 서벽에서 적색마연토기가 확인된다. 석기는 북벽에서

석축 및 석부, 갈판 등이 확인되며, 이외에 원형의 미완성 석기도 일부 발견된다.

(2) 유물

1. 공렬토기(도면 3, 사진 7)

주거지 서벽 중앙 부근에서 출토된 공렬토기이다. 최대경이 구연부에 있는 심발형으로 구순은 편평하다. 공렬은 구순부 하단 약 1cm 지점에서 1.5~3cm의 간격으로 안에서 밖으로 완전투공하여 시문하였으며 공렬폭은 0.4cm다. 바닥면은 평저이며 저부는 약간 축약한 후 외반하며 올라간다. 내외면에 손누름 조정하였고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연황갈색(10YR 5/4), 내면은 회갈색(7.5YR 5/2), 속심은 갈회색(10YR 4/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고 25.0cm 복원저경 7.0cm 복원구경 27.7cm 두께 0.5~2.4cm

2. 공렬토기(도면 4, 사진 7)

주거지 동벽 중앙에서 출토된 공렬토기이다. 최대경이 구연부에 있는 심발형으로 구순은 편평하다. 공렬은 구순부 하단 약 0.5cm 지점에서 1~2.5cm의 간격으로 안에서 밖으로 투공하여 시문하였으며 공렬폭은 0.4cm다. 확인되는 14개의 공렬 중 13개는 완전투공이고 1개는 불완전투공이다. 바닥면은 평저이며 저부는 약간 축약한 후 완만하게 외반하며 동체부로 이어진다. 내면에 테쌓기 및 손누름, 중횡으로 조정한 흔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명적갈색(2.5YR 5/8), 내면은 연등색(10YR 7/4), 속심은 갈회색(10YR 4/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모래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27.5cm 복원저경 11.2cm 두께 0.5~0.8cm

3. 구순각목 공렬토기 구연·동체부편(도면 5, 사진 7)

주거지 중앙 노지 옆에서 출토된 구순각목 공렬토기 구연·동체부편이다. 구순은 편평하며 각목문은 2.3~3cm간격으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공렬은 구순부 하단 약 1cm 지점에서 2~3cm의 간격으로 안에서 밖으로 완전투공하여 시문하였으며 공렬폭은 0.5cm다. 내면에 손누름 흔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연황갈색(10YR 5/4), 내면은 회갈색(7.5YR 5/2), 속심은 갈회색(10YR 4/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17.3cm 두께 0.7~0.9cm

4. 적색 마연토기 구연·동체부편(도면 3, 사진 7)

주거지 서벽 남쪽에서 출토된 적색 마연토기 구연·동체부편이다. 최대경이 동중위에 위치한다. 경부는 내만하다 구경부에서 직립하며, 구연은 짧게 외반하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적갈색(5YR 4/8)으로 마연한 흔적이 있다. 내면에 손누름 흔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연황등색(10YR 6/3), 내면은 연황등색(10YR 6/3), 속심은 흑갈색(10YR 3/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13.9cm 두께 0.4~0.6cm

5.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3, 사진 7)

주거지 동벽 중앙 부근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는 完存하며 약간 축약한 후 외반하여 올라간다. 내면은 손누름 조정하고 판목구로 조정하였다. 외면은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연등색(7.5YR 7/3), 속심은 갈회색(7.5YR 4/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모래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6.5cm 복원저경 7.3cm 두께 0.6~2.4cm

6. 석촉(도면 4, 사진 7)

주거지 북벽 중앙에서 출토된 이단경식석촉으로 봉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능각을 중심으로 신부와 경부는 좌우 사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으며 신부의 횡단면은 마름모꼴, 경부의 횡단면은 육각형이다. 색조는 암적갈색(2.5YR 3/2)이다.

길이 5.2cm 너비 1.4cm 두께 0.6cm 무게 4.4g

7. 석부(도면 4, 사진 7)

주거지 북벽 중앙 부근에서 출토된 장방형의 합인석부이다. 두부는 직선이고 인부는 호인이다. 앞뒷면은 횡방향으로 마연하였고 측면은 타격흔이 있으나 박락되어 가공흔이 뚜렷하지는 않으며 인부는 종방향으로 마연하였다. 단면은 귀가 둥근 장방형이다. 색조는 회백색(2.5Y 8/2)이다.

길이 10.7cm 너비 5.3cm 두께 3.5cm 무게 394.2g

8. 반월형석도(도면 4, 사진 7)

주거지 중앙 노지 옆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로 우측 인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배부는 호상을 이루며 단면은 직선이고, 인부는 곡선상으로 단면은 편인이다. 중앙의 구멍은 2개로 양쪽에서 투공하였다. 전면에 투공이 있는 부분은 박락이 심하여 마연흔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전후면에는 마연조정흔 흔적이 있다. 색조는 암녹회색(10GY 4/1)이다.

길이 5cm 잔존너비 13.4cm 두께 0.6cm 무게 65.6g

9. 반월형석도(도면 4, 사진 8)

주거지 노지 옆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이며 좌우측 인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배부는 호상을 이루며 단면은 직선이고, 인부는 곡선상으로 단면은 편인이다. 중앙의 구멍은 2개로 양쪽에서 투공하였다. 전면에 투공이 있는 부분과 우측 배부는 박락이 심하여 마연흔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전후면에는 마연조정흔 흔적이 있다. 색조는 갈회색(10YR 4/1)이다.

길이 4.3cm 너비 14.4cm 두께 0.6cm 무게 55.4g

10. 반월형석도(도면 4, 사진 8)

내부조사시 수습된 반월형석도이며 좌측 인부 일부와 우측이 결실되었다. 배부는 호상을 이루며 단면은 직선이고, 인부는 곡선상으로 단면은 편인이다. 중앙의 구멍은 2개로 양쪽에서 투공하였으나 하나는 절반만 남아있다. 전후면에 마연조정된 흔적이 있다. 색조는 회색(10Y 5/1)이다.

길이 5.4cm 잔폭 9.5cm 두께 0.6cm 무게 52.4g

11. 갈판(도면 4, 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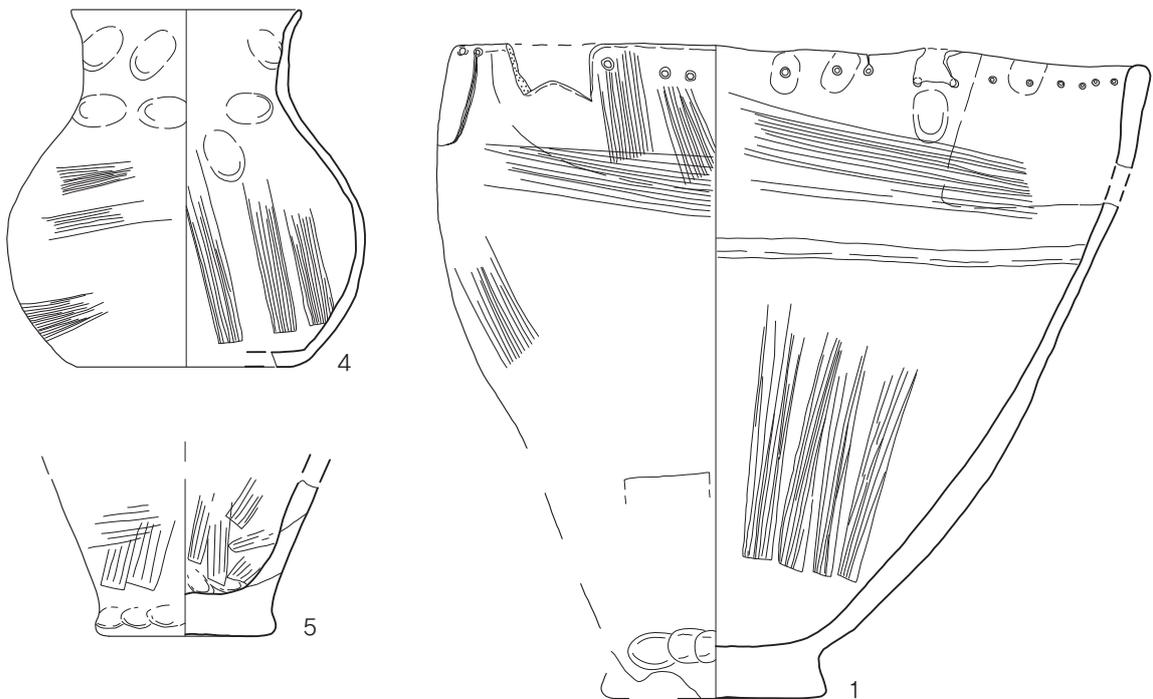
주거지 북벽 중앙 부근에서 출토된 타원형의 갈판이다.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면은 전면으로 중앙에 오목하게 요면이 생겼다. 암질은 화강암이며 색조는 갈회색(10YR 5/1)이다.

길이 23.3cm 너비 14.2cm 두께 4.6cm 무게 2,581.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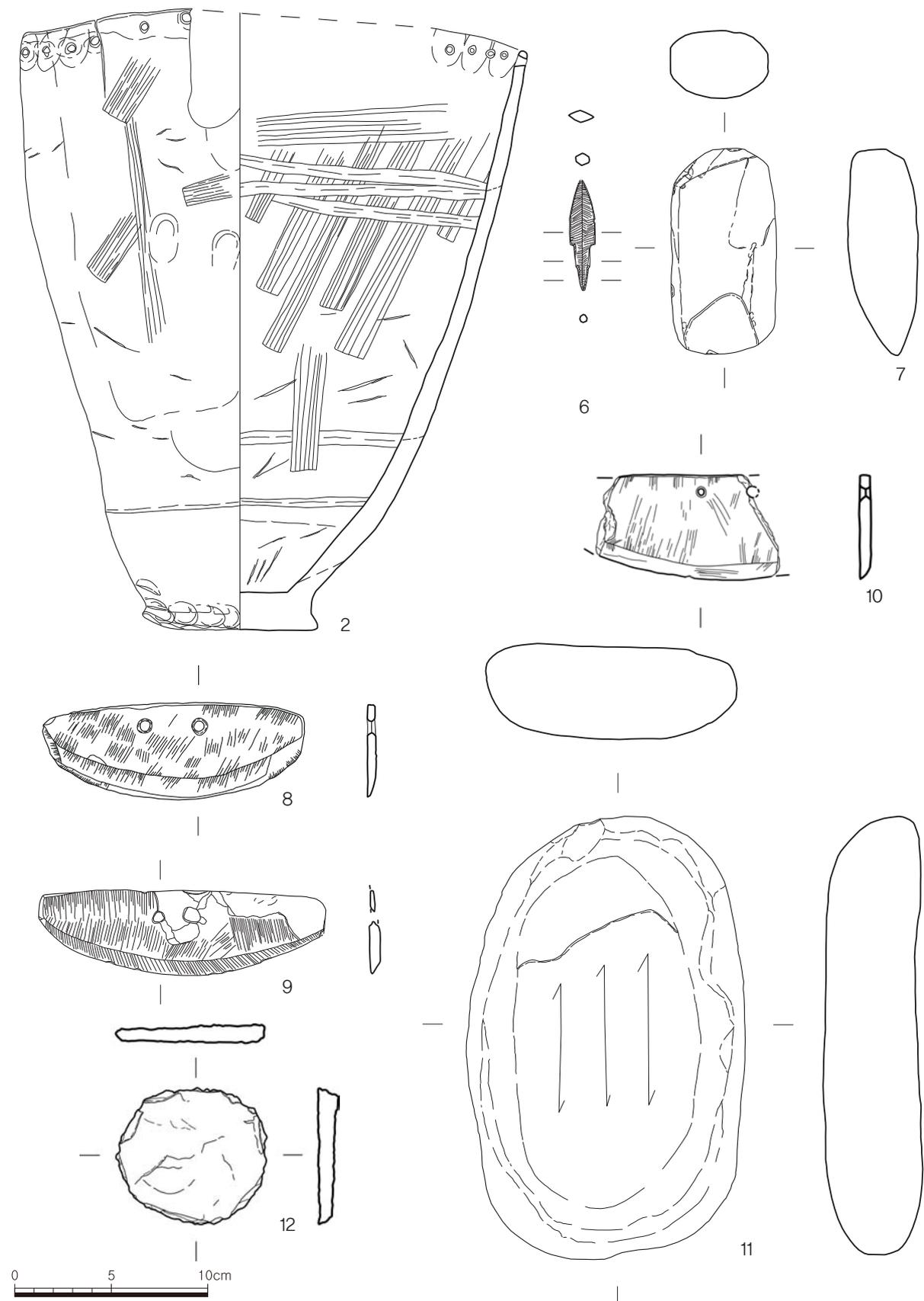
12. 석기 반제품(도면 4, 사진 9-①)

주거지 서벽 중앙 부근에서 출토된 타원형의 석재이다. 비교적 편평하고 가장 자리에 타격흔이 보인다. 암질은 천매암이며, 색조는 회색(N 4/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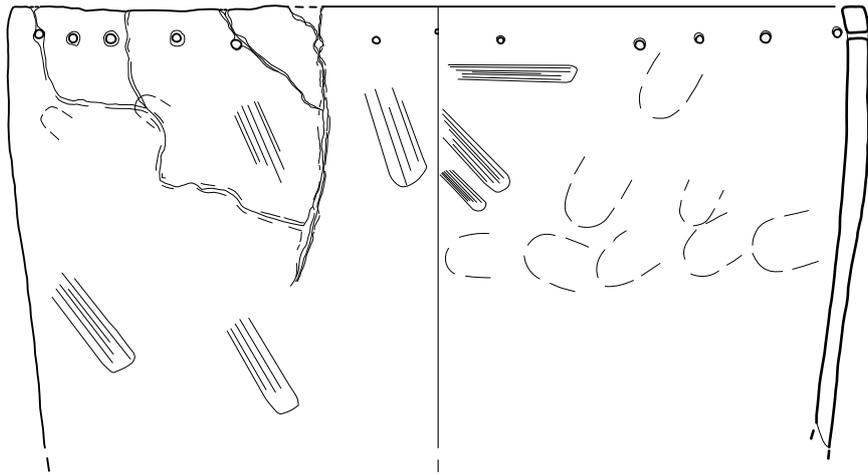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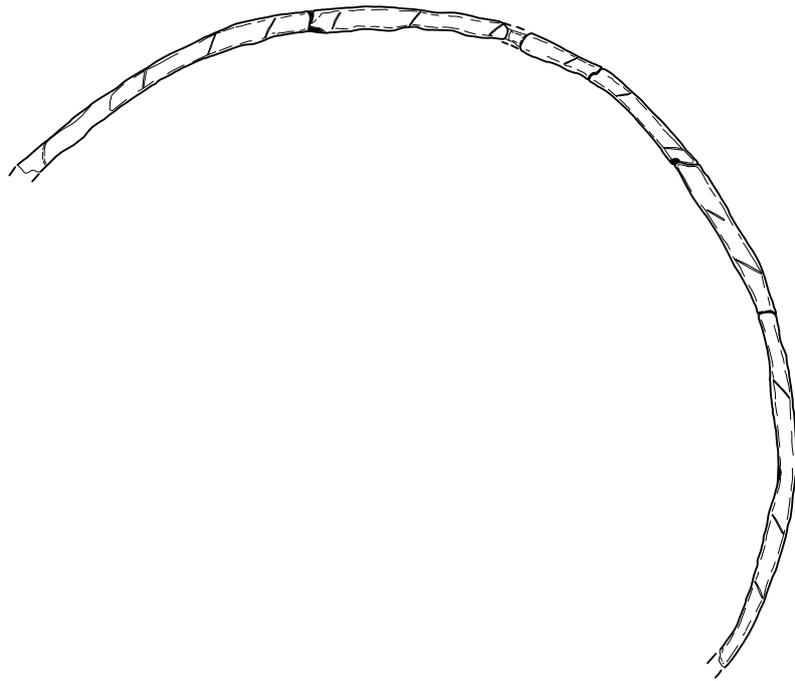
길이 7.7cm 너비 6.9cm 두께 0.8cm 무게 12.6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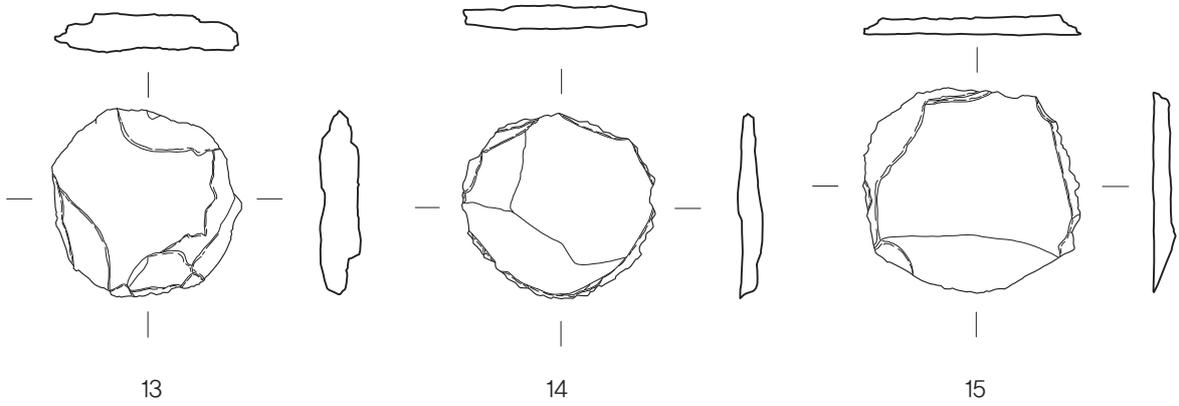
도면 3.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



도면 4, 1호 주거지 출토유물 2



3



13

14

15



도면 5. 1호 주거지 출토유물 3

13. 석기반제품(도면 5, 사진 9-①)

주거지 동벽 중앙 부근에서 출토된 원형의 석재이다. 비교적 편평하고 가장 자리에 타격흔이 보인다. 암질은 천매암이며, 색조는 회색(N 4/0)이다.

길이 7.5cm 너비 7.4cm 두께 1.3cm 무게 103.5g

14. 석기반제품(도면 5, 사진 9-①)

주거지 서벽 중앙 부근에서 출토된 원형의 석재이다. 비교적 편평하고 가장 자리에 타격흔이 보인다. 암질은 천매암이며, 색조는 회색(N 4/0)이다.

길이 7.5cm 너비 7.3cm 두께 1cm 무게 77.3g

15. 석기반제품(도면 5, 사진 9-①)

주거지 동벽 중앙 부근에서 출토된 원형의 석재이다. 비교적 편평하고 전후면에 마연조정된 흔적이 있다. 암질은 천매암이며, 색조는 암회색(N 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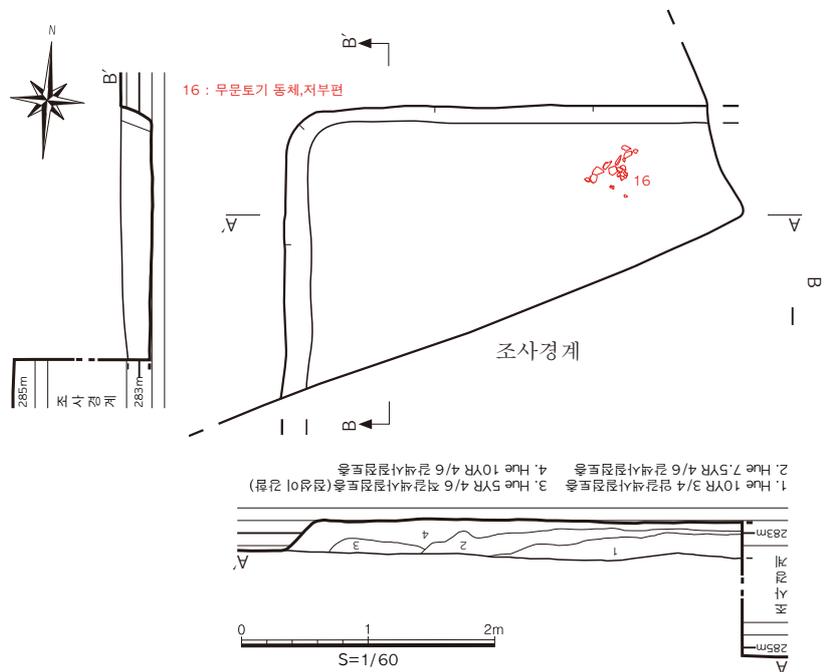
길이 8.1cm 너비 8.5cm 두께 0.7~0.9cm 무게 96.1g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6, 사진 9-②, 10, 11)

조사지역 남동쪽의 조사지역 경계에 맞붙어 위치하며, 해발 283.3m에 해당한다. 북서쪽으로 20m 지점에 1호 주거지가, 북동쪽으로 20m 지점에 5호 주거지가 있다.

규모는 잔존길이 324cm, 잔존너비 230cm, 잔존깊이 29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W-5°-S이다. 주거지는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확인



되는데 주변 주거지의 규모와 비교 해볼 때 약 1/4가량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노출은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확인층의 상면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는 중앙에 토층 독을 남기고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파악된 층위를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수직에 가까운 ㄴ자로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내부에서 목탄은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자연폐기 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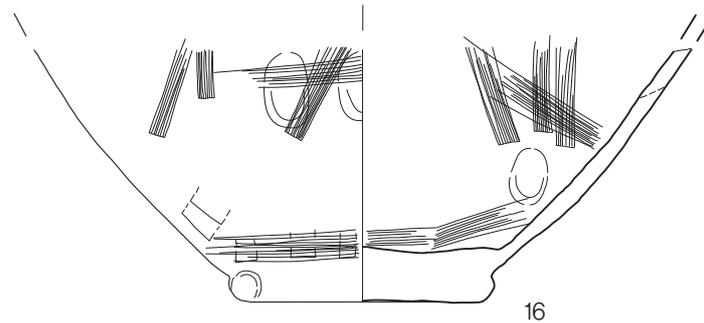
토층은 암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 등으로 총 4개의 층을 이룬다. 퇴적양상은 1호 주거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퇴적토가 쌓여있는 양상이다.

바닥면은 점토를 깔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는데 주거지의 잔존양상이 좋지 않아 내부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토유물로는 주거지 북벽에서 무문토기 동체부·저부편이 확인된다.

(2) 유물

16. 무문토기 동체·저부편(도면 7, 사진 11-②)

조사지역 남쪽 경계와 주거지 북벽사이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동체·저부편이다. 저부는 4/5가량 잔존하고 동체부는 하위일부만 잔존한다. 바닥면은 평저이며 저부는 축약 없이 완만하게 넓어지며 올라간다. 저부는 손누름 조정하였으며 내외면은 손누름 조정하였고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연등색(7.5YR 7/3), 속심은 갈회색(7.5YR 4/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등이 혼입된 점토를



도면 7. 2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용하였다.

잔고 9.1cm 복원저경 9.9cm 두께 0.6~1.5cm

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8, 사진 12~15)

조사지역 북쪽의 조사지역 경계에 맞붙어 위치하며, 해발 283.2m에 해당한다. 남서쪽으로 10m 지점에 1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15m 지점에 5호 주거지, 남동쪽으로 10m 지점에 1호 수혈이 있다.

규모는 잔존길이 556cm, 너비 430cm, 잔존깊이 38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8°-W이다. 주거지의 북벽은 조사지역 경계부에 걸쳐 확인되지 않으나 주거지의 잔존양상으로 보아 약 1/2가량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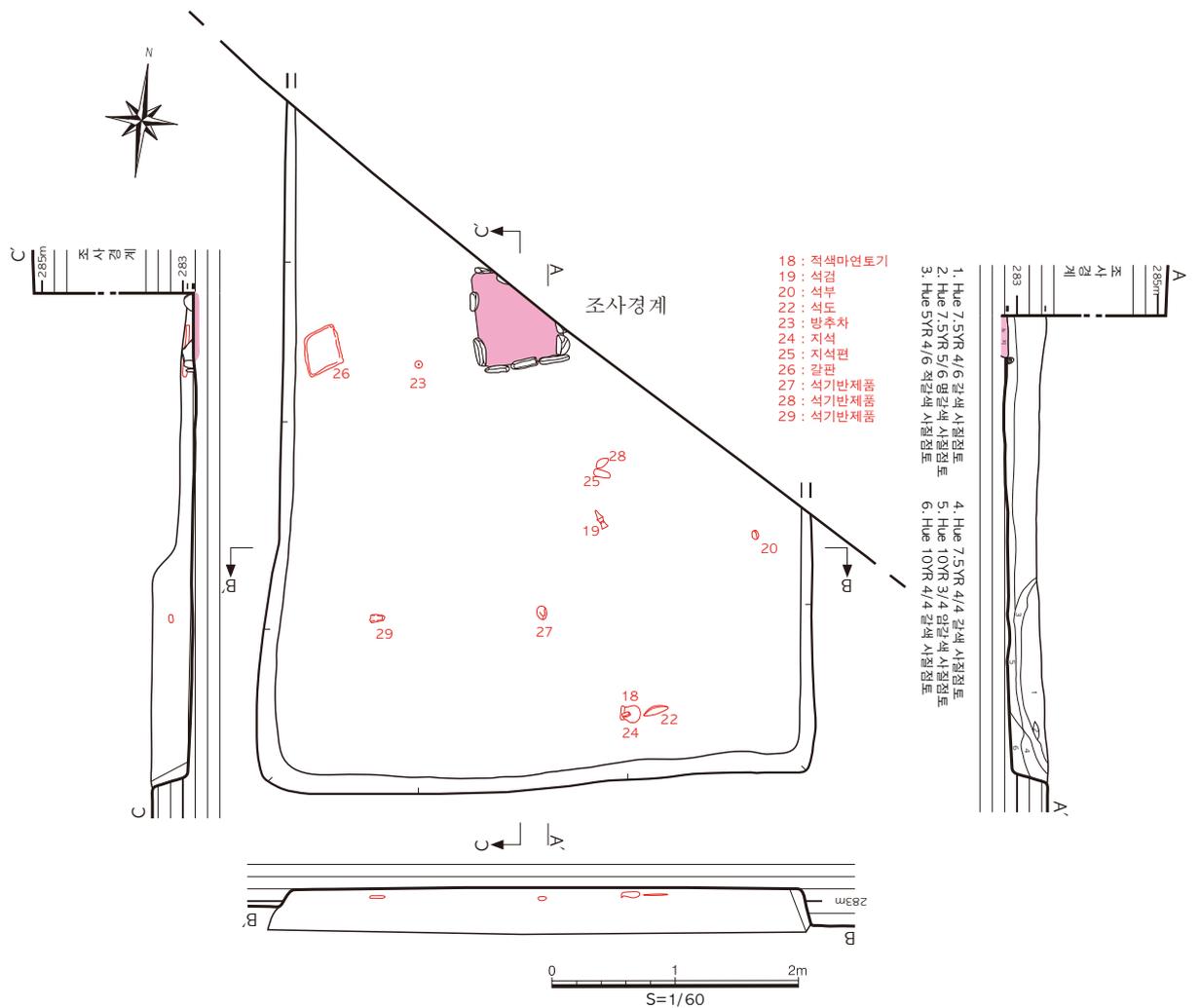
유구의 노출은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확인층의 상면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는 중앙에 토층 독을 남기고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파악된 층위를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수직에 가까운 ㄴ자로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내부에 화재와 관련된 층이 존재하지 않아 폐기 후 자연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은 갈색 사질점토, 명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등 총 6개층을 이루며 퇴적양상은 대체로 외부에서 유입된 (명)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바닥면은 점토를 깔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시설로는 노지 1기가 확인된다. 노지는 길이 84cm, 너비 69cm의 위석식 노지로 주거지 중앙에 조사지역 경계 북쪽과 맞닿아 위치한다. 위석은 15~25cm정도 크기의 강돌을 (장)방향으로 조성하였으며 일부는 탈락된 상태이다. 트렌치 확인결과 소토의 두께는 약 5~10cm 가량으로 비교적 두텁게 소결된 상태이다.

유물은 주거지 남벽 부근에서 확인된 적색마연토기 1점을 제외하고, 모두 석기가 확인되는데 석기는 주거지에 전체에 산재한 상태로 석검, 갈판, 방추차, 석부, 반월형석도, 지석, 석기 반제품 등이 확인된다.



도면 8. 3호 주거지

(2) 유물

17. 발형토기(도면 9, 사진 16)

주거지 노지 내 남서쪽에서 출토된 발형토기이다. 구연부·동체부·저부가 있으며 전체의 1/8가량만 남아있어 도상복원 하였다. 최대경이 구연부에 있는 발형으로 추정된다. 구순은 편평하다. 바닥면은 평저이며 저부는 약간 축약한 후 외반하여 올라간다. 저부는 손누름 조정 후 물손질하였다. 내면에는 테쌍기한 흔적이 있으며, 내외면 손누름 조정 후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내면은 흑갈색(7.5YR 3/1), 외면은 연황등색(10YR 7/4), 속심은 흑갈색(10YR 3/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10.3cm 복원저경 4.5cm 두께 0.7~0.9cm

18. 적색 마연토기(도면 9, 사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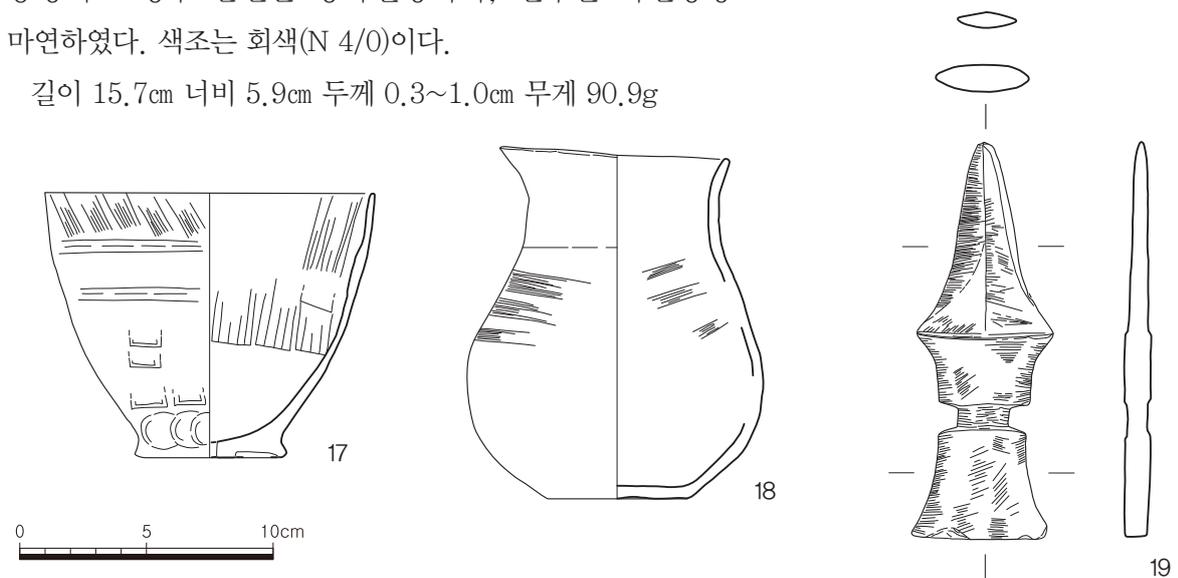
주거지 남벽에 인접하여 출토된 적색 마연토기이다. 최대경이 동중위에 위치한다. 경부는 내만하다 구경부에서 직립하며, 구연은 짧게 외반하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바닥면은 평저이며 저부는 동체부로 완만하게 이어진다. 외면은 적갈색(5YR 4/8)으로 마연한 흔적이 있다. 내면에 손누름 흔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천황등색(7.5YR 8/4), 내면은 등색(7.5YR 7/6), 속심은 갈회색(7.5YR 5/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등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높이 13.7cm 구경 10.1cm 저경 5.9cm 두께 0.4~0.5cm

19. 석검(도면 9, 사진 16)

주거지 노지와 남벽 사이 중앙에서 출토된 이단병식 석검이다. 신부는 안으로 굽은 호형으로 중앙에 능은 병부까지 이어진다. 신부와 병부는 단을 두어 구분하였다. 병부는 너비 1cm정도의 홈을 두어 2단으로 구분하였고 전체적으로 상하단 측면이 곡선으로 약간 벌어지는 형태이다. 신부 단면은 능형이고 병부 단면은 장타원형이며, 인부는 사선방향으로 마연하였다. 색조는 회색(N 4/0)이다.

길이 15.7cm 너비 5.9cm 두께 0.3~1.0cm 무게 90.9g



도면 9. 3호 주거지 출토유물 1

20. 석부(도면 10, 사진 16)

주거지 동벽에 인접하여 출토된 장방형의 합인석부이다. 두부는 직선이고 인부는 호인이다. 앞뒷면은 종방향으로 마연하였고 측면은 박락되어 가공흔이 뚜렷하지는 않으며 인부는 종방향으로 마연하였다.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색조는 연황등색(10YR 7/2)이다.

길이 13.6cm 너비 6.4cm 두께 1.9~3.4cm 무게 594.1g

21. 석부(도면 10, 사진 17)

내부조사 중 출토된 장방형의 합인석부이다. 두부는 직선이고 인부는 호인이다. 앞뒷면은 종방향으로 마연하였고 측면은 박락되어 가공흔이 뚜렷하지는 않으며 인부는 종방향으로 마연하였다.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색조는 연황등색(10YR 7/2)이다.

길이 8.7cm 너비 4.6cm 두께 2.6cm 무게 204.5g

22. 반월형석도(도면 10, 사진 17)

주거지 남벽에 인접하여 출토된 반월형석도이다. 배부는 호상을 이루며 단면은 직선이고, 인부는 곡선상으로 단면은 편인이다. 중앙의 구멍은 2개로 양쪽에서 투공하였다. 배부에 일부 박락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전후면에는 종방향으로 마연조정된 흔적이 있다. 색조는 회색(10Y 5/1)이다.

길이 19.1cm 너비 6.0cm 두께 0.3~0.6cm 무게 92.1g

23. 방추채(도면 10, 사진 16)

주거지 노지와 서벽 사이에서 출토된 석재 방추채이다. 중앙 부위에 약 1.0cm 정도의 구멍을 뚫었고 투공을 위한 회전흔이 양면에서 관찰된다. 측면 모서리는 직각으로 정형하였으며 앞뒷면은 종횡으로 마연하였다. 압질은 천매압이며, 색조는 암회색(N 3/0)이다.

너비 5.9cm 두께 0.4~0.6cm 무게 34.7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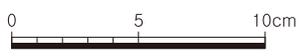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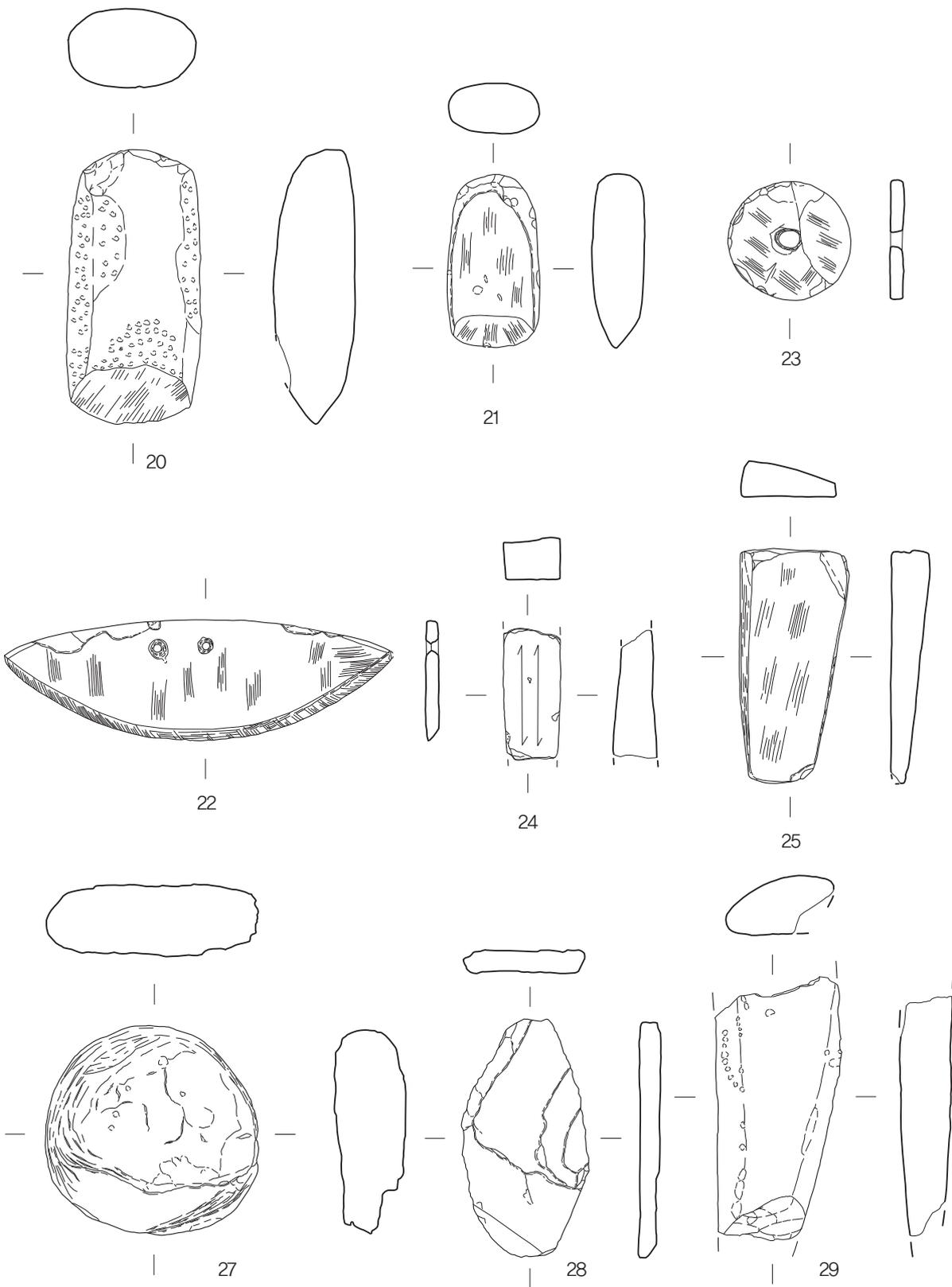
24. 지석(도면 10, 사진 16)

주거지 남벽에 인접하여 출토된 지석으로 위·아래부분이 모두 파손되어 완전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세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깨어진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모두 마연하여 매끄럽게 하였으나 주 사용면은 전면이다. 전면은 사·종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으며 측면은 사방향으로 후면은 종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다.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색조는 천황등색(10YR 8/3)이다.

길이 6.5cm 너비 2.8cm 두께 1.7~2.1cm 무게 66.3g

25. 지석편(도면 10, 사진 17)

주거지 노지와 남벽 사이 중앙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평면형태는 능형으로 추정된다. 네면을 모두 마연하여 매끄럽게 하였으나 주 사용면은 전면(前面)이다. 전면은 사·종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으며 측면은 사·횡방향으로 후면은 종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다.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도면 10. 3호 주거지 출토유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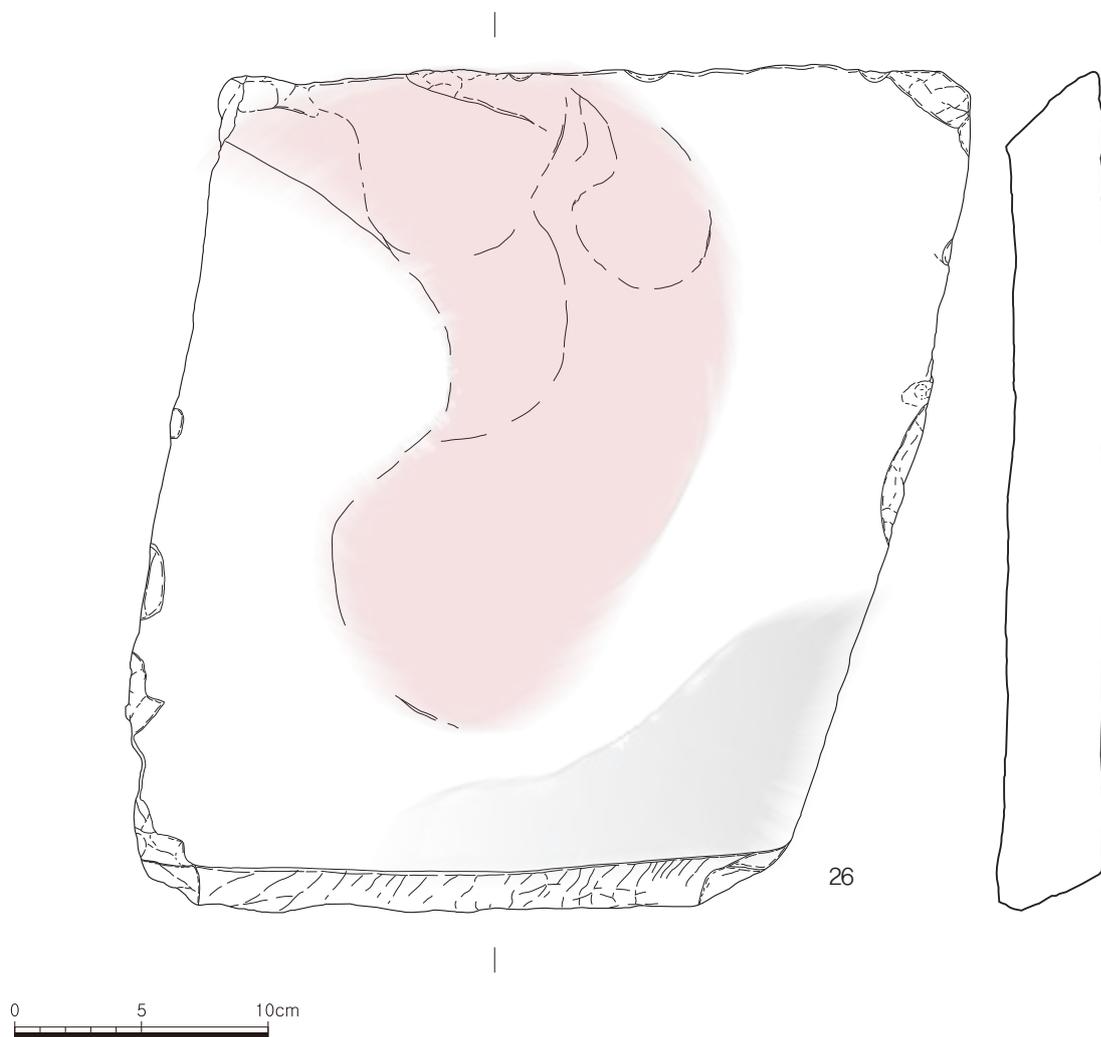
색조는 연황등색(10YR 6/3)이다.

길이 11.7cm 너비 5.3cm 두께 0.4~1.7cm 무게 155.2g

26. 갈판(도면 11, 사진 17)

주거지 서벽에 인접하여 출토된 마름모형의 갈판이다.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암질은 화강암이며 색조는 회백색(5YR 8/2)이다. 특이한 것은 출토 당시 갈판에 붉은색 염료의 흔적이 미세하게 관찰되어 적색마연 토기의 염료(벵갈라, 鐵丹)로 보이만 분석할 수 없어 명확하지 않다. 염료로 추정되는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였다.

길이 31.1cm 너비 29cm 두께 4.2~5.1cm



도면 11. 3호 주거지 출토유물 3

27. 석기반제품(도면 10, 사진 17)

주거지 노지와 남벽 사이에서 출토된 석재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원자연석의 형태이나 전후면에 타격흔이 있으나 추가적인 가공흔은 보이지 않는다.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색조는 연황등색(10YR

7/3)이다.

길이 10.4cm 너비 10.1cm 두께 1.0~3.4cm 무게 540.0g

28. 석기반제품(도면 10, 사진 18-①)

주거지 노지와 남벽 사이 중앙에서 출토된 능형 석재이다. 전면과 측면일부에 마연조정된 흔적이 있다. 색조는 회색(10Y 5/1)이다.

장고 6.4cm 잔폭 11.9cm 두께 0.7~1.1cm 무게 104.9g

29. 석기편(도면 10, 사진 18-①)

주거지 남서쪽에서 출토된 석재로 길고 좁은 형태이다. 전면을 타격하여 크기를 조정된 흔적이 있다. 색조는 연갈색(7.5YR 6/3)이다.

길이 13.3cm 너비 6.9cm 두께 1.2~2.7cm 무게 279.0g

4) 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2, 사진 18-②, 19~22, 23-①)

조사지역 남동쪽 경계에 맞붙어 위치하며, 해발 283.4m에 해당한다. 북서쪽으로 2m 지점에 5호 주거지가, 북동쪽으로 10m 지점에 1호 수혈이 있다. 규모는 길이 753cm, 너비 445cm, 잔존깊이 24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14°-W이다.

유구의 노출은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확인층의 상면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는 중앙에 토층 독을 남기고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파악된 층위를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해가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암갈색 사질토층을 수직에 가까운 L자로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내부에 화재와 관련된 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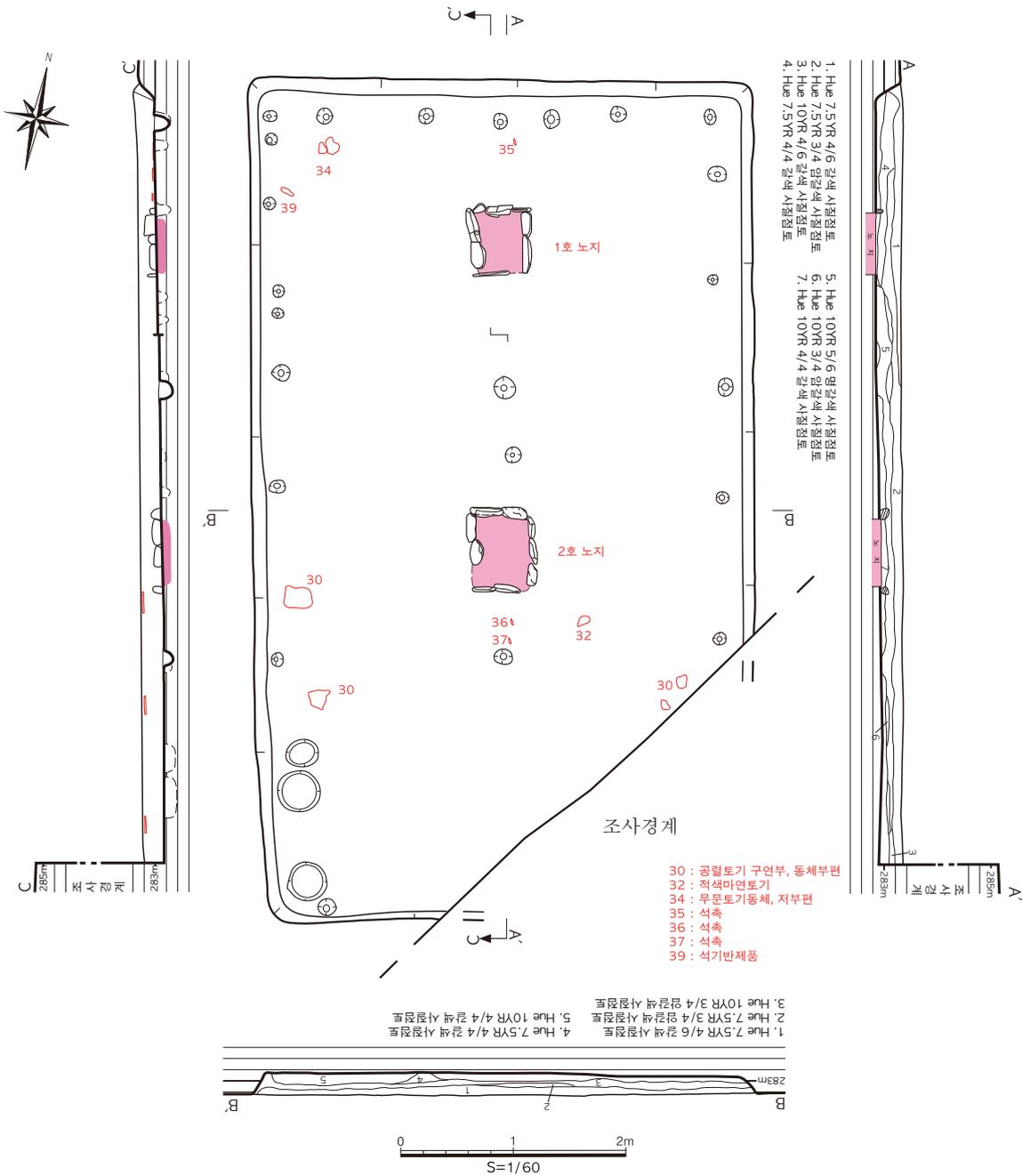
토층은 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명갈색 사질점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개의 층을 이룬다. 퇴적양상은 대체로 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층이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양상으로 자연 폐기 후 장기간에 걸친 유수의 퇴적 현상으로 보인다.

바닥면은 점토를 깔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시설로는 노지 2기, 저장공 3기, 주공 23기가 조사되었다. 노지는 위석식 노지가 2기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북쪽 단벽에 치우쳐 확인된 1호 노지와 중앙에 위치한 2호 노지가 있다. 1호 노지의 경우 석재는 12~35cm 정도 크기의 강돌을 사용하였으며, 2호 노지의 경우 석재는 18~29cm 정도 크기의 강돌을 사용하였다. 노지돌 일부는 결실되었고, 일부는 노지 안쪽으로 넘어진 상태이다. 노지는 2기 모두 (장)방향으로 조성하였으며 트렌치 확인 결과 소토의 두께는 1호 노지 는 약 10cm 이상 두텁게 소결된 상태이고, 2호 노지는 약 5cm 내외로 소결된 상태이다.

저장공은 남벽 모서리에서 총 3기가 확인된다. 지름은 24~36cm, 깊이는 10cm 내외이다. 주공은 총

23기가 조사되었는데, 지름은 15~20cm, 깊이는 5cm 내외이다. 이중 3기는 중심주공으로 노지와 노지 사이에 2기 및 노지외부에 1기 위치하며 나머지 20기는 벽체주공이다. 벽체주공은 남벽을 제외한 벽체 전반에 약 1m 내외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배치되었다.

유물은 저장공 주변에서 공렬토기 구연부편이 확인되며, 중앙 노지 부근에서 적색 마연토기와 석축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12. 4호 주거지

(2) 유물

30. 공렬토기 구연·동체부편(도면 13, 사진 23-②)

주거지 남벽과 중앙노지 사이에서 서벽에 인접하여 출토된 공렬토기 구연·동체부편이다. 구순은 편평하며 공렬은 구순부 하단 약 1cm 지점에서 1.5~2.5cm의 간격으로 밖에서 안으로 불투공하여 시문하였으며 공렬폭은 0.5cm다. 내외면에 테쌓기한 흔적과 손누름 흔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연황갈색(10YR 5/4), 내면은 회갈색(7.5YR 5/2), 속심은 갈회색(10YR 4/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16.9cm 잔폭 26.5cm 두께 0.6~0.9cm

31. 공렬토기 구연부편+단사선문(도면 13, 사진 23-②)

주거지 중앙 노지 인근에서 토층дук 제거시 출토된 공렬토기 구연부편이다. 공렬은 구순부 하단 약 0.9cm 지점에서 1.5cm의 간격으로 안에서 밖으로 투공하여 시문하였으며 공렬폭은 0.6cm다. 확인되는 2개의 공렬은 불완전투공이다. 외면에 공렬 하단 1.9cm 위치에 횡방향의 폭 0.3cm의 침선 1조가 있으며, 횡침선 1.5cm 아래에 폭0.3cm, 간격 1.7cm의 종방향의 침선이 3조가 있다. 내면에 손누름 흔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등색(7.5YR 7/6), 내면은 연황등색(7.5YR 8/4)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모래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7.4cm 잔폭 7.6cm 두께 1.1~1.2cm

32. 적색 마연토기 구연·동체부편(도면 13, 사진 23-②)

주거지 중앙 노지에 인접하여 출토된 적색 마연토기 구연부·동체부편이다. 최대경이 동중위에 위치한다. 경부는 내만하다 구경부에서 직립하며, 구연은 짧게 외반하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적갈색(5YR 4/8)으로 마연한 흔적이 있다. 내면에 손누름 흔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천황등색(7.5YR 8/4), 내면은 등색(7.5YR 7/6), 속심은 갈회색(7.5YR 5/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등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9.3cm 잔폭 9.0cm 두께 0.4cm

33. 단사선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3, 사진 23-②)

주거지 중앙 노지 인근에서 토층дук 제거시 출토된 사선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외면에 길이 0.8cm, 폭 0.2cm의 사방향의 사선을 시문하였고 시문간격은 0.9~1.1cm이다. 색조는 외면은 갈회색(7.5YR 4/1), 내면과 속심은 연갈색(7.5YR 6/3)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모래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4.1cm 잔폭 5.5cm 두께 0.6~0.7cm

34. 무문토기 동체·저부편(도면 13, 사진 24-①)

주거지 북벽과 서벽이 만나는 곳에 인접하여 출토된 무문토기 동체부·저부편이다. 저부는 完存하며 약간 축약한 후 외반하여 올라간다. 내외면은 손누름 조정후 판목구로 조정하고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연등색(10YR 6/3), 속심은 갈회색(10YR 4/1)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석영, 모래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고 7.6cm 복원저경 11.1cm 두께 0.7~1.3cm

35. 석촉(도면 13, 사진 23-②)

주거지 동벽과 남벽 사이 조사지역 경계에서 출토된 이단경식석촉으로 신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능각은 봉부에서 신부의 중앙을 따라 내려오며 1단 경부까지 이어진다. 능각을 중심으로 신부와 경부는 좌우 사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으며, 신부의 횡단면은 마름모꼴, 1단 경부의 횡단면은 육각형, 2단 경부의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길이 6.3cm 너비 1.2cm 두께 0.2~0.5cm 무게 3.5g

36. 석촉(도면 13, 사진 24-①)

주거지 동벽과 남벽 사이 조사지역 경계에서 출토된 이단경식석촉으로 봉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능각은 봉부에서 신부의 중앙을 따라 내려오며 1단 경부까지 이어진다. 능각을 중심으로 신부와 경부는 좌우 사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으며, 신부의 횡단면은 마름모꼴, 1단 경부의 횡단면은 육각형, 2단 경부의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색조는 회색(5Y 4/1)이다.

잔고 5.6cm 너비 1.5cm 두께 0.3~0.7cm 무게 5.8g

37. 석촉(도면 13, 사진 24-①)

주거지 동벽과 남벽 사이 조사지역 경계에서 출토된 이단경식석촉이다. 능각은 봉부에서 신부의 중앙을 따라 내려오며 1단 경부까지 이어진다. 능각을 중심으로 신부와 경부는 좌우 사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으며, 신부의 횡단면은 마름모꼴, 1단 경부의 횡단면은 육각형, 2단 경부의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색조는 녹회색(2.5GY 6/1)이다.

길이 5.4cm 너비 1.5cm 두께 0.2~0.7cm 무게 5.6g

38. 지석(도면 13, 사진 24-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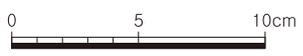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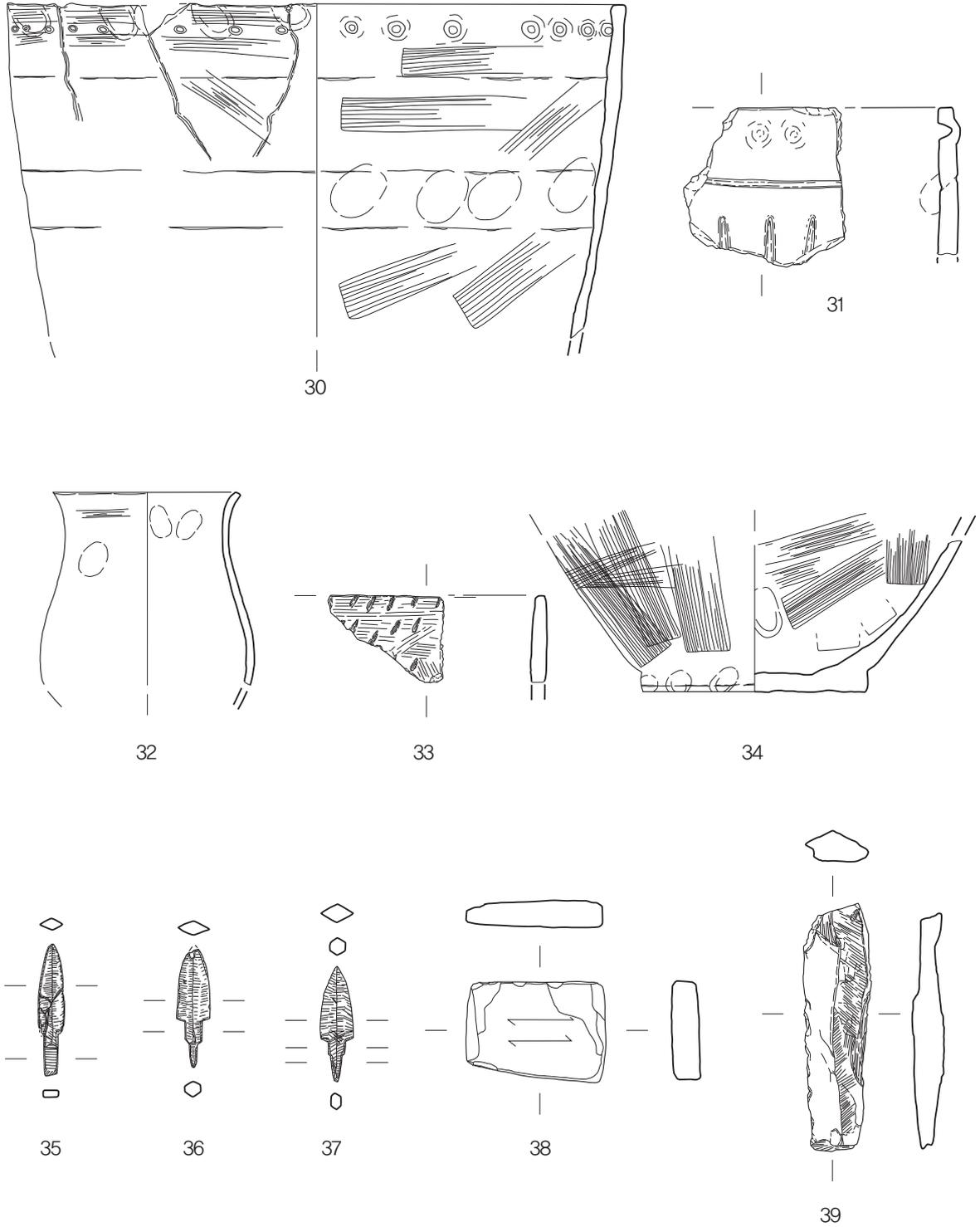
주거지 중앙 노지 인근에서 토층дук 제거시 출토된 지석으로 평면형태는 능형이다. 네면을 모두 마연하여 매끄럽게 하였으나 주 사용면은 전면이다. 전면은 종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으며 측면은 종·횡방향으로 후면은 종방향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다.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색조는 연황등색(10YR 6/3)이다.

길이 6.6cm 너비 4.7cm 두께 0.8~1.2cm 무게 78.2g

39. 석기반제품(도면 13, 사진 24-①)

주거지 북벽에 인접한 서벽에서 출토된 석재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횡단면은 삼각형이다. 후면에 타격흔이 있다. 색조는 회색(10Y 4/1)이다.

길이 11.7cm 너비 3.0cm 두께 0.8~0.9cm 무게 53.6g



도면 13. 4호 주거지 출토유물

5) 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4, 사진 24-②, 25,26,27-①)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283.5m에 해당한다. 남동쪽으로 2m 지점에 4호 주거지가, 북쪽으로 15m 지점에 3호 주거지, 북동쪽으로 13m 지점에 1호 수혈이 있다.

규모는 길이 289cm, 너비 260cm, 잔존깊이 19cm이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9°-W이다.

유구의 노출은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확인층(황갈색 사질점토-입회조사 유구포함층)의 상면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는 중앙에 토층 독을 남기고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파악된 층위를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수직에 가까운

ㄴ자로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하단부에 목탄과 재층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목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주거지를 해체한 후 불을 질러 폐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층은 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등으로 총 4개 층을 이루며 퇴적양상은 대체로 외부에서 유입된 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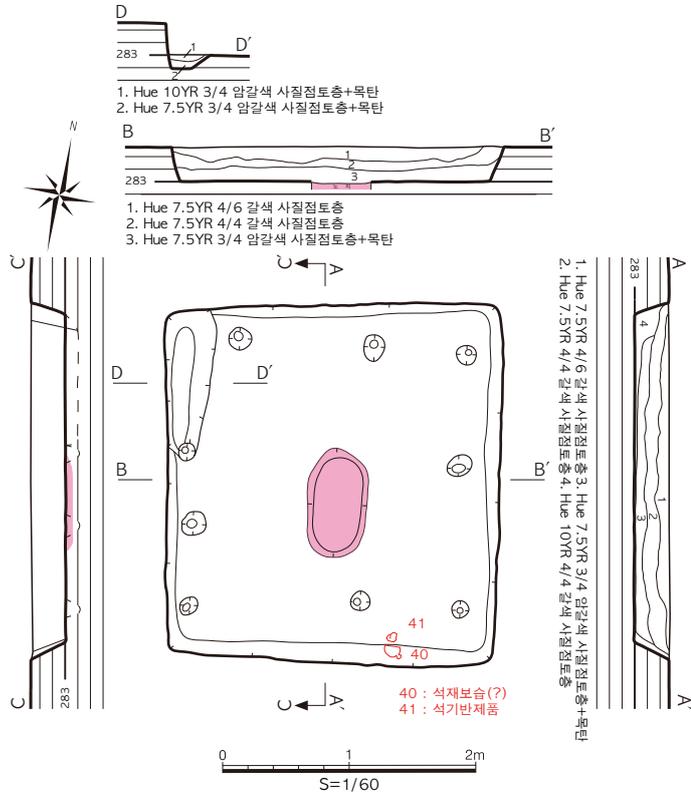
바닥면은 점토를 깔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1기, 주공 9기가 조사되었다. 노지는 길이 87cm, 너비 51cm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주거지 중앙에 위치한다. 주공은 전면에 총 9기가 약 0.5m~1.3m의 간격으로 배치하였는데, 지름은 12~20cm, 깊이는 10cm 내외이다.

유물은 주거지의 남벽에서 석기 반제품과 석재보습(?) 등이 확인된다.

(2) 유물

40. 석재보습?(도면 15, 사진 27-②)

주거지 남벽 서쪽 1/3지점에서 출토된 석재 보습이다. 전·후면은 종방향으로 연마하였으며 가장자리에는 타격흔이 보인다. 장타원형으로 돌출된 부분은 장대와 연결하기 위한 결합부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색조는 연황등색(10YR 6/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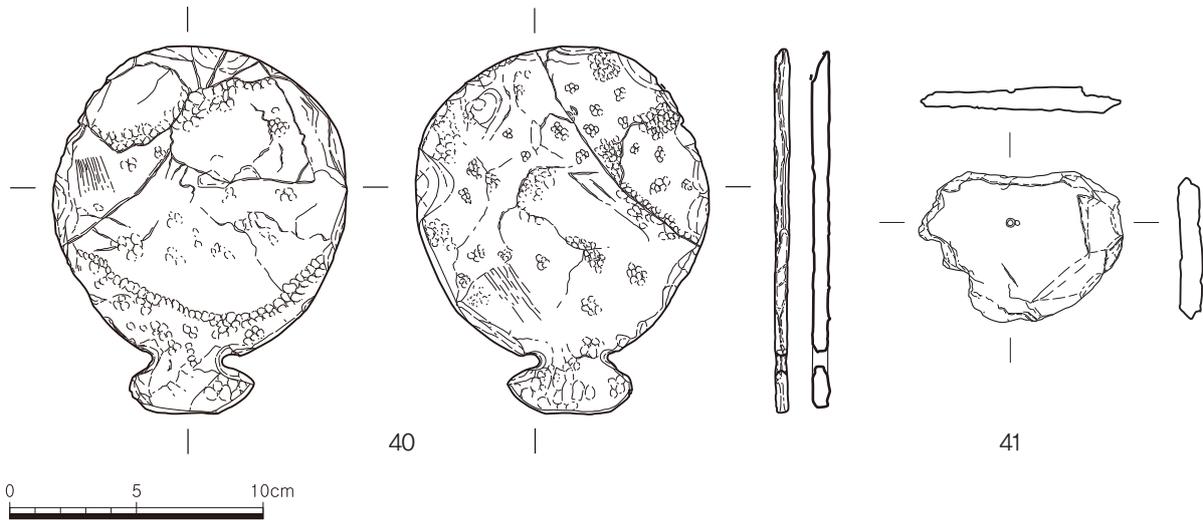
도면 14. 5호 주거지

길이 14.5cm 너비 11.4cm 두께 1.1cm 무게 138.2g

41. 석기 반제품(도면 15, 사진 27-②)

주거지 남벽 서쪽 1/3지점에서 출토된 부정형의 석재이다. 가장자리에 타격흔이 있다. 색조는 회색(10Y 5/1)이다.

잔고 6.0cm 잔폭 7.9cm 두께 0.6~1.0cm 무게 61.8g



도면 15. 5호 주거지 출토유물

2.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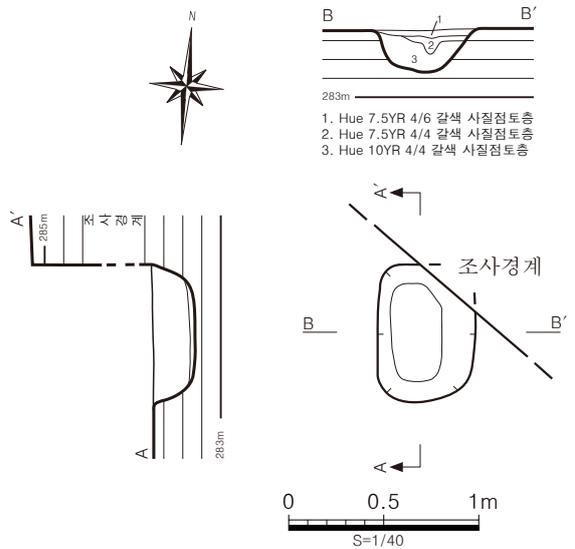
수혈은 조사지역 동벽과 접하여 1기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 74cm, 너비 45cm 잔존깊이 21cm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다만 내부에 확인된 유물은 없어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1) 1호 수혈

(1) 유구 도면 16, 사진 28, 29-①)

조사지역 북쪽 조사경계 부분에 맞붙어 위치하며, 해발 283.7m에 해당한다. 남동쪽으로 3호 주거지가 북동쪽으로 5호 주거지가 있다.

규모는 길이 74cm, 너비 45cm, 잔존깊이 21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6°-W이다.



도면 16. 1호 수혈

유구의 노출은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확인층(황갈색 사질점토-입회조사 유구포함층)의 상면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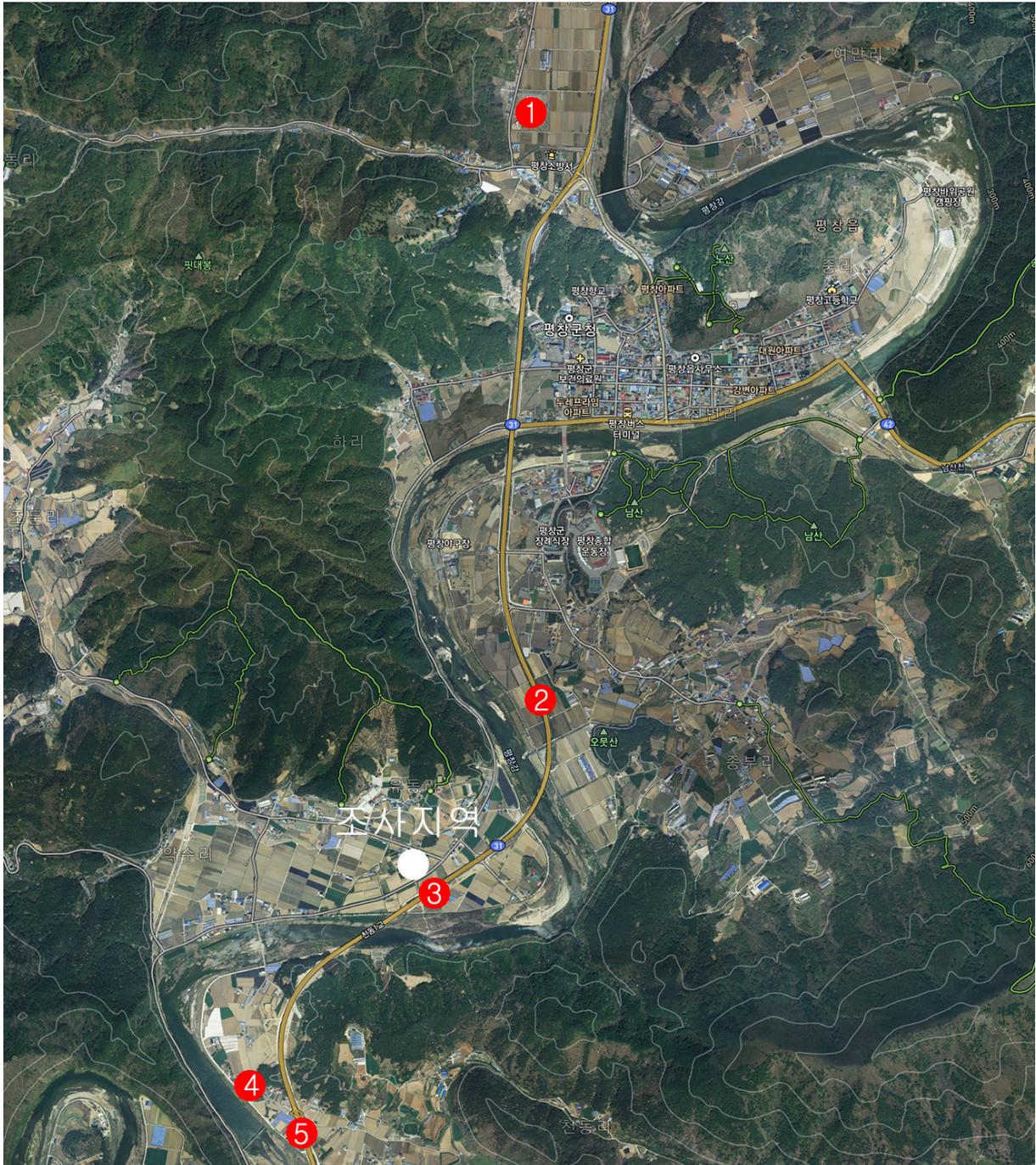
조사는 중앙에 토층을 남겨 층위를 파악한 후 상부부터 한층씩 제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바다면은 종방향으로는 편평하나 횡방향으로는 동쪽으로 10°가량 기울어 있으며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다.

토층은 갈색 사질점토 등 총 3개 층을 이루며 각 층은 차례로 퇴적되어 있다. 내부 출토 유물이 없어 수혈의 용도 및 성격은 파악하기 어렵다.

V. 고찰

유동리 유적은 청동기 주거지 5기, 수혈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최근 들어 평창강 일대에 대한 조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동리 유적 역시 평창강 유역에 위치한다.

평창강은 길이 220km로 계방산(1,577m)에서 발원하여 남서로 흐르다 봉평면에서 홍정천·대화천·계촌천과 합류하여 평창강을 이룬다. 이후 봉평과 대화를 양쪽으로 가르며 방림면의 동쪽과



지도 7. 평창 유동리 주변 청동기 유적 분포지도(출처,다음)

평창읍을 지나 영월에서 동강과 합류하는데, 이를 서강이라 한다. 동강과 합류한 평창강(서강)은 남한강의 상류로서 단양·제천·충주호로 이어져 팔당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의 본류를 이루게 된다. 평창강은 유속이 빠르고 심하게 곡류하여 평창강 중하류에 이르러서는 주변에 비교적 넓은 충적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평창강 유적에서 확인된 유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 평창 후평리 유적¹⁸⁾, 2 평창 중부리 유적¹⁹⁾ 3 평창 약수리 취락²⁰⁾, 4 평창 천동리220번지 유적²¹⁾, 5 평창 천동리·마지리 취락²²⁾등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1) 주거지의 입지 및 특징

논경작지에 위치하는 유동리 유적은 해발고도 약 283.2~283.7m 내외이며 동쪽으로 약 700m 이격되어 평창강이 동에서 서로 곡류한다. 조사지역을 기준으로 주변은 해발 약 550m 내외의 산맥 등에 둘러싸여 있으며 평창강의 퇴적사면에 위치한다. 따라서 대상지 이외에도 주변으로 매우 넓게 충적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부분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1917년 근세지도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이곳은 대부분 약수리 유물산포지 및 유동리 유물산포지, 중부리 유물산포지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거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5기가 확인되었다. 모두 중복 없이 확인되는데 다만, 조사지역이 협소하여 주거지 2,3호는 경계부에 걸쳐있으며 주거지 4호 역시 일부 모서리가 경계부와 접한다. 따라서 주거지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은 1,4,5호이며 2,3호는 파악하기 어렵다.

우선 주거지의 평면형태²³⁾를 살펴보면 1,4호(장단비 약 1.6:1) 장방형과 5호(장단비 약 1.1:1) 방형으로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주공, 노, 저장공 등이 확인된다. 주공은 1,4,5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주거지 벽면을 따라 약 1m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4호 주거지의 경우 주 주공 주변으로 일부 보조주공도 확인된다. 벽주공외에 4호 주거지에서 중앙주공이 확인되는데 주거지의 중심열을 기준으로 노지와 노지 사이에 배치된다.

노지는 위석식과 토광식이 확인되는데 1,3,4호는 위석인 노지 5호는 토광식 노지이다. 위석식 노지중 1,3호는 주거지의 중앙열에서 단벽에 치우쳐 1기 확인되며 4호는 노지와 단벽사이 노가 1기 추가되어

18)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平昌 後坪里 遺蹟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3, 『平昌 鍾阜里 遺蹟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유동리·중부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3, 『平昌 藥水里 聚落 -국도31호선 영월~방림2 도로공사구간(유동리)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1) 江原文化財研究所, 2011, 『平昌 泉洞里220번지遺蹟-평창 천동리220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2)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2, 『平昌 泉洞里·馬池里 聚落 -영월~방림(2)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매장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3) 1.3:1 이하 방형, 2.5:1 이하 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총 2기의 노지가 있다. 토광식은 5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노지주변에 수혈을 파고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장공은 4호 주거지의 남벽 모서리에서 3기 확인되며, 다른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 잔존

【표 2】 청동기 주거지 제원

유구 번호	규모(cm)			평면형태	장축방향	출토유물	특징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790	469	32	장방형	N-10-W	이단경식 석축, 반월형석도, 갈돌, 갈판, 석부, 석기반제품, 구순각목 공렬토기	주공, 노지, 목탄	-
2	(324)	(230)	29	장방형	W-5-S	토기편	-	조사지역 경계부
3	(556)	430	38	장방형	N-8-W	이단병식 석검, 갈판, 석기, 석부, 호형토기	노지	조사지역 경계부
4	753	445	24	장방형	N-14-W	공렬토기, 이단경식 석축	노지, 주공, 저장공	조사지역 경계부
5	289	260	19	방형	N-9-W	석기(보습?), 토기편	노지, 주공	-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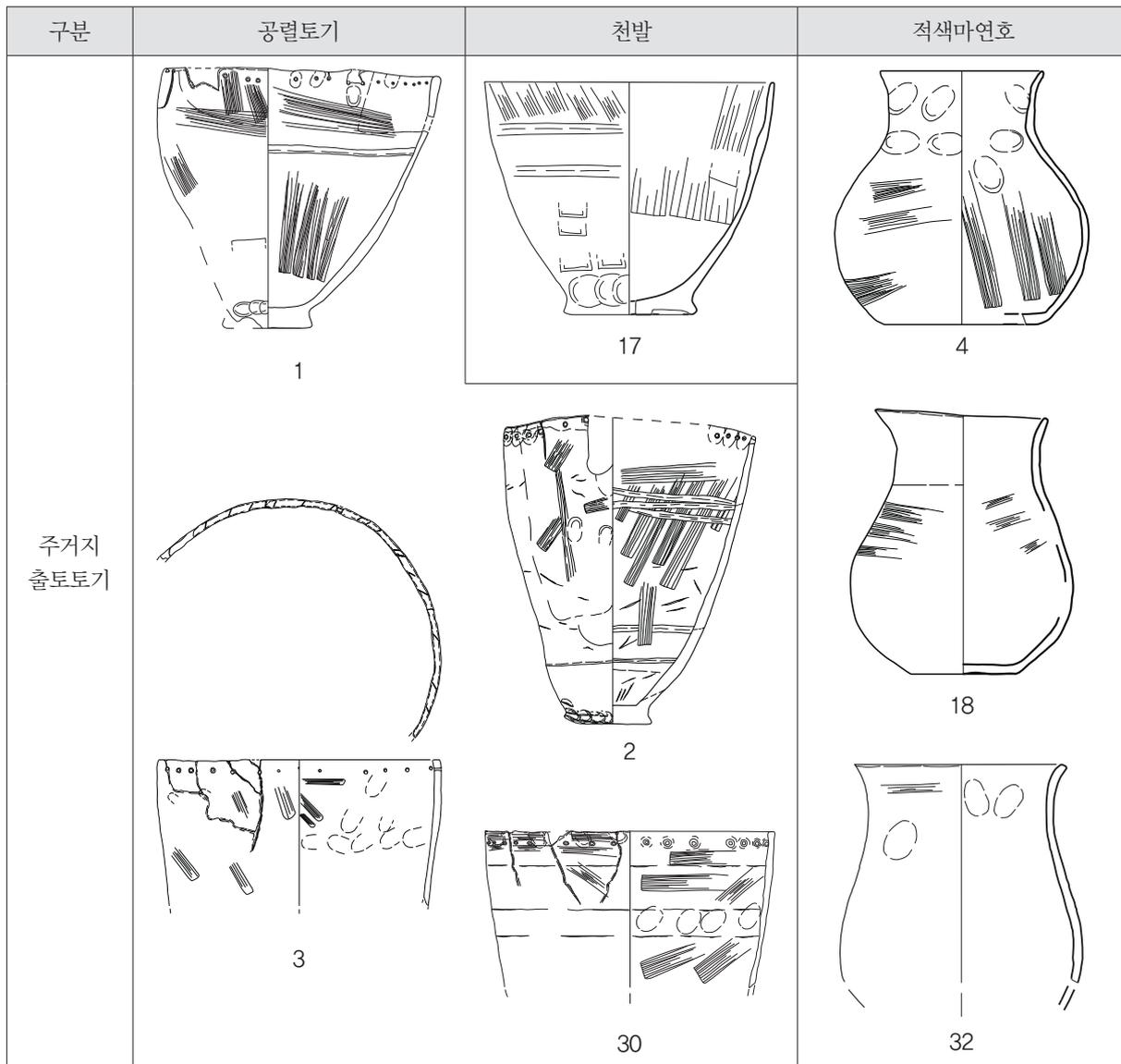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총 41점으로 이중 토기는 13점, 석기는 28점이다. 토기의 기종은 호, 발(심발·발), 적색마연토기가 확인되며 문양은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확인된다. 출토양이 많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완형은 1호 주거지에서 공렬문토기 2기가 확인되며 3호 주거지에서 적색마연토기 1기가 확인된다. 적색마연토기는 평저이며 이외에도 1호 주거지에서 공렬문과 구순각목이 함께 시문된 토기가 확인된다.

석기는 석검, 석촉, 석도, 석부, 지석, 갈판, 방추차, 보습(?)등으로 출토양에 비해 종류는 다양한 편이다. 석검은 이단병식 석검으로 3호 주거지에서 1기 출토되는데 혈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석촉은 1,4호 주거지에서 총 4기가 확인되며 모두 이단경식 석촉이다. 반월형석도는 총 4기로 주형과 어형이 확인되며 석부는 3기 모두 합인석부이다. 이외에 지석, 갈판, 방추차, 석기반제품등이 있다.

【표 3】 청동기 주거지 출토유물 현황표

종류 유구	토기						석기									계
	(구순 각목) 공렬	적색 마연	발	호	저부	동체	석검	석촉	석도	석부	지석	갈판	방추 차	석재 보습 (?)	석재	
1호	3	1			1			1	3	1		1			4	15
2호					1											1
3호		1	1				1		1	2	2	1	1		3	13
4호	2	1			1	1		3			1				1	10
5호														1	1	2
계	5	3	1		3	1	1	4	4	3	3	2	1	1	9	41

【표 4】 주거지 출토 토기 일괄 (축척부동)



【표 5】 주거지 출토 석기 일괄(축척부동)

구분	석검	석촉	석부	석도	보습(?)	방추차
주거지 출토석기	 19	 6	 7	 8	 40	 23
	 37	 35	 20	 9	 22	
		 36	 21	 10		

3) 편년

주거지의 구조는 중·소형의 방형내지 장방형으로 위석식 노가 1기 또는 2기 배치된다. 유물은 (구순각목) 공렬토기, 석검, 이단경식 석촉 등이다.

이와 같은 주거지의 특징과 유물은 남한강 유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조동리식 주거지의 특징으로 주변에서 조사된 약수리, 후평리, 종부리 등의 주거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조동리식 주거지와 관련된 연구²⁴⁾에 따르면 이 주거지는 아래 표6)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표 6】 조동리 주거지 단계

단계	방사성탄소연대(BP)	특징 및 구조	출토유물
1단계	2940±40BP	미사리→조동리 과도기적 단계 미사리 주거구조(위석식노, 초석)	공렬토기, 이단병식·유경식석검, 삼각만입, 무경식석촉, 이단경식석촉, 제형석도, 동북형석도, 환상석기, 어망추
2단계	2950~2850BP	조동리식 주거지 혼암리식 토기등장	(구순각목)공렬토기, 혼암리식 토기등장, 무경식, 이단경식석촉, 환상석기, 대형방추차
3단계	2850~2750BP	2단계와 유사	이단병식석검의 형태변화, 대부토기 대각, 일단경식석촉의 등장
4단계	2750~2600BP	주거지 세장화	구순각목 공렬토기, 일단경식 석촉, 일체형석촉, 일단병식석검, 유구석부

24) 김권중, 「早洞里類型的 時·空間的 正體性」, 2016, 중부고고학회 15.

이를 바탕으로 유동리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특징과 유물을 살펴보면 각각의 주거지에 대한 단계가 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구순각목) 공렬토기와 이단경식 석축이 확인된 1,4호 주거지는 조동리 2단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외에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출토유물의 양이 많지 않아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주거지에서 확인된 목탄의 방사성 탄소연대 분석 결과 5호 주거지의 경우 $2790 \pm 30\text{BP}$ 가 확인되어 3단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동리 유적의 전체적인 시기는 청동기 시대 전기, 조동리 2,3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준)

유구번호	방사성 탄소연대BP	보정연대(Calibrated Ages)	비고
1호 주거지	$2850 \pm 30\text{BP}$	1111 - 926 cal BC	조동리 2단계
5호 주거지	$2790 \pm 30\text{BP}$	1011 - 889 cal BC	조동리 3단계

VI. 맺음말

평창 유동리 유적은 입회조사에서 문화층과 유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조사 대상지 및 대상사업이 소규모 국비발굴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2018년 한국문화재단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고, 재단에서는 신속한 발굴조사 진행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2018년 07월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한국문화재단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2018년 08월 30일부터 용역을 중지 하였다가 2019년 04월 12일 용역을 재개하였으며, 2019년 04월 22부터 동년 06월 07일(실조사일수 32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5기와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대체로 남-북방향으로 평면형태는 방형 및 장방형이다.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노지와 주혈 저장공 등을 갖추고 있다. 노지는 위석식 노지와 토광식 노지가 조사되었는데 위석식 노지의 경우 주거지의 중앙에서 단벽에 치우쳐 1~2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15~30cm 가량의 강돌을 사용하였다.

저장공은 4호 주거지에서만 노출되었는데 남벽에 인접한 서벽에서 지름 24~36cm, 깊이는 10cm 내외의 총 3기가 조사되었다.

주공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약 1m 내외의 간격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주공은 주거지 중앙에 위치한다. 지름은 15~20cm, 깊이는 5cm 내외이다.

출토유물은 구순각목공렬토기와, 적색마연토기, 석검, 석촉, 반월형석도 등이 수습되었다.

주거지의 특징과 유물을 살펴보면 각각의 주거지에 대한 단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구순각목) 공렬토기와 이단경식 석촉이 출토된 1,4호 주거지는 조동리 2단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지에서 노출된 목탄의 방사성 탄소연대 분석 결과 5호 주거지의 경우 $2790 \pm 30BP$ 의 연대가 도출되어 조동리 3단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동리 유적의 전체적인 시기는 청동기 시대 전기, 조동리 2,3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중심연대는 기원전 10~9세기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지역은 청동기시대 취락의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기 조사된 약수리 유적 청동기 시대 주거지 21기를 포함하여 이 일대에 대단위 마을유적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후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상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사진 2. 조사지역 제토 전경(① 1차제토, ② 2차제토)



사진 3. 1호 주거지(① 조사 전 전경, ②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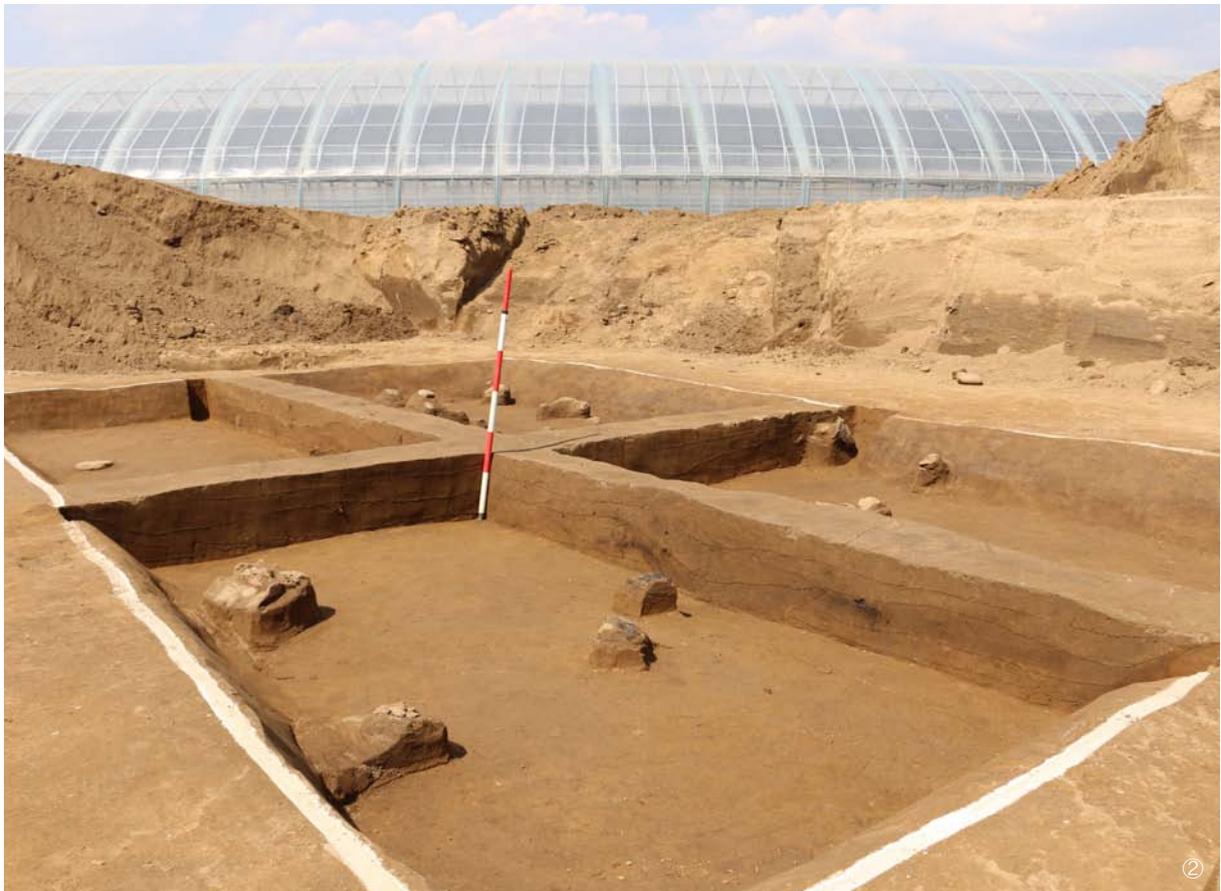


사진 4. 1호 주거지(① 조사 완료, ② 토층)



사진 5. 1호 주거지 (① 노지, ② 유물노출)



사진 6. 1호 주거지(①,② 유물노출)



사진 7.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



사진 8. 1호 주거지 출토유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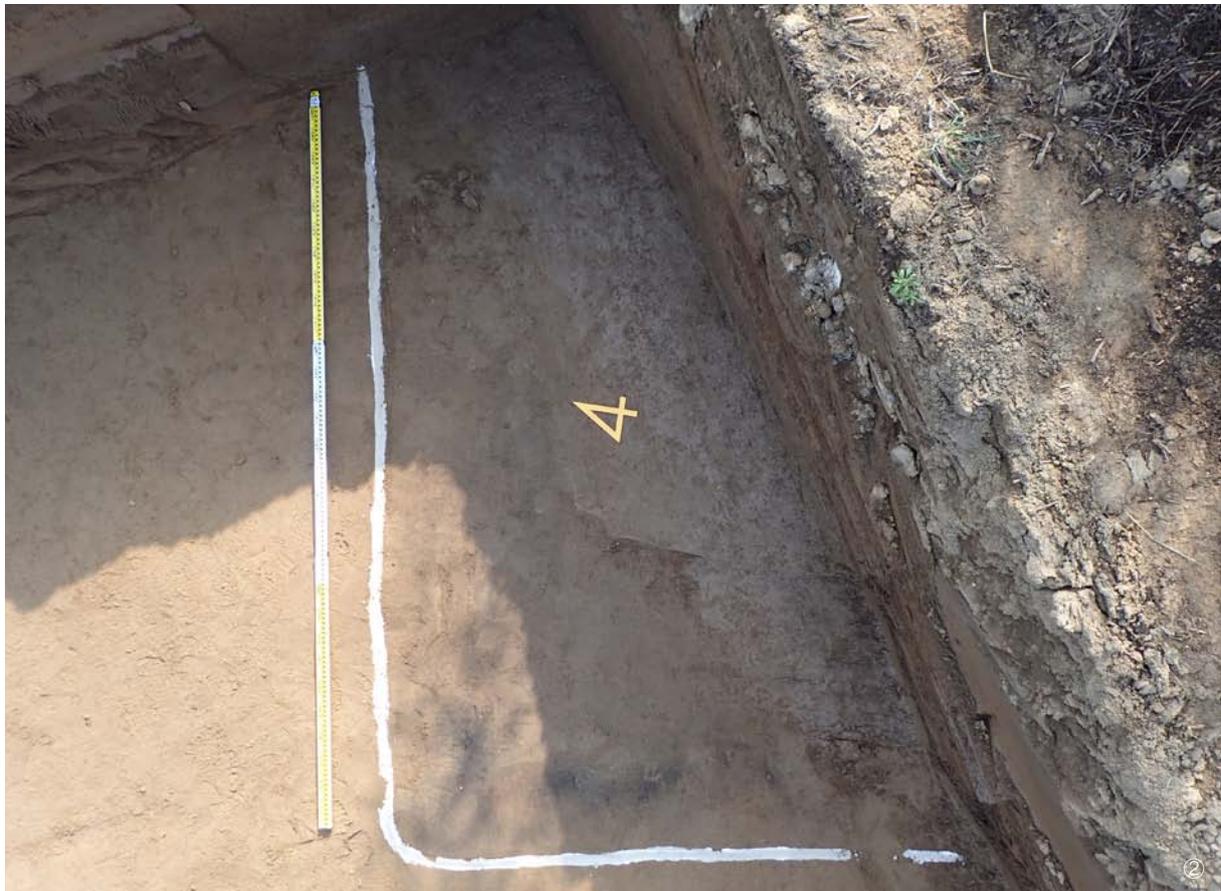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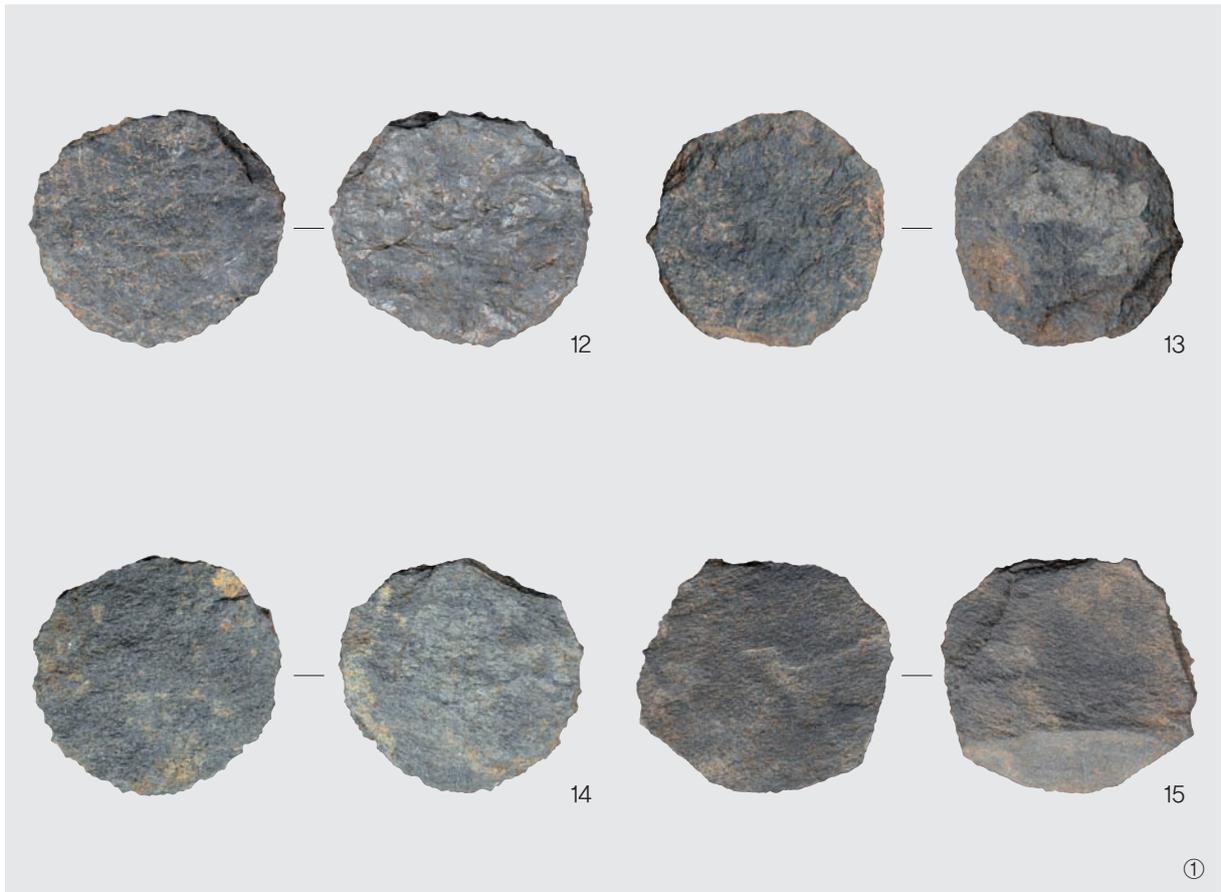


사진 9. ① 1호 주거지 출토유물 3, ② 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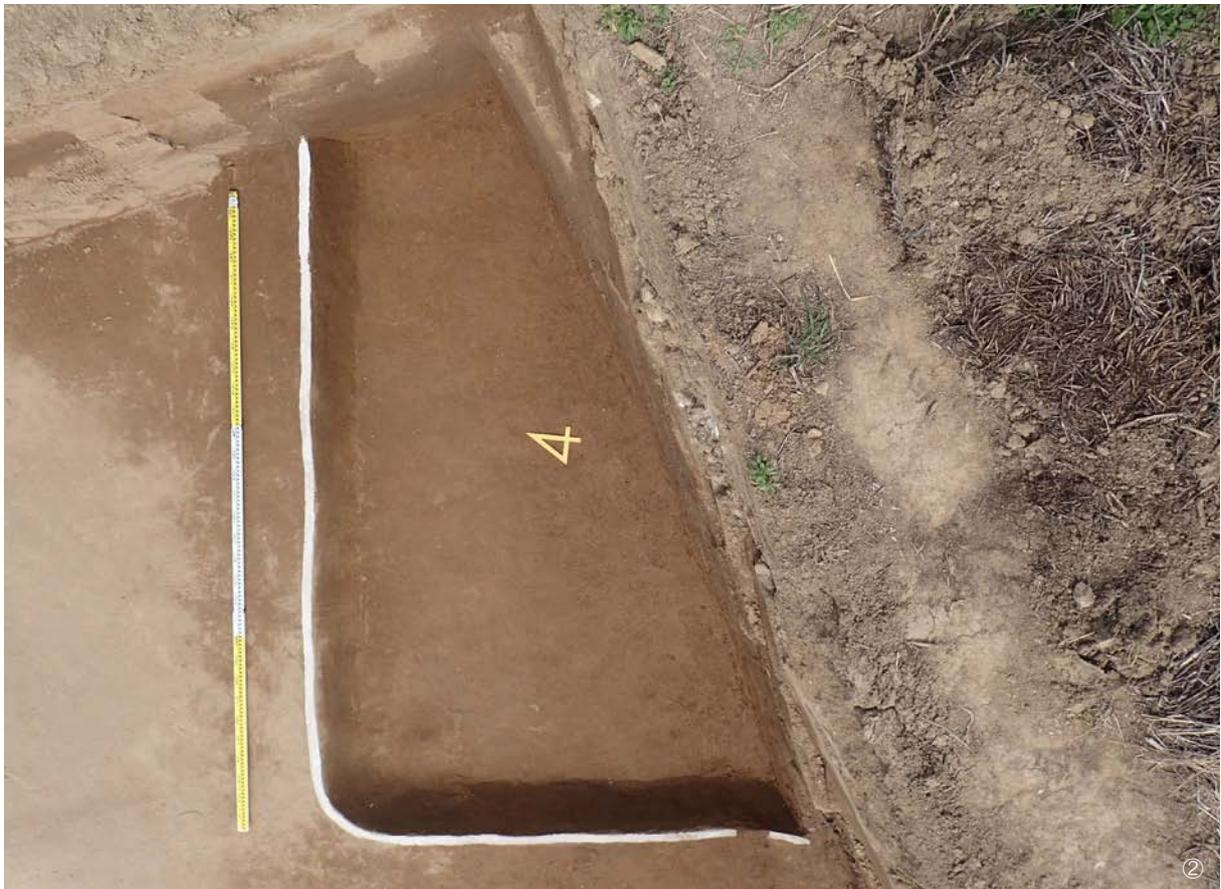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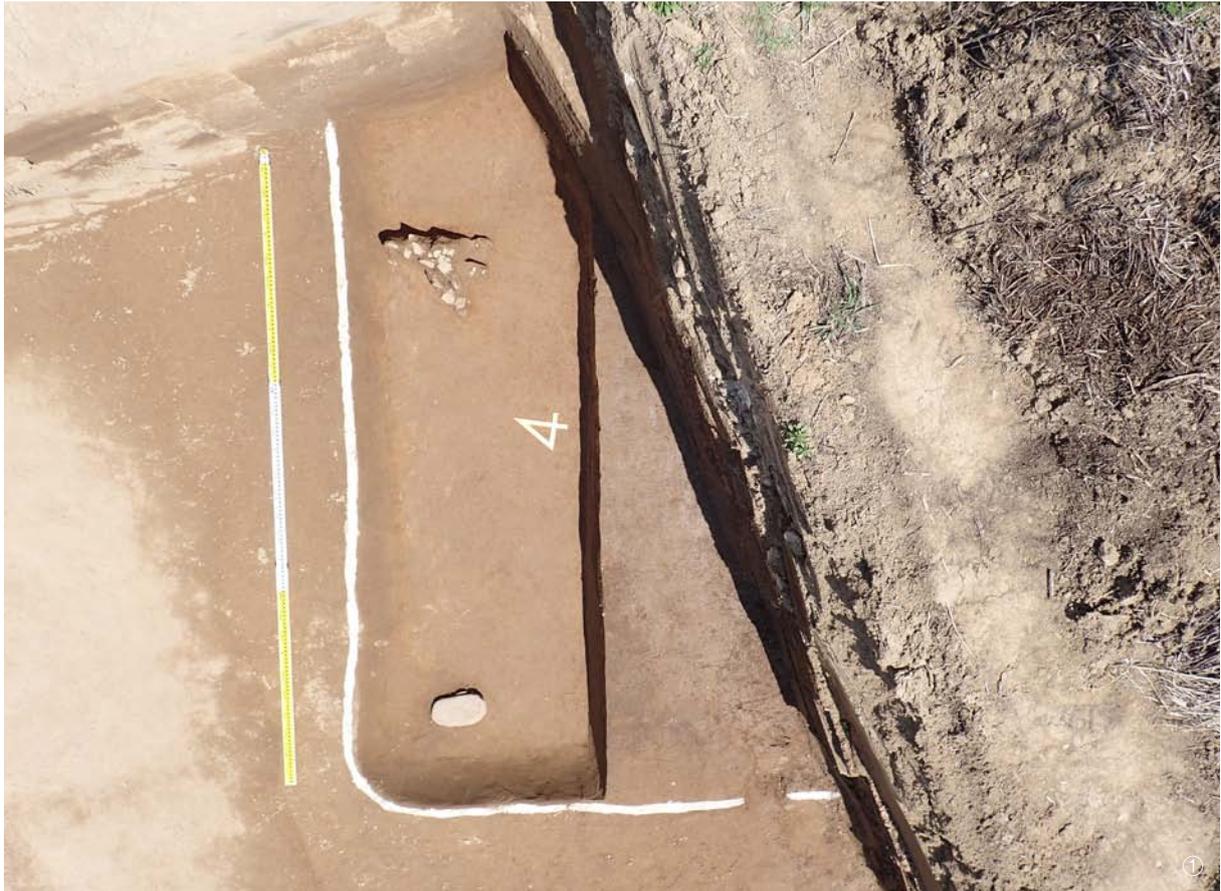


사진 10. 2호 주거지 (① 조사 중 전경, ② 조사완료)



사진 11. 2호 주거지 (① 토층, ② 유물노출, 출토유물)



사진 12. 3호 주거지(① 조사 전 전경, ② 조사 중 전경)



사진 13. 3호 주거지(① 조사완료, ② 토층)



사진 14. 3호 주거지(① 노지, ② 유물노출)



사진 15. 3호 주거지(①, ② 유물노출)



사진 16. 3호 주거지 출토유물 1



사진 17. 3호 주거지 출토유물 2



사진 18. ① 3호 주거지 출토유물 3, ② 4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



사진 19. 4호 주거지(① 조사 중 전경, ② 조사완료)



사진 20. 4호 주거지 토층(① 단축, ② 장축)



사진 21. 4호 주거지 노지 토층(① 1호, ② 2호)



사진 22. 4호 주거지(①,② 유물 노출)



사진 23. 4호 주거지(① 유물노출, ② 출토유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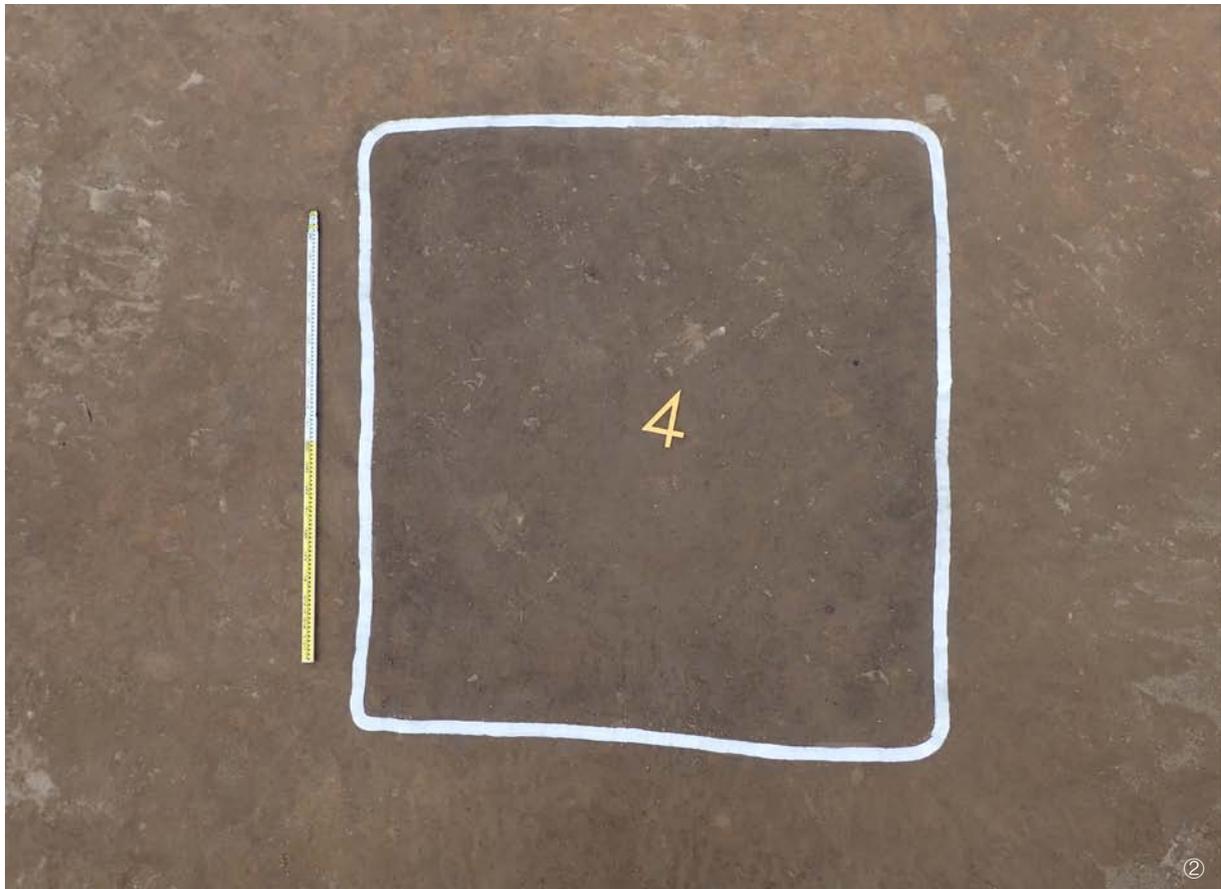


사진 24. ① 4호 주거지 출토유물 2, ② 5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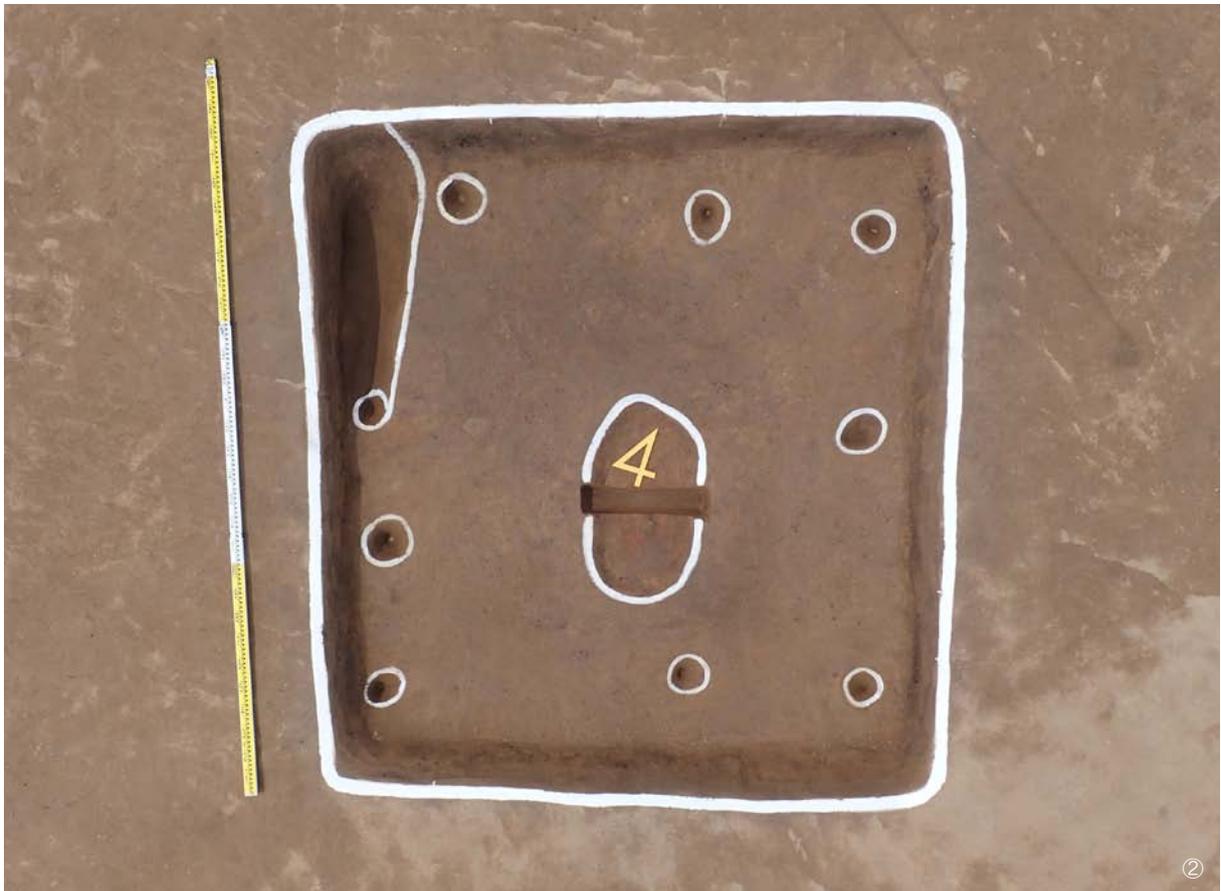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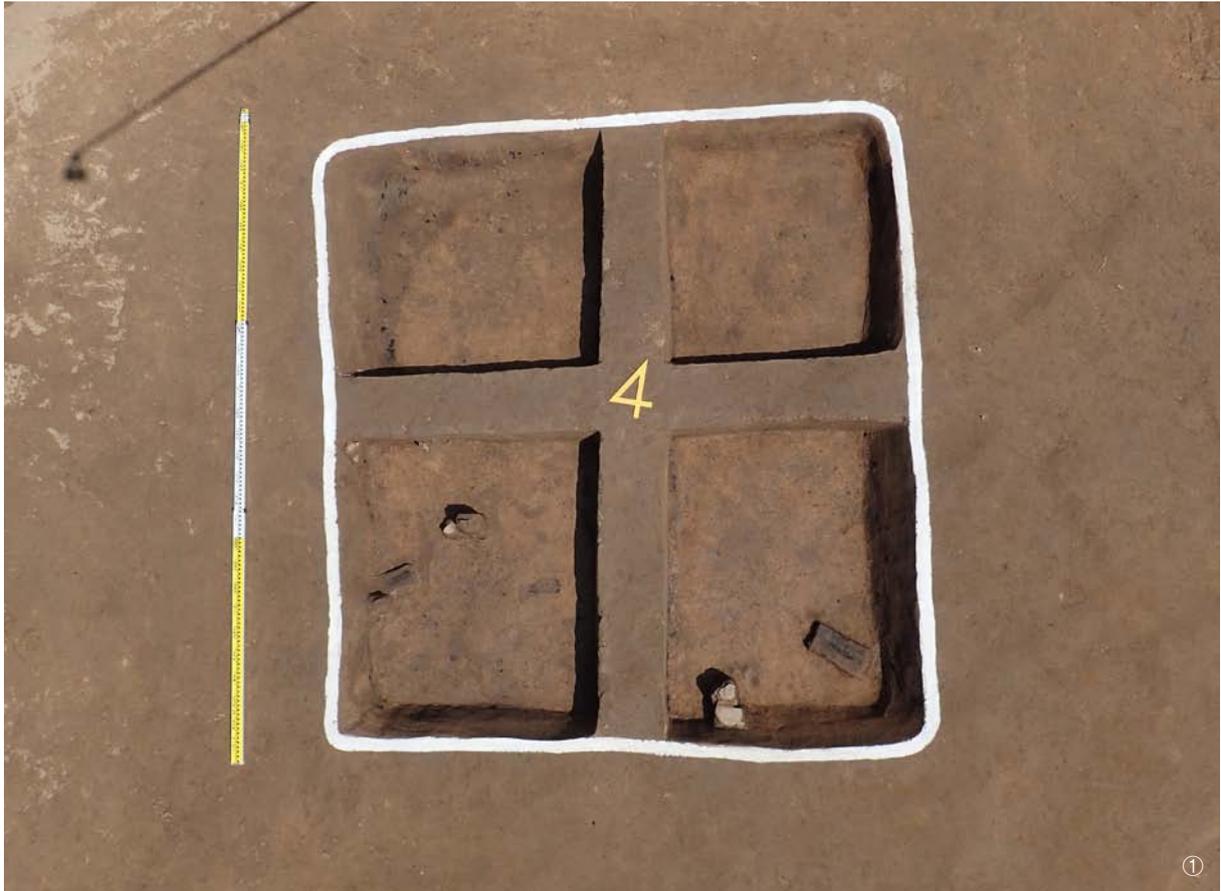


사진 25. 5호 주거지(① 조사 중 전경, ② 조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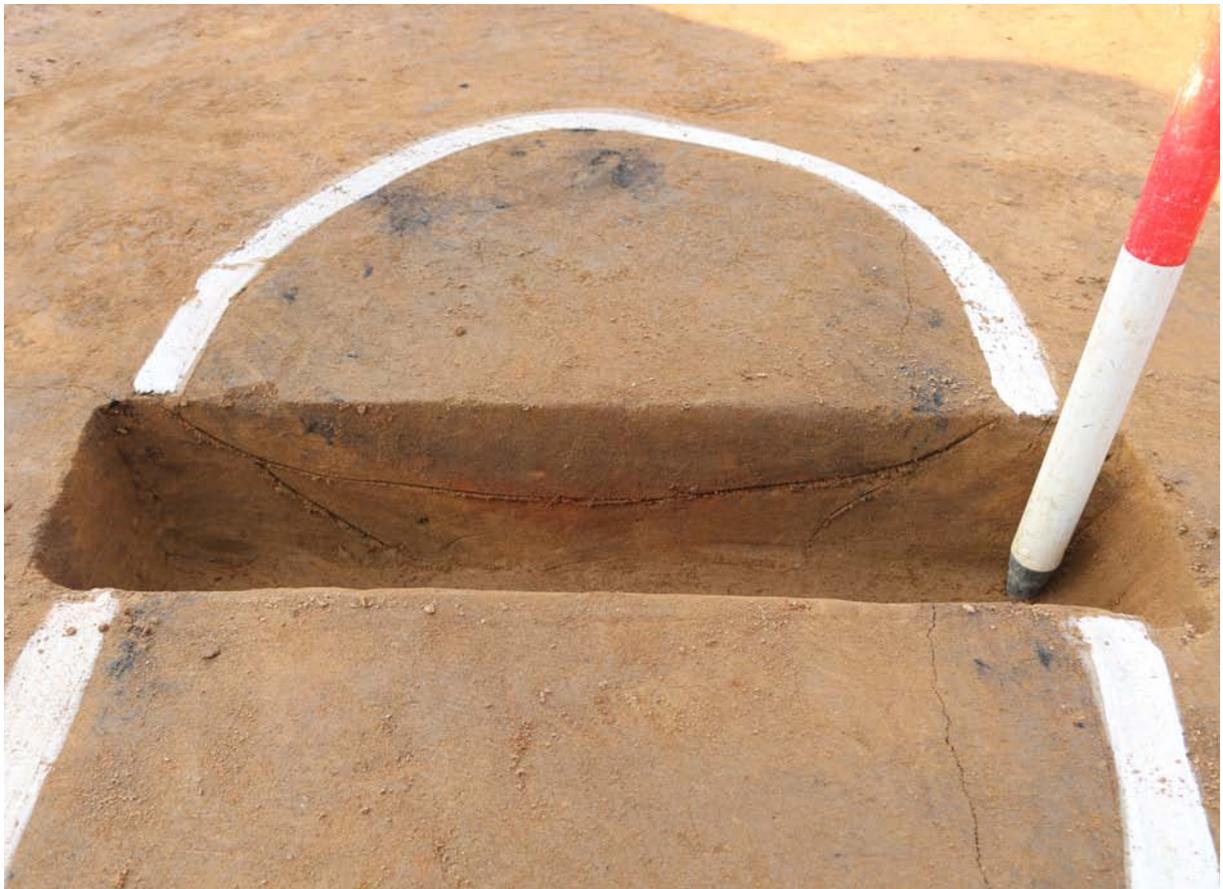


사진 26. 5호 주거지(① 토층, ② 노지 토층)



사진 27. 5호 주거지(① 유물노출, ② 출토유물)



사진 28. 수혈(① 조사 전 전경, ② 토층)



사진 29. ① 수혈 조사완료, ② 학술자문회의의 광경 1



사진 30. ① 학술자문회의의 광경 2, ② 현장복토 완료 후 전경

부 록

방사성탄소 연대 분석 보고서

Bong Joon Kim
고려문화재연구원

보고 날짜: 2019년 8월 23일
시료 접수: 2019년 8월 13일

시료 정보 및 데이터 시료 코드 번호 일반 방사성탄소 연대 (BP) 혹은
Percent Modern Carbon (pMC) 와 안정
동위원소

Beta - 534067	Sample 5	2790 +/- 30 BP	IRMS δ13C: -27.0 o/oo
(87.1%)	1011 - 889 cal BC(2960 - 2838 cal BP)		
(8.3%)	882 - 846 cal BC(2831 - 2795 cal BP)		
시료 종류:	Charcoal		
전처리:	(탄화 물질) 산/알칼리/산		
분석 물질:	탄화 물질		
분석 방법:	AMS-일반 결과 보고		
Percent Modern Carbon:	70.66 +/- 0.26 pMC		
Fraction Modern Carbon:	0.7066 +/- 0.0026		
D14C:	-293.42 +/- 2.64 o/oo		
Δ14C:	-299.29 +/- 2.64 o/oo(1950:2019)		
측정 방사성탄소 연대:	(d13C 보정 없음)2820 +/- 30 BP		
보정:	BetaCal3.21: HPD method: INTCAL13		

모든 결과는 ISO/IEC-17025:2005 인증을 받았으며, 외부 하청업체나 인턴 학생을 고용해서 분석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작업은 본사 소유의 4대의 자체 NEC 가속 질량 분석기와 4대의 Thermo 동위원소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진행했으며, 일반 방사성탄소 연대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는 Libby의 반감기 (5568 년)을 이용하는데, 전체 동위원소 분별 작용을 고려해 보정하며, 일반 달력 보정을 사용했으며, 연대는 10년으로 반올림되며, 방사성탄소 연대인 BP (Before Present), (여기서 present = 1950년 입니다.)가 사용되었습니다.

BetaCal 3.21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in published OxCal format

(highest probability ranges: INTCAL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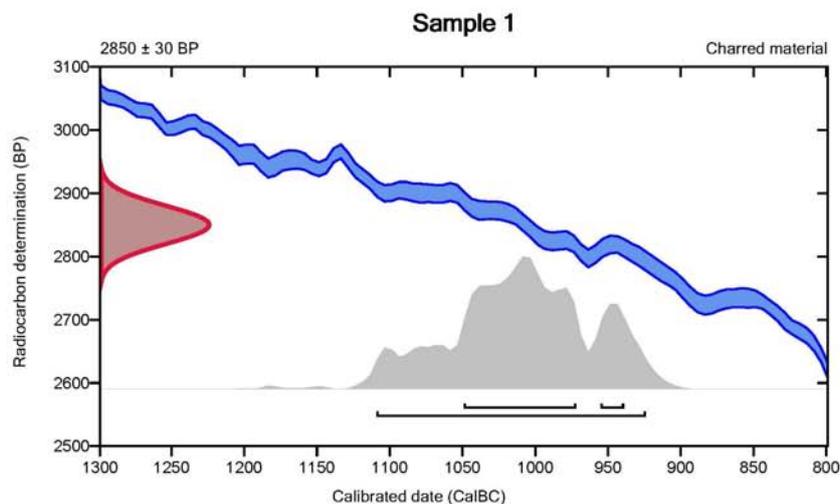
(Variables: C13/C12 = -24.9 o/oo)

Laboratory number **Beta-534066**Conventional radiocarbon age **2850 ± 30 BP**

95.4% probability

(95.4%) 1111 - 926 Cal BC (3060 - 2875 Cal BP)

68.2% probability

(59.2%) 1051 - 974 Cal BC (3000 - 2923 Cal BP)
(9%) 957 - 941 Cal BC (2906 - 2890 Cal BP)

Database used / mathematics used
INTCAL13 / OxCal

References

References to Probability Method

Bronk Ramsey, C. (2009). Bayesian analysis of radiocarbon dates. *Radiocarbon*, 51(1), 337-360.

References to Database INTCAL13

Reimer, et.al., 2013, *Radiocarbon*55(4).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Page 4 of 5

BetaCal 3.21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in published OxCal format

(highest probability ranges: INTCAL13)

(Variables: C13/C12 = -27.0 o/oo)

Laboratory number **Beta-534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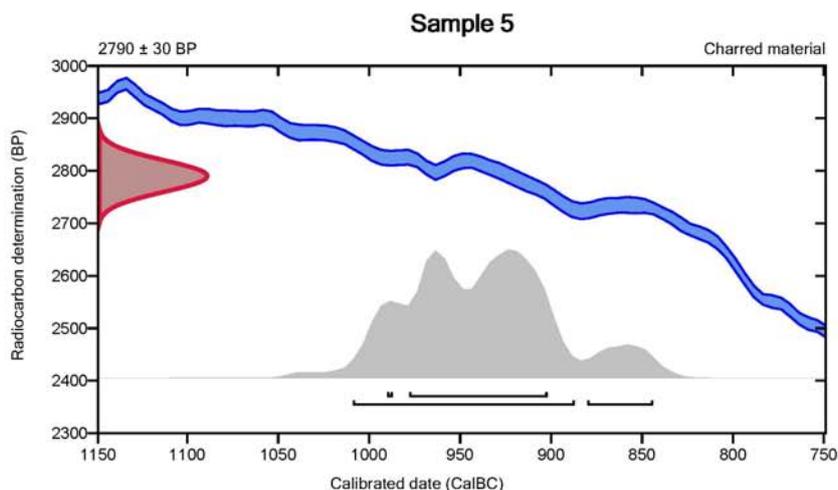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2790 ± 30 BP**

95.4% probability

(87.1%)	1011 - 889 Cal BC	(2960 - 2838 Cal BP)
(8.3%)	882 - 846 Cal BC	(2831 - 2795 Cal BP)

68.2% probability

(66.4%)	980 - 904 Cal BC	(2929 - 2853 Cal BP)
(1.8%)	992 - 989 Cal BC	(2941 - 2938 Cal BP)



Database used / mathematics used
INTCAL13 / OxCal

References

References to Probability Method

Bronk Ramsey, C. (2009). Bayesian analysis of radiocarbon dates. *Radiocarbon*, 51(1), 337-360.

References to Database INTCAL13

Reimer, et al., 2013, *Radiocarbon*55(4).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Page 5 of 5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평창 유동리 192번지 축사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유적 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192번지		
조사 면적	발굴 1,191㎡	조사기관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 기간	2019.04.22.~현재	회의 일시	2019.06.03. 15:00
유적 현황 및 성격	<p>조사대상부지의 평창읍 유동리 192번지 유적은 1,191㎡의 부지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입회 및 사굴 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된 유적으로 대장문화재 유존지역(유동리 산포지)에 포함되어 있다. 대상 유적은 청동기 시대 주거지 유적으로 청동기 시대 주거지 5등과 수혈 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p>		
조사기관 의견 검토	<p>현 조사지역은 입회시 2개의 층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조사 결과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나머지 1개의 층위는 사면 퇴적층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나머지 1/2 지역도 층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상호 파악된 층위보다 상층에 2회에 걸쳐 암갈색의 퇴적층이 형성되어 그중 상층층위에 유구 형성되었다. 현재 확인된 주거지 유구 등은 평창 일대에 분포하는 기조사된 주거지 문화내용과 유사하며 조사된 유구의 시기는 전기와 중기에 이르는 시기로 보여진다.</p>		
추가 의견	<p>조사된 유구는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조사후 하층의 층위를 검토하며 유구의 조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완료 후 안전 및 조사된 유구의 보호를 위하여 복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강원문화재연구소	최 동 보 <small>평창읍 유동리 192번지</small>	김 부 중 <small>평창읍 유동리 192번지</small>	
2019년 06월 03일			

평창 유동리 유적 유물목록

연번	유물명	유구명	사진번호	비고
1	공렬토기	주거지1호	1	
2	공렬토기	주거지1호	2	
3	구순각목 공렬토기구연부편	주거지1호	3	
4	적색마연토기	주거지1호	4	
5	토기저부편	주거지1호	5	
6	석촉	주거지1호	6	
7	석부	주거지1호	7	
8	반월형석도	주거지1호	8	
9	반월형석도	주거지1호	9	
10	반월형석도편	주거지1호	10	
11	갈판	주거지1호	11	
12	석기반제품	주거지1호	12	
13	석기반제품	주거지1호	13	
14	석기반제품	주거지1호	14	
15	석기반제품	주거지1호	15	
16	토기저부편	주거지2호	16	
17	발형토기	주거지3호	17	
18	적색마연토기	주거지3호	18	
19	석검	주거지3호	19	
20	석부	주거지3호	20	
21	석부	주거지3호	21	
22	반월형석도	주거지3호	22	
23	방추차	주거지3호	23	
24	지석	주거지3호	24	
25	지석편	주거지3호	25	
26	갈판	주거지3호	26	
27	석기반제품	주거지3호	27	
28	석기반제품	주거지3호	28	
29	석기편	주거지3호	29	
30	공렬토기구연부편	주거지4호	30	

연번	유물명	유구명	사진번호	비고
31	공렬토기구연부편+단사선문	주거지4호	31	
32	적색마연토기구연부편	주거지4호	32	
33	단사선문토기구연부편	주거지4호	33	
34	토기저부편	주거지4호	34	
35	석촉	주거지4호	35	
36	석촉	주거지4호	36	
37	석촉	주거지4호	37	
38	지석	주거지4호	38	
39	석기반제품	주거지4호	39	
40	석재보습(?)	주거지5호	40	
41	석기반제품	주거지5호	41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평창 유동리 192번지 유적			發行日	2021년 6월 4일
發行機關	名稱	(재)고려문화재연구원			
	住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이테크 644호			
	TEL	(031)790-3671~4	FAX	(031)790-3675	
執筆·編輯者	김아관, 김봉준				
調査緣由	축사신축 공사를 위한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김봉준, 최혁진, 김근호				
遺蹟所在地	평창 유동리 192번지				
調査面積	발굴면적 1,191㎡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청동기시대	5기	구순각목 공렬토기, 무문토기저부, 석검, 석촉, 석부		
수혈	미상	1기	-		

86. 공주 도천리 369번지 외 2필지 유적

목 차

I. 조사개요	86-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86-9
III. 조사내용	86-18
1. 표본조사	86-18
2. 발굴조사	86-20
〈조선시대〉	
1) 주거지	86-21
2) 수혈유구	86-23
3) 구상유구	86-24
4) 주혈군	86-30
IV. 조사성과	86-32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86-13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86-15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86-17
도면 4.	표본조사 트렌치 배치도	86-18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86-21
도면 6.	주거지 및 출토유물	86-22
도면 7.	수혈유구 1~4호	86-25
도면 8.	수혈유구 5~8호	86-26
도면 9.	구상유구 1호	86-27
도면 10.	구상유구 2호	86-28
도면 11.	구상유구 3호 및 출토유물	86-29
도면 12.	주혈군	86-31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①원경, ②표본조사 후)	86-37
도판	2. 표본조사(①트렌치1, ②트렌치2, ③트렌치3, ④트렌치4)	86-38
도판	3. 표본조사(①트렌치5, ②주거지, ③주혈, ④토광묘 1호, ⑤토광묘 2호, ⑥구상유구)	86-39
도판	4. 발굴조사(①조사후) 및 주거지(②조사전)	86-40
도판	5.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86-41
도판	6. 주거지(①②토층, ③~⑥내부수혈)	86-42
도판	7. 주거지(①②유물출토상태, 1·2:출토유물) 및 수혈유구 1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토층)	86-43
도판	8.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3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86-44
도판	9.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5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86-45
도판	10. 수혈유구 6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7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86-46
도판	11. 수혈유구 8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구상유구 1호(⑤조사전, ⑥조사중)	86-47
도판	12. 구상유구 1호(①조사후, ②토층) 및 2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86-48
도판	13. 구상유구 2호(①②토층) 및 3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⑦토층)	86-49
도판	14. 구상유구 3호(①②유물출토상태, 3·4:출토유물) 및 주혈군(③~⑥주혈1, ⑦~⑩주혈2, ⑪~⑬주혈3, ⑭~⑰주혈4)	86-50
도판	15. 주혈군(①~④주혈5, ⑤~⑧주혈6, ⑨~⑫주혈7, ⑬~⑯주혈8, ⑰~⑳주혈9, ㉑~㉒주혈10)	86-51
도판	16. 주혈군(①~④주혈11, ⑤~⑧주혈12, ⑨~⑫주혈13, ⑬~⑯주혈14, ⑰~⑳주혈15, ㉑~㉒주혈16)	86-52

I. 조사개요

조사대상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69·369-1·369-2번지에 위치하며, 사업시행자 이명숙씨의 동·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1,857㎡)이다. 사업시행자는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조사대상지 주변에는 공주 상서리 유적¹⁾·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제11지구) 추가편입지역 공주 상서리 유적²⁾·상서리 동양물산 연구소 부지 내 유적³⁾·공주 상서리 부처당골 유적⁴⁾ 등이 분포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공주시에서는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다.

지표조사는 2019년 3월 8일~3월 14일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자기편과 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원지형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어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예정된 공사에 앞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⁵⁾.

공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에 대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공주시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4월 10일 소규모 국비지원 표본조사를 의뢰하였다. 소규모 국비지원 표본조사를 접수한 재단에서는 소규모 국비지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4월 15일 표본조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표본조사는 4월 18일에 착수하고 4월 19일 완료하여 실조사일수 2일이 소요되었다. 표본조사 결과, 유구는 주거지 1동·수혈유구 1기·토광묘 2기·구상유구 1기 등 5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와 같은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4월 26일 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5월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23일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제2019-0579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5월 15일 착수하고 6월 14일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는 17일이 소요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주거지 1동·수혈유구 8기·구상유구 3기와 주혈 16개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호구연부편 1점·토기 파수부편 1점·백자편 1점·암키와편 1점 등 4점이 출토되었다.

조사단에서는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성격과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6월

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17, 『天安-論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內 公州 內村里·上西里 遺蹟』.

2)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4, 『천안-논산 고속도로 구간(제11지구) 추가편입지역 공주 상서리 유적』.

3) 백제문화재연구원, 2006, 「공주 상서리 동양물산(주) 연구소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발굴)조사 약보고서」.

4)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公社, 1997, 『文化遺蹟地表面調査報告書-西公州~禮山』.

5) 비전문화유산연구원, 2019, 『공주 우성면 도천리 369번지 외 2필지 버섯재배사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3일 학술자문회의⁶⁾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지형의 변형이 많아 유구의 잔존상태는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기관의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기록보존 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도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본조사	발굴조사
조사단장	정훈진(조사연구2팀 팀장)	정훈진(조사연구2팀 팀장)
책임조사원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사원	김봉성(조사연구2팀 연구원)	김봉성(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조사원	최성수(조사연구2팀 연구원)	최성수(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조원		김형숙(조사연구2팀 연구원)

※조사당시의 직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건충 책임 하에 김봉성이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박자연·김선미·김경화·김형란·손은서(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가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봉성·박자연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석진화(꿈꾸는 스튜디오 몽)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김봉성이 작성하였고 이건충이 수정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이 하였다.

6) 자문위원: 이종수(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이현숙(공주대학교박물관)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유적은 행정구역 상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69·369-1·369-2번지에 해당하며, 경·위도상 동경 127°05'20", 북위 36°29'03"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무성산 남쪽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가지능선의 동사면 말단부에 자리하며, 북쪽으로는 소수의 민가와 창고시설이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주택지와 밭 경작지로 활용되다가 주택은 화재로 인해 철거되었고, 밭은 당시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하여 휴경상태였다.

자연·지리적 환경⁷⁾을 살펴보면 조사지역이 위치한 공주시는 충청남도의 동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연기군·세종시·대전광역시와 접하고, 서쪽은 예산군·청양군과 접한다. 남쪽으로는 논산시·계룡시·부여군과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산시·천안시와 접해 있다. 수리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공주시의 동쪽 끝은 반포면 봉암리로 동경 127°17'39"이며, 서쪽 끝은 신평면에 위치한 국사봉으로 동경 126°53'05"이다. 남쪽 끝은 탄천면 화정리 아랫가절 마을의 남쪽으로 북위 36°16'20"이며, 북쪽 끝은 유구읍 탑곡리의 봉수산으로 북위 36°40'06"이다.

지형적 특징은 공주시는 차령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산지지형이 발달해 있고, 부가적으로 소규모 분지지형도 다수 형성되어 있다. 산지지형은 주로 시의 북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북부 쪽은 차령산맥이 북동에서 서남향으로 뻗어 무성산(613.6m)·금계산(574m)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동부 쪽은 천황봉(846.1m)을 최고봉으로 하는 계룡산지가 남북으로 뻗어 평균 해발 400m 이상의 고지대를 이루고 있다. 분지지형은 공주시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데, 월성산(313m)을 최고봉으로 하여 대체로 해발 200m 미만의 구릉성산지인 공산·주미산·봉황산·연미산·취리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내부에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다.

공주지역의 수계는 공주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강 본류와 이에 합류하는 정안천 수계, 유구천 수계로 크게 구분되며, 이외에도 대교천·제민천·혈저천 등의 소하천들이 각각 발달해 있다. 금강은 본래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는 감입곡류를 이루며 북으로 흐르는데, 충남 연기군에 이르러서는 미호천과 합류하면서 유로를 바꾸어 남서방향으로 흐른다. 이곳부터는 구조곡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대체로 유로가 직선형태를 띠게 된다. 공주지역 일원에서 금강으로 유입되는 정안천·유구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들은 남북방향의 구조곡을 따라 금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금강과는 직교하는 방향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대하천인 금강이 관류함에도 불구하고 평야지대는 거의 발달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주지역의 지질환경은 주로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운모편암과 편마암이 중심을 이룬다. 운모편암은 주로 흑운모 편암이고, 편마암은 화강암질 편마암, 호상편마암 및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모편암은 주로 봉화대에서 금학동·오곡동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7)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2輯, 公州郡篇.
韓南大學校 忠淸文化研究所, 1993, 『錦江誌』上, 忠淸南道.
忠淸南道·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公州市』.

편마암은 공주시 전역에 분포하는데, 특히, 금강 북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에 ‘공주층군’이라 불리는 퇴적암류에 부정합으로 덮이고, 부정합면을 따라 2차적으로 단층이 발달되었다. 공주층군은 의당면 청룡리 부근에서 금강변을 따라 남서쪽으로 뻗어 이인면 만수리를 지나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부근까지 분포한다. 공주분지에 퇴적된 이 퇴적암류는 모두 육성기원 쇄설성 퇴적암으로 분지의 가장자리에는 역암과 각력암이 분포하고 중심부로 향하면서 역질 사암과 셰일이 우세해진다. 이후 공주층군의 형성시기 혹은 그 직후에 공주분지 서북단 일대에서 안산암이 관입 또는 분출되었으며, 동부에서는 반암류가 남북방향을 따라 관입하였다. 그 후 오랜 침식작용으로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이 퇴적되어 현재의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다.

공주지역의 기후는 중위도 상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로 온난다습한 기후지역에 속하고 기후구분상으로 중부 서안형과 남부 서안형의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주시의 경계까지만 해도 북쪽은 아산만에서 약 42km, 서쪽은 천수만에서 약 40km 이상 떨어져 있어 내륙적인 기후의 특색이 나타난다. 공주시의 계절별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봄철은 11.3℃로 대도시를 제외한 인근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23.3℃로 대전이나 부여보다 낮게 나타난다. 한편 충남지역의 겨울기온은 -1.5℃~0.5℃ 정도인데, 공주의 평균 기온은 약 1℃ 정도로 주변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공주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름철에 전체의 약 73.5%가 집중되어 있으며, 봄철은 약 15%, 가을철은 9%, 겨울철은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강수량은 여름에 50~60% 집중되는 것에 비교해 보면 공주의 여름철 강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하여 약 10% 이상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겨울 강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하여 적은 특성이 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우성면은 공주시의 북쪽 경계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한다. 우성면 북부에는 높은 산지가 발달해 있는데, 무성산(613.6m)이 가장 높으며, 묵방산(370.2m)·갈미봉(309.3m)·약산(277.9m)·채죽산(170.0m) 등 100~500m의 산지도 많다. 동부 경계 지대에는 금강과 금강의 지류인 정안천이 흐르고 있다. 특히 정안천 연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 평야가 발달해 있다. 남부 일부는 대체로 100m 전후의 산지가 하천과 맞닿아 있다. 금강 연안의 왕성리 일대에는 저습지가 국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중북부에도 금강의 지류들이 흐르면서 형성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있다. 이외에 남부에는 반곡천·방홍천·보홍천·벌곡천 등의 연변에 소규모의 충적 평야가 국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성면의 하천과 평야 연변에는 많은 마을이 있다. 하천과 연변의 충적평야는 200~600m의 해발 고도에 형성되어 있다. 북부에는 규모가 비교적 큰 한천저수지·봉황수류지, 서부에는 문동골수류지, 중부에는 우성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다. 서부의 독정이고개·연고개, 남부의 덕뱅이고개·느리티고개·검은봉고개·굴티고개·보신이고개 등 먼의 곳곳에 고개가 있다.

고고·역사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가 속해있는 공주시는 석장리 유적⁸⁾을 비롯해 다양한 선사유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백제시대부터 근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삼국시대 백제 문주왕 이후 성왕 연간에 이르는 63년 동안 백제의

8) 손보기, 1994, 『석장리 선사유적-11차·12차 발굴보고-』.

고도로써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현재 공주지역에 남아 있는 다양한 백제시대 유·무형문화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주시의 구석기유적으로는 금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석장리 유적⁹⁾이 있다. 석장리 유적은 남한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된 곳으로 사적 제334호로 지정되었다. 구석기시대 문화층은 3개 층이 확인되었는데, 가장 하부층에서 짝개·주먹대패·굵개 등이 출토되었으며, 중간 층에서는 짝개·주먹대패·자르게·굵개·찌르개·주먹도끼 등이 출토되었다. 상부 문화층에서는 석기제작지·주거지 등이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정안면 장원리 유적¹⁰⁾에서 신석기시대 유물 퇴적층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신석기시대 유적의 조사가 매우 소수에 이르지만 최근 대전·청주지역 일대에서도 금강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많이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조사 자료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유물은 매우 밀집된 형태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유적내용은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매장유적으로는 고인돌, 석관묘, 옹관묘로 구분되는데, 탄천면 남산리¹¹⁾·분강리¹²⁾, 반포면 국곡리¹³⁾, 장기면 은용리¹⁴⁾ 등 금강에 인접한 지역에서 넓게 고인돌이 분포하며, 발굴조사를 통하여 탄천면 분강리¹⁵⁾, 이인면 산의리¹⁶⁾·안영리¹⁷⁾ 등지에서 석관묘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옹관묘는 이인면 산의리, 탄천면 남산리¹⁸⁾·장선리¹⁹⁾ 유적에서 조사되었으며, 이밖에 장기면 평기리·당암리, 반포면 상신리·원봉리, 탄천면 이곡리, 유구읍 입석리 등지에는 선돌이 분포한다²⁰⁾. 생활유적으로는 공주시 태봉동²¹⁾, 우성면 귀산리²²⁾, 정안면 장원리, 이인면 산의리, 탄천면 안영리·장선리 유적 등이 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생활유적으로서의 주거지와 주구토광묘로 대표되는데 생활유적으로는 정안면

9) 손보기, 1993, 『석장리 선사유적』, 동아출판사.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3, 『석장리 선사유적: 11차-12차 발굴보고』.

손보기, 2009, 『석장리 유적과 한국의 구석기 문화』, 학연문화사.

충청문화재연구원, 2012, 『석장리 구석기유적 13차 발굴조사』.

10)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公州 長院里 遺蹟』.

11)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공주문화유적』.

12)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공주문화유적』.

13) 국립공주박물관, 1985, 『금강유역지표조사보고』.

14)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공주문화유적』.

15)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분강·저석리 고분군』.

16)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공주 산의리 유적』.

17)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1999, 『공주 안영리 유적』.

18) 공주대학교박물관, 1990, 『공주 남산리·송학리 백제 고분 발굴조사 보고서』.

19) 충남발전연구원, 2003,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

20)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공주문화유적』.

21)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태봉동유적』.

22)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공주 귀산리 유적』.

23)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17, 『(天安-論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內) 公州 內村里·上西里 遺蹟』.

내촌리²³⁾, 탄천면 장선리 유적에서 취락이 확인되었다. 주구토광묘는 대표적인 고분형태로 장기면 하봉리²⁴⁾, 정안면 장원리, 우성면 상서리 유적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이밖에 단순 토광묘 유적으로는 이인면 이인리²⁵⁾, 탄천면 남산리, 분강·저석리²⁶⁾ 유적이 있다.

공주지역이 역사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백제의 웅진 천도가 이루어진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공주시내에는 이 시기의 왕성인 공산성과 왕릉군인 송산리 고분군²⁷⁾을 비롯하여 각지에 백제시대 관련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왕궁지²⁸⁾가 있었던 곳으로 백제시대 건물지²⁹⁾와 임류각지³⁰⁾, 그리고 연지³¹⁾ 등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송산리고분군은 무령왕릉을 포함하여 주변에 많은 백제시대 고분군이 조사된 곳으로, 백제의 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시대의 유적은 매우 밀집된 형태를 보이는데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있다. 생활유적은 대부분 주거지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공산성 내의 대벽건물지와 웅진동 정지산 유적³²⁾, 그리고 탄천면 장선리·안영리·화정리 유적 등이 있다. 분묘유적은 토광묘와 석실분으로 크게 대별된다. 토광묘는 공주시 취리산³³⁾, 탄천면 장선리, 남산리·분강리, 이인면 이인리, 공주 금학동고분군³⁴⁾ 등이 있다.

백제시대 석실분은 금강이남 지역인 공주시가지를 중심으로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특히 공주시가지를 중심으로 송산리고분군, 교동(교촌리)고분군³⁵⁾, 금학동·우금치³⁶⁾·소학동³⁷⁾·남산록 고분군, 그리고 옥룡동·웅진동 박산소³⁸⁾·봉정동 고분군 등이 있다. 이밖에 신기동³⁹⁾·능치⁴⁰⁾ 고분군과 금강 이북의 시목동⁴¹⁾, 의당면 수촌리⁴²⁾ 고분군 등이 있다. 외곽지역의 유적으로는 이인면 산의리 고분군, 탄천 분강·저석리 고분군 등이 있다. 특히 의당면 수촌리 고분군의 경우 금동관모를 비롯하여 중요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시대 고분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24) 국립공주박물관, 1995, 『하봉리 I』.

25)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각지시굴조사보고서』.

26)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분강·저석리고분군』.

27) 강인구, 1977, 『백제고분연구』.

28) 공주사범대학교박물관, 1987, 『공산성 백제추정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29) 공주대학교박물관, 1991, 『공주 공산성 건물지』.

30) 공주사범대학교박물관, 1980, 『공주 공산성 만아루지·동문지·임류각지』.

31) 공주대학교박물관, 1993, 『공주 공산성내 추정백제연지』.

32) 국립공주박물관, 1999, 『정지산』.

33)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라회맹지 취리산』.

34)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2, 『公州 金鶴洞 古墳群』.

35) 輕部慈恩, 1934, 『公州に於ける百濟古墳』, 『考古學雜誌』24-9.

36)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4, 『공주 우금치 유적』.

37) 안승주·이남석, 1992, 『공주 보통골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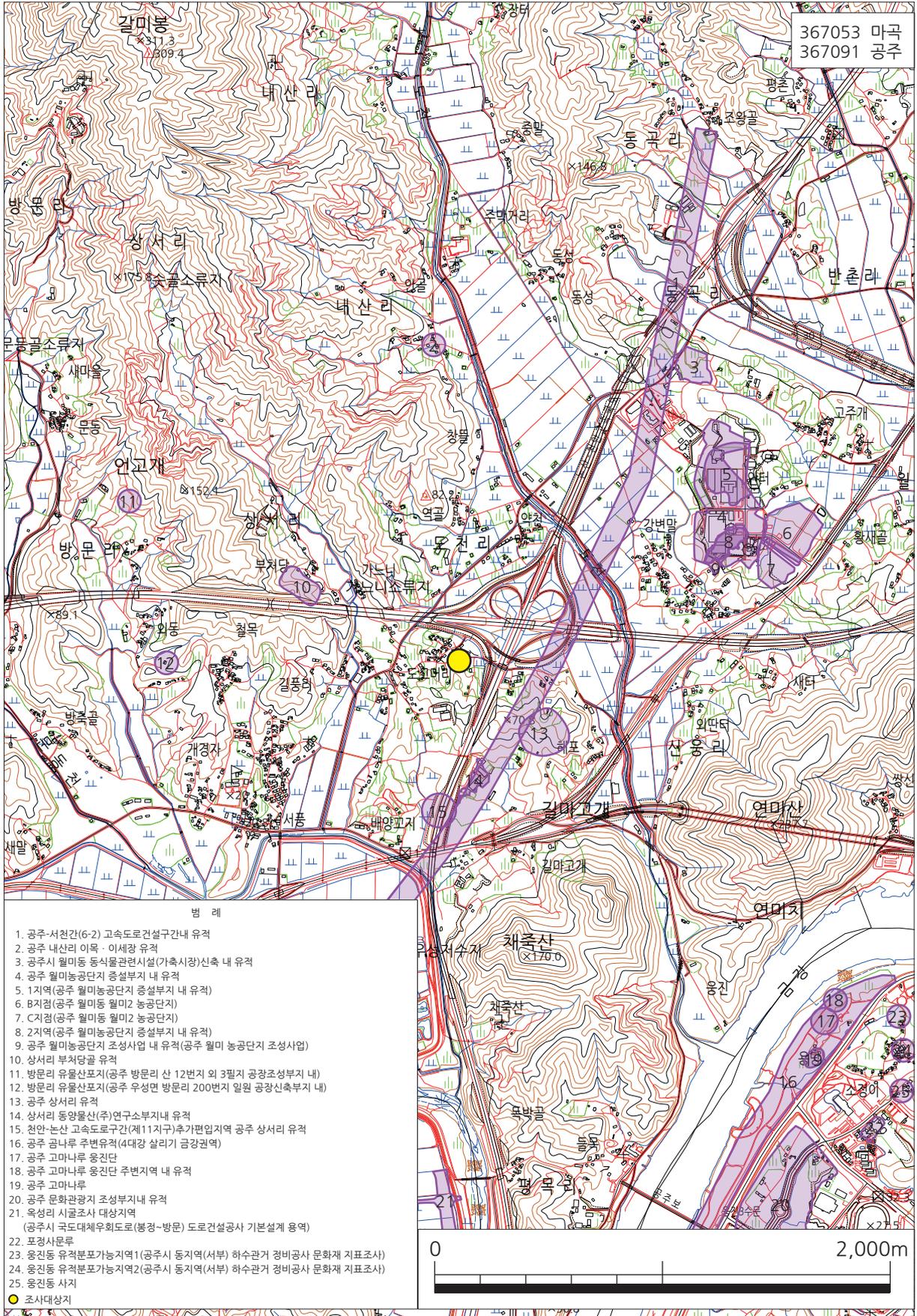
38) 안승주, 1981, 『공주 웅진동 고분군』, 『백제문화』14.

39) 공주대학교박물관, 1993, 『공주 신기동·금학동 백제·고려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1991년도 발굴조사-』.

40)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상왕동·능치 유적조사』.

41) 안승주, 1967, 『공주 시목동 고분조사약보』, 『고고미술』8-1.

42)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수촌리 유적』.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공주시가지를 중심으로 대통사지⁴³⁾, 수원사지⁴⁴⁾, 주미사지⁴⁵⁾ 등 백제시대 관련 사지의 존재에 대하여 상당부분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주 산성동 유적과 교동 유적 등의 생활유적이 공주시가지 내에서 조사되고 있다. 백제시대 관련유적의 입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적이 대부분 공주시가지의 저지대에 분포하기보다는 능선의 중단부에 해당하는 구릉 선상부에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조사대상지 주변유적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 남쪽 370m 이격하여 공주 상서리 동양물산(주) 연구소 부지 내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데,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을 포함한 능선전체가 집터와 도로개설, 그리고 계단식으로 삭토하여 밤나무단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원지형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조사지역이 후대 인문적 환경에 의해 지형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져 토광묘(민묘) 3기 이외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⁴⁶⁾. 남쪽으로 540m 이격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에서 확인된 상서리 유적과 남쪽에 연접하여 추가편입지역 공주 상서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공주 상서리 유적은 천안에서 논산을 연결하는 총 연장 80.3km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으로 1996년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現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8년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24개 지구 가운데 11개 지구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상서리 유적은 이 중 11지구에 해당하는데, 현장조사는 1999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3기, 조선시대 이후 토광묘 7기,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⁴⁷⁾. 2001년 11지구를 통과하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동쪽으로 20m 정도 확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토광묘 2기, 옹관묘와 주구묘가 각 1기, 조선시대 회곽묘 1기, 조선시대 이후의 토광묘 5기가 확인되었다⁴⁸⁾. 조사대상지 서쪽으로 670m 이격하여 공주 상서리 부처당골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부처당 마을의 배산인 해발 309.3m의 갈미봉에서 동남방향으로 길게 뻗어 형성된 저구릉성 산지의 북향사면에 해당한다. 이곳의 축사 건립 과정에서 마제석검 1점이 수습된 바 있어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⁴⁹⁾.

공주의 지명변화를 살펴보면 백제시대 웅진으로 불리던 것이,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6년(686)에 행정구역 재편과정에서 웅진이 웅천주로 바뀌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 23년(940)에 웅주를 공주로 개칭하고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의 공주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인 감영의 소재지이자 관찰사가 부임하는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태종 때 공주는 충청도의 4목(공주,

43) 충청남도, 1990, 『문화유적총람-사찰편-』.

44)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공주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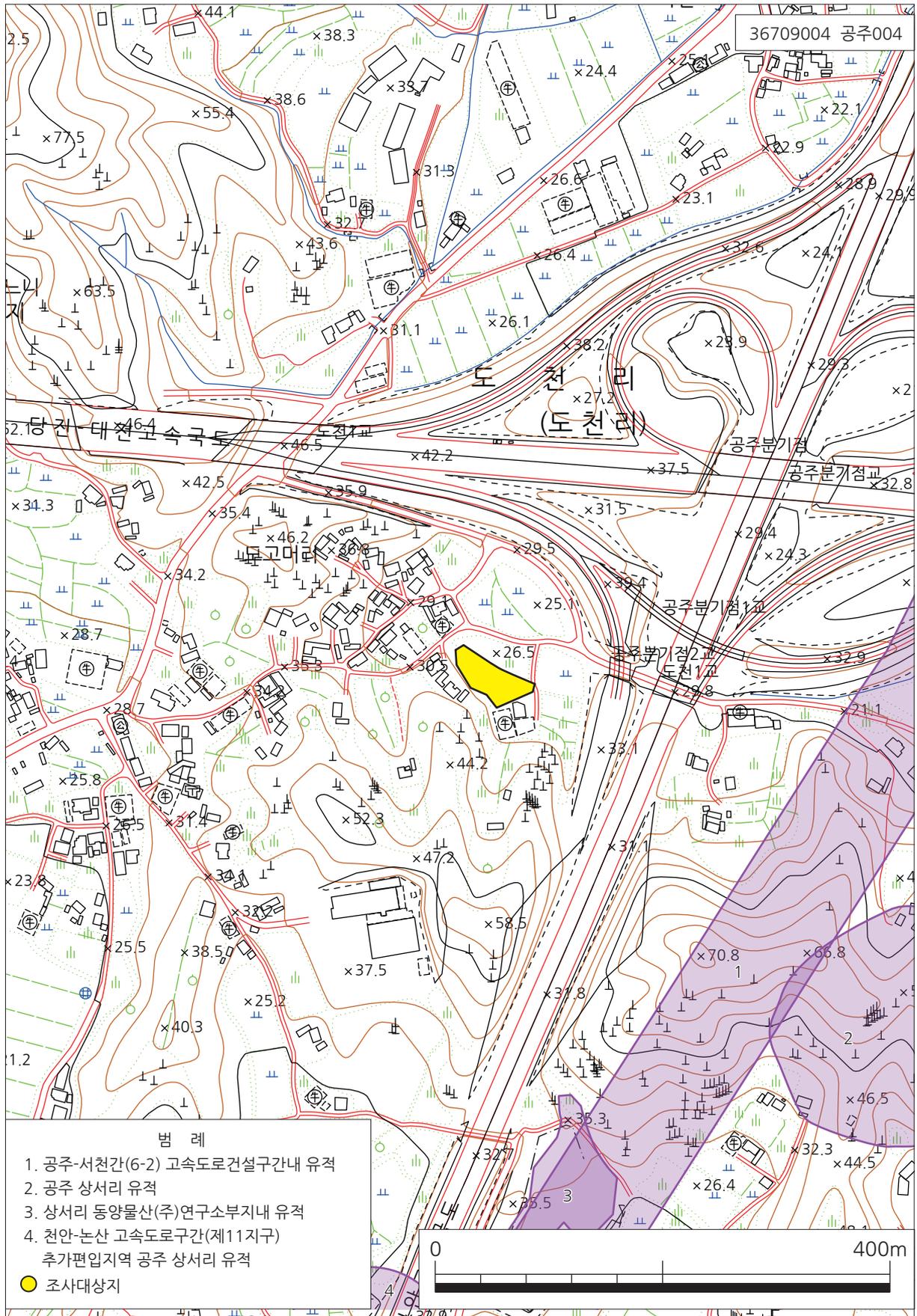
45)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공주문화유적』.

46) 백제문화재연구원, 2006, 「공주 상서리 동양물산(주) 연구소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발굴)조사 약보고서」.

47)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17, 『(天安-論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內) 公州 內村里·上西里 遺蹟』.

48)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4, 『천안-논산 고속도로 구간(제11지구) 추가편입지역 공주 상서리 유적』.

49)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公社, 1997, 『文化遺蹟地表面調査報告書-西公州~禮山』.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충주, 청주, 홍주)중 하나로 정3품인 목사가 파견되었다. 선조 31년(1598) 충청감영이 충주로부터 공주로 이전됨으로써 공주는 충청도의 수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다른 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공주 관할구역은 비교적 정확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우선 면리편제의 실상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인구나 마을이름도 추적이 가능하다. 조선 후기의 기록자료로서 주목되는 것은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1759)』와 『호구총수(1789)』이다. 이를 보면 공주목의 관내에는 26개 면이 위치해 있었다. 이후 고종 31년(1894)에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중앙관제의 개편과 더불어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공주군은 23면 체제로 바뀌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주지역은 13개 면, 6개 정, 207개 리로 재편되었다.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군으로 이전되면서 지방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1938년 4월 1일 공주면이 공주읍으로 승격되고 1986년 공주군이 공주시로 승격되면서 공주군과 분리되었다. 1995년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되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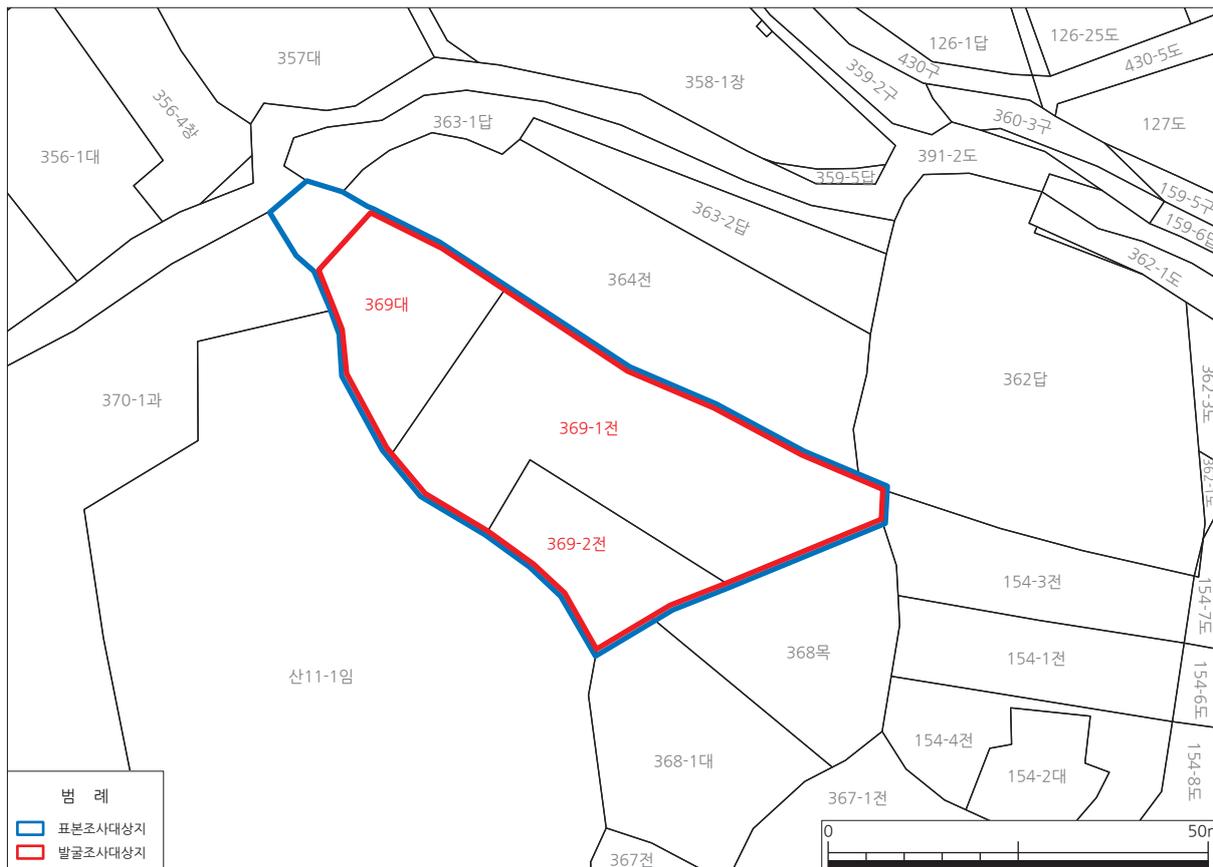
조사대상지가 속한 우성면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북쪽의 우정면과 남쪽 금강변의 성두면을 병합하고 우정면과 성두면의 이름을 따서 우성면(牛城面)이라 하였다. 우정면이라는 명칭은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난 중에 소에게 물을 먹였다는 소우물에서 유래한 것이며, 성두면이라는 명칭은 성터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성면은 백제시대에는 웅천 관할에 속하였다가 신라시대 웅천주(熊川州) 웅주 관할이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공주목 관할이었다. 1991년 리 행정구역으로 조정되었고 1995년 도·농 통합으로 공주시에 편입되었다.

조사대상지 주변 유적 분포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 현황

번호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공주 상서리 동양물산(주) 연구소 부지 내 유적	남쪽 370m	조선시대 매장유구	백제문화재연구원, 2006, 「공주 상서리 동양물산(주) 연구소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발굴)조사 약보고서」	
2	공주 상서리 유적	남쪽 540m	원삼국시대 매장유구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17, 『(天安-論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內) 公州 內村里·上西里 遺蹟』	
3	천안 논산 고속도로구간(제11지구)추가편입지역 공주 상서리 유적	남쪽 560m	원삼국시대 매장유구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4, 「천안-논산 고속도로 구간(제11지구) 추가편입지역 공주 상서리 유적」	
4	공주 상서리 부처당골 유적	서쪽 670m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公社, 1997,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西公州~禮山』	

50) 공주대학교 박물관·충청남도 공주시, 1995, 『공주의 역사와 문화』,
공주시사편찬위원회, 2002, 「제2편 역사」, 『公州市誌』,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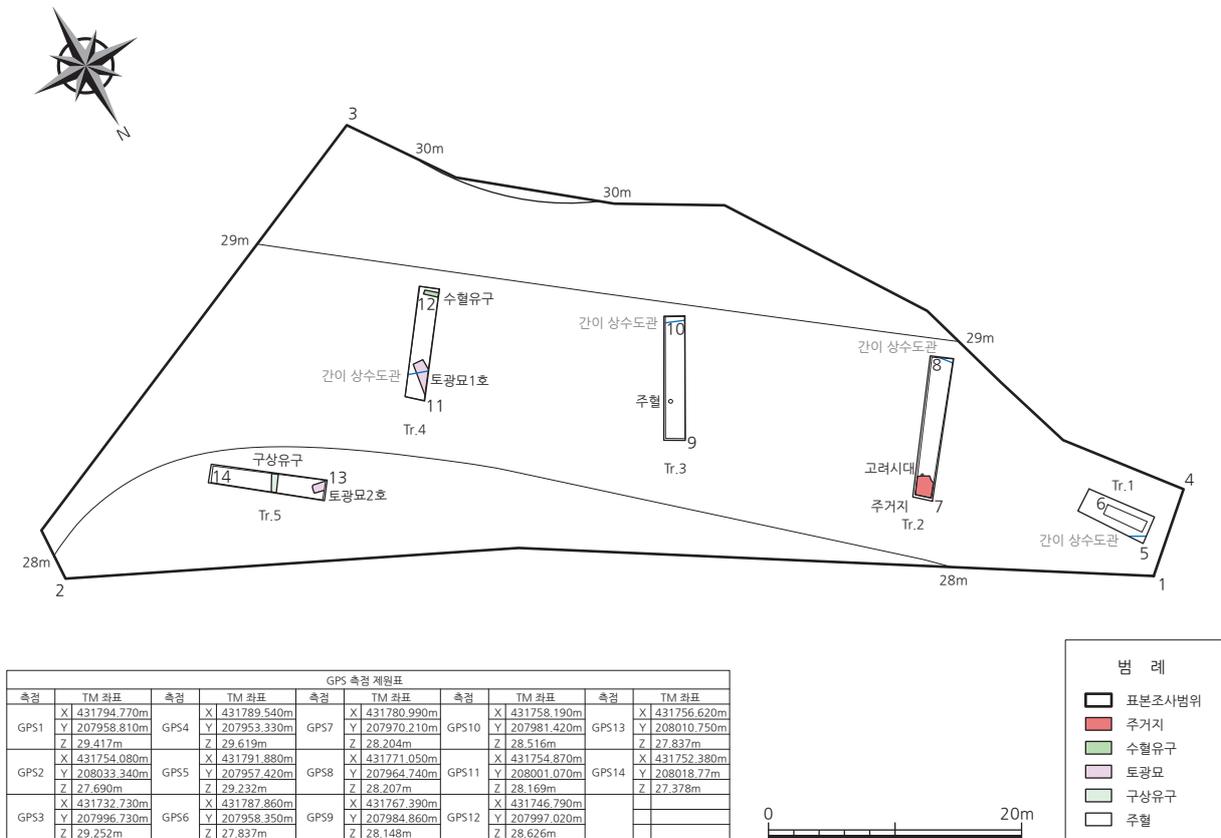
조사지역은 무성산 남쪽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가지능선의 동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 북쪽으로는 소수의 민가와 창고시설이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조사대상지 역시 주택지와 밭 경작지로 활용되다가 주택은 화재로 인해 철거되었다. 밭은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하여 휴경상태였다.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는 북서쪽과 북동쪽 모서리가 절단된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사업대상지의 전체면적은 1,970㎡인데 표본조사 결과 설정한 5개 트렌치 중 서쪽에 설정한 트렌치 1을 제외한 트렌치 2~5 내부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에 발굴조사는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 2~5 주변의 면적(1,857㎡)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각 조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조사지역의 평면 형태와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등고선과 직교하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도면 4. 표본조사 트렌치 배치도

트렌치 3개를 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트렌치 내에서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유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구역의 북서쪽과 북동쪽에 북서-남동 방향으로 각각 1개씩 2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두 5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트렌치의 제토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토까지 제토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퇴적양상과 유구 및 유물의 부존여부를 파악하였다.

트렌치 1은 조사구역 북서쪽에 북서-남동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550cm · 너비 200cm · 깊이 160cm이다. 화재로 철거된 가옥이 있던 자리로, 철거 후 복토된 암갈색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생토인 황갈색풍화암반이 확인되었다. 복토층은 160cm 정도 두께로 확인되었는데 내부에는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었다. 바닥면은 건물의 건축 및 철거 과정에서 생토층까지 훼손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2는 트렌치 1에서 동쪽으로 11m 떨어진 지점에 북동-남서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150cm · 너비 150cm · 깊이 53cm이다. 퇴적양상은 암갈색사질점토(표토층)-황갈색풍화암반(생토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북쪽에 치우쳐 주거지 1동이 황갈색풍화암반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 토기편 1점이 노출되었다.

트렌치 3은 트렌치 2에서 동쪽으로 20m 이격하여 북동-남서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000cm · 너비 150cm · 깊이 38cm이다. 퇴적양상은 트렌치 2와 동일하게 암갈색사질점토(표토층)-황갈색풍화암반(생토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주혈 1개가 황갈색풍화암반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트렌치 4는 트렌치 3에서 동쪽으로 20m 이격하여 북동-남서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900cm · 너비 150cm · 깊이 16cm이다. 퇴적양상은 트렌치 2·3과 동일하게 암갈색사질점토(표토층)-황갈색풍화암반(생토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남쪽에서 수혈유구 1기, 북쪽에서 토광묘 1기가 황갈색풍화암반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트렌치 5는 조사대상지 동쪽에 북서-남동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900cm · 너비 150cm · 깊이 40cm이다.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설정한 트렌치로 자연퇴적층이 두께 10cm 정도로 얇게 잔존하고 있었다. 퇴적양상은 암갈색사질점토(표토층)-갈색사질점토(자연퇴적층)-황갈색풍화암반(생토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남쪽에서 수혈유구 1기, 북쪽에서 토광묘 1기가 황갈색풍화암반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의 원지형은 무성산(614m) 남쪽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는 낮은 구릉의 동사면으로 남서쪽이 높고 북동쪽이 낮은 지형이다. 조사지역 일원은 주택 및 밭 경작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절토 및 복토되었으며, 이러한 형질변경행위로 인하여 자연퇴적층은 대부분 유실되어 북동쪽 일부에서만 확인되었고, 조사구역 대부분에서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생토층인 황갈색풍화암반이 노출되었다. 유구는 황갈색풍화암반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는데 트렌치 2~5 내부에서 주거지 1동, 토광묘 2기, 수혈유구 1기, 구상유구 1기 외에 주혈 1개가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수혈선 확인과정에서 토기편이 노출되었다.

각각의 트렌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트렌치 속성표

트렌치 번호	규모 (cm)			장축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550	200	160	N-38°-W	유구 및 유물 없음	트렌치 2~5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전환 필요
2	1150	150	53	N-36°-E	주거지 1동	
3	1000	150	38	N-30°-E	주혈 1개	
4	900	150	16	N-36°-E	토광묘 1기 수혈유구 1기	
5	900	150	40	N-53°-W	토광묘 1기 구상유구 1기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좁고 노후된 진입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으로 인해 제토된 토사의 반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조사구역을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양분한 후 북서쪽부터 조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조사 후 전경사진은 분할 촬영한 후 합성하였다.

발굴조사를 위한 제토는 표본조사 시에 확인된 토층을 참고하여 상부는 기계제토하였으며, 문화층에 인접해서는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조사구역의 토층 퇴적양상은 남동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토 및 밭 경작층(1층) → 자연퇴적층(2층) → 생토층(3층, 조선시대 문화층)’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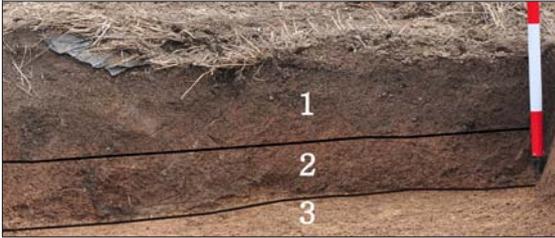
1층(표토층)은 암갈색사질점토로 약 30cm 정도의 두께로 확인되었다. 최근까지 경작이 이루어진 층으로 내부에는 경작용 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이 섞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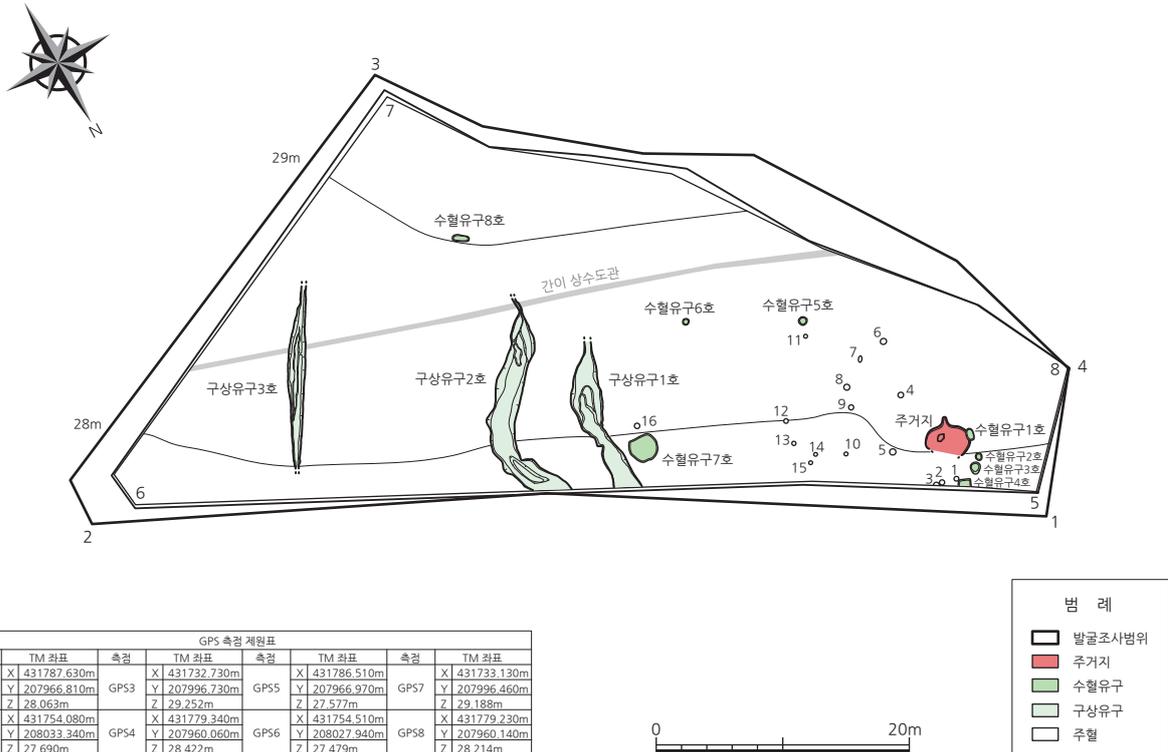
2층(자연퇴적층)은 갈색사질점토로 경사 아래부분에 해당하는 조사구역 북동쪽에서만 확인되는 층으로 지표 하 30c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두께는 약 10cm 정도이다. 남서쪽이 높고 북동쪽이 낮은 원지형을 따라 퇴적되었으며, 사질이 강한 편이다. 층 상면은 평탄하게 삭평되었는데 부분적으로 교란구덩이가 확인되었다.

3층(생토층)은 황갈색풍화암반으로 지표 하 40c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북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이다.

제토결과 확인된 퇴적양상으로 보아 조사지역의 원 지형은 남서쪽이 높고 북동쪽이 낮은 지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대 경작지 및 주택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절토 및 정리되어 현 지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조사대상지 기준 토층도(남동벽)

토 층		내 용	
	1층	암갈색사질점토	표토층 (두께 30cm)
	2층	갈색사질점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30~40cm)
	3층	황갈색풍화암반	생토층(조선시대 문화층) (지표 하 40cm 이상)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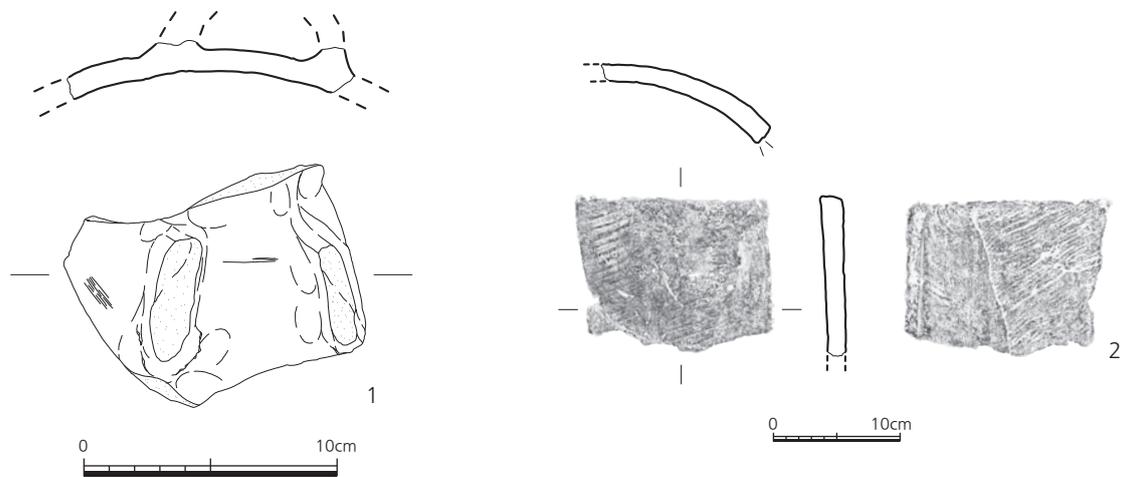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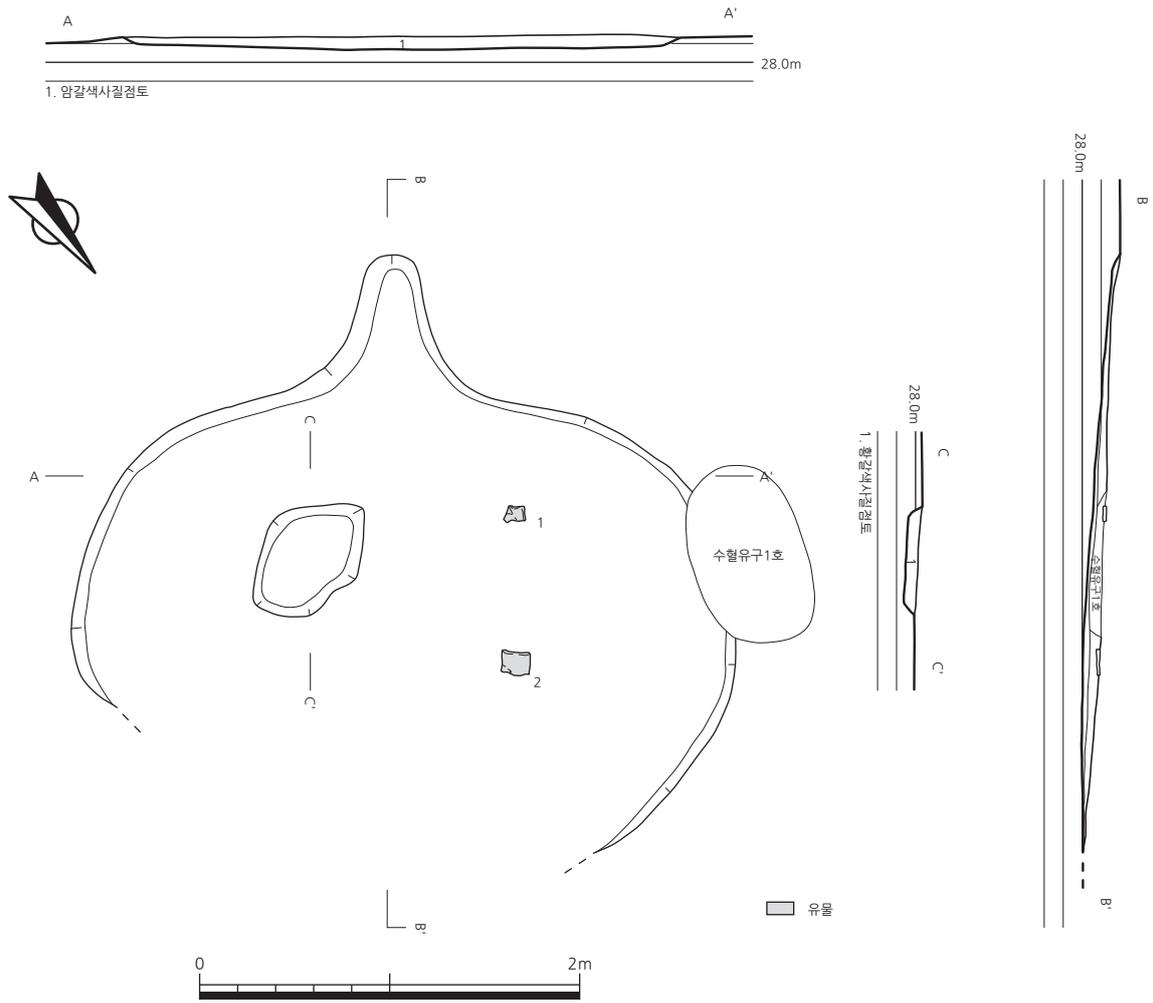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주거지 1동과 수혈유구 8기, 구상유구 3기, 주혈 16개 등이 조사되었으며,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토광묘 2기는 모두 이장묘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호 구연부편 1점·토기 파수부편 1점·백자편 1점·암기와편 1점 등 4점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1) 주거지

가. 유구(도면 6, 도판 4-②~7-②)

조사구역 북서쪽인, 해발 28.2m 지점에 위치한다. 삭평으로 인해 북동벽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도면 6. 주거지 및 출토유물

전체적으로 잔존양상이 불량하다. 수혈유구 1호에 의해 북서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북쪽으로 수혈유구 2~4호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황갈색풍화암반을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360cm · 너비 317cm · 최대깊이 8cm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51°-W)향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굴곡되어 고르지 못하였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 남동쪽 바닥면에서 내부수혈 1개와 남서벽에서 부뚜막시설이 확인되었다. 부뚜막시설은 삭평으로 대부분 유실되고 배연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었다. 배연부는 주거지 남서벽 외부로 68cm정도 돌출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형이고 벽면은 남서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올라간다. 내부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75cm · 너비 51cm · 최대깊이 8cm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남서쪽 바닥면에서 6cm 정도 뜬 상태로 토기 파수부편 1점, 북서쪽에서 바닥면에서 8cm 정도 뜬 상태로 암키와편 1점 등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토기 파수부편(도면 6-1, 도판 7-1)

파수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갈색(2.5Y 5/2), 내면과 속심은 담갈색(10YR 6/3)이다. 외면에는 대상파수가 접합되었다가 탈락된 흔적이 관찰되고 파수접합 시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지두압흔이 잔존한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1.4cm, 두께 0.9cm

2. 암키와편(도면 6-2, 도판 7-2)

상단부 일부만 잔존하는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적갈색(7.5YR 5/4)이다. 외면에는 선문 타날 후 물손질, 내면에는 사절흔 · 합절흔 · 포목흔이 확인된다.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3 가량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4.4cm, 잔존너비 12.7cm, 두께 1.5cm

2) 수혈유구

가. 유구

수혈유구는 조사구역 북쪽 부분에서 4기, 중앙부에서 3기, 남쪽에서 1기 등 8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유구 1호는 주거지의 북서벽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으며, 수혈유구 4호는 조사경계 북쪽으로 연장되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생토인 황갈색풍화암반을 굴착하고 축조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 3기(1·3·8호), 원형 4기(2호, 5~7호), 방형 1기(4호)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표 4】 수혈유구 속성표

유구 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장축방향	(잔존)규모cm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호	7	7-③~⑥	타원형	N-20°-E	97	60	11	1.암갈색사질점토	주거지 북서벽 일부 파괴
2호	7	8-①~④	원형		60	54	5	1.암갈색사질점토	
3호	7	8-⑤~⑧	타원형	N-17°-E	95	80	39	1.암갈색사질점토	
4호	7	9-①~④	장방형		100	(51)	10	1.암갈색사질점토	조사경계 북쪽으로 연장
5호	8	9-⑤~⑧	원형		63	60	20	1.암갈색사질점토	
6호	8	10-①~④	원형		50	47	11	1.암갈색사질점토	
7호	8	10-⑤~⑧	원형	N-85°-W	290	240	14	1.암갈색사질점토	
8호	8	11-①~④	타원형	N-55°-W	128	48	36	1.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3) 구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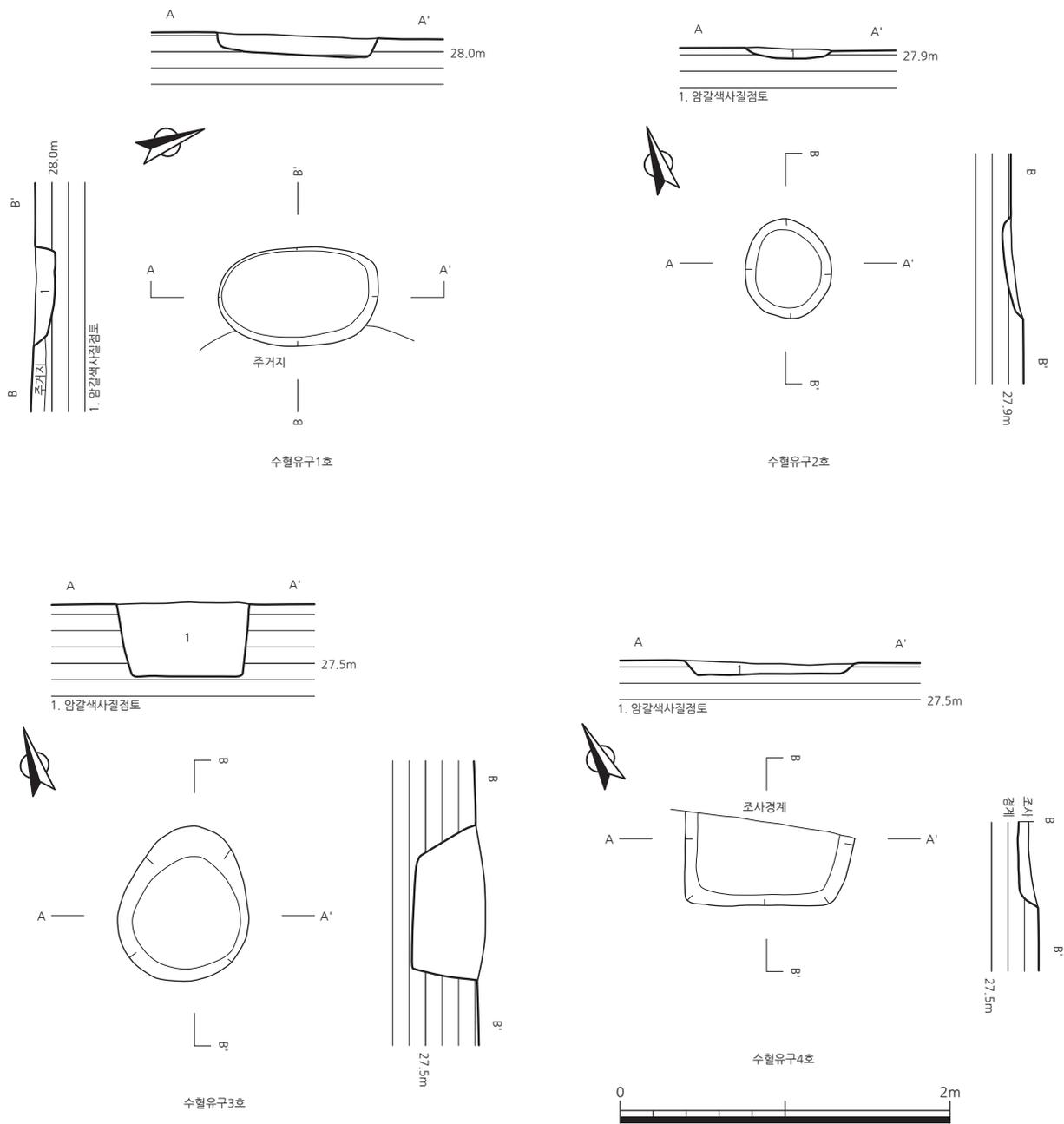
가. 유구

구상유구는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2기, 남서쪽에서 1기 등 3기가 조사되었는데, 1호와 2호는 조사경계 북쪽으로 연장된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경사진 지형을 따라 등고선에 직교하게 축조되었는데 3호는 남서쪽과 북동쪽이 삭평으로 유실되었고, 1·2호가 남서쪽이 삭평되어 유실되었다. 모두 생토인 황갈색풍화암반을 굴착하고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1·2호가 'S'자형에 가깝고, 3호는 '┌'자형이며, 단면형태는 모두 'U'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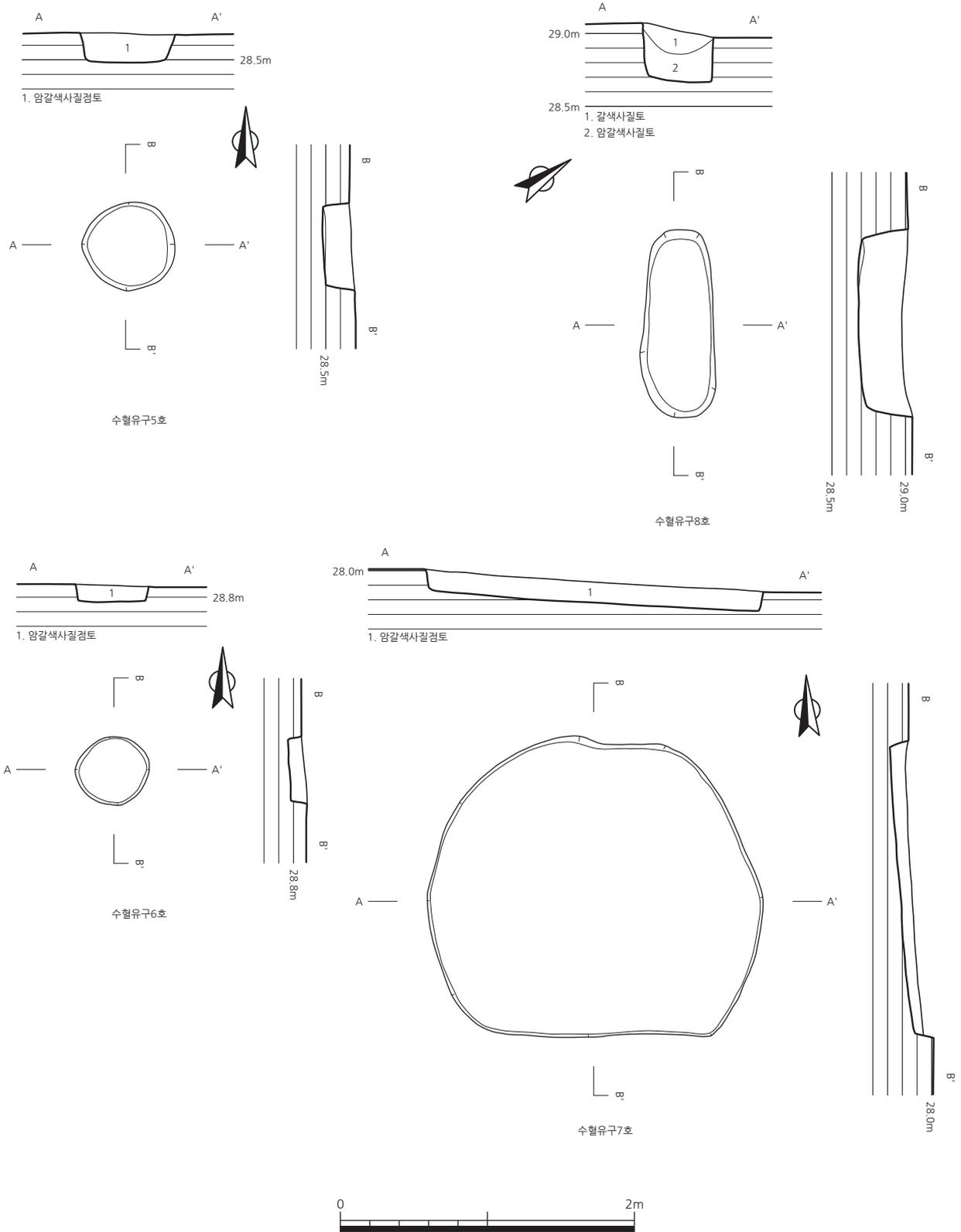
유물은 3호 중앙부 바닥면에서 약간 뜬 상태로 백자편 1점과 호 구연부편 1점 등 2점이 출토되었다.

【표 5】 구상유구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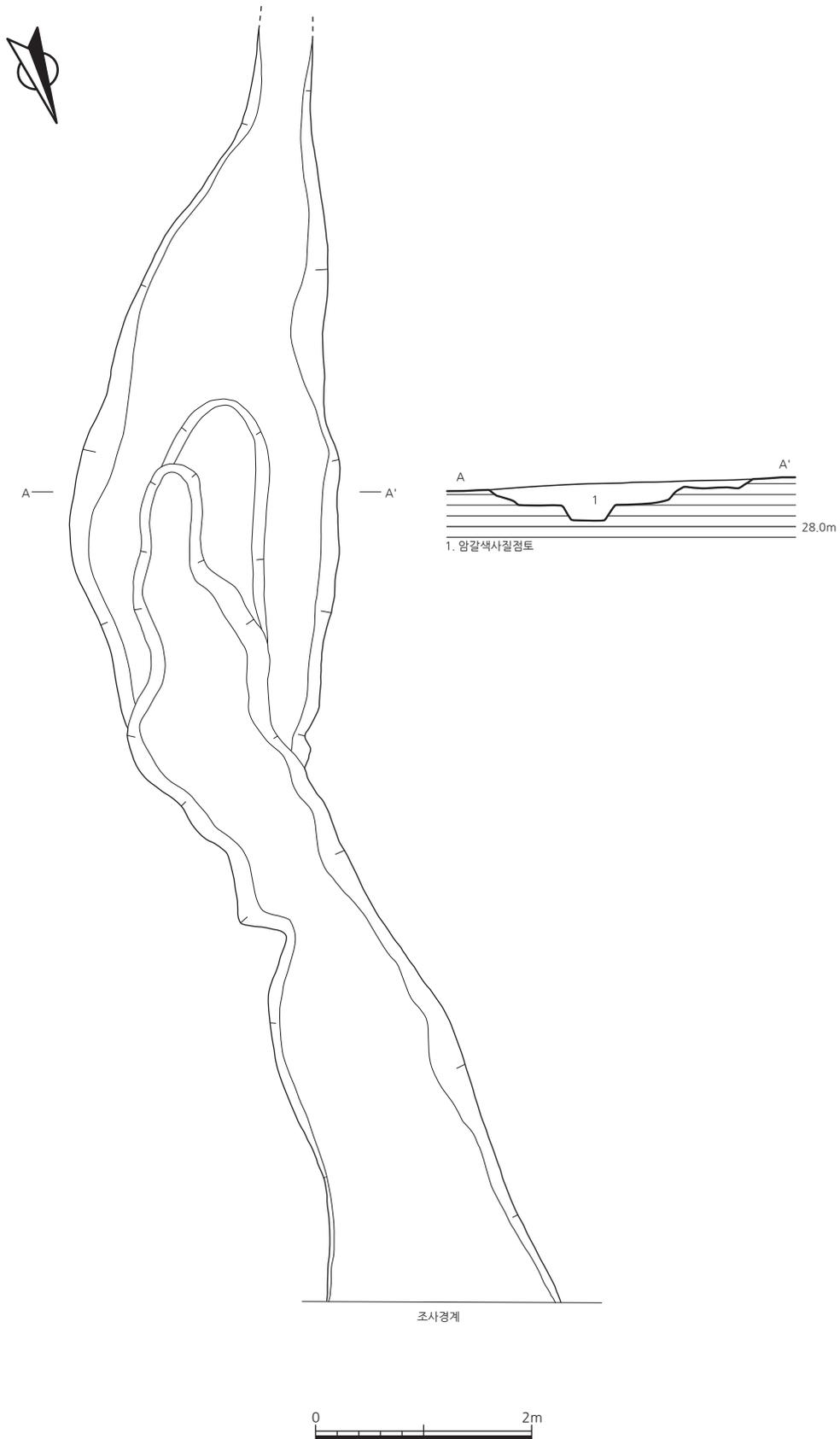
유구 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단면 형태	(잔존)규모(cm)			내부토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호	9	11-⑤~ 12-②	'S' 자형	'U' 자형	(1,204)	84~243	12~37	1.암갈색 사질점토		남서쪽 유실 조사경계 북쪽으로 연장
2호	10	12-③~ 13-②	'S' 자형	'U' 자형	(1,520)	24~223	20~45	1.황갈색 사질토		남서쪽 유실 조사경계 북쪽으로 연장
3호	11	13-③~ 14-②	'┌' 자형	'U' 자형	(1,442)	40~123	7~14	1.갈색 사질토	백자편 1점 호 구연부편 1점	남서쪽과 북동쪽 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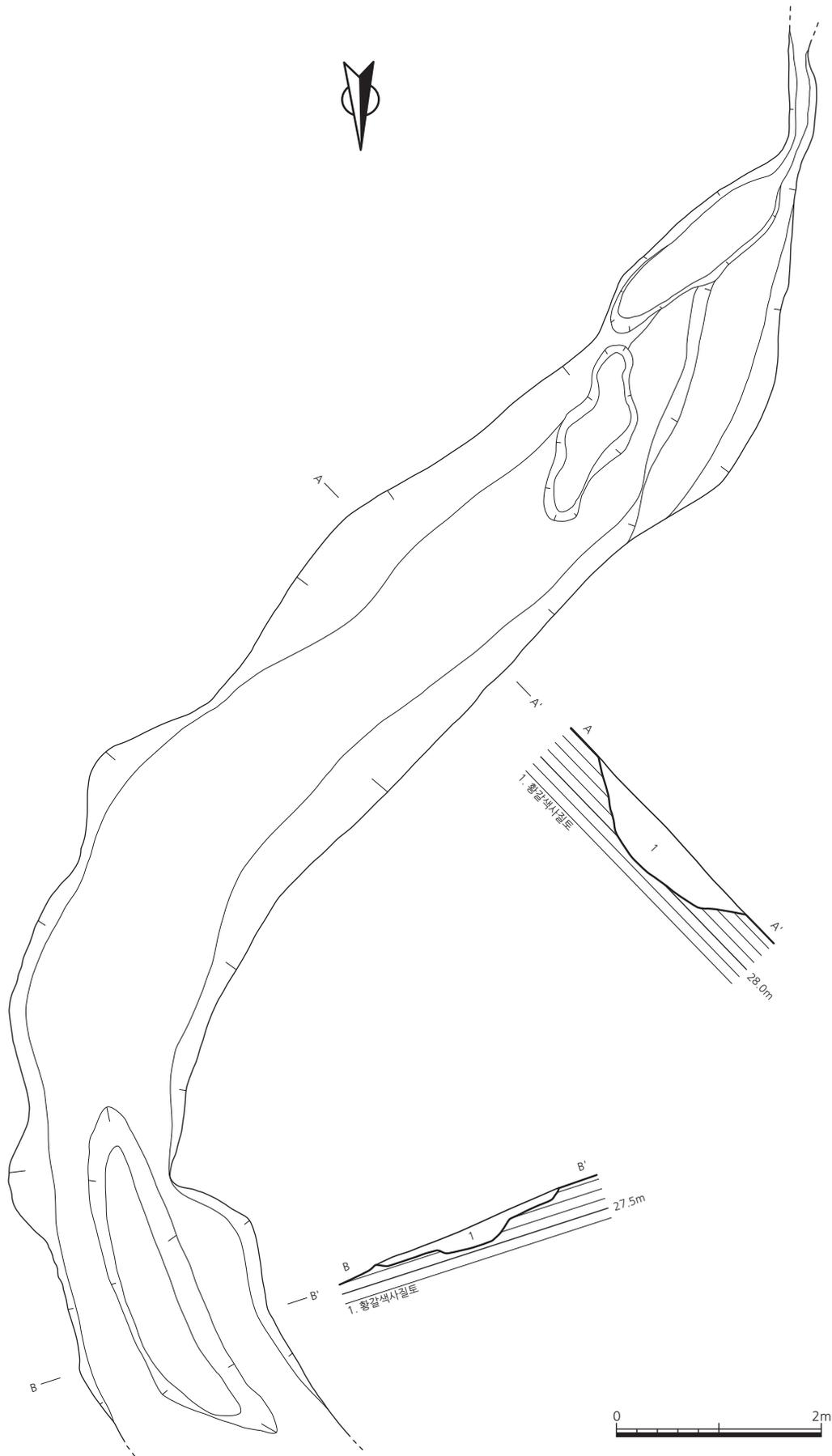
도면 7. 수혈유구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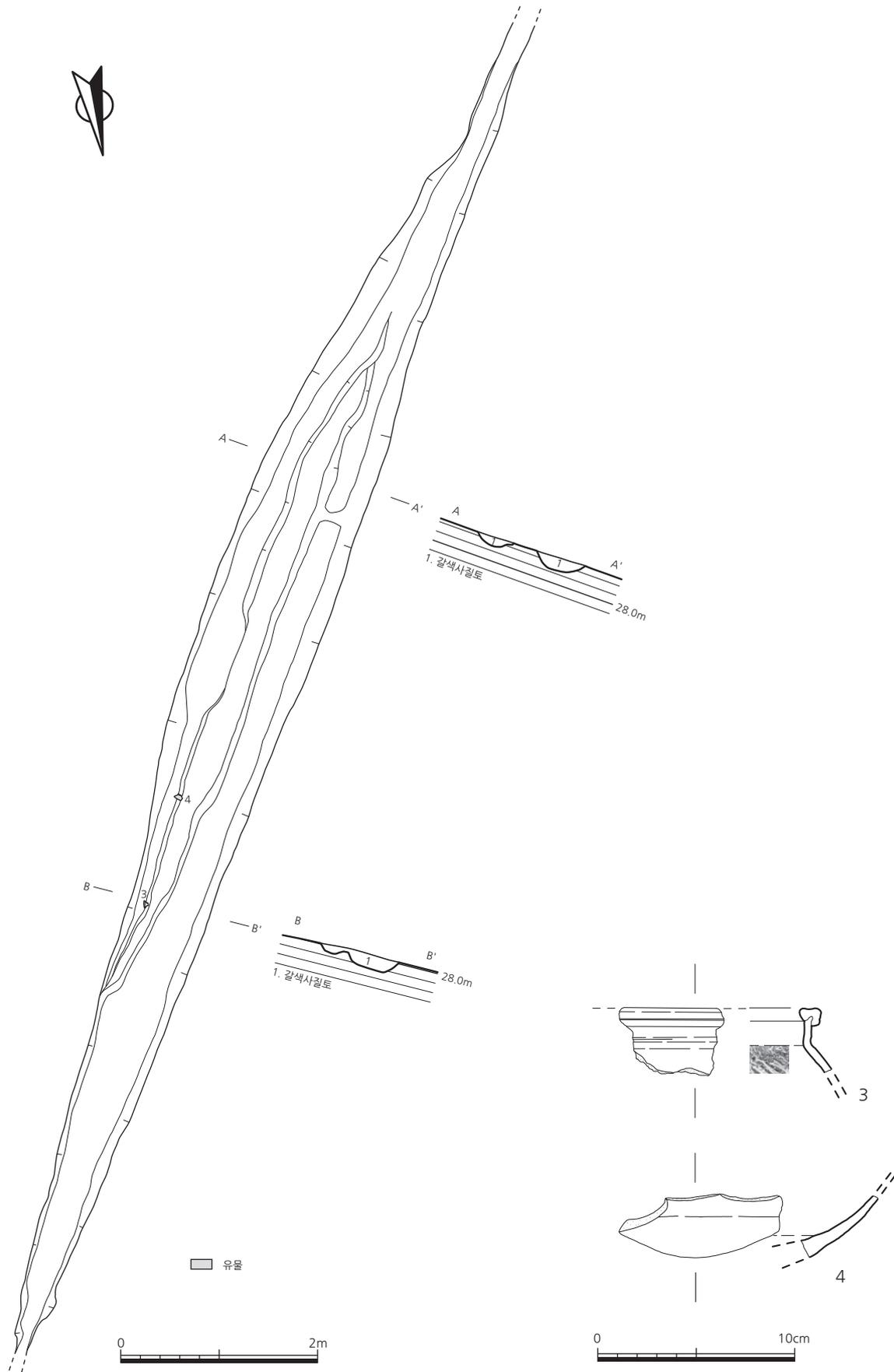
도면 8. 수혈유구 5~8호



도면 9. 구상유구 1호



도면 10. 구상유구 2호



도면 11. 구상유구 3호 및 출토유물

나. 유물

3. 호 구연부편(도면 11-3, 도판 14-3)

일부만 잔존하는 호 구연부편이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 및 속심 모두 암회색(10YR 4/2)이다. 경부는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올라오다 수직에 가깝게 짧게 직립하여 뭉툭한 구연부에 이른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3cm, 두께 0.4cm

4. 백자편(도면 11-4, 도판 14-4)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는 백자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유약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명녹회색(5GY 7/1)이다. 기형은 저부에서 사방향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올라간다.

잔존기고 3.1cm, 두께 0.3~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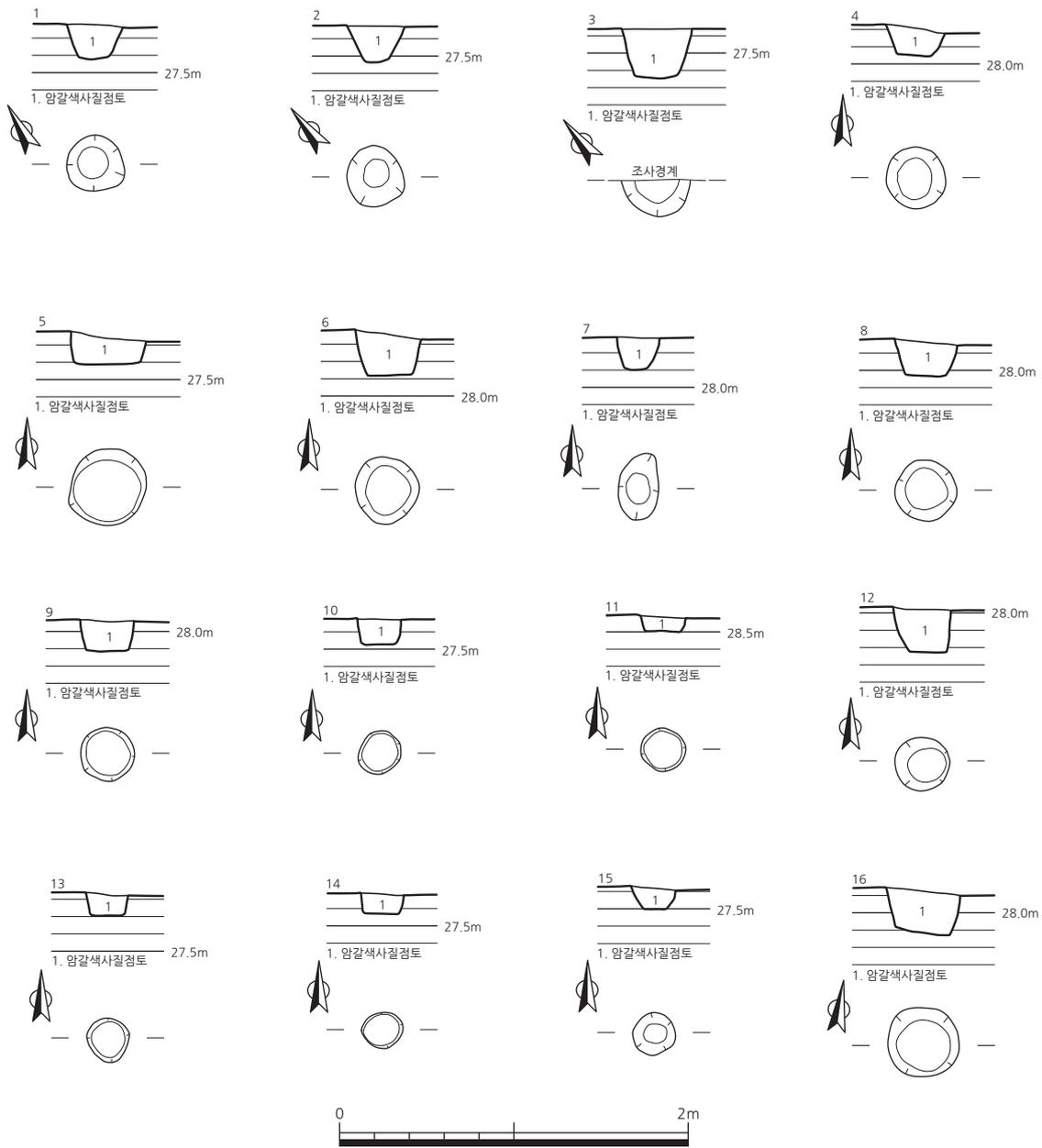
4) 주혈군

가. 유구

주혈은 조사구역 북서쪽에서 정형성 없이 산발적으로 모두 16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 3은 조사경계 북쪽으로 연장되었다. 모두 생토인 황갈색풍화암반을 굴착하고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내부에서 목주흔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주혈군 속성표

유구 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단면 형태	(잔존)규모(cm)		내부토	비고
					지름	깊이		
1	12	14-③~⑥	원형	'U'자형	33	20	1.암갈색사질점토	
2	12	14-⑦~⑩	원형	'U'자형	33	22	1.암갈색사질점토	
3	12	14-⑪~⑬	원형	'U'자형	33	29	1.암갈색사질점토	조사경계 북쪽으로 연장
4	12	14-⑭~⑰	원형	'U'자형	35	15	1.암갈색사질점토	
5	12	15-①~④	원형	'U'자형	45	15	1.암갈색사질점토	
6	12	15-⑤~⑧	원형	'U'자형	36	23	1.암갈색사질점토	
7	12	15-⑨~⑫	원형	'U'자형	24	19	1.암갈색사질점토	
8	12	15-⑬~⑯	원형	'U'자형	36	19	1.암갈색사질점토	
9	12	15-⑰~⑳	원형	'U'자형	32	17	1.암갈색사질점토	
10	12	15-㉑~㉒	원형	'U'자형	24	14	1.암갈색사질점토	
11	12	16-①~④	원형	'U'자형	26	9	1.암갈색사질점토	
12	12	16-⑤~⑧	원형	'U'자형	32	25	1.암갈색사질점토	
13	12	16-⑨~⑫	원형	'U'자형	24	12	1.암갈색사질점토	
14	12	16-⑬~⑯	원형	'U'자형	24	11	1.암갈색사질점토	
15	12	16-⑰~⑳	원형	'U'자형	24	12	1.암갈색사질점토	
16	12	16-㉑~㉒	원형	'U'자형	42	40	1.암갈색사질점토	



도면 12. 주혈군

IV. 조사성과

본 유적은 이명숙씨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부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69·369-1·369-2번지에 해당한다. 표본조사 면적은 1,970㎡이며, 발굴조사 면적은 표본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1,857㎡이다.

조사지역은 ‘공주 우성면 도천리 369번지 일원 버섯재배사 예정부지 지표조사’에서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표본조사에서 주거지·수혈유구·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지 주변에는 공주 상서리 유적·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제11지구) 추가편입지역 공주 상서리 유적·상서리 동양물산 연구소 부지 내 유적·공주 상서리 부처당골 유적 등이 분포한다.

표본조사는 2019년 4월 18일에 착수하고 4월 19일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는 2일이 소요되었다. 표본조사 결과, 트렌치 내에서 주거지 1동·수혈유구 1기·토광묘 2기·구상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5월 15일 착수하고 6월 14일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는 17일이 소요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주거지 1동·수혈유구 8기·구상유구 3기와 주혈 16개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호구연부편 1점·토기 파수부편 1점·백자편 1점·암키와편 1점 등 4점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타원형의 평면형태로 남서벽 중앙부에 부뚜막이 시설되었다. 부뚜막은 상부가 상당부분 삭평되어 타원형으로 돌출된 연도부만 확인되었다. 주혈이 확인되지 않아 지붕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금마지』⁵¹⁾에서 묘사된 조선시대 가난한 사람들의 집 지붕구조를 통해 유추해보면 중앙부에 초석 혹은 생토면 위에 중앙 기둥을 세운 후 원추형으로 서까래를 걸친 원추형 지붕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출토된 유물 또한 빈약하여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타원형 평면형태와 벽면 중앙에 타원형으로 돌출된 연도부를 가지는 주거지는 조선시대에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출토된 토기편과 구상유구 3호에서 출토된 백자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 주거지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 중 주거지 바닥면에서 뜬 상태로 출토된 암키와편의 경우 선문이 타날되었다. 이러한 문양은 고려시대 암키와에서 보이는데⁵²⁾, 방형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가공했을 가능성과 마모된 단면으로 보아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의도적으로 가공했다면 부뚜막시설 제작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⁵³⁾. 기와의 경우 전용되기도 하고 타날된 선문의 경우

51) 『金馬志』의 金馬는 지금의 익산지방이며 1756년 금마 군수 남태보에 의해 편찬된 책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익산지방에서는 이른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하여 머슴 하나도 두지 못하며, 따라서 나무를 하고 물을 길는 일도 몸소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兼奴上典’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사는 집도 돼지우리나 진배없다. 가운데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기둥에 의지하여 둥그렇게 돌아가며 서까래를 놓고 그 위에 풀을 덮어 만든 것이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움집안에 거처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밖으로 나와 노천에서 잔다.”

52) 박종진, 2011,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시대 전기간 동안 유행하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라지기에 외부에서 유입되었다면 차후 주변에서 고려시대 기와건물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은 원삼국시대와 조선시대 생활유적과 매장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본 유적은 도천리 일원을 생활터전으로 하였던 조선시대 마을의 일부분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천리 지역의 중세이후 또는 근세 마을 연구에 보탬이 되는 학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53) 한선경, 2018, 「청주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성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①원경, ②표본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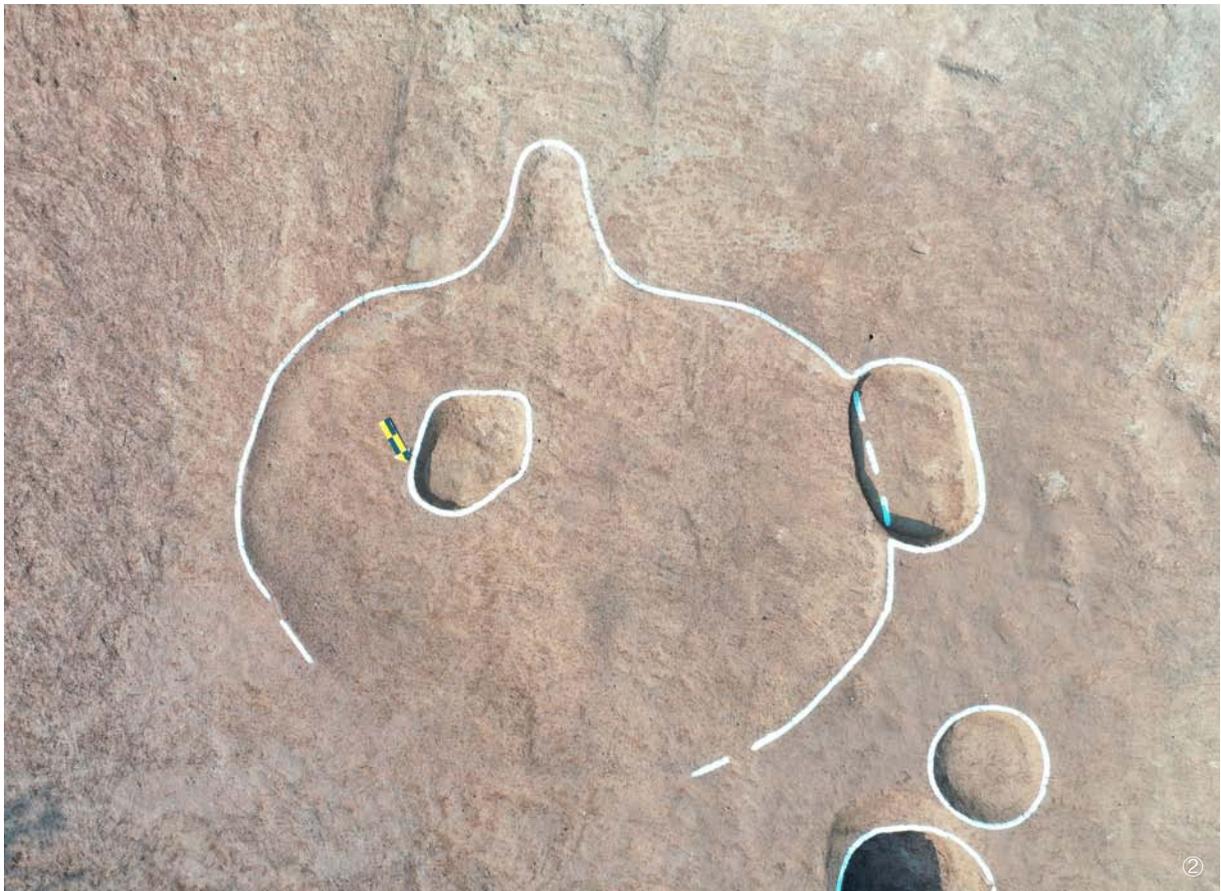
도판 2. 표본조사(①트렌치1, ②트렌치2, ③트렌치3, ④트렌치4)



도판 3. 표본조사(①트렌치5, ②주거지, ③주혈, ④토광묘 1호, ⑤토광묘 2호, ⑥구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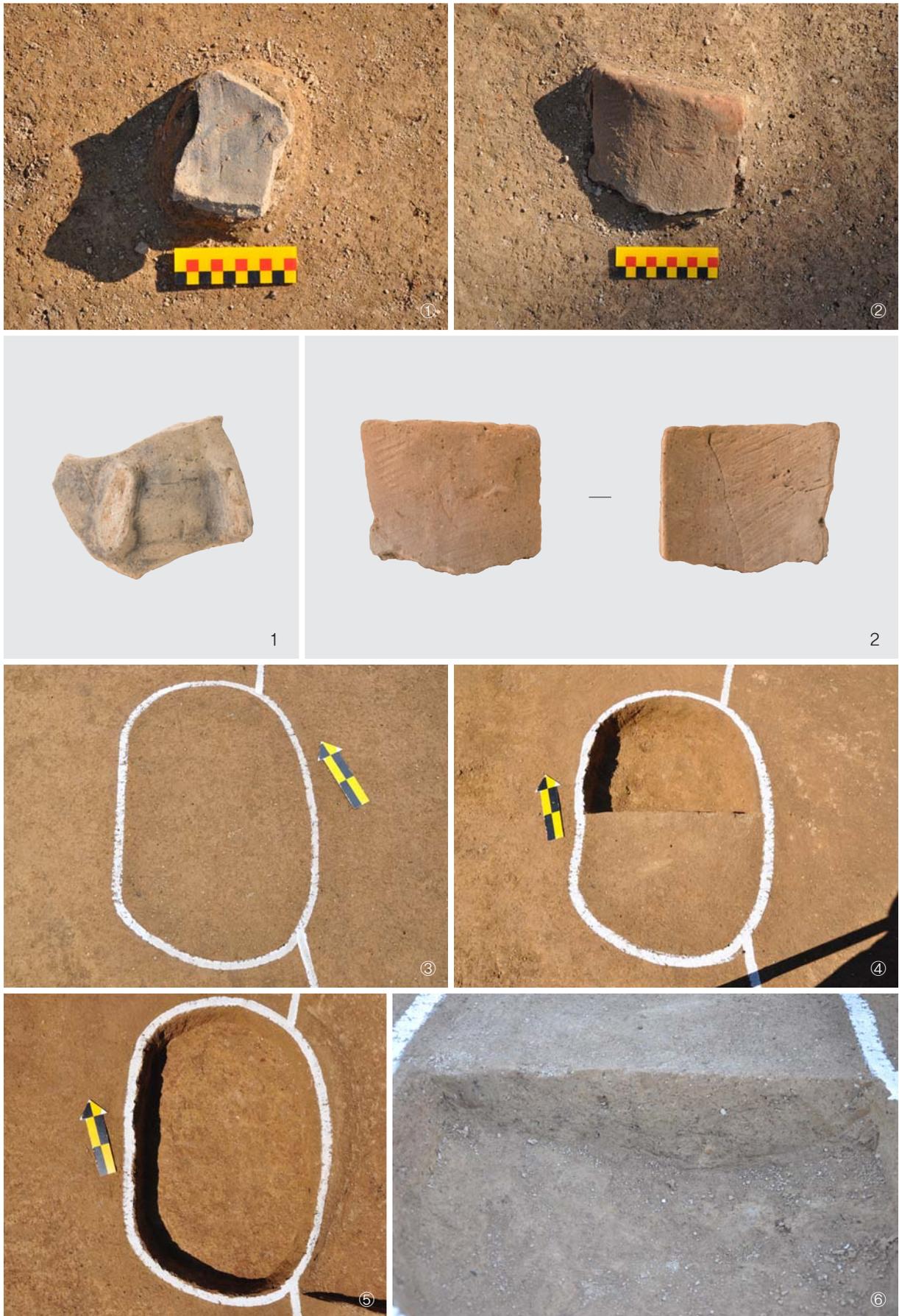
도판 4. 발굴조사(①조사후) 및 주거지(②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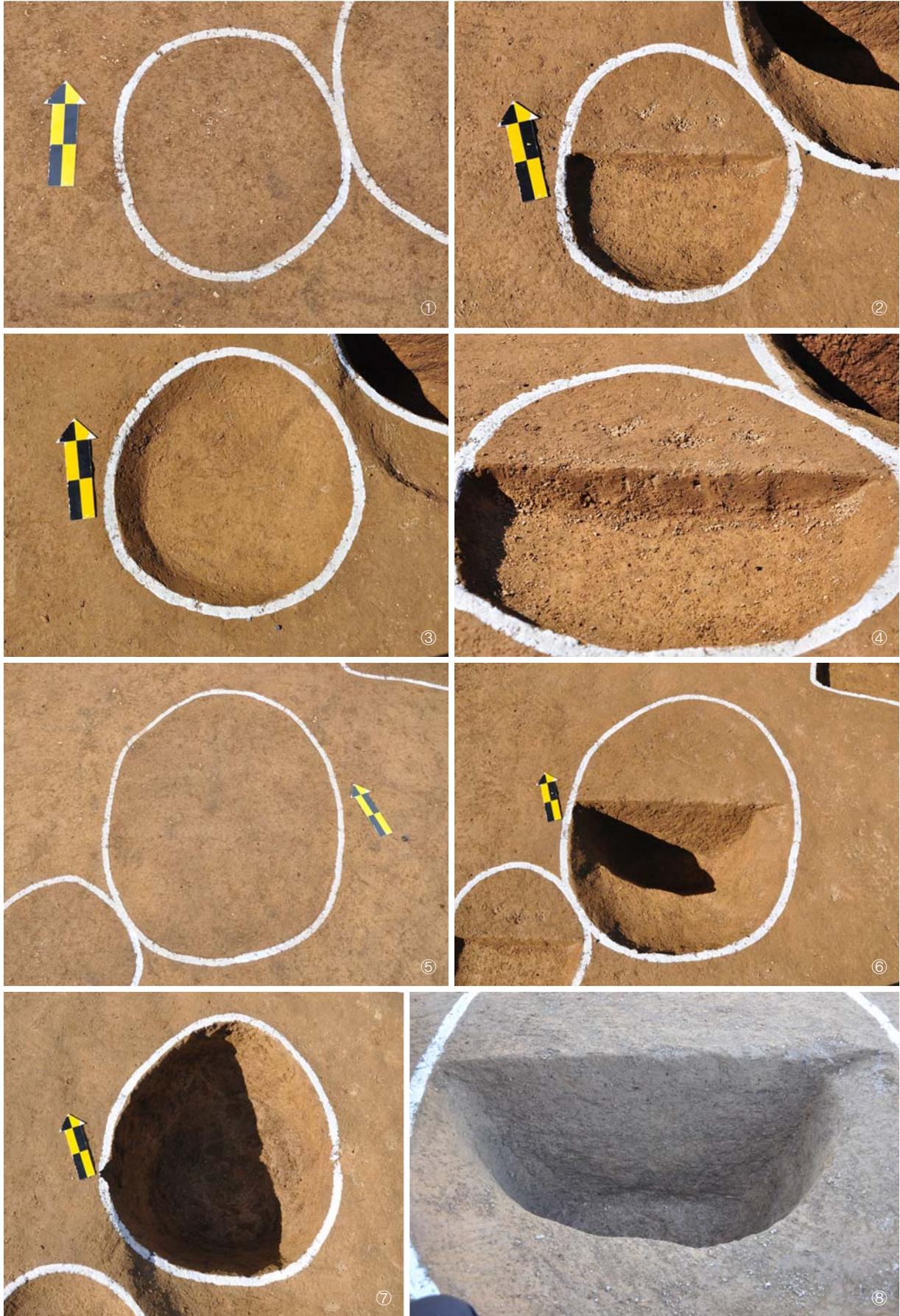
도판 5.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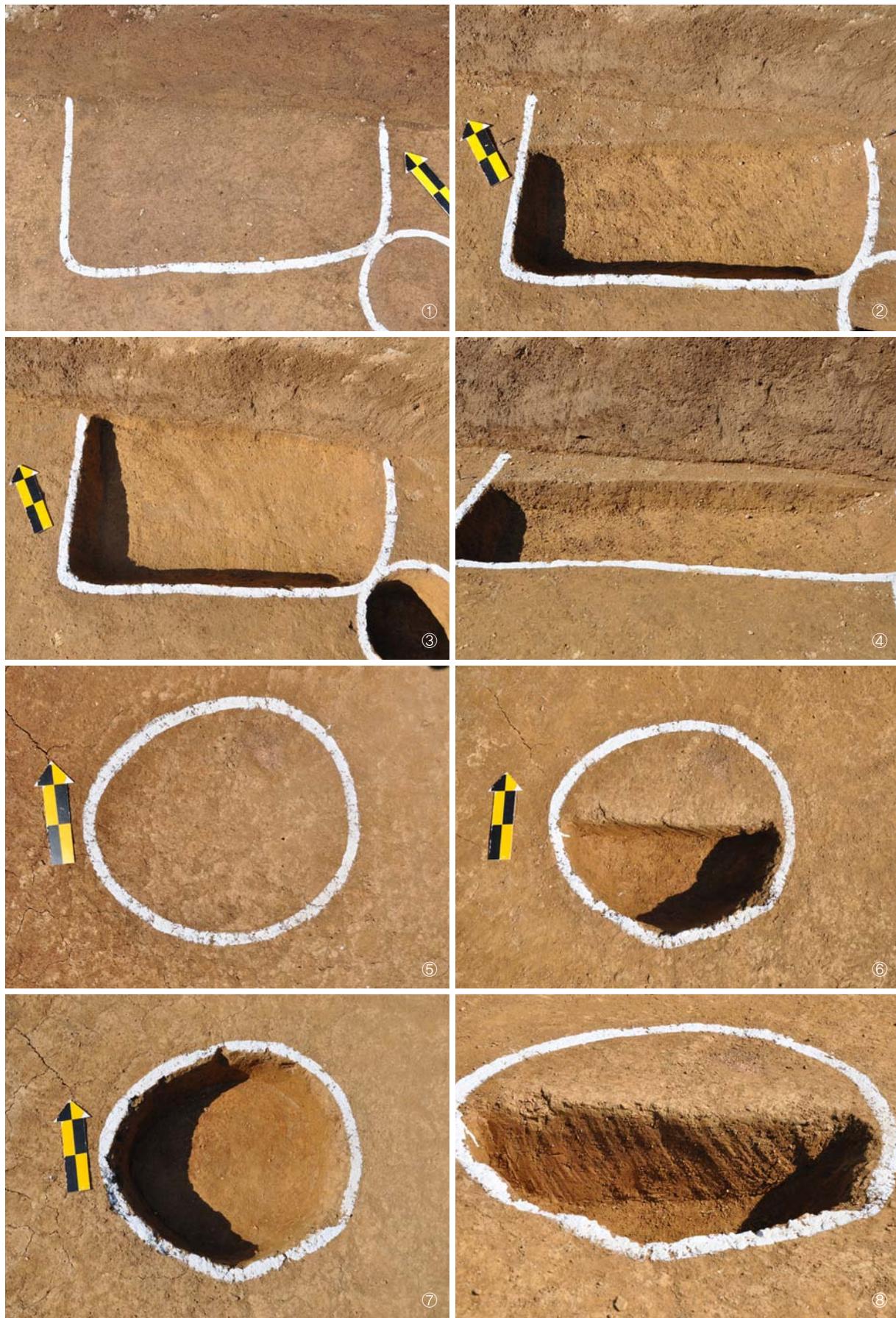
도판 6. 주거지(①②토층, ③~⑥내부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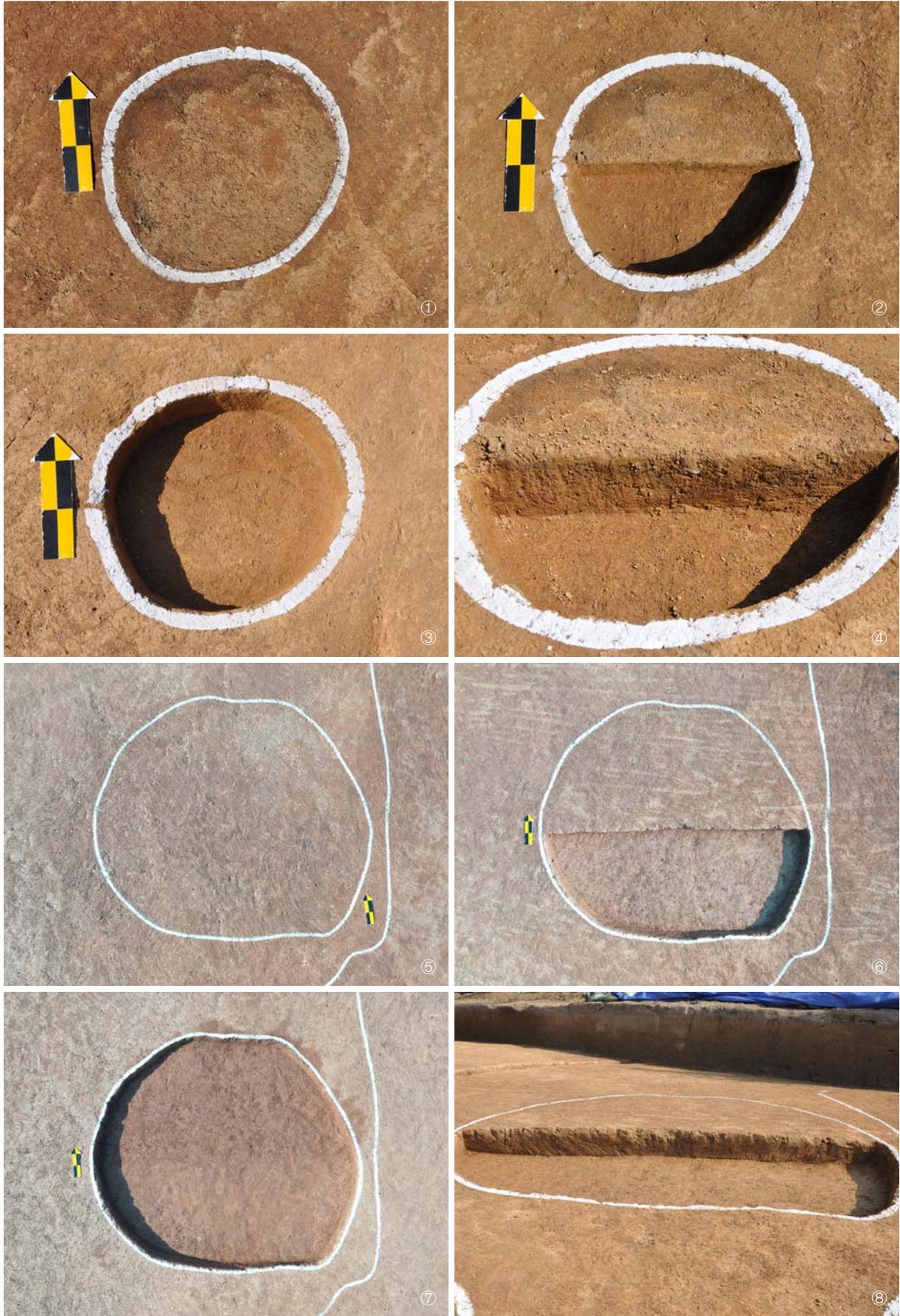
도판 7. 주거지(①②유물출토상태, 1·2출토유물) 및 수혈유구 1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토층)



도판 8.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3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도판 9.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5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도판 10. 수혈유구 6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7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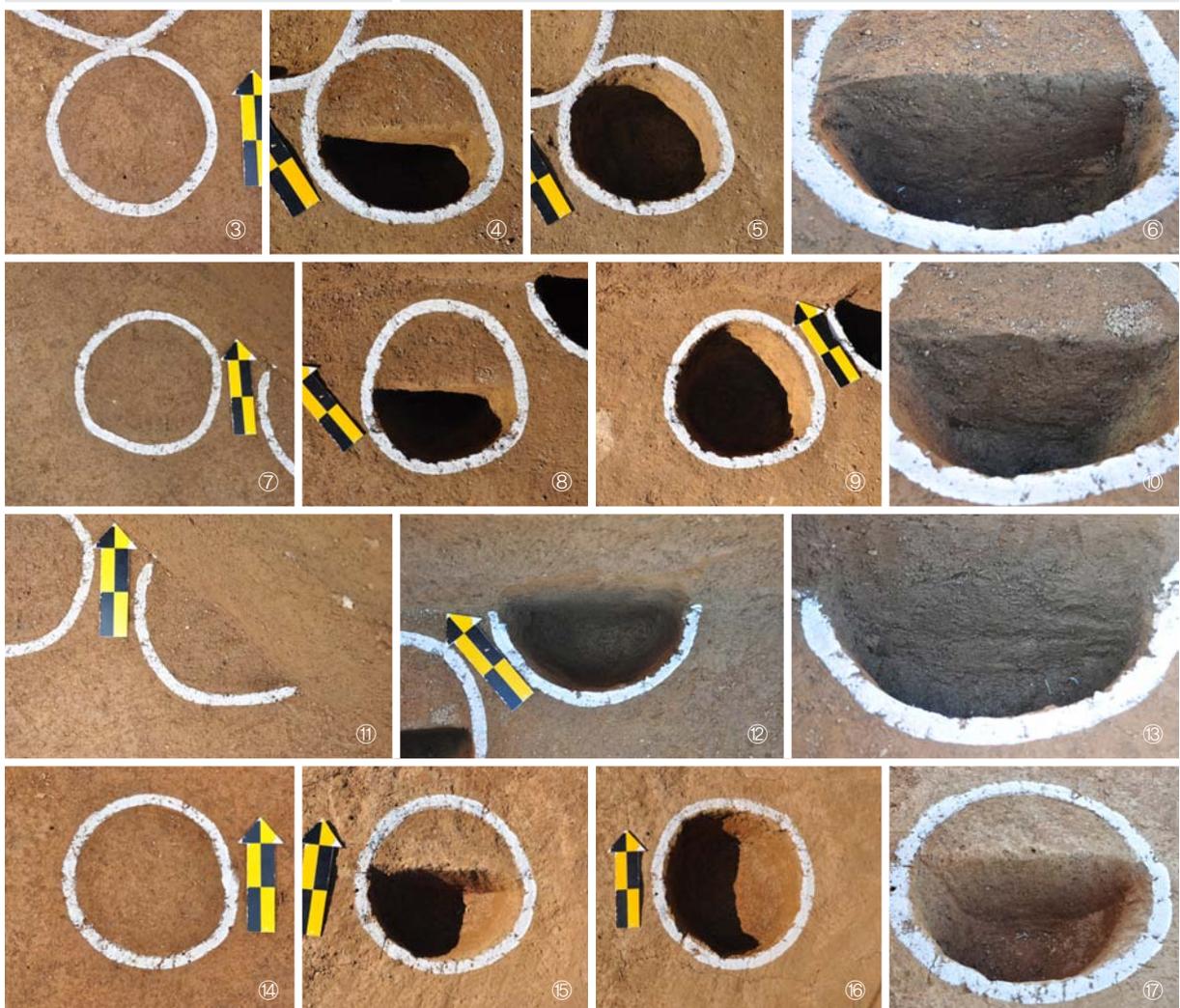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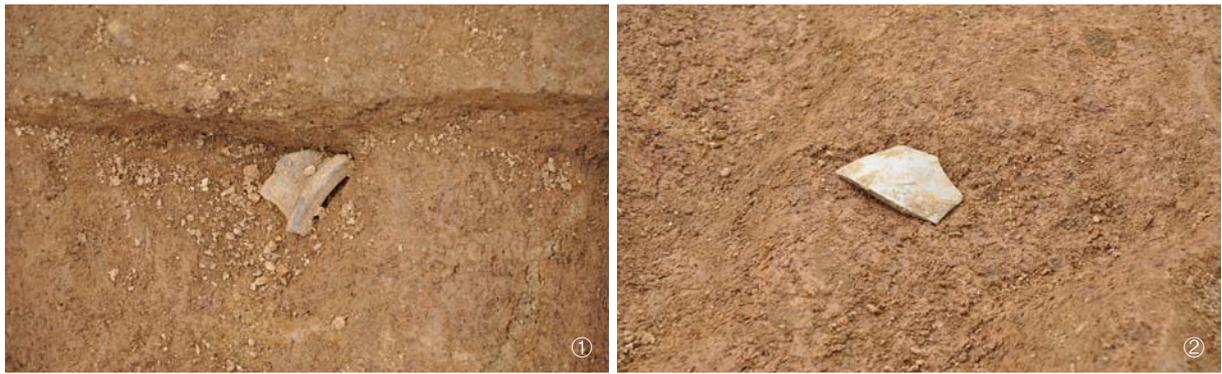
도판 11. 수혈유구 8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구상유구 1호(⑤조사전, ⑥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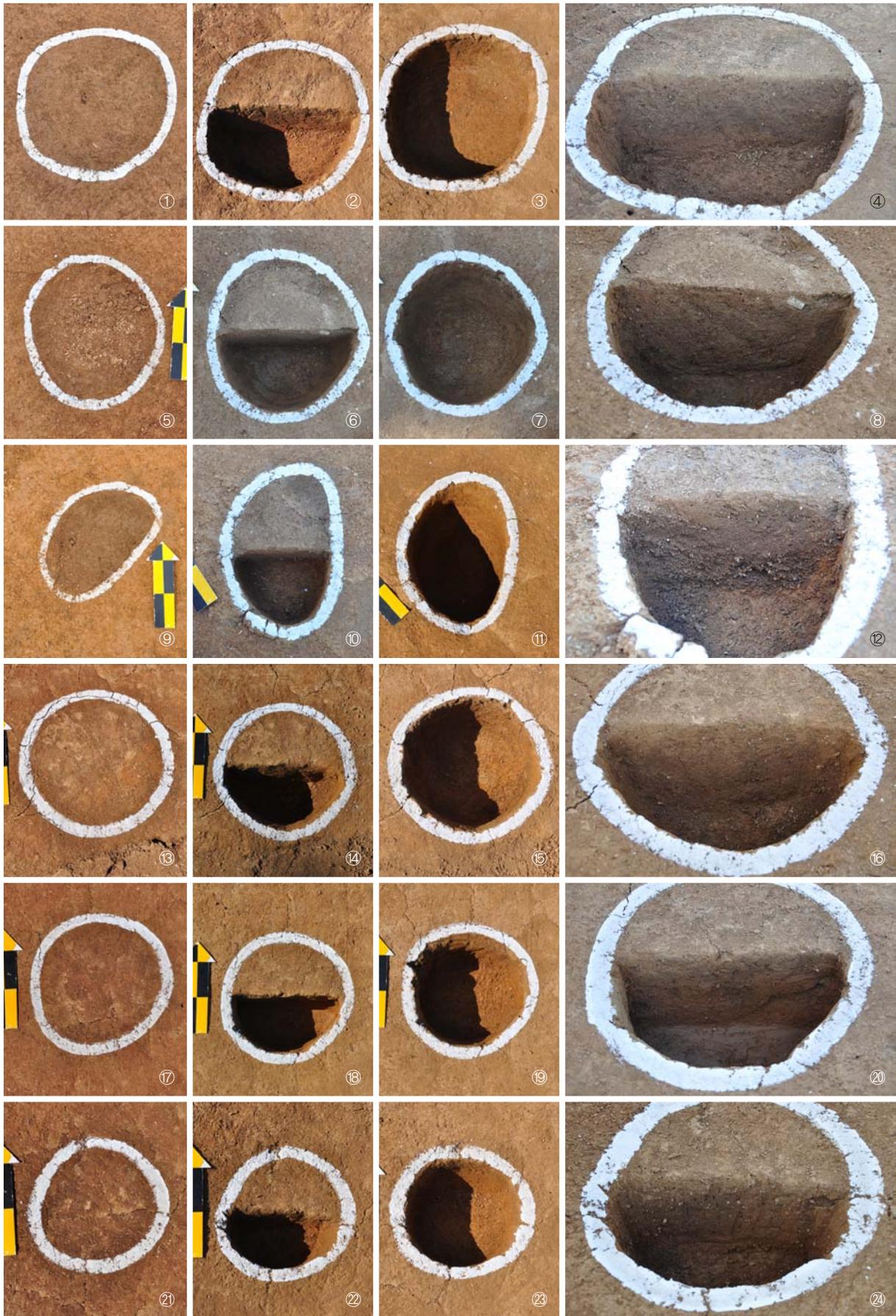
도판 12. 구상유구 1호(①조사후, ②토층) 및 2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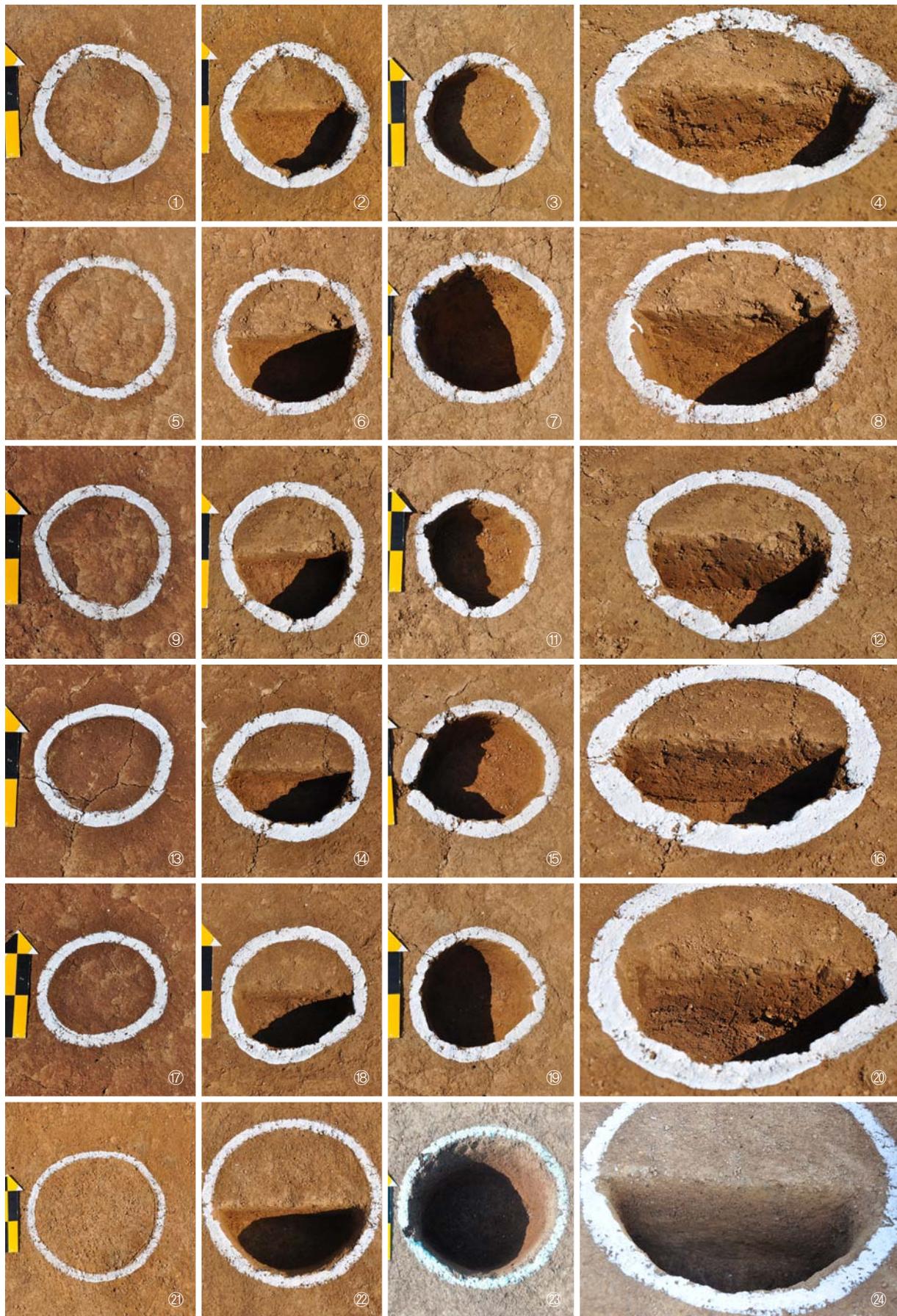
도판 13. 구상유구 2호(①②토층) 및 3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⑦토층)



도판 14. 구상유구 3호(①②유물출토상태, 3·4:출토유물) 및 주혈군(③~⑥주혈1, ⑦~⑩주혈2, ⑪~⑬주혈3, ⑭~⑰주혈4)



도판 15. 주혈군(①~④주혈5, ⑤~⑧주혈6, ⑨~⑫주혈7, ⑬~⑯주혈8, ⑰~⑳주혈9, ㉑~㉔ 주혈10)



도판 16. 주혈군(①~④주혈1, ⑤~⑧주혈2, ⑨~⑫주혈3, ⑬~⑯주혈4, ⑰~⑳주혈5, ㉑~㉒주혈6)

공주 도천리 369번지 외 2필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 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579-0001	토기 파수부편	1	주거지	토도	조선시대	(11.4)		0.9	6-1 7-1	Y
2019-0579-0002	암키와편	1	주거지	토도	조선시대	(14.4)	(12.7)	1.5	6-2 7-2	Y
2019-0579-0003	호 구연부편	1	구상유구 3호	토도	조선시대	(3.3)		0.4	11-3 14-3	Y
2019-0579-0004	백자편	1	구상유구 3호	토도	조선시대	(3.1)		0.3~0.9	11-4 14-4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공주 도천리 369번지 외 2필지 유적			發行日	2021년 6월 4일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1577-5805	FAX	(054)774-8169	
執筆·編輯者	정훈진·이건충·김봉성·정홍선·박자연				
調査緣由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정훈진·이건충·김봉성·최성수·김형숙				
遺蹟所在地番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69·369-1·369-2번지				
調査面積	1,857㎡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조선시대	1동	토기편·암키와편		
수혈유구	조선시대	8기			
구상유구	조선시대	3기	백자편·호 구연부편		
주혈군	조선시대	16개			

87. 강릉 초당동 394-3번지 유적

(재)국강고고학연구소

목 차

I. 조사개요		87-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87-9
1. 자연·지리적 환경		87-9
2. 고고·역사적 배경		87-12
III. 조사내용		87-22
1. 조사지역의 현황 및 조사방법		87-22
2. 발굴조사		87-24
〈신석기시대〉		87-26
1) 주거지		87-26
(1) 주거지 1호		87-26
(2) 주거지 2호		87-32
2) 할석유구 및 수혈유구		87-36
(1) 할석유구		87-36
(2) 수혈유구 1호		87-39
(3) 수혈유구 2호		87-41
(4) 수혈유구 3호		87-42
(5) 수혈유구 4호		87-43
〈삼국시대〉		87-45
1) 주거지		87-46
(1) 주거지 1호		87-46
(2) 주거지 2호		87-50
(3) 주거지 3호		87-57
(4) 주거지 4호		87-59
2) 옹관묘 및 저습지		87-64
(1) 옹관묘		87-64
(2) 저습지		87-66
〈문화층 및 교란층〉		87-66
IV. 조사성과		87-69
※ 부 록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87-99

도면목차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87-10
도면 2.	조사지역 일대 지질도(1:50,000)	87-11
도면 3.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세부 현황도(1:10,000)	87-18
도면 4.	조사대상지 지형도(1:2,000)	87-23
도면 5.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1/350)	87-25
도면 6.	신석기시대 유구 배치도(1/350)	87-26
도면 7.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87-27
도면 8.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87-29
도면 9.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87-31
도면 10.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87-32
도면 11.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	87-33
도면 12.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87-34
도면 13.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87-35
도면 14.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87-36
도면 15.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출토유물	87-38
도면 16.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출토유물	87-39
도면 17.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	87-40
도면 18.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	87-40
도면 19.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	87-41
도면 20.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	87-41
도면 21.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3호	87-42
도면 22.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3호 출토유물	87-43
도면 23.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	87-43
도면 24.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출토유물	87-44
도면 25.	삼국시대 유구 배치도(1/350)	87-45
도면 26.	삼국시대 주거지 1호	87-46
도면 27.	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87-49
도면 28.	삼국시대 주거지 2호	87-50
도면 29.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87-54
도면 30.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87-55
도면 31.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87-56
도면 32.	삼국시대 주거지 3호	87-57

도면 33.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	87-59
도면 34. 삼국시대 주거지 4호	87-60
도면 35.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	87-62
도면 36.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	87-63
도면 37. 삼국시대 옹관묘	87-64
도면 38. 삼국시대 옹관묘 출토유물	87-65
도면 39. 삼국시대 저습지	87-66
도면 40. 문화층 및 지표교란층 수습유물	87-67
도면 41. 문화층 및 지표교란층 수습유물	87-68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일대 전경, ②:조사후)	87-73
도판 2.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후, ⑤유물출토상태)	87-74
도판 3.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1~8:출토유물1)	87-75
도판 4.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9~16:출토유물2)	87-76
도판 5.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노지, ⑤유물출토상태)	87-77
도판 6.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17~25:출토유물1)	87-78
도판 7. 신석기시대 할석유구(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⑤·⑥토층, ⑦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와 중복상태(후축), ⑧유물출토상태)	87-79
도판 8. 신석기시대 할석유구(26~34:출토유물1)	87-80
도판 9.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35·36:출토유물)	87-81
도판 10.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후, 37~38:출토유물),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3호(③조사전, ④조사후, 40·41:출토유물)	87-82
도판 11.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42~45:출토유물)	87-83
도판 12.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⑤·⑥구들, ⑦·⑧유물출토상태)	87-84
도판 13. 삼국시대 주거지 1호(46~57:출토유물)	87-85
도판 14.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조사중, ④토층, ⑤유물출토상태)	87-86
도판 15. 삼국시대 주거지 2호(58·59:출토유물1)	87-87
도판 16. 삼국시대 주거지 2호(60~66:출토유물2)	87-88

도판 17. 삼국시대 주거지 2호(67~71:출토유물3)	87-89
도판 18.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72~77:출토유물)	87-90
도판 19.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부뚜막, ⑤유물출토상태)	87-91
도판 20. 삼국시대 주거지 4호(78~84:출토유물)	87-92
도판 21. 삼국시대 옹관묘(①조사전, ②조사후, 85·86:출토유물)	87-93
도판 22. 삼국시대 저습지(①조사중, ②토층)	87-94
도판 23. 문화층 및 지표교란층(87~90:출토유물), ①학술자문회의	87-95

I. 조사개요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94-3번지로 사업시행자 최형일씨의 주거용 단독주택 신축부지(436㎡)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강릉시 초당동 394-3번지 일원은 ‘초당동 철기시대 신라고분군’¹⁾으로 알려져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속해있으며, 주변으로 강릉 허균·허난설헌자료관건립부지유적²⁾을 비롯해 초당동 386-2·394-1번지 유적,³⁾ 초당동 372-3번지 유적,⁴⁾ 등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선사시대의 신석기시대 유적부터 역사시대의 고분 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수의 유적이 밀집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초당동 394-3번지 단독주택 건축공사 신청부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해당하며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 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19년 3월 27일 조사대상지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⁵⁾

입회조사 결과 조사지역 내 서·북쪽 끝부분에 서-동쪽으로 1번 트렌치를 배치하여 조사 중 지표하 30~40cm 깊이에서 바로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어망추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고, 1번 트렌치에서 북쪽으로 3.5m 거리에 2번 트렌치를 배치한 결과 40cm 깊이에서 신라시대 주거지로 판단되는 점토면과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입회조사 결과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입회조사지역에서 유물과 유적이 확인되었으므로 건축공사 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등 규정에 따른 별도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득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에 따라 향후 건축여부 등 결정하여야 할 것.” 해당부지는 대지면적 및 연 면적이 발굴소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공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안내하였다(강릉시 문화예술과-6157, 2019.4.3.).

강릉시의 안내에 따라 사업시행자 최형일은 2019년 5월 13일에 문화재청 협업포털을 통해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고(접수번호 2019-0513-05호),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신속한 사업시행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20일에 (재)국강고고학연구소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소규모 발굴조사를 대행토록 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제2019-0622호(발굴제도과-0622, 2019. 5. 21.))를 받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2019년 5월 27일 조사에 착수하였다.

1)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新石器 遺蹟』.

3)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草堂洞 遺蹟 III』.

4)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강릉 초당동 372-3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江陵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5) 예맥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동순, 2019, 『문화재보존조치(입회조사)결과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 할석유구 1기, 수혈유구 4기와 삼국시대 신라 주거지 4기, 옹관묘 1기, 저습지층이 확인되었으며, 즐문토기편, 어망추, 미완성 석기, 탄날문토기편, 장란형토기, 개, 고배, 대부완, 배, 철검, 도자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6월 15일에 개최한 학술자문회의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허균·허날설현 기념관 부지에서 발굴되었던 유구와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되며,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마무리 조사 및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6월 18일까지 조사와 기록을 마무리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지역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을 복토하였다.

강릉 초당동(394-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자 문 위 원 : 이상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홍형우(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조 사 단 장 : 차재동(국강고고학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최영석(국강고고학연구소 기획연구실장)
- 조 사 원 : 강기원(국강고고학연구소 조사연구팀장)
- 준 조 사 원 : 신근화(국강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보 조 원 : 이관중(국강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직위는 조사당시 기준임

현장조사는 차재동 단장 책임하에 최영석이 총괄하여 강기원이 담당하고, 신근화와 이관중이 유구 조사 및 실측, 사진촬영 등 발굴조사 진행을 보조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강기원, 신근화, 이관중이 유물 및 도면을 정리하였고, 유구의 일러스트 작업은 신근화·이관중이 담당하였다. 유물 실측과 제도는 김미연, 이정민이 담당하였으며, 유물 사진은 강기원이 촬영하였다.

보고서 원고는 현장조사 기록과 약보고서를 바탕으로 유구는 강기원, 유물은 신근화·이관중이 작성하고, 최영석이 수정·가필하였다. 이후 차재동이 교정·교열하여 최종 감수 하였다.

주거지 수습 목탄에 대한 AMS 측정은 (주)카본에널리시스템에 의뢰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당 분석결과의 원문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끝으로 조사기간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해주신 이상수, 홍영우 자문위원님과 묵묵히 발굴조사를 수행해주신 여러 어르신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94-3번지 일원이고,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8°54'39.33", 북위 37°47'30.96" 일대에 해당한다.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져 경포호와 경포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에서 약 800m 떨어진 해안지대로 지형적으로는 초당동 제1사구지대에 입지하고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강릉은 백두대간의 동쪽 영동지역 중앙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동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평창군·정선군·홍천군, 남쪽으로는 동해시, 북쪽으로는 양양군에 인접해있다. 동해와 접한 해안선의 길이는 약 59.5km이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8°35'~129°41', 북위 37°27'~37°54' 사이이며, 동-서간 거리는 약 40km, 남-북간 거리는 약 76km이며 지역 전체 면적은 1,040km²이다.

강릉의 하천은 서쪽에 위치한 태백산맥 분수계로부터 동해로 흐른다. 규모가 가장 큰 남대천이 강릉 중심가로 흐르고, 강릉 북쪽 동대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연곡천, 연곡천과 남대천 사이에 사천천이 흐르고 있다. 남대천 이남에는 군선강, 주수천, 낙풍천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하천에 의해 운반된 모래는 해안에서 연안조류와 파랑의 작용으로 사취·사주 등을 형성하며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롭고, 해안선 부근에는 향호·경포호·풍호와 같은 석호가 발달하였다. 강원 영동지방의 중요 선사유적은 주로 이들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에서 발견된다.⁶⁾ 석호는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양호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주변에서 많은 선사·역사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강동면 일대는 암석해안으로 해식애가 발달하여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동진·심곡리 일대에는 해안단구지형이 나타나며,⁷⁾ 남대천 하류부에는 크게 곡류한 남대천의 구하도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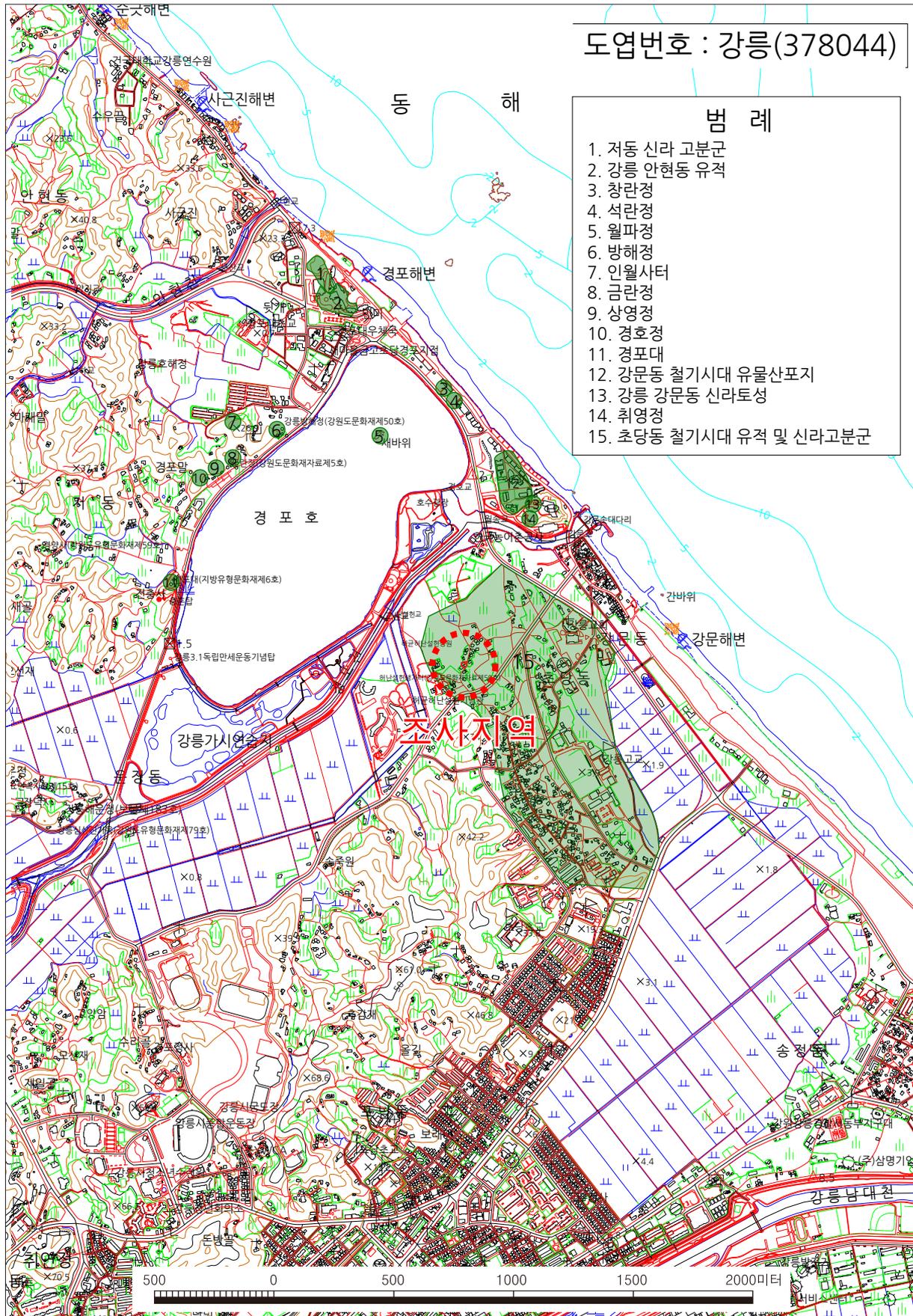
남대천의 하류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논농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해발고도 250m 이하의 저산성구릉지에서 발원한 운정천(11km)과 시동천(8km)에 연하여서는 퇴적물의 공급량이 적어 충적평야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아 주로 밭농사 지역으로 이용된다.

강릉의 충적평야는 갱신세에 형성된 지형으로, 초당동과 강문동 일대는 화강암 개석구릉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작은 곡이 막혀서 석호가 형성되었다. 이 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표에서 1.6~2.5m 사이에 토탄층이 퇴적되었으며 이보다 더 아래쪽은 거친 모래층이 노출되었다. 토탄층에 대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결과 하부(-2.5m)가 4,500±12년 B.P.(TH-334)이고, 상부(-1.6m)가 2,530±100년 B.P.(TH-333)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연대는 각각의 빙계형성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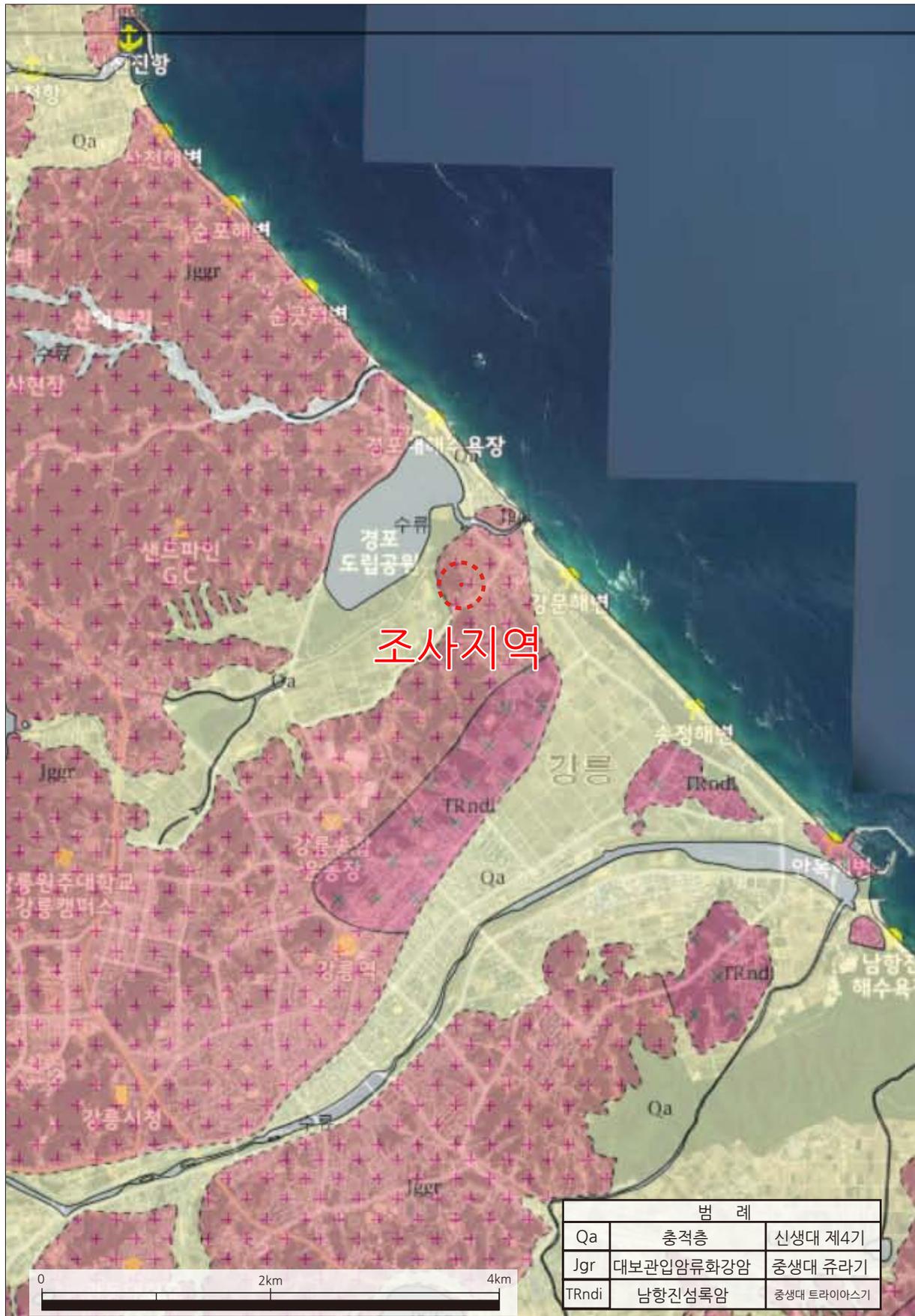
6) 文化財研究所·강릉대학교박물관, 1991,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7) 建設部國立地理院, 1994, 『韓國地名要覽』.

8) 曹華龍, 1987, 『韓國의 沖積平野』, 敎學研究社.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지역 일대 지질도(1:50,000)

2. 고고·역사적 배경

강릉지역에는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적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들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1980년대에 들어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점차 조사가 활발해 지면서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초당동⁹⁾, 하시동¹⁰⁾, 답산동¹¹⁾, 내곡동¹²⁾, 회산동¹³⁾, 홍제동¹⁴⁾, 두산동¹⁵⁾, 안현동¹⁶⁾, 심곡리¹⁷⁾, 정동진리¹⁸⁾, 도직리¹⁹⁾, 금산리, 제비리²⁰⁾, 천남리²¹⁾, 남양리²²⁾, 현내리²³⁾, 주수리²⁴⁾ 등지에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단구지형 또는 낮은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조사된 사천진리²⁵⁾와 2016년에 조사된 내곡동유적에서도 강릉지역 구석기시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확보되었다.

-
- 9) 최승엽·홍성학, 2001, 「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1)」, 『博物館誌』 제8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 10) 최승엽, 2002, 「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2)」, 『博物館誌』 제9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江陵 下時洞遺蹟』.
- 11) 최승엽, 2002, 「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2)」, 『博物館誌』 제9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 12) 홍영호·김상태, 2000, 「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Ⅱ」, 『博物館誌』 제7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최승엽·홍성학, 2001, 「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1)」, 『博物館誌』 제8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강릉 내곡동 318-20번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 13) 홍영호·김상태, 2002, 「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Ⅱ」, 『博物館誌』 제7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강릉 내곡동 318-20번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6, 『강릉 회산동 산18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2, 『江陵 淮山洞遺蹟』.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강릉 아이스하키경기장 건립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 14) 백흥기·지현병·고동순, 1995, 「강릉시의 선사고고유적」, 『강릉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 15)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江陵 斗山洞遺蹟』.
- 16)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江陵 雁峴洞遺蹟』.
- 17) 李鮮馥, 1988, 「新發見 舊石器遺蹟 紹介」, 『孫寶基博士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集』.
이선복, 1989, 「동북아시아구석기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6, 『심곡리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18)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강릉 정동진리 50-89번지 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 19) 최승엽·홍성학, 2001, 「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1)」, 『博物館誌』 제8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 20) 강원고고학연구소, 2006,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2, 『강릉 제비리 236-18번지 일원 체육시설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21) 최승엽·홍성학, 2001, 「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1)」, 『博物館誌』 제8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 22) 최승엽, 2002, 「중부 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2)」, 『博物館誌』 제9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 23) 홍영호·김상태, 2000, 「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Ⅱ」, 『博物館誌』 제7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 24) 홍영호·김상태, 2000, 「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Ⅱ」, 『博物館誌』 제7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강원고고학연구소, 2005, 『江陵 珠樹里 舊石器遺蹟』.
- 25) 국강고고학연구소, 2013, 『강릉 사천진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연수원 건립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결과서』.
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강릉 사천진리 유적』.
- 26) 有光教一, 1938, 「朝鮮 江原道の 先史時代遺蹟」, 『考古學雜誌』 28-11.
- 27) 任孝宰, 1966, 「溟洲郡 領津里와 加屯地 櫛文土器遺蹟」, 『考古美術』 제7권 제6호, 한국미술사학회.

신석기시대 유적은 해방 전인 1915년 강릉토성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²⁶⁾, 이후 각종 조사를 통하여 장덕리, 송림리, 동덕리, 영진리²⁷⁾, 판교리, 안현동²⁸⁾, 홍제동, 금진리²⁹⁾, 지변동³⁰⁾, 안인리³¹⁾, 교동³²⁾, 유천동³³⁾, 초당동³⁴⁾, 하시동³⁵⁾, 방동리³⁶⁾, 사천진리³⁷⁾ 등 하천 하구나 호수지역 주변에 형성된 사구지대와 사구지대 주변의 구릉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사지역과 인접한 초당마을 북쪽 끝 부분의 허균·허난설헌 자료관 건립부지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특징을 보이는 신석기시대 토기가 공반 출토되었으며, 신석기시대 직업의 분화를 보여주는 수혈식주거지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유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유적은 1990년 연곡면 방내리유적이 처음 발굴조사된 후 방내리³⁸⁾, 교동³⁹⁾, 방동리⁴⁰⁾ 입암동⁴¹⁾, 유천동⁴²⁾, 송림리⁴³⁾ 등지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지표조사를 통해서도 향호리, 장덕리, 교항리, 석교리, 동덕리, 미노리, 덕실리, 산대월리, 안현동, 저동, 난곡동, 홍제동, 내곡동, 노암동, 장현동, 하시동, 모전리, 천남리, 현내리⁴⁴⁾ 등지에서 유적이 발견되었고, 송림리, 미노리, 방동리, 안현동, 저동, 난곡동, 교동, 장현동, 입암동, 하시동, 천남리

28)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江陵 雁峴洞遺蹟』.

29)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江陵市-』.

30) 文化財研究所·강릉대학교박물관, 1991,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江陵市-』.

예맥문화재연구원, 2005, 『강릉대학교 주차장 및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31) 강릉대학교박물관, 1992, 『명주군 안인리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32) 文化財研究所·강릉대학교박물관, 1991,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江陵市-』.

33) 文化財研究所·강릉대학교박물관, 1991,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江陵市-』.

34) 文化財研究所·강릉대학교박물관, 1991,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江陵市-』.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新石器 遺蹟』.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릉시 초당동 247번지 어린이집 신축부지내 유적」, 『江陵 草堂洞 遺蹟 I』.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遺蹟 II』.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草堂洞 遺蹟 III』.

예맥문화재연구원, 2005, 『강릉 일송로-허균생가간 도로개설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35)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江陵市-』.

36) 任孝宰, 1966, 「溟洲郡 領津里와 加屯地 櫛文土器遺蹟」, 『考古美術』 第7卷 第6號, 韓國美術史學會.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芳洞里 住居址』.

37) 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강릉 사천진리 유적』.

38)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강릉 방내리 주거지』.

39) 강릉대학교박물관, 2002, 『강릉 교동 주거지』.

4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芳洞里 遺蹟』.

4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입암동 유적」,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II』.

예맥문화재연구원, 2005, 『강릉 입암현대-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구간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42)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0, 『江陵 鎭川洞 遺蹟-강릉 유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3)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동해고속도로 확장·신설구간(송림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송림리유적-강릉 송림리 버섯재배사 및 진입도로 부지 내 유적」,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II』.

44)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江陵市-』.

등지에서 지식묘가 확인되었다.⁴⁵⁾

철기시대 유적은 하시동고분군의 남쪽에 위치한 안인리유적이⁴⁶⁾ 처음 발굴조사 된 후 강문동⁴⁷⁾, 동덕리⁴⁸⁾, 교항리⁴⁹⁾, 병산동⁵⁰⁾, 초당동⁵¹⁾, 방동리⁵²⁾, 금진리⁵³⁾, 두산동, 운산동, 정동진리⁵⁴⁾ 등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목자 내지凸자의 형태며, 경질무문토기를 비롯하여 4세기대로 편년될 수 있는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 초반

-
- 45) 池賢柄, 1991, 「地表調査內容」,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강릉대학교박물관.
신호웅·이상주, 1994, 「溟州郡의 考古遺蹟」,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관동대학교박물관.
백흥기·지현병·고동순, 1995, 「江陵市의 先史考古遺蹟」, 『江陵의 歷史와 文化遺蹟』, 강릉대학교박물관.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 分布地圖-江陵市-』.
- 46) 강릉대학교박물관, 1992, 『명주군 안인리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白弘基, 1991, 「명주 안인리 주거지 발굴조사 약보고」, 『제15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47) 강릉대학교박물관, 1997, 『강릉 강문동주거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江陵 江門洞 鐵器·新羅時代 住居址』.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강릉 강문동 138-1번지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강릉 강문동 126-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강릉 강문동 강릉교회 저수조 신축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한국문화재단, 2018, 「강릉 강문동 139-25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경기3·강원1』.
- 48) 강릉대학교박물관, 1997, 『江陵 冬德里 住居址』.
- 49)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江陵 僑項里 住居址』.
- 50)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릉대학교박물관, 2000, 『발굴유적유물도록』.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柄山洞 住居址』.
강원고고문화재연구원 2010, 『江陵 柄山洞 聚落-강릉 병산동 320-13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강릉대학교박물관, 2012, 『江陵 柄山洞 遺蹟-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재연구원 2018, 『江陵 柄山洞 聚落Ⅱ-강릉 병산동 320-2번지 일원 개간사업(과수원)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5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江陵 草堂洞 遺蹟 I』.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新石器 遺蹟』.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遺蹟 II』.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江陵 草堂洞 遺蹟 IV』.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부지내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릉 초당동 308-12번지 주택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강원도교육연수원 주차장시설 예정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강릉고 급식소 개축부지내 유적 · 강릉고 급식소개축 주차장 예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국강고고학연구소, 2016, 「강릉고 체육관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강릉 초당동(248-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강릉 초당동(172-1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5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芳洞里 住居址』.
- 53) 예맥문화재연구원, 2006,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 54)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江陵市-』.

강릉지역 주거지의 평면 형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1999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강문동 강릉교회신축부지에서 영동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저습지유적이 발굴조사 되어 학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고⁵⁵⁾, 저습지 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100m 거리에서는 영동지방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철기시대의 주거지가 조사되기도 하였으며⁵⁶⁾,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신축부지에서는 남한지역 최초로 주거지 내부에서 오수전이 출토되었다.⁵⁷⁾

삼국시대 유적은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하시동고분⁵⁸⁾이 처음으로 조사된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더불어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영진리⁵⁹⁾, 방내리⁶⁰⁾, 초당동⁶¹⁾, 병산동⁶²⁾,

55) 지현병, 2001, 「강릉 강문동 저습지유적」, 『第44回 全國歷史學大會 考古學部 發表資料集』.

56) 池賢柄·朴榮九, 1997, 「江陵 江門洞 住居址」, 『江陵 冬德里 住居址』.

5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강릉지역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58)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江陵 下詩洞 古墳群 地表調査 報告書』.

59) 강릉대학교박물관, 1993, 『강릉-양양간 7번국도 확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영진리 1호분 긴급수습조사 보고』, 『강릉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60) 강릉대학교박물관, 1993, 『강릉-양양간 7번국도 확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강릉 방내리 주거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릉 방내리 국도 6호선 수해복구 공사지역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江陵地域文化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61) 백흥기, 1975, 「초당동 고분군에 대하여」, 『강릉 교대 논문집』 7.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강릉시 초당동 현대APT부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초당동 C지구 고분 긴급 수습조사 보고」, 『강릉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5, 「강릉 월송로-허균생가간 도로개설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江陵 草堂洞 遺蹟 I』.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遺蹟 II』.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草堂洞 遺蹟 III』.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江陵 草堂洞 遺蹟 IV』.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江陵 草堂洞 遺蹟 V』.

국강고고학연구소, 2016, 『강릉고 체육관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강릉 초당동(307-1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62) 강릉대학교박물관, 1998, 『강릉 병산동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柄山洞 古墳群』.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柄山洞 住居址』.

강원고고문화재연구원 2018, 『江陵 柄山洞 聚落 II-강릉 병산동 320-2번지 일원 개간사업(과수원)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63)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江陵 下時洞 古墳群 地表調査 報告書』.

64) 강릉대학교박물관, 1997, 『강릉시 주문진 주문리 419번지 조금자氏 주택신축부지내 문화유적 긴급수습조사 약보고서』.

6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릉 강동면 정동진리 128번지 일반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6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입암동 유적」,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II』.

하시동⁶³⁾, 주문리⁶⁴⁾, 정동진리⁶⁵⁾, 입암동⁶⁶⁾, 강문동⁶⁷⁾, 송정동⁶⁸⁾, 안현동⁶⁹⁾에서 주거유적이 조사되었고, 주문리⁷⁰⁾, 영진리⁷¹⁾, 방내리⁷²⁾, 강문동⁷³⁾, 초당동⁷⁴⁾, 병산동⁷⁵⁾, 입암동⁷⁶⁾, 흥계동⁷⁷⁾, 금산리⁷⁸⁾,

-
- 6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江陵 江門洞 鐵器·新羅時代 住居址』.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강릉 강문동 138-1번지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강릉 강문동 126-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국강고고학연구소, 2015, 『강릉 강문동 신라토성-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단, 2018, 『강릉 강문동 139-25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경기3·강원1』.
 국강고고학연구소, 2018, 『강릉 강문동 136-3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경기3·강원1』,
 한국문화재단』.
- 68)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강릉 송정동 245-2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江陵金津里遺蹟Ⅰ』.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강릉 송정동 245-2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8, 『강릉 송정동 산103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부지(A구역)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국토문화재연구원, 2018, 『강릉 송정동 산103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부지(B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69)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江陵 雁峴洞遺蹟-강릉 샌드파인리조트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70) 강릉대학교박물관, 1997, 『강릉시 주문진 주문리 419번지 조금자氏 주택신축부지내 문화유적 긴급수습조사 약보고서』.
- 7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 72)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강릉 방내리 주거지』.
 강릉대학교박물관, 2007, 『江陵 金津里 古墳群-江陵-襄陽間 7番國道擴張工事區間內·金津里注油所新築敷地發掘調査報告書』.
- 73)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芳洞里 住居地』.
- 74) 金秉模, 1971, 『江陵 草堂洞 第1號古墳』, 『文化財』第5號, 文化財管理局.
 白弘基, 1975, 『江陵 草堂洞 古墳群에 대하여』, 『江陵教育大學論文集』第7輯.
 池賢柄·朴榮九, 1996, 『草堂洞 C地區 古墳 緊急 收拾調査 報告』, 『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강릉대학교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江陵 草堂洞 遺蹟Ⅰ』.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遺蹟Ⅱ』.
 강원문화재연구소, 『江陵 草堂洞 遺蹟Ⅲ』.
 강원문화재연구소, 『江陵 草堂洞 遺蹟Ⅳ』.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江陵 草堂洞 遺蹟Ⅴ』.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江陵 草堂洞遺蹟Ⅲ』.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江陵 草堂洞遺蹟Ⅳ』.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0, 『江陵 草堂洞 古墳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강릉 초당동 47-7번지 외 2필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강릉 초당동 47-6번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강릉 초당동 290-1번지 주택 증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5, 『강릉 초당동 246-5번지 외 2필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강릉 초당동(124-3번지)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국비지원) 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강릉 초당동 316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유적 발굴조사(국비지원) 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강릉 초당동 (248-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강릉 초당동 (172-1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한국문화재단, 2018, 『강릉 초당동 127-9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경기3·강원1』.

하시동⁷⁹⁾, 주수리⁸⁰⁾, 안현동⁸¹⁾ 등지에서 분묘유적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과 인접한 초당마을 남단부인 현대아파트 부지 B-16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출자형금동관과 123-3번지 C-1호 횡구식 석실묘에서 출토된 조약형관식은 강릉고등학교 맞은편의 84-2번지 1호 석곽묘⁸²⁾에서 출토된 호접형 관모장식과 더불어 초당동 유적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강문동 동해바다와 경포호에 연접한 죽도봉이라는 해안 구릉에 현대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라 토성이 발굴조사되어 고대 성곽 건축사와 고대사 연구에 획기적인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⁸³⁾ 강릉의 삼국시대 유적의 입지를 보면 대부분 사구지대와 구릉지대에 자리하는데 사구지대에는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구릉지대에는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다.

그 밖에 불교유적으로는 굴산사지(사적 제448호)⁸⁴⁾, 보현사⁸⁵⁾, 신복사지⁸⁶⁾, 안국사지⁸⁷⁾, 보광리 무일동사지⁸⁸⁾ 등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석교리토성의 해자⁸⁹⁾, 강릉관아지⁹⁰⁾, 강릉읍성⁹¹⁾의 일부가 발굴조사 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 등 고사료에 따르면 강릉의 역사는 예국(濊國)으로부터 시작된다. 후한(後漢) 말에 이르러 예국은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처음에는 임둔군(臨屯郡)으로 편제되었다가 기원 후 1세기에는 낙랑군의 동부도위 관할 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곧 이어 고구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후 신라의 영토 확장에 따라 이 지역을 두고 국경 충돌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삼국사기』에는 ‘내물왕(奈勿王) 40년(395)에 말갈(靺鞨)이 북쪽 변방에 침입하여 실직(悉直) 별관에서 크게

7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柄山洞 古墳群-강릉 청량-안목간 도로개설공사구역내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柄山洞 古墳群Ⅱ』.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2012, 『江陵 柄山洞 遺蹟-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7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입암동 유적』,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Ⅱ』.

77)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江陵 洪濟洞 寺址-강릉 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8) 관동대학교박물관, 2008, 『江陵 金山理·渭村里·普光里 遺蹟』.

79) 金正基·李鍾哲, 1971, 『溟洲郡下詩洞古墳調査報告』, 『考古美術』110, 韓國美術史學會.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江陵 下詩洞 古墳群 地表調査 報告書』.

8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고분군』, 『동해 기곡유적』.

81)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江陵 雁峴洞遺蹟-강릉 샌드파인리조트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8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草堂洞 遺蹟Ⅲ』.

83) 국강고고학연구소, 2015, 『강릉 강문동 신라토성-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84)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屈山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8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普賢寺 食堂禪院 新築敷地內 遺蹟』.

86)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神福寺址 試掘調査 報告』, 『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試掘 및 緊急 收拾調査)』.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神福寺址』.

87) 관동대학교박물관, 2010, 『江陵 觀音里寺址-시굴조사 보고서-』.

88) 관동대학교박물관, 2008, 『江陵 金山理·渭村里·普光里 遺蹟』.

89)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석교리 473-7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陵 神福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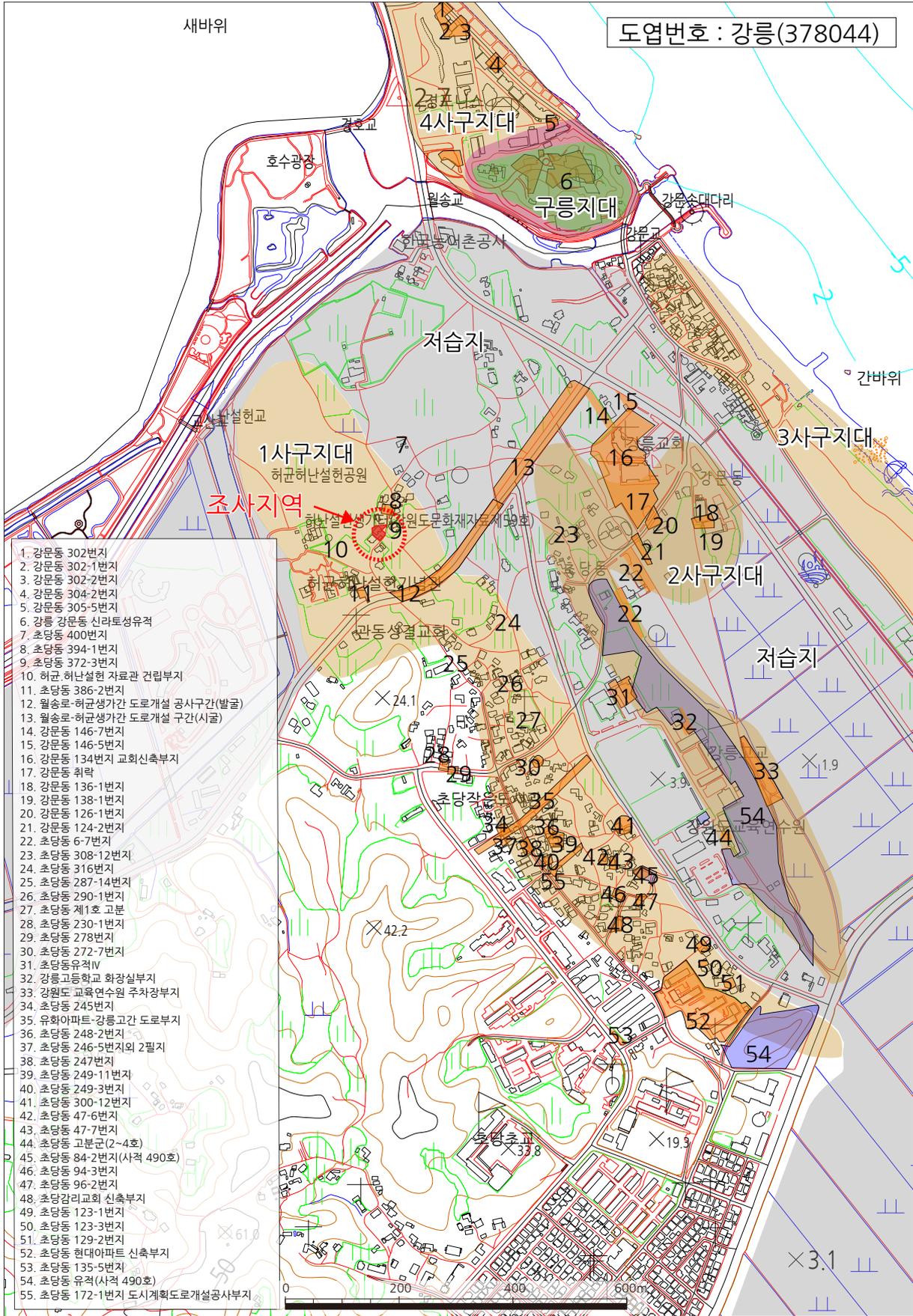
90)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6, 『臨瀛館址 試掘調査 報告』,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江陵 官衙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江陵 臨瀛館址』.

9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강릉 성내동 11-1번지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邑城』.



도면 3.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세부 현황도(1:10,000)

패하고,⁹²⁾ 내물왕 42년(397)에는 하슬라(河瑟羅)에 가뭇이 들어 죄수석방과 세금을 면제한다⁹³⁾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로 보았을 때 4세기 말 강릉과 삼척지방은 어느 정도 신라의 영향을 받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세기 중엽인 눌지왕(訥祗王) 34년(450)에 하슬라 성주 삼직(三直)의 고구려 변장 살해 기사⁹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5세기 중반에는 영동지역이 신라의 영토에 복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자비왕(慈悲王) 11년(468) 고구려와 말갈 침입에 따른 실직성 함락과 니하(泥河) 축성 기사⁹⁵⁾에 이어 소지왕(炤知王) 3년(481) 고구려가 북변을 침입하므로 이에 신라는 백제, 가야와 연합하여 니하 서쪽에서 고구려군 천여 명을 참수하였다⁹⁶⁾는 기사는 이 시기 영동지역에서 신라와 고구려가 끊임없이 국경분쟁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6세기에 들어 신라는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여 영동지역을 통치하였는데, 지증왕(智證王) 6년(505)에는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사부(異斯夫)를 군주(軍主)로 배치하였다.⁹⁷⁾ 이 기사를 통해 지방지배의 사실을 알려주고, 실직주가 설치된 지 7년 후인 지증왕 13년(512)의 하슬라주(河瑟羅州) 설치와 군주 이사부의 우산국(于山國) 정벌기사,⁹⁸⁾ 선덕왕(善德王) 8년(639) 북소경(北小京)이 설치되고 사찬(沙飡) 진주(眞珠)로 하여금 진수토록 한 기사가 있다.⁹⁹⁾ 이와 같은 기사로 보았을 때 강릉지역이 지증왕 이전에 이미 신라에 복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기사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고고학적 자료로는 영진리·병산동·초당동 고분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초당동 고분군에서 5세기 중·후반의 유물과 금동관, 조익형(鳥翼形) 은제관식 등이 출토되어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주에서 북소경이 된 것은 군사적 특수성을 상실하고 행정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열왕(武烈王) 5년(658)에는 하슬라 지역이 말갈과 접하여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소경을 폐하고 하서주(河西州)로 개편하였는데,¹⁰⁰⁾ 이는 하서주가 다시 군사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해준다. 삼국이 통일된 뒤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는 신라 9주 중의 하나인 하서주가 설치되었으며,¹⁰¹⁾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는 명주(溟洲)로 개명되며 9군 25현을 관찰하게 하였다.¹⁰²⁾

92) 『三國史記』卷三「新羅本紀」, 奈物尼師今 四十年'秋八月靺鞨侵北邊出師大敗之於悉直之原'

93) 『三國史記』卷三「新羅本紀」, 奈物尼師今 四十年'秋七月北邊河瑟羅早蝗年荒民飢曲赦囚徒復一年租調'

94) 『三國史記』卷三「新羅本紀」, 訥祗麻立干 三十四年'秋七月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河瑟羅城主三直出兵掩殺之麗王聞之怒使來告曰孤與大王修好至歡也今出兵殺我邊將是何義耶乃與師侵我西邊王卑辭謝之乃歸'

95) 『三國史記』卷三「新羅本紀」, 慈悲麻立干 三年'秋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秋九月徵河瑟羅人年十五已上築城於泥河'

96) 『三國史記』卷四「新羅本紀」, 炤知麻立干 三年'三月高句麗與靺鞨入北邊取孤鳴等七城又進軍於彌秩夫我軍與百濟伽倻授兵分道禦之賊敗退追擊破之泥河西斬首千餘級'

97) 『三國史記』卷四「新羅本紀」, 智證麻立干 六年'春二月王親定國內州郡縣置悉直主以李斯夫爲軍主君主之名始於此'

98) 『三國史記』卷四「新羅本紀」, 智證麻立干 十三年'夏六月于山國歸服歲以土宜爲貢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恃嶮不服伊滄異斯夫爲河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難以 威來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分載戰船抵其國海岸 誑告曰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國人恐懼則降'

99) 『三國史記』卷五「新羅本紀」, 善德王 八年, '春二月以河瑟羅州爲北小京命沙飡眞珠鎮之'

100) 『三國史記』卷五「新羅本紀」, 太宗武烈王 五年'三月王以河瑟羅地蓮靺鞨人不能安罷京爲州置都督以鎮之又以悉直爲北鎮'

101) 『三國史記』卷八「新羅本紀」, 神文王 五年'始備九州'

102) 『三國史記』卷九「新羅本紀」, 景德王 十六年'河西州爲溟州領州一·郡九·縣二十五'

명주가 진성여왕대의 농민봉기를 거친 후 궁예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강릉지역의 지배세력은 궁예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데 지지기반이 되어 주었다. 그 후 궁예가 축출되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자 강릉세력은 왕건에 불복하였으나, 왕건은 강릉 호족인 순식(順式)을 포섭하기 위해 당시 내원의 승려로 있던 순식의 아버지 허월(許越)을 강릉에 파견하였고, 922년 순식의 귀부로 왕건의 세력에 편입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강릉은 행정명칭이 변한다.¹⁰³⁾ 명주는 태조(太祖) 10년에 동원경(東原京)이 되었다가 통일을 완수한 태조 23년(940)에 명주로 환원되었다. 그 후 성종(成宗)대에 이르러 명주는 네 번에 걸쳐 그 이름을 바꾸는데, 성종 2년에 하서부라 했다가 5년에는 명주도독부로 바뀌었고, 11년에는 명주목이 되었으며, 14년에는 다시 주가 되었다. 단련사(團練使)가 임명된 곳은 삭방도(朔方道)와 관내도(關內道)였는데, 이들 지역은 대체로 양계의 동계에 편입된 곳이므로 방어사에 준하는 군사적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忠烈王) 34년(1308)에는 강릉부로 되었다가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에는 강릉부를 강릉대도호부로 승격하고 별칭으로 임영(臨瀛)이라 하였다. 이어 조선 세조(世祖)대에 진관체제가 정비되면서 삼척도호부와 양양도호부 등 2개의 부와 평해·간성·통천 등 4개의 군과 울진·흡곡 등 2개의 현을 통합하면서 강릉이 영동지방을 총괄하게 되었다.¹⁰⁴⁾

고려시대에는 (倭賊)에 의한 국토 침범이 잦았는데, 현종(顯宗) 2년(1011) 8월에는 해구가 100여척의 배로 경주를 침범하였다. 현종 20년(1029) 3월에는 동여진의 배 10여척이 강릉을 침략하였으나 병마판관 김후(金厚)가 이를 격퇴하였다. 그해 10월에는 삭방도의 등주, 溟洲 관내 19현이 모두 침구당하였다. 또한 거란은 김취려의 관군에 의해 제천 박달재에서 격퇴되어 강릉에 들어와 수개월에 걸쳐 인민을 학살하고, 가축 도살과 가옥을 불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강릉부민은 산성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울릉도를 향하기도 하는 등 극심한 수난을 겪었다.¹⁰⁵⁾ 이후 왜구의 침입은 공민왕 21년(1372) 6월 6일 강릉부와 영덕 등에도 있었으며, 우왕(禑王) 7년(1381)에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영해를 지나 3월에 강릉도에 침구하였다. 왜구는 동해 연안 울진·삼척·평해·영덕 등지를 휩쓸었다.¹⁰⁶⁾

조선 초기 중앙군은 세조 3년(1457)에 5위(衛)로 정착되어 진관을 망라한 지방군도 부별로 분속되어 있었다. 강원도는 5위 중 의흥위(義興衛)에 속하였고 강릉·원주·진양진의 군사가 소속되었다. 강릉군은 육군으로 병마첨절제사가 배치되었으며, 수군의 경우에는 삼척에 진영이 설치되었고 관찰사가 수군첨절제사를 겸하였다. 삼척진관에 안인·고성·울진·월송포에 수군만호가 있었다.¹⁰⁷⁾

103) 『高麗史』卷十二「地理志」三, 溟州(溟州本濊國(중략) 太祖十九年號東原京二十三年又以溟州成宗二年稱河西府五年改溟州都督府十一年更爲牧十四年位團練使後又改防禦使元宗元年以功臣金洪就鄉陞慶興都護府忠烈王三十四年改江陵府恭讓王元年陞大都護府別號臨瀛有五臺山有大嶺有鏡浦屬縣三

104) 方東仁, 1994, 「高麗時代의 溟州地域」,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105) 金南奎, 1989, 『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사.

106) 『高麗史』卷百三十四「列傳」, 禑王七年三月

107) 朴道植, 1996, 「軍事制度의 扁提」, 『江陵市史』, 江陵文化院.

조선시대 강원도의 봉수대는 48곳이 있었는데 강릉지역은 간선망에 위치했다. 고려말 이후 조선 초기까지 왜구가 동해안에 출몰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이 있어 유지되었으나, 양난을 겪은 후 국방정책이 수도와 서북변경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봉수대의 동해안 간선망 폐지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지역에 축조되었던 성곽의 활용도 또한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¹⁰⁸⁾

1895년 지방의 행정체계는 8도체 제에서 23부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당시 강릉은 강릉부로 개편되면서 관찰사를 두고 강릉군을 비롯한 울진군·평해군·삼척군·고성군·간성군·통천군·흡곡군·양양군 등 9군을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23부 체제는 이듬해인 1896년에 다시 13도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강릉군은 강원도에 귀속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55년 9월 1일 법령 제 369호에 의거해 강릉읍은 성덕면과 경포면을 통합하면서 강릉시가 되었다. 이와 함께 강릉군은 명주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강릉시와 분리되었고, 1980년 4월 묵호읍은 동해시로 편입되었다. 1983년 9월 남문동과 성남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개칭하였으며, 교동을 교1동과 교2동으로 분리하여 편제하였다. 1989년 대통령령 제12557에 의거해 명주군 강동면 운산리를 강릉시 월호평동으로 편입하였다. 1992년 강릉시는 행정동 19개, 법정동 39개, 자연촌락 114개의 규모였으며, 1995년 1월 1일 법령 제 4774호에 의거해 도농통합의 차원에서 강릉시와 명주군은 강릉시로 통합되었다.

조사지역이 속한 초당동은 본래 강릉군 남이리면(南二里面)에 딸린 지역으로서, 선조(宣祖) 때 공조 참의(工曹參議) 유동양(柳東陽)이 초당을 짓고 후진들을 가르쳤으므로, 초당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때 건너말, 골하, 안초당을 병합하여 초당리(草堂里)라 하여 군내면(강릉읍)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에 강릉시제 실시에 따라 리를 동으로 고쳤다.¹⁰⁹⁾

108) 方東仁, 1994, 「高麗時代의 溟州地域」,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109) 한글학회, 1966,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의 현황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94-3번지에 위치한 주택 신축부지 436㎡이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초당동 일대에는 모두 세 번에 걸쳐 형성된 사구가 분포하고 있는데 사구의 형성 위치에 따라 사구 위에 분포하는 유적의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제1사구지대는 북쪽으로 경포호 남쪽 부근에서 시작하여 초당동 마을을 포함하여 남쪽으로 초당동 남쪽 끝 해발 25m 구릉에 까지 연결되는 길이 1.7km, 너비 100~250m 정도이다. 제1사구지대에는 초당동마을 서쪽 구릉 밑을 따라 형성되어 초당동 마을의 중심부가 위치하고 있다. 제2사구지대는 제1사구지대 동쪽으로 약 100m 거리를 두고 제1사구지대와 평행하게 길이 1.2km, 너비 100~180m 정도이며 사구의 북쪽부분은 더 넓어져 약 400m에 이른다. 제1사구지대와는 저습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강릉고등학교와 약간의 민가들이 위치하고 있다. 제3·4사구지대는 제2사구지대 동쪽에서 하평들 건너에 위치한 현재의 동해 바닷가 사구지대로 폭 100~150m이고, 길이는 멀리 안목항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1사구지대에는 야외노지를 포함한 신석기시대 주거유적과 원삼국시대 주거유적, 삼국시대 분묘유적 등 사구지대 전 지역에서 3시기의 유적이 모두 발견되었다. 제2사구지대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유적, 원삼국시대 저습지유적, 삼국시대 분묘유적들이 발견되었으나 신석기시대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¹¹⁰⁾ 조사지역은 제1사구지대에 위치한다.

기조사된 주변유적으로는 조사지역 동쪽에 거의 연접한 372-3번지¹¹¹⁾에서 삼국시대 문화층이 형성된 저습지 유적이 확인되었고, 북쪽으로 20m 가량 떨어진 초당동 394-1번지¹¹²⁾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가 조사되었으며, 서남쪽으로 60m 가량 떨어진 허균·허난설현 자료관 건립부지¹¹³⁾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등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구 가옥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이며, 상수도 등 일부 시설이 잔존하고 있었다.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전 현황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지역과 연접한 도로 남단에 측량기준점을 설정한 후 입회조사에서 신석기시대 및 신라시대 유구가 확인된 토층을 고려하면서 지표교란층과 상부 퇴적층을 제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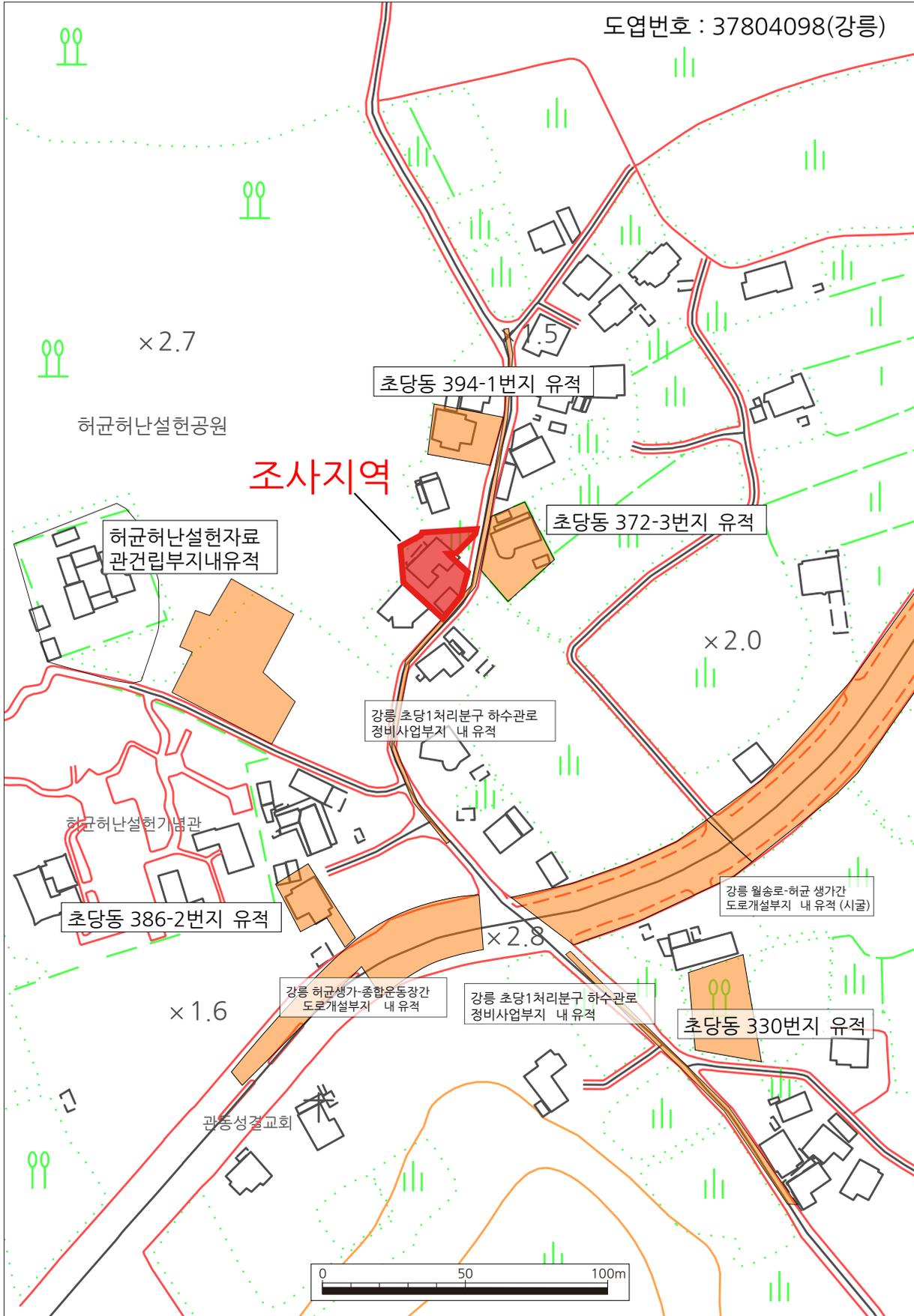
제토 결과 확인된 유구는 Pit를 넣어 중복 관계 및 내부 퇴적 양상을 확인하고, Pit를 활용하여 독을 설정한 후 내부 제토를 실시하였으며, 독 조사 후 유물을 수습하였다. 각 단계별로 사진촬영 및 실측 등의 기록을 철저히 남겼다.

110)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사적 제 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주요 유적 종합보고서 I.

111)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강릉 초당동 372-3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江陵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11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草堂洞 遺蹟 III』.

113)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新石器 遺蹟』.



도면 4. 조사대상지 지형도(1:2,000)

2. 발굴조사

조사지역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서 완만하게 낮아지는 지형이며, 기존 구 가옥 및 상수도관로,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해 현 지표에서부터 40~100cm 가량 교란되어 대부분의 지점에서 지표교란층을 걷어내자 바로 유구가 확인되는 갈색사질토층이 노출되었다.

조사지역의 토층은 조사지역 남서쪽과 저습지가 확인된 남동쪽 경계에 트렌치를 배치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조사지역 남서벽면 토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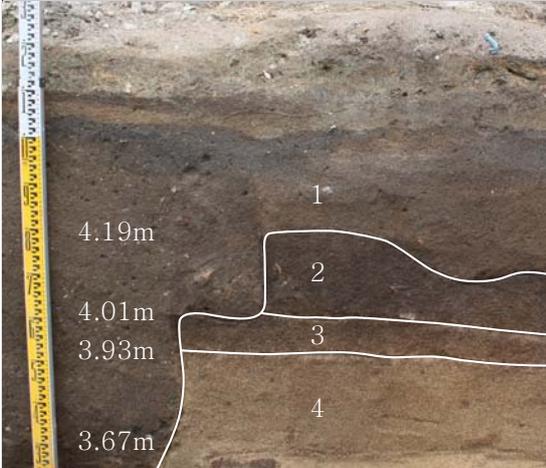
1층은 구 가옥 및 수도관 매립 등에 의한 지표교란층으로 두께는 40~50cm이다.

2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약 20~30cm 내외의 두께로 퇴적되었으며, 후대 교란으로 인해 일부 지점에서만 남았다.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3층은 갈색사질토층으로 조사지역 전반에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으며, 퇴적두께는 15~30cm 내외이고, 신석기시대 및 신라시대 유구가 확인된 층이다.

4층은 명갈색모래층으로 모래입자가 굵으며 일부 회백색 및 황갈색의 모래층이 혼입되어 있는 층이다.

【표 1】 조사지역 남서벽 토층

토층	내용	
	1층:지표교란층	구 가옥으로 인한 교란층
	2층:암갈색사질점토층	유물포함층
	3층:갈색사질토층	유구확인층
	4층:명갈색모래층	자연퇴적층

저습지가 확인된 조사지역 남동벽 토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층은 구 가옥 및 수도관 매립 등에 의한 지표교란층으로 두께는 50~100cm이다.

2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약 20~30cm 내외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3층은 토탄층으로 약 10cm 내외의 두께로 해발 약 1.6m부터 확인되며, 사질토와 점질토 및 목탄이 소량 혼입되어 퇴적되어 있다. 조사지역 남동쪽 모서리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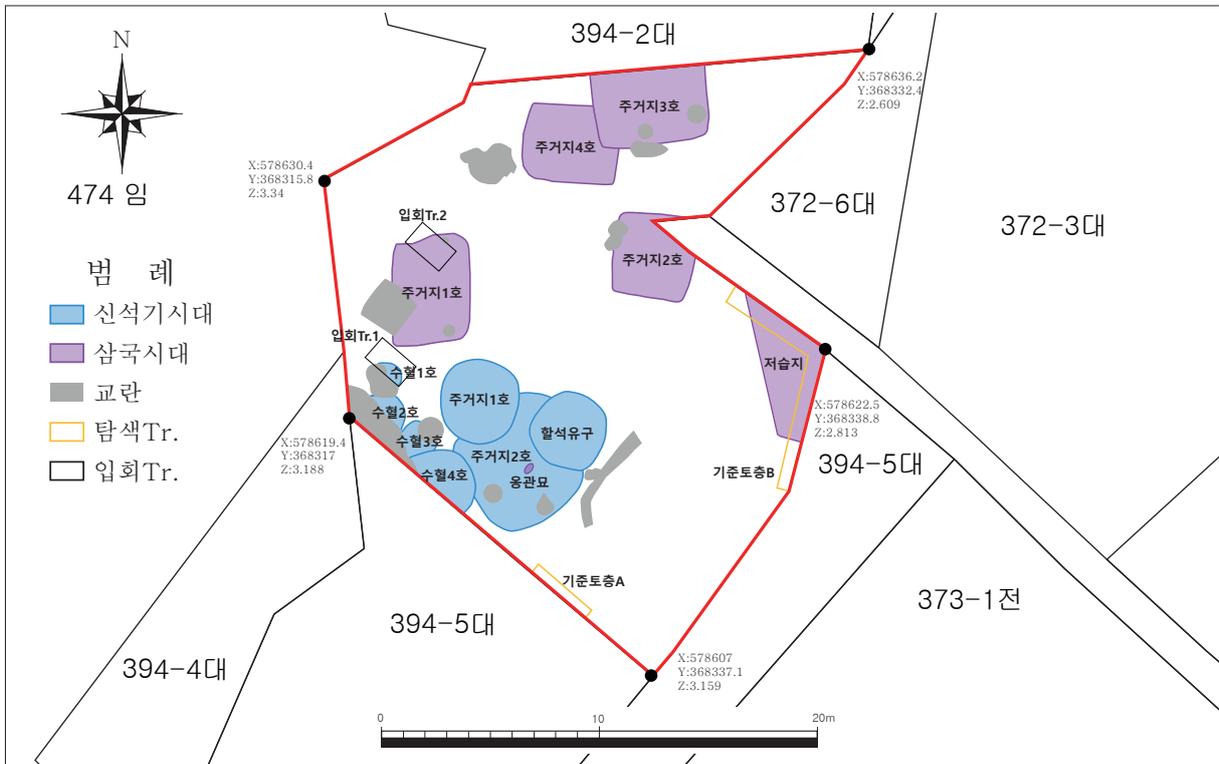
4층은 회갈색사질점토층으로 10~30cm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부 백갈색모래층과 저습지 유적에서 이어지는 회색의 얇은 빨층이 일부 얇게 퇴적되어 확인된다.

5층은 백갈색모래층으로 회백색과 황갈색 모래가 혼입되어 퇴적되었다.

【표 2】 조사지역 남동벽 토층

토층	내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79 309 1142 752">1층:지표교란층</td> <td data-bbox="1142 309 1401 752">구 가옥으로 인한 교란층</td> </tr> </table>	1층:지표교란층	구 가옥으로 인한 교란층
1층:지표교란층	구 가옥으로 인한 교란층		
2층:암갈색사질토층	유물포함층		
3층:토탄층	자연퇴적층		
4층:회갈색사질점토층			
5층:백갈색모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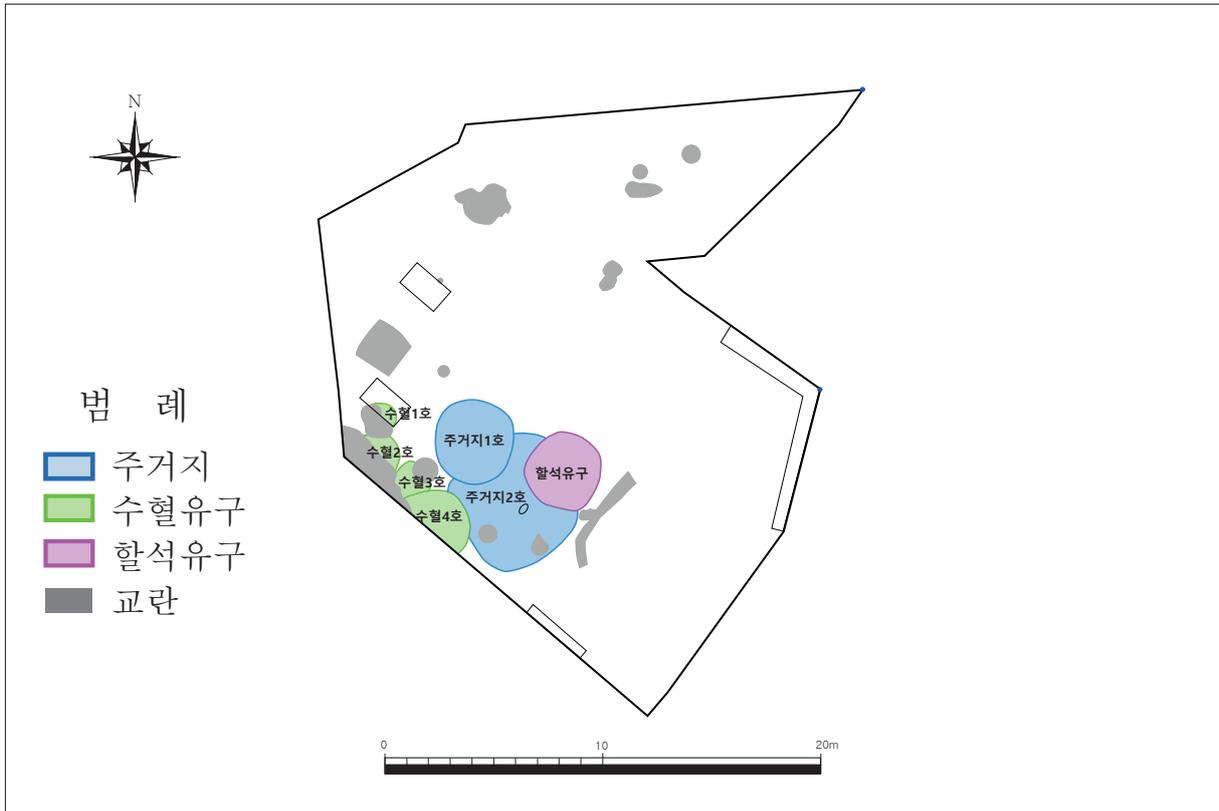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할석유구 1기·수혈유구 4기, 삼국시대 주거지 4기·옹관묘 1기·저습지 등 총 13기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어망추 등과 삼국시대 고배편·타날문토기 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5.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1/350)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구는 조사지역 남서 경계에 인접해서 주거지 2기, 할석유구 1기, 수혈유구 4기 등 7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유구 내부와 문화층에서 즐문토기편, 어망추, 흑요석을 비롯한 석재 등 모두 49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6. 신석기시대 유구 배치도(1/350)

1) 주거지

(1) 주거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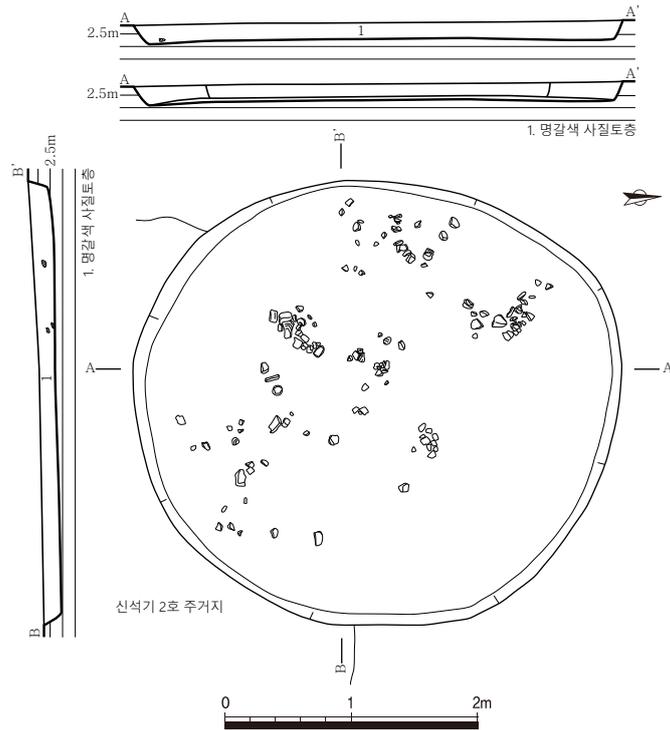
가. 유구(도면 7, 도판 2)

조사지역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친 지점 갈색사질토층에서 수혈선이 확인되었으며,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의 북서벽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고,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Pit를 넣어 중복된 2호 주거지와와의 선후 관계를 파악한 후 ‘+’자득을 남기고 제토하여 내부퇴적 양상과 바닥을 확인하고 전면제토 하였다. 내부에는 명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유물은 어골문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즐문토기 구연부 및 동체부 편과 파수부 편, 어망추, 석재 등이 내부퇴적토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지름이 370cm 이며, 수혈의 잔존 깊이는 15cm 내외이다.



도면 7.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나. 유물

1.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1, 도판 3-1)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 편이다. 색조는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혼입되어있는 점토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오르며 입술은 내면은 수직이며 외면은 경사지게 깎여 있다. 외면에는 입술 약 0.6cm 아래에서부터 폭 0.3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6.9cm, 폭 5.7cm, 기벽두께 0.7~0.8cm이다.

2.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2, 도판 3-2)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내부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색조는 갈색을 띠며, 태토는 고운 점토에 소량의 석영이 섞여있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어지며 입술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구연부 끝에서 약 0.9cm 아래 우하에서 좌상으로 시문구를 이용한 사선문을 시문한 후, 시문구의 한쪽으로 눌러 위쪽은 깊게 아래쪽은 얇게 하여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일부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8.6cm, 폭 8.7cm, 기벽두께 0.8~0.9cm이다.

3.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3, 도판 3-3)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암갈색, 내면 황갈색을 띠며, 태토는 가는 석영 등 세석립이 혼입되어있는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의 끝은 편평하다. 외면에는 구연부 끝에서 약 0.8cm 아래에서 0.3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한 선문을 가로로 시문한 후, 세로로 2줄의 선문을 시문하였다. 외면에 일부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7.6cm, 폭 4.5cm, 기벽두께 0.3~1.0cm이다.

4.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4, 도판 3-4)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 편이다. 색조는 외면과 내면 모두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토이다. 기형은 동체부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며 구연의 끝은 편평하다. 외면에는 구연부 끝에서부터 6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삼각형의 시문이 보이지만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문양은 알 수 없다. 내면에는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깨끗하게 정면하였다.

크기는 길이 6.2, 폭 7.3cm 기벽두께 0.4~0.6cm이다.

5. 즐문토기 동체부편(도면 8-5, 도판 3-5)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소량의 석영이 포함된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 우측 상단에 단사집선문이 삐곡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좌상에서 우하로 0.3~0.4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기벽 내면은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깨끗하게 정면하였다.

크기는 길이 6.2cm, 폭 9.9cm, 기벽두께 0.8~1.0cm이다.

6. 즐문토기 동체부편(도면 8-6, 도판 3-6)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암갈색, 내면 갈색을 띤다. 태토는 가는 석영 알갱이가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단사집선문을 정연하게 3열 시문하였다.

크기는 길이 4.0cm, 폭 4.8cm, 기벽두께 0.6~0.7cm이다.

7. 즐문토기 동체부편(도면 8-7, 도판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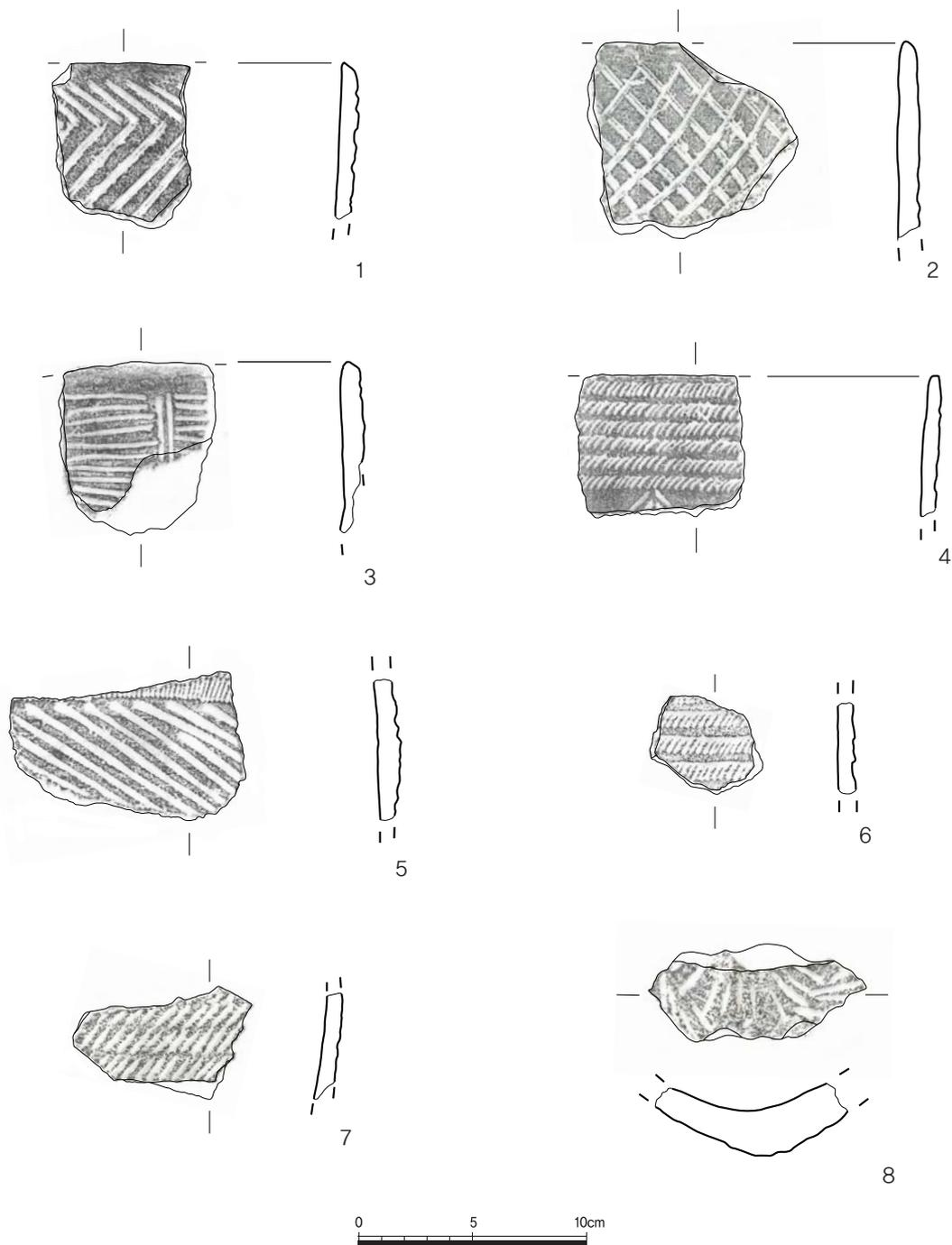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흑갈색, 내면 갈색을 띤다. 태토는 가는 석영 조각이 포함된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3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은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크기는 길이 4.7cm, 폭 7.4cm, 기벽두께 0.7~0.8cm이다.

8. 즐문토기 저부편(도면 8-8, 도판 3-8)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저부편이다. 잔존해 있는 기형으로 보아 첩저형이다. 색조는 외면과 내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고운 점토에 다량의 석영 조각이 섞여 있다. 외면은 1.5~2.4cm의 사선문이 여러 방향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은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크기는 길이 3.2cm, 폭 9.1cm, 기벽두께 1.1~2.0cm이다.



도면 8.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9. 토기 구연부편(도면 9-9, 도판 4-9)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토기 구연부편이다. 기형의 1/3정도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색조는 외면 암갈색, 내면 명갈색이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어있는 점토이다. 토기 내·외면 모두 물손질흔적과 목리조정흔이 확인된다. 토기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린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21.0cm, 복원구경 19.8cm, 기벽두께 0.5~0.6cm이다.

10. 소형토기(도면 9-10, 도판 4-10)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토기 소형토기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고, 태토는 석영, 운모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바닥은 침저형이고 구연부까지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올라오며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크기는 기고 6.6cm, 복원 구경 10.0cm, 기벽두께 0.5~0.7cm이다.

11. 파수부편(도면 9-11, 도판 4-11)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바닥에서 출토된 파수부편이다. 손잡이의 형태는 납작한 타원형이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은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이 많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손잡이의 가운데에는 지름 1.0cm, 길이 1.4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내면에는 손잡이를 붙인 부분에 점토를 덧댄 흔적이 남아있으며 물손질로 마무리하였으며, 기벽은 거친 편이다.

크기는 잔존길이 7.2cm, 폭 5.6cm, 손잡이 크기는 길이 2.6cm, 두께 3.8cm이다.

12. 파수부편(도면 10-12, 도판 4-12)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바닥에서 출토된 파수부편이다. 손잡이의 형태는 납작한 타원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고운모래에 다량의 석영이 포함되어 있다. 파수의 형태는 납작하고, 지름 0.5cm, 길이 0.6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파수부편이 달려있는 토기 동체부의 외면에는 구멍을 뚫기 위해 시문구를 이용하여 양쪽으로 눌러 당긴 흔적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손잡이를 부착하기 위한 손누름 자국이 확인된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5.7cm, 너비 6.8cm, 손잡이 크기는 길이 2.1cm, 두께 2.8cm이다.

13. 파수부편(도면 10-13, 도판 4-13)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바닥에서 출토된 파수부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색을 띠며, 태토는 고운 점토에 가는 석영이 소량 섞여 있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기형은 동체부에 원형의 작은 손잡이를 부착 후 지름 0.4cm 크기의 구멍을 뚫었다. 기벽 내면은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손잡이를 부착하기 위한 손누름 자국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4.2cm, 너비 4.7cm, 손잡이 크기는 길이 1.4cm, 두께 1.7cm이다.

14. 어망추(도면 10-14, 도판 4-14)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어망추이다. 평면 형태가 타원형인 납작한 자갈들의 길이방향 양쪽 측면을 타격하여 떼어낸 후 결속부를 오목하게 마연하여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6.0cm, 너비 5.2cm, 두께 1.1cm이다.

15. 어망추(도면 10-15, 도판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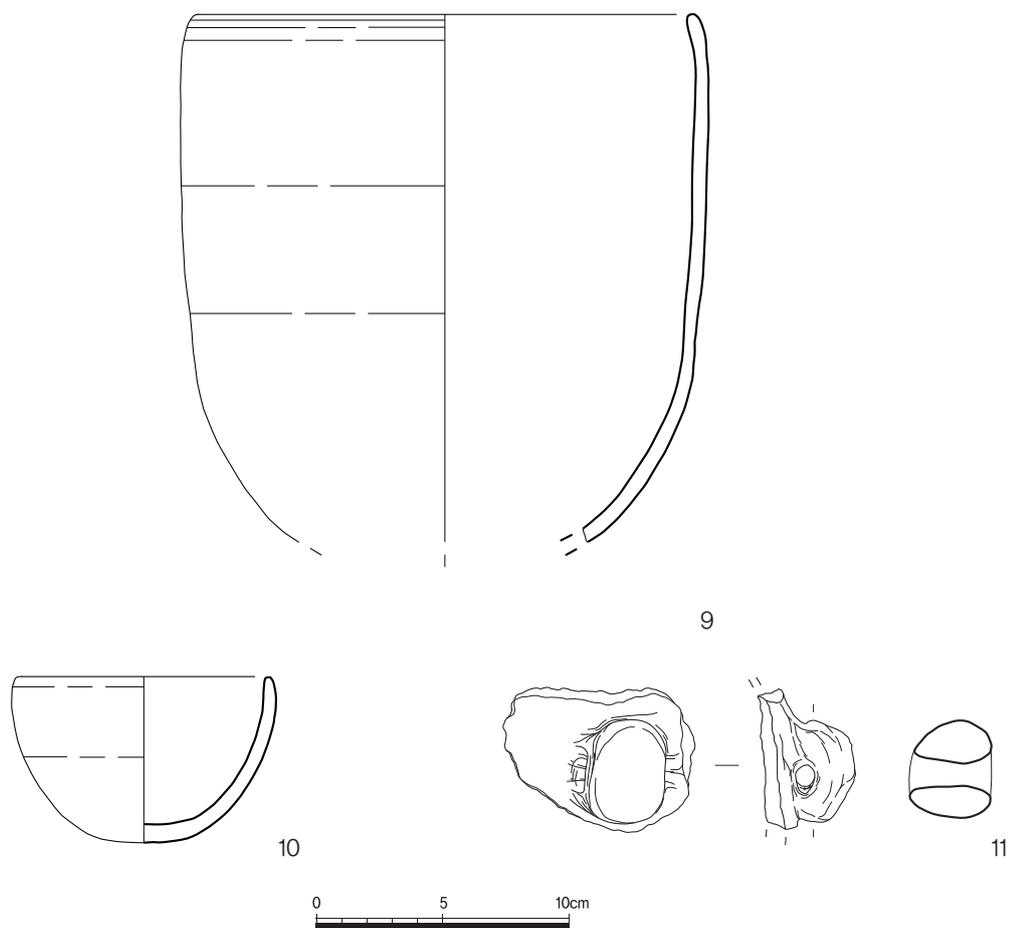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어망추이다.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운 납작한 자갈들의 길이방향 양쪽 측면을 잔떼기 한 후 결속부를 오목하게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5.2cm, 너비 4.8cm, 두께 1.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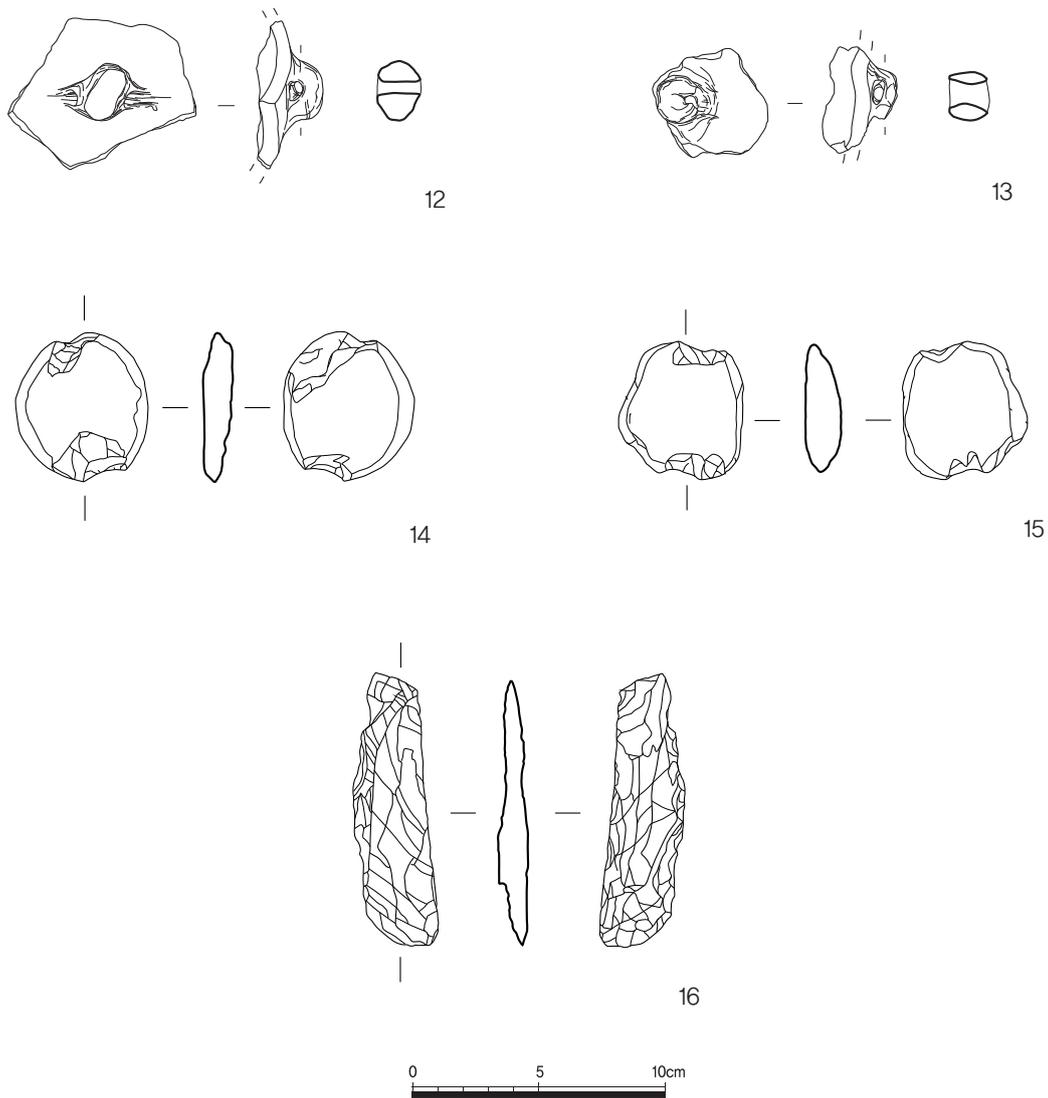
16. 석재(도면 10-16, 도판 4-16)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석재이다. 원석에서 얇게 떼어낸 후 측면을 잔떼기 한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10.9cm, 너비 2.9cm, 두께 1.2cm이다.



도면 9.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도면 10.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2) 주거지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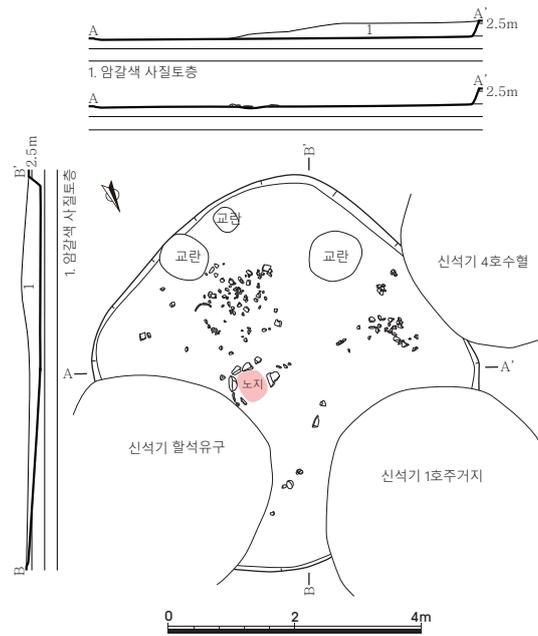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1, 도판 5)

주거지 2호는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할석유구, 수혈유구 4호와 중복되어 확인되었으며, 가장 선축 유구이다. 후축 유구로 인해 북서벽과 동벽, 서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후축 유구를 조사한 후 ‘+’자득을 남기고 제토하여 내부퇴적 양상을 확인하고 전면제토 하였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으며, 주거지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강돌과 할석으로 조성한 노지가 확인되었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유물은 주거지 북서벽과 남벽 부근을 중심으로 사선문, 단사선문, 점열문, 횡주어골문 등의 즐문토기편과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남-북 약 620cm, 동-서 약 608cm이고, 잔존 깊이는 15cm 내외이다



도면 11.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

나. 유물

17.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2-17, 도판 6-17)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입술 부분으로 갈수록 기벽이 얇아지며 편평하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는 점토이다. 구연 바로 아래부터 점열문을 연속 시문하여 점열 횡선문을 좌하에서 우상으로 5열, 우하에서 좌상으로 5열씩 배치하여 능형문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6.8cm, 폭 6.7cm, 기벽두께 0.4~0.7cm이다.

18.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2-18, 도판 6-18)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색조는 외면 갈색, 내면은 암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동체부에서 구연부는 직립하며 입술 부분은 편평하다. 구연 1.1cm 아래에서부터 폭 0.3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우하에서 좌상으로 사선문을 시문한 후 시문구의 한쪽으로 눌러 위쪽은 깊게 아래쪽은 얇게 하여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깨끗하게 정면하였다.

크기는 길이 8.0cm, 폭 6.8cm 기벽두께 0.9cm이다.

19.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2-19, 도판 6-19)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암갈색, 내면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포함되어있는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어지며 구연부 끝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구연부의 끝에서 0.5cm 아래에서부터 4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박락되어 상태를 알 수 없다.

크기는 길이 4.4cm, 폭 3.5cm, 기벽두께 0.6~0.7cm이다.

20.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2-20, 도판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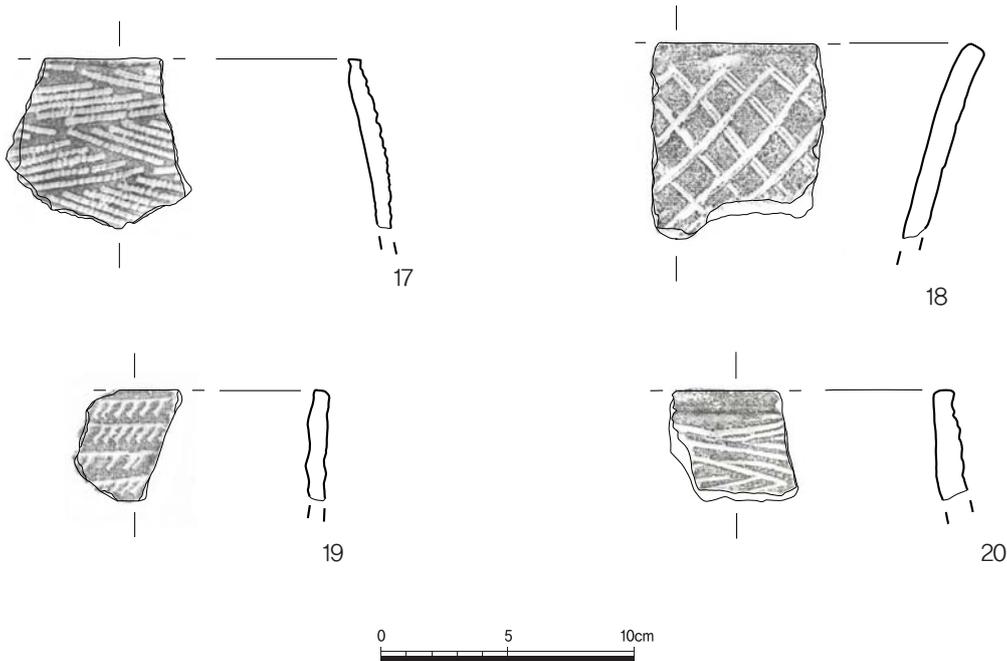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석영이 함유되어 있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수직으로 이어지다 끝부분이 약간 외반 되어 있으며, 입술부분은 편평하다. 외면은 구연부의 끝에서 0.8cm 아래에서부터 우하에서 좌상으로 3열로 사선문을 시문한 후 좌하에서 우상으로 선문을 시문하였다. 잔존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문양은 확인 할 수 없다.

크기는 길이 4.4cm, 폭 4.6cm, 기벽두께 0.8~1.0cm이다.

21.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3-21, 도판 6-21)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기형은 동체부에서 수직으로 오르다 내면 1.0cm 정도에서 외반하며 입술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색을 띠며,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석영이 소량 섞여있다. 외면은 입술 바로 아래부터 1~1.1cm 간격의 단사집선문을 단을 형성하여 시문하였으며 그 아래로 좌상에서 우하로 단사선문을 시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시문 형태는 알 수 없다. 내면은 구연부 일부에서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깨끗하게 정면하였다.

크기는 길이 10.3cm, 폭 11.9cm, 기벽두께 0.6~0.9cm이다.



도면 12.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22. 토기 저부편(도면 13-22, 도판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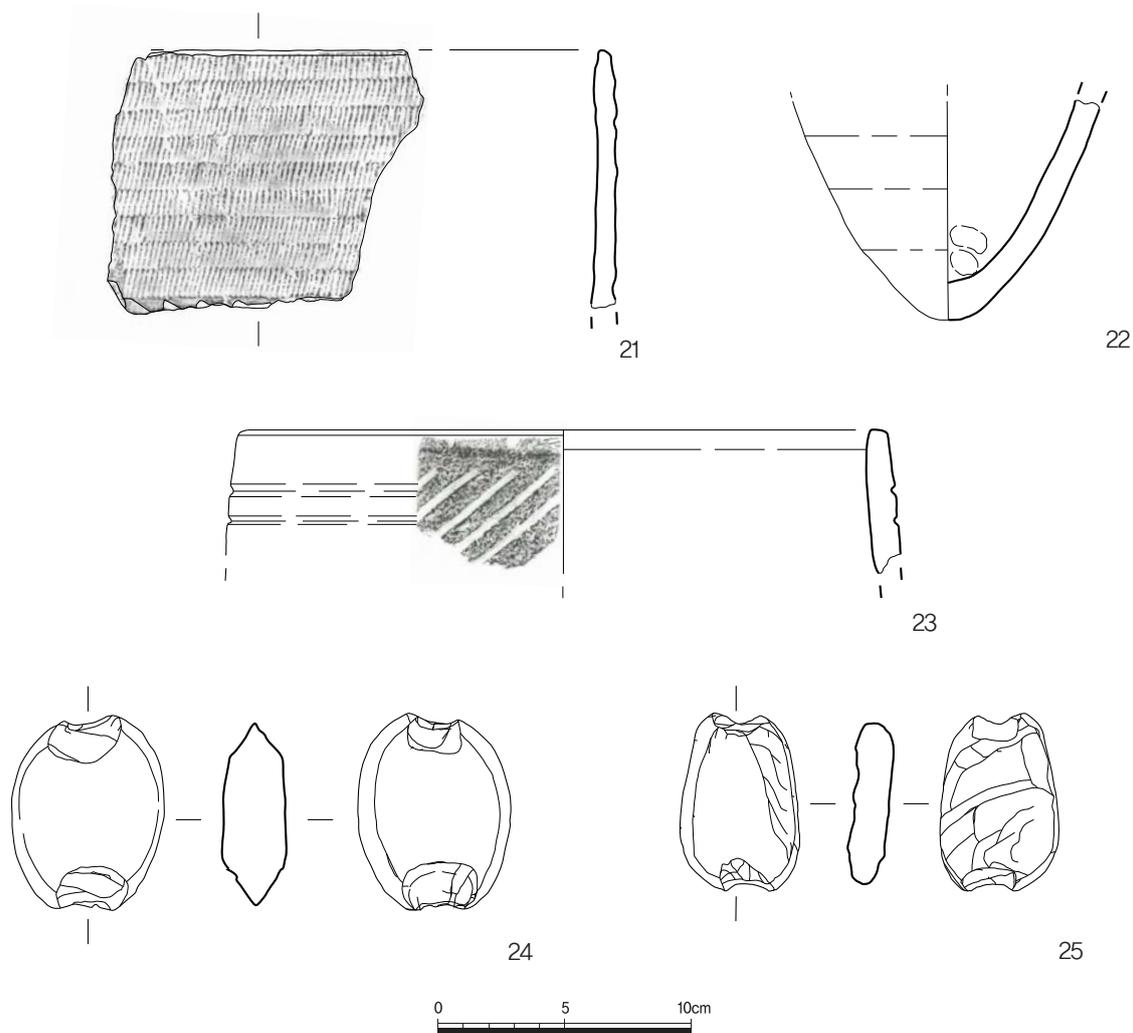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토기 저부편이다. 첨저형의 둥근 바닥이다. 태토는 석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토를 이용하였다. 기벽 내·외면은 대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으나 내면 바닥 부분은 같이 박리되어 속심이 드러난다.

크기는 기고 9.7cm, 기벽두께 1.2cm이다.

23.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3-23, 도판 6-23)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갈색을 띠며, 태토는 점토에 석영이 섞여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입술 부분은 편평하다. 구연 1.1cm 아래에서부터 폭 0.3cm 크기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사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내·외면 모두 물손질하였다.

크기는 길이 5.7cm, 추정구경 25.0cm, 기벽두께 1~1.2cm이다.



도면 13.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24. 어망추(도면 13-24, 도판 6-24)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어망추이다. 평면 형태가 타원형인 납작한 자갈들의 길이방향 양쪽 측면을 1~2회 타격 후 결속부를 오목하게 마연하여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7.8cm, 폭 6.0cm, 두께 2.5cm,이다.

25. 어망추(도면 13-25, 도판 6-25)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어망추이다. 평면 형태가 타원형인 납작한 자갈들의 길이방향 양쪽 측면을 잔떼기한 후 결속부를 오목하게 마연하여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7.0cm, 폭 4.6cm, 두께 1.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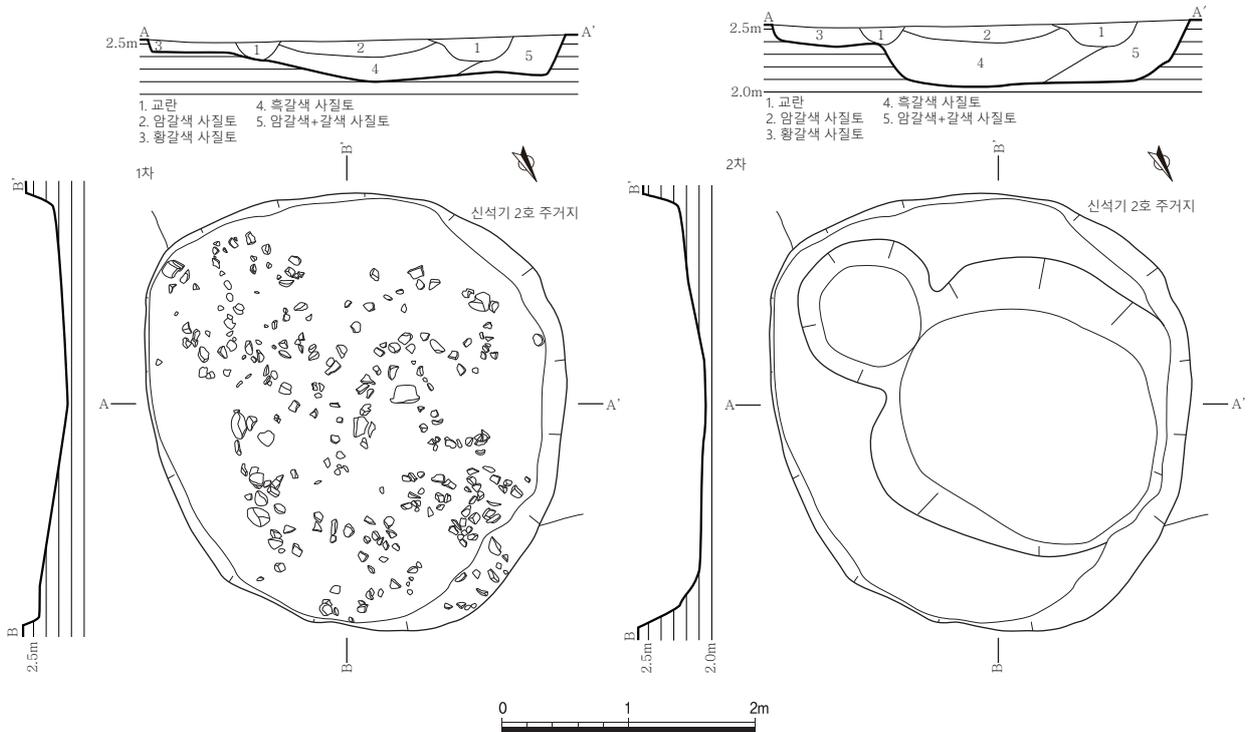
2) 할석유구 및 수혈유구

(1) 할석유구

가. 유구(도면 14, 도판 7)

조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의 동벽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된 유구로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내부에 암갈색사질토와 흑갈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으며, 하부로 갈수록 흑갈색사질토의 비율이 높아지고 피열흔이 관찰되는 깨진 자갈들이 다량 포함된 양상으로 볼 때 야외노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4.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유물은 단사선문 등이 시문된 빗살무늬 토기편과 어망추, 흑요석 등의 석재가 중앙부와 남서쪽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규모는 남-북 약 340cm, 동-서 약 325cm이고 잔존깊이는 60cm 가량이다.

나. 유물

26.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5-26, 도판 8-26)

신석기시대 할석유구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의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동체부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며 입술부는 편평하다. 입술부에는 약 0.5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입술 부분을 눌러 시문하였다. 외면은 입술부 0.7cm 아래에 두께 0.5cm의 끝이 뾰족한 시문구를 이용하여 단사선문을 시문하였으며 시문구를 강하게 눌러 내면에 누른 흔적이 확인된다. 내·외면 모두 목판조정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6.9cm, 복원구경 31.4cm, 기벽두께 0.4~0.8cm이다.

27.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5-27, 도판 8-27)

신석기시대 할석 유구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세석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고운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며 입술 부분은 편평하다. 외면은 입술에서 0.7cm 아래에서부터 끝이 뾰족한 시문구를 이용하여 횡방향으로 불규칙한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외면은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5.8cm, 폭 8.5cm, 기벽두께 0.5~0.8cm이다.

28.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5-28, 도판 8-28)

신석기시대 할석 유구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황갈색이며, 석영 조각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를 이용하였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며 입술부는 약간 둥글다. 외면은 입술에서 약 0.5cm 아래에서부터 끝이 뾰족한 삼각형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0.5cm폭으로 횡방향의 단사선문을 시문하였다.

크기는 길이 4.2cm, 폭 5.7cm, 기벽두께 0.5~0.6cm이다.

29.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5-29, 도판 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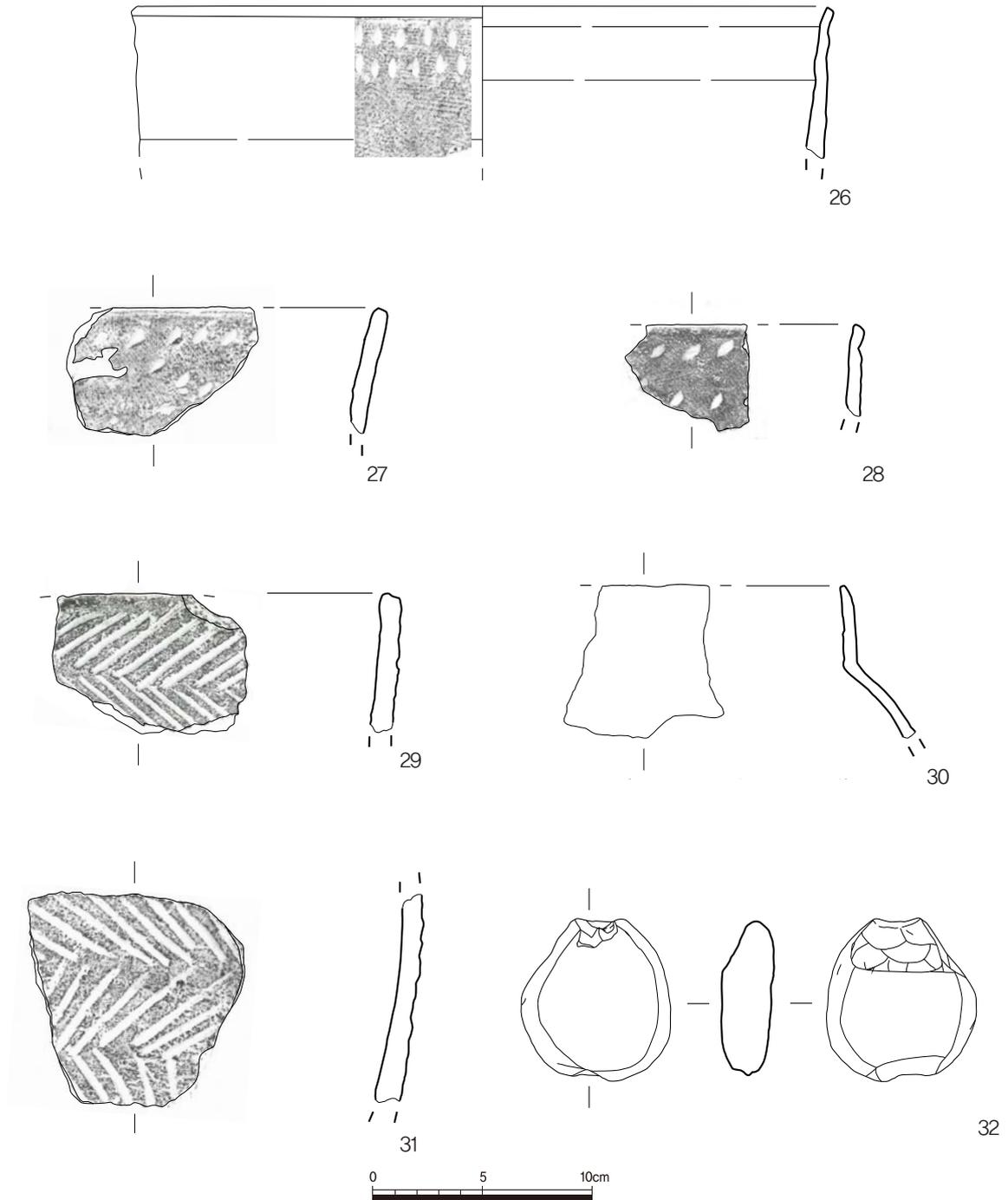
신석기시대 할석유구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이다.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적갈색이며, 태토는 석영 등의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며 입술부는 편평하다. 외면은 입술에서 0.8cm 아래에서부터 폭 0.4cm 두께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우하에서 좌상의 선문과 좌하에서 우상의 선문을 그어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크기는 길이 6.4cm, 폭 8.6cm, 기벽두께 0.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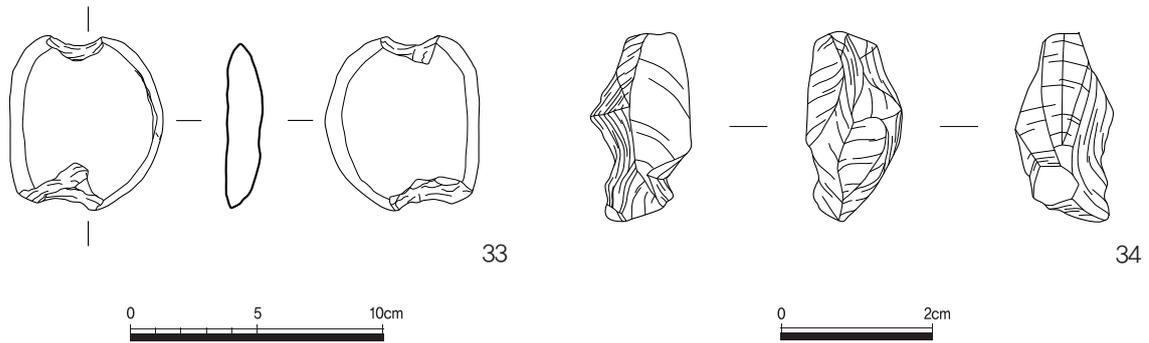
30. 토기 구연부편(도면 15-30, 도판 8-30)

신석기시대 할석유구에서 출토된 적색 마연된 토기 구연부편이다. 기형은 동체부에서 둥글게 올라오다 구연부에서 직선으로 꺾이며 입술부분은 둥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색이며, 태토는 굵은 석영 등의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기벽 외면은 매끈하게 정면 후 붉은색을 덧입힌 것으로 보인다. 내면은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7.3cm, 폭 7.0cm, 기벽두께 0.5~0.7cm이다.



도면 15.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출토유물



도면 16.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출토유물

31. 즐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5-31, 도판 8-31)

신석기시대 할석유구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의 세석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외면은 0.4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2열의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은 희미하게 목리조정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9.5cm, 폭 9.5cm, 기벽두께 0.8~1.2cm이다.

32. 어망추(도면 15-32, 도판 8-32)

신석기시대 할석유구에서 출토된 어망추이다. 평면 형태가 타원형에 가까운 납작한 자갈돌의 길이방향 양쪽 측면을 잔떼기 한 후 별다른 손질은 하지 않았다.

크기는 길이 7.4cm 폭 6.7cm, 두께 2.3cm이다.

33. 어망추(도면 16-33, 도판 8-33)

신석기시대 할석유구에서 출토된 어망추이다. 평면 형태가 타원형인 납작한 자갈돌의 길이방향 양쪽 측면을 떼어낸 후 잔손질하여 결속부를 오목하게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6.6cm 폭 6.1cm 두께 1.4cm이다.

34. 석재(도면 16-34, 도판 8-34)

신석기시대 할석유구에서 출토된 석재이다. 암질은 흑요석이며 일부 떼어낸 흔적이 있다.

크기는 길이 2.5cm, 너비 1.3cm, 두께 1.2cm이다.

(2) 수혈유구 1호

가. 유구(도면 17, 도판 9-①~③)

입회조사 Tr.에서 확인되었던 유구로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에서 서쪽으로 3m 가량 떨어져 있다. 후대 교란으로 인해 입회조사 당시 확인되었던 북동쪽 부분만 잔존하며,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에는 흑갈색과 암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었으며, 어골문이 시문된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잔존크기는 남-북 30cm, 동-서 160cm이고, 깊이는 38cm이다.

나. 유물

35. 즐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8-35, 도판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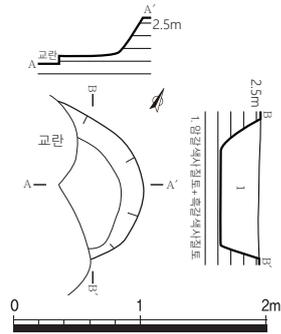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토이다. 외면은 0.3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에는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6.7cm, 폭 7.2cm, 기벽두께 0.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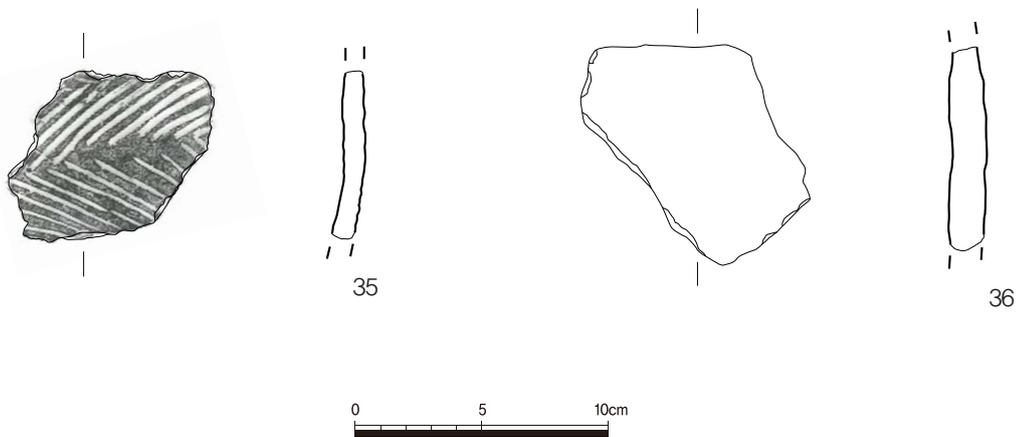
36. 토기 동체부편(도면 18-36, 도판 9-36)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에서 출토된 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남아서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색을 띠며, 태토는 점토에 석영 조각이 일부 섞여 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벽 내면은 테쌍기 한 후 점토를 덧대어 붙힌 후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되며, 외면은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크기는 길이 8.1cm, 폭 6.8cm, 기벽두께 1.0~1.5cm 이다.



도면 17.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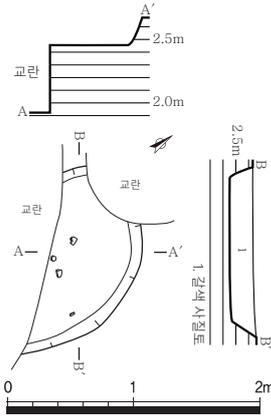
도면 18.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

(3) 수혈유구 2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10-①·②)

신석기시대 1호 수혈유구 남쪽에 인접해 위치하며, 절반 이상이 후대 교란으로 인해 훼손된 상태로 동북쪽 부분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흑갈색과 암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었고, 바닥에서 석제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잔존크기는 남-북 190cm, 동-서 80cm이고, 깊이는 2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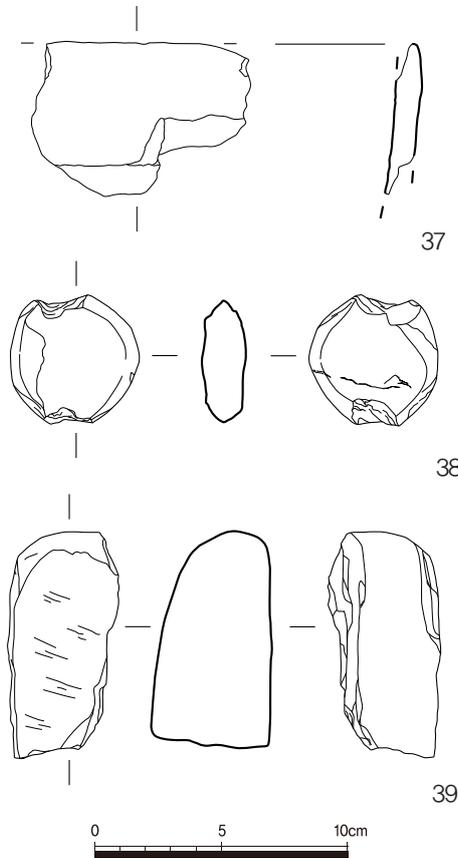
도면 19.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

나. 유물

37. 토기 동체부편(도면 20-37, 도판 10-37)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에서 출토된 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남아서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조각 등 세석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내·외면 모두 깨끗하게 정면하였다. 토기는 테쌍기를 이용하여 성형한 것으로 관찰되며 토기의 접합 부분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8.6cm, 폭 9.8cm, 두께는 1.1~1.4cm이다.



도면 20.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

38. 어망추(도면 20-38, 도판 10-38)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에서 출토된 어망추이다. 평면 형태가 원형인 납작한 자갈돌의 길이방향 양쪽 측면을 떼어낸 후 잔손질하여 결속부를 오목하게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5.1cm, 폭 4.9cm, 두께 1.7cm이다.

39. 갈돌편(도면 20-39, 도판 10-39)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에서 출토된 갈돌 편이다. 반 이상이 결실되어 있으며 사용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쪼아내어 거칠게 만들었다. 사용면은 곱게 갈려 있으며 약간 볼록한 형태이다. 갈돌의 횡방향으로 희미하게 사용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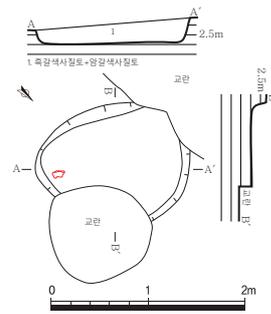
크기는 길이 9.0cm, 너비 4.4cm, 두께는 4.8cm이다.

(4) 수혈유구 3호

가. 유구(도면 21, 도판 10-③·④)

신석기시대 2호 수혈유구 남쪽에 거의 연접해 있으며,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와 중복된 유구이다. 후대 교란 및 후축인 신석기시대 4호 수혈유구로 인해 파괴되어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흑갈색과 암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었고, 유물은 동체부편과 석제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잔존크기는 남-북 150cm, 동-서 140cm이고, 깊이는 22cm이다.



도면 21.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3호

나. 유물

40. 즐문토기 동체부편(도면 22-40, 도판 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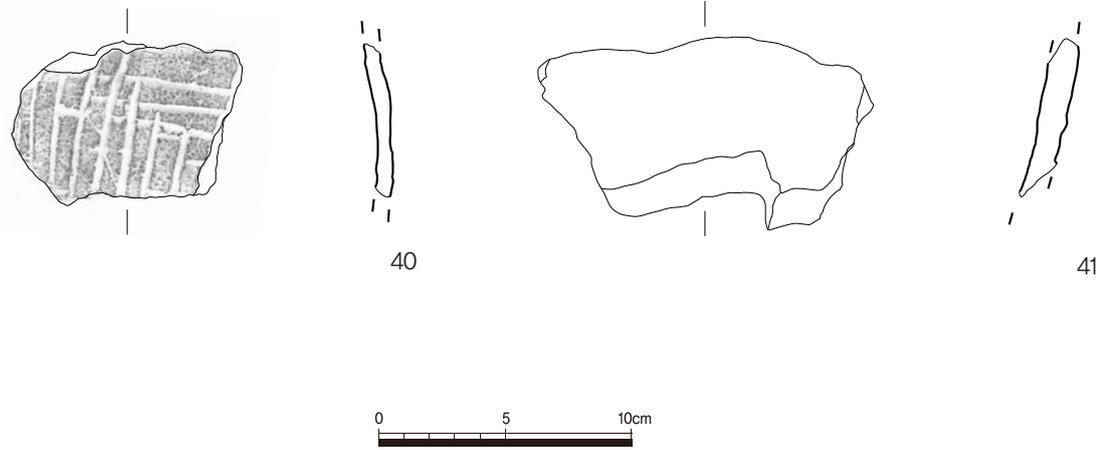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3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흑갈색, 내면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은 0.3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희미하게 목리조정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6.1cm, 폭 8.2cm, 기벽두께 0.5~0.6cm이다.

41. 토기 동체부편(도면 22-41, 도판 10-41)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3호에서 출토된 토기 동체부편이다. 기형은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고 외면은 매끈하게 정돈이 잘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박리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 세석립이 일부 혼입된 점토이다. 내면은 희미하게 목리조정흔이 확인되며 부분적으로 손누름 자국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6.3cm, 폭 12.8cm, 기벽두께 0.3~1.1cm이다.



도면 22.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3호 출토유물

(5) 수혈유구 4호

가. 유구(도면 23, 도판 11-①~④)

신석기시대 2호 주거지와 수혈유구 3호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된 후축 유구로 조사지역 남서쪽 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흑갈색과 암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 토기편과 석재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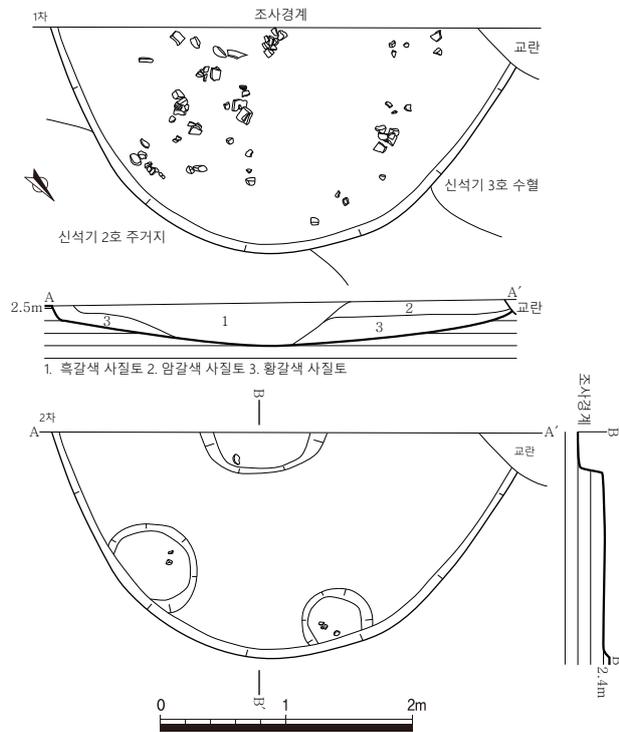
조사된 크기는 남-북 360cm, 동-서 180cm이고, 깊이는 24cm 이다.

나. 유물

42. 토기 구연부편(도면 24-42, 도판 11-42)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에서 출토된 토기 구연부으로 도면복원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연적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토기의 입술부분은 둥글며 내·외면 모두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크기는 길이 27.2cm, 복원구경 35.6cm, 기벽두께 0.7~1.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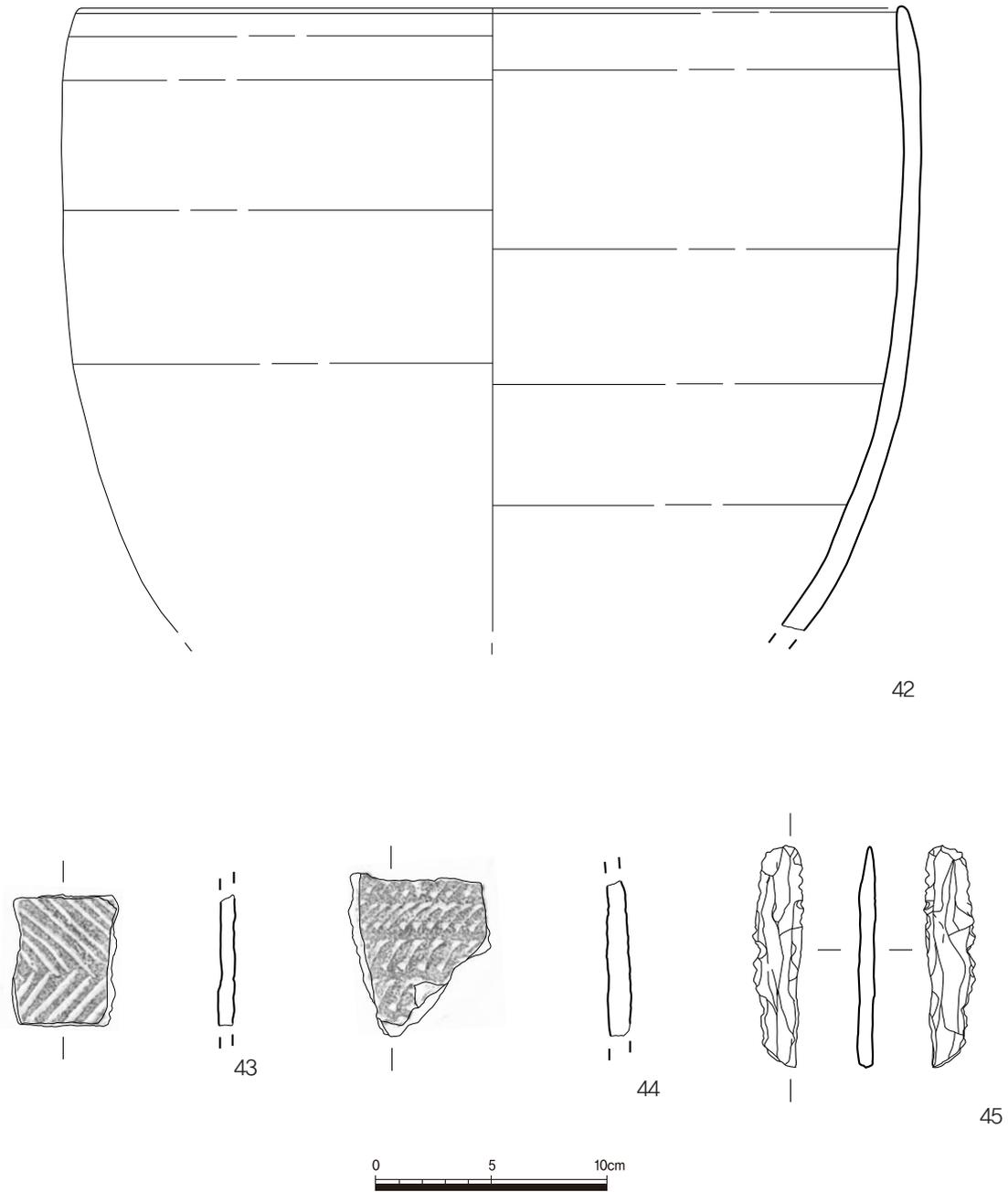


도면 23.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

43. 즐문토기 동체부편(도면 24-43, 도판 11-43)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점토에 석영 등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토이다. 외면은 0.3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황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손누름 자국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크기는 길이 5.6cm, 폭 4.5cm, 기벽두께 0.5~0.7cm이다.



도면 24.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출토유물

44. 즐문토기 동체부편(도면 24-44, 도판 11-44)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외면에 양쪽 끝이 뾰족한 시문구를 이용하여 0.2cm의 폭으로 4열의 단사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희미하게 목판조정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6.8cm, 폭 5.8cm, 기벽두께는 0.7~0.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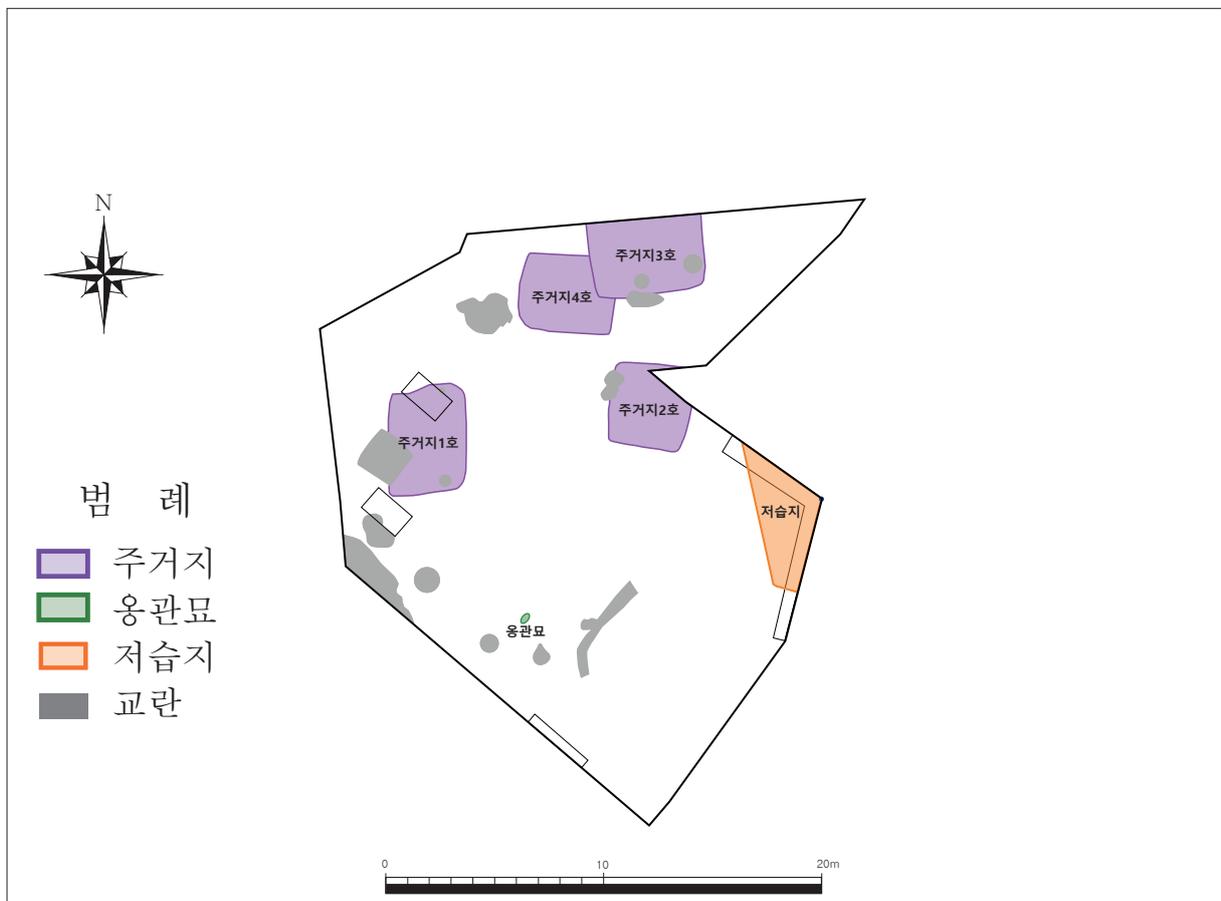
45. 석재(도면 24-45, 도판 11-45)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에서 출토된 석재이다. 원석에서 얇게 떼어낸 후 형태를 갖추기 위해 상부를 크게 떼어낸 후 측면을 잔떼기한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9.7cm, 너비 2.1cm, 두께는 0.6cm이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유구는 조사지역 북쪽부분에서 주거지 4기, 옹관묘 1기, 저습지 등 6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고배편,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철검 등 4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5. 삼국시대 유구 배치도(1/350)

1)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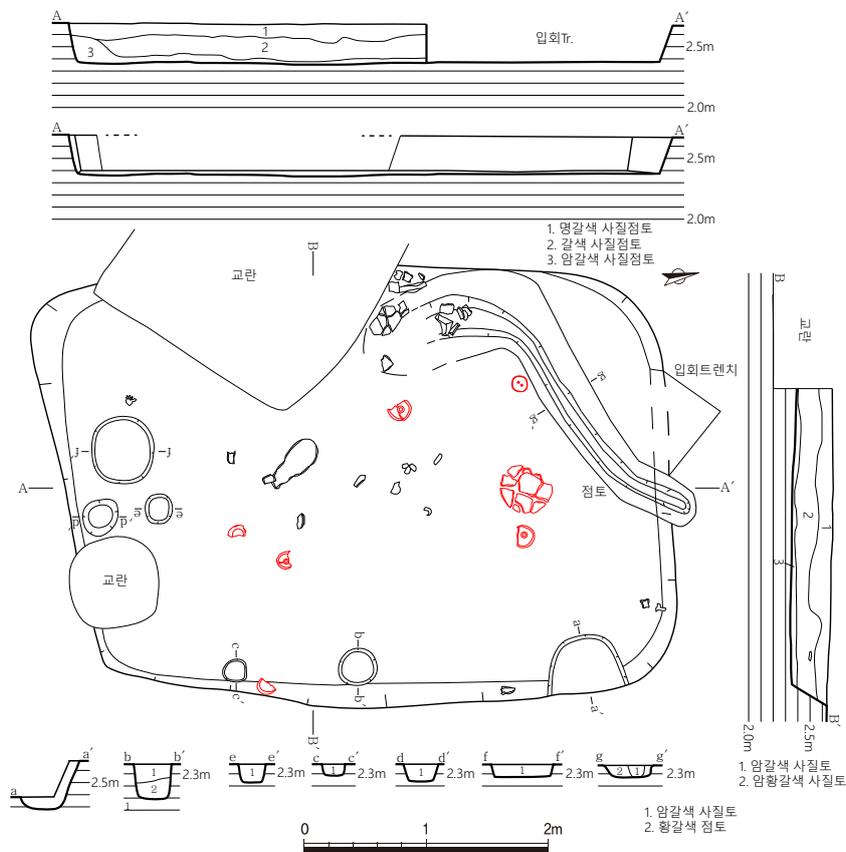
(1) 주거지 1호

가. 유구(도면 26, 도판 12)

삼국시대 주거지 1호는 조사지역 서북쪽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가 남쪽에 인접해 있다. 입회조사 당시 점토다짐이 확인되었던 유구로 갈색사질토층에서 수혈선이 확인되었다. 북벽과 서벽 일부는 후대에 교란되었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10°-E 이다. 갈색사질토를 굴광하고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명갈색과 갈색,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바닥은 점토다짐하여 마련하였고, 내부시설은 북서모서리에서 북단벽으로 이어지게 조성한 구들이 확인되었으며, 남단벽에서 수혈 2개, 주혈 1개, 동장벽에서 주혈3개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중앙부에서 작업대로 보이는 표주박형 판석이 노출되었고, 도가니 뚜껑으로 보이는 연질 토기 뚜껑이 출토되어 공방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고배편, 시루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남-북 483cm, 너비 320cm, 깊이 35cm이다.



도면 26. 삼국시대 주거지 1호

나. 유물

46. 고배편(도면 27-46, 도판 13-46)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도질제의 고배로, 잔존상태는 배신 일부와 대각 전체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내·외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대각과 배신을 이어붙인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5.1cm, 구경 10.6cm, 기벽두께 0.2~0.6cm이다.

47. 고배편(도면 27-47, 도판 13-47)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도질제의 고배로 잔존상태는 배신 일부와 대각부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연회청색을 띠고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뚜껑받이턱은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꼭지 부분을 누른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5.3cm, 구경 11.9cm, 기벽두께 0.2~0.7cm이다.

48. 고배편(도면 27-48, 도판 13-48)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도질제의 고배로 잔존상태는 신부 1/2정도가 남아 있으며 대각은 전체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회색을 띠고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편이다. 배신 내·외면에는 녹갈색의 자연유가 형성되었으나 대부분이 산화되어 박리되었다. 뚜껑받이턱은 사선으로 처리하였으며 내·외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대각과 배신을 이어붙인 흔적과 배신의 중간 부분에 각을 준 형태가 관찰된다.

크기는 길이 5.8cm, 구경 11.6cm, 기벽두께 0.2~0.5cm이다.

49. 고배편(도면 27-49, 도판 13-49)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도질제의 고배편으로 잔존상태는 대각부 전체와 배신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연회청색을 띠고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뚜껑받이턱은 약간 하향 돌출되었다. 내·외면에는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대각과 배신을 이어붙인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대각으로 볼 때 등간격으로 5개의 투창을 뚫었다.

크기는 길이 6.2cm, 구경 14.9cm, 기벽두께 0.4~0.6cm이다.

50. 고배편(도면 27-50, 도판 13-50)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도질제의 고배편으로 잔존상태는 대각부 전체와 배신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태토는 석영, 운모 등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직립하였으며 뚜껑받이턱은 직선으로 돌출하였다. 내·외면에는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대각과 배신을 이어붙인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대각으로 볼 때 4개의 투창을 뚫었다.

크기는 길이 6.2cm, 구경 13.6cm, 기벽두께 0.3~0.6cm이다.

51. 대각편(도면 27-51, 도판 13-51)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도질제의 대각편으로 일부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연회청색을 띠고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대각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끝부분은 깎아낸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4.2 폭 5.9cm, 기벽두께 0.4~0.5cm이다.

52. 대각편(도면 27-52, 도판 13-52)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도질제의 대각편으로 일부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고운점토에 석영이 혼입되어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대각 외면에 전체적으로 녹갈색 자연유가 형성되었으며, 각각 1단과 2단이 형성되어있다. 대각부의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크기는 길이 3.8cm, 폭 6.3cm, 기벽두께 0.2~0.4cm이다.

53. 타날문토기 저부편(도면 27-53, 도판 13-53)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 저부편으로 저부 및 동체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바닥은 평저이며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황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이 섞여 있는 점토로 되어 있다. 기벽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어있으며, 내면은 속심의 태토가 노출될 정도로 박리가 심하고 곳곳에 손누름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4.1cm, 저경 9.0cm, 기벽두께 0.6~0.7cm이다.

54. 뚜껑(도면 27-54, 도판 1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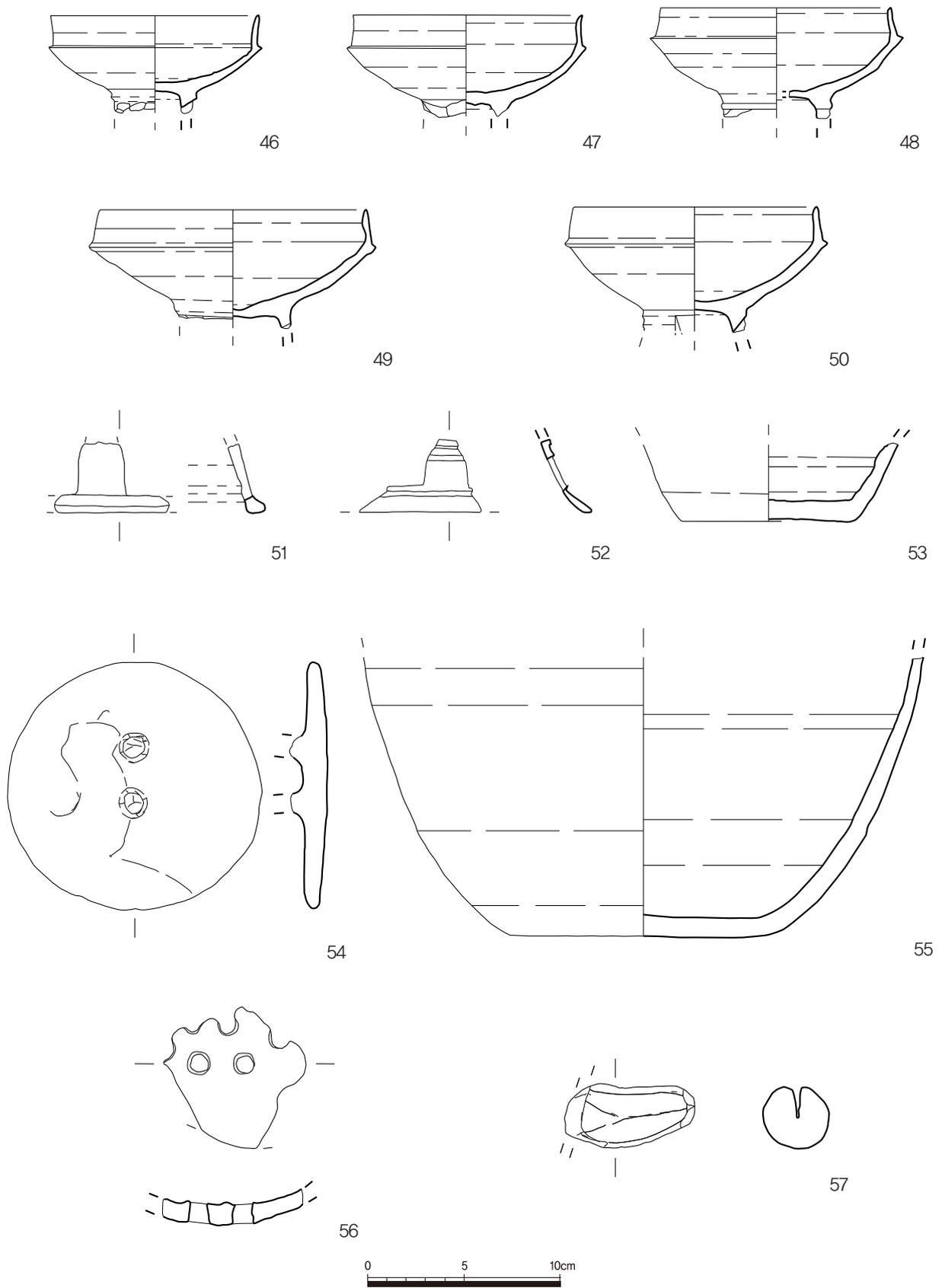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토기 뚜껑으로 뚜껑 손잡이가 결실되었다. 평면 형태는 원반모양에 가깝다. 색조는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뚜껑의 내면에서 흑반이 관찰된다. 내·외면은 물손질흔이 확인되나 외면은 박리가 심하여 거친 편이다.

크기는 지름 13.0cm, 기벽두께 0.6~1.3cm이다.

55. 저부편(도면 27-55, 도판 13-55)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저부편이다. 저부 및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바닥은 평저이고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 세사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여 거친편이며, 내면은 깨끗하게 정면 되어 있으며 손누름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14.6cm, 저경 14.0cm, 두께 0.5~1.0cm이다.

크기는 지름 14.6cm, 저경 14.0cm, 기벽두께 0.5~1.0cm이다.



도면 27. 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56. 시루편(도면 27-56, 도판 13-56)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시루 저부편으로 바닥만 남아있어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 흑색, 내면 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토이다. 바닥에 증기공을 밖에서 안으로 직경 1.5cm 내외의 크기로 뚫어 배치하였다. 바닥 외면에는 그을음 흔적이 확인되며 박리가 심하여 속심이 드러난다.

크기는 길이 7.4cm, 폭 7.4cm, 기벽두께 0.9~1.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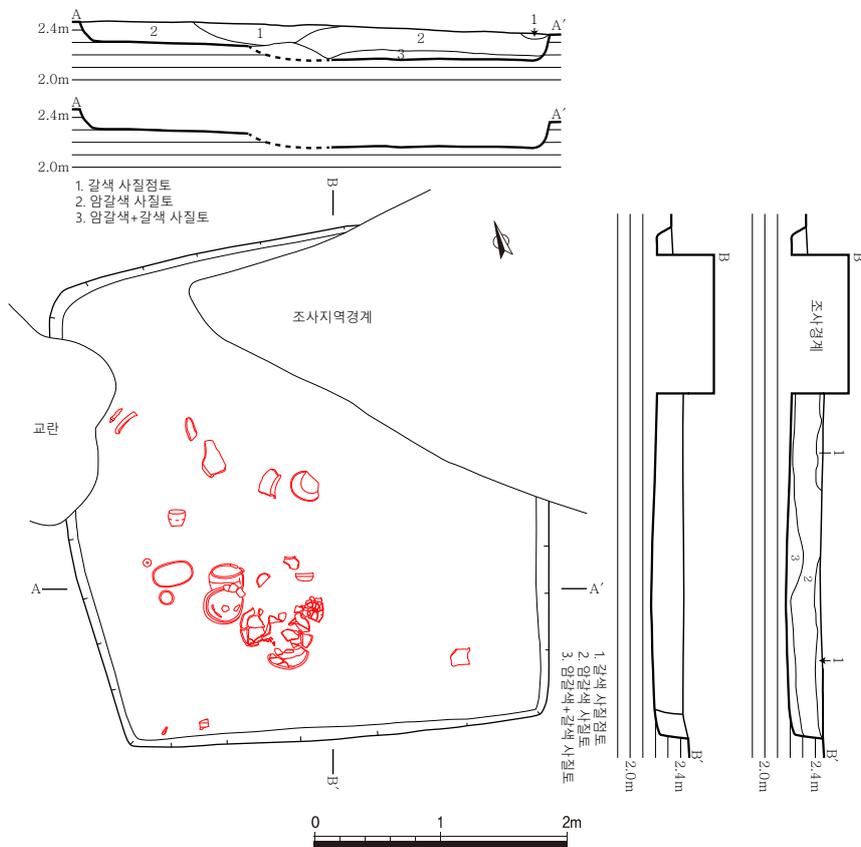
57. 파수(도면 27-57, 도판 13-57)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파수다. 파수부만 남아 있어 토기의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며 파수 끝부분은 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파수의 단면은 원형을 띠며 상면의 가운데에 길이 2.8cm, 폭 0.5cm 크기의 홈을 만들었다. 파수는 토기와 따로 제작하여 접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크기는 길이 6.7cm, 기벽두께 3.2cm이다.

(2) 주거지 2호

가. 유구(도면 28, 도판 14)



도면 28.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주거지 2호는 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서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7m 가량 떨어져 위치하며, 갈색사질토층에서 수혈선이 확인되었다. 서쪽 일부는 후대 민가로 인해 교란되었고, 동북쪽 부분은 조사지역 경계 밖에 해당된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20°-E이고, 내부에는 갈색과 암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었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마련하였고,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서벽 부근에서 철검과 도자가 출토되었고,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단경호, 배, 호 등이 밀집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남-북 370cm, 동-서 370cm, 깊이 17cm이다.

나. 유물

58. 단경호(도면 29-58, 도판 15-58)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단경호이다. 구연 2/3과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바닥은 편평한 편이며 저부에서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 동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경하여 경부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외반 되어 있으며 입술은 편평하다. 색조는 외면 갈색, 내면 연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 세석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 되어 있으며 입술은 편평하다. 외면은 평행문을 사방향으로 타날하여 정면하였으며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크기는 기고 26.7cm, 구경 18.6cm, 저경 9.0cm, 최대경 28.0cm, 기벽두께 0.6~1.0cm이다.

59. 단경호(도면 29-59, 도판 15-59)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단경호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갈색이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연질소성이며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평행문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사방향으로 타날한 후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크기는 기고 31.0cm, 복원구경 21.0cm, 저경 10.0cm, 기벽두께 0.5~0.8cm이다.

60. 단경호 구연부(도면 30-60, 도판 16-60)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단경호 구연부이다. 잔존상태는 구연 및 동체 일부만 남아 있다. 기형은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내만하다가 경부로 연결되며,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여 입술로 이어지며, 입술은 각이지게 처리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연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섞여 있는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단사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경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에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10.0cm, 복원구경 18.0cm, 기벽두께 0.3~0.6cm이다.

61. 발형토기(도면 30-61, 도판 16-61)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발형토기이다. 색조는 외면 암갈색, 내면 연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이 섞여 있는 점토이다. 외면에서 평행문의 타날구를 사방향으로 타날하여 정면하였다. 성형한 흔적이 관찰된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내면은 희미하게 손누름 자국이 관찰된다.

구연은 기벽을 밖으로 젖혀 이중으로 처리하였으며 구연단은 편평하다. 내면과 외면의 한쪽면은 불에 그을린 흔적이 확인된다. 저부 바닥은 박리가 심해 속심이 드러난다. 구연 아래에 내면에서 외면으로 뚫은 지름 1.1cm의 투공 2개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크기는 기고 19.1cm, 구경 23.6cm, 저경 17.0cm, 기벽두께 0.5~0.7cm이다.

62. 연질토기 배(도면 30-62, 도판 16-62)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연질토기 배이다. 색조는 암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 세석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기형은 편평한 바닥에서 바라지며 올라가다 약간 축약된 후 거의 직립하면서 구연을 이루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비교적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확인된다.

크기는 기고 8.0cm, 구경 10.0cm, 저경 6.0cm, 기벽두께 0.4~0.7cm이다.

63. 연질토기 배(도면 30-63, 도판 16-63)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연질토기 배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바닥은 평저이며 뚜껑받이턱은 수평으로 짧게 돌출하였으며 거의 직립하는 구연 끝은 비교적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 모두 박리되었지만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확인된다.

크기는 기고 5.5cm, 구경 13.0cm, 저경 10.0cm, 기벽두께 0.6cm이다.

64. 발형토기(도면 30-64, 도판 16-64)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발형토기로, 잔존상태는 저부와 동체부 절반 이상이 결실된 상태이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황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동체는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단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간 내경하여 경부로 연결된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입술은 편평하다. 토기의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가 심해 속심이 드러난다. 내면에는 손누름 흔적과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관찰된다.

크기는 길이 21.8cm, 복원구경 17.0cm, 기벽두께 0.4~0.5cm이다.

65. 완형토기(도면 30-65, 도판 16-65)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완형토기로 구연 1/2과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외면 암갈색, 내면 연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이 섞여있는 점토이다. 바닥은 편평하며 저부에서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다 거의 직립하면서 구연과 이어진다.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으며 입술은 편평하다. 외면은 평행문 타날구를 종방향으로 타날하여 성형하였으며, 내면은 박리가 심해 속심이 드러난다.

크기는 기고 8.3cm, 구경 9.5cm, 저경 6.4cm, 기벽두께 0.4~0.9cm이다.

66. 소호(도면 30-66, 도판 16-66)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소호로 동체 일부와 구순이 결실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색, 내면 황적색, 속심은 흑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이 섞여 있는 점토를 이용하였다. 저부 바닥은 평저이며, 저부에서 사선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다 동체 중상단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완만하게 내만하면서 구연과 연결된다. 경부로 연결된다. 구연부는 약간 외반한다. 최대경이 이르는 곳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내·외면 모두 그을음이 일부 확인된다.

크기는 기고 8.3cm, 구경 11cm, 저경 5.6cm, 기벽두께 0.5~0.6cm이다.

67. 시루(도면 31-67, 도판 17-67)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시루로 복원하였으나 동체 절반 이상이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은 갈색이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 외면은 평행문 타날하였으며 1조의 횡침선이 확인된다. 저부 바닥은 살짝 볼록하며 저부의 증기공은 세장한 타원형이다. 저부 중심에 3개의 증기공을 평행하게 투공하고 주변에 방사상으로 11개의 증기공을 배치한 형태이다. 증기공의 길이는 2.2~3.5cm, 폭은 0.5cm 정도이다.

크기는 길이 22.9cm, 최대경 21.0cm, 저경 9.0cm, 기벽두께 0.5~0.8cm이다.

68. 방추차(도면 31-68, 도판 17-68)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토제 방추차이다. 연질소성이며 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연갈색이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이 섞인 점토이다. 평면은 원형이며 단면은 편육각형에 가깝다. 중앙에 0.7~0.9cm의 구멍을 양쪽에서 투공하였다.

크기는 지름 4.3cm, 두께 2.4cm이다.

69. 철도자(도면 31-69, 도판 1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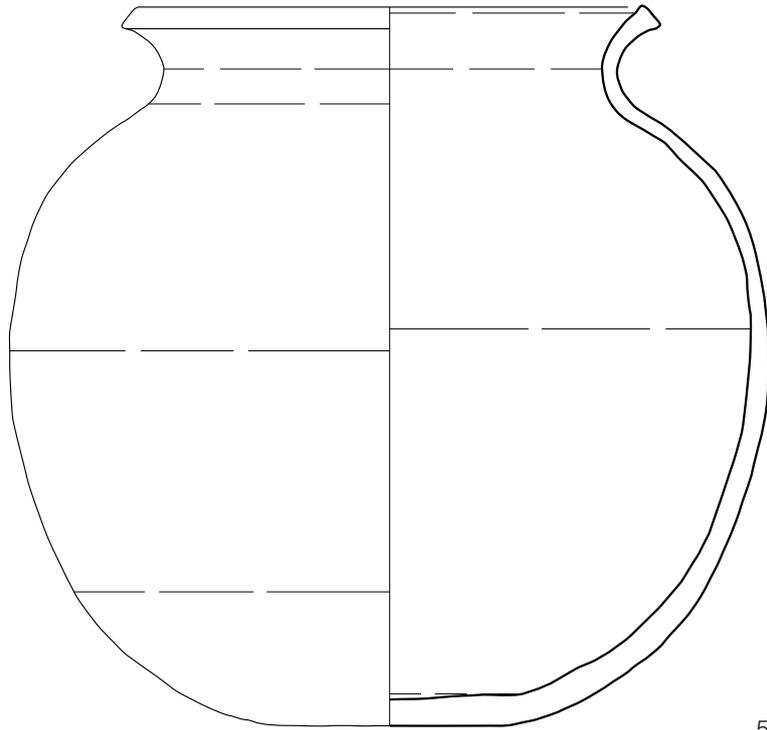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철도자다. 신부의 배부는 병부까지 직선적으로 이어지며, 인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폭이 넓어지다 병부와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확대된 후 사방향으로 축약되어 병부로 이어진다. 병부와 신부의 경계에는 병부금구가 확인되는데, 철판을 타원상으로 감았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크기는 잔존길이 13.1cm, 너비 1.9cm, 두께 0.3cm이고, 신부길이 9.4cm, 병부길이 3.8cm, 병부금구 너비 1.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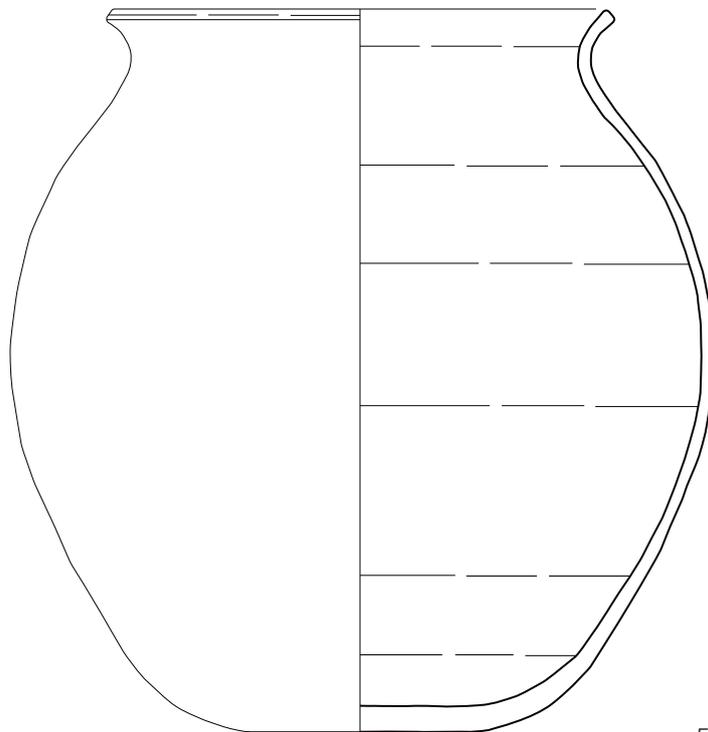
70. 철도자(도면 31-70, 도판 17-70)

삼국시대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도자이다. 인부와 병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녹이 형성되었고 소량의 모래가 흡착되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신부는 거의 일직선으로 이어지다 경부에서 폭이 좁아진다. 신부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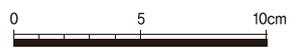
크기는 길이 6.3cm, 너비 0.8cm, 두께 0.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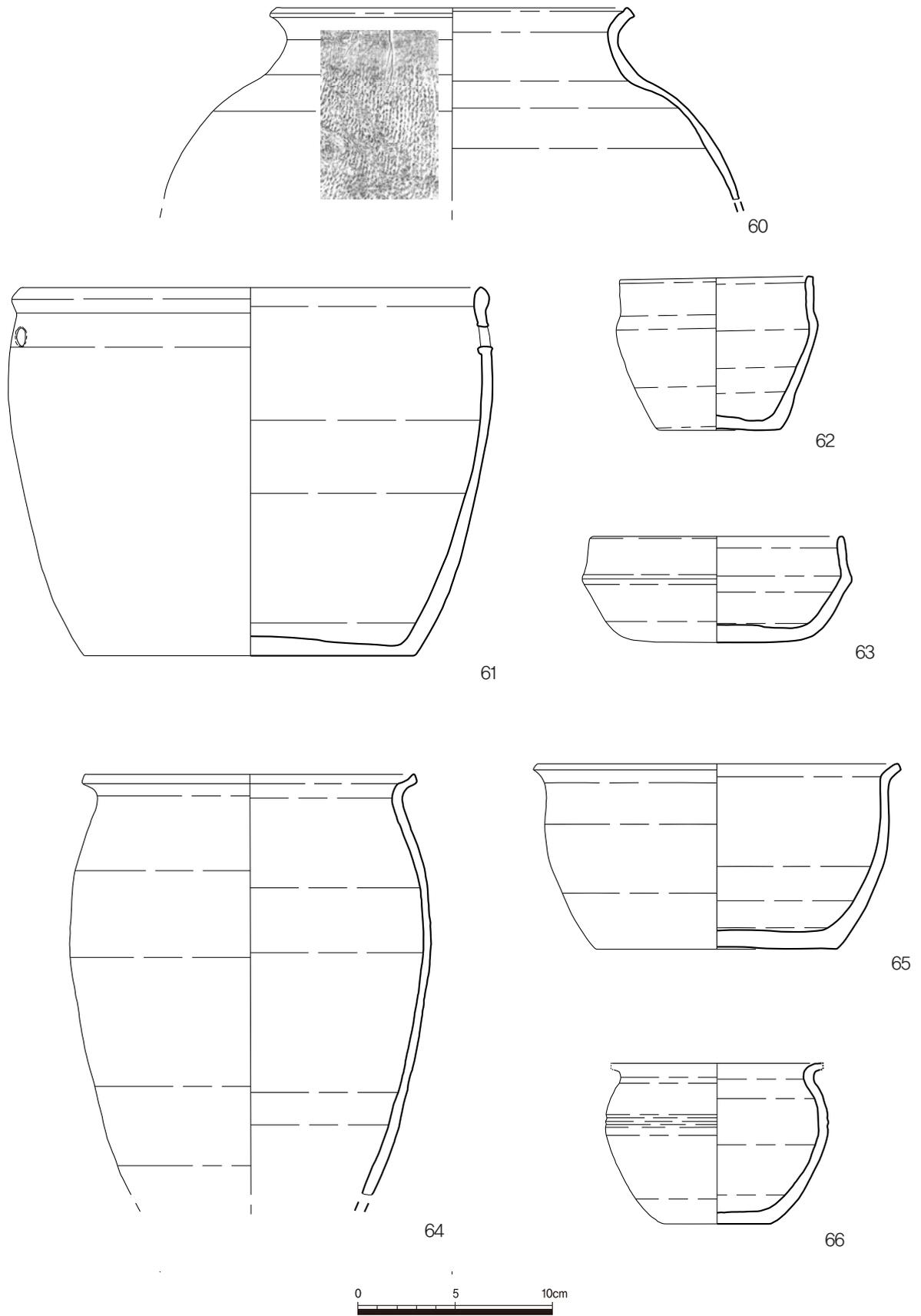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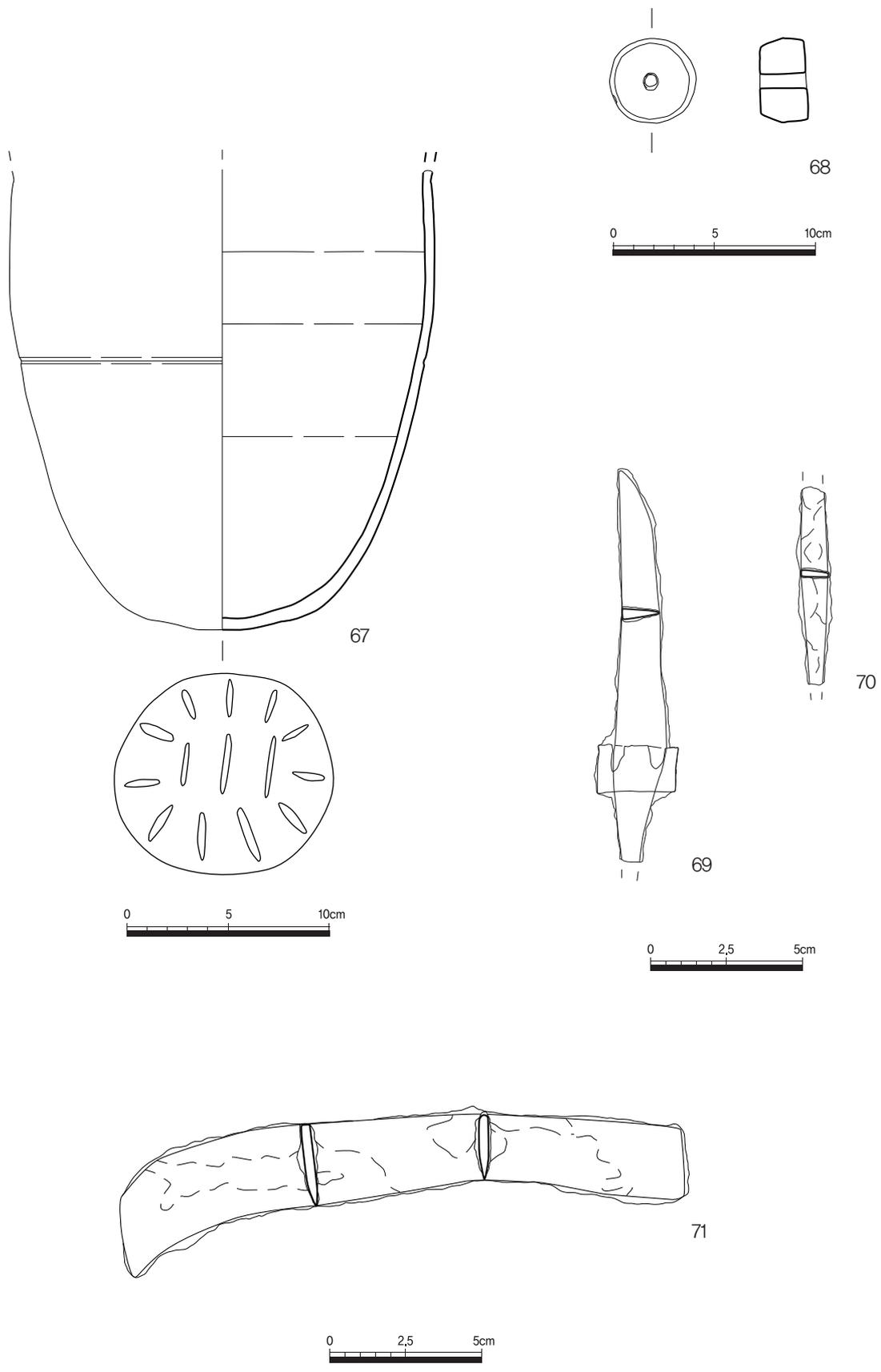
59



도면 29.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도면 30.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도면 31.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71. 철검(도면 31-71, 도판 17-71)

삼국시대 주거지 2호에서 출토된 철검이다. 전체적으로 녹이 형성되었고, 토양이 다수 흡착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기부에서 선단부로 갈수록 신부가 넓어진다. 기부는 둥글게 말아 목병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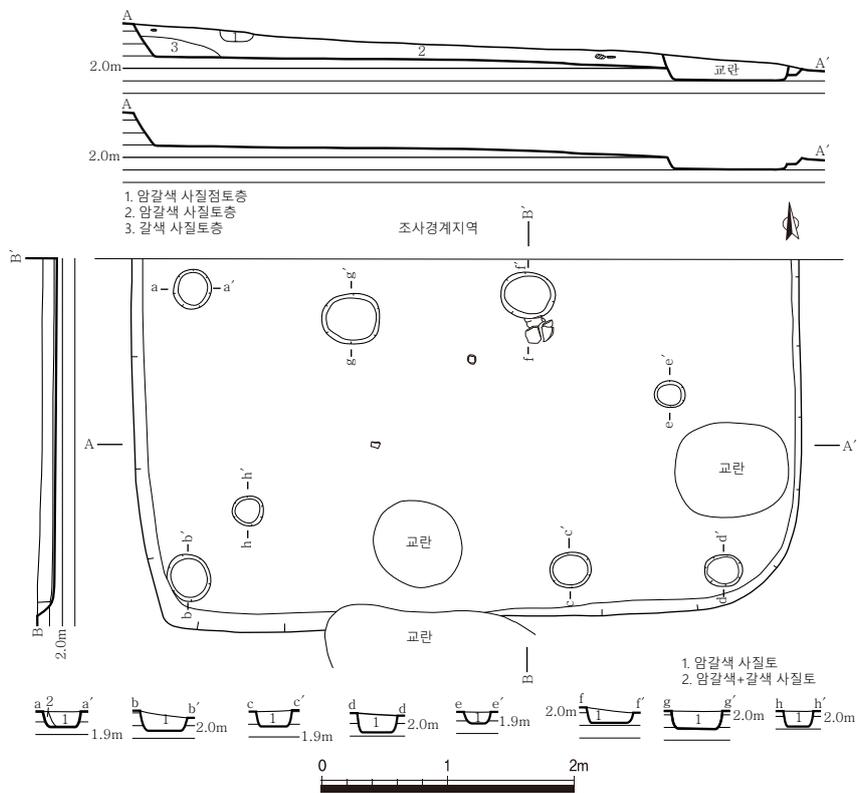
크기는 길이 18.5cm, 너비 2.1~3.1cm, 두께 0.3cm이다.

(3) 주거지 3호

가. 유구(도면 32, 도판 18-①~④)

삼국시대 주거지 3호는 조사지역 북쪽 경계 밖으로 이어지며, 삼국시대 주거지 4호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갈색사질토층에서 수혈선이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판단되고, 주축방향은 N-60°-W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와 사질토,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고,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마련하였으며, 내부시설은 주혈 6개와 수혈 2개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배편과 파배편,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조사된 규모는 남-북 260cm, 동-서 510cm, 깊이 26cm이다.



도면 32. 삼국시대 주거지 3호

나. 유물

72. 호 동체부편(도면 33-72, 도판 18-72)

삼국시대 주거지 3호에서 출토된 호 동체부편이며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세석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하였다. 경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다치구로 파상문을 시문하였으나 결실로 인해 정확한 형태는 확인이 어렵다. 동체와 건부 경계에도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 하였다.

크기는 길이 17.7cm, 동 최대경 27.0cm, 기벽두께 0.4~0.7cm이다.

73. 파수부완 구연부편(도면 33-73, 도판 18-73)

삼국시대 주거지 3호에서 출토된 파수부완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토이다. 입술은 뾰족하게 처리하였으며 입술 아래 2.8cm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1.6cm 아래에도 1조의 돌대를 돌린 형태이다. 구순 아래 3.5cm에는 파수가 일부 잔존한다.

크기는 길이 6.2cm, 폭 10.3cm, 두께 0.3~0.5cm이다.

74. 뚜껑 꼭지(도면 33-74, 도판 18-74)

삼국시대 주거지 3호에서 출토된 대각도치형 꼭지이다. 색조는 외면 회백색, 내면 회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운모 등 세사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꼭지와 개신을 분리하여 제작한 형태이며, 장방형에 가까운 투창이 4개가 뿔려 있다.

크기는 꼭지고 2.0cm, 꼭지경 4.0cm, 기벽두께 0.4cm이다.

75. 저부편(도면 33-75, 도판 18-75)

삼국시대 주거지 3호에서 출토된 저부편으로 대각 접합부가 잔존한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하는 점토이다. 경질소성이며 상태는 양호하다. 내면에 녹색 자연유가 형성되었으며, 대각과 연접부에 1조의 돌대가 돌아가며, 잔존하는 대각에서 4개의 투창을 등간격으로 배치한 흔적이 관찰된다.

크기는 길이 2.8cm, 폭 10.6cm, 기벽두께 0.5cm이다.

76. 주구(도면 33-76, 도판 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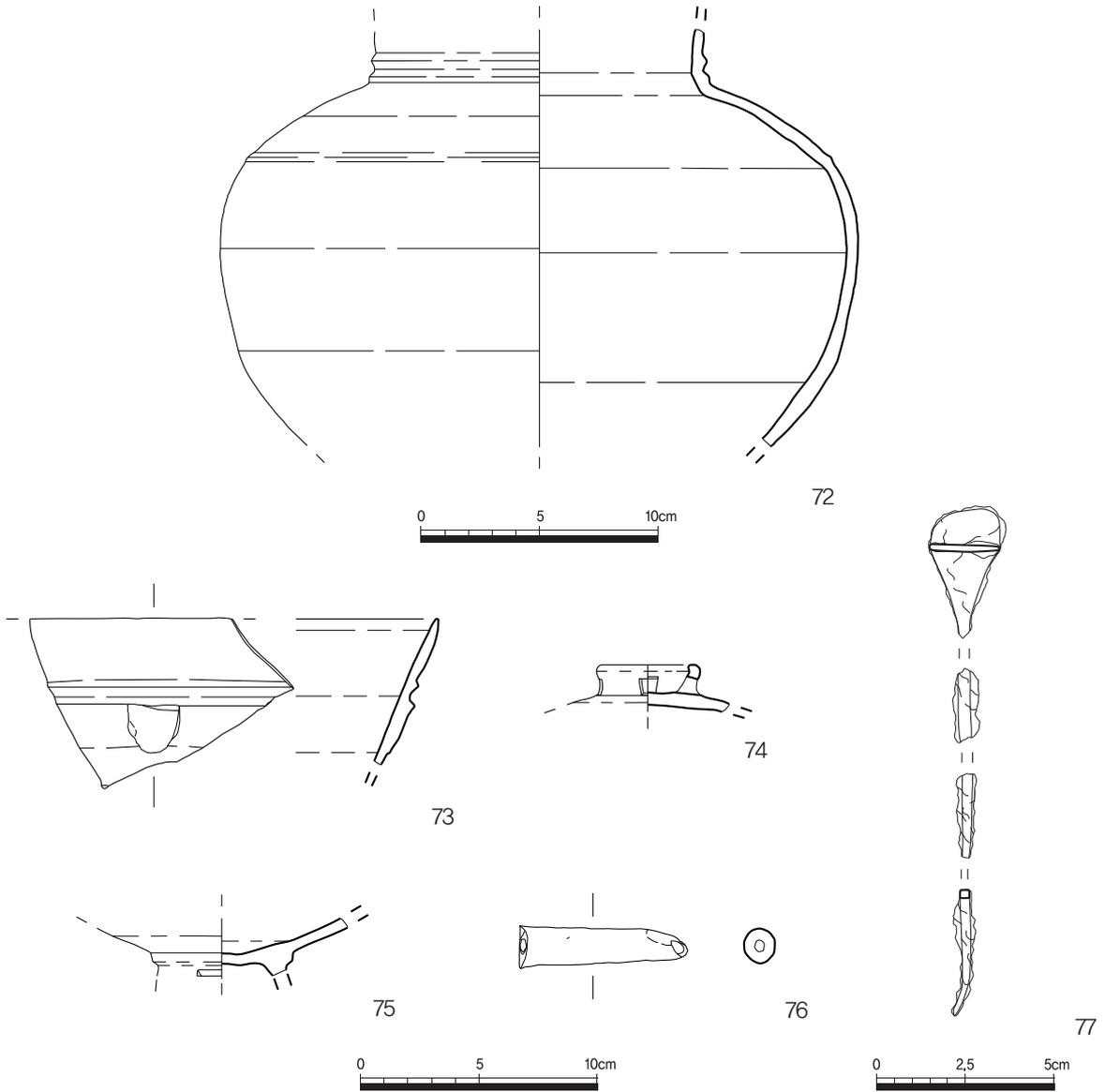
삼국시대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관형태의 유물로 주전자 등의 주구로 판단된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하는 점토이다. 주구의 길이 한쪽 면은 몸통에서 떨어진 흔적이 확인되며 길이의 반대쪽 면은 부분적으로 깎아 내어 한쪽 면을 경사지게 만들었다. 주구의 단면은 원형이며 한쪽 면에 치우치게 하여 0.7cm의 투공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7.2cm, 너비 1.3cm이다.

77. 철촉(도면 33-77, 도판 18-77)

삼국시대 주거지 3호에서 출토된 철촉이다. 4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수습되었다. 표면에 다수의 녹과 모래가 부착되었다. 촉두는 사두형으로 추정되며, 경부의 끝 부분은 약간 휘어있다. 단면은 능형에 가깝다.

크기는 잔존길이 11.1cm, 너비 1.9cm, 두께 0.2cm이다.



도면 33.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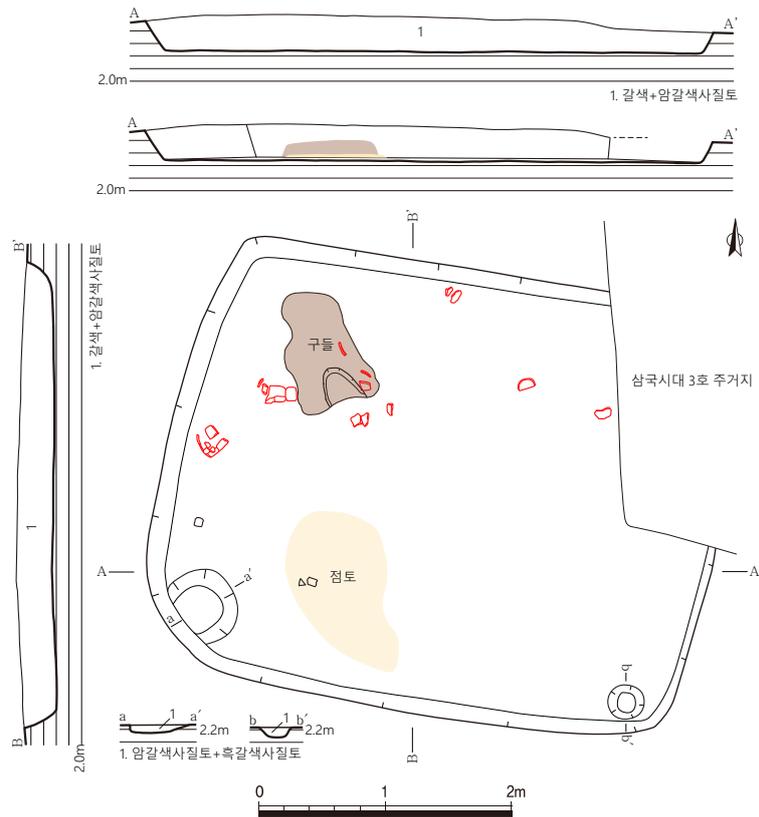
(4) 주거지 4호

가. 유구(도면 34, 도판 19)

삼국시대 주거지 4호는 삼국시대 주거지 3호와 중복된 선축 유구로 주거지 3호로 인해 동북모서리 부분이 파괴되었다. 갈색사질토층에서 수혈선이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주축방향은 N-70°-W이다. 내부에는 암갈색과 흑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었고, 바닥은 일부 점토다짐하였다. 북서쪽 모서리에서 양벽을 점토로 조성하고 심발형토기를 활용하여 지각을 마련한 부뚜막 시설이 확인되었다. 부뚜막 남쪽에서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 1개가 조사되었고, 남동모서리와 남서모서리에서 주혈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 구연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남-북 340cm, 동-서 430cm, 깊이 27cm이다.



도면 34. 삼국시대 주거지 4호

나. 유물

78. 발형토기(도면 35-78, 도판 20-78)

삼국시대 주거지 4호에서 출토된 발형토기이며 동체 2/3와 저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연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이 섞여 있는 점토이다. 기형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올라오고 동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다. 그 후 약간 내만하다 외반하는 구연부로 연결된다. 외면에서 선문의 타날구로 성형한 후 물손질하여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은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탄층흔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20.5cm, 복원구경 16.8cm, 복원저경 14.0cm, 기벽두께 0.6~0.9cm이다.

79. 호 저부(도면 35-79, 도판 20-79)

삼국시대 주거지 4호에서 출토된 호저부로 구연부와 동체부 1/3가량 결실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색, 내면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의 세석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잔존 기형은 편형한 바닥에서 완만하게 바라지며 올라가다 동중상위에서 동 최대경을 이룬후 내만하는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크기는 길이 11.0cm, 저경 7.8cm, 기벽두께 0.3~0.7cm이다.

80. 장란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5-80, 도판 20-80)

삼국시대 주거지 4호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구연부편으로 동상위까지 일부가 잔존한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잔존 기형은 완만하게 바라지며 올라가다 내만하면서 구연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구연은 바라졌으며, 구순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서 평행문타날구 성형흔이 관찰된다.

크기는 길이 20.3cm, 복원구경 25.0cm, 기벽두께 0.4~0.6cm이다.

81. 장란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6-81, 도판 20-81)

삼국시대 주거지 4호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구연부편이다. 색상은 내·외면 모두 황갈색이며, 태토는 석영 등이 섞여 있는 점토이다. 잔존 기형은 완만하게 바라지며 올라가다 내만하면서 구연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구연은 바라졌으며, 구순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서 평행문타날구 성형흔이 관찰되며, 내면에 그을음 흔적이 남아있다.

크기는 길이 18.6cm, 복원구경 22.0cm, 기벽두께 0.4~0.6cm이다.

82. 장란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6-82, 도판 20-82)

삼국시대 주거지 4호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구연부편으로 동상위까지 일부가 잔존한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토이다. 동체부에서 구연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경부까지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순은 반듯하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여 속심이 드러나 있으며,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에서 그을음 흔적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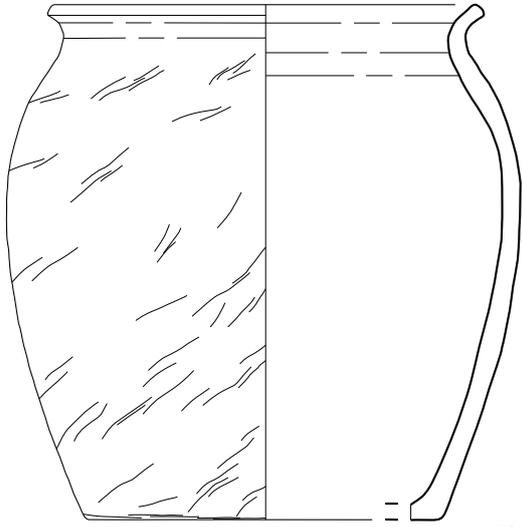
크기는 길이 24.8cm, 폭 22.7cm, 기벽두께 0.5~0.7cm이다.

83. 파수(도면 36-83, 도판 2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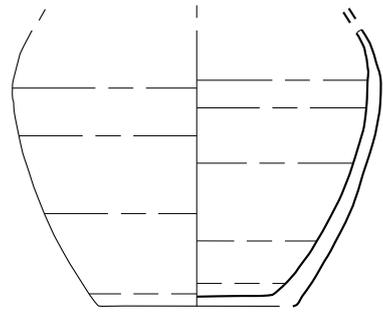
삼국시대 주거지 4호에서 출토된 파수다. 파수만 남아 있어 토기의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 등이 섞여 있는 점토를 사용하였다. 파수의 단면은 원형을 띠며, 상면의 가운데에 길이 2.2cm, 폭 0.3cm 크기의 홈을 만들었다. 파수는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크기는 길이 4.6cm, 두께 3.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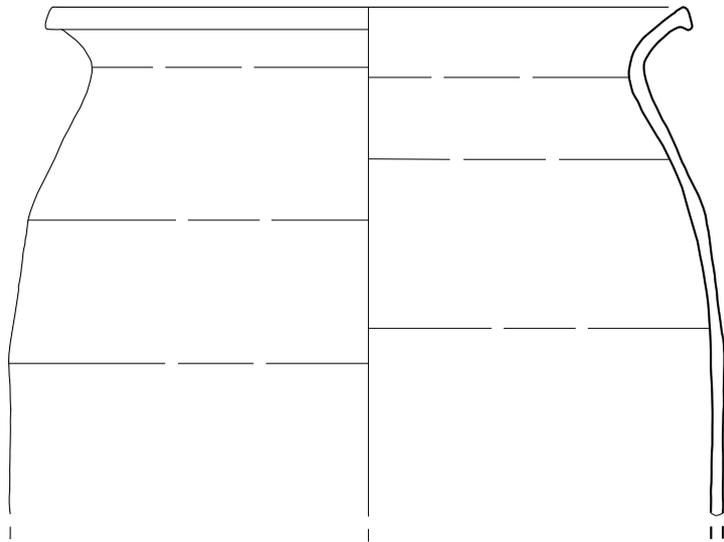
84. 파수부호 동체부편(도면 36-84, 도판 20-84)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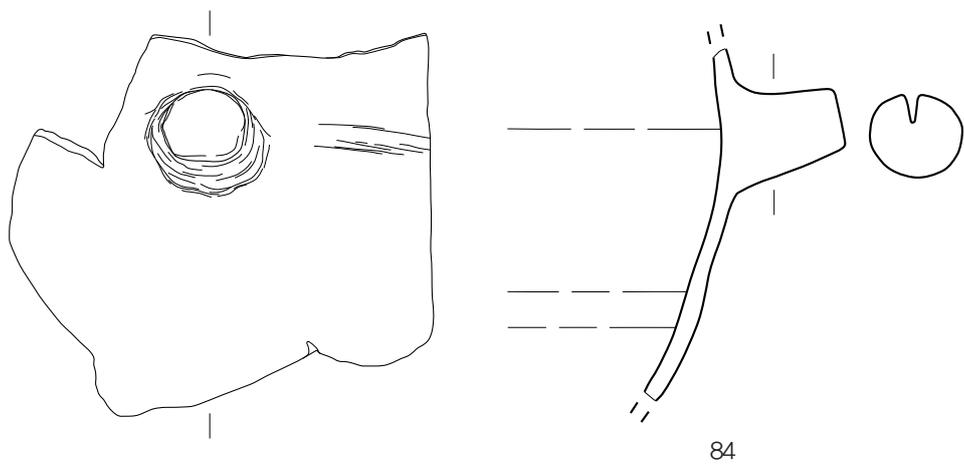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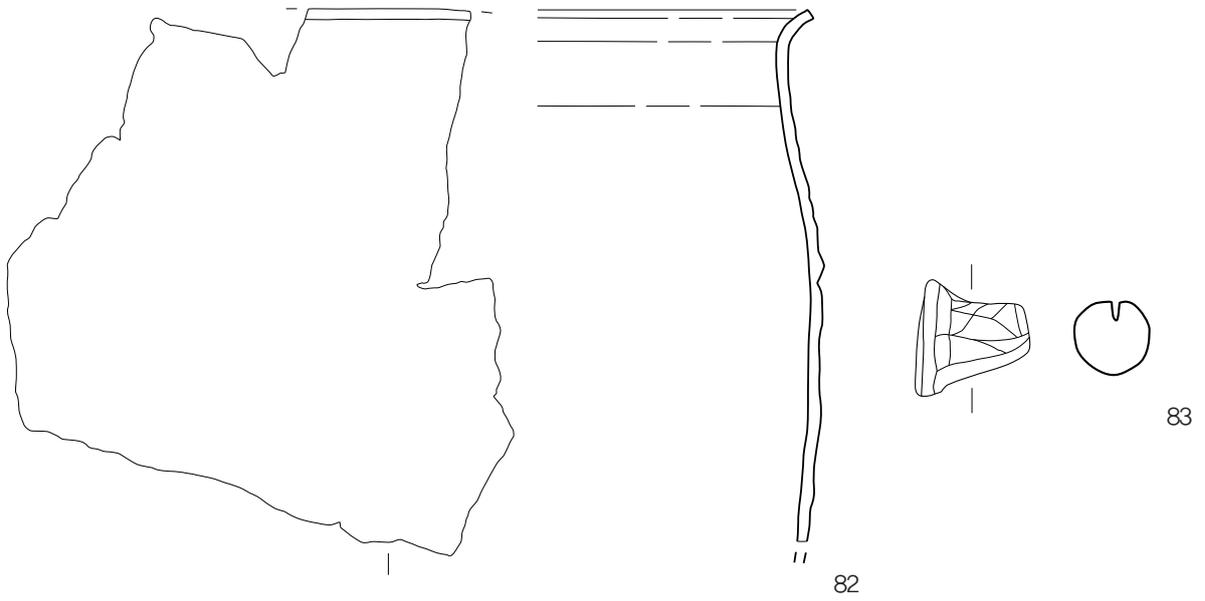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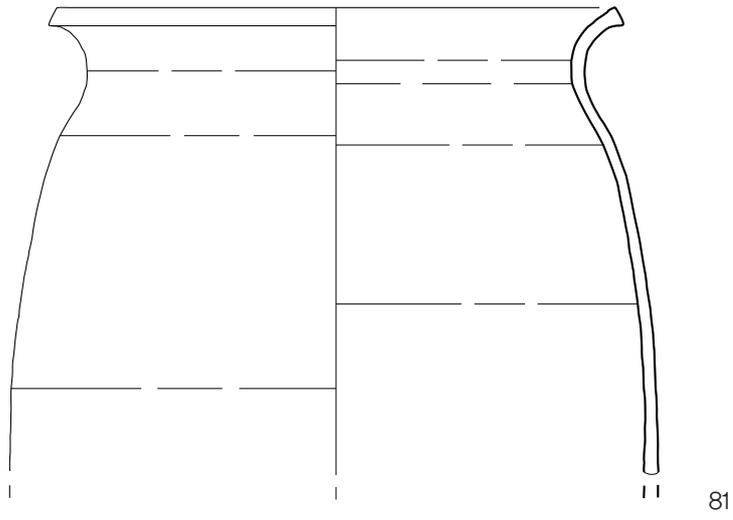
79



80



도면 35.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



도면 36.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

삼국시대 주거지 4호에서 출토된 파수부호 동체부편으로 일부만 잔존하여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이며, 태토는 석영, 운모가 포함된 점토이다. 토기의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여 속심이 드러난다. 동체부에는 파수를 부착하였는데 등 위에 홈이 있으며 끝 부분은 편평하다.

크기는 길이 14.0cm 폭 16.6cm, 기벽두께 0.6~0.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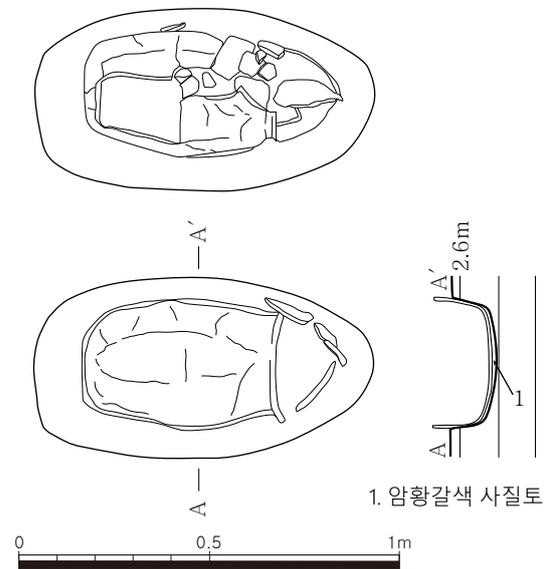
2) 옹관묘 및 저습지

(1) 옹관묘

가. 유구(도면 37, 도판 21-①·②)

삼국시대 옹관묘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 중앙부에 위치한다. 주거지 내부퇴적토인 흑갈색사질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토압에 의해 옹관 상면이 으스러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이며, 주축방향은 N-50°-E로 동서방향에 가깝다. 서쪽에 횡치한 장란형 토기 구연부를 타날문토기 호저부로 막음한 합구식 옹관이다. 옹관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크기는 장축 60cm, 단축 35cm이다.



도면 37. 삼국시대 옹관묘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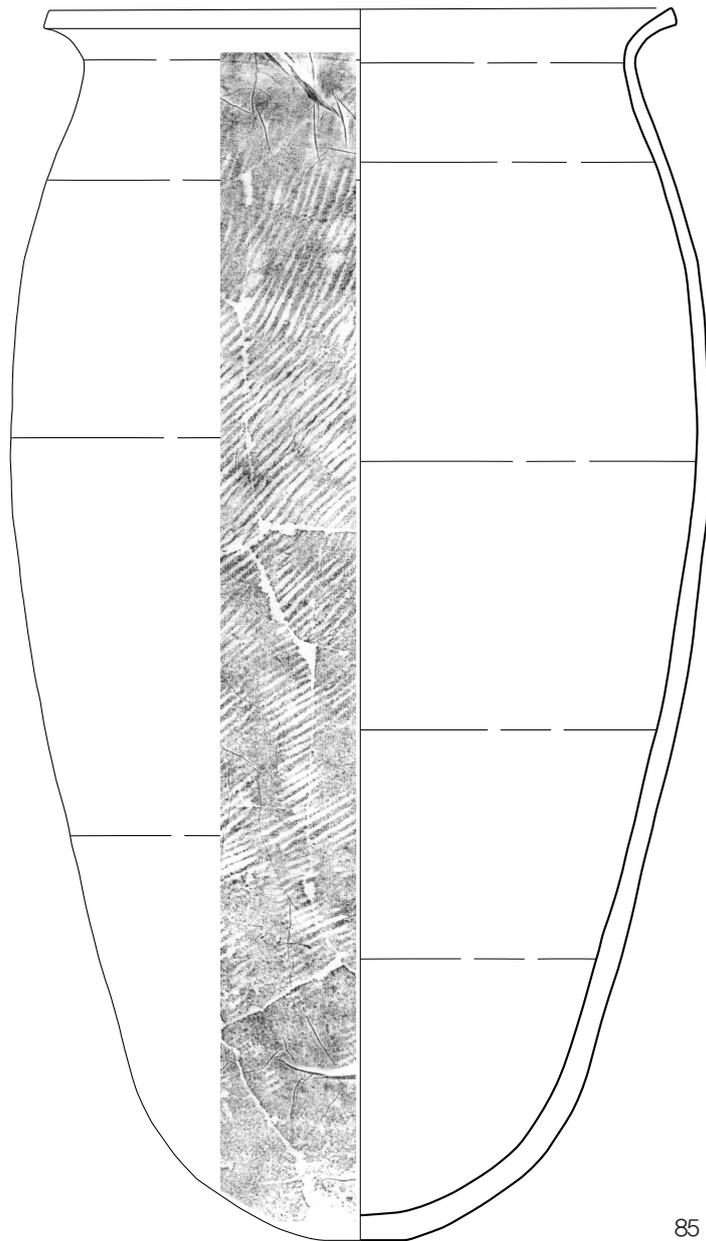
85. 장란형토기(도면 38-85, 도판 21-85)

삼국시대 옹관묘로 사용된 장란형토기로, 주용으로 이용되었다. 색조는 구연부는 적갈색이며 동체부는 황등색이며, 외면은 부분적으로 흑갈색의 흔적을 보인다. 태토는 석영 등 세사립이 일부 혼입된 점토이며, 연질소성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사방향의 평행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은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확인된다. 입술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약 0.1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누른 흔적이 있다. 최대경은 중상위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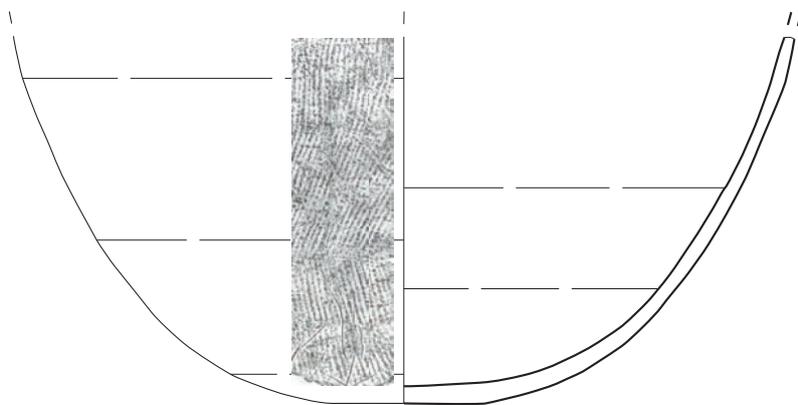
크기는 기고 49.0cm, 구경 25.2cm, 기벽두께 0.5~1.0cm이다.

86 호 저부편(도면 38-86, 도판 21-86)

삼국시대 옹관묘 막음용으로 사용된 호 저부편이며, 동체와 저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기형은 동체 하단 일부만 잔존한다. 구연부와 동체 상단부는 고의로 결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돈된 점토이며, 도질소성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승문이 타날되었으며 저부 바닥은 박리되어 정면 기법이



85



86



도면 38. 삼국시대 옹관묘 출토유물

확인되지 않는다. 내면은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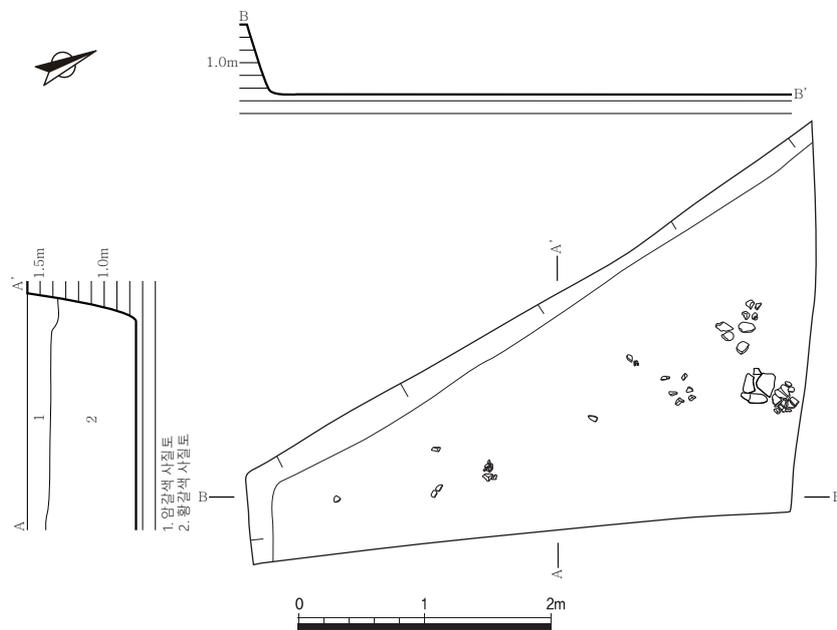
크기는 길이 14.6cm, 복원저경 6.0cm, 기벽두께 0.5~0.7cm이다.

(2) 저습지

가. 유구(도면 39, 도판 22)

조사지역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서 저습지가 확인되었다. 토층은 지표교란층 아래에 암갈색사질점토층-토탄층-회갈색사질점토층-백갈색모래층으로 이어진다. 조사지역 동남쪽 거의 경계에서 토탄층이 형성된 퇴적층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거의 연접한 초당동 372-3번지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저습지 유적의 서남쪽 경계로 파악된다. 유물은 저습지 형성 이전에 퇴적된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조사된 규모는 남-북 441cm, 동-서 327cm이다.



도면 39. 삼국시대 저습지

<문화층 및 지표교란층>

조사지역은 철거된 구 가옥으로 인해 현 지표 아래로 40~100cm 가량 교란되어 유구 일부까지도 훼손된 상태로 유구 및 문화층의 유물이 교란층에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문화층 및 교란층에서 수습된 유물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87. 즐문토기 구연부(도면 40-87, 도판 23-87)

저습지 아래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색조는 외면 갈색, 내면 적갈색이다. 태토는 석영 등이 섞여 있는 점토이다. 구연은 기벽을 밖으로 젖혀 이중으로 처리하였으며

입술은 동그랗다. 입술부에서 1.2cm아래에는 끝이 뾰족한 시문구를 이용하여 횡방향으로 불규칙하게 2열 시문하였다. 내면은 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을 확인 할 수 없다.

크기는 길이 4.9cm, 폭 7.8cm, 기벽두께 0.6~0.9cm이다.

88.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40-88, 도판 23-88)

지표교란층에서 수습한 즐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이며 태토는 석영등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토기의 입술 바로 아래 폭 0.3cm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삼각집선문을 시문한 것으로 관찰된다.

크기는 길이 8.9cm, 폭 6.3cm, 기벽두께 0.7~0.8cm이다.

89. 어망추(도면 41-89, 도판 2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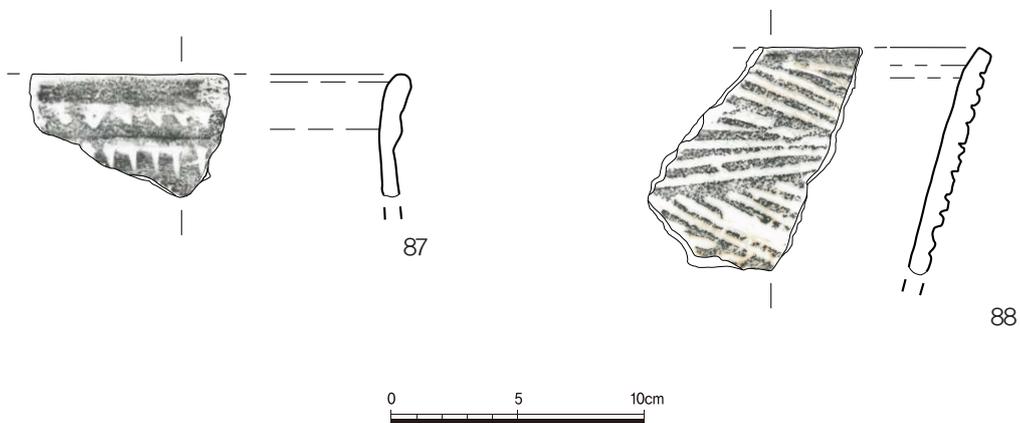
지표에서 수습된 어망추다. 평면 형태가 타원형인 납작한 자갈돌의 길이방향 양쪽 측면을 타격하여 떼어낸 후 결속부를 오목하게 다듬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7.1cm, 너비 4.9cm, 두께 1.0~1.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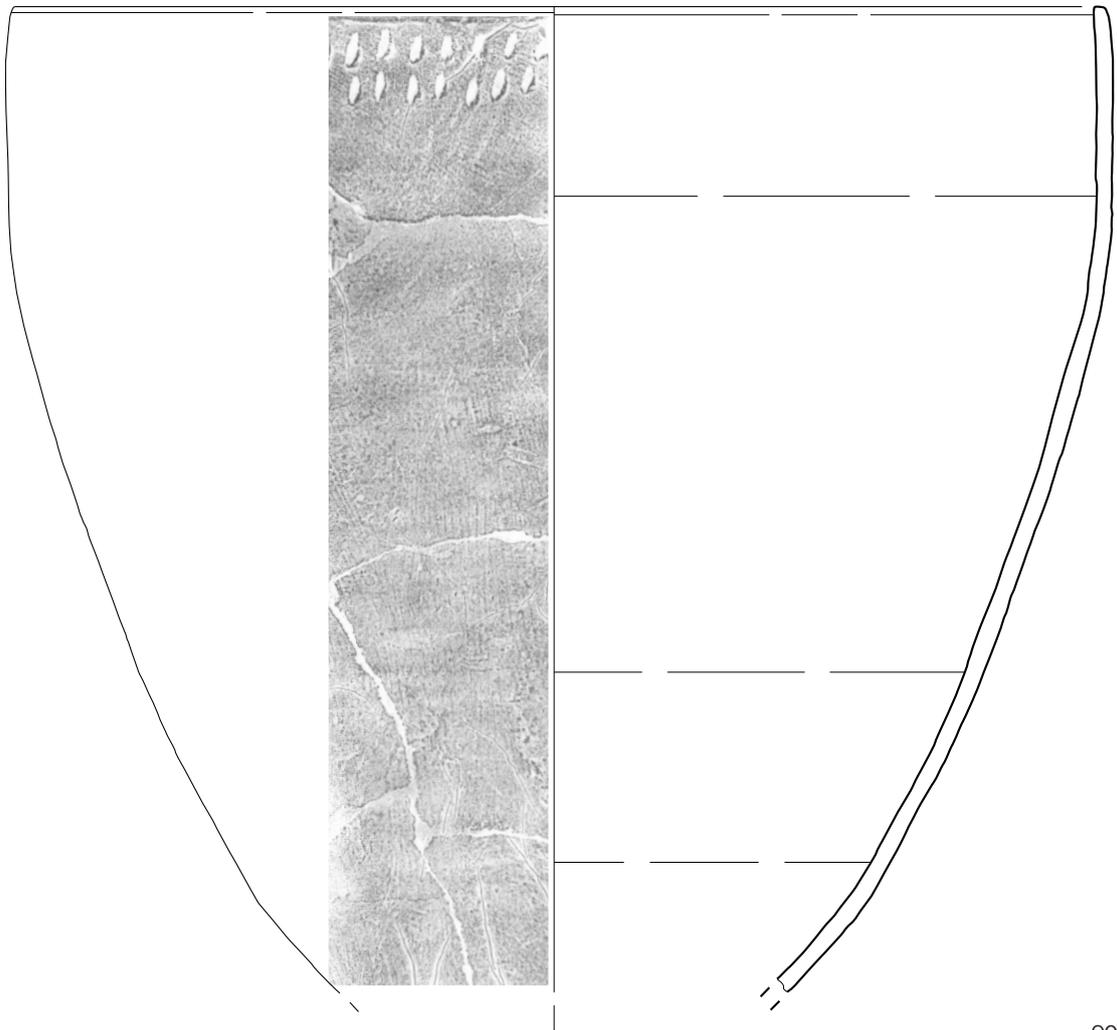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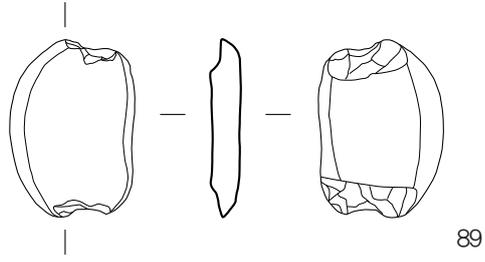
90. 즐문토기 구연부편(도면 41-90, 도판 23-90)

저습지 아래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첨저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와 동체 1/3가량이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연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영 등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연질소성이며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토기 구연부 0.7cm 아래에는 압날문이 2조 돌아가며, 반듯한 구연단에서 구순각목이 관찰된다. 토기 내·외면 모두 목판조정흔이 확인된다. 외면 일부에는 그을린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39.2cm, 복원구경 43.0cm, 기벽두께 0.6~0.7cm이다.



도면 40. 문화층 및 지표교란층 수습유물



도면 41. 문화층 및 지표교란층 수습유물

IV. 조사성과

본 조사는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94-3번지에 신축예정인 최형일씨의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며, 조사면적은 436m²이다.

초당동 일대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형성된 사구가 분포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지는 경포호 남쪽에 위치한 초당마을 북동단부에 위치해 있어 제1사구지대로 파악된다. 제1사구지대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주거유적, 삼국시대 분묘유적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지역 동쪽에 거의 연접한 372-3번지¹¹⁴⁾에서 삼국시대 문화층이 형성된 저습지 유적이 확인되었고, 북쪽으로 20m 가량 떨어진 초당동 394-1번지¹¹⁵⁾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가 조사되었으며, 서남쪽으로 60m 가량 떨어진 허균·허난설헌 자료관 건립부지유적¹¹⁶⁾에서도 신석기시대 주거지 등의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조사결과, 초당동 394-3번지에서 신석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2기와 할석유구 1기, 수혈유구 4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어골문, 단사선문 등의 문양이 시문된 즐문토기와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신라 주거지 4기, 옹관묘 1기, 저습지가 확인되었으며, 고배, 단경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도자 등의 금속 유물이 출토되었다.

강릉지역 대부분의 선사유적은 해안에 인접한 하천의 하구나 석호의 주변에 형성된 사구지대 및 낮은 구릉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구석기 및 청동기유적은 하천이나 호수주변의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신석기 및 철기시대 유적은 해안가 및 호수주변에 형성된 사구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신석기 유적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하천의 하구나 석호의 주변에 형성된 사구지대 외에 하천이나 석호주변의 구릉 상에 위치한다. 전자는 이른 시기 및 중기의 유적이며 후자는 신석기시대 말기에 해당된다.¹¹⁷⁾

금번에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구는 입지와 어골문, 단사선문 등의 문양과 시문 범위 등을 고려할때 신석기시대 중후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파악되며, 신라시대 유구는 완형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고배의 배신부의 기형과 대각, 대각도치형 꼭지 등으로 볼 때 5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적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구 및 유물은 현재까지 초당동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기존에 조사된 주변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조성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당동 일대에 분포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의 성격과 문화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아울러 삼국시대 신라 석곽묘 밀집 지역인 초당동에서 4기의 신라 주거지가 조사된 점이 주목되며, 남단부에서 확인된 저습지는 기초조사된 초당동 372-3번지 삼국시대 저습지 유적의 서남쪽 경계로 파악된다.

114)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강릉 초당동 372-3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江陵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11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草堂洞 遺蹟 Ⅲ』.

11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 草堂洞 新石器 遺蹟』.

117) 文化財研究所·강릉대학교박물관, 1991,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일대 전경, ②:조사후)



도판 2. 신석기시대 1호주거지(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후, ⑤유물출토상태)



도판 3.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1~8:출토유물)



도판 4.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9~16:출토유물2)



도판 5.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노지, ⑤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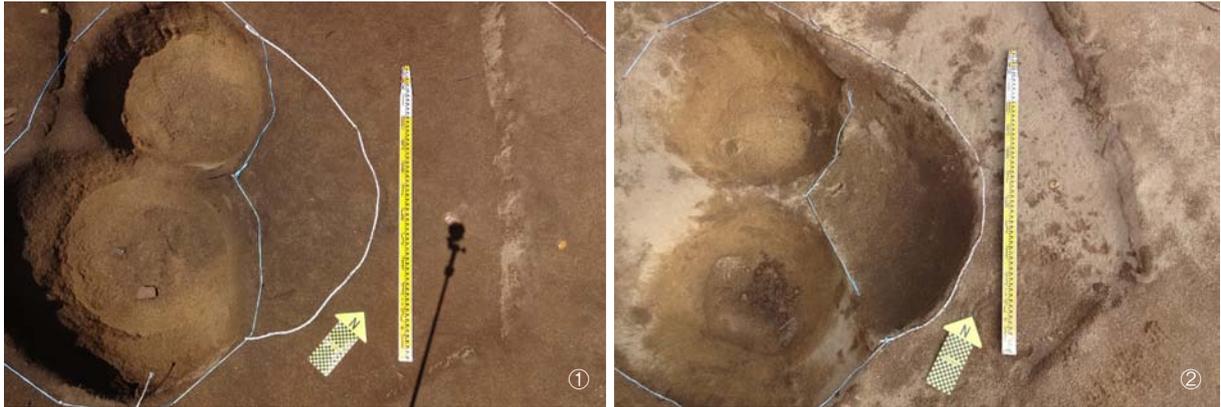
도판 6. 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17~25: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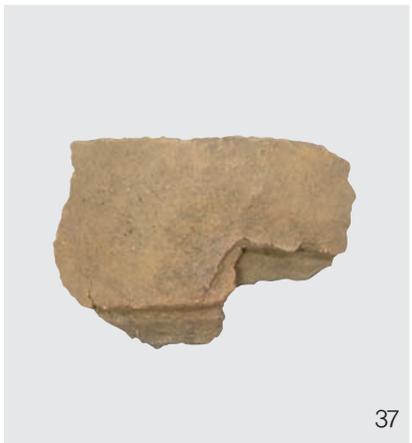
도판 7. 신석기시대 할석유구(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⑤·⑥토층, ⑦신석기시대 주거지 2호와 중복상태(후축), ⑧유물출토상태)



도판 8. 신석기시대 할석유구(26~34:출토유물1)



도판 9.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35·36:출토유물)



도판 10.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후, 37~38:출토유물),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3호(③조사전, ④조사후, 40·41:출토유물)



도판 11.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42~45:출토유물)



도판 12.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⑤·⑥구들, ⑦·⑧유물출토상태)



도판 13. 삼국시대 주거지 1호(46~57:출토유물)



도판 14.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조사중, ④토층, ⑤유물출토상태)



도판 15. 삼국시대 주거지 2호(58·59:출토유물1)



60



61



62



63



64



65



66

도판 16. 삼국시대 주거지 2호(60~66:출토유물2)



도판 17. 삼국시대 주거지 2호(67~71:출토유물3)



도판 18.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72~77:출토유물)



도판 19.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부뚜막, ⑤유물출토상태)



도판 20. 삼국시대 주거지 4호(78~84:출토유물)



85



86

도판 21. 삼국시대 응관묘(①조사전, ②조사후, 85·86:출토유물)



도판 22. 삼국시대 저습지(①조사중, ②토층)



도판 23. 문화층 및 지표교란층(87~90:출토유물), ①학술자문회의

부록

부록 1.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1. 시험 및 분석 기관

기 관 명	(주)카본에널리시스랩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4번길 25 (삼성동11)
전화번호	042-636-3273
시험기관 개요	<p>(주)CAL은 AMS를 이용해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을 수행함에 있어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시간(30분~45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긴 작업을 거치는 화학, 물리전처리(4일~5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임.</p> <p>국강고고학연구소에서 강릉 초당동 394-3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관하여 의뢰한 3건의 목탄시료는 물리전처리, 화학전처리, 흑연화 과정을 거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AMS측정을 의뢰하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연대보정 및 분석을 함.</p>

2. AMS시험 측정기관

기 관 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화번호	042-868-3392
시험기관 개요	<p>지질자원분석실은 현재 10여명 연구원이 수십 종의 첨단분석장비를 갖추고 매년 15,000여개 이상의 각종 지질 환경 및 소재 관련 시료들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광물감정 및 물성측정,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지원하고 있음.</p> <p>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을 이용하여 ^{12}C, ^{13}C, ^{14}C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함.</p>

2019. 0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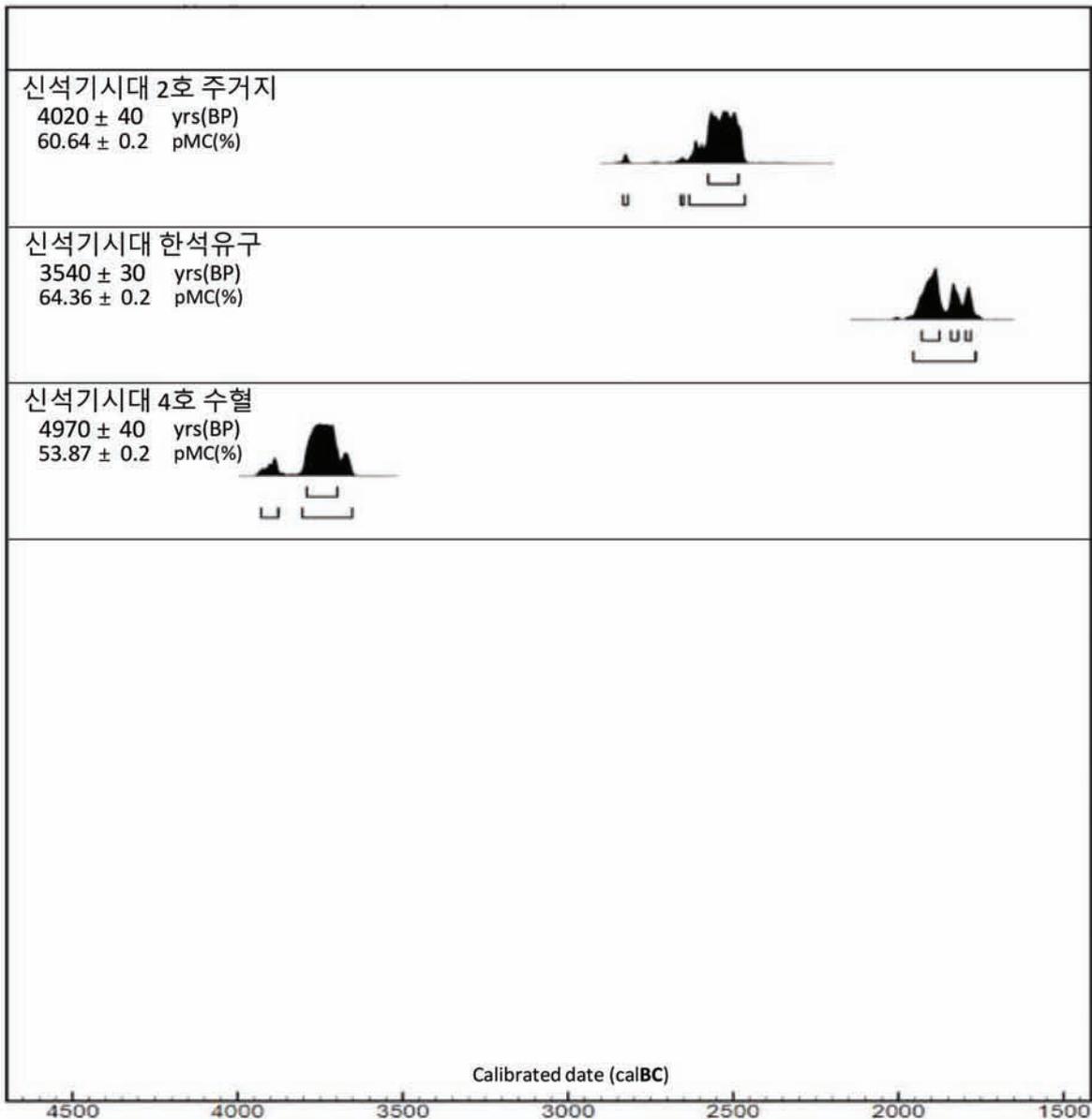
(주)카본에널리시스랩 대표이사 성 기 석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요약서

 의뢰인 국강고고학연구소
 Carbon Analysis Lab.

 보고일
 시료접수 완료일

 2019-09-02
 2019-08-01


Radio carbon dating service + FCF measurement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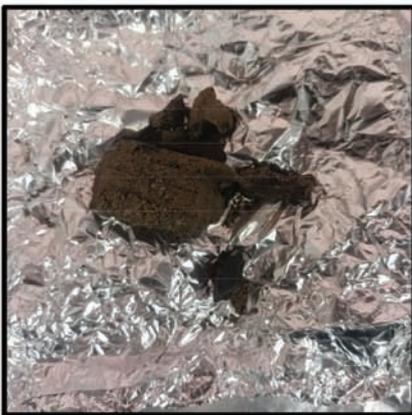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4번길 25 2층 www.cal.re.kr
 T 042 636 3273 F 042 637 3273 sungks3273@gmail.com

전처리과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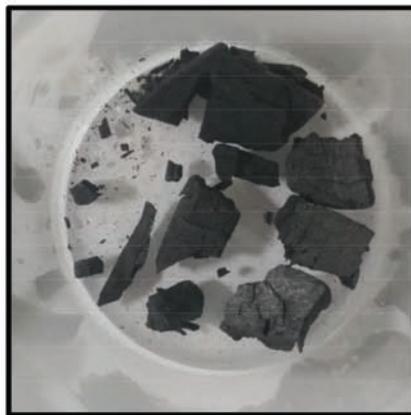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신석기시대 2호 주거지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염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8.27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48 torr
 환원실험 시간 : 170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15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7-1	49.48	0.22	-16.6	-509.31	406.6	2160
IAEA C8-1	14.82	0.11	-16.37	-853	430.5	2160
IAEA C7-2	49.73	0.22	-14.83	-506.83	386.2	2160
IAEA C8-3	15.26	0.12	-15.72	-848.68	381.6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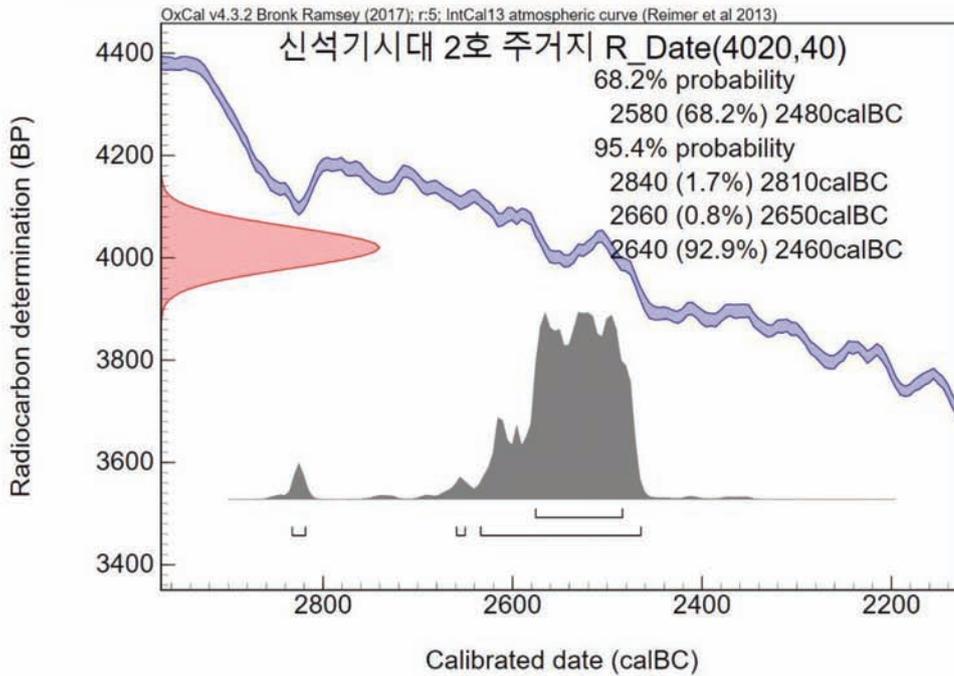
시 료 명 : 신석기시대 2호 주거지

의 료 일 : 2019-08-01

의 료 인 : 국강고고학연구소

보 고 일 : 2019-09-02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4020	40	3980 ~ 4060	60.64	0.26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5.98	1.41	-398.6	2.58	363.7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2840 ~ BC 2810(1.7%)

BC 2660 ~ BC 2650(0.8%)

BC 2640 ~ BC 2460(92.9%)

1 Sigma 보정 결과(68.2%)

BC 2580 ~ BC 2480(68.2%)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전처리과정 보고서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신석기시대 한석유구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염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46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47 torr
 환원실험 시간 : 170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15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7-1	49.48	0.22	-16.6	-509.31	406.6	2160
IAEA C8-1	14.82	0.11	-16.37	-853	430.5	2160
IAEA C7-2	49.73	0.22	-14.83	-506.83	386.2	2160
IAEA C8-3	15.26	0.12	-15.72	-848.68	381.6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료명 : 신석기시대 한석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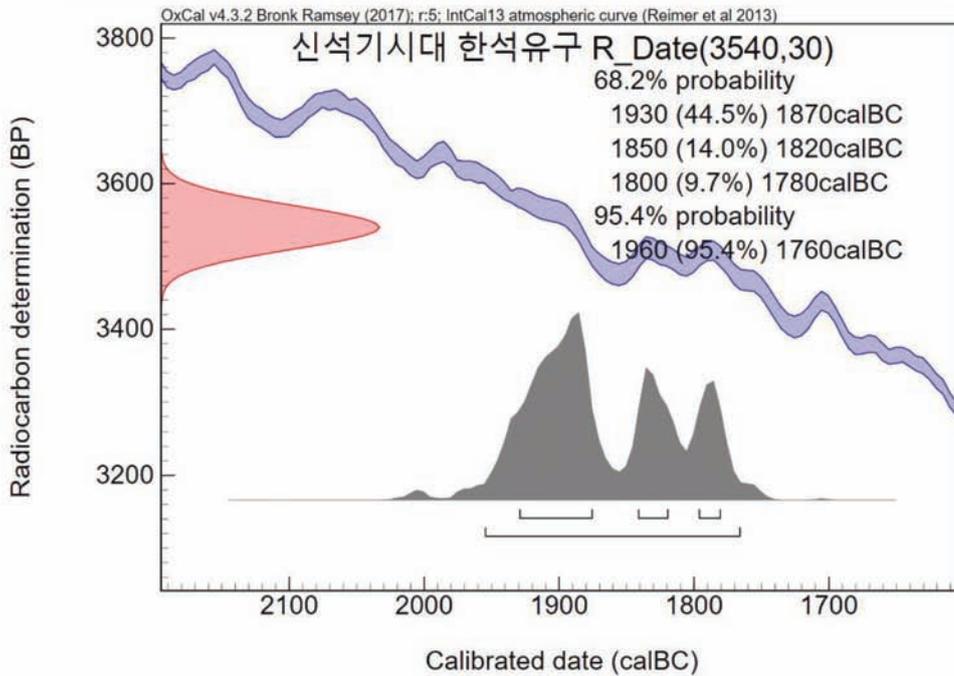
의뢰일 : 2019-08-01

의뢰인 : 국강고고학연구소

보고일 : 2019-09-02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3540	30	3510 ~ 3570	64.36	0.27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7.78	0.33	-361.75	2.72	348.3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1960 ~ BC 1760(95.4%)

1 Sigma 보정 결과(68.2%)

BC 1930 ~ BC 1870(44.5%)

BC 1850 ~ BC 1820(14.0%)

BC 1800 ~ BC 1780(9.7%)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 et. Al., 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 et.al, 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전처리과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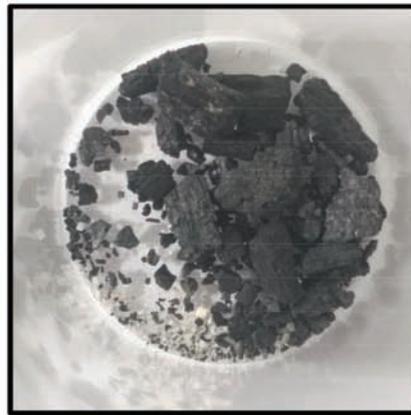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신석기시대 4호 수혈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염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8.44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54 torr
 환원실험 시간 : 170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19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7-1	49.48	0.22	-16.6	-509.31	406.6	2160
IAEA C8-1	14.82	0.11	-16.37	-853	430.5	2160
IAEA C7-2	49.73	0.22	-14.83	-506.83	386.2	2160
IAEA C8-3	15.26	0.12	-15.72	-848.68	381.6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료명 : 신석기시대 4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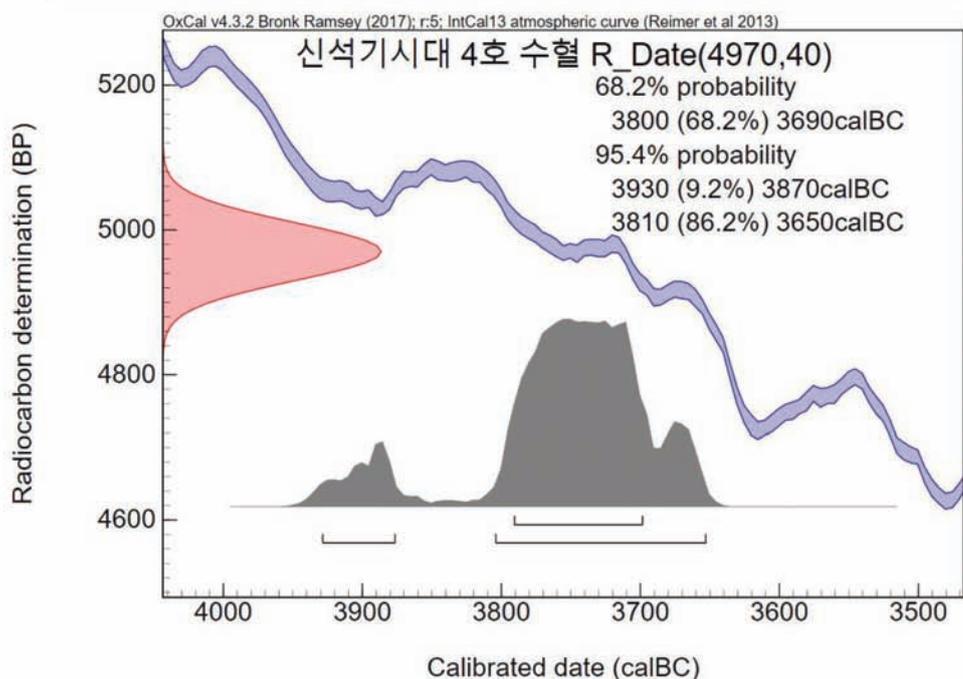
의뢰일 : 2019-08-01

의뢰인 : 국강고고학연구소

보고일 : 2019-09-02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4970	40	4930 ~ 5010	53.87	0.24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6.45	0.79	-465.77	2.37	376.8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3930 ~ BC 3870(9.2%)

BC 3810 ~ BC 3650(86.2%)

1 Sigma 보정 결과(68.2%)

BC 3800 ~ BC 3690(68.2%)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 et. Al., 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 et. al, 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강릉 초당동 394-3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허가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 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회의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622-0001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6.9	5.7	0.8	8-1 3-1	Y
2019-0622-0002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8.6	8.7	0.9	8-2 3-2	Y
2019-0622-0003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7.6	4.5	1	8-3 3-3	Y
2019-0622-0004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6.2	7.3	0.6	8-4 3-4	Y
2019-0622-0005	즐문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6.2	9.9	1	8-5 3-5	Y
2019-0622-0006	즐문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4	9.9	0.7	8-6 3-6	Y
2019-0622-0007	즐문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4.7	7.4	0.8	8-7 3-7	Y
2019-0622-0008	즐문토기 저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3.2	9.1	2	8-8 3-8	Y
2019-0622-0009	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21	19.8	-	9-9 4-9	Y
2019-0622-0010	소형토기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6.6	10	0.7	9-10 4-10	Y
2019-0622-0011	파수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7.2	5.6	-	9-11 4-11	Y
2019-0622-0012	파수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5.7	6.8	-	10-12 4-12	Y
2019-0622-0013	파수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신석기	4.2	4.7	-	10-13 4-13	Y
2019-0622-0014	어망추	1	주거지 1호	옥석유 리	신석기	6	5.2	1.1	10-14 4-14	Y
2019-0622-0015	어망추	1	주거지 1호	옥석유 리	신석기	5.2	4.8	1.4	10-15 4-15	Y
2019-0622-0016	석채	1	주거지 1호	옥석유 리	신석기	10.9	2.9	1.2	10-16 4-16	Y
2019-0622-0017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신석기	6.8	6.7	0.7	12-17 6-17	Y
2019-0622-0018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신석기	8	6.8	0.9	12-18 6-18	Y
2019-0622-0019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신석기	4.4	3.5	0.7	12-19 6-19	Y
2019-0622-0020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신석기	4.4	4.6	1	12-20 6-20	Y

유물번호 (허가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 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회의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622-0021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신석기	10.3	11.9	0.9	13-21 6-21	Y
2019-0622-0022	토기 저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신석기	9.7	-	-	13-22 6-22	Y
2019-0622-0023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신석기	5.7	25	-	13-23 6-23	Y
2019-0622-0024	어망추	1	주거지 2호	옥석 유리	신석기	7.8	6	2.5	13-24 6-24	Y
2019-0622-0025	어망추	1	주거지 2호	옥석 유리	신석기	7	4.6	1.4	13-25 6-25	Y
2019-0622-0026	즐문토기 구연부편	1	할석유구	토도류	신석기	6.9	31.4	-	15-26 8-26	Y
2019-0622-0027	즐문토기 구연부편	1	할석유구	토도류	신석기	5.8	8.5	0.8	15-27 8-27	Y
2019-0622-0028	즐문토기 구연부편	1	할석유구	토도류	신석기	4.2	5.7	0.6	15-28 8-28	Y
2019-0622-0029	즐문토기 구연부편	1	할석유구	토도류	신석기	6.4	8.6	0.9	15-29 8-29	Y
2019-0622-0030	토기 구연부편	1	할석유구	토도류	신석기	7.3	7	0.7	15-30 8-30	Y
2019-0622-0031	즐문토기 구연부편	1	할석유구	토도류	신석기	9.5	9.5	1.2	15-31 8-31	Y
2019-0622-0032	어망추	1	할석유구	옥석 유리	신석기	7.4	6.7	2.3	16-32 8-32	Y
2019-0622-0033	어망추	1	할석유구	옥석 유리	신석기	6.6	6.1	1.4	16-33 8-33	Y
2019-0622-0034	석재	1	할석유구	옥석 유리	신석기	2.5	1.3	1.2	16-34 8-34	Y
2019-0622-0035	즐문토기 동체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신석기	6.7	7.2	0.8	18-35 9-35	Y
2019-0622-0036	토기 동체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신석기	8.1	6.8	1.5	18-36 9-36	Y
2019-0622-0037	토기 동체부편	1	수혈유구 2호	토도류	신석기	8.6	9.8	1.4	20-37 10-37	Y
2019-0622-0038	어망추	1	수혈유구 2호	옥석 유리	신석기	5.1	4.9	1.7	20-38 10-38	Y
2019-0622-0039	갈돌편	1	수혈유구 2호	옥석 유리	신석기	9	4.4	4.8	20-39 10-39	Y
2019-0622-0040	즐문토기 동체부편	1	수혈유구 3호	토도류	신석기	6.1	8.2	0.6	22-40 10-40	Y

유물번호 (허가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 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회의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622-0041	토기 동체부편	1	수혈유구 3호	토도류	신석기	6.3	12.8	1.1	22-41 10-41	Y
2019-0622-0042	토기 구연부편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신석기	27.2	35.6	-	24-42 11-42	Y
2019-0622-0043	즐문토기 동체부편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신석기	5.6	4.5	0.7	24-43 11-43	Y
2019-0622-0044	즐문토기 동체부편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신석기	6.8	5.8	0.9	24-44 11-44	Y
2019-0622-0045	석재	1	수혈유구 5호	옥석 유리	신석기	9.7	2.1	0.6	24-45 11-45	Y
2019-0622-0046	고배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5.1	10.6	-	27-46 13-46	Y
2019-0622-0047	고배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5.3	11.9	-	27-47 13-47	Y
2019-0622-0048	고배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5.8	11.6	-	27-48 13-48	Y
2019-0622-0049	고배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6.2	14.9	-	27-49 13-49	Y
2019-0622-0050	고배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6.2	13.6	-	27-50 13-50	Y
2019-0622-0051	대각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4.2	5.9	0.5	27-51 13-51	Y
2019-0622-0052	대각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3.8	6.3	0.4	27-52 13-52	Y
2019-0622-0053	타날문토기 저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4.1	-	9	27-53 13-53	Y
2019-0622-0054	뚜껑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13	-	1.3	27-54 13-54	Y
2019-0622-0055	저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14.6	-	14	27-55 13-55	Y
2019-0622-0056	시루편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	-	7.4	27-56 13-56	Y
2019-0622-0057	파수	1	주거지 1호	토도류	삼국(신라)	6.7	-	3.2	27-57 13-57	Y
2019-0622-0058	단경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26.7	18.6	9	29-58 15-58	Y
2019-0622-0059	단경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31	21	10	29-59 15-59	Y
2019-0622-0060	단경호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10	18	-	30-60 16-60	Y

유물번호 (허가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 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회의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622-0061	발형토기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19.1	23.6	17	30-61 16-61	Y
2019-0622-0062	연질토기 배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8	10	6	30-62 16-62	Y
2019-0622-0063	연질토기 배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5.5	13	10	30-63 16-63	Y
2019-0622-0064	발형토기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21.8	17	-	30-64 16-64	Y
2019-0622-0065	완형토기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8.3	9.5	6.4	30-65 16-65	Y
2019-0622-0066	소호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8.3	-	5.6	30-66 16-66	Y
2019-0622-0067	시루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22.9	-	9	31-67 17-67	Y
2019-0622-0068	방추차	1	주거지 2호	토도류	삼국(신라)	4.3	-	2.4	31-68 17-68	Y
2019-0622-0069	철도자	1	주거지 2호	금속류	삼국(신라)	13.1	1.9	0.3	31-69 17-69	Y
2019-0622-0070	철도자	1	주거지 2호	금속류	삼국(신라)	6.3	0.8	0.4	31-70 17-70	Y
2019-0622-0071	철검	1	주거지 2호	금속류	삼국(신라)	18.5	2.1	0.3	31-71 17-71	Y
2019-0622-0072	호 동체부편	1	주거지 3호	토도류	삼국(신라)	17.7	-	-	33-72 18-72	Y
2019-0622-0073	파수부완 구연부편	1	주거지 3호	토도류	삼국(신라)	6.2	10.3	0.5	33-73 18-73	Y
2019-0622-0074	뚜껍 꼭지	1	주거지 3호	토도류	삼국(신라)	2	-	-	33-74 18-74	Y
2019-0622-0075	저부편	1	주거지 3호	토도류	삼국(신라)	2.8	-	-	33-75 18-75	Y
2019-0622-0076	주구	1	주거지 3호	토도류	삼국(신라)	7.2	1.3	-	33-76 18-76	Y
2019-0622-0077	철촉	1	주거지 3호	금속류	삼국(신라)	11.1	1.9	0.2	33-77 18-77	Y
2019-0622-0078	발형토기	1	주거지 4호	토도류	삼국(신라)	20.5	16.8	14	35-78 20-78	Y
2019-0622-0079	호 저부	1	주거지 4호	토도류	삼국(신라)	11	-	7.8	35-79 20-79	Y
2019-0622-0080	장란형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류	삼국(신라)	20.3	25	-	35-80 20-80	Y

유물번호 (허가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 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회의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622-0081	장란형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류	삼국(신라)	18.6	22	-	35-81 20-81	Y
2019-0622-0082	장란형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류	삼국(신라)	24.8	-	-	35-82 20-82	Y
2019-0622-0083	파수	1	주거지 4호	토도류	삼국(신라)	4.6	-	3	36-83 20-83	Y
2019-0622-0084	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류	삼국(신라)	14	16.6	0.7	36-84 20-84	Y
2019-0622-0085	장란형토기	1	옹관묘	토도류	삼국(신라)	49	25	-	38-85 21-85	Y
2019-0622-0086	호 저부편	1	옹관묘	토도류	삼국(신라)	14.6	-	6	38-86 21-86	Y
2019-0622-0087	즐문토기 구연부편	1	문화층	토도류	신석기	4.9	7.8	0.9	40-87 23-87	Y
2019-0622-0088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지표교란층	토도류	신석기	8.9	6.3	0.8	40-88 23-88	Y
2019-0622-0089	어망추	1	지표	옥석 유리	신석기	7.1	4.9	1.2	41-89 23-89	Y
2019-0622-0090	즐문토기 구연부편	1	지표교란층	토도류	신석기	39.2	43	-	41-90 23-90	Y

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강릉 초당동 394-3번지 유적		發行日	2021년 6월 4일	
發行機關	名稱	(재)국강고고학연구소			
	住所	(200-950)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249			
	TEL	(033) 263-9500	FAX	(033) 263-9565	
執筆·編輯者	차재동, 최영석, 강기원, 신근화, 이관중				
調査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차재동, 최영석, 강기원, 신근화, 이관중				
遺蹟住所地番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94-3번지				
調査面積	436m ²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신석기	2	즐문토기, 어망추		
할석유구		1			
수혈유구		4			
주거지	삼국	4	고배편,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철검		
옹관묘		1			
저습지		1			

88.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일러두기 〉

본 보고서는 김미령씨 의뢰로 진행된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 유적』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문화재청 허가번호 제2019-0631호)의 결과보고서이다.

가. 도면편집

1. 본문의 도면 중 「지질도」 등 도면 1~5는 도북을 기준으로 방위를 표시하였고 「유구배치도」 등 유구 도면은 자북을 기준으로 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자북은 도북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6 틀어져 있다.
2. 유구의 토층도 및 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3. 도면의 축소비는 유구의 경우 수혈유구 1/40으로 하였다. 유구의 도면 중 축척비율이 예외인 경우에는 개별 편집도면의 하단부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4. 유구 내부의 토기는  로 표기하였다.
5. 유구 토층의 색조는 日本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技術會議, 2008, 『新版標準土色帖』의 색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나. 유구

1.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 유적』에서 확인되는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다음과 같이 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하였다.
-원형과 타원형 : 장축과 단축의 비율이 1.1:1 미만은 원형, 초과는 타원형
2. 유구의 규모는 추정치 기술을 지양하고 현재 잔존 규모로 기술하였다.

다. 부록

- 유구의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목탄에 관한 AMS(연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물은 보고서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목 차

I. 조사개요	88-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88-9
1. 자연·지리적 환경	88-9
2. 고고학적 배경	88-10
3. 역사적 배경	88-21
III. 조사내용	88-26
1. 조사방법	88-26
2. 층위	88-27
3. 유구	88-28
IV. 조사성과	88-42
부록	
1. AMS(연대)분석	88-61
2.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88-69
3.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 유적 출토유물 목록	88-70
4. 발굴조사보고서 초록	88-71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88-12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88-13
도면 3.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도(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참조)	88-14
도면 4.	조사대상지 일대 지질도	88-15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상의 위치도(출처: 네이버 지적도 참조)	88-16
도면 6.	조사대상지 전체 유구배치도	88-30
도면 7.	1호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8-31
도면 8.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8-33
도면 9.	4호 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8-34
도면 10.	6호 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8-36
도면 11.	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8-37
도면 12.	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8-38
도면 13.	10호 1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8-39
도면 14.	12호 1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8-41

삽도목차

삽도 1.	「탐라도」에 나타난 소흘촌(所屹村)·소흘개[所屹浦]·원당촌(元堂村)· 원당봉수[元堂望]	88-22
삽도 2.	1872년에 제작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소흘리(所屹里)·원당봉(元堂烽)·소흘개[所屹浦]	88-23
삽도 3.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원당봉(元堂峯)· 삼양마을(三陽里)·삼양개[三陽浦]	88-24
삽도 4.	조사대상지 북편 층위 단면도	88-27
삽도 5.	조사대상지 남편 층위 단면도	88-27
삽도 6.	조사대상지 서편 층위 단면도	88-28
삽도 7.	조사대상지 공중사진상의 전체 유구배치도	88-29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공중사진(①~②:공중사진)	88-47
도판 2.	1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남동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③: 토층단면(남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2호 수혈유구(⑤:조사전 전경(북동에서))	88-48
도판 3.	2호 수혈유구(①:1차 조사 후 전경(남에서), ②:토층단면(북에서), ③:조사완료 후 전경(남동에서), 3호 수혈유구(④:조사전 전경(동에서), ⑤:1차 조사 후 전경(남에서))	88-49
도판 4.	3호 수혈유구(①~④:출토유물, ⑤: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88-50
도판 5.	3호 수혈유구(①:벽체세부 전경(남동에서), 4호 수혈유구(②:조사전 전경(남동에서), ③:1차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④: 토층단면(남동에서), ⑤:출토유물))	88-51
도판 6.	4호 수혈유구(①:조사완료 후 전경(남동에서), 5호 수혈유구(②:조사전 전경(북동에서))	88-52
도판 7.	5호 수혈유구(①:1차 조사 후 전경(남서에서), ②:토층단면(북서에서), ③:조사완료 후 전경(남동에서), ④:벽체세부 전경(남서에서), ⑤:벽체세부 전경(서에서))	88-53
도판 8.	6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남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북동에서), ③:토층단면(남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⑤:조사완료 후 전경(북동에서))	88-54
도판 9.	7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북서에서), ③:토층단면(북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북동에서), 8호 수혈유구(⑤:조사전 전경(북서에서), ⑥:1차 조사 후 전경(서에서), ⑦:토층단면(남동에서), ⑧:조사완료 후 전경(북서에서))	88-55
도판 10.	9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서에서), ③:토층 단면(남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서에서), 10호 수혈유구(⑤:조사전 전경(남동에서), ⑥:1차 조사 후 전경(북동에서), ⑦:토층단면(북서에서), ⑧:조사완료 후 전경(북서에서))	88-56
도판 11.	11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북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북동에서), ③:토층단면(북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12호 수혈유구(⑤:조사전 전경(서에서), ⑥:1차 조사 후 전경(북서에서), ⑦:토층단면(남동에서), ⑧: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88-57
도판 12.	13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남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남서에서), ③:토층단면(남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북서에서), ⑤:학술자문회의 모습))	88-58

I. 조사개요

본 보고서는 2019년 6월 진행된 제주시 삼양동유적(삼양1동 1543-13번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이다. 유적은 김미령 씨가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 339.6㎡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확인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지는 삼양동유물산포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신축 이전에 문화재 입회조사가 실시(2019년 4월 16일)되었다. 조사결과 트렌치 내에서 다수의 수혈유구와 고려 및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도자기 등이 확인되어 당시 생활유적의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조사대상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제주시 문화예술과-13660(2019.04.25.)] 하였다. 김미령 씨는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을 하였으며 재단에서는 우리 연구원에 조사대상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대행을 의뢰[조사기획팀-1776(2019.05.09.)] 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의 발굴조사허가[발굴제도과-5997(허가제-2019-0631호, 2019.05.29.)]를 득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실작업일수 10일간 진행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현대에 이루어진 교란 및 삭평, 매립으로 인해 다수의 유구가 파괴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조사결과 조선시대 후기 및 근세에 해당하는 수혈유구 13기와 다수의 주혈유구가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가 완료되는 2019년 6월 17일 제주고고학연구소의 강창화소장과 국립제주박물관의 김현희 학예연구실장을 모시고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수혈유구의 경우 내부토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종류로 보아 조선후기 및 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철저한 기록보존을 주문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¹⁾.

- 조사단장 : 고재월(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자문위원 :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김현희(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 조사원 : 방문배(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지원실장)
- 준조사원 : 현승룡(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
- 보조원 : 이성건(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동유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는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중심으로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유구 원고는 유구내부 조사를 전담했던 연구원이 1차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경주가

1) 기재된 소속과 직책은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체제를 통일한 후 최종원고를 완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발간과 관련하여 각각의 업무분담과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편집기획 및 총괄 : 고재원, 김경주
- 현 장 유 구 실 측 : 현승룡
- 유물 정리·복원 및 실측 : 이성건
- 유구 및 유물 일러스트 : 이성건, 이정하(前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원고작성
 - I. 머리말 : 방문배, 현승룡
 -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 자연·지리적 환경 : 방문배
 - 2. 고고학적 환경 : 방문배
 - 3. 삼양1동의 마을형성과 그 연혁 : 강창룡(제주문화유산연구원)
 - III. 조사방법 및 층위
 - 1. 조사방법 : 방문배, 현승룡, 이성건
 - 2. 층위 : 방문배, 현승룡, 이성건
 - IV. 조사내용
 - 1. 유구 : 방문배, 현승룡, 이성건
 - 2. 유물
 - V. 조사성과 : 방문배
- 교열 및 교정 : 김경주, 방문배, 현승룡

제주 삼양동유적(1543-13번지)이 자리한 지역은 삼양동의 북동편에 치우친 곳으로 중앙에 자리한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보다는 역사시대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속하는 도자기 및 도기편이 집중적으로 산포한 유물산포지 내에 해당한다.

금번 조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및 근세에 조성된 수혈유구 13기와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원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깊은 유구에는 내부와의 출입이 용이한 둔덕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농작물의 보관과 관련된 시설물의 일종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제주 삼양동유적(1543-13번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학술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많은 자문과 함께 학문적 지도를 해주신 강창화 소장님과 김현희 학예연구실장님의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조사과정 중에 여러 도움을 주셨던 사업시행자이신 김미령 씨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사단과 실내작업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X:161937 Y:104039~X:161944 Y:104048~X:161963 Y:104029~X:161953 Y:104021²⁾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해발고도는 7.5m 내외이며 해안으로부터 약 280m가량 떨어져 있다. 지형은 조사대상지의 동편에 위치한 원당봉의 영향으로 서편 해안변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경사면 하단에 자리하고 있다.

조사대상지가 속해 있는 삼양1동은 제주도의 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조천읍 신촌리, 서쪽으로 삼양2동, 남쪽으로 도련동, 북쪽으로 해안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동편에 인접하여 음나물내가 남에서 북으로 흘러 해안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봉개동 개월오름(해발 743m) 주변에서 발원한 삼수천(동냉이천) 또한 9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남북방향으로 흘러 바다로 이어지고 있다.

삼양동 일대의 지질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파호이호이용암류에서부터 아아용암류의 암반조건대와 해안단애 및 검은모래 해수욕장 등 다양한 해안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섬과 신촌리 일대에는 파호이호이용암류의 빌레해안이 펼쳐져 있으며 삼양동 일대에는 아아용암류가 분포한다. 이 용암류의 상부를 원당봉 용암이 덮고 있는 양상이다. 원당봉 용암은 해안선에서 해안단애를 형성하고 있다. 삼양동의 해안을 따라서는 검은모래의 해변과 사구가 발달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의 북편에 위치한 원당봉(해발 171m) 용암은 닭머루에서 삼양화력발전소까지 해안선을 따라 약 1.5km에 걸쳐 해안단애를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원당봉은 분석구로서 북쪽의 바다를 향하여 분화구가 터진 말굽형 기생화산에 해당한다. 원당봉 북쪽의 화구 앞에는 앞오름 등 3개의 작은 화산체가 분포하고 있다. 원당봉 주변의 경작지는 붉은색의 스킨리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산탄들이 쉽게 관찰된다. 삼양동의 해안선에는 붉은색의 클링커층과 수직으로 서 있는 암맥들이 노출된 아아용암류의 암반 조건대가 관찰된다.

조사대상지의 토양은 오라통에 속한다. 오라통은 미사식양질 하부에 식양질계인 화산회토로서 표토가 자갈이 있는 암회갈색인 미사질양토이고, 심토는 자갈이 있는 암갈색의 미사질식양토이며 기층은 암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이다. 토심은 100~150cm 범위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2m 이상이다. 토양반응은 매우 강한 산성 내지 강한 산성이며, 염기포화도는 50% 이상이다. 토양의 배수는 양호하고 투수성은 약간 느리며 유거는 보통이다. 대부분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분은 초지이다.

삼양동에는 해안선을 따라 16개소의 용천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음나물내와 삼수천이 동쪽과 서쪽

2) GRS80 기준 TM좌표로 X=위도, Y=경도이다.

양단에 자리하고 있고 양질의 미사질양토가 퇴적되어 있어 취락의 형성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고고학적 배경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삼양동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70년대 지석묘 3기가 보고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여³⁾ 1986년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취락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당시 조사내용을 보면 유적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수습된 토기는 철기시대 광지리식 무문토기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유구석부편과 함인석부편 등이 동반 수습되었다⁴⁾. 1990년대 후반 삼양동 일대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로 이 일대에 대규모 취락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삼양유원지와 삼화택지구 개발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신석기시대~철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⁵⁾. 이외에도 삼양동에는 고려시대 사찰인 원당사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굴조사결과 출토유물로 미루어 볼 때 13세기 이전에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삼양동의 단일구역 내에서만도 다양한 유적이 형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 유적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임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삼양동유적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이후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삼양동유적을 위시하여 서쪽으로 용담동유적군과 함께 외도·광령·하귀리유적군 등 대규모 취락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되고 있어 동시기 제주지역의 취락분포정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이와 맞물려 다수의 고인돌이 각각의 취락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깊은 관련성을 시사한다.

1) 신석기시대

제주도의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는 크게 해안 평탄대지와 내륙 중산간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3) 金元龍, 1976, 「濟州島の 先史文化와 住民」, 『耽羅』10.

宋錫範, 1979, 「濟州島の支石墓」의 『考古學』161.

4) 이청규, 1986, 『濟州島遺蹟』, 濟州大學敎博物館.

5) 제주문화예술회관, 2006,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東洋文物研究院, 2009, 『제주 삼화택지개발지구 가-Ⅱ-1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나지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국립제주박물관, 2008,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가-1구역)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화지구 가-Ⅱ(1차)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6) 제주문화예술회관, 2007, 『元堂寺址-불탑사(옛 원당사지)5층 석탑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해안 평탄지대는 해발 100m 내외의 비교적 평탄한 곳으로 신석기시대 유적은 해발 30~50m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입지적으로 음용수의 획득과 바다자원에 대한 활용이 용이하고 양질의 점토가 퇴적되어 있어 신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선호되었던 곳이다. 내륙 중산간지역은 해발 150~400m 정도에 해당되며 주로 하천을 끼고 형성된 평탄한 대지에 유적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해발고도에 따른 식생의 변화로 인해 넓은 초지 및 임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서쪽으로 이호동, 용담동유적과 함께 동쪽으로 삼양동, 북촌리, 김녕리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북촌리유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고산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의 유적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양동 일대에서 지금까지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삼양동유적⁷⁾, 삼양유원지내유적⁸⁾, 삼화지구내유적(가-Ⅱ-1)⁹⁾이 있다. 이들 유적은 가까운 거리에 하천과 해안이 위치해 있고 양질의 점토가 퇴적되어 있어 유적이 형성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삼양동유적에서는 수혈유구를 비롯하여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석기로는 타제석촉이 출토되었다. 삼양유원지내 유적에서는 원형적석유구와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고산리식토기단계, 초기의 용기문토기단계, 전기의 압인문토기단계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삼화지구내 유적에서는 토기류로 고산리식토기를 비롯하여 점열문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석기류는 줍돌날몸돌을 비롯하여 박편 및 석촉이 확인되고 있다. 삼양초등학교 개축부지내 유적에서는 수혈유구와 소성유구를 비롯하여 문화층 내에서 용기문토기와 세석핵, 고석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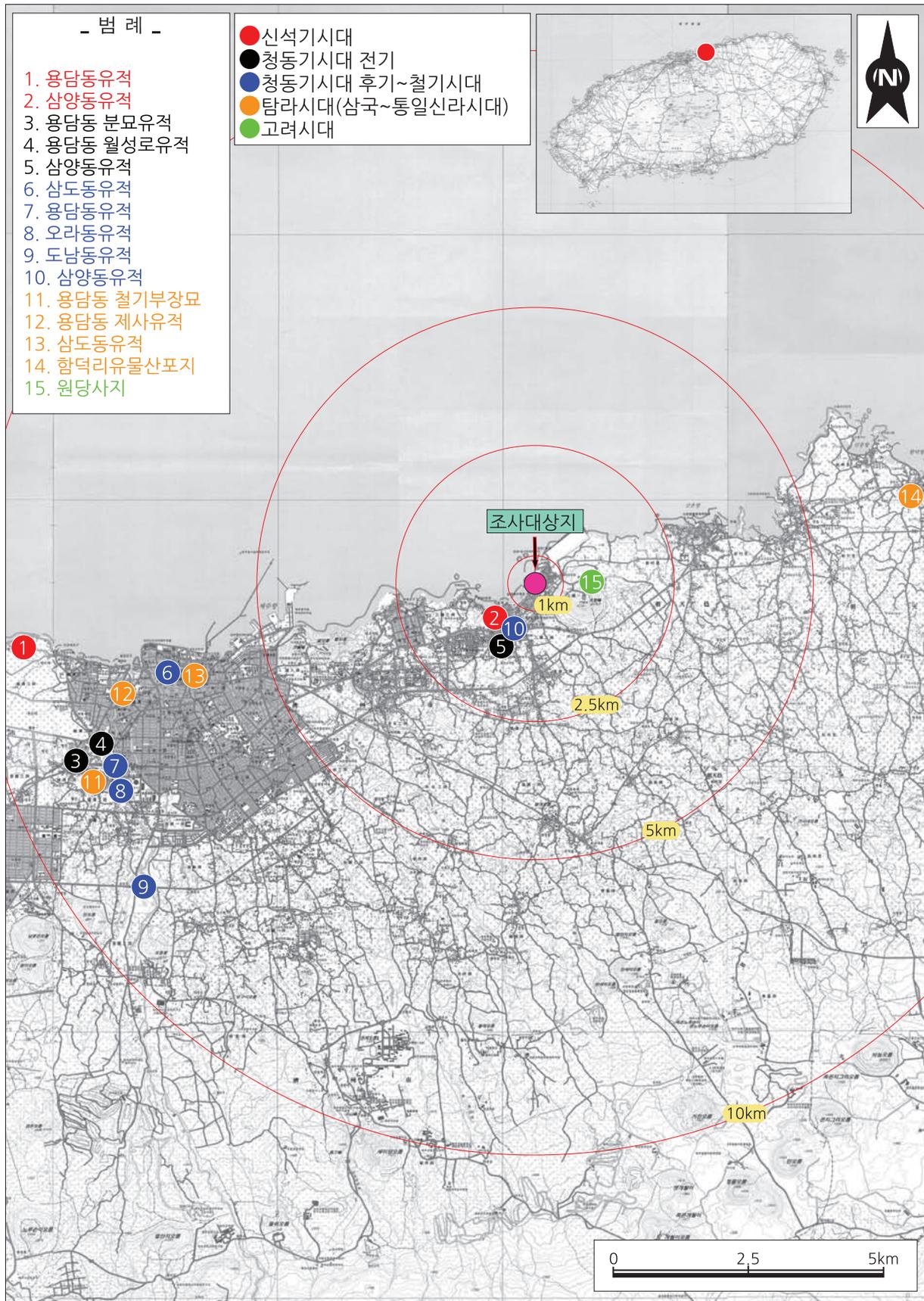
· 신석기시대 주변유적현황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이호동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삼각점열문토기, 파수부토기	
용담동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이중구연토기	
삼양동유적	생활유적	수혈유구,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무문양토기, 타제석촉	사적 제416호
삼양동유적	생활유적	원형적석유구, 수혈유구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박편 등	삼양유원지
삼양동유적	생활유적	유물포함층	고산리식토기, 점열문토기, 타제석촉	삼화지구가-Ⅱ-1
삼양동유적	생활유적	수혈유구, 소성유구, 문화층	용기문토기, 세석핵, 고석	삼양초등학교
북촌리유적	생활유적	바위그늘	점열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김녕리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점열문토기, 타제석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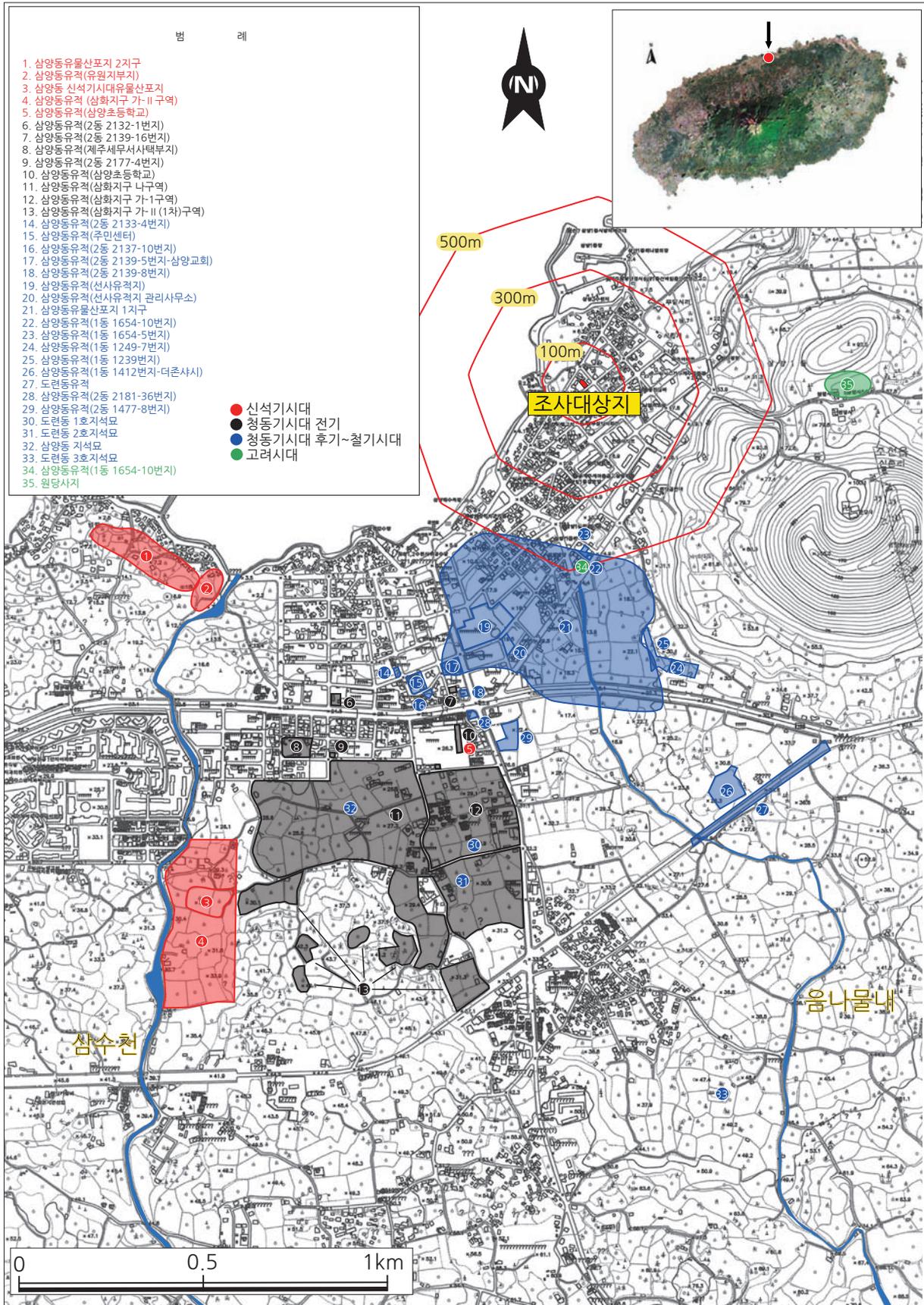
7)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三陽洞遺蹟-Ⅰ·Ⅴ地區』.

8) 제주문화예술회관, 2006,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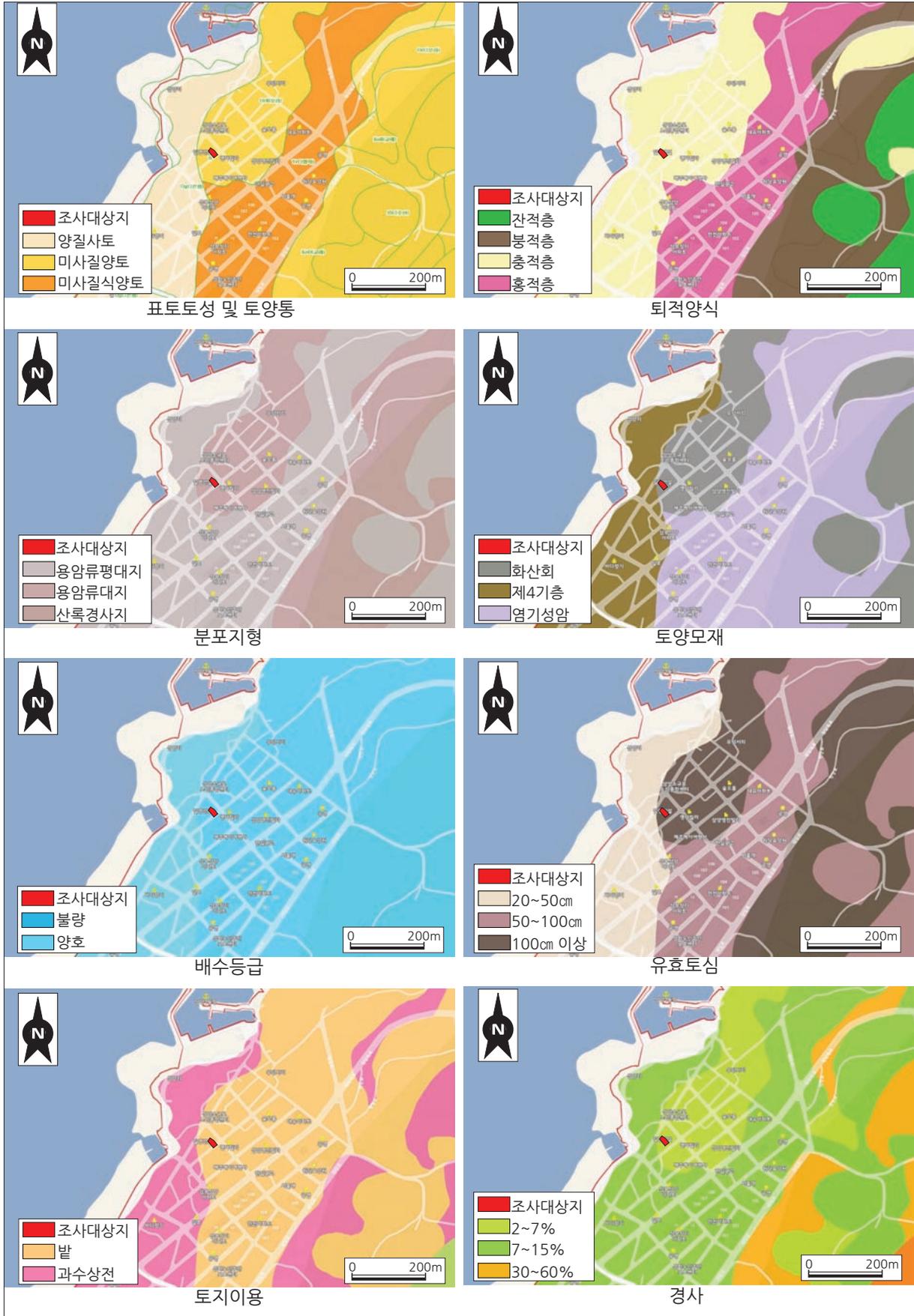
9) 東洋文物研究院, 2009, 『제주 삼화택지개발지구 가-Ⅱ-1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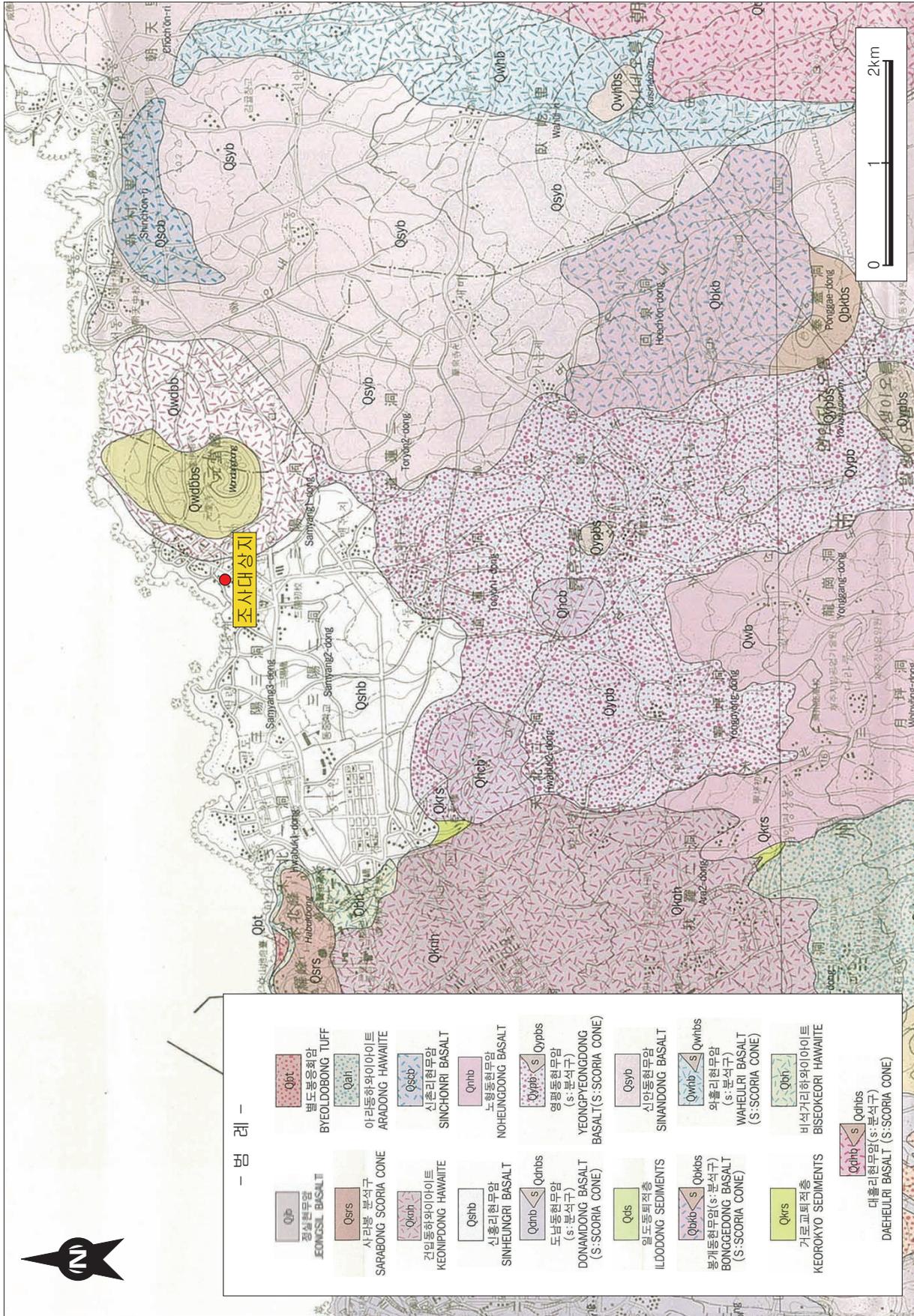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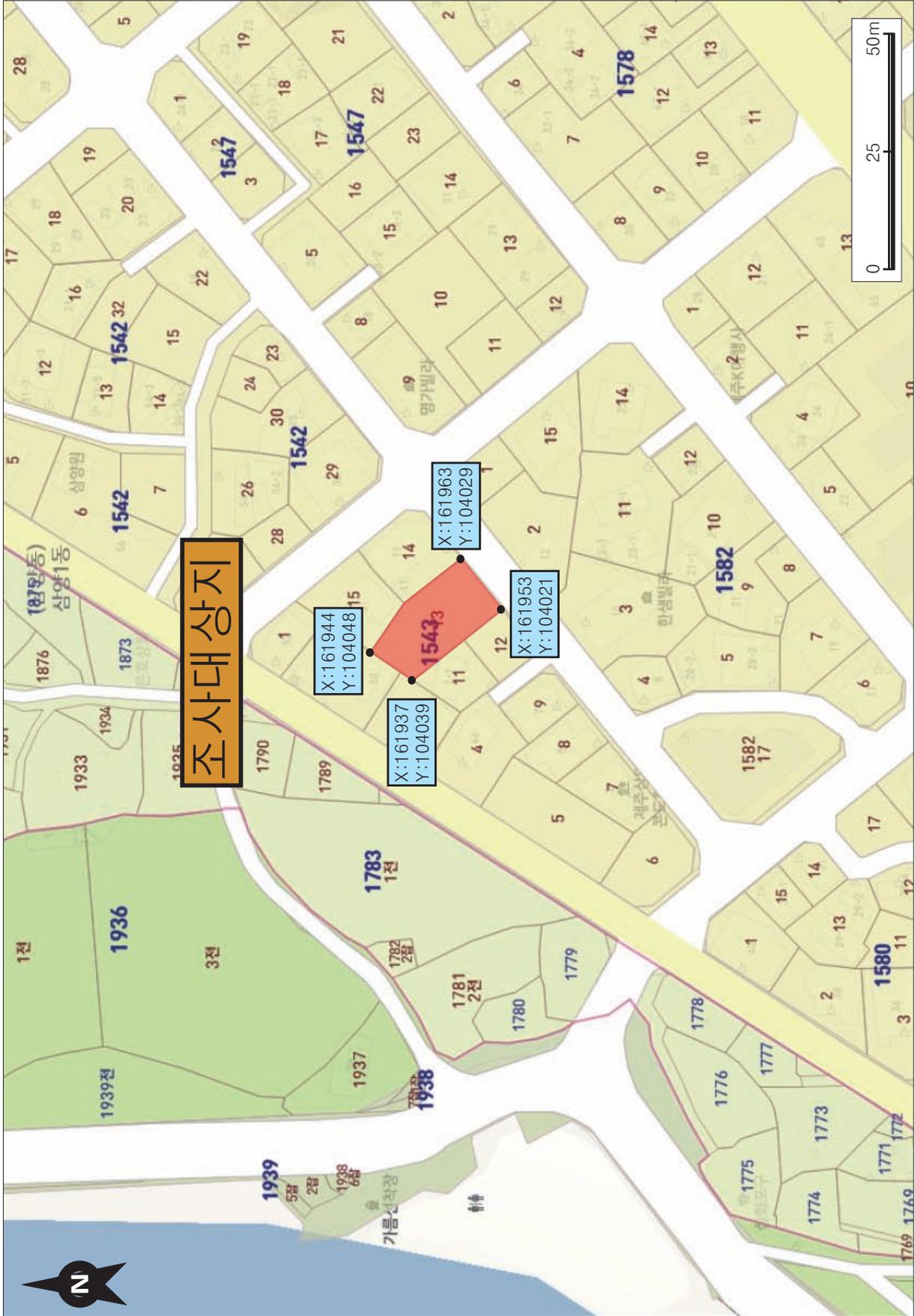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도면 3.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도(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참조)



도면 4. 조사대상지 일대 지질도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상의 위치도(출처: 네이버 지적도 참조)

2) 청동기시대 전기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은 해발 100m 미만의 해안 저지대 및 평탄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해안저지대의 해안선을 따라 용천수가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¹⁰⁾.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을 살펴보면 서북부지역의 용담동과 삼양동유적군, 동북부지역의 북촌리와 김녕리유적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시기의 취락은 다음 단계인 청동기시대 후기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며 현재 확인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혹은 방형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적으로는 삼양동유적군¹¹⁾이 있다. 삼양동유적(삼화지구)에서는 장방형주거지를 비롯하여 방형주거지와 다수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공렬토기, 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및 방추차와 유구석부, 편인석부, 마제석검, 마제석착 등이 출토되었다.

3) 청동기시대 후기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는 삼양동유적군¹²⁾이 확인되고 있다. 이 시기는 한반도의 송국리문화가 강하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앞선 청동기시대 전기와 비교하여 취락구조와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대규모 취락이 조성된다. 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해안과 직선거리 1km로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0~40m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평탄대지상에 주로 배치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¹³⁾.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으로는 서쪽으로 하귀리, 외도동, 용담동, 삼도동유적이 있고, 삼양동유적을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북촌리, 김녕리유적 등이 위치한다. 특히 전반기에는 삼양동과 용담동 일대에 송국리형주거지 초기형태의 취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이후 후반기로 가면서 외도동과 하귀리

10) 김경주, 2009,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11) 국립제주박물관, 2006, 『제주세무서 사택부지내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국립제주박물관,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나지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국립제주박물관, 2008,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가-1구역)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화지구 가-Ⅱ(1차)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12) 濟州大學校博物館, 2001, 『濟州三陽洞遺蹟-Ⅱ·Ⅲ地區』.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三陽洞遺蹟-Ⅰ·Ⅴ地區』.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양1동 1249-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9, 『제주 삼양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확장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13)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2000년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 고리』.

일대에 변형된 송국리주거지를 바탕으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삼양동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유물은 삼양동식토기로 불리는 외반구연 및 직립구연토기와 석기류 등이 출토되고 있다.

· 청동기시대 전기 주변유적현황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용담동 월성로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직립구연토기, 지석, 고석 등	
용담동 제사유적	취락유적	유물산포지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석기류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굴립주건물 지, 수혈유구 등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유구석부, 편인석부, 마제석검, 석착, 옥제품	삼화지구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마연토기, 옥구슬 등	삼양2동 2132-1번지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	삼양2동 2133-4번지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등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마연토기, 마제석부 등	제주세무서 부지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굴립주건물 지, 수혈유구 등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마연토기, 직립구연토기, 지석, 연석, 고석 등	삼양2동 2181-29번지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마연토기, 요석, 고석	삼양2동 2177-4번지
북촌리유적	주거유적	바위그늘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석기류	
김녕리유적	생활유적	패총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석기류	

· 청동기시대 후기 주변유적현황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하귀리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하귀리유적	분묘유적	지석묘		
외도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외도도유적	분묘유적	지석묘		
용담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용담동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소토유구, 불다짐소성유구	직립구연토기, 적갈색경질토기, 고석, 요석, 지석, 토제방추차, 원판형토제품	용담2동 2621-10번지
용담동유적	취락유적	불다짐소성유구, 구상유구	직립구연토기, 마제석착, 고석, 연석, 토제방추차 등	용담2동 2708-29번지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용담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굴립주건물지, 수혈유구 등	적갈색경질토기, 고배형토기, 마제석부, 흙돌, 갈판, 방추차, 철제삼각만입촉, 관옥 등	국가사적 제522호
용담동유적	분묘유적	지석묘		
오라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불다짐소성유구, 야외노지, 구상유구	직립구연토기,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마제석부, 마제석착, 고석, 연석, 요석, 석제 검파두식, 청동제 검파두식, 소옥 등	금남여객 차고지 부지
오라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오라동유적	분묘유적	지석묘		
도남동유적	분묘유적	지석묘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삼도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마제석검, 마제석촉, 마제석부, 유구석부, 연석, 옥환, 동촉 등	사적 제416호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등	적갈색경질토기, 방추차, 지석 등	삼양1동 1249-7번지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불다짐소성유구 등	적갈색경질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마제석촉 등	삼양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직립구연토기, 적갈색경질토기	삼양2동 2139-8번지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야외노지	직립구연토기, 삼양동식토기, 파수부토기, 고석, 연석, 요석, 원판형토제품, 토제방추차 등	삼양2동 2139-5번지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석관묘, 원 형구상유구 등	적갈색경질토기, 지석, 고석 등	삼양동 주민센터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적갈색경질토기, 석기류	삼양2동 2180-15번지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방형주거지, 수혈유 구, 구상유구	마연토기, 무문토기, 점토대토기, 마제석촉, 석착, 유석, 연석, 지석 등	삼양2동 2137-10번지
삼양동유적	분묘유적	지석묘		
도련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옹관묘 등	직립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적갈색경질토기 등	도시우회도로
북촌리유적	동굴주거유적	바위그늘	삼양동식토기	
김녕리 괘내기동굴	생활유적	패총, 바위그늘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패촉	
김녕리 묘산봉동굴	동굴주거유적	바위그늘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더불어 삼양동유적에서는 유구석부, 마제석착, 옥환 등도 출토되었다.

4) 탐라시대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구제주시권의 용담동과 삼도동유적이 위치하며 동쪽으로 함덕리, 북촌 다려도, 억수동, 동북리, 김녕리 궤내기동굴, 묘산봉동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용담동유적에서는 전기·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각각 조사되었다. 탐라 전기에 해당하는 철기부장묘에서는 내부에서 철검과 함께 철부, 철촉, 철도자, 유리옥 등을 부장한 무덤이 확인되었다. 이 무덤은 철검의 형식과 동반유물상으로 볼 때 A.D. 3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탐라 후기에 해당하는 용담동 유적에서는 병과 호류의 통일신라시대 도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이외에도 삼도동유적에서는 전기·후기에 해당하는 광지리식토기와 함께 고내리식토기편이 수습되고 있어서 동시기에 걸쳐 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녕리 묘산봉 동굴에서도 백제계의 토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 탐라시대 주변유적현황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용담동 철기부장묘	분묘유적	지석묘, 옹관묘	철검, 철부, 철촉, 철도자, 유리옥, 광지리식토기 등	전기
용담동 제사유적	제사유적	대형 수혈유적	통일신라토기(병·호류), 중국자기, 과대금구, 철촉, 철부, 유리구슬 등	후기
오라동유적 (금남여객차고지)	생활유적	우물	회청색경질 타날문토기, 파수부편	전기
삼도동유적	생활유적	수혈유구	광지리식토기, 고내리식토기	전·후기
함덕리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회색연질토기	전기
다려도유적	제사유적	유물산포지	광지리식토기	전기
억수동유적	동굴주거유적	바위그늘	광지리식토기	전기
동북리유적	동굴주거유적	바위그늘	광지리식토기	전기
동북리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광지리식토기	전기
김녕리 궤내기동굴	동굴주거유적	바위그늘	광지리식토기	전기
김녕리 묘산봉동굴	동굴주거유적	바위그늘	회색연질토기	전기

5) 고려시대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조사대상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원당사¹⁴⁾가 있다. 원당사는 삼양동 원당봉에 위치하고 있다. 부분적인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고 다량의 도자기와 기와편이 출토되어 축조시기를 가늠케 하고 있다. 확인된 2동의 건물지는 각각 정면 5칸, 측면 2~3칸 이상의 건물지로

14)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元堂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 1988, 『水精寺·元堂寺 地表調査報告書』.

추정하고 있다. 또한 막새는 수막새 2종(연화문, 국화문)과 암막새 3종(나선형문, 연화문, 초화문)이 수습되었다. 평기와는 어골문을 비롯하여 모두 39여종이 확인되었다. 한편 도자기류는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를 비롯하여 중국제 청자와 백자도 소량 출토되었다. 청자는 10세기 중반경 제작된 것, 11~12세기에 제작된 것,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되는데, 11~12세기에 만들어진 도자기의 양이 가장 많다. 따라서 원당사지 건립시기는 대략 13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 고려시대 주변유적현황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원당사지	사찰유적	건물지	막새, 평기와, 청자, 분청사기, 백자	

3. 역사적 배경(삼양1동의 마을 형성과 연혁)

삼양1동은 삼양동의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로이며 조천읍 신촌리와 접하고 있다. 삼양1동은 삼양동 관할에 있는 법정동으로 조천읍으로 가기 전에 제일 동쪽 해안에 있는 마을이다. 삼양1동의 식수(食水)인 용천수(湧泉水)로는 고냉이물(위치멸실, 고갈/멸실), 큰물(1, 용암류경계형, 생활·농업용)·큰물(2, 용암류경계형, 생활·농업용)·셋도리물(용암류경계형, 생활·농업용), 우무수물(용암류경계형, 상수원), 독통물(용암류경계형, 미이용), 엉덕알물(용암류경계형, 미이용), 가막작짓물(용암류경계형, 상수원) 등이 있다. 삼양동의 하천으로는 삼수천이 있다.

삼양1동의 중심 마을에는 ‘소흘개마을, 원당개마을, 지구리마을’ 등이 있었다¹⁵⁾. 세종(世宗) 14년(1432)에 완성한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제주목(濟州牧)」에는 ‘봉화(烽火)가 9곳이니, 제주(濟州)의 동문(東門)은 동쪽으로 벨도(別刀)에 응한다. 벨도(別刀)는 동쪽으로 원당(元堂)에 응한다. 원당(元堂) 동쪽으로 서산(西山)에 응한다¹⁶⁾’라고 했다. 이를테면 세종 14년(1432)에 원당(元堂) 봉화(烽火)가 있었다. 중종(中宗) 26년(1531)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38권「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봉수」에 ‘원당오름봉수(元堂岳烽燧)는 서쪽으로 벨도(別刀)에 응하고 동쪽으로 입산오름(笠山岳)에 응한다¹⁷⁾’라고 하였다. 선조(宣祖) 34년(1601) 10월 12일 『남사록(南槎錄)』에는 ‘병선(兵船)을 감출만 한 곳으로 소흘개[所訖浦]가 동쪽 15리에 있다¹⁸⁾’라고 하여 ‘소흘개’가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15)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250~2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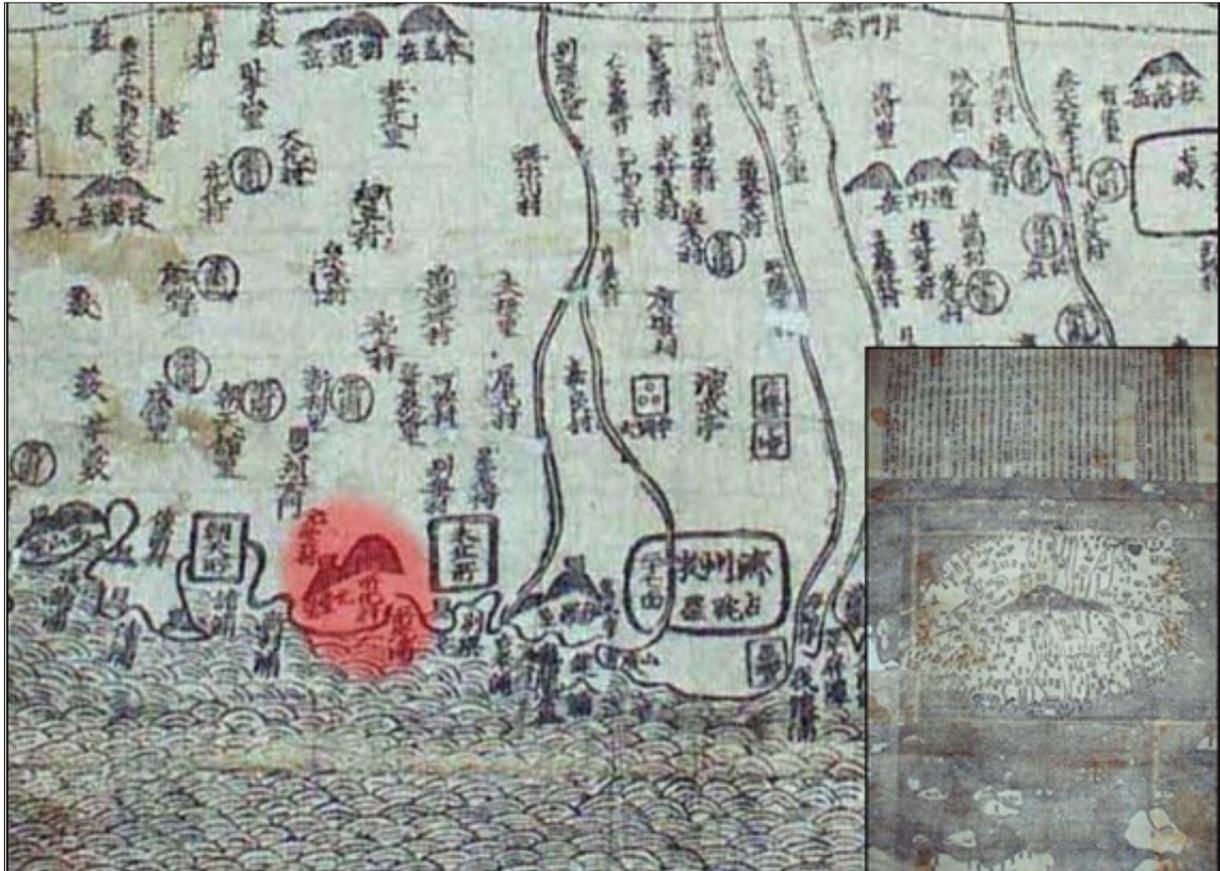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71~74쪽.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행정명사·제주시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459~466쪽.

16) 『世宗實錄』「地理志-濟州牧」, 烽火九處 州 東門[東準 別刀] 別刀[東準 元堂] 元堂[東準 西山], … 下略 …

17) 中宗 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烽燧」, 元堂岳烽燧 西應別刀 東應笠山岳.

18) 金尙憲, 『南槎錄』卷之四, 十二月二十日, 兵船可泊 所訖浦 東十五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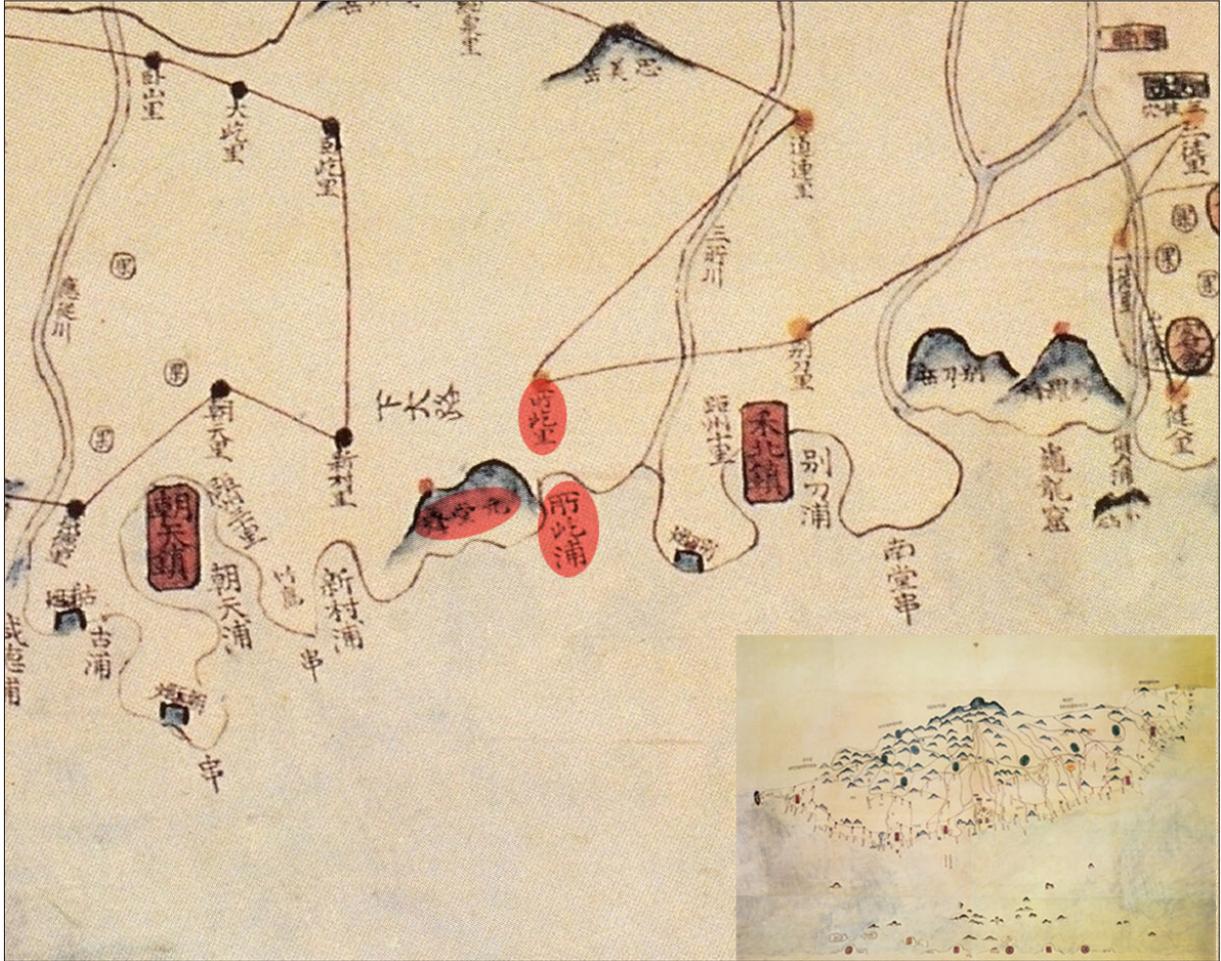
삼도 1. 「탐라도」에 나타난 소흘촌(所屹村)·소흘개(所屹浦)·원당촌(元堂村)·원당봉수(元堂望)

이를테면 소흘개는 본주(本州)의 25포구 중에서 병선(兵船)을 감출만 한 곳이었다.

효종 4년(1653)에 편찬한 『탐라지(耽羅志)』「봉수(烽燧)」에, 원당(元堂)은 동쪽으로는 서메(西山)와 서쪽으로는 사라(紗羅)와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했다. 27년 후 숙종 6년(1680) 2월 16일 『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밥을 먹은 뒤에 순력(巡歷)을 나서려 동문(東門)을 거쳐 길에 나서서 황폐해진 터가 된 만수사(萬壽寺)와 사라봉수(紗羅烽燧), 화북연대(禾北烟臺)를 지나 화북내[禾北川]를 건넜다. 하류는 고늬개[古老浦]를 지나 화북소(禾北所)에 도착하였다. 조방장(助防將) 강취관(康就寬)과 속오초관(東伍哨官) 고상언(高尚嶸)이 행례(行禮)를 한 다음 군병(軍兵)과 군기(軍器)를 점열(點閱) 한 후에 15리를 가면서 소흘개(所屹浦), 원당봉수(元堂烽燧), 신촌(新村) 열녀국기(烈女國只)의 정문(旌門), 신촌개(新村浦)를 지난 조천소(朝天所)에 도착하였다¹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된 「탐라도」에는 소흘촌(所屹村)·소흘개[所屹浦]·원당촌(元堂村)·원당봉수(元堂望)가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는

19) 李增, 『南槎日錄』 肅宗 六年 二月 十六日(丙子), 食後出巡 由東門作行過萬壽廢寺 紗羅烽燧 禾北 烟臺 渡禾北川下流爲古老浦 到禾北所 助防將康就寬 東伍哨官高尚嶸行禮 仍點閱軍兵軍器後 又行十五里 過所屹浦 元堂烽燧 新村烈女國只旌門 新村浦 到朝天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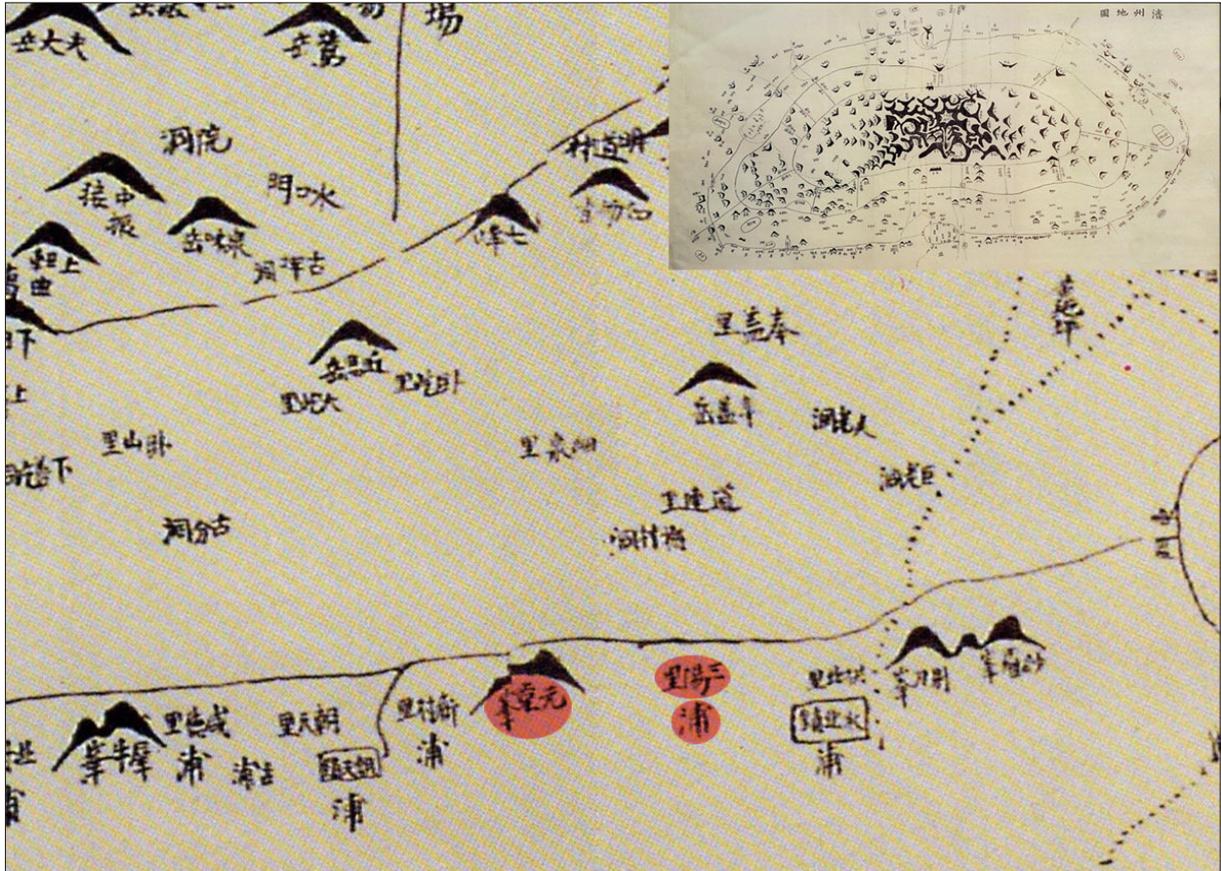
삽도 2. 1872년에 제작한 「제주삼양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소흘리(所吃里)·원당봉(元堂烽)·소흘개(所吃浦)

소흘촌(所吃村)은 소흘개(所吃浦)의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촌락일 뿐만 아니라 원당촌(元堂村)은 원당봉수(元堂烽燧)의 주변에 형성된 촌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조(英祖)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권1 「제주(濟州)-면촌(面村) 증(增)」에 중면(中面)에는 3개 소면(小面)이 있다. 곧 중좌면(中左面)·주중면(州中面)·중우면(中右面)이다. 그중에 중좌면(中左面)에는 별도(別刀)·서흘포(鋤訖浦)·도련평(道連坪)·천미(泉味)·와호홀(臥乎訖)·세은쇄(細隱刷)·상봉개(上奉蓋)·하봉개(下奉蓋)·무등천(無等川)·별라화(別羅花) 등 10개 마을²⁰⁾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 서흘개(鋤訖浦) 마을이 있다.

이를테면 서흘개(鋤訖浦)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기에 서흘개리(鋤訖浦里)로 표기했다. 이 '서흘개'는 앞서 언급한 있는 '소흘개(所吃浦)'의 한자차용 표기로 보인다. 이 당시에 제주목의 4개 대면(大面)에는 풍헌(風憲) 각 1인이 있다. 12개 소면(小面)에는 약정(約正) 각 1인이 있으며 81개

20) 『增補耽羅誌』 卷一「濟州-面村 增」, 中面 小面三 中左面 州中面 中右面, 中左面 別刀 鋤訖浦 道連坪 泉味 臥乎訖 細隱刷 上奉蓋 下奉蓋 無等川 別羅花 合十里.



삼도 3.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원당봉(元堂峯)·삼양마을(三陽里)·삼양개[三陽浦]

마을마다에는 경민장(警民長)·권농(勸農)·기찰관(機察官)·포도(捕盜)·존위(尊位)·동장(洞長)·이임(里任)·색장(色掌)·지심(指審)·유사(有司)가 각 1인이 있어 모두 서무(庶務)를 담당했다²¹⁾.

정조(正祖) 9년(1785) 2월 이후에 편찬된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중면(中面)」에 ‘ \square 홀리(\square 訖里)는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의 거리에 있다. 백성의 집[民戶]은 91호이고 남자가 207명이며 여자는 307명²²⁾으로 남녀합계가 51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square 홀리(\square 訖里)에서 ‘ \square ’는 ‘소(所)’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보건대 \square 홀리(\square 訖里)는 소홀리(所訖里)로 추정된다. 또 41년 후인 순조(純祖) 26년(1826)에 작성된 『감시절목(減柴節目)』에도 소홀(所訖) \square 을²³⁾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고종 9년(1872)에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소홀리(所訖里)·원당봉(元堂峯)·소홀개[所訖浦]가 표시되어 있다. 고종(高宗) 27년(1890)에 삼양(三陽) 마을의 인구는 722명²⁴⁾이었다. 특히 소홀마을은 고종 9년(1872)

21) 『增補耽羅誌』「濟州一面村(增)」, 凡州大面四 風憲各一人 小面十二 約正各一人 八十一里 每里 警民長 勸農 機察官 捕盜 尊位 洞長 里任 色掌 指審 有司 各一人 共掌庶務.

22) 『濟州邑誌』「濟州一坊里」, 中面 \square 訖里 東距十五里 民戶九十一 男二百七 女三百七.

23) 『減柴節目』, … 上 略 … 下道 上道 細花 坪岱 槐伊 魚登 無注 北浦 咸德 新村 道連 細刷 奉蓋 所訖 下無 上無 別羅 臥訖 右十八里 永減燒木 只捧青草.

24) 『庚寅十二月日三邑還弊及庶瘼革祛節目』「本州-中面」, 三陽人口 七百二十二 分米七十八石十四 斗八合.

이후로부터 고종(高宗) 27년(1890) 이전에 삼양(三陽) 마을로 마을의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7년 후 광무(光武) 3년(1899)에 간행한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삼양마을(三陽里)로 나타나고 있다.

광무(光武) 8년(1904)에 『삼군호구가간총책』 「제주군-중면」에는 삼양(三陽)의 연기가 나는 집[烟家]은 290호다. 남자가 474명이며 여자는 490명으로 남녀 합계가 964명이다. 초가집은 711칸이다²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25년 후 1929년에 당시 제주면(濟州面)에 삼양리(三陽里)에 호수는 527호이며 남자가 1,274명이고 여자는 1,343명으로 남녀 합계가 2,617명이었다²⁶⁾. 1930년에는 삼양리의 호수는 527호이며 인구수가 3,014명이었다. 1년 사이에 인구수가 397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1931년에는 ‘제주읍 삼양리’이라 하다가 1955년에는 제주시 삼양동이라 하였다. 1962년에는 옛 삼양동과 도련동을 합하여 삼양동이라 하였다. 현재 2019년 6월 행정동인 삼양동에는 삼양1·2·3동과 도련1·2동 등 5개의 법정동을 거느리고 있다.

25) 『三郡戶口家間摺冊』 「濟州郡-中面」, 三陽 烟家二百九十戶 男四百七十四口 女四百九十口 合九百六十四口 草家七百十一間.

26) 善生永助, 1929, 『濟州島生活狀態調查』 「Ⅱ.部落-濟州面」.

Ⅲ. 조사내용

1. 조사방법

금번 조사는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부지에 대한 소규모 정밀발굴조사이다. 조사대상지는 북서-남동 장축방향의 장방형의 형태이다. 현재는 나대지인 상태이나 구획정리 이전에는 동서방향으로 콘크리트도로가 있었으며 동편과 서편으로는 주택이 존재하였던 곳이다. 전반적인 지형은 동편에 인접한 원당봉(해발172m)의 산세가 해안으로 이어지고 급경사면에서 완경사면으로 이어지는 해안인접지형에 해당한다.

입회조사 당시 조사대상지의 중앙으로 트렌치를 설치한 결과 중앙부에서 수혈유구의 굴착선이 확인된 바 있다. 발굴조사는 입회조사 당시 이루어진 퇴적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소규모인 것을 감안하여 전면제토작업을 진행한 상태에서 북편과 서편, 남동편에 의 경계단면을 대상으로 토층단면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에 대한 제토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유구가 전면에 걸쳐 확인되어 별도의 장소를 정하고 사토장에 적치하였다. 유구는 원형계 수혈유구이며 현대의 가옥과 도로, 상수도관으로 인해 산발적인 교란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입회조사 당시 확인된 유물 중 시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으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동반출토되는 유물이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로 이해되는 다수의 유리병과 파편이 동반출토되어 유구의 생성과 폐기연대는 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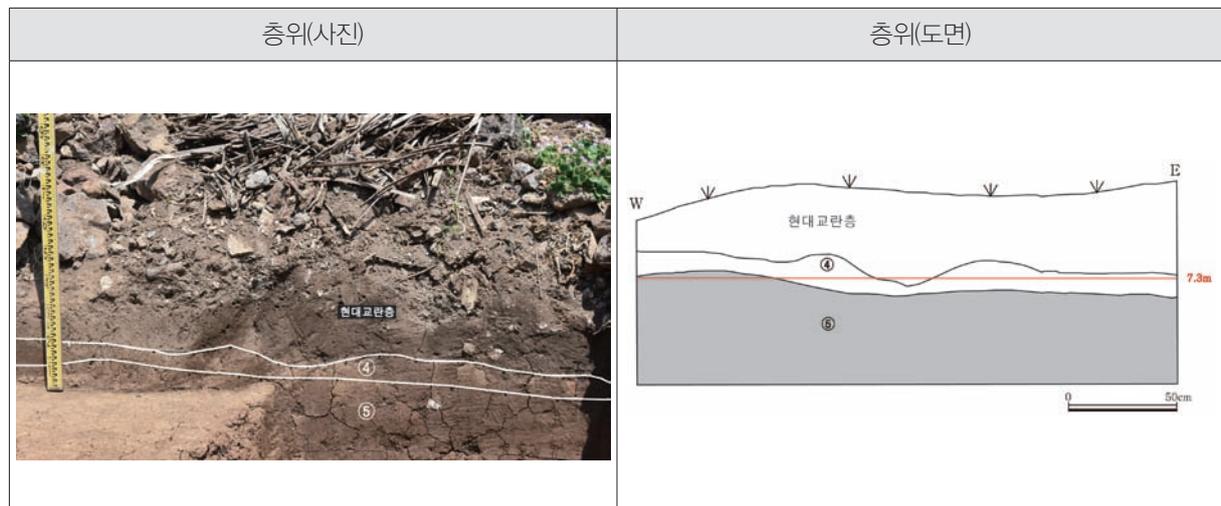
조사대상지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원형과 타원형, 소형과 중형 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유구 규모에 적절한 조사방법을 차별화하여 적용하였다. 소형의 경우 단축에 ‘-’자형 독을 두었으며 중형은 ‘+’자형 독을 두어 내부퇴적과정과 유구의 중복현황을 확인하였다. 이후 개별 유구에 대해 조사과정 전반에 걸친 사진촬영작업과 도면실측작업이 병행되었다. 유구의 선후관계를 보여주는 토층단면은 사진자료 및 토층단면도를 작성한 후 선후관계에 따라 독을 제거하며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조사대상지에서 확인되는 수혈유구는 일시적인 폐기가 대부분이며 퇴적토가 나뉘는 경우에도 수혈폐기 후 침전수에 의한 구성물질의 이동으로 토양구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물의 경우에도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폐기당시 주변유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유구 내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유물의 경우 근세유물이거나 도자기와 도기의 경우에도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유물의 전체적인 기형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으로 중요유물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진 및 유구원고에만 현황을 기록하였다.

유구 내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사 전, 조사 중, 조사 후의 과정을 사진촬영 자료로 수록하였으며 조사 후에는 조사대상지에 대해 GPS를 활용해 지리적위치 및 지형측량작업을 실시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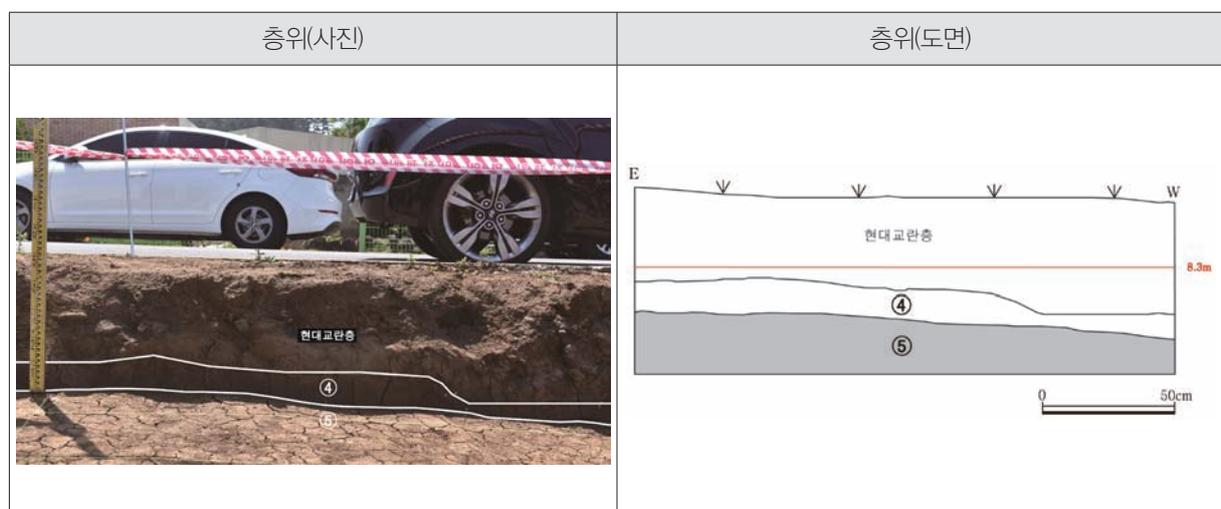
2. 층위

조사대상지는 서편에 인접한 원당봉에서 급경사를 지나 완경사면을 이루면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저지대로 비교적 평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가옥이나 주변 시설 등으로 인해 현대교란층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앙부와 서편으로 상부퇴적층이 파괴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원지형의 경우 동고서저의 완만한 경사이지만 상부 교란은 북서편의 경우 100~150cm가량이며 남동편의 경우 30cm가량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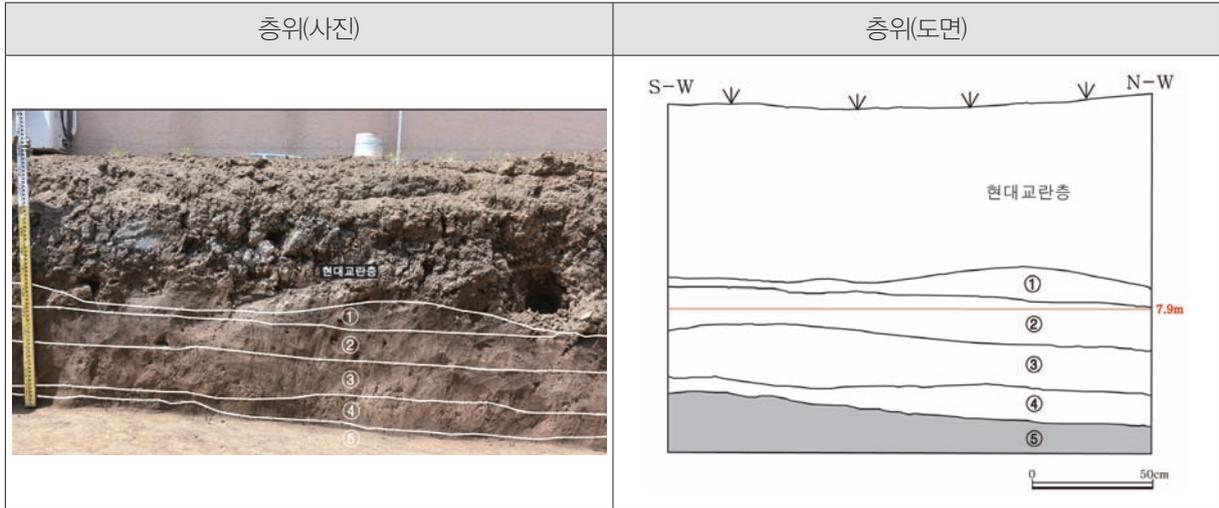
조사대상지의 토양퇴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북서편과 북편 모서리, 남동편 경계면이다. 전체적인 토층이 확인되는 곳은 북서편 단면이며 북편이나 남동편의 경우 상부가 교란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확인되는 토층은 유적의 상층부 전체적으로 현대교란층이 자리한다. 이후에 5개의 층위를 보인다. 1층은 북서단에서만 확인되는 부식토성의 연등색사질점토층(Hue 7.5YR 7/6)으로 10cm 내외이다. 2층은 사질성분이 강한 등색사질점토층(Hue 7.5YR 6/4)이다.



삽도 4. 조사대상지 북편 층위 단면도



삽도 5. 조사대상지 남편 층위 단면도



삽도 6. 조사대상지 서편 층위 단면도

3층은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3)로 근세문화층이다. 4층은 연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4)으로 북서편과 북편모서리, 남편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5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으로 생토층에 해당한다. 자세한 층위도면과 내용은 다음의 삽도4~6과 같다.

현대교란층

- 1층 : 연등색사질점토층(Hue 7.5YR 7/6, 10cm 내외)
- 2층 : 등색사질점토층(Hue 7.5YR 6/4, 17cm내외, 사질우세)
- 3층 :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3, 20cm내외, 근세문화층)
- 4층 : 연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4, 5~10cm, 경작영향)
- 5층 :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 10~20cm, 생토층)

3. 유구

1)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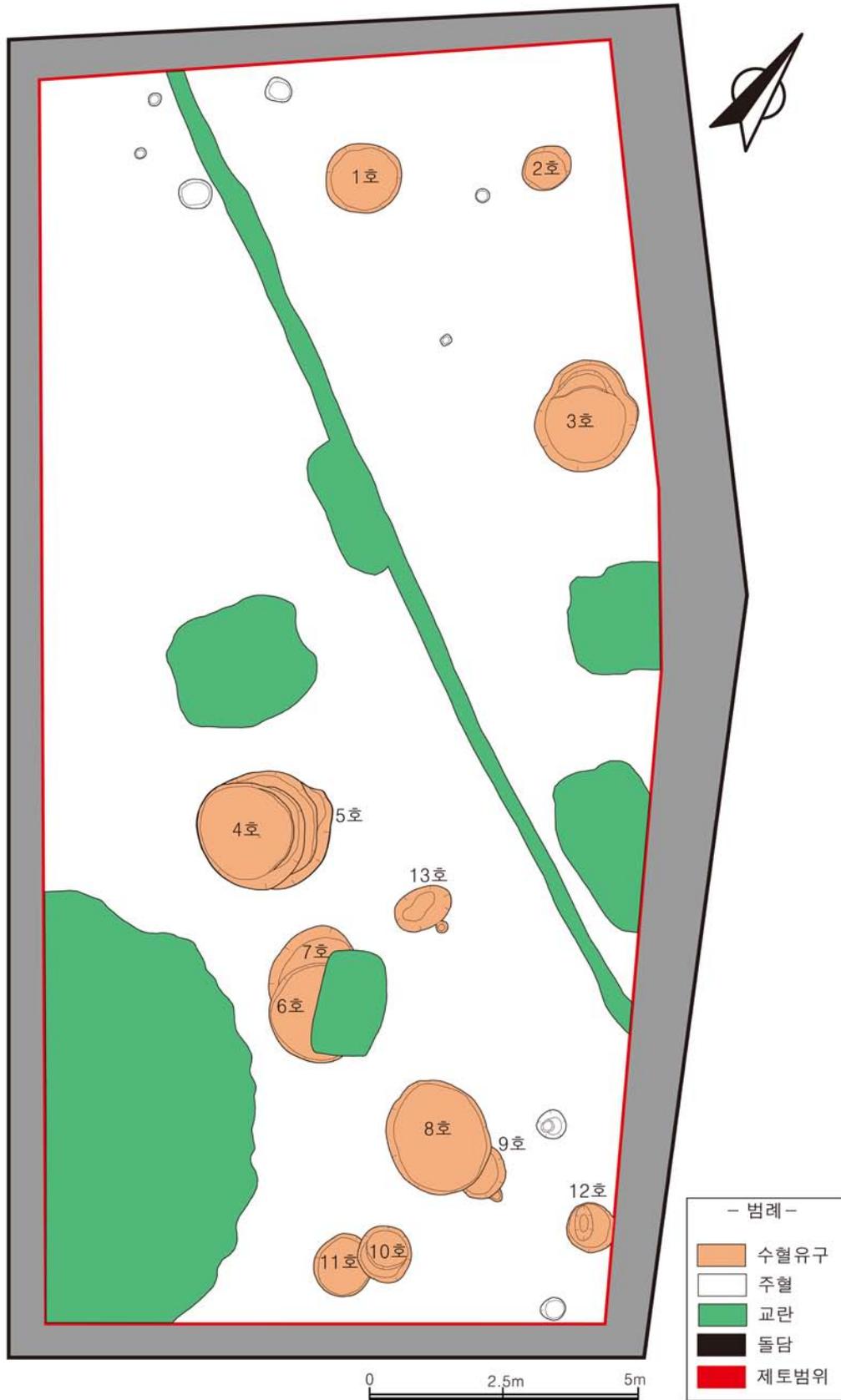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7, 도판 : 2-①~④)

1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북편 단벽 중앙부분에 인접해 위치한다. 현대교란층을 포함한 상부층에서 120cm 가량 하단인 해발 7.4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의 상당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인 점을 감안해 유구의 단축에 ‘-’자형 독을 설치한 후 양단에 대한 하강작업을 진행하였다. 내부조사 후 독을 제거하고



삽도 7. 조사대상지 공중사진상의 전체 유구배치도



도면 6. 조사대상지 전체 유구배치도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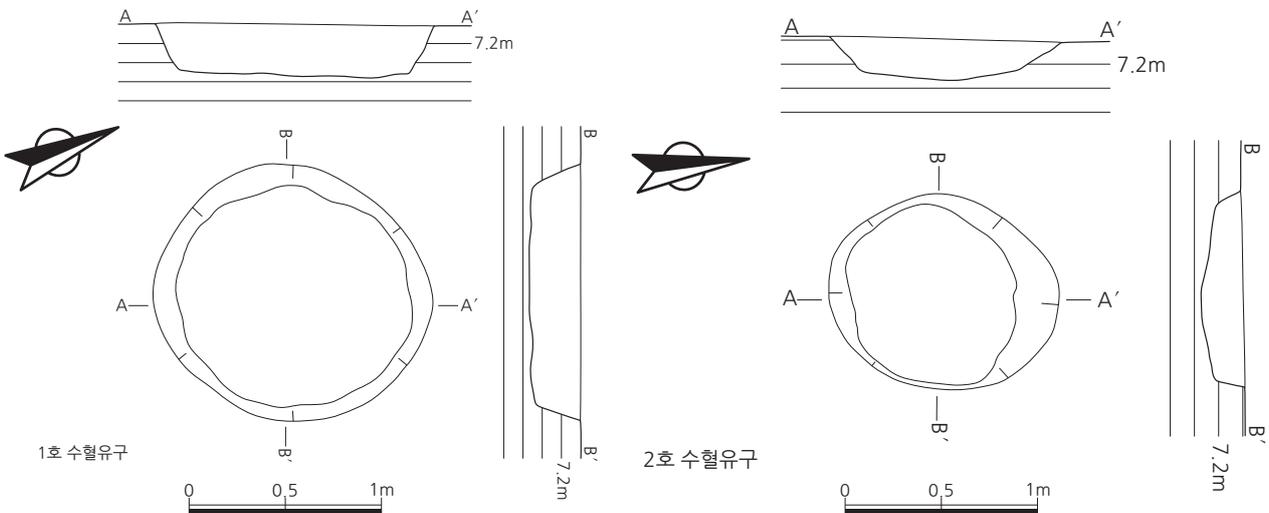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23°E이다. 규모는 장축 144cm, 단축 134cm, 깊이 27cm이다. 내부퇴적토는 부식토의 성격이 강한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4)으로 단일층이며 소량의 목탄편과 잔자갈이 혼재되어 확인된다. 비교적 깊이가 얇은 수혈 내부에서는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폐기되어 있다. 내부퇴적토가 단일층인 것으로 보아 사용 후 일시에 폐기된 시설로 판단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편평한 상태이나 굴착시 만들어진 소규모의 요철면이 확인된다.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7, 도판 : 2-⑤~3-③)

2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북편 1호 수혈유구에서 북동편으로 약 2.5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현대교란층을 포함한 상부층에서 30cm 가량 하단인 해발 7.4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의 상당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인 점을 감안해 유구의 단축에 ‘-’자형 독을 설치한 후 양단에 대한 하강작업을 진행하였다. 내부조사 후 독을 제거하고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15°E이다. 규모는 장축 94cm, 단축 81cm, 깊이 18cm이다. 내부퇴적토는 1호 수혈유구와 동일한 부식토의 성격이 강한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4)으로 단일층이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재되어 확인된다. 비교적 깊이가 얇은 수혈 내부에서는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폐기되어 있다. 내부퇴적토가 단일층인 것으로 보아 사용후 일시에 폐기된 시설로 판단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완만한 경사도를 보이는 북벽을 제외한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북벽의 경우 상부의 일부가



도면 7. 1호·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사방향으로 낮아진 후 수직으로 바닥면에 이어지고 있다. 바닥면은 편평한 상태이나 굴착시 만들어진 소규모의 요철면이 확인된다. 유물은 퇴적토와 혼재된 상태로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3) 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8, 도판 : 3-④~5-①)

3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북동편 경계부분과 인접해서 확인되며 2호 수혈유구의 남동편으로 약 3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현대교란층을 포함한 상부층에서 50cm 가량 하단인 해발 7.5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인 현대교란층으로 인해 유구 상부가 상당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북편 돌출부의 중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자형 독을 설치한 후 네 방향에 대한 하강작업을 진행하였다. 내부조사 과정에서 하나의 유구로 판단되어 독을 제거하고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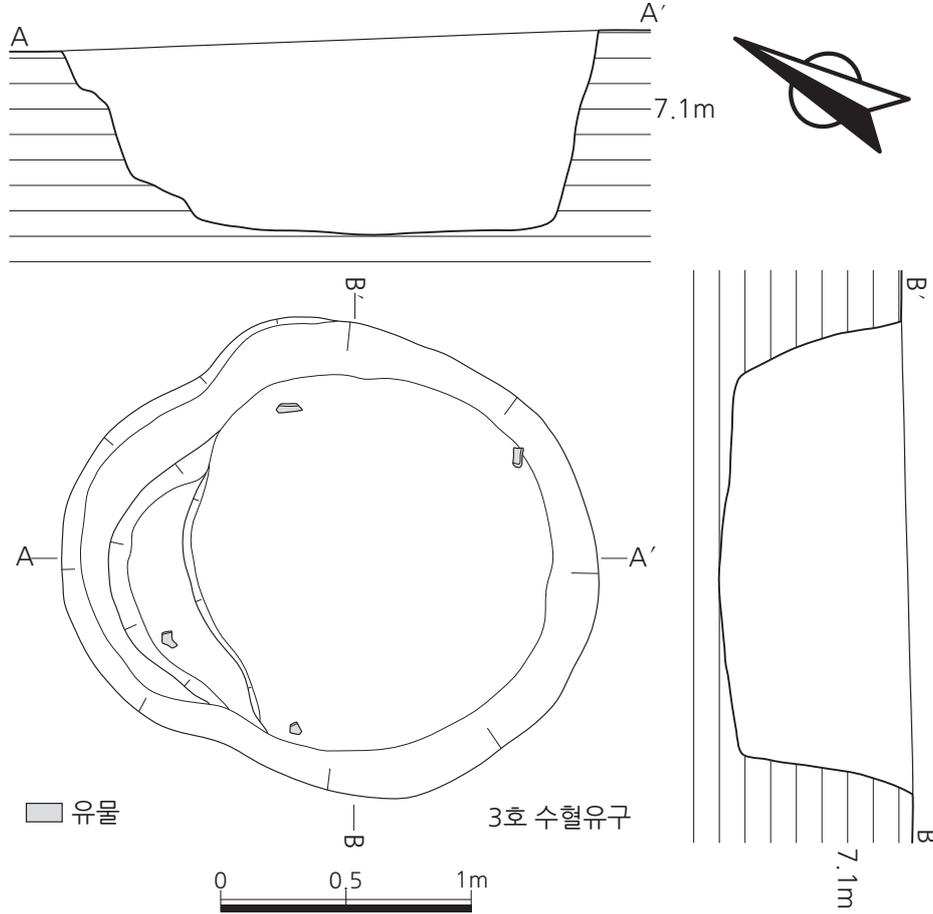
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29°W이다. 규모는 장축 208cm, 단축 185cm, 깊이 81cm이다. 내부퇴적토는 흑색부식토와 황색사질점토가 혼재된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8)으로 단일층이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재되어 있다. 수혈의 상부와 하부에서 다수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되는데 상층부에서는 근세로 추정되는 유리파편이 확인되기도 한다. 내부퇴적토가 단일층인 것으로 보아 사용 후 일시에 폐기된 시설로 판단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돌출된 북서벽의 경우 하단에는 벽체를 따라 단을 이루는 돌출면이 확인된다. 한편 수혈의 상부에는 하단 돌출면과 같은 위치에 완만한 상태로 굴착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비교적 깊이가 깊은 수혈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시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벽체와 바닥면은 편평한 상태이나 굴착시 만들어진 소규모의 요철면이 확인된다. 유물은 퇴적토와 혼재된 상태로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4) 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9, 도판 : 5-②~6-①)

4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편에서 확인되며 3호 수혈유구의 남편으로 약 5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현대교란층을 포함한 상부층에서 80cm 가량 하단인 해발 7.7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의 상당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북편 돌출부의 중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자형 독을 설치한 후 4방향에 대한 하강작업을 진행하였다. 독의 단면조사 과정에서 북편으로 4호 수혈유구보다 선축된 5호

수혈유구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4호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부조사 후 독을 제거하고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도면 8.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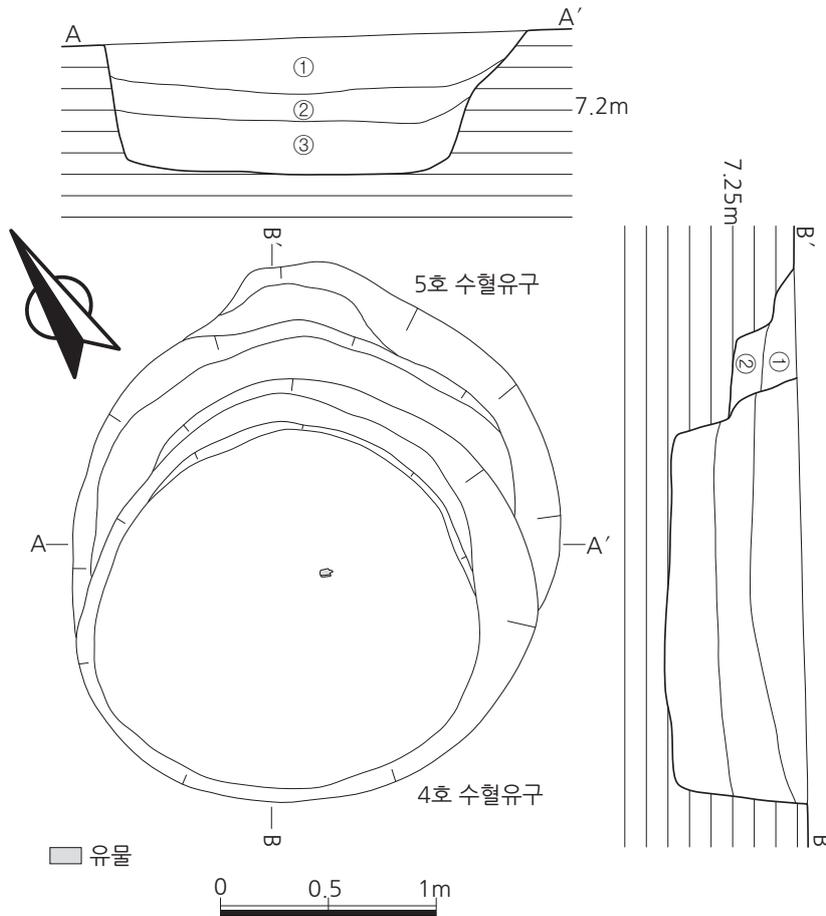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52°W이다. 규모는 장축 204cm, 단축 198cm, 깊이 68cm이다. 내부퇴적토는 3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사질이 우세한 암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3/4)으로 소량의 목탄편과 잔자갈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상층부를 중심으로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출토되었으며 소형의 유리병 1점이 확인되었다. 2층은 점질이 우세한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4)으로 유물의 출토상황은 부식성 사질토와 황색계통의 생토가 혼재된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8)이다. 내부퇴적토의 경우 벽체에서 중앙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거나 평행한 상태로 퇴적되었는데 3층에서 확인되는 생토층의 혼재상태로 보아 수혈의 굴착 후 주변에 굴토되어 나왔던 토사를 수혈의 용도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내부에서 층위가 나누어지는 것은 폐기된 토사가 성격도 있으나 후대에 침수되는 물의 영향으로 인한 점질성분의 하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상부와 하부에서 다수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되는데 상층부에서는 근세로 추정되는 유리병류가 확인되기도 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북동벽에 연하여 일부 돌출면이 확인되는데 바닥면은 남편방향으로 낮아져 편평하게 확인된다. 상부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출입시설이기보다는 선축되었던 소형의 수혈을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닥면은 편평한 상태이나 굴착시 만들어진 소규모의 요철면이 확인된다. 유물은 퇴적토와 혼재된 상태로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5) 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9, 도판 : 6-②~7)

5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편에서 확인되며 3호 수혈유구의 남편으로 약 5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남편에 후축된 4호 수혈유구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북편 일부만이 잔존한 상태이다. 현대교란층을 포함한 상부층에서 80cm 가량 하단인 해발 7.7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의 상당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단면조사를 통해 후축된 4호를 선조사한 후 잔존부분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내부조사 후 독을 제거하고



도면 9. 4호·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52°W이다. 규모는 잔존장축 125cm, 잔존단축 53cm, 깊이 32cm이다. 내부퇴적토는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점질이 우세한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4)으로 소량의 목탄편이 혼재되어 있다. 2층은 사질이 우세한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8)이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상부와 하부에서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북벽에 연하여 바닥면에서 20cm 상단에 단시설이 확인되는데 바닥면은 남편 방향으로 완만하게 낮아진다. 이로부터 수혈을 활용하기 위한 출입시설로 판단된다. 바닥면은 편평하게 조정되었다. 유물은 퇴적토와 혼재된 상태로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6) 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10, 도판 : 8)

6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동편에서 확인되며 4호 수혈유구의 남동편으로 약 1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서편에 선축된 7호 수혈유구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후축되었다. 현대교란층을 포함한 상부층에서 70cm 가량 하단인 해발 7.8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수혈의 북동편은 입회조사 당시 유구확인을 위한 굴착작업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현대교란 범위를 굴착하여 잔존한 유구의 단면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편에 선축된 7호 수혈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현대교란 범위와 연결되는 ‘-’자형 독을 두어 유구의 전체적인 선후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각 수혈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내부조사 후 독을 제거하고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27°W이다. 규모는 장축 178cm, 잔존단축 82cm, 깊이 39cm이다. 내부퇴적토는 점질이 우세한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4)으로 단일층에 해당하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재되어 있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조정되었으며 동편의 중앙부분으로 완만하게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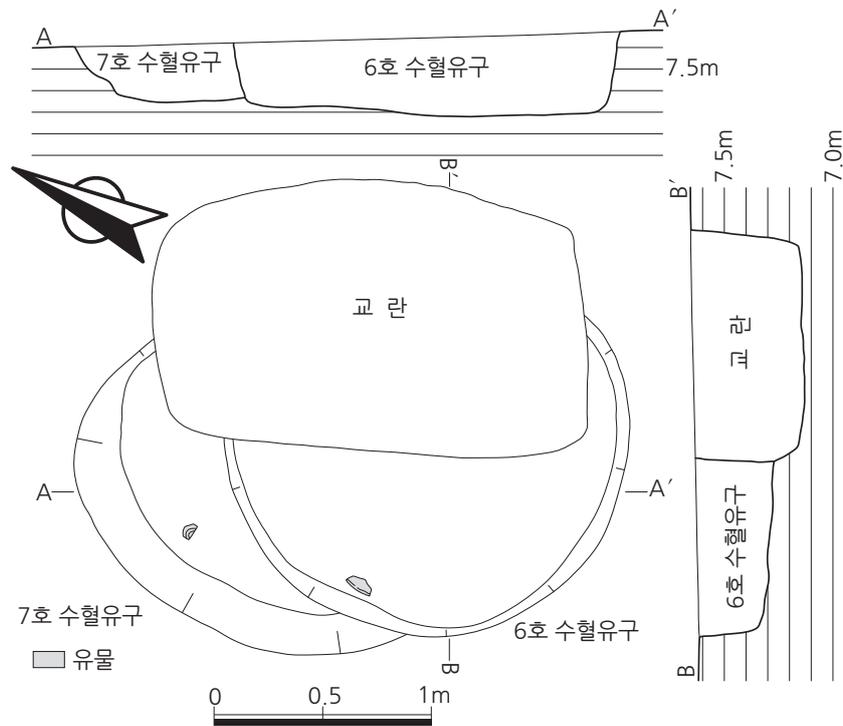
7) 7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10, 도판 : 9-①~④)

7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동편에서 확인되며 4호 수혈유구의 남동편으로 약 1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남편에 후축된 6호 수혈유구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며 동편으로는 입회조사 당시 유구확인을 위한 굴착작업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다. 현대교란층을 포함한 상부층에서 70cm

가량 하단인 해발 7.8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조사는 현대교란 범위를 굴착하여 잔존한 유구의 단면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편에 후축된 6호 수혈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현대교란 범위와 연결되는 ‘-’자형 독을 두어 유구의 전체적인 선후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6호에 대한 내부조사 후 7호 수혈유구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도면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27°W이다. 규모는 잔존장축 70cm, 깊이 27cm이다. 내부퇴적토는 점질이 우세한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4)으로 단일층에 해당하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재되어 있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나 서벽의 경우 하단부에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조정되었으며 동편의 중앙부분으로 완만하게 낮아진다.



도면 10. 6호·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 8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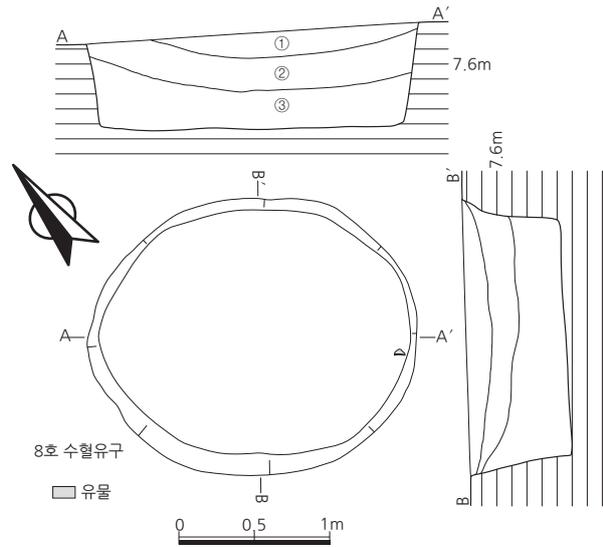
가) 유구(도면 : 11, 도판 : 9-⑤~⑧)

8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편에서 확인되며 6호 수혈유구의 동편으로 1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동편에 선축된 9호 수혈유구의 절반가량을 파괴하고 후축되었다. 현대교란층을 포함한 상부층에서 50cm 가량 하단인 해발 7.8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 일부분은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유구의 중앙부분에 ‘+’자형 독을 설치하고 단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축된 9호 수혈유구를 확인하고 8호 수혈유구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내부조사 후 독을 제거하고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52°W이다. 규모는 장축 218cm, 단축 188cm, 깊이 78cm이다. 내부퇴적토는 3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사질성분이 우세한 암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3/4)으로 소량의 목탄편이 혼재되어 있다.

2층은 황갈색점토와 부식토가 혼재된 연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4)이다. 3층은 점질성분이 강한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8)이다. 대체로 모든 층이 중앙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상부와 하부에서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또한 서벽에 인접해 현무암자갈이 관입된 사질성 풍화토가 사방향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반층이 형성되고 삭평된 상태가 단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별도의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면은 편평하게 조정되었다. 유물은 퇴적토와 혼재된 상태로 자잘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도면 11. 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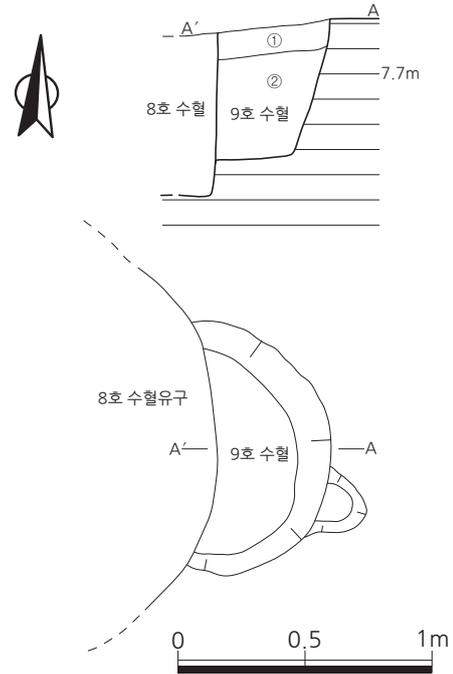
9) 9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12, 도판 : 1-④)

9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편에서 확인되며 6호 수혈유구의 동편으로 3m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서편에 후축된 8호 수혈유구에 의해 유구의 절반가량이 파괴된 상태이다. 현대교란층을 약 50cm 가량 걷어낸 해발 8.0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 일부분은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후축된 8호 수혈유구를 선조사한 후 유구의 중앙부분에 ‘-’자형 독을 설치하고 단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내부조사 과정을 거치고 독을 제거하였다. 독 제거 과정에서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52°W이다. 규모는 장축 106cm, 잔존단축 46cm, 깊이 55cm이다. 내부퇴적토는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점질성분이 우세한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4)이다. 2층은 사질성분이 강한 갈색사질토층(Hue 7.5YR 4/3)이다. 대체로 1층이 10~20cm의 두께를 보이며 편평하게 퇴적되어 있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또한 동벽에 주혈이 확인되는데 수혈보다 선축된 상태이다. 주혈의 규모는 잔존장축 28cm, 잔존 단축 20cm, 깊이 15cm이며 내부토는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8)으로 사질성분이 강하다. 수혈 내부에서 별도의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면은 편평하게 조정되었으며 중앙부분으로 낮아진다. 유물은 퇴적토와 혼재된 상태로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도면 12. 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10) 10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13, 도판 : 10-⑤~⑧)

10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편 경계면에서 확인되며 8호 수혈유구의 남동편으로 1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북편에 선축된 11호 수혈유구의 북동벽 일부를 파괴하고 후축되었다. 현대교란층을 약 50cm 가량 걷어낸 해발 7.8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 일부분은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중복된 11호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장축방향으로 ‘-’자형 독을 설치하고 단면조사를 선행하였다. 이후 양단에 대한 내부조사 과정을 거치고 독을 제거하였으며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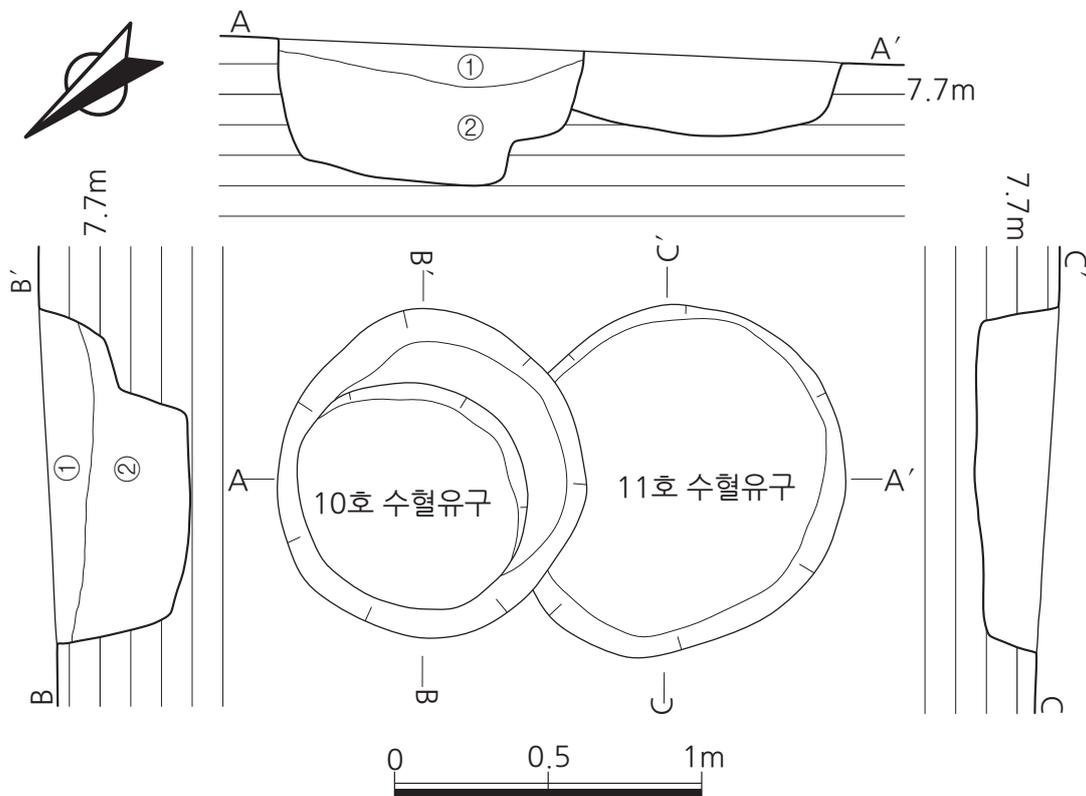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6°W이다. 규모는 장축 106cm, 단축 98cm, 깊이 50cm이다. 내부퇴적토는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점질성분이 우세한 암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3/4)이다. 2층은 사질성분이 우세한 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4/4)이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한편 유구의 남동벽에 연하여 폭 90cm, 돌출 길이 15cm의 단이 확인된다. 유구 어깨선에서 하단으로 17cm가량 내려와 시설되었다. 11호 수혈유구가 시설되기 이전의 유구일 가능성도 있으나 2층이 퇴적되어 있어 재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면은 편평하게 조정되었으며 중앙부분으로 낮아진다. 유물은 퇴적토와 혼재된 상태로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11) 1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13, 도판 : 11-①~④)

11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편 경계면에서 확인되며 8호 수혈유구의 남편으로 1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북동편에 후축된 10호 수혈유구에 의해 유구의 벽체 일부가 파괴된 상태이다. 현대교란층을 약 50cm 가량 건너낸 해발 7.8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 일부분은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중복된 11호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장축방향으로 ‘-’자형 독을 설치하고 단면조사를 선행하였다. 이후 선축된 11호 수혈을 조사한 후 본 유구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내부조사 과정을 거치고 독을 제거하였으며 평·단면실측작업 및 유물수거작업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23°W이다. 규모는 장축 120cm, 단축 108cm, 깊이 28cm이다. 내부퇴적토는 점질성분이 우세한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으로 단일층에 해당한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산발적으로 출토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수혈 내부에서 별도의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면은 편평하게 조정되었으며 중앙부분으로 낮아진다. 유물은 퇴적토와 혼재된 상태로 자갈한 백자편과 도기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도면 13. 10호·1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12) 1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14, 도판 : 11-⑤~⑧)

12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동편 경계면에서 확인되며 9호 수혈유구의 동편으로 1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현대교란층을 약 50cm 가량 걷어낸 해발 8.0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은 현대교란층에 의해 일부분은 파괴된 상태이다.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구의 장축 중앙으로 ‘-’자형 독을 설치하고 양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평·단면실측작업 후 독을 제거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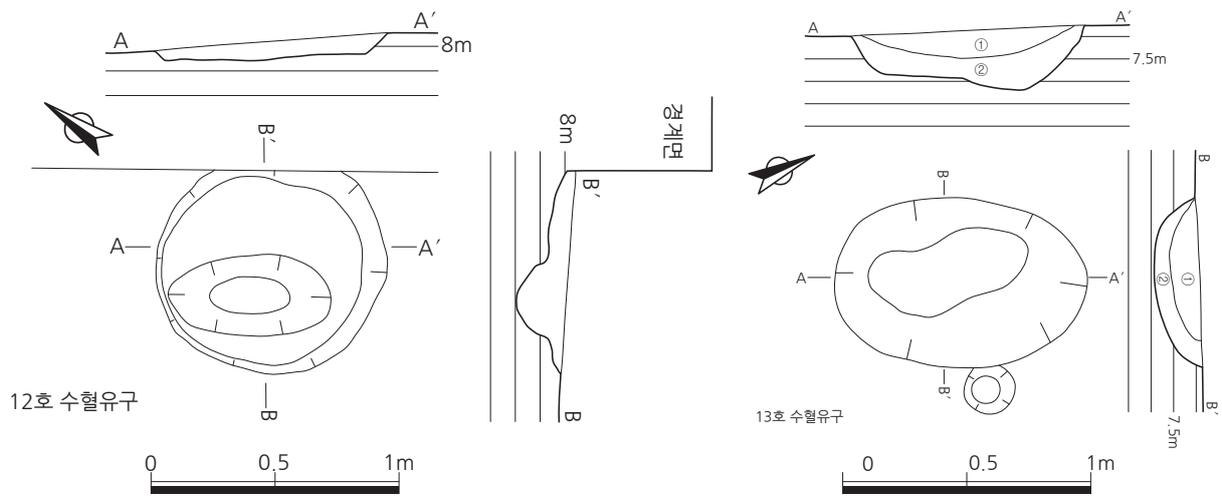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35°W이다. 규모는 장축 96cm, 단축 82cm, 깊이 12~23cm이다. 내부퇴적토는 점질성분이 우세한 흑갈색사질점토층(Hue 10YR 3/2)으로 단일층에 해당한다. 수혈의 내부 중앙의 서편에 장축 68cm, 단축 32cm, 깊이 11cm의 타원형 함몰부가 확인되는데 내부토가 동일하여 수혈의 사용시기에 동일하게 굴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함몰부의 경우 완만하게 굴착되어 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13) 1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 14, 도판 : 10-①~④)

13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남동편에서 확인되며 7호 수혈유구의 북편으로 1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현대교란층을 약 50cm 가량 걷어낸 해발 7.6m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6)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상부의 퇴적층이 현대교란층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유구 상부 일부분은 파괴된 상태이다.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구의 단축 중앙으로 ‘-’자형 독을 설치하고 양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평·단면실측작업 후 독을 제거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26°E이다. 규모는 장축 110cm, 단축 74cm, 깊이 26cm이다. 내부퇴적토는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사질이 우세한 황등색사질점토층(Hue 7.5YR 7/8)이다. 2층은 황색점토가 혼재되어 점질이 우세한 명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5/8)이다. 두 층 모두 중앙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퇴적되었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체는 완만하게 굴착되었으며 중앙으로 완만하게 낮아진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14. 12호 · 13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IV. 조사성과

본 보고서는 제주시 삼양동유적(삼양1동 1543-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여기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혈유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수혈유구의 성격과 시기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X:161937 Y:104039~X:161963 Y:104029, X:161953 Y:104021 X:161944 Y:104048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해발고도는 7.5m 내외이며 해안으로부터 약 280m가량 떨어져 있다.

조사대상지가 속해 있는 삼양1동은 제주도의 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조천읍 신촌리, 서쪽으로 삼양2동, 남쪽으로 도련동, 북쪽으로 해안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남서편에 인접하여 음나물내가 남에서 북으로 흘러 해안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봉개동 개월오름(해발 743m) 주변에서 발원한 삼수천(동냉이천) 또한 9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남북방향으로 흘러 바다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남고북저의 지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상층부에 대한 제토작업시 현대건물지의 축조 및 농로, 도로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란 및 복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적 내 퇴적현황은 전체적으로 6개의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층부에는 전체적으로 현대교란층이 자리한다. 이후에 6개의 층위를 보인다. 1층은 부식토 성격의 연등색사질점토(Hue 7.5YR 7/6 10cm 내외)이다. 2층은 사질성분이 강한 등색사질점토(Hue 7.5YR 6/4)이다. 3층은 갈색사질점토(Hue 7.5YR 4/3)로 근세문화층이다. 4층은 연갈색사질점토(Hue 7.5YR 5/4)로 북서편과 북편모서리, 남동편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5층은 명갈색사질점토(Hue 7.5YR 5/6)로 생토층이다. 북편모서리에 한정되어 확인되는 6층은 명황갈색풍화토(Hue 10YR 6/8)로 기반층이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에서는 수혈유구 13기,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북동편과 남편에 치우쳐 균을 이루고 있는데 단독 및 중복상태로 확인된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 및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모두 원형계이다. 크기는 직경 100cm 이하가 3기(2·7·12호, 23%), 150cm 이하가 6기(1·5·9·10·11·13호, 46%), 150cm 이상이 4기(3·4·6·8호, 31%)이다. 소형의 경우 깊이도 얕아 20~27cm 가량이며 유물은 소량의 백자편과 도기편이 출토된다. 소형수혈의 경우 단독적으로 축조되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선축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내부토의 경우에도 부식성토양이 아닌 사질점토가 층을 이루며 퇴적되어 있어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형수혈은 직경 100~150cm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30~50cm의 깊이를 보이고 있다. 유물의 경우에도 소형과 같은 백자편과 도기편이 확인되는데 출입시설(5·10호)이 확인되기도 한다. 대형인 150cm이상은 30~80cm의 깊이를 보이며 출입시설(3·4호)이 확인되며 백자편과 도기편, 근세의 유리파편 등이 출토된다.

· 삼양동유적(1543-13번지) 수혈유구 일람표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규모(cm)			조사내용	출토유물	비고
			장	단	깊이			
1	원형	N23° E	144	134	27		백자편, 도기편	
2	타원형	N15° E	94	81	18		백자편, 도기편	
3	타원형	N29° W	208	185	81	2단 출입시설	백자편, 도기편, 유리파편	
4	원형	N52° W	204	198	68	1단 출입시설	백자편, 도기편, 유리파편	후축
5	(원형)	N52° W	(125)	(53)	32	1단 출입시설	백자편, 도기편	선축
6	(원형)	N27° W	178	(82)	39		백자편, 도기편	후축
7	(원형)	N27° W	(70)		27		백자편, 도기편	선축
8	타원형	N52° W	218	188	78		백자편, 도기편	후축
9	(원형)	N52° W	106	(46)	55		백자편, 도기편	선축
10	원형	N6° W	106	98	50	1단 출입시설	백자편, 도기편	후축
11	원형	N23° W	120	108	28		백자편, 도기편	선축
12	원형	N35° W	96	82	12~23	내부수혈		
13	타원형	N26° E	110	74	26			

앞서 살펴본 수혈유구의 규모로 알 수 있는 것은 수혈의 크기와 깊이가 비례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출입시설의 경우 소형 및 중형보다는 대형에서 많이 확인되는 경향을 보인다. 출입시설의 경우 수혈의 한쪽 면에 편평한 둔덕을 둔 형태로 계단식의 단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 시설물은 수혈유구의 북편 내지는 북동편에 자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토층을 살펴보면 대체로 단일층을 보이고 있어 일시에 폐기된 상태가 확인되는데 수차례에 걸친 퇴적상황이 확인되는 것도 재사용의 흔적이 아니라 외부로 반출되었던 생토가 재차 혼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수혈유구의 중복경향은 비슷한 규모의 수혈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기조성 및 폐기되었던 수혈의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재축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수혈의 출입시설과 깊이 등 내부형태는 경작지의 휴경시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경작 전에 폐기되었던 간이용 저장시설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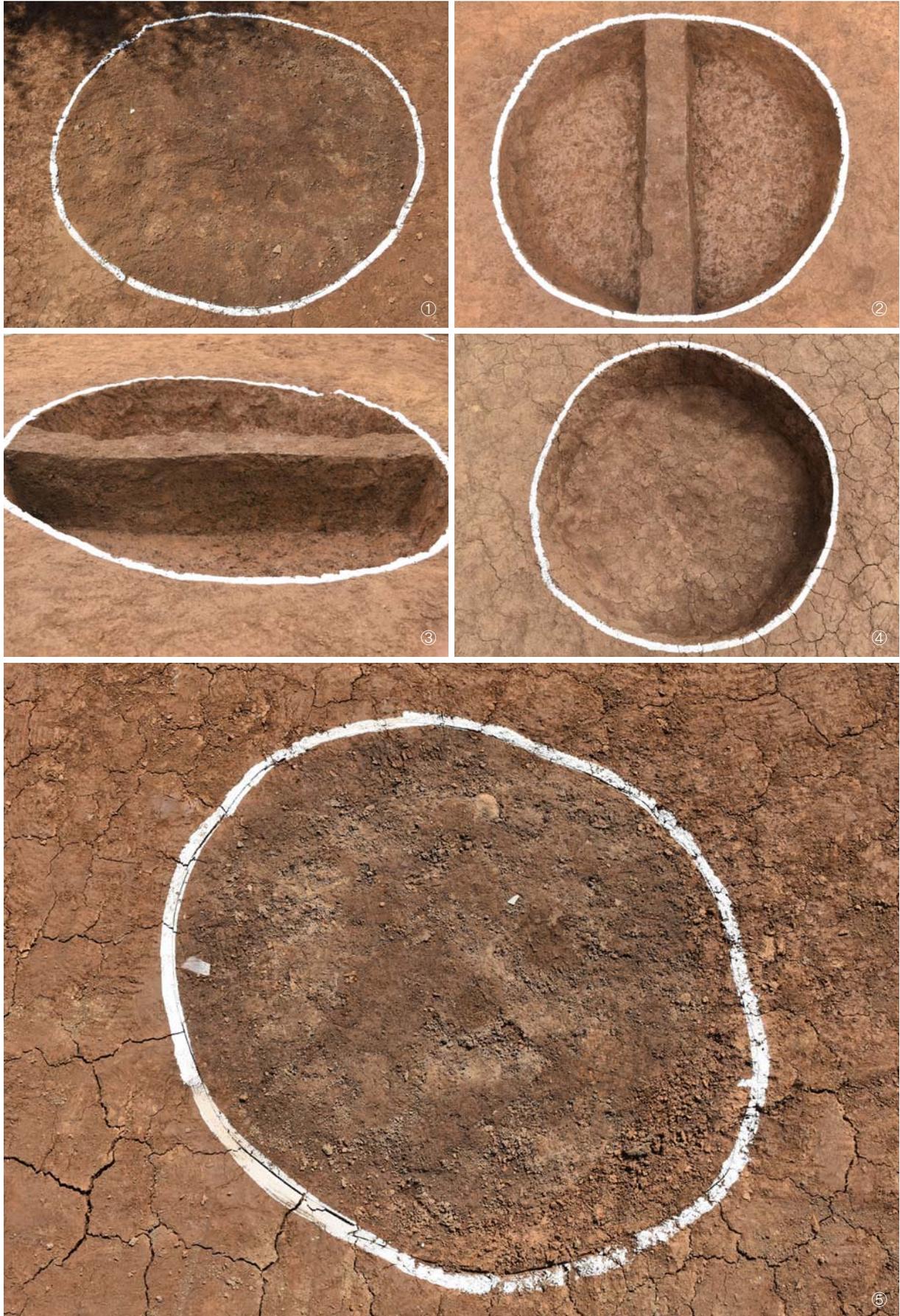
조사대상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로 이해되는 백자편과 도기편 유리병 및 파편 등이다. 이중 백자편과 도기편만 출토되는 유구는 중복수혈의 경우 선축된 경우와 소형수혈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수혈유구가 대형일수록 근세에 해당하는 유리파편 등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수혈의 생성연대 및 폐기연대는 조선시대 후기 및 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형수혈의 경우 선축된 경우가 있고 내부토의 경우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표에서는 청자 및 분청사기편도 확인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삼양동유적으로 대표되는 선사시대 유구의 중요성은 많이 부각되는 것에 비해 현대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근세에 속하는 유구는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세로 이어지는 삼양동유적의 외곽에 대한 경작관련 저장유구가 조사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며 관련 조사 및 자료의 축적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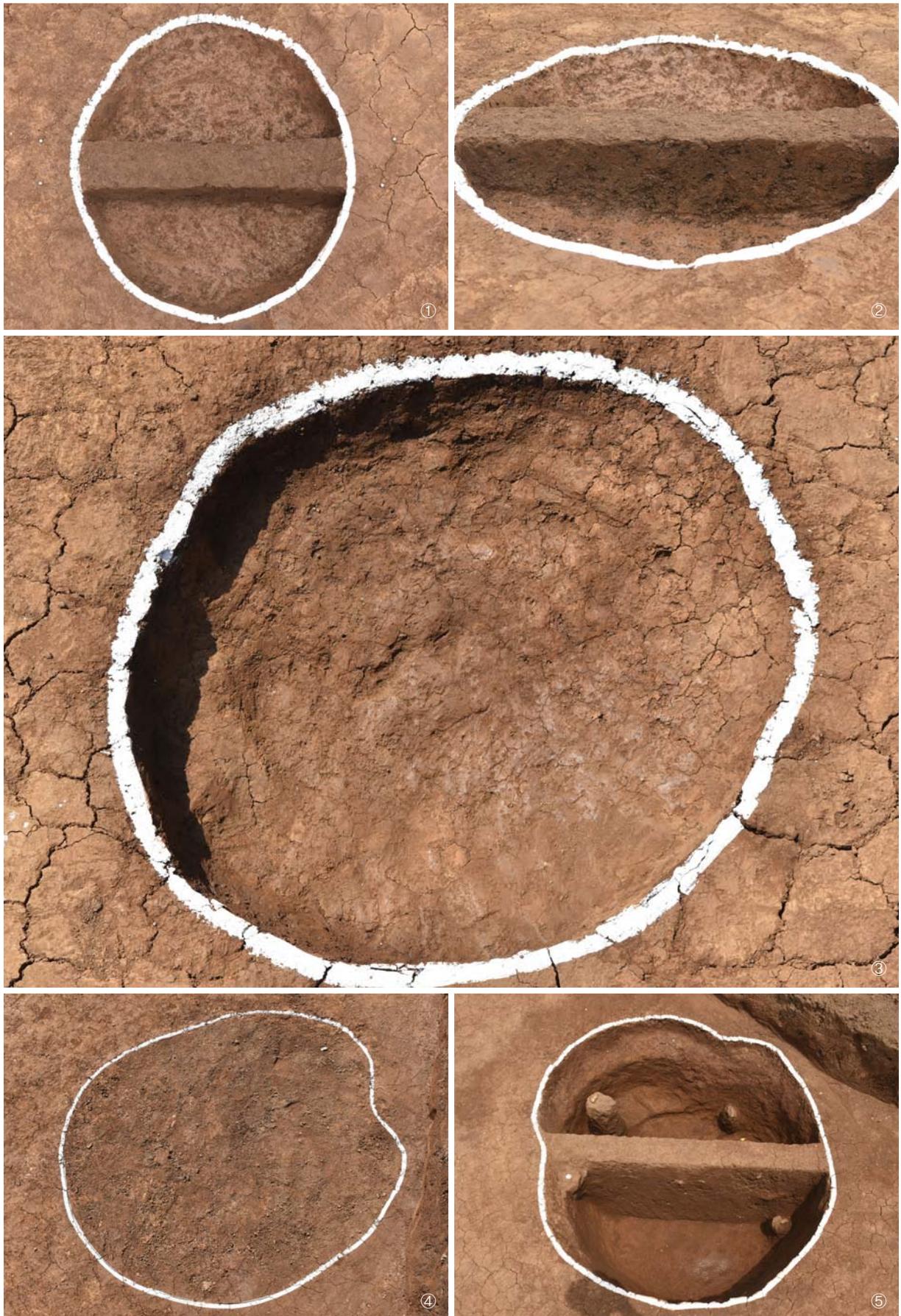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공중사진(①~②:공중사진)



도판 2. 1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전경(남동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③: 토층단면(남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2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전경(북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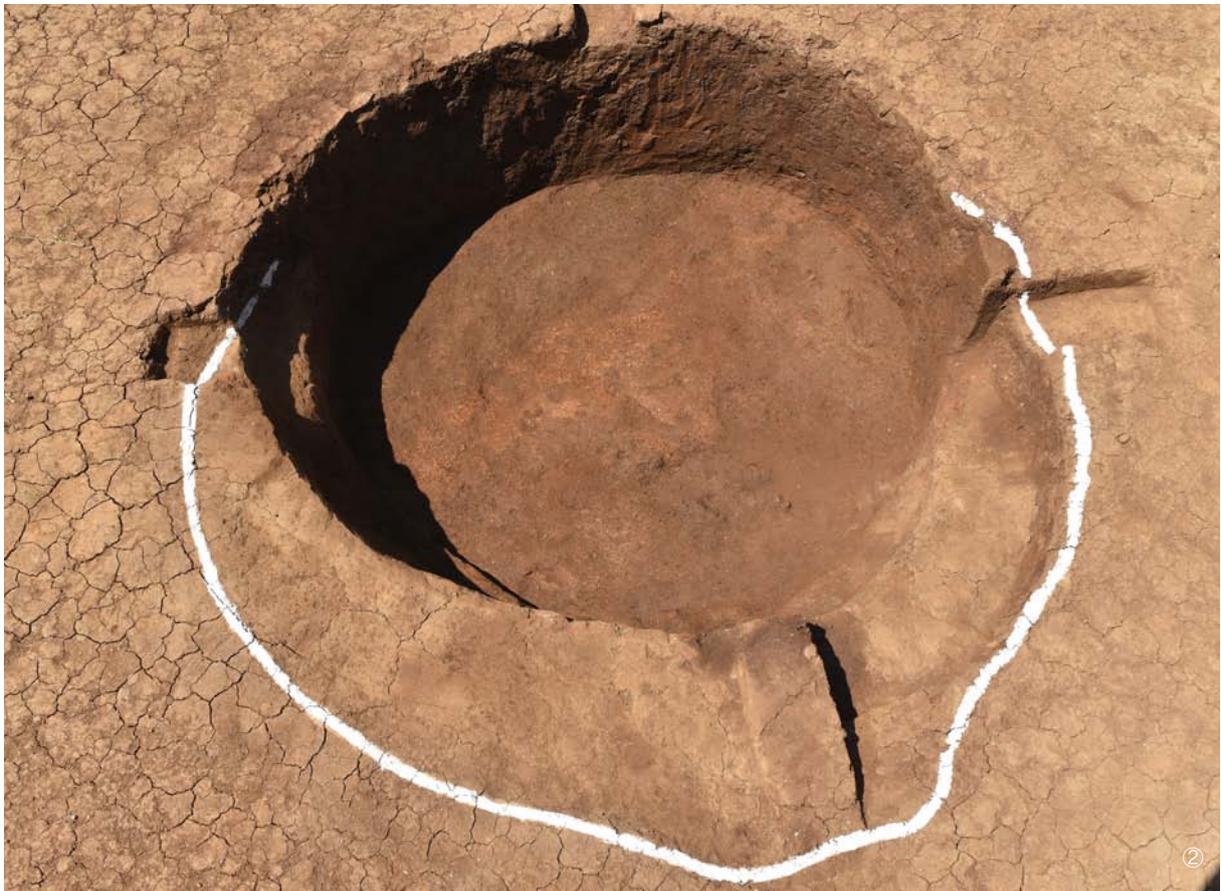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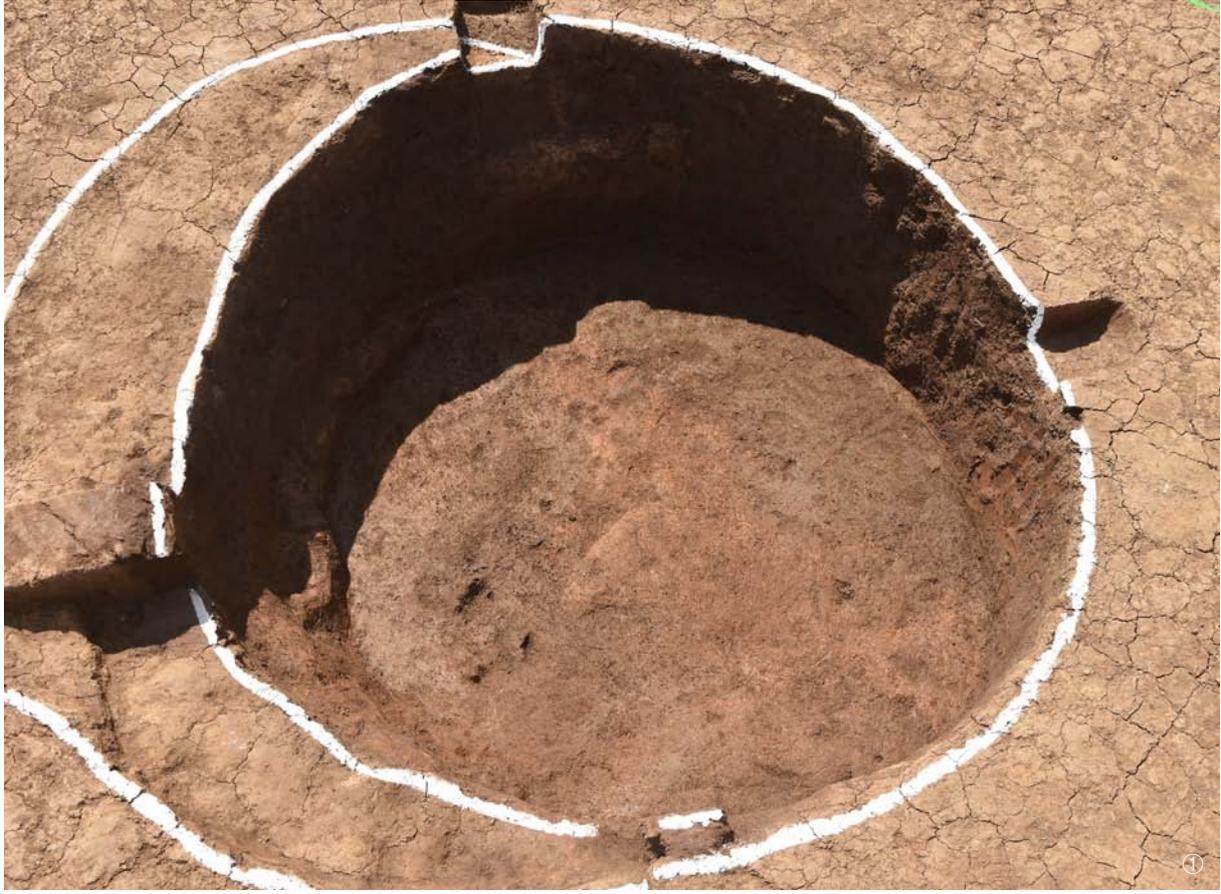
도판 3. 2호 수혈유구(①:1차 조사 후 전경(남에서), ②:토층단면(북에서), ③:조사완료 후 전경(남동에서), 3호 수혈유구 (④:조사 전 전경(동에서), ⑤:1차 조사 후 전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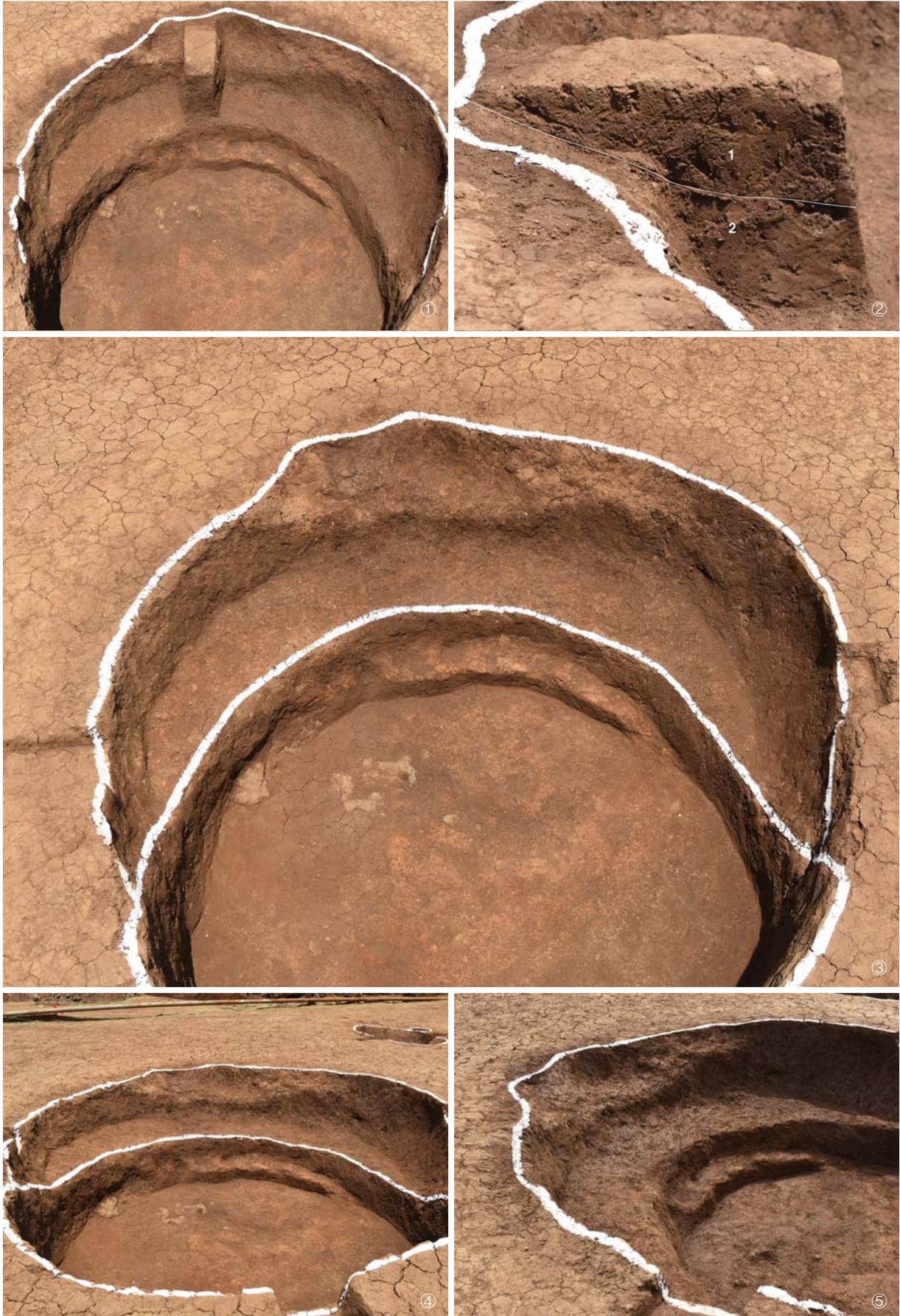
도판 4. 3호 수혈유구(①~④:출토유물, ⑤: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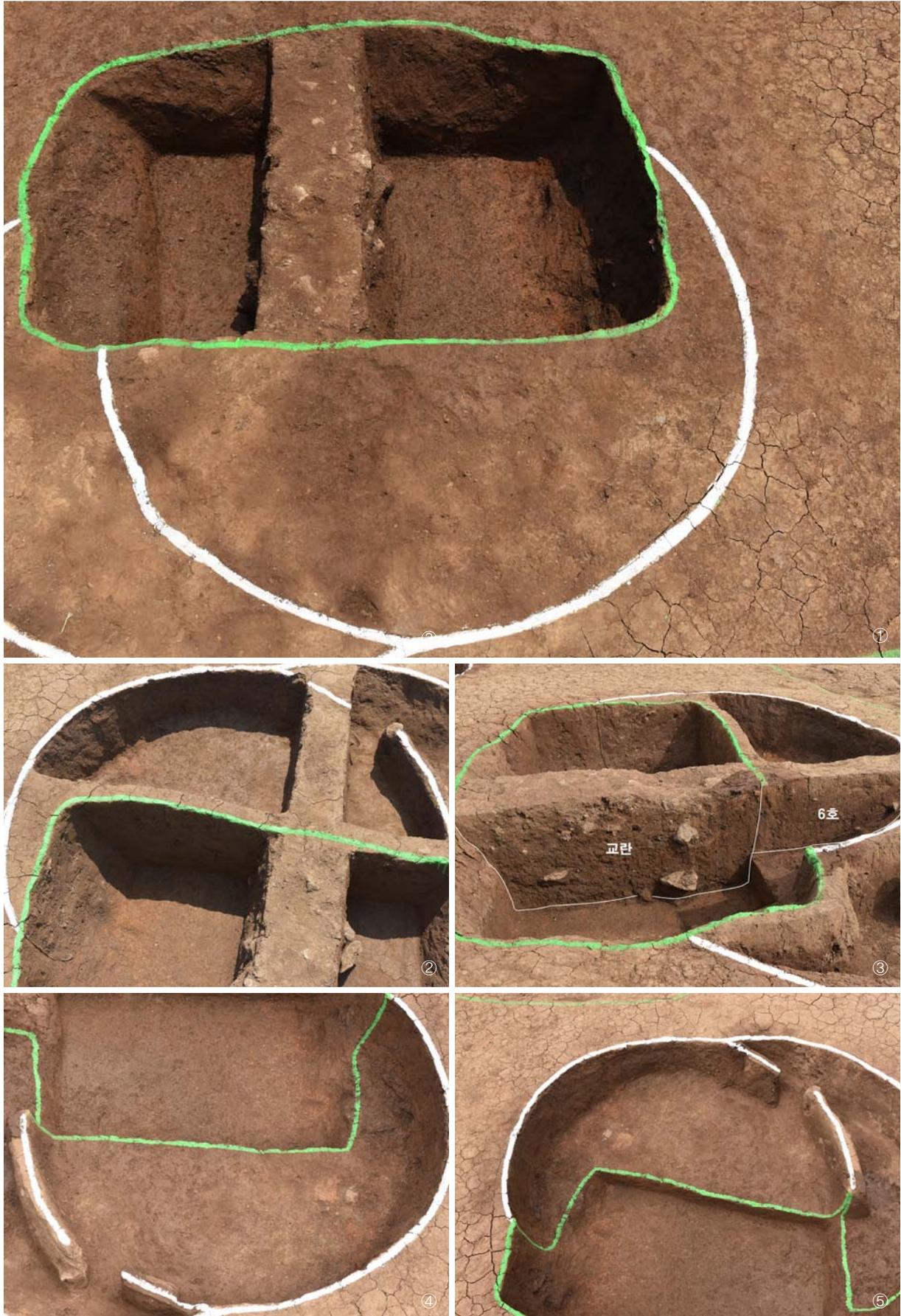
도판 5. 3호 수혈유구(①:벽체 세부 전경(남동에서), 4호 수혈유구(②:조사 전 전경(남동에서), ③:1차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④: 토층단면(남동에서), ⑤: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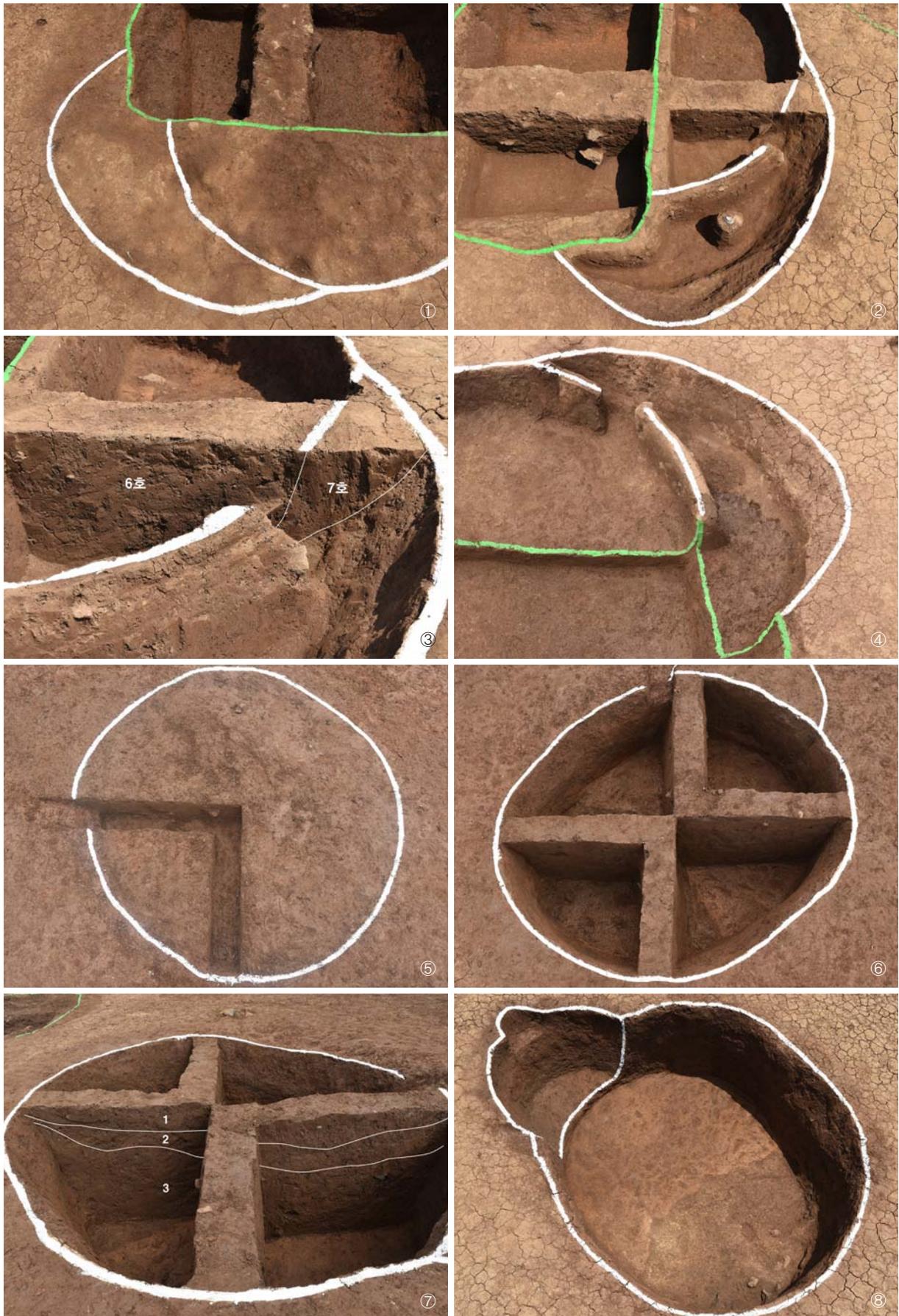
도판 6. 4호 수혈유구(①:조사완료 후 전경(남동에서), 5호 수혈유구(②:조사 전 전경(북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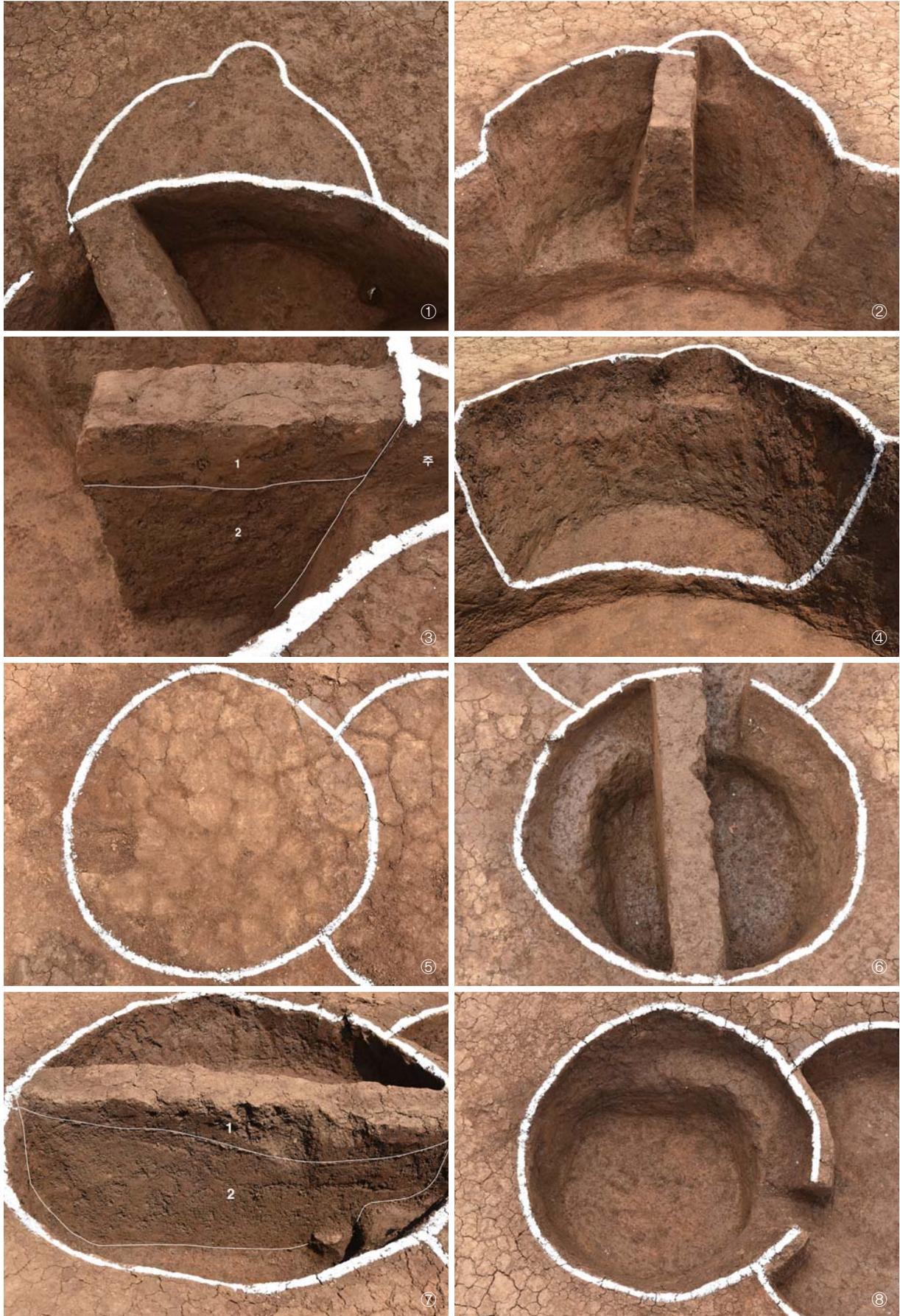
도판 7. 5호 수혈유구(①:1차 조사 후 전경(남서에서), ②:토층단면(북서에서), ③:조사완료 후 전경(남동에서), ④:벽체세부 전경(남서에서), ⑤:벽체세부 전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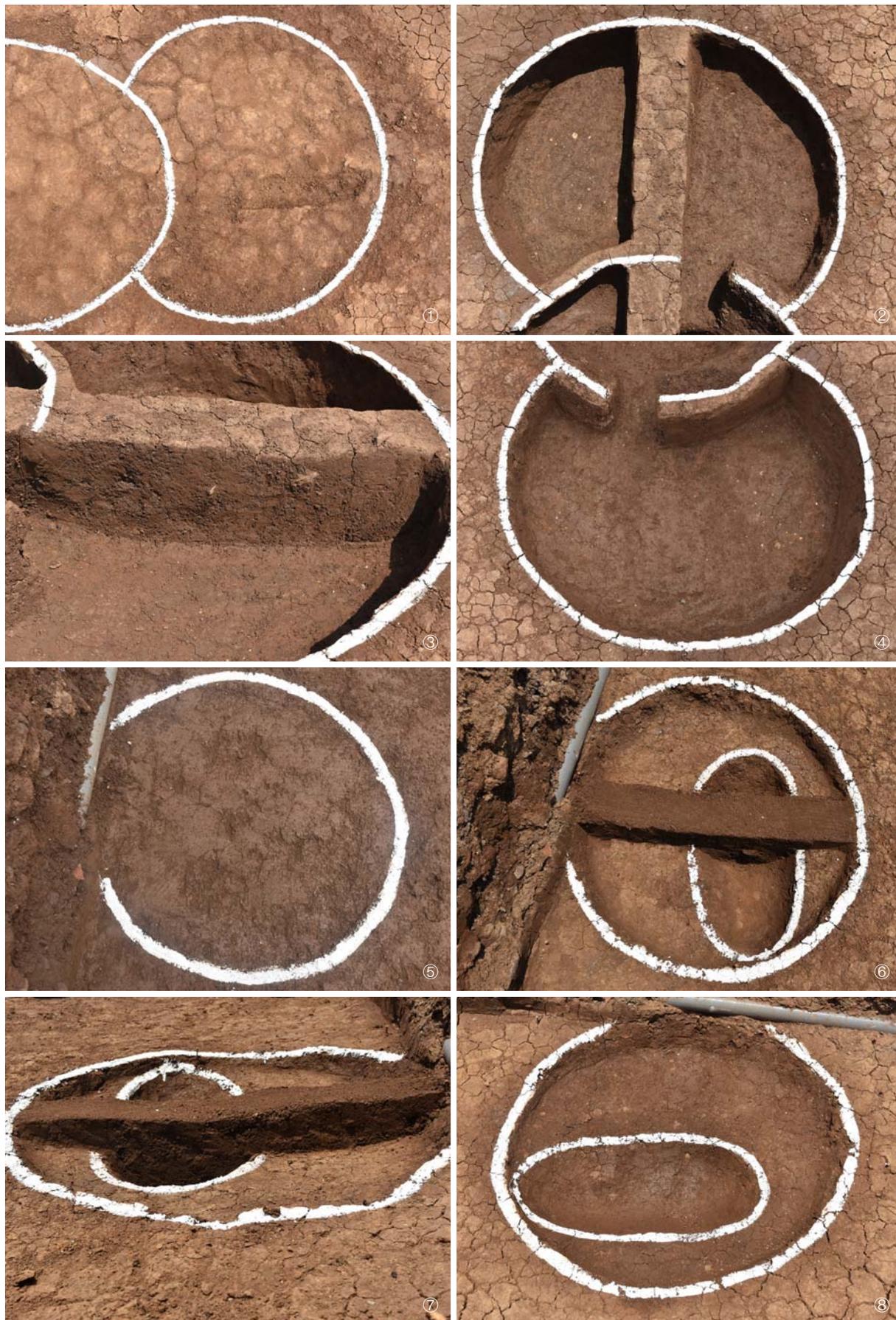
도판 8. 6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전경(남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북동에서), ③:토층단면(남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⑤:조사완료 후 전경(북동에서))



도판 9. 7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전경(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북서에서), ③:토층단면(북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북동에서), 8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전경(북서에서), ⑥:1차 조사 후 전경(서에서), ⑦:토층단면(남동에서), ⑧:조사 완료 후 전경(북서에서)



도판 10. 9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전경(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서에서), ③:토층 단면(남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서에서), 10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전경(남동에서), ⑥:1차 조사 후 전경(북동에서), ⑦:토층단면(북서에서), ⑧:조사완료 후 전경(북서에서))



도판 11. 11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전경(북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북동에서), ③:토층단면(북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12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전경(서에서), ⑥:1차 조사 후 전경(북서에서), ⑦:토층단면(남동에서), ⑧:조사완료 후 전경(남서에서))



도판 12. 13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전경(남서에서), ②:1차 조사 후 전경(남서에서), ③:토층단면(남서에서), ④:조사완료 후 전경(북서에서), ⑤:학술자문회의 모습))

부 록

1. AMS(연대) 분석



1. 시험 및 분석 기관

기관명	(주)카본에널리시스랩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4번길 25 (삼성동11)
전화번호	042-636-3273
시험기관 개요	<p>(주)CAL은 AMS를 이용해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을 수행함에 있어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시간(30분~45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긴 작업을 거치는 화학, 물리전처리(4일~5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임.</p> <p>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삼양 일동 1543-13번지 유적 발굴조사에 관하여 의뢰한 3건의 목탄시료는 물리전처리, 화학전처리, 흑연화 과정을 거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AMS측정을 의뢰하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연대보정 및 분석을 함.</p>

2. AMS시험 측정기관

기관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화번호	042-868-3392
시험기관 개요	<p>지질자원분석실은 현재 10여명 연구원이 수십 종의 첨단분석장비를 갖추고 매년 15,000여개 이상의 각종 지질 환경 및 소재 관련 시료들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광물감정 및 물성측정,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지원하고 있음.</p> <p>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을 이용하여 ^{12}C, ^{13}C, ^{14}C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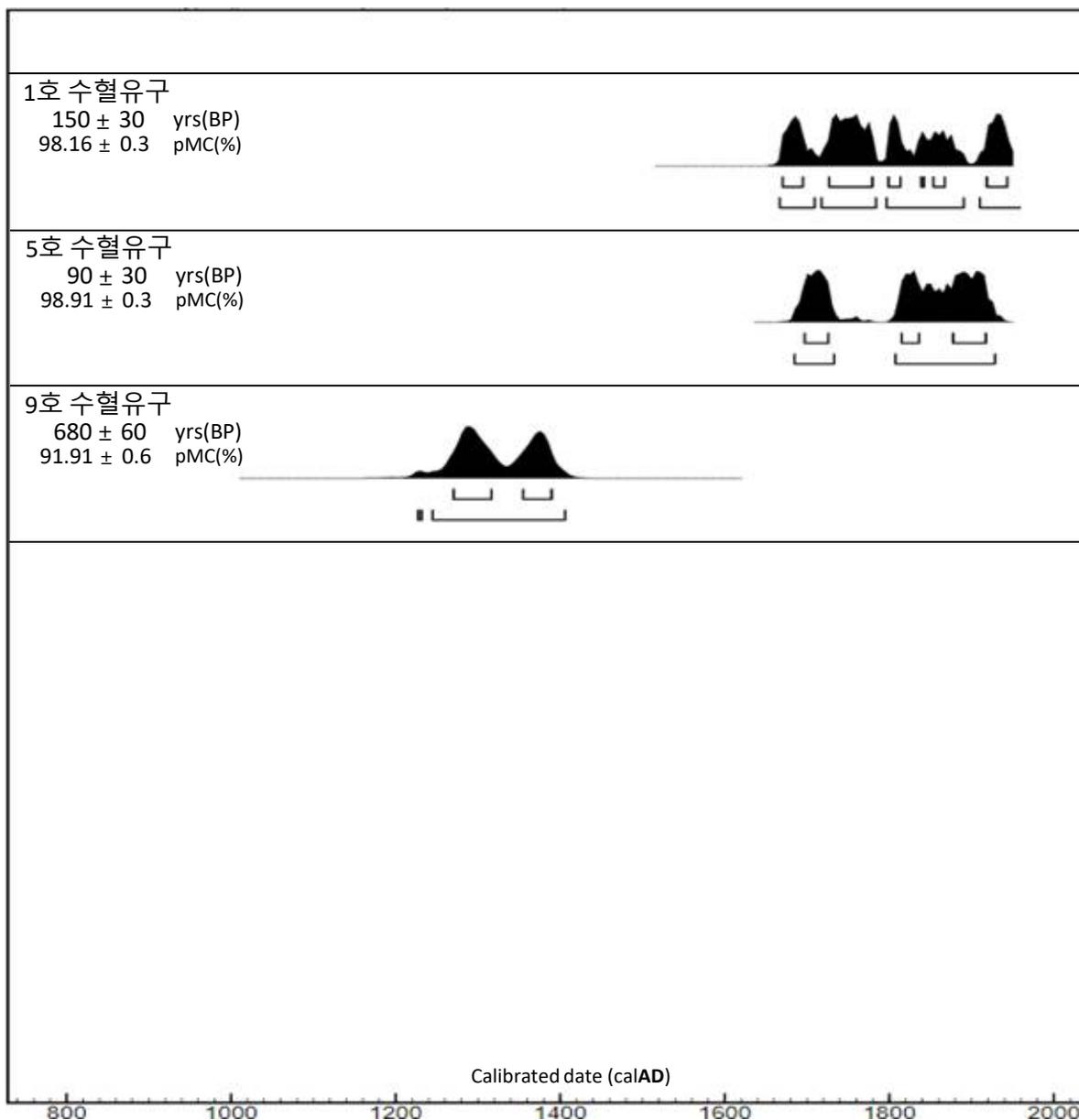
2019. 08. 06.

(주)카본에널리시스랩 대표이사 성 기 석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요약서

의뢰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Carbon Analysis Lab.

보고일 2019-08-06
시료접수 완료일 2019-06-21



Radio carbon dating service + FCF measurement service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4번길 25 2층 www.cal.re.kr
 T 042 636 3273 F 042 637 3273 sungks3273@gmail.com

전처리과정 보고서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1호 수혈유구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염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68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53 torr
 환원실험 시간 : 219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19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7-1	49.5	0.24	-14.01	-509.1	340.2	2160
IAEA C8-1	14.93	0.13	-17.82	-851.97	313.3	2160
IAEA C7-2	49.34	0.23	-12.97	-510.66	367.1	2160
IAEA C8-3	15.31	0.12	-16.13	-848.13	351.6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 료 명 : 1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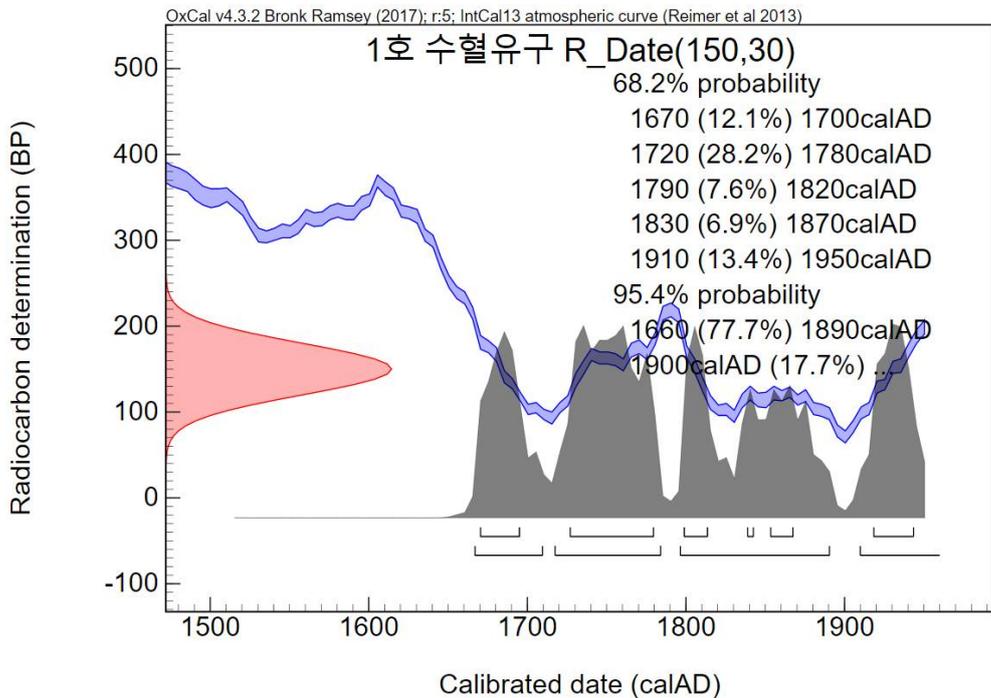
의 료 일 : 2019-06-21

의 료 인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보 고 일 : 2019-08-06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150	30	120 ~ 180	98.16	0.35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2.5	0.32	-26.51	3.5	355.6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AD 1660 ~ AD 1890(77.7%)
AD 1900 ~ The present(17.7%)

1 Sigma 보정 결과(68.2%)

AD 1670 ~ AD 1700(12.1%)
 AD 1720 ~ AD 1780(28.2%)
 AD 1790 ~ AD 1820(7.6%)
 AD 1830 ~ AD 1870(6.9%)
 AD 1910 ~ AD 1950(13.4%)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 et. Al., 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 et. al., 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전처리과정 보고서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5호 수혈유구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염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11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53 torr
 환원실험 시간 : 219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18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7-1	49.5	0.24	-14.01	-509.1	340.2	2160
IAEA C8-1	14.93	0.13	-17.82	-851.97	313.3	2160
IAEA C7-2	49.34	0.23	-12.97	-510.66	367.1	2160
IAEA C8-3	15.31	0.12	-16.13	-848.13	351.6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 료 명 : 5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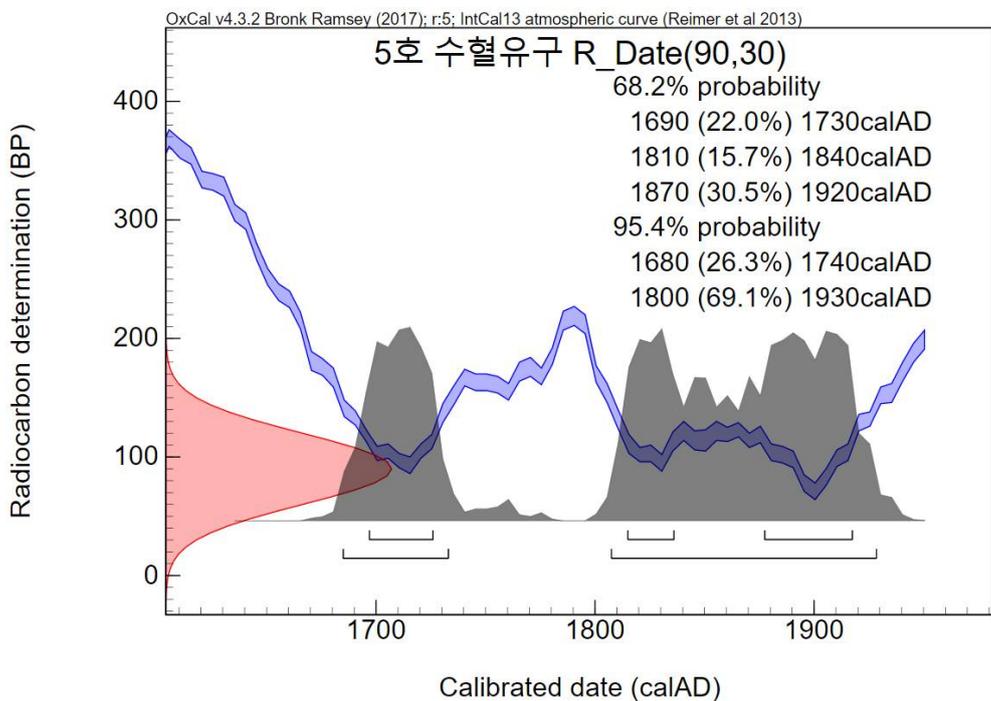
의 료 일 : 2019-06-21

의 료 인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보 고 일 : 2019-08-06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90	30	60 ~ 120	98.91	0.38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5.66	1.36	-19.1	3.75	303.6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AD 1680 ~ AD 1740(26.3%)

AD 1800 ~ AD 1930(69.1%)

1 Sigma 보정 결과(68.2%)

AD 1690 ~ AD 1730(22.0%)

AD 1810 ~ AD 1840(15.7%)

AD 1870 ~ AD 1920(30.5%)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 et. Al., 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 et. al., 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전처리과정 보고서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9호 수혈유구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염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43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35 torr
 환원실험 시간 : 219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0.16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7-1	49.5	0.24	-14.01	-509.1	340.2	2160
IAEA C8-1	14.93	0.13	-17.82	-851.97	313.3	2160
IAEA C7-2	49.34	0.23	-12.97	-510.66	367.1	2160
IAEA C8-3	15.31	0.12	-16.13	-848.13	351.6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 료 명 : 9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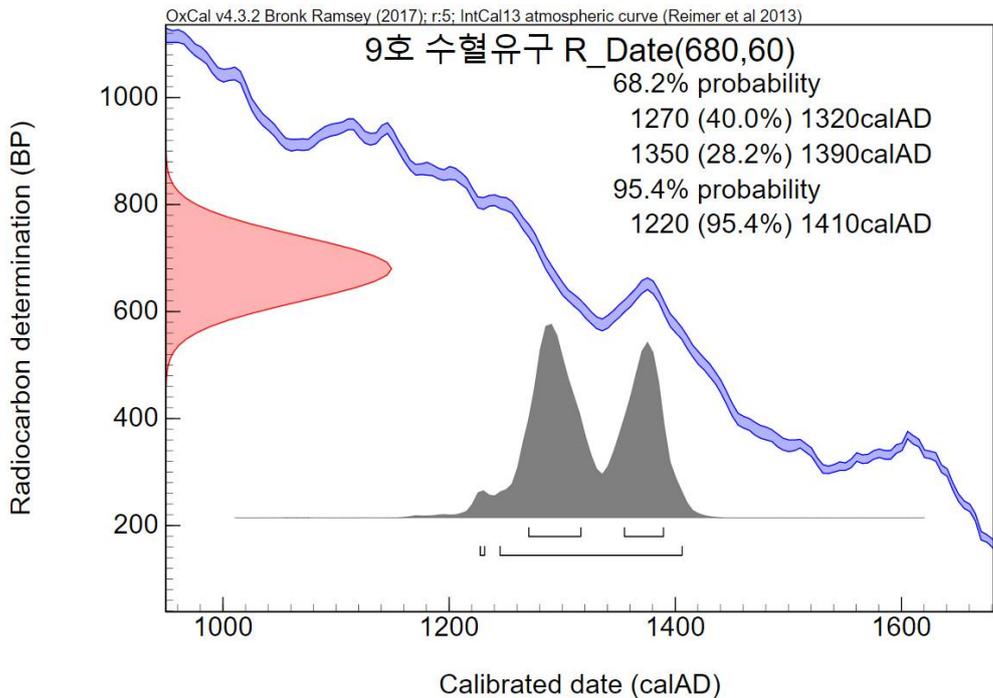
의 료 일 : 2019-06-21

의 료 인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보 고 일 : 2019-08-06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680	60	620 ~ 740	91.91	0.62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2.46	6.97	-88.54	6.18	85.9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AD 1220 ~ AD 1410(95.4%)

1 Sigma 보정 결과(68.2%)

AD 1270 ~ AD 1320(40.0%)

AD 1350 ~ AD 1390(28.2%)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 et. Al., 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 et. al., 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2. 학술자문회의의 의견서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명칭	제주시 삼양일동 1543-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소규모문화재 발굴조사(발굴허가 2019-0631호)		
유적위치	제주시 삼양일동 1543-13번지		
조사면적	339.6㎡	조사기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기간	2019년 6월 3일~2019년 7월 12일	회의 일시	2019년 6월 17일 11:30
유적현황 및 성격	<p>· 급변 조사한 삼양일동 1543-13번지 내 유적에서는 수혈유구 13기, 주혈이 확인되었음. 주혈은 시기적으로 수혈유구보다 앞선 시기 것이고 수혈은 근배유구로 저장 시설(경상관)으로 판단됨.</p>		
조사기관 검토의견	<p>· 조사기관의 의견이 타당하리 여겨짐.</p>		
추가 의견	<p>· 기록 보존을 철저히 진행하고 공사를 시행해도 큰 우려가 없음.</p>		
자 문 위 원			
소 속	전공 전문분야	김창성 2명	
(재)제주고고학연구소	고고학	김창하 김창현	
국립제주박물관	고고학	김현희 김현우	
2019년 6월 17일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귀하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 유적			發行日	2021년 6월 4일
發行機關	名稱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住所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2길 3			
	TEL	(064) 712-8362~3	FAX	(064) 712-8361	
執筆·編輯者	고재원, 김경주, 방문배, 현승룡, 이성건				
調査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문화재 소규모 정밀발굴조사				
發掘調査者	고재원, 김경주, 방문배, 현승룡, 이성건				
所在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543-13번지				
調査面積	339.6㎡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유구	조선말기~일제강점기	13	-		

89.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유적



원색도판 1. 조사대상지 토층(①A2-B2 pit 북벽, ②A3-B3 pit 북벽, ③A1 pit 동벽, ④A2 pit 동벽, ⑤A3 pit 동벽, ⑥B2 pit 서벽)



원색도판 2. 조사대상지 출토 선문토기류 일괄



원색도판 3. 조사대상지 수습 패각류 각종

목 차

I. 조사개요	89-9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89-11
III. 조사내용	89-17
1. 시굴조사	89-17
2. 발굴조사	89-17
가. 조선시대	89-23
나. 신석기시대	89-24
다. 유물	89-24
IV. 조사성과	89-35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89-13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89-14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89-16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89-18
도면 5.	발굴조사 그리드구획도	89-20
도면 6.	조사대상지 토층도	89-21
도면 7.	출토유물(A1 pit : 1~4, A2 pit : 5, A3 pit : 6·7, B1 pit : 8, B2 pit : 9·10)	89-26
도면 8.	출토유물(B2 pit : 11·12, B3 pit : 13~17)	89-28
도면 9.	출토유물(B3 pit : 18) 및 수습유물(19~25)	89-31
도면 10.	수습유물(26~33)	89-33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원경(①항공촬영), 시굴조사후 전경(②항공촬영)	89-39
도판 2.	트렌치 1 토층(①북장벽, ②북장벽 세부, ③남장벽, ④남장벽 세부), 트렌치 2(⑤조사후(S→N), ⑥동장벽 토층, ⑦동장벽 토층 세부)	89-40
도판 3.	발굴조사 표토 및 잡풀 제거후(①E→W, ②N→S)	89-41
도판 4.	조선시대 패각층 조사중(①E→W, ②N→S)	89-42
도판 5.	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중(①E→W, ②N→S)	89-43
도판 6.	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①E→W, ②N→S)	89-44
도판 7.	조사완료 후 전경(①E→W, ②N→S)	89-45
도판 8.	동-서 토층(①A2-B2 pit 북벽, ②A3-B3 pit 북벽, ③A1 pit 동벽, ④A2 pit 동벽, ⑤A3 pit 동벽, ⑥B2 pit 서벽)	89-46
도판 9.	A1 pit(①조선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②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③조사완료후(E→W), ④~⑥신석기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1~4 : 출토유물)	89-47
도판 10.	A2 pit(①조선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②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③조사완료후(E→W), ④조선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⑤신석기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5 : 출토유물), A3 pit(⑥조선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⑦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E→W))	89-48
도판 11.	A3 pit(①조선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6·7 : 출토유물), B1 pit(②조선시대 패각층 조사중(E→W), ③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④신석기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8 : 출토유물), B2 pit 조선시대 패각층 조사중(⑤E→W)	89-49
도판 12.	B2 pit(①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중(S→N)), ②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S→N), ③④조선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⑤⑥신석기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9~11 : 출토유물)	89-50
도판 13.	B3 pit(①조선시대 패각층 조사중(S→N), ②신석시대 패각층 조사중(S→N), ③자연퇴적층 조사중(S→N), ④서벽토층, 13~18 : 출토유물)	89-51
도판 14.	수습유물(19~33)	89-52
도판 15.	신석기시대 혼토판각층에서 확인된 패각(①②샘플링)	89-53
도판 16.	학술자문회의 광경(①②)	89-54

I.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700-2번지로 사업시행자 김영희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85㎡)이다. 조사 경위와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주택 신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강서구청은 신청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므로 착공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동법 제14조에 의거한 문화재청의 보존조치에 따를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을 통하여 확인하고, 2019년 4월 24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전자행정 협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 재단에 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본 재단에서는 2019년 4월 29일에 시굴조사 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5월 10일에 현장조사일수 1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9-546호)를 받았다.

시굴조사는 2019년 5월 10일(현장조사일수 1일)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전면에서 혼토폜각층과 패각층 등 패층 관련유구가 확인되어 조사대상지 전면(85㎡)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¹⁾

정밀발굴조사 세부계획서는 2019년 5월 20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5월 23일에 현장조사일수 7일에 대한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2019년 5월 28일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혼토폜각층과 조선시대 혼토폜각층 등 2개의 혼토폜각층이 확인되었다.

2019년 6월 12일에 개최한 학술자문회의²⁾에서는 신석기시대 혼토폜각층 하부에서 확인된 퇴적층도 신석기시대 문화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혼토폜각층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퇴적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완료 후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철저히 기록 보존하고 공사는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본 조사단에서는 학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신석기시대 혼토폜각층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퇴적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퇴적층은 자연퇴적층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 6월 24일(현장조사일수 14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직명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사단장	박강민(조사연구1팀장)	박강민(조사연구1팀장)
책임조사원	박강민(조사연구1팀장)	박강민(조사연구1팀장)
조사원	박무식(조사연구1팀 연구원)	박무식(조사연구1팀 연구원)
준조사원	황원우(조사연구1팀 연구원)	이지은(조사연구1팀 연구원)
보조원	-	황원우(조사연구1팀 연구원)

*()는 조사당시 직명임

1) 한국문화재단, 2019, 「소규모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2) 학술자문회의의 위원 : 임상택(부산대학교 교수), 최종혁(부경전문물연구원 원장)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남수희, 김유정, 운영경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박무식, 강성귀, 황원우, 남수희가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은 석진화(꿈꾸는 스튜디오 몽)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강민 책임 하에 I·II장 박무식, III장 박무식(조사내용)·강성귀(유물), IV장 박무식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700-2번지이며, 경·위도상 동경 128° 53'5.3", 북위 35° 9'54.6"에 해당한다. 녹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락대로를 따라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조만포삼거리에서 수가로를 따라 북쪽으로 200m 정도 진행하면 나타나는 가동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조사 전 공지인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조사대상지 내 북동쪽에는 1.7~1.8m 정도 높이의 축대가 너비 1.8m 정도로 조성되어 있었다. 동쪽과 서쪽은 도로(수가로748번길), 남쪽과 북쪽은 공지와 접해 있었다.

자연·지리적 환경³⁾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는 금병산(241m)의 북쪽 사면부에 해당하며, 해발 8~12.1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250m 정도 떨어져 서낙동강의 지류인 조만강이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만곡하여 흐르며, 강 건너에는 넓은 평야가 조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동쪽은 북구와 사하구, 서쪽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창원시 진해구, 북쪽은 김해시 대동면과 접하고, 남쪽은 남해에 접한다. 강서구 지역은 대부분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 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구의 동쪽을 흐르는 낙동강은 크게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으로 구분된다. 원래 2개의 큰 유로가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농지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낙동강 본류의 우안에 제방을 쌓고 대저 수문과 녹산 수문을 설치하면서 서낙동강이 지류가 되었다. 경사가 완만하고 운반하는 토사량이 많을 뿐 아니라 조수 간만의 차이가 적어 퇴적으로 인한 삼각주 지형이 발달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구의 서쪽에는 창원시 진해구와 경계를 이루는 보개산(479m)과 굴암산(662m)이 있으며, 가덕도에는 천가산이 있다. 보개산은 장년 산지인 굴암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등선으로, 바다를 건너 가덕도가 되고 동쪽으로는 봉화산으로 이어져 서낙동강에서 끝난다. 굴암산은 신어 산계에 속하며 산세가 험하다. 장년 산지로 동쪽으로는 고평 고개를 지나 옥녀봉에 이어지고, 남동쪽으로 보개산과 연결된다.

강서구 일원의 김해평야는 과거엔 바다였다고 추정되는 古김해만의 남서쪽 외연에 위치한 곳으로 낙동강 수계를 이용해 김해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한다.

역사적 환경⁴⁾을 살펴보면, 강서구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사료에 따르면 강서구와 김해 일대가 구사국(구야국)·금관국·대가락·가야국 등으로 불리었고, 금관가야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한시대 변진의 교역로는 오늘날 김해시·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류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역로는 허왕후의 초행길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서구와 인접한 김해는 940년(태조 23년)에 김해부로 되었다가, 995년(성종 14년)에 금주안동도호부로 승격되고, 1002년(목종 5년)에 대도호부로 승격됨으로써 이 지역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준다.

3) 자연·지리적 환경은 『강서구지』(강서구지편찬위원회, 1993)를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4) 역사적 환경은 『金海陶藝村豫定地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昌原大學校博物館, 2001)를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1276년(충렬왕 2년)에 부의 민이 안렴사 유호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309년(충선왕 원년)에는 목으로 승격되었다. 1311년(충선왕 3년) 8월에 부로 개칭되었다. 이처럼 강서구는 김해의 위상변화에 따라 많은 부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후기 김해는 원의 일본 동정에 필요한 군사적 기반인 둔전이 설치된 곳이었다. 원나라는 김해에서 여진의 사람 조양필을 국신사로 삼아 2차에 걸쳐 파견하였고, 한편 일본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군사 5,000여 명을 이곳에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김해의 관문 역할을 하였던 곳이 오늘날의 강서구이므로 이곳은 고려 후기 대일교섭의 진전기지였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들어 1413년(태종 13년)에 김해가 도호부로 편재되었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에 따르면 봉수대가 강서구 녹산의 성화예산과 가덕도의 천성연대봉에 설치되었고, 1485년(성종 16년)에는 녹산의 금단곶보에 석성을 쌓기도 하였다.

1544년(중종 39년)에는 가덕도에 가덕진과 천성만호진을 설치하였는데, 임진왜란 후에 안골포로 이전하였다가 1656년(효종 7년)에 다시 가덕도로 옮겼다. 이처럼 오늘날의 강서지역은 조선시대 군사의 거점지역으로 대외방어기지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많은 왜성을 쌓았는데, 이 지역의 죽도와 가덕도의 성북리와 놀차리에도 왜성이 건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하기 전에는 녹산동 구렁에 왜인이 드나들던 수참왜관이 있기도 하였다.

1906년(광무 10년)에 양산군 대저면이 김해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8년에 읍면 통합으로 김해군 대저면·가락면·명지면·녹산면 및 창원군 천가면이 되었다.

강서구의 대부분 지역이 1970년대까지 김해군과 의창군에 속했으나 김해군의 일부 지역이 1978년에 부산시의 시역확장으로 복구에 편입되었다. 1983년에 시직할출장소로 독립하였고, 1989년에 김해군 가락면·녹산면과 의창군 천가면이 편입되어 구로 승격되었다.

고고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는 부산 범방동 가동패총(구 수가리패총)⁵⁾ 분포범위 내 동쪽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된 유적은 서쪽 490m 거리에 신석기시대 패총이 확인된 부산 가동패총 유적,⁶⁾ 서쪽 1.8km 거리에 신석기시대 유적인 수가리 본동패총⁷⁾이 위치하고 있다. ‘수가리 본동패총’ 동쪽에 인접한

5) 昌原文化財研究所·東亞大學校 博物館, 1993, 『金官伽倻圈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

김해 수가리 패총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유적은 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부산시에 편입, 부산 범방동 가동패총으로 명명되었다. 1970년대 초기부터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한 남해안 선사유적 지표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釜山大學校 博物館, 1981, 『金海 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 博物館, 2011, 『水佳里貝塚 II』.

유적은 동쪽부터 차례대로 1~5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신석기시대 노지 4기와 석조유구 1기 등의 유구와 함께 신석기시대 패각층과 삼한시대 패각층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신석기시대 즐문토기, 석기, 방추차, 골각기 등과 삼한시대 연질토기,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즐문토기는 신석기시대 중·말기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동삼동의 조개더미 상층의 출토유물과 비슷한 성격을 띠며, 능형집선문, 삼각집선문, 제형집선문, 횡주어골문 등의 직선적인 침선문과 구연부에 단사선이 시문된 I기, 사격자문토기를 지표로 하는 II기, 울리식토기, 암남동 패총, 농소리패총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신석기시대 말기 III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김해 수가동 326-3번지 시굴조사⁸⁾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바 있다.

주변유적 분포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부산 범방동 가동 패총	조사 대상지 포함	신석기시대 패총	釜山大學校博物館, 1981, 『金海 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博物館, 2011, 『水佳里貝塚 II』	
2	부산 가동패총	북서쪽 490m	신석기시대 패총	蔚山文化財研究院, 2014, 『釜山佳洞貝塚』	
3	부산 강서구 범방동 1602-1번지 일원 우량농지 개발사업 부지 내 유적	북서쪽 220m	신석기시대 패총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20, 『부산 강서구 범방동 1602-1번지 일원 우량농지 개발사업 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4	부산 범방패총	남쪽 1.0km	신석기시대 패총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3, 『凡方貝塚 I』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6, 『凡方貝塚 II』	시도기념물 제44호
5	부산 범방유적	남서쪽 770m	신석기시대 노지, 적석유구, 패총	부산박물관, 2009, 『부산 아시안게임 승마장 내 凡方遺蹟』	
6	부산 사구패총	남쪽 880m	시대미상 패총	부산광역시립박물관, 2009,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조성사업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 부산광역시립박물관, 2014,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 조사 완료 결과 약식보고서』	

6)蔚山文化財研究院, 2014, 『釜山佳洞貝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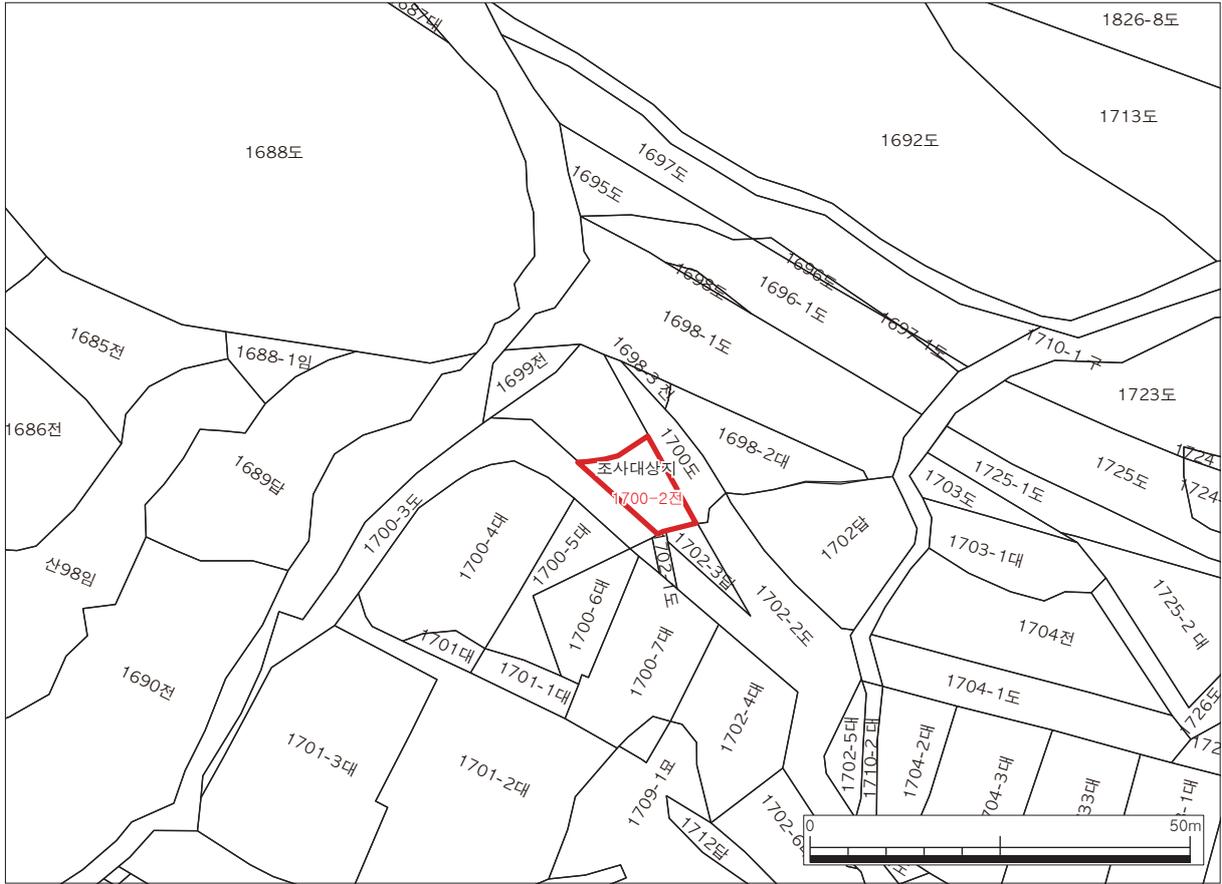
부산 범방동 가동패총(구 수가리패총)의 분포범위 내 서쪽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5기와 유물포함층 2개층이 확인되었으며, 즐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과 AMS연대 측정결과로 볼 때 유적의 시기는 신석기시대 후기 후반~만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 동서문화재연구원, 2006, 『남해고속도로(서김해-사상간) 확장사업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윗수가리 일대가 유적 중심부로 민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마을 진입로 민가 주변과 뒤쪽 구릉사면 주변으로 패각과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패각의 종류는 굴 껍데기가 대부분이며, 어골류도 보인다. 시기는 수가리패총과 동일한 시기로 추정된다.

8) 두류문화연구원, 2018, 『김해 수가동 326-3번지 유적-김해 수가동(326-3번지) 근린생활 신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시굴조사에서는 총 11개소의 트렌치를 등고선과 직교되게 설치하였고, 그 결과, 현 표토인 경작층 아래에서 기반층인 황갈색 풍화암반층이 바로 확인되었으며, 자연 퇴적층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자연 곡부의 영향으로 문화층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시굴조사

시굴조사를 위한 트렌치는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지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트렌치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전 지표상에 혼토판각층이 일부 확인되어 조사대상지 중앙부와 북쪽을 중심으로 수풀 및 표토를 제거한 후 혼토판각층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혼토판각층은 조사대상지 중앙부에서 북쪽 경계부 밖으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확인된 혼토판각층의 깊이와 하부 문화층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지 북쪽 경계부를 따라 동-서 방향의 트렌치 1개소(트렌치 1)와 확인된 혼토판각층의 남쪽에 남-북 방향의 트렌치 1개소(트렌치 2)를 설치하였다.

트렌치의 제토 및 유구 확인은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하면서 실시하였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생토층까지 제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토는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토층 퇴적양상과 유구 및 유물의 유존여부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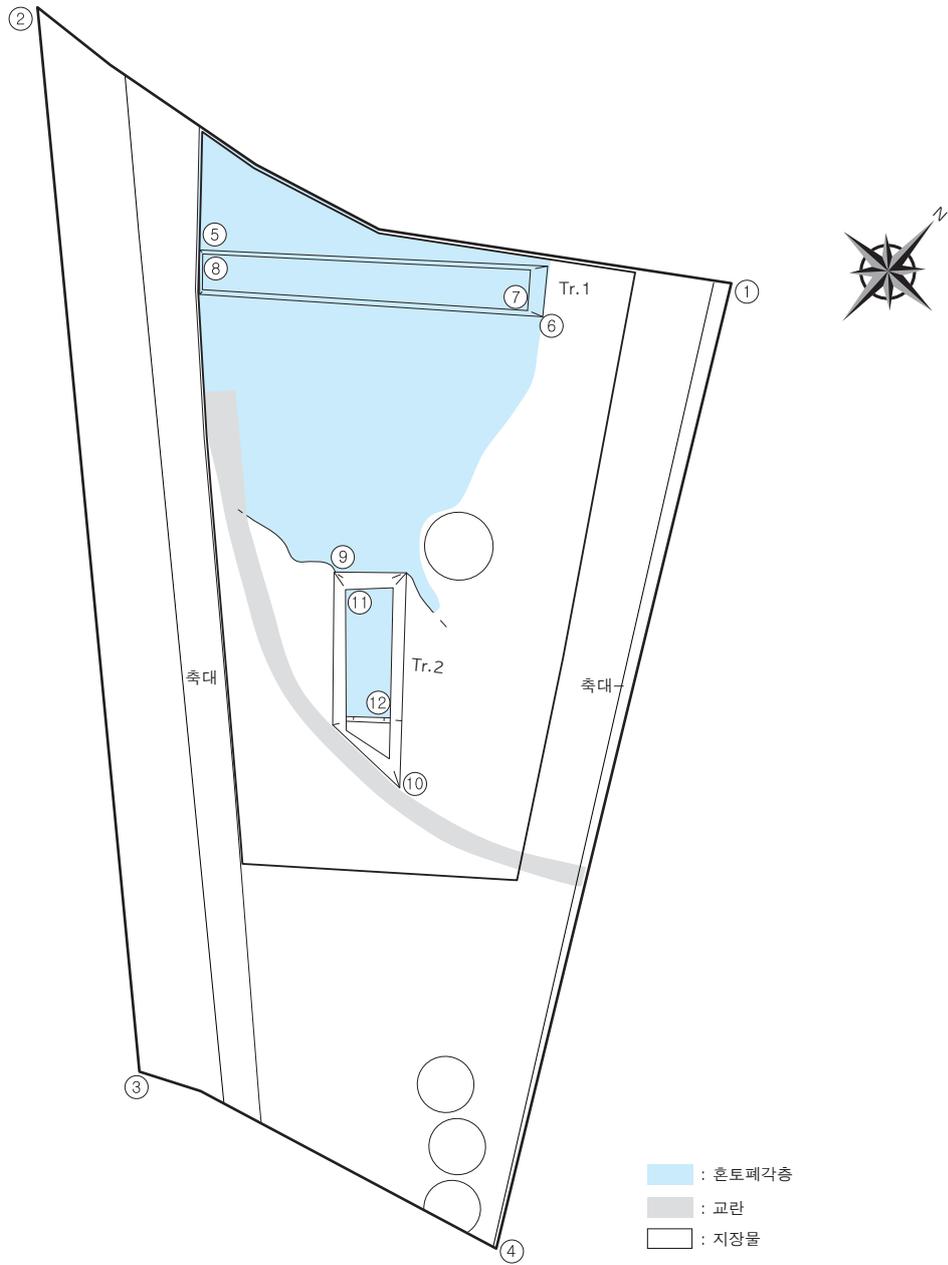
【표 2】 시굴조사 트렌치 속성표

트렌치 번호	규모 (cm)			장축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470	60	80	동-서	혼토판각층	-
2	300	90	70	남-북	혼토판각층	-

조사결과, 트렌치 1과 2에서는 혼토판각층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과 조선시대 분청사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 전체 면적 (85㎡)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였다.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시 지표상에서 혼토판각층이 확인되어 먼저, 수풀 및 표토층을 제거한 다음 조사대상지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임의의 기준점을 설치한 후 남-북, 동-서 방향의 4~5×2~5m 정도의 그리드를 설정하고 폭을 50cm 정도로 남겨두었다. 그리드의 명칭은 남-북 기준선을 중심으로 서쪽 그리드를 A, 동쪽 그리드를 B로 구분한 후, A와 B의 그리드는 북쪽을 1, 남쪽을 3으로 명명하여 총 6개의 그리드로 구분하였다. 그리드 설정 후 각각의 pit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근·현대 복토층을 제거하였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285432.633m	②	X	285429.125m	③	X	285419.659m			
	Y	189506.551m		Y	189497.362m		Y	189507.836m	④	X	285421.101m
	Z	7.96m		Z	12.10m		Z	11.96m		Y	189512.882m
⑤	X	285428.231m	⑥	X	285430.521m	⑦	X	285430.511m	⑧	X	285428.264m
	Y	189501.177m		Y	189504.790m		Y	189504.821m		Y	189501.319m
	Z	10.08m		Z	9.10m		Z	9.08m		Z	9.78m
⑨	X	285426.209m	⑩	X	285424.743m	⑪	X	285426.167m	⑫	X	285425.060m
	Y	189505.258m		Y	189507.837m		Y	189505.586m		Y	189507.155m
	Z	9.76m		Z	9.65m		Z	9.53m		Z	9.0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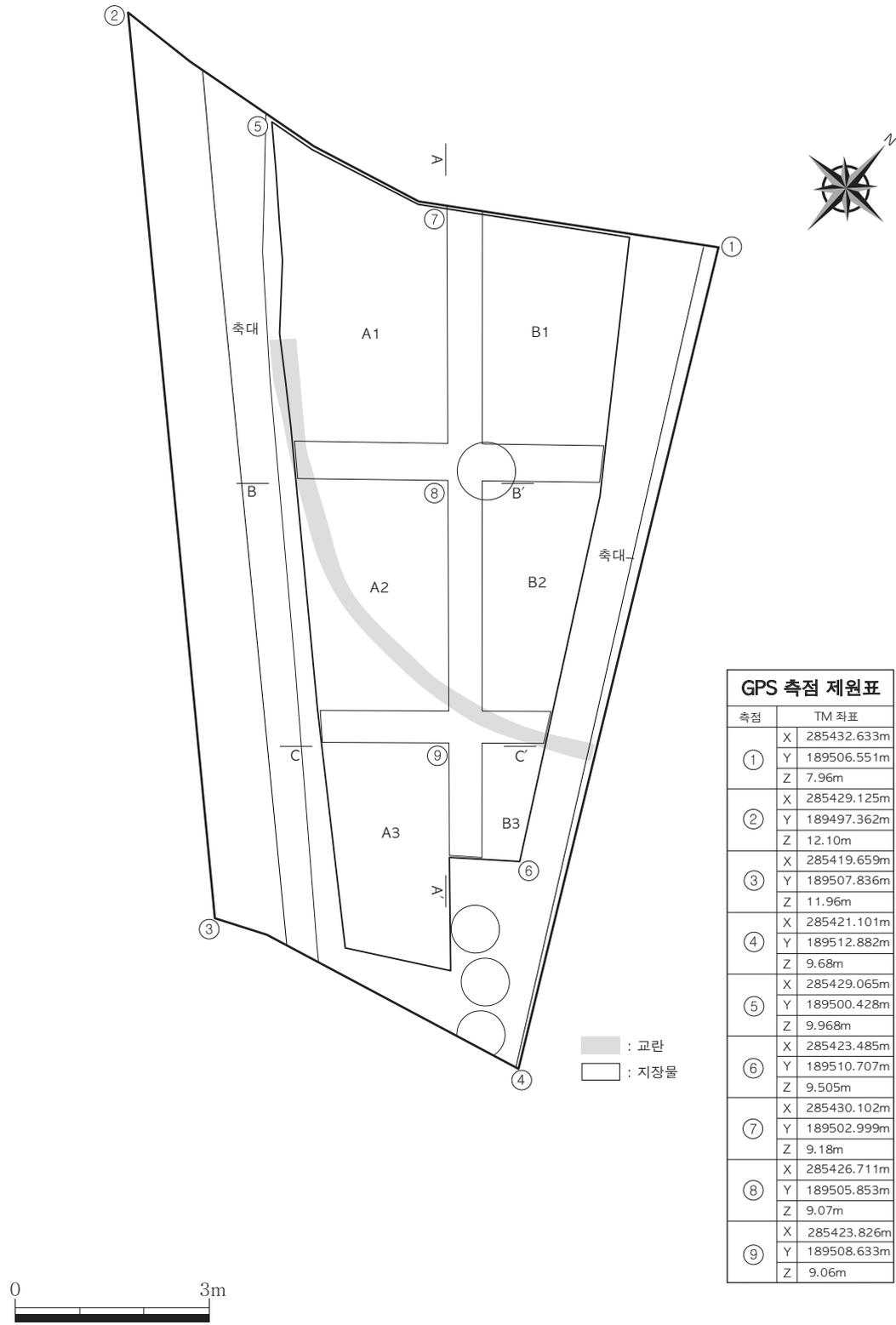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탐색트렌치에서 확인된 층위를 pit별로 한 층씩 제거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물 출토상태에 대하여 사진촬영 등 기록을 실시하고 각층의 분포범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혼토파각층 2 하부에서 확인된 퇴적층은 학술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구 및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암반덩어리와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자연퇴적층으로 확인되었다.

제토범위는 조사대상지 내 서쪽은 너비 1.8m 정도의 축대가 구성되어 있어 축대와 접한 범위까지 제토하였으며, 동쪽은 석축, 남동쪽은 과실수로 인해 경계에서 50~200cm 정도 이격하였다.

【표 3】 조사대상지 토층(A2 pit 동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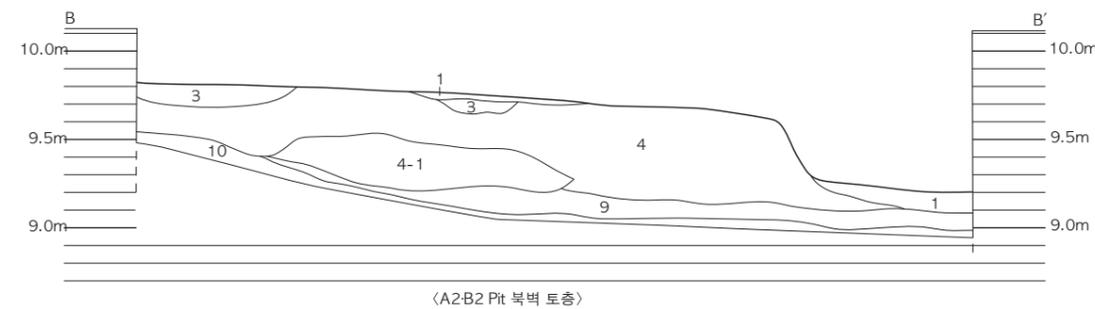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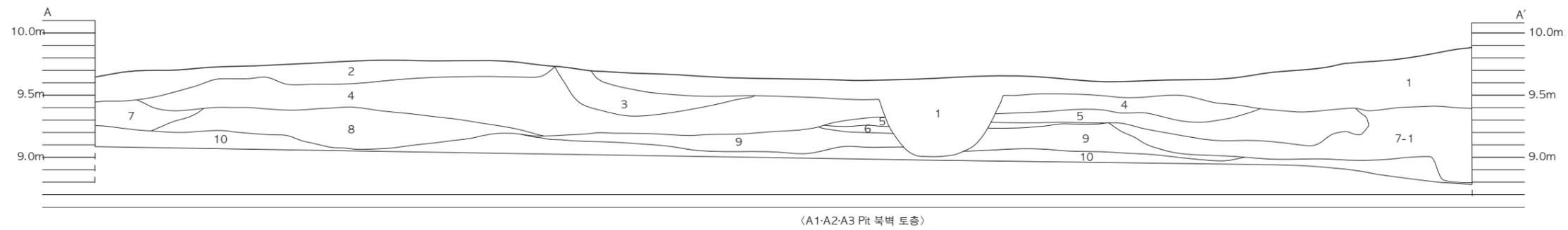
사 진		
내 용	1층 : 암갈색(10YR 4/4)+명황갈색(10YR 7/6) 사질점토 두께 15cm 정도	현대 복토층
	2층 : 흑갈색(7.5YR 3/2) 사질점토+패각층 두께 8~20cm 정도	조선시대 혼토파각층
	3층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패각 소량 혼입 최대 두께 40cm 정도	
	4층 : 혼토파각층 -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패각층 최대 두께 44cm 정도	
	5층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패각 소량 혼입 두께 15cm 정도	
	6층 : 암갈색(7.5YR 3/2) 사질점토+패각층 두께 10cm 정도	
	9층 : 혼토파각층 - 갈색(10YR 4/4) 사질점토+패각층 두께 10~15cm 정도	신석기시대 혼토파각층 (표토하 45~50cm)
	10층 : 갈색(7.5YR 4/6) 사질점토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혼입 두께 40~50cm 정도	자연퇴적층 (표토하 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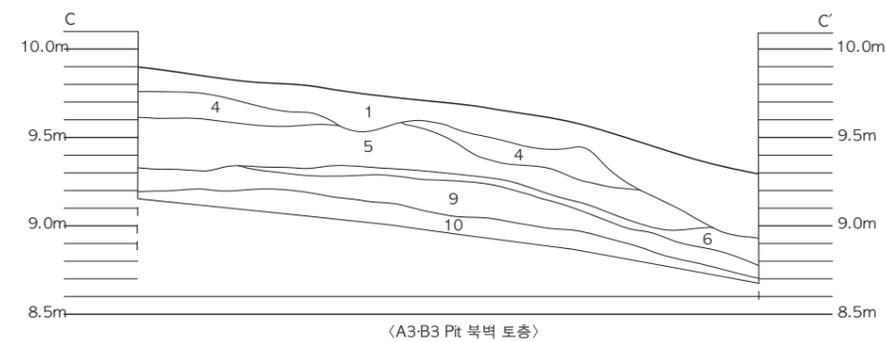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①	X 285432.633m
	Y 189506.551m
	Z 7.96m
②	X 285429.125m
	Y 189497.362m
	Z 12.10m
③	X 285419.659m
	Y 189507.836m
	Z 11.96m
④	X 285421.101m
	Y 189512.882m
	Z 9.68m
⑤	X 285429.065m
	Y 189500.428m
	Z 9.968m
⑥	X 285423.485m
	Y 189510.707m
	Z 9.505m
⑦	X 285430.102m
	Y 189502.999m
	Z 9.18m
⑧	X 285426.711m
	Y 189505.853m
	Z 9.07m
⑨	X 285423.826m
	Y 189508.633m
	Z 9.06m

도면 5. 발굴조사 그리드구획도

- | | |
|--|---|
| 1. 암갈색(10YR 4/4) + 명황갈색(10YR 7/6) 사질점토
〈조선시대〉 | 9. 갈색(10YR 4/4) 사질점토(혼토패각층)
〈자연퇴적층〉 |
| 2. 흑갈색(7.5YR 3/2) 사질점토(패각층) | 10. 갈색(7.5YR 4/6) 사질점토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혼입 |
| 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소량의 패각 혼입 | |
| 4.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패각층) | |
| 5.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소량의 패각 혼입 | |
| 6. 흑갈색(7.5YR 3/2) 사질점토(패각층) | |
| 7. 흑갈색(7.5YR 3/1) 사질점토(패각층) | |
| 7-1. 흑갈색(7.5YR 2/2) 사질점토(패각층) | |
| 8. 암갈색(7.5YR 3/3) 사질점토
- 소량의 패각(부스러기) 혼입 | |



- | |
|---|
| 1. 암갈색(10YR 4/4) + 명황갈색(10YR 7/6) 사질점토
〈조선시대〉 |
| 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소량의 패각 혼입 |
| 4.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패각층) |
| 4-1.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패각층)
〈신석기시대〉 |
| 9. 갈색(10YR 4/4) 사질점토(패각층)
〈자연퇴적층〉 |
| 10. 갈색(7.5YR 4/6) 사질점토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혼입 |



- | |
|---|
| 1. 암갈색(10YR 4/4) + 명황갈색(10YR 7/6) 사질점토
〈조선시대〉 |
| 4.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패각층) |
| 5.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소량의 패각 혼입 |
| 6.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소량의 패각 혼입
〈신석기시대〉 |
| 9. 갈색(10YR 4/4) 사질점토(패각층)
〈자연퇴적층〉 |
| 10. 갈색(7.5YR 4/6) 사질점토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혼입 |



도면 6. 조사대상지 토층도

조사대상지의 토층 퇴적양상을 중앙부의 A2 pit 동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부에서부터 현대 복토층(1층)-조선시대 혼토파각층(2~8층)-신석기시대 혼토파각층(9층)-자연퇴적층(10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대 복토층(1층)은 수도관 매설 작업으로 교란된 층과 암갈색 사질점토와 명황갈색 사질점토가 섞여 있는 층으로 두께는 15~60cm 정도이다.

조선시대 혼토파각층(2~8층)은 8개의 층으로 세분되며, 흑갈색 사질점토+패각층(7층, 7-1층)과 암갈색 사질점토(8층)는 A2 pit와 B2 pit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A1 pit와 A3 pit, B1 pit와 B3 pit에서만 확인되었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석기시대 혼토파각층(9층)은 갈색 사질점토와 패각이 섞여 있는 층으로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집선문, 사격자문, 이중구연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연퇴적층(10층)은 암갈색 사질점토가 혼입된 갈색 사질점토층으로 표토하 60~90c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표토하 100~150cm 정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암반덩어리로 인해 생토층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연퇴적층은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양상이다. 자연퇴적층에서는 유구 및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혼토파각층과 조선시대 혼토파각층 등 토층 퇴적양상만 확인될 뿐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혼토파각층은 서고동저형의 지형을 따라 퇴적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가. 조선시대

혼토파각층은 조사대상지 전면에서 확인되었으며, 흑갈색 또는 암갈색을 띤다. 패각은 대부분 잘게 부서져 확인되었다. 최대 두께는 67cm 정도이다. 조선시대 자기편과 옹기편 등과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이 같이 출토되었다.

토층양상은 상부에서부터 흑갈색 사질점토+패각층(2층)-암갈색 사질점토(3층)-암갈색 사질점토+패각층(4층)-암갈색 사질점토층(5층)-흑갈색 사질점토+패각층(6층)-흑갈색 사질점토+패각층(7층)-암갈색 사질점토(8층)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흑갈색의 혼토파각층(2층)은 흑갈색 사질점토와 패각이 뒤섞여 있는 층으로 조사대상지의 북쪽(A1·B1 pit, A1 pit 북쪽)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두께는 8~20cm 정도이다. 암갈색 사질점토층(3층)은 소량의 패각이 혼입되어 있었으며, 조사대상지 중앙부에서만 확인되었으며, 현대 복토층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최대 두께는 40cm 정도이다. 암갈색의 혼토파각층(4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와 패각이 뒤섞여 있는 층으로 조사대상지 전면에서 확인되었다. 최대 두께는 44cm 정도이다. 암갈색 사질점토층(5층)은 3층과 유사하며, 조사대상지 남쪽(A2·B2 pit 남쪽, A3·B3 pit)에서만 확인되었다. 소량의 패각이 혼입되어 있으며, 최대 두께는 15cm 정도이다. 흑갈색의 혼토파각층(6층)은 4층과 유사하며, 조사대상지 남쪽(A2·B2 pit 남쪽, A3·B3 pit)에서만 확인되었다. 흑갈색 혼토파각층(7층)과 암갈색 사질점토(8층)은 A1 pit와 B1 pit에서만 확인되었으며, 흑갈색 혼토파각층(7-1층)은 A3 pit와 B3 pit에서만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혼토파각층은 세분되는 각각의 층에서 조선시대 백자편 및 옹기편,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이 확인되었으며, 불에 의해 적갈색으로 변색된 할석이 소량 확인되었으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혼토파각층(9층)은 갈색 사질점토와 패각이 섞여 있는 층으로 표토하 45~50c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두께는 10~15cm 정도이다. 조사대상지 남쪽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서 확인되었으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석기시대 즐문토기편(집선문, 사격자문, 이중구연 등)이 소량 확인되었다.

패각의 구성은 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핏불고둥, 재첩, 꼬막이 극소수로 확인되었다.⁹⁾

다. 유물

〈A1 pit 출토유물〉

1. 동체부편(도면 7-1, 도판 9-1)

호형토기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회황갈색(10YR 6/2)이며, 외면은 갈회색(10YR 5/1)이다. 외면 전체에서 마연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5cm

2.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7-2, 도판 9-2)

호형토기의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동체부에 비해 기벽이 얇다.

잔존길이 6.1cm

3. 구연부편(도면 7-3, 도판 9-3)

구연부 및 동체부의 일부가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다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흑갈색(10YR 4/1)이고, 외면은 회갈색(7.5YR 5/3)이 확인된다.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고, 외면으로 돌출시켜 눌러 붙인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4.5cm

9) 신석기시대 혼토파각층을 50×50cm 정도 크기로 패각을 수거한 후 분류한 결과 핏불고둥 1점, 꼬막 2점, 재첩 1점을 제외하면, 모두 굴로 확인되었다.

4. 구연부편(도면 7-4, 도판 9-4)

구연부 및 동체부의 일부가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 및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등색(5YR 6/6)인데, 외면 일부에 탁한 황등색(10YR 7/2)이 확인된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구연단 아래에는 점토를 눌러 붙여 3중 구연을 형성하였다.

잔존길이 6.2cm

〈A2 pit 출토유물〉

5. 구연부편(도면 7-5, 도판 10-5)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 및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외면에는 상부에서 눌러 하부로 굽는 방식으로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5.5cm

〈A3 pit 출토유물〉

6. 불명철기(도면 7-6, 도판 11-6)

표면이 부분 박락되었으며, 말단은 결실되었다. 두부에서 말단으로 갈수록 너비가 좋아지며, 말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상부에는 목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9cm, 두께 0.2~0.5cm, 중량 8.3g

7. 불명철기편(도면 7-7, 도판 11-7)

표면의 대부분이 박락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고 좁은 철판으로 일부만 잔존하여 형태를 알 수가 없다.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잔존길이 5.8cm, 너비 1.0cm, 두께 0.2cm, 중량 5.1g

〈B1 pit 출토유물〉

8. 발형토기 구연부편(도면 7-8, 도판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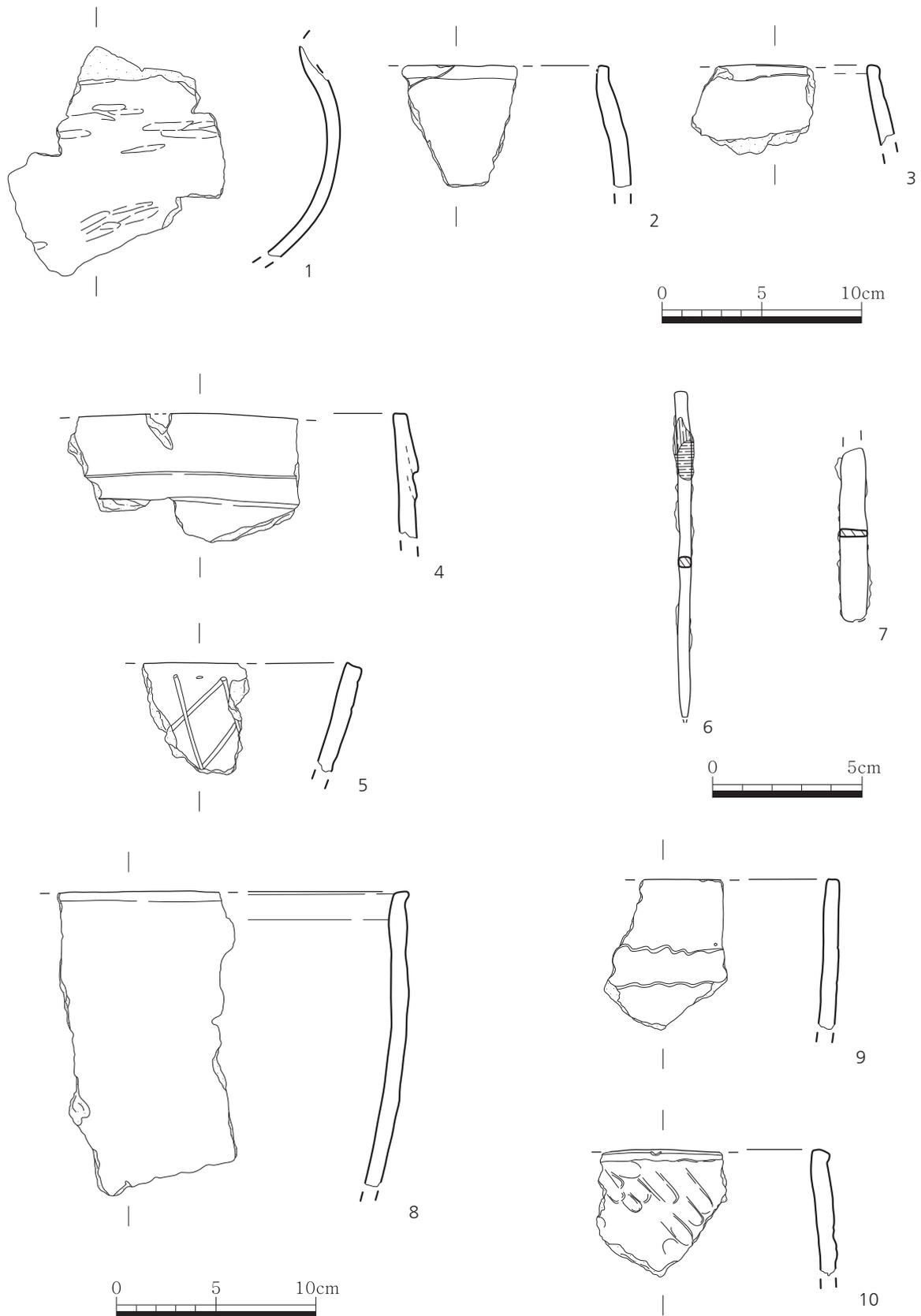
발형토기로 구연부 및 동체부 일부가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 사립 및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회황갈색(10YR 5/2)이고, 외면 일부에 흑반이 확인된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구연부는 짧게 외반한다.

잔존기고 14.8cm

〈B2 pit 출토유물〉

9. 구연부편(도면 7-9, 도판 12-9)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사질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회갈색(7.5YR 4/2)이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외면에는 구연단에서 3.5cm와



도면 7. 출토유물(A1 pit : 1~4, A2 pit : 5, A3 pit : 6·7, B1 pit : 8, B2 pit : 9·10)

5.0cm 아래에 파상문을 각 1열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7.5cm

10. 구연부편(도면 7-10, 도판 12-10)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탁한 적갈색(5YR 5/4)이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외면에는 단사선문을 희미하게 시문하였으며, 물손질하였다.

잔존길이 6.3cm

11. 발형토기 구연부(도면 8-11, 도판 12-11)

발형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 상부가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 사립 및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 7/4)이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구연단에서 13.0cm 정도 아래까지 한쪽에서 깊게 눌러 굽는 방식으로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문양 구성은 종방향으로 시문된 2조의 선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11.2cm

12. 동체부편(도면 8-12, 도판 12-12)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 및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등색(5YR 6/6)이다. 외면은 상부에서 하부로 눌러 굽는 방식으로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5.8cm

〈B3 pit 출토유물〉

13. 구연부편(도면 8-13, 도판 1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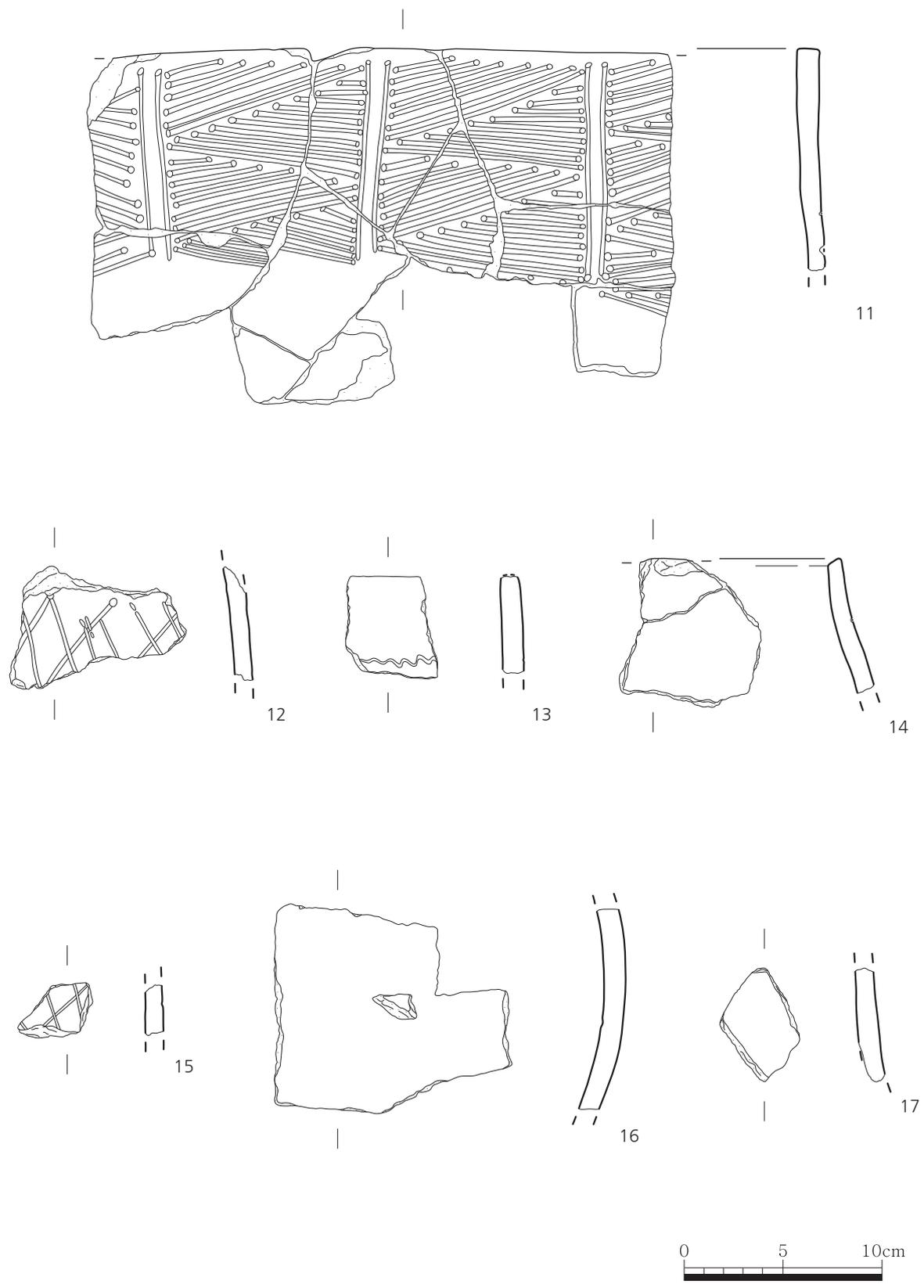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사질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탁한 갈색(7.5YR 5/3)이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외면에는 구연단에서 4.3cm 아래에 파상문을 1열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4.9cm

14.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8-14, 도판 13-14)

호형토기의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적갈색(5YR 4/4)이고, 내면은 회갈색(7.5YR 4/2)이다. 구연단은 내경 평탄하다.

잔존길이 6.7cm



도면 8. 출토유물(B2 pit : 11 · 12, B3 pit : 13~17)

15. 동체부편(도면 8-15, 도판 13-15)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탁한 갈색(7.5YR 5/3)이다. 외면은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2.5cm

16. 동체부편(도면 8-16, 도판 13-16)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사질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탁한 갈색(7.5YR 5/3)이고, 내면은 탁한 등색(7.5YR 6/4)이다. 외면을 전면 마연하여 기면이 매끄러우며, 흑반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5cm

17. 동체부편(도면 8-17, 도판 13-17)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사질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적갈색(10R 5/4)이고, 내면은 탁한 등색(5YR 6/4)이다. 외면은 적색 칠흔이 확인되며, 흑반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7cm

18. 구연부편(도면 9-18, 도판 13-18)

구연부 및 동체부의 일부가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 및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갈회색(10YR 5/1)인데, 구연부 외면은 탁한 황등색(10YR 6/3)이 확인된다. 구연단은 평탄하며, 구연단 아래는 손으로 눌러 얇게 성형하였다. 잔존하는 동체부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하여 정면하였으며, 외면에는 점토피를 눌러 붙인 흔적이 2곳에서 확인된다.

잔존길이 6.9cm

〈수습유물〉

19. 구연부편(도면 9-19, 도판 14-19)

구연부편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명적갈색(5YR 5/6)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잔존길이 2.2cm

20. 구연부편(도면 9-20, 도판 14-20)

구연부편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갈회색(10YR 5/1)이고, 외면은 탁한 황등색(10YR 6/4)이 확인된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잔존길이 3.3cm

21. 동체부편(도면 9-21, 도판 14-21)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 및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탁한 등색(7.5YR 7/4)이며, 외면은 등색(5YR 6/6)이다. 잔존하는 외면의 상부에는 사격자문의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4cm

22. 동체부편(도면 9-22, 도판 14-22)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회황갈색(10YR 6/2)이며, 외면은 갈회색(10YR 5/1)이다. 외면 전체에서 마연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9cm

23. 동체부편(도면 9-23, 도판 14-23)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등색(5YR 6/6)이다. 외면 일부는 마연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7.4cm

24. 동체부편(도면 9-24, 도판 14-24)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탁한 황갈색(10YR 5/3)이고, 외면은 갈회색(10YR 4/1)이다.

잔존길이 7.9cm

25. 동체부편(도면 9-25, 도판 1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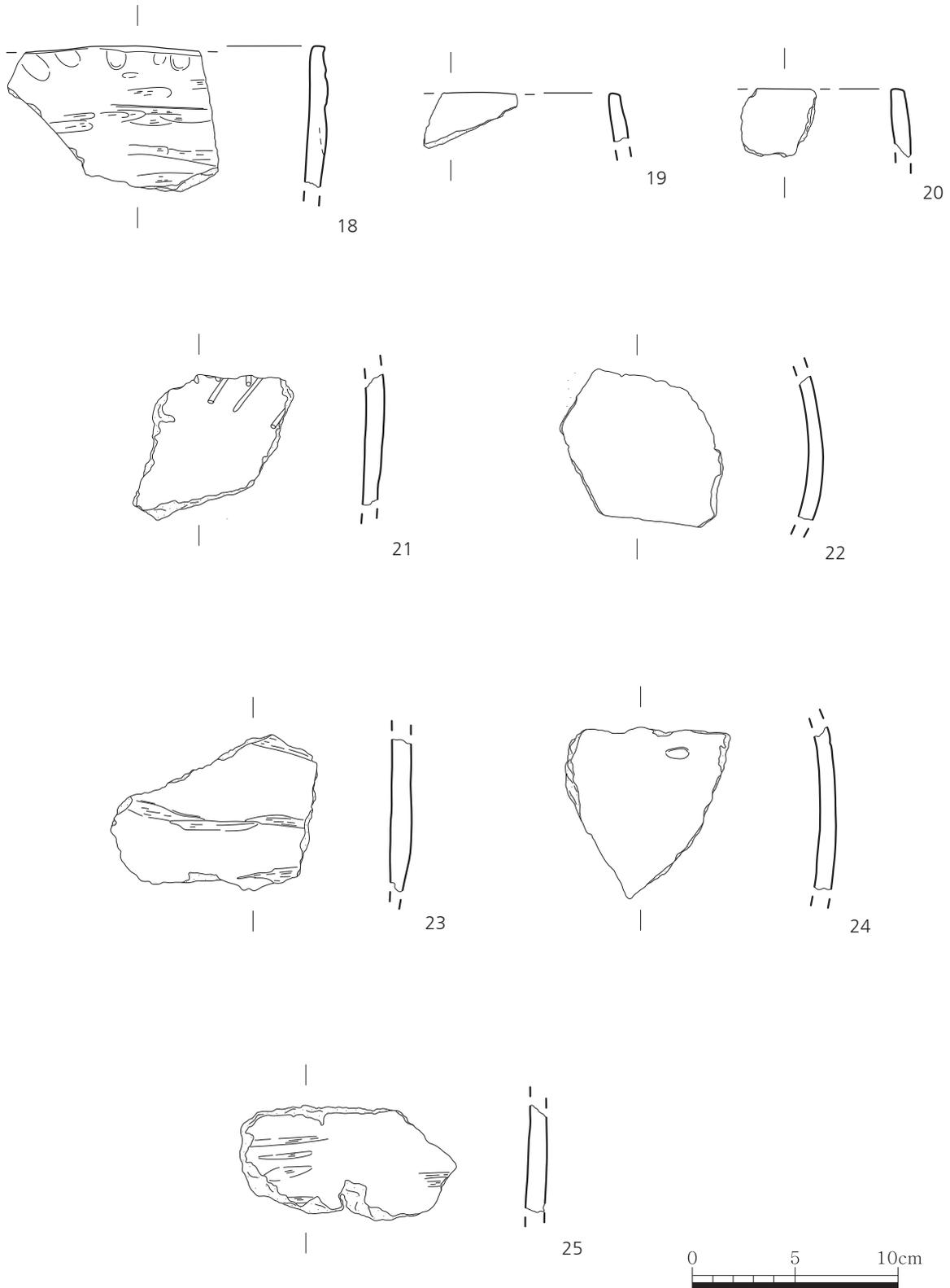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등색(5YR 6/6)이다. 외면 일부에 마연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2cm

26. 구연부편(도면 10-26, 도판 14-26)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등색(7.5YR 6/6)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집선문을 얇게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5.1cm



도면 9. B3 pit 출토유물(18) 및 수습유물(19~25)

27. 구연부편(도면 10-27, 도판 14-27)

구연부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회색(7.5YR 6/2)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단부가 0.3cm로 넓은 도구를 이용하여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3.4cm

28. 구연부편(도면 10-28, 도판 14-28)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탁한 황등색(10YR 6/4)이다. 구연단은 외면으로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얇은 도구를 이용하여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4.4cm

29. 동체부편(도면 10-29, 도판 14-29)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탁한 갈색(7.5YR 5/3)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5cm

30. 동체부편(도면 10-30, 도판 14-30)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갈회색(7.5YR 4/1)이다. 외면에는 단사선문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2.5cm

31. 갈돌(도면 10-31, 도판 1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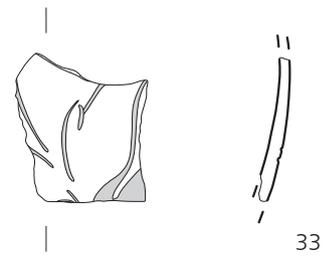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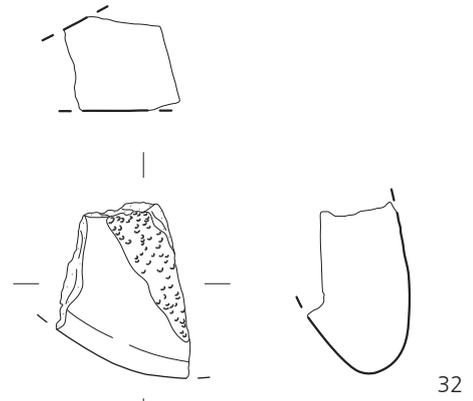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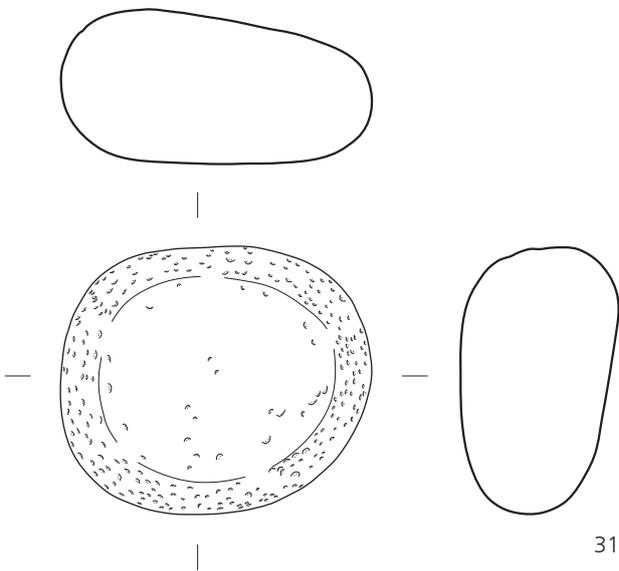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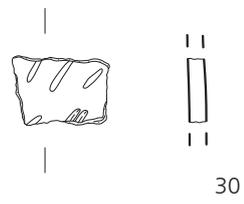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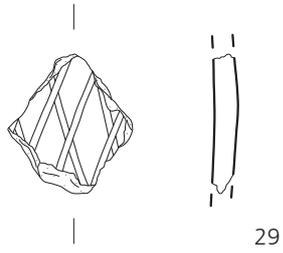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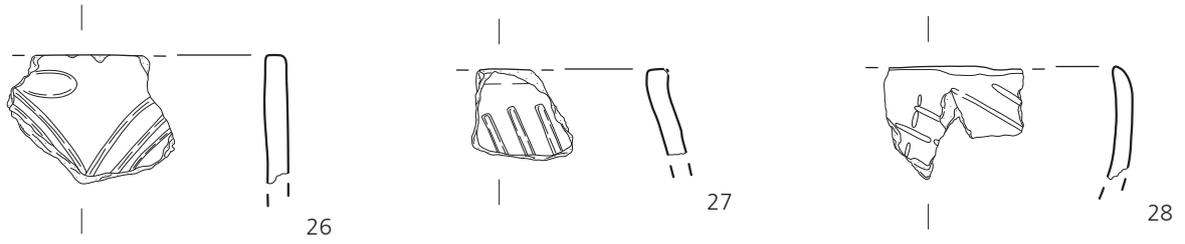
완형으로, 재질은 사암이며, 全面 마연으로 성형하였다. 上·下面은 마모로 인해 편평해져 있고, 단면형태는 횡타원형이다.

길이 10.6cm, 너비 12.3cm, 두께 4.3~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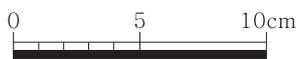
32. 갈돌편(도면 10-32, 도판 14-32)

측면의 일부만 잔존한다. 재질은 사암이며, 고타 후 마연으로 성형하였다. 잔존상태로 보아 단면형태는 횡타원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6.8cm, 잔존너비 4.5cm, 두께 4.0cm



■ : 초문



도면 10. 수습유물(26~33)

33. 백자 병 동체부편(도면 10-33, 도판 14-33)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로 회백색(7.5Y 7/1)을 띤다. 유약은 명녹회색(7.5GY 7/1)을 띠며 전면에 고르게 시유하였다. 전면에 가는 빙렬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초문을 상감하였다.

잔존길이 5.7cm

IV.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는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에 대하여 소규모발굴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2개의 혼토판각층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신석기시대 즐문토기와 조선시대 백자편 및 옹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패각의 구성은 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핏불고둥, 재첩, 꼬막, 두드럭고둥 등이 극소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패각의 구성은 본 유적과 인접한 부산 가동패총과 유사하다.¹⁰⁾

신석기시대 혼토판각층은 갈색의 혼토판각층으로 표토하 45~50c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두께는 10~15cm 정도이다. 조선시대 백자 및 옹기편은 확인되지 않고,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만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패층으로 판단된다.

신석기시대 즐문토기는 모두 잔편으로 출토되어 정확한 기형과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중구연토기와 파상문, 집선문, 사격자문 등의 문양이 시문된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토기편 중에 횡주어 골문이 확인되지 않고, 구연부에만 시문된 토기의 특징으로 볼 때 수가리 패총 II기¹¹⁾에 해당하며, 신석기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혼토판각층은 암갈색의 혼토판각층으로 8개의 층으로 세분되며, 세분되는 각층에서 조선시대 백자편 및 옹기편과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확인된 패각이 대부분 잘게 부서져 있었으며, 신석기시대 즐문토기와 조선시대 백자 및 옹기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혼토판각층은 신석기시대 패각층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에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부산 가동패총에서도 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라는 극소수로 확인되었다.

蔚山文化財研究院, 2014, 『釜山佳洞貝塚』.

11) 보고자는 유물의 출토위치와 유물의 문양 등의 특징으로 수가리 패총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직선적인 침선문과 구연부에 단사선이 시문된 I기, 사격자문토기를 지표로 하는 II기, 올리식토기, 암남동 패총, 농소리패총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신석기시대 말기 III기로 보고하였다.

蔚山文化財研究院, 2014, 『釜山佳洞貝塚』.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원경(①항공촬영), 시굴조사후 전경(②항공촬영)



도판 2. 트렌치 1 토층(①북장벽, ②북장벽 세부, ③남장벽, ④남장벽 세부), 트렌치 2(⑤조사후(S→N), ⑥동장벽 토층, ⑦동장벽 토층 세부)



도판 3. 발굴조사 표토 및 잡물 제거후(①E-W, ②N-S)



도판 4. 조선시대 패각층 조사중(①E→W, ②N→S)



도판 5. 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중(①E→W, ②N→S)



도판 6. 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①E→W, ②N→S)



도판 7. 조사완료 후 전경(①E-W, ②N-S)



도판 8. 동-서 토층(①A2-B2 pit 북벽, ②A3-B3 pit 북벽, ③A1 pit 동벽, ④A2 pit 동벽, ⑤A3 pit 동벽, ⑥B2 pit 서벽)



도판 9. A1 pit(①조선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②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③조사완료후(E→W), ④~⑥신석기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1~4 : 출토유물)



도판 10. A2 pit(①조선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②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③조사완료후(E-W), ④조선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⑤신석기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5 : 출토유물), A3 pit(⑥조선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⑦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E-W)) 8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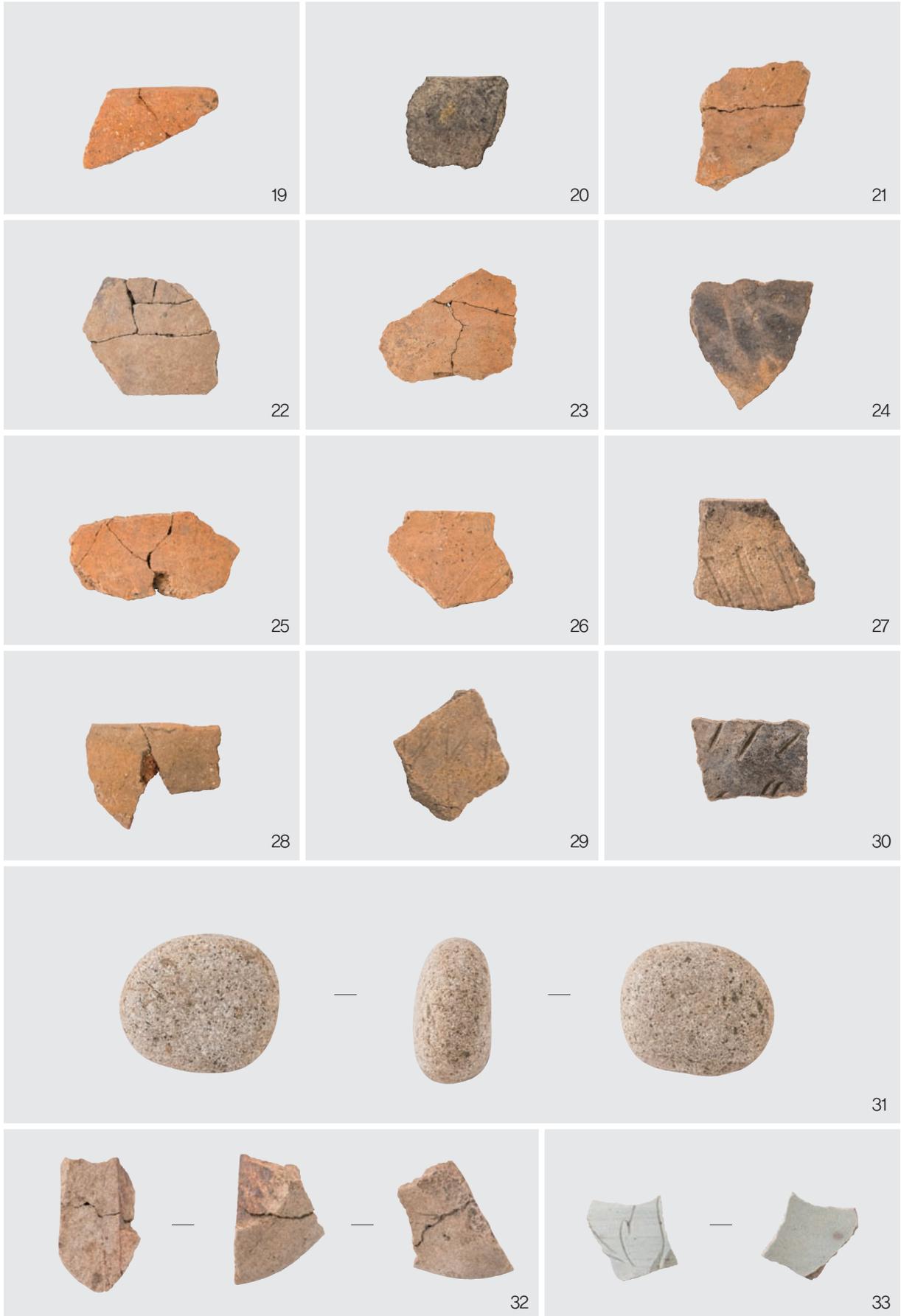
도판 11. A3 pit(①조선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6·7: 출토유물), B1 pit(②조선시대 패각층 조사중(E→W), ③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E→W), ④신석기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8: 출토유물), B2 pit 조선시대 패각층 조사중(⑤E→W)



도판 12. B2 pit(①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중(S→N), ②신석기시대 패각층 조사후(S→N), ③④조선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⑤⑥신석기시대 패각층 유물 출토상태, 9~11 : 출토유물)



도판 13. B3 pit(①조선시대 패각층 조사중(S→N), ②신석시대 패각층 조사중(S→N), ③자연퇴적층 조사중(S→N), ④서벽토층, 13~18 : 출토유물)



도판 14. 수습유물(19~33)



도판 15. 신석기시대 혼토파각층에서 확인된 패각(①②샘플링)



①



②

도판 16. 학술자문회의의 광경(①②)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 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546-0001	동체부편	1	A1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10.5	0.0	0.0	7-1, 9-1	Y
2019-0546-0002	호형토기 구연부편	1	A1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6.1	0.0	0.0	7-2, 9-2	Y
2019-0546-0003	구연부편	1	A1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4.5	0.0	0.0	7-3, 9-3	Y
2019-0546-0004	구연부편	1	A1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6.2	0.0	0.0	7-4, 9-4	Y
2019-0546-0005	구연부편	1	A2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5.5	0.0	0.0	7-5, 10-5	Y
2019-0546-0006	불명철기	1	A3 pit	금속류	조선시대	잔존 10.9	0.0	0.2~0.5	7-6, 11-6	Y
2019-0546-0007	불명철기	1	A3 pit	금속류	조선시대	잔존 5.8	1.0	0.2	7-7, 11-7	Y
2019-0546-0008	발형토기 구연부편	1	B1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14.8	0.0	0.0	7-8, 11-8	Y
2019-0546-0009	구연부편	1	B2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7.5	0.0	0.0	7-9, 12-9	Y
2019-0546-0010	구연부편	1	B2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6.3	0.0	0.0	7-10, 12-10	Y
2019-0546-0011	발형토기 구연부	1	B2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11.2	0.0	0.0	8-11, 12-11	Y
2019-0546-0012	동체부편	1	B2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5.8	0.0	0.0	8-12, 12-12	Y
2019-0546-0013	구연부편	1	B3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4.9	0.0	0.0	8-13, 13-13	Y
2019-0546-0014	호형토기 구연부편	1	B3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길이 6.7	0.0	0.0	8-14, 13-14	Y
2019-0546-0015	동체부편	1	B3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2.5	0.0	0.0	8-15, 13-15	Y
2019-0546-0016	동체부편	1	B3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10.5	0.0	0.0	8-16, 13-16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 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546-0017	동체부편	1	B3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5.7	0.0	0.0	8-17, 13-17	Y
2019-0546-0018	구연부편	1	B3 pit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6.9	0.0	0.0	9-18, 13-18	Y
2019-0546-0019	구연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2.2	0.0	0.0	9-19, 14-19	Y
2019-0546-0020	구연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3.3	0.0	0.0	9-20, 14-20	Y
2019-0546-0021	동체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6.4	0.0	0.0	9-21, 14-21	Y
2019-0546-0022	동체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6.9	0.0	0.0	9-22, 14-22	Y
2019-0546-0023	동체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7.4	0.0	0.0	9-23, 14-23	Y
2019-0546-0024	동체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7.9	0.0	0.0	9-24, 14-24	Y
2019-0546-0025	동체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5.2	0.0	0.0	9-25, 14-25	Y
2019-0546-0026	구연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5.1	0.0	0.0	10-26, 14-26	Y
2019-0546-0027	구연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3.4	0.0	0.0	10-27, 14-27	Y
2019-0546-0028	구연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4.4	0.0	0.0	10-28, 14-28	Y
2019-0546-0029	동체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5.5	0.0	0.0	10-29, 14-29	Y
2019-0546-0030	동체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신석기시대	잔존 2.5	0.0	0.0	10-30, 14-30	Y
2019-0546-0031	갈돌	1	수습유물	옥석유리	신석기시대	10.6	12.3	4.3~6.0	10-31, 14-31	Y
2019-0546-0032	갈돌편	1	수습유물	옥석유리	신석기시대	잔존 6.8	잔존 4.5	4.0	10-32, 14-32	Y
2019-0546-0033	백자 병 동체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5.7	0.0	0.0	10-33, 14-33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유적		發行日	2021년 6월 4일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1577-5805	FAX	(054)774-8169	
執筆·編輯者	박강민, 박무식, 황원우, 강성귀				
調査緣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강민, 박무식, 이지은, 황원우				
遺蹟所在地番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700-2번지				
調査面積	85m ²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패각층	조선시대	1	백자편 등		
패각층	신석기시대	1	즐문토기편 등		

90. 평택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

기남문화재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90-7
1. 조사경위 및 경과	90-7
2. 조사단 및 보고서작성 참가자	90-9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90-10
1. 자연·지리적 환경	90-10
2. 고고·역사적 배경	90-17
1) 고고학적 배경	90-17
2) 역사적 배경	90-23
III. 조사내용	90-27
1. 입회조사	90-27
2. 발굴조사	90-28
A. 고려시대	90-31
1. 토광묘	90-31
1) 토광묘 1호	90-31
2) 토광묘 2호	90-33
B. 조선시대	90-34
1. 토광묘	90-34
1) 토광묘 1호	90-34
2) 토광묘 2호	90-34
3) 토광묘 3호	90-36
4) 토광묘 4호	90-38
C. 시대미상	90-39
1. 수혈	90-39
1) 수혈 1호	90-39
IV. 조사성과	90-41
도판	90-45
부록	90-59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90-11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도(1:5,000)	90-13
도면 3.	해당부지 지적도(1:1,000)	90-14
도면 4.	평택지역의 산세 및 수계도	90-15
도면 5.	조사지역 일대 지질도(출처: 지질정보시스템)	90-16
도면 6.	조사지역 일대 경사도(출처: 흙토람)	90-16
도면 7.	조사지역 일대 분포지형도(출처: 흙토람)	90-16
도면 8.	조사지역 일대 퇴적양식도(출처: 흙토람)	90-16
도면 9.	광역도 수원부(18세기 전반)	90-25
도면 10.	조사지역 일대의 근대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朝鮮總督府, 1922)	90-26
도면 11.	입회조사 트렌치 배치도(1:500)	90-27
도면 12.	발굴조사지역 전체 유구현황도(1:200)	90-30
도면 13.	토광묘 1호	90-31
도면 14.	토광묘 2호	90-32
도면 15.	토광묘 2호 출토유물	90-34
도면 16.	토광묘 1호	90-35
도면 17.	토광묘 2호	90-36
도면 18.	토광묘 3호	90-37
도면 19.	토광묘 4호	90-38
도면 20.	수혈 1호	90-39

도판목차

도판 1.	평택 동삭동유적 1지점 1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90-18
도판 2.	평택 동삭동유적 3지점 1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90-18
도판 3.	평택 소사동유적 '라'지점 7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90-20
도판 4.	평택 용이동유적 1호 청동기시대 환호 전경	90-20
도판 5.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 원삼국시대 유구 전경	90-20
도판 6.	평택 좌교리·해창리유적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90-20
도판 7.	평택 도일동유적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전경	90-21

도판 8.	평택 장당동·지제동유적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90-21
도판 9.	평택 남산리유적 고려시대 기와가마 전경	90-22
도판 10.	평택 백봉리유적 고려시대 건물지 전경	90-22
도판 11.	조사지역 기준층위	90-29
도판 12.	조사대상지 위성사진(Naver 지도)	90-47
도판 13.	조사 전 전경(북동쪽에서①, 북쪽에서②)	90-48
도판 14.	입회조사 대상지(Tr.1 전경①, Tr.2 전경②, 조사 후 전경③)	90-49
도판 15.	발굴조사 대상지(원경①, 전경②)	90-50
도판 16.	고려시대 토광묘 1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조사완료 후 전경④)	90-51
도판 17.	고려시대 토광묘 2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조사완료 후 전경④·⑤)	90-52
도판 18.	고려시대 토광묘 2호(유물 출토 상태①·②, 출토유물③·④)	90-53
도판 19.	조선시대 토광묘 1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관재 노출상태④, 조사 후 전경⑤·⑥)	90-54
도판 20.	조선시대 토광묘 2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조사 후 전경④)	90-55
도판 21.	조선시대 토광묘 3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조사 후 전경④), 토광묘 4호(조사 전 전경⑤, 토층⑥, 조사 중 전경⑦)	90-56
도판 22.	조선시대 토광묘 4호(조사 후 전경①·②), 시대미상 수혈 1호(조사 전 전경③, 토층④, 조사 중 전경⑤, 조사 후 전경⑥)	90-57
도판 23.	학술자문회의①·②	90-58

표 목 차

표 1.	조사지역 주변 유적 현황	90-12
표 2.	입회조사 트렌치 현황	90-28
표 3.	발굴조사 유구 현황	90-29
표 4.	조사지역 기준층위	90-29
표 5.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속성표	90-41
표 6.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 시대미상 수혈 속성표	90-41
표 7.	고려시대 토광묘 2호와 인천 경서동 가마터 출토 청자 비교	90-42

I. 조사개요

1. 조사경위 및 경과

본 조사대상지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405-148번지¹⁾로 사업시행자 강관희氏(이하 사업시행자)의 근린생활시설 조성부지(345㎡)에 해당한다. 조사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에 건축허가(405-148번지)를 신청하였고, 조사대상지인 405-148번지는 포승-평택 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부지에 포함되어 당초 2008년에 실시한 지표조사²⁾를 통해 유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후 추가로 진행된 지표조사³⁾에서 동일 구릉부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조선시대 토기편 등이 수습된 대반리 유물산포지1이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택시에서 개발행위 절차⁴⁾를 통해 입회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평택시의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기남문화재연구원(이하 우리 연구원)에 입회조사를 의뢰하였고, 2019년 3월 16일 실조사일수 1일간의 일정으로 사업부지의 전체면적인 814㎡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입회조사 결과 트렌치 내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토광묘 2기가 확인되어, 해당 트렌치를 중심으로 별도의 시굴조사 없이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면적:345㎡)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⁵⁾

발굴조사 필요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한국문화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접수번호:2019-0430-02)하였고, 한국문화재단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입회조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였다.⁶⁾ 이후 우리 연구원은 2019년 5월에 발굴조사 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하여 2019년 6월 3일에 허가(제2019-0671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2019년 6월 10일에 착수하여 2019년 6월 28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
- 1) 기존지번 산53-3번지(입회조사 당시)에서 405-148번지로 지번명이 변경됨. 이에 따라 발굴조사허가신청·조사명 등등 관련 자료에 산53-3번지를 405-148번지 변경하여 기재함.
 - 2)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포승-평택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위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는 405-148번지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지역 동쪽에 위치한 동일 구릉 정상부를 유물산포지(평택 대반리 유물산포지)로 처음 보고함.
 - 3) ①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서해선(화양-원시)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② (재)한수문화재연구원, 2012,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변경구간(경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위 지표조사 보고서(①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②노선변경구간)에서 이번 조사지역과 동일한 구릉 정상부를 평택 대반리 유물산포지1(①,② 보고서 모두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의견 제시)로 보고함.
 - ③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9, 『서해선 복선전철 제6·7공구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약보고서-제12차 부분완료 보고서-』.
 - 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에서 대반리 유물산포지1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 삼국시대 주구토광묘 2기, 조선시대 이후 토광묘 및 수혈 유구 등이 확인되었음.
 - 4) 평택시 문예관광과-제37206호(2018.12.19.)
 - 5) (재)기남문화재연구원, 2019, 『평택 대반리 산53-3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문화재 입회조사 보고서』.
 - 6) 한국문화재단 조사기획팀-제1911호(2019.05.20.)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5기, 조선시대 이후 토광묘 1기, 시대미상의 수혈 1기 등 총 7기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청자 접시와 청자 병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존대책을 수립하고자 2019년 6월 25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인근지역에서 기 조사된 사례가 많고 평이한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중요도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한 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⁷⁾ 이에 조사단은 면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록작업(실측 및 사진촬영 등)을 철저히 이행해 현장조사를 마무리 한 후, 발굴완료조치 이후에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복토를 실시해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상의 조사경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9.03.16. 입회조사 - (재)기남문화재연구원
 - 사업범위에 대한 입회조사 결과, 고려시대 토광묘가 확인된 사면 상단부 345㎡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굴조사 없이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존대책을 논의함이 필요함.
- 2019.05.20.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대행조사 의뢰.
- 2019.06.03. 문화재청 허가 제2019-0671호(발굴제도과-6411호)
- 2019.06.10. 발굴조사 착수.
 - 조사결과,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5기, 조선시대 이후 토광묘 1기,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1기 총 7기의 유구가 확인됨.
- 2019.06.25. 학술자문회의 개최.
 -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인근지역에서 기 조사된 사례가 많고 평이한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중요도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한 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기.
- 2019.06.28. 현장조사 완료(실조사일수 14일간)
- 2019.07.11.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2019.07.15. 발굴완료조치(발굴제도과-8443호)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및 발굴현장 안전관리 철저.
- 2019.07.17.~2019.07.18.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복토작업 실시.

7) 학술자문회의의 위원 : 하문식(연세대학교 교수), 신연식((재)중앙문화재연구원 실장)

2. 조사단 및 보고서작성 참가자

평택 대반리(405-148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내 유적(국비)발굴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사단장 : 이동성(기남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김진영(前기남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조사원 : 이정우(前기남문화재연구원 팀장)
- 준조사원 : 이연주(기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조원 : 이민규(前기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직명은 조사 당시 기준임.

현장조사는 이동성의 책임 하에 김진영이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였으며, 이정우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유구조사는 이정우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연주, 이민규가 도왔다. 유구도면 실측과 사진촬영 등의 기록 작업은 이연주, 이민규가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적의 측량과 항공촬영은 (합)한빛토목설계공사가 맡아 주었다.

보고서의 발간작업은 김진영이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기록 자료의 정리 및 유물의 정리와 복원은 강소희가 담당하였으며, 유물 도면실측은 이연주가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유구와 유물 도면의 전산화작업 및 편집은 이연주가 작성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촬영과 편집은 이연주, 이민규가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원고작성은 I장 조사개요는 이정우, II장 유구의 위치와 환경은 이민규, III장 조사내용 중 유구서술은 이연주, 유물 서술은 이은숙이 작성하였으며, IV장 조사성과는 이연주가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편집은 이은숙이 한 후 김진영, 이동성이 최종 교열·교정하여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을 찾아 학술적 자문을 해주신 하문식(연세대학교) 교수님과 신연식((재)중앙문화재연구원) 선생님을 비롯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일찍 찾아온 더위 등 열악한 현장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신 현장 조사자분들과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노력해주신 여러 관계자분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⁸⁾

평택(平澤)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서부(경기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안성시, 남쪽으로는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 서쪽으로는 아산만, 서북으로는 화성시, 동북으로는 오산시와 용인시에 접하고 있다. 평택시는 서울-부산간 교통로의 중심에 있으며 한반도 중·남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교통상의 요지이다. 개화기 이후에는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교통상의 교차로 역할을 하였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까지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뀌어 현대적 의미의 수도권에 편입되었다.

수리적으로는 최서단 동경 126°46'44.55"(포승읍 원정리 1209번지)에서 최동단 동경 127°09'14.78"(용이동 산1-5번지)까지 동-서간 직선거리는 33.40km이고, 최남단 북위 36°54'06.07"(현덕면 권관리 956번지)에서 최북단 북위 37°08'39.84"(진위면 동천리 산46-2번지)까지 남-북간 직선거리는 32.92km로, 총 면적은 458,125,024.8m²(약 458k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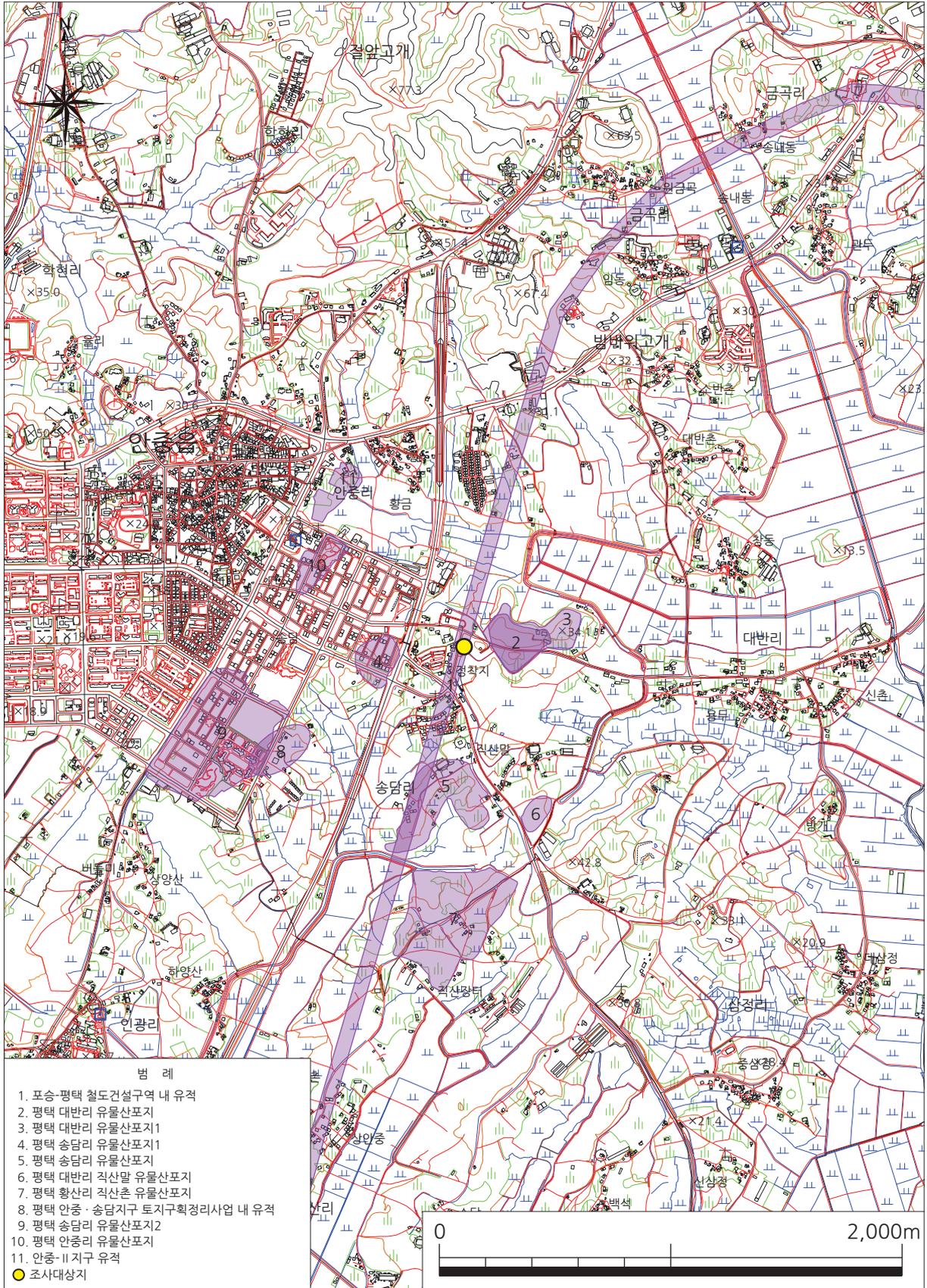
행정적(行政的)으로는 4읍 5면 1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북부, 서부, 남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북부에는 진위면·서탄면·고덕면·서정동·장당동·모곡동·칠괴동·칠원동·도일동·가재동·장안동·이충동·지산동·독곡동·신장동이 있고, 남부에는 팽성읍·평택동·통북동·군문동·유천동·합정동·비전동·동삭동·세교동·지계동·신대동·소사동·용이동·월곡동·청룡동·죽백동이 있으며, 서부에는 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이 있다. 인구는 2019년 11월 기준, 511,22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형(地形)은 죽산의 칠장산에서 뻗어 김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북부의 한남정맥과 칠장산에서 뻗어 태안반도의 지령산까지 이어지는 동부와 남부의 금북정맥이 서부의 서해를 만나 평택을 중심으로 에워싸는 모습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은 산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동북부 일부의 산악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낮은 구릉지이다. 또한 서해와 인접해있고 곳곳에 하천이 발달되어 있어 내륙평탄지와 해안평탄지 등의 충적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산세(山勢)는 크게 한남정맥의 줄기를 이어 화성에서 평택으로 뻗는 북부산맥, 안성에서 평택으로 뻗는 북동부산맥, 그리고 남부 평야지대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나눌 수 있다. 북부산맥을 따라서는 덕지산(해발 137.5m)·무성산(해발 104.7m)·오봉산(해발 112m)·자미산(해발 110.8m)·비파산(해발 102.2m)이 형성되어 있다.

8) 평택지역에 관한 내용은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조 정리하였다.

- ① 평택군지편찬위원회, 1984, 『平澤郡誌』.
- 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 ③ 경기도박물관,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 ④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02, 『평택시사』.
- ⑤ 평택시청 - <http://www.pyeongtae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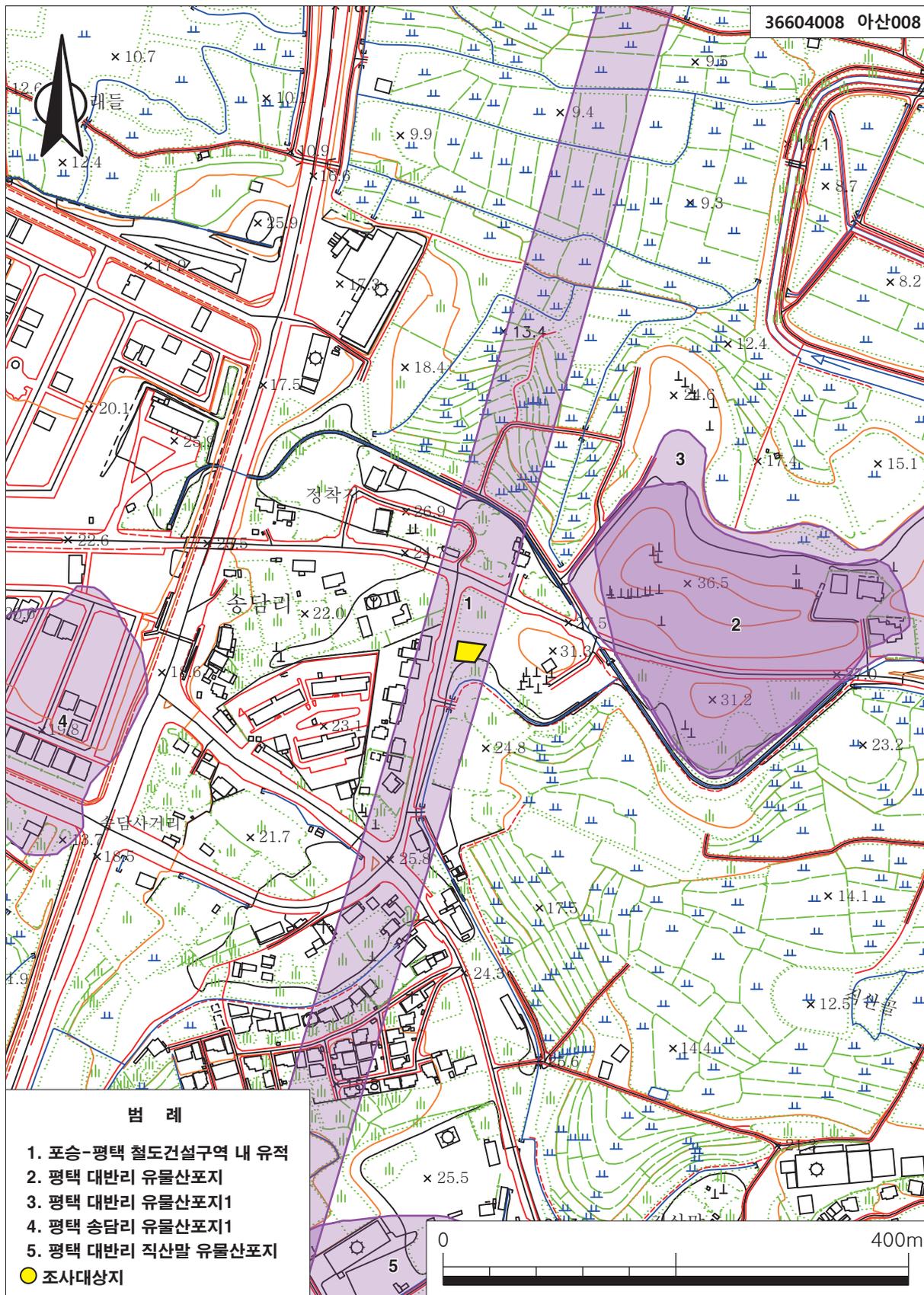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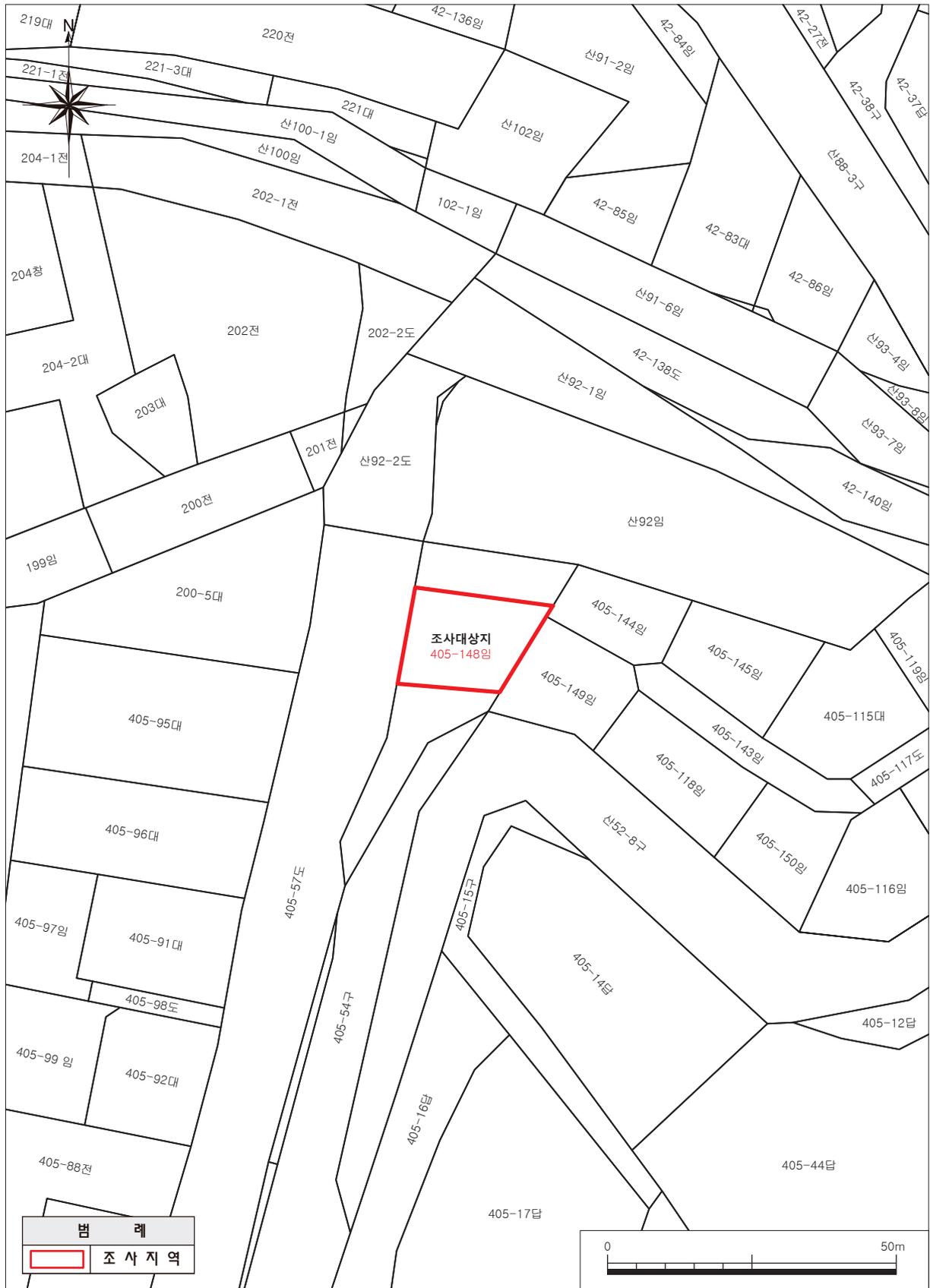
【표 1】 조사지역 주변유적 현황

번호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1	포승-평택 철도건설구역 내 유적	조사지역 내	구석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포승-평택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2	평택 대반리 유물산포지	동쪽 100m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포승-평택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3	평택 대반리 유물산포지1	동쪽 100m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서해선(화양-원시)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4	평택 송담리 유물산포지1	서쪽 260m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5,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5	평택 송담리 유물산포지	남쪽 500m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재)한수문화재연구원, 2012,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변경구간(경기)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6	평택 대반리 직산말 유물산포지	남동쪽 730m	구석기~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경기도박물관, 2003,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 안성천』.
7	평택 황산리 직산촌 유물산포지	남쪽 970m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서해선(화양-원시)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8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유적	남서쪽 750m	구석기~고려시대 생활·분묘, 생산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평택 안중 송담리 유적』.
9	평택 송담리 유물산포지2	서쪽 800m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5,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 문화 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0	평택 안중리 유물산포지	북서쪽 660m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5,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1	안중-Ⅱ 지구 유적	북서쪽 800m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하남역사박물관, 2008, 『평택시 하수관거 정비사업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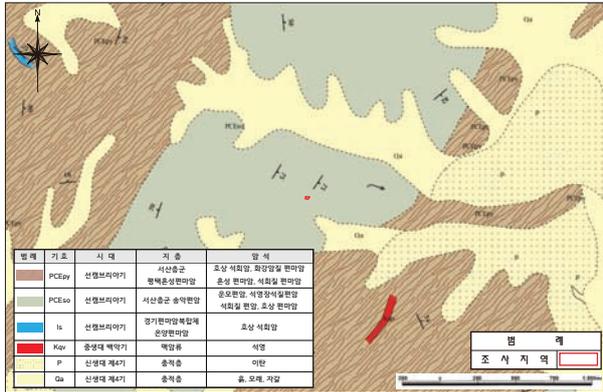
북동부산맥을 따라서는 무봉산(해발 208.3m)·덕암산(해발 164m)·백운산(해발 190m)·부락산(불악산, 해발 149m)·원적봉(해발 76.6m)·함박산(해발 57m)이 형성되어 있다. 남부의 구릉성 산지는 고등산(해발 158m)을 제외하면 해발고도 30~100m 사이로 비교적 야트막하며, 부용산(해발 33.2m)·원기산(해발 48m)·대덕산(해발 58m)·불당산(해발 59m)·무수산(해발 59.2m)·옥녀봉(해발 84m)·마안산(해발 101m)·함박산(해발 103.3m) 등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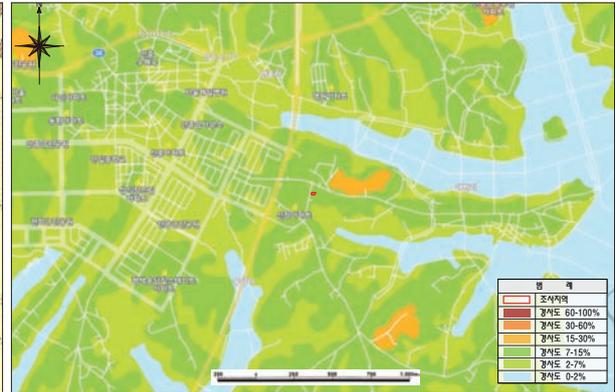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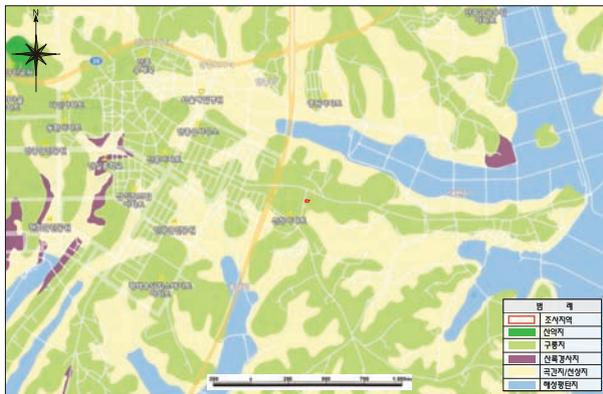
도면 3. 해당부지 지적도(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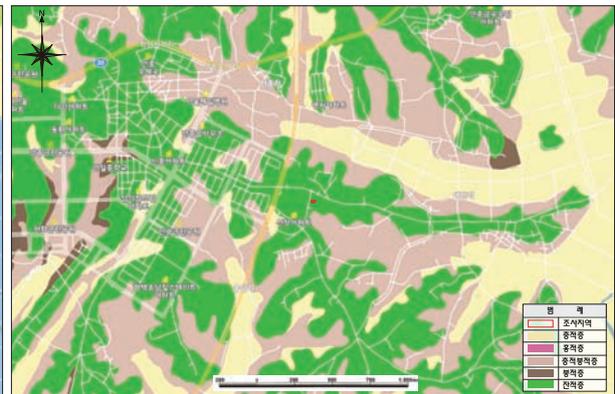
도면 5. 조사지역 일대 지질도(출처: 지질정보시스템)



도면 6. 조사지역 일대 경사도(출처: 휴토람)



도면 7. 조사지역 일대 분포지형도(출처: 휴토람)



도면 8. 조사지역 일대 퇴적양식도(출처: 휴토람)

토양(土壤)은 노년기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여러 하천의 활발한 운반·퇴적작용에 의한 하성충적토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류 부분은 사질토, 하류 부분은 점토층으로 되어 있다. 하구와 하천이 합류하는 삼각주 평야인 서탄면의 하부지역에 이르면, 유속의 감소로 퇴적된 점토층의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진흙이며, 크고 작은 모래와 찰흙으로 되어 있어 벼농사에 적합하다. 야산은 보리 및 고등채소를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구릉지의 개발로 낙농업과 과수원도 발달하였다.

토층(土層)은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범람원과 하구의 발달된 퇴적토, 하천 양안의 침식에 의한 하안단구와 해성충적토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氣候)는 입지상 차령산맥의 북서 끝단에 위치하면서 24.5km에 이르는 해안선에 접하고, 해발 160m 이내의 비교적 낮은 구릉과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서해안 쪽에서 오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북서계절풍과 남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은 한랭건조하고 여름은 고온다습한 전형적인 중부서안형 기후대에 속하며,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줄 산맥이 없는 탓에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 춥게 느껴진다.

기온(氣溫)은 2018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기온은 12.7℃, 1월 평균기온은 3.6℃, 8월 평균기온은 28.2℃이다.

강수량(降水量)은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편이며, 전선성강우에 의한 집중호우도 관측된다. 2018년 기준 연중 강수량은 1039.3mm, 2월 강수량은 21.9mm, 7월 강수량은 172.3mm이다.

2. 고고·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평택시 일대는 전체적으로 낮은 구릉 지형에 하천을 따라 비옥한 충적지가 넓게 발달해있고 서쪽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최근 여러 조사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보고되고 있다. 평택 지역은 특히 구석기유물이 출토되는 제4기 갱신세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구석기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의 발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곳이다. 1990년대 이후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기점으로 평택 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수습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은 대부분 지표에서 수습되었거나 다른 시대의 유적을 조사하는 중에 발견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평택 지역에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많은 발굴조사들이 함께 수반되었고, 그에 따라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적들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90년대에 지표조사를 통해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확인된 곳들은 평택 안중읍 대반리·포승읍 석정리·현덕면 운정리·안중읍 송담리·안중읍 용성리 I, II(비파산성), 현덕면 신왕리·오성면 양교리·포승읍 흥원리 등이 있다. 대반리·석정리·운정리·용성리 I 에서는 여러면석기가 수습되었고¹⁰⁾, 송담리와 용성리 II(비파산성)에서는 굽개가 수습되었다.¹¹⁾ 또한 신왕리¹²⁾에서는 주먹도끼, 양교리¹³⁾에서는 격지, 흥원리¹⁴⁾에서는 찌개와 양면석기가 수습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안중읍 현화리유적¹⁵⁾에서 여러면석기, 포승읍 희곡리유적¹⁶⁾에서 찌개, 밀개, 여러면석기, 굽개 등이 출토되었으며, 포승읍 원정리유적¹⁷⁾에서 밀개, 굽개, 톱니날 등이 출토되었다. 안중·송담리유적¹⁸⁾에서는 몸돌, 격지, 굽개, 밀개 등이 출토되었고, 오성면 양교리유적¹⁹⁾에서는 적갈색 사질점토층 상면에서 굽개 3점, 몸돌 1점이 출토되었다. 평택 본정리·원정리유적²⁰⁾에서는 몸돌, 주먹도끼, 대패, 흙날 등의 다양한 석기들이 500점 이상

10) 平澤市·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11) 平澤市·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12) 平澤市·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13) 平澤市·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14) 한창균 외, 1995, 「구석기유적조사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I』, 단국대학교.

15) ①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1995, 『平澤 玄華 宅地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地表面調査報告』.)

②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1996, 『平澤 玄華里遺蹟』.

16) 이용조·하문식, 1995, 「평택 내거리·희곡리 발굴조사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3)』.

17) 아주대학교 박물관, 1997, 「평택 원정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科技考古研究』 2.

18) (財)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平澤 安仲·松潭里遺蹟』.

19) (財)中部考古學研究所, 2016, 『平澤 梁橋里 山41-3番地 遺蹟』.

20) (財)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평택 본정리·원정리유적』.

출토되었고, 평택 용이동유적²¹⁾에서도 몸돌, 조각돌, 잔손질된 석기, 자갈돌 석기 등의 석기가 288점 출토되었다.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유적²²⁾에서는 2개 지층에서 유물들이 확인되었는데, 3지층에서는 맥석영계 찌개, 굽개, 밀개, 몸돌, 격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4지층에서는 맥석영계돌조각 2점이 확인되었다. 평택 용이동 신흥유적²³⁾에서는 몸돌, 격지, 찌개 등의 석기가 36점 확인되었고, 평택 좌교리·해창리 유적²⁴⁾에서는 구석기시대 문화층에서 여러면석기와 양면석기 주먹대패 등이 수습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의 조사사례는 매우 적다. 포승읍 원정리유적²⁵⁾에서는 2m이상의 두터운 조개더미층과 함께 야외노지가 확인되었고, 금강식토기의 구연부와 석착, 석도 등의 간석기가 출토되었다. 평택 지제동유적²⁶⁾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최근 조사된 평택 동삭동유적²⁷⁾에서는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도판 1. 평택 동삭동유적 1지점 1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도판 2. 평택 동삭동유적 3지점 1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유적은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안중읍 현화리유적²⁸⁾에서는 B.C. 1300~470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5기의 장방형 주거지와 무문토기, 공렬토기, 단도마연토기, 석촉, 마제석부 등이 확인되었다. 평택 지제동유적²⁹⁾에서는 주거지 7기(파괴된 주거지 6기, 방형 주거지 1기)와 함께 무문토기편, 석촉,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가락바퀴, 돌자귀 등이 출토되었고, 평택 토진리유적³⁰⁾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32기를 비롯하여 수혈 19기 등이 조사되었다. 고덕면 두릉리유적³¹⁾에서는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으로 추정되는 주거지 1기와 무문토기편, 석촉, 갈돌이

21) (財)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平澤 龍耳洞 遺蹟』.

22) (財)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유적』.

23)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7, 『平澤 龍耳洞 新興遺蹟』.

24) (財)湖南文化財研究院, 2018, 『平澤 坐橋里·海倉里 I~VII 遺蹟』.

25) 아주대학교 박물관, 1997, 『평택 원정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科技考古研究』 2.

26) 世宗大學校博物館, 2000, 『平澤 芝制洞遺蹟』.

27)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평택 동삭동 유적』.

28)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1996, 『平澤 玄華里 遺蹟』.

29) 世宗大學校博物館, 2000, 『平澤 芝制洞遺蹟』.

30) 畿甸文化財研究院, 2006, 『平澤 土津里遺蹟』.

31)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平澤 斗陵里遺蹟』.

조사되었고, 평성을 남산리유적³²⁾에서는 타원형 주거지 1기와 무문토기편, 석축, 석검, 석착, 지석 등이 조사되었다. 평택 칠괴동유적³³⁾에서는 (추정)장방형 주거지 1기, 방형 주거지 1기, 원형 주거지 3기와 주혈이 확인된 주거지 등 총 6기가 조사되었는데, 보고자는 장방형 주거지는 혼암리 유형으로, 방형 및 원형 주거지는 송국리 유형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평택 소사동유적³⁴⁾에서는 주거지 81기가 조사되었는데, 보고자는 전체적인 형태 파악이 가능한 주거지 60기를 분석하여 방형계 장방형 4기, 세장방형 26기, 장방형 18기, 방형 7기, 원형 2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주거지들이 청동기 전기의 전반(B.C. 1,300~1,100)에서 후기 후반(B.C. 500~300)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조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전기 후반에는 공백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오성면 양교리유적³⁵⁾에서는 주거지 44기와 변형고인돌 형태의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는데, 보고자는 조사된 주거지들이 가락동·역삼동식에서 송국리식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았다. 평택 장당동유적³⁶⁾에서는 (세)장방형계, 방형계, 타원형계로 구분되는 14기의 주거지들과 함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렬문토기, 석축, 석부 등이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는 평면형태와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크게 청동기시대 전기의 (세)장방형계 주거지와 청동기시대 후기의 방형계·타원형계 주거지로 시기차이를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유적³⁷⁾에서는 30기의 주거지와 1기의 석관묘가 조사되었으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과 공렬문이 시문된 토기들이 주로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지들은 평택 동삭동유적³⁸⁾, 평성을 함정리유적³⁹⁾, 평택 소사 2지구유적⁴⁰⁾, 평택 용이·죽백동유적⁴¹⁾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소사 2지구유적에서는 약 10m 내외의 세장방형 주거지들과 함께 길이가 30m에 이르는 단독 대형 주거지가 발견되었고, 용이·죽백동유적에서는 의례, 방어, 경계, 주거가 결합된 구조의 대규모 환호취락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의 취락구조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들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의 고고학적 자료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조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평택 소사별유적⁴²⁾에서는 초기철기의 수혈주거지 1기와 토광묘 1기가 확인된 바 있으며, 평택 좌교리·해창리 유적⁴³⁾에서는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5기와 함께 흑도장경호, 동모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동일 유적 내에서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47기, 토광묘 4기, 옹관묘 5기가

32)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南山里遺蹟』.

33)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平澤 七槐洞遺蹟』.

34) ① 俞炳隣·姜秉學, 2005, 『平澤 素沙洞遺蹟』, 『韓國考古學全國大會』29, 韓國考古學會.)

② (財)高麗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素沙洞遺蹟』.

35) (財)高麗文化財研究院, 2010, 『平澤 梁橋里遺蹟』.

36)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15, 『平澤 獐堂洞遺蹟』.

37) (財)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유적』.

38)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평택 동삭동유적』.

39)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평택 함정리유적』.

40)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

41)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9,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42)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11, 『平澤 小沙別遺蹟』.

43) (財)湖南文化財研究院, 2018, 『平澤 坐橋里·海倉里 I~VII 遺蹟』.



도판 3. 평택 소사동유적 '라'지점 7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도판 4. 평택 용이동유적 1호 청동기시대 환호 전경

조사되었는데, 이는 평택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대규모 분묘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평택 마두리유적⁴⁴⁾에서는 3기의 분묘에서 마형대구, 철부, 철검, 목걸이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마형대구는 영천 어은동에서 출토되었던 마형대구와 동일한 음각의 문양표현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 평택 대추리·금각리 유적⁴⁵⁾에서는 수혈유구와 구상유구에서 대형옹이 확인되었고,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⁴⁶⁾에서도 원삼국시대 주거지 및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도판 5.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 원삼국시대 유구 전경



도판 6. 평택 좌교리·해창리유적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삼국시대 유적은 여러 지표조사⁴⁷⁾를 통해 안성천 하류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알려졌는데, 평택 대추리·백봉리·기산리·무성산·자미산 일대에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하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고덕면 방축리유적⁴⁸⁾에서 백제시대 토광묘 1기, 안중읍 현화리유적⁴⁹⁾에서는 백제시대 가마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평택 용이동유적⁵⁰⁾에서는

44) (財)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1, 『平澤 馬頭里 遺蹟』.

45)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大秋里·金角里遺蹟』.

46)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

47) 平澤市·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調査報告書』.

48)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3, 『平澤 防築里』.

49)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1996, 『平澤 玄華里遺蹟』.

50) (財)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平澤 龍耳洞遺蹟』.

백제시대 원형수혈 8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청북읍 백봉리유적⁵¹⁾에서는 백제 토기가마를 비롯한 수혈과 작업장이 확인되었다. 팽성읍 동창리유적⁵²⁾에서는 삼국시대 목곽묘가, 평택 동삭동유적⁵³⁾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관방유적으로는 지제동산성·백봉리산성·기산리산성·무성산산성·자미산성·봉남리산성 등이 확인되는데, 석축흔적이 있는 자미산성을 제외하고 백제시대의 초기 산성은 모두 퇴피식 토성이다. 이 지역 관방유적들의 특징은 안성천의 북안을 따라 반경 5~8km의 범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배치되었다는 것이고, 안성천과 그 지류의 합류점에 위치하면서도 한결같이 지류의 서안에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치는 서해안과 아산만·남양만 방면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축성시기는 2~5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으나 고려시대까지 그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판 7. 평택 도일동유적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전경



도판 8. 평택 장당동·지제동유적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통일신라시대 유적도 비교적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평택 소사벌유적⁵⁴⁾과 평택 도일동유적⁵⁵⁾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포승읍 도곡리유적⁵⁶⁾·고덕면 당현리유적⁵⁷⁾·서탄면 수월암리유적⁵⁸⁾·평택 서정동유적⁵⁹⁾ 등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곽묘가 다수 조사되었다. 고덕면 여염리유적⁶⁰⁾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주혈군, 수혈유구, 우물 등의 유구가 다수 조사되었으며, 주거생활공간의 관계파악에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외에도 진위면 갈곶리유적⁶¹⁾에서는 대부완 등이 출토되는 토기가마 2기가 확인되었고, 팽성읍 추팔리·안중읍

51)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平澤 柏峯里遺蹟』.

52) (財)三江文化財研究院, 2011, 『平澤 東倉里遺蹟』.

53) (재)서해문화재연구원, 2011, 『平澤 東朔洞遺蹟』.

54)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11, 『平澤 소사벌遺蹟』.

55)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7, 『平澤 道日洞遺蹟』.

56)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평택 수월암리유적』.

57) (財)嘉耕考古學研究所, 2011, 『平澤 堂峴里遺蹟(I)·(II)』.

58)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평택 수월암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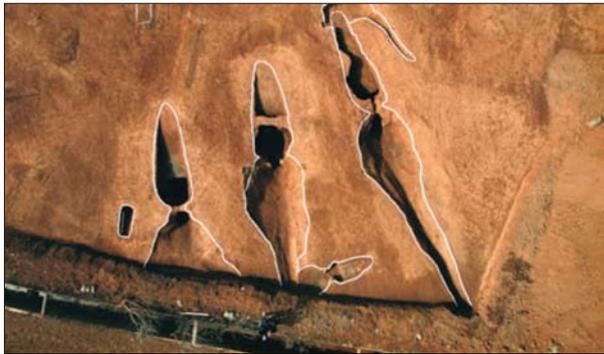
59) (財)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6, 『平澤 西井洞遺蹟』.

60)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여염리유적』.

61)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葛串里遺蹟』.

덕우리·청북면 옥릴리 등의 여러 곳에서 유물산포지가 파악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유적 역시 다수의 조사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고덕면 궁리유적⁶²⁾에서는 고려시대의 구 1기, 석곽묘 1기, 옹관묘 1기, 고려~조선시대 수혈유구 42기 등이 조사되었고, 진위면 갈곶리·청호리 유적⁶³⁾에서는 고려시대 기와가마 1기, 석곽묘 2기, 구들시설 1기, 수혈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포승읍 도곡리·홍원리유적⁶⁴⁾에서는 고려시대 주거지 9기가, 청북읍 백봉리유적⁶⁵⁾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 2기, 기와가마 2기, 수혈유구 3기 등이 조사되었다. 평택 지산동유적⁶⁶⁾에서는 고려시대 석축열과 와적층이 조사되었고, 팽성읍 남산리유적⁶⁷⁾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기와가마와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관방유적으로는 진위면 견산리산성·안중읍 비파산성·안중읍 용성리성·현덕면 덕목리성·포승읍 석정리장성·팽성읍 농성 등이 보고된 바 있다.⁶⁸⁾



도판 9. 평택 남산리유적 고려시대 기와가마 전경



도판 10. 평택 백봉리유적 고려시대 건물지 전경

조선시대 이후의 유적들은 고덕면 해창리유적⁶⁹⁾, 평택 장당동·지제동유적⁷⁰⁾, 고덕면 여염리 유적⁷¹⁾, 진위면 갈곶리유적⁷²⁾, 청북읍 옥길리유적⁷³⁾ 등에서 보고되었으며, 주거지, 수혈유구, 토광묘 등과 같은 생활·무덤유적들이 대규모로 조사된 바 있다. 관방유적으로는 진위면 봉남리 아곡마을 산성·청북면 옥릴리 무성산성 등이 있고,⁷⁴⁾ 봉수로는 포승읍 원정리 괴태곶봉수가 있다.⁷⁵⁾ 또한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이후의 대규모 주거지군 및 분묘군과 토루가 확인되었다.⁷⁶⁾

62)畿甸文化財研究院, 2006, 『平澤 宮里遺蹟』.

63)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葛串里遺蹟』.

64)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道谷里·洪原里遺蹟』.

65)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平澤 柏峯里遺蹟』.

66) (財)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平澤 芝山洞遺蹟』.

67)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南山里遺蹟』.

68) 백종오, 2003, 「고려성곽」, 『京畿道の 城郭』.

69) (財)慶南文化財研究院, 2017, 『평택 해창리유적』.

70) 경기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장당동·지제동유적』.

71)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여염리유적』.

72)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葛串里遺蹟』.

73) (財)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玉吉里遺蹟』.

74) 유재춘, 2003, 「조선성곽」, 『京畿道の 城郭』.

75) 김주홍, 2003, 「경기도의 봉수」, 『京畿道の 城郭』.

76)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2) 역사적 배경

청동기시대의 토착적 문화에 세형동검 및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중부이남 지역에 한(韓)이라는 정치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한은 마한 54개국, 진한·변한이 각각 12개국, 78개국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⁷⁷⁾ 이 삼한 중에 평택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했던 지역으로 볼 수가 있으며, 마한의 54국 중에 목지국(직산, 성환, 평택)으로 비정될 수 있다.⁷⁸⁾ 이후 평택 일대는 점차 한강일원에서 강성해진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진위 지역은 연달부곡(淵達部曲)이나, 혹은 금산현(金山縣), 또는 송촌활달(宋村活達)로, 평택 지역은 하팔현(河八縣)⁷⁹⁾ 등으로 불려지면서 백제의 지방행정단위로 편제되었다.

5세기 들어 장수왕은 남진정책에 힘을 기울여 백제의 수도 한성을 475년에 함락시켰다. 이로써 한강유역은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한강유역 일대를 취하자, 이곳에 한산군(漢山郡)을 설치해 자신의 지방행정단위로 편제했다. 또한 진위지역도 부산현(釜山縣)으로 개편되어 고구려의 군현이 되었다.⁸⁰⁾ 현재는 토성이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 견산리 산성을 부산성으로 일컫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견산리가 부산현의 읍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한다. 이후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된 후 평택 지역의 행정단위 편제와 개편도 이루어졌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군현이 된 적도 있었던 부산현은 9주 중 한주 하에 편입되었다. 그러던 중 경덕왕 16년에 시행된 한화정책에 따라 진위현으로 명칭이 바뀌고, 수성현(水城縣)의 영현으로 편제되었다.⁸¹⁾ 애초 백제의 영역이었던 하팔현은 통일신라 이전에 이미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곳이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웅주(熊州) 하에 편입되었다. 또한 한화정책이 시행될 때 하팔현이 팽성현(彭城縣)으로 개명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⁸²⁾ 이로써 오늘날에 평택 지역의 행정단위 호칭으로 쓰이는 진위와 팽성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한양천도에 따라 경기도역의 개편이 수반되었고, 경기도와 접경한 다른 도역(道域)도 연쇄적으로 개편되었다. 1394년 한양천도로 양광도(楊廣道)의 광주·수원·양근·쌍부·용구·인천·천녕·지평 등은 경기도에 귀속시켰다. 평택현은 조선 태종 13년(1415) 양광도에 속했으나 1423년에 충청도로 편입시키고 현감을 파견하였으며, 군사적으로는 홍주진관에 소속시켰다.⁸³⁾ 1505년(연산군11) 6월에는 익산·진천·아산현과 함께 경기도에 이속하였다.⁸⁴⁾

77) 後漢書, 『東夷傳』, 韓條.

78) 경기도, 1979, 『경기도사』 제1권.

79) 『高麗史』, 卷56, 地理, 天安府, 平澤縣.

“평택현은 옛날의 하팔현으로서 고려 때 지금 명칭으로 부르고 천안부에 소속시켰다”.

80) 『高麗史』, 卷56, 地理, 水州, 振威縣.

“진위현은 원래 고구려의 釜山縣이다”.

81) 『高麗史』, 卷56, 地理, 水州, 振威縣.

82) 平澤市·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調査報告書』, p.633.

『三國史記』 지리지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高麗史』에도 옛날의 하팔현이라 하여 명확한 시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초에 처음 하팔현이 만들어져서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개명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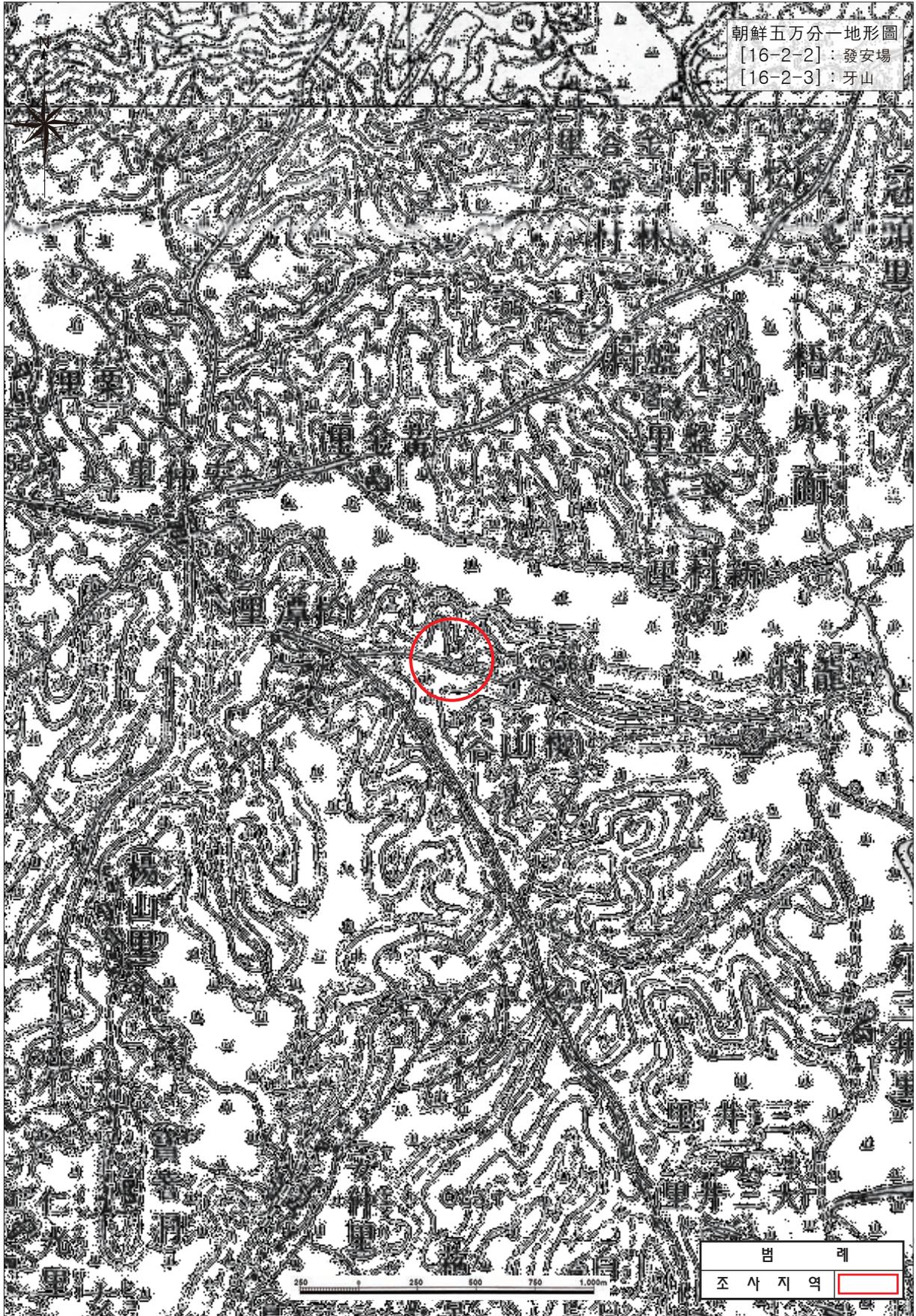
83) 『勝覽』, 卷19, 平澤縣條.

84) 『燕山君日記』, 11年6月 壬午條.

동년 11월에는 익산·진천·아산·평택 등 5역(驛)을 성권도(成勸道)라 부르게 하였다. 이듬해인 1506년에 충공도(忠公道)를 충청도(忠淸道)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이속하였던 4개현을 다시 충청도로 환속시켰다.⁸⁵⁾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 기간인 1913년 12월 29에 공포되고, 이듬해 3월 1일 시행한 조선총독부 부령 제 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따라 각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대폭 정리되었는데, 대체로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이때에 만들어진다. 경기도 수원군에 속해 있던 현재의 고덕면 일부와 오성면 일부지역이 평택군에 병합되고 청북면·포승면·현덕면은 진위군에 편입되었다. 평택군 동부는 경기도 진위군 부용면으로, 평택군 서부는 진위군 서면으로 편제되었다. 이로써 평택군은 경기도로 편입되게 되었다. 1932년 4월에는 부용면과 서면을 합하여 팽성면으로 하였으며, 1938년 9월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함에 따라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이 되어 오랜만에 팽성의 명칭이 부활하였다. 그 후 1962년 12월에 법률 제1177호로 송탄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72년 6월에 평택군 조례 25호로 송탄읍에 신장출장소를 신설하였다.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2읍 8면 399리로 편제되었으며, 1979년 5월 팽성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81년에는 송탄읍이 시로 승격되어 평택군과 분리되었다. 1981년 1월 1일에는 법률 제3798호에 의해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어 평택지역은 평택시·송탄시·평택군의 3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5월 10에 다시 합쳐져서 현재의 평택시가 확정되었다.

85) 『中宗實錄』, 元年9月 辛巳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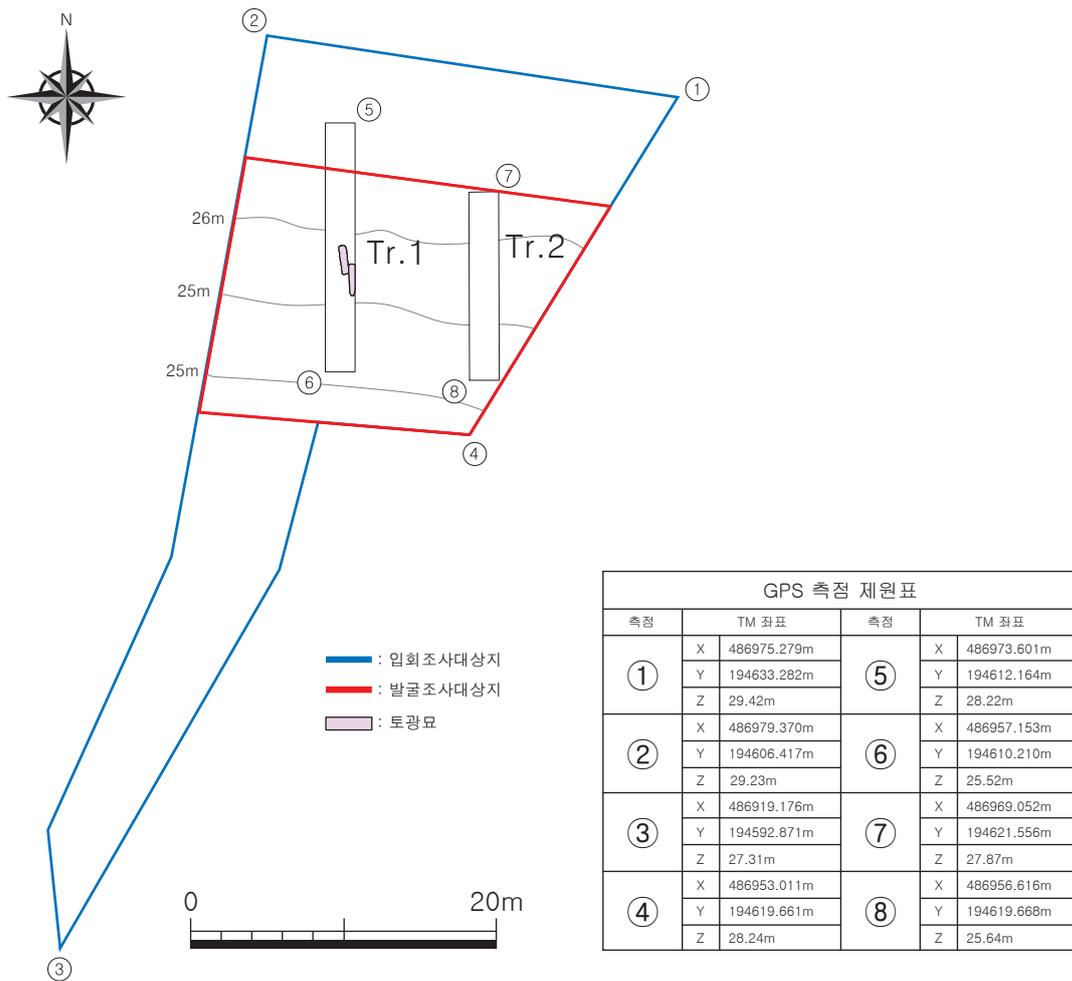


도면 10. 조사지역 일대의 근대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朝鮮總督府, 1922)

Ⅲ.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405-148번지 일대이며, 지리적으로는 단독으로 형성된 구릉지(해발고도 36m)의 서쪽으로 뺀어 내려가는 가지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남북방향으로 개설된 2차선 도로가 인접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개설로 인해 구릉의 하단부가 일부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구릉지의 서쪽 가지능선 말단부의 지형은 해발 30m 내외의 남쪽 사면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남쪽으로 이어지는 곡저지 일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입회조사는 유적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남사면 중앙부에 트렌치를 구획하였고, 그 결과 1번 트렌치에서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트렌치를 중심으로 확장한 면적 345㎡는 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1. 입회조사



도면 11. 입회조사 트렌치 배치도(1:500)

입회조사는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 파악과 유구의 잔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렌치 조사법을 이용하였다. 트렌치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사면 중앙부를 중심으로 등고선과 직교되게 구획하였으며, 규모는 폭 2m, 길이 12~17m로 2개의 트렌치를 12m 간격으로 구획하였다.

트렌치 굴토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유구가 확인된 층까지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유구나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반층까지 노출하여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트렌치 내부조사는 표토를 제거한 후 토층조사와 평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 입회조사 결과, 조사지역 서쪽에 설치한 1번 트렌치에서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고, 이외에 유구 및 유물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참조>

【표 2】 입회조사 트렌치 현황

트렌치번호	규모	유구 존재여부	유구 성격 및 수량
Tr. 1	2×17m	有	토광묘 2기
Tr. 2	2×12m	無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입회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1번 트렌치를 중심으로 확장한 면적 345㎡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굴삭기 및 인력을 이용하여 유구가 노출된 기반층 (풍화암반토층)까지 하강하여 전면제토를 실시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내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도면 및 사진촬영 등의 기록 작업, 수습 유물의 정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유구 측량과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유적의 전체적인 모습과 규모, 배치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발굴조사 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구는 토광묘 6기와 수혈 1기로 세부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토광묘는 묘의 장축을 기준으로 하여 직교되게 ‘—’자형의 단축 독을 남기고 절반을 먼저 하강하여 내부토층의 변화와 목관(선)의 유무, 굴광 구조 등을 파악하였고, 층위 기록을 마친 후에는 목관이나 목관선을 남겨둔 상태로 독을 제거하여 목관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내부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보강토나 충전토를 제거하여 최초 굴광면과 부장유물의 유·무를 확인한 후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수혈은 단축을 기준으로 ‘—’자형 단축 독을 남기고 하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층위 기록을 마친 후 독을 제거하여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내부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실측과 사진촬영을 실시한 후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상 2019년 6월 10일~2019년 6월 28일까지 실조사일수 14일간의 일정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토광묘의 내부구조 및 출토유물상 고려~조선시대의 유구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외에 확인된 수혈은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조성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없었다.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의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발굴조사 유구 현황

시 대	유 구	기 수	유 물
고려시대	토광묘	2	청자 접시, 청자 병
조선시대	토광묘	4	.
시대미상	수혈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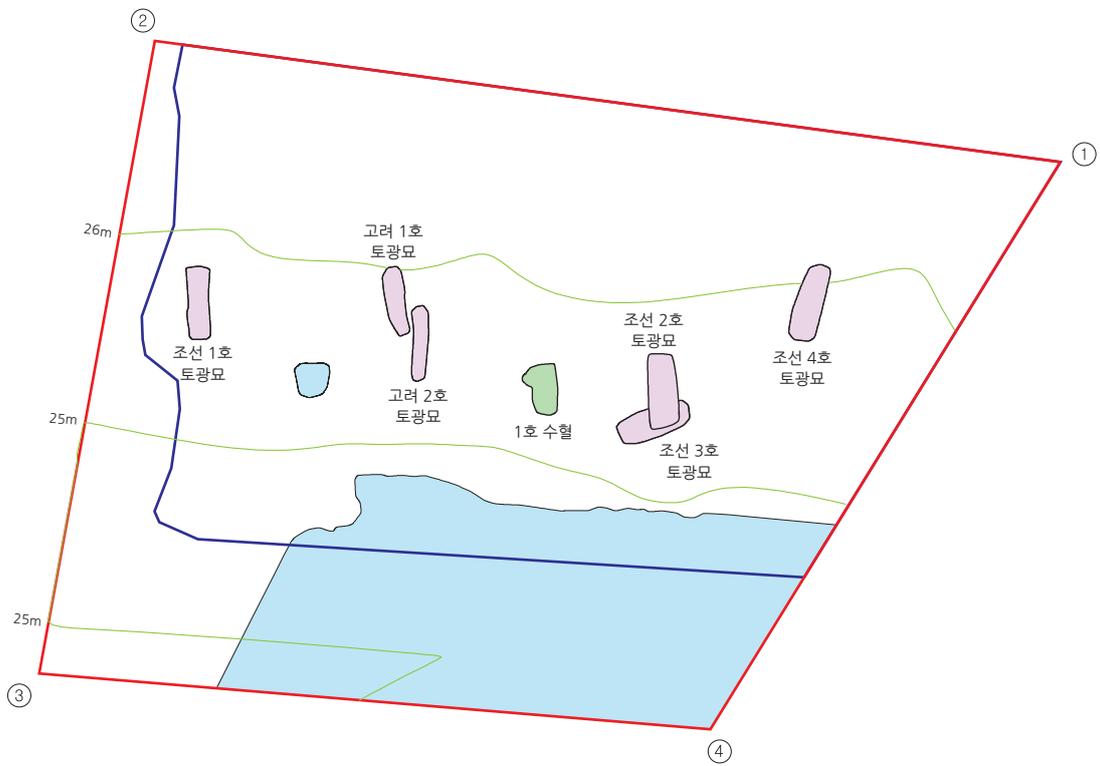
조사지역의 층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I 층은 표토층 혹은 현대의 식재 이식 등을 위해 대지조성을 한 성토층을 포함한다. 그 아래로는 자연퇴적층인 명적갈색 점질사토, 명황갈색 점질사토층, 유구가 조성된 풍화암반토층(일부 토양썰기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원지형은 현대에 조성된 식재 이식, 대지 조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 삭평되어 유구의 상부는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참조)

【표 4】 조사지역 기준층위

층 위	토색 및 토질	두께(cm)	내 용	비 고
I	암황색 사질점토	30~50	근·현대 성토층	현 지표면에 해당하며, 하단부에는 식재 이식 등을 위한 성토층을 포함한다. 대지 평탄화 과정상 하단부로 갈수록 해당 층위가 두터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II	명적갈색 점질사토층	20	자연퇴적층	사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이는 자연 퇴적층이다. 식재 이식, 대지 조성 등으로 인해 일부 교란 혹은 삭평되었다.
III	명황갈색 점질사토층	20~30		
IV	명갈색 풍화암반토 (일부 토양썰기층)	.	생토층	생토층으로 유구가 확인되는 층위이다.



도판 11. 조사지역 기준층위



- : 발굴조사대상지
- : 토광묘
- : 수혈
- : 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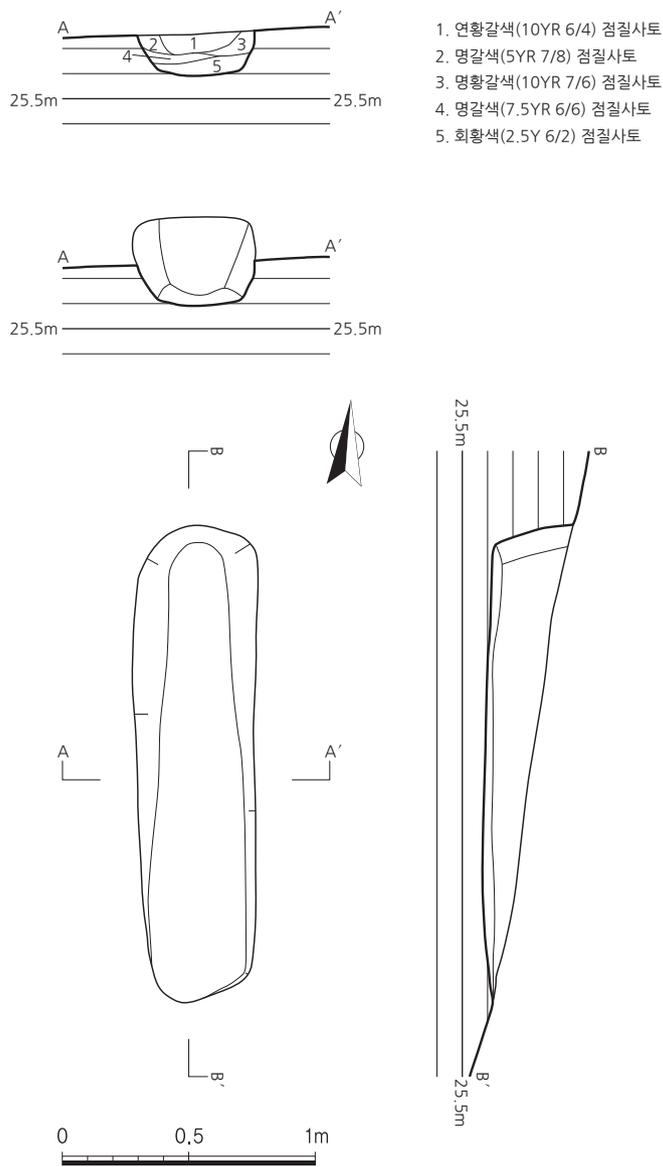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486968.107m	②	X	486971.318m
	Y	194628.881m		Y	194605.016m
	Z	27.12m		Z	27.64m
③	X	486954.520m	④	X	486953.011m
	Y	194601.956m		Y	194619.661m
	Z	23.51m		Z	23.68m

도면 12. 발굴조사지역 전체 유구현황도(1:200)

A. 고려시대

1. 토광묘

1) 토광묘 1호



도면 13. 토광묘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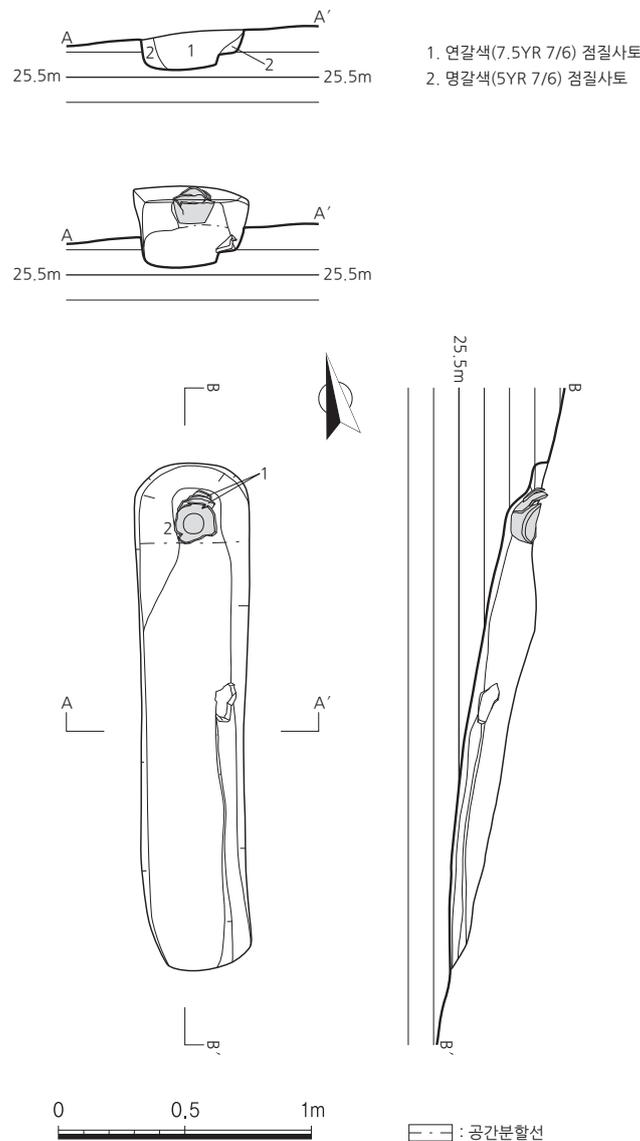
가. 유구 (도면 13, 도판 16)

토광묘 1호는 조사지역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9m 선상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4.5m 떨어져 조선 토광묘 1호, 동쪽으로 약 6.6m 떨어져 조선 토광묘 2호가 나란히 위치하며, 동장벽 하단에는 고려 토광묘 2호가 접해 있다. 유구의 윤곽선은 표토를 제거한 후 기반암인 풍화암반토에서

말각처리된 세장방형의 묘광선이 노출되었고, 유구의 상부는 지형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189cm, 너비 48cm, 최대깊이 31cm 정도로 장단비는 3.9:1이며, 장축방향은 N-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내부조사는 장축방향과 직교하도록 묘광의 중앙에 횡으로 '—'자 독을 설정한 후, 하강조사를 실시해 내부퇴적 양상과 구조를 파악하였다.

내부 층위는 5개의 층으로 회황색, 명갈색, 명황갈색, 명갈색, 연황갈색의 점질사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인다. ⑤층은 내부 부식의 영향을 받은 층으로 회색조를 띠며, 이후 명갈색·명황갈색 점질사토가 단면 'U'자형으로 함몰된 양상이다.

구조는 일단광식 토광묘로 벽면 중 양쪽 장벽과 북단벽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남단벽은 지형삭평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바닥면은 풍화암반토를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상하단의 높이 차이가 약 5cm로 약한 경사면을 이룬다. 내부에서 인골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4. 토광묘 2호

2) 토광묘 2호

가. 유구 (도면 14, 도판 17)

토광묘 2호는 조사지역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8m 선상에 조성되었다. 서쪽으로 약 5.2m 떨어져 조선 토광묘 1호, 동쪽으로 약 5.8m 떨어져 조선 토광묘 2호가 나란히 위치하며, 서장벽 상단에는 고려 토광묘 1호가 접해 있다. 유구의 윤곽선은 표토를 제거한 후 기반암인 풍화암반토에서 말각처리된 세장방형의 묘광선이 노출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202cm, 너비 45cm, 최대깊이 18cm 정도로 장단비는 4.4:1이며, 장축방향은 N-1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내부조사는 장축방향과 직교하도록 묘광의 중앙에 횡으로 '—'자 독을 설정한 후, 하강조사를 실시해 내부퇴적 양상과 구조를 파악하였다.

내부 층위는 2개의 층으로 명갈색 점질사토가 양 벽가에 비스듬히 확인되며, 중앙부에는 연갈색 점질사토가 함몰된 양상이다.

구조는 일단광식 토광묘로 벽면 중 서장벽과 동장벽 상단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동장벽 중앙부에는 길이 15cm, 너비 10cm 정도의 소형 활석을 세운 후 하단 벽면은 이단으로 굴착하여 피장자를 중앙부에 안치하도록 조성하였으며, 북단벽은 이단으로 굴착한 후 벽면에 잇대어 유물을 부장하였다. 바닥면은 풍화암반토를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북쪽의 유물 부장공간과 남쪽의 매장공간으로 분할하였다. 부장공간은 유물을 안정적으로 부장하기 위해 바닥면을 약간 오목하게 굴착하였으며, 매장공간은 상하단의 높이 차이가 약 23cm로 경사면을 이룬다.

유물은 부장공간에서 청자 접시 1점, 청자 병 1점이 확인되었는데, 청자 접시는 북단벽에 잇대어 세워져 있었으며 청자 병은 접시와 함께 나란히 정치되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청자 접시(도면 15-①, 도판 18-③)

녹청자 접시로 1/3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갈색이며,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유색은 암녹색을 띠고, 굽과 동체 하단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시유상태가 불량하다. 평굽으로, 기측면은 저부에서 사선으로 꺾여 올라가다 구연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내화토받침흔이 네군데에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레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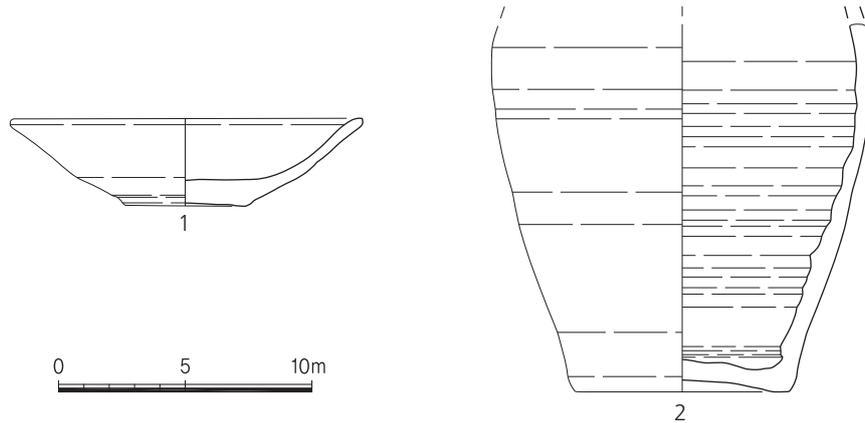
기고 : 3.2cm, 구경 : 13.9cm, 저경 : 5cm

2. 청자 병 저부편(도면 15-②, 도판 18-④)

녹청자 병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회갈색이며,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유색은 암녹색을 띠며, 저부와 동체 하단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시유상태가 불량하다. 평저이며, 기측면은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다 동상위에서 약간 축약되어 올라간다.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깎기흔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회전성형으로 인한 요철이 강하게 관찰된다.

잔고 : 14.7cm, 저경 : 8.5cm, 두께 : 1.0cm



도면 15. 토광묘 2호 출토유물

B. 조선시대

1. 토광묘

1) 토광묘 1호

가. 유구 (도면 16, 도판 19)

토광묘 1호는 조사지역의 서쪽경계 인근 해발 25.7m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약 4.5m 이격되어 고려 토광묘 1호가 자리한다. 유구의 윤곽선은 표토 및 자연퇴적토를 제거하자 기반암인 풍화암반토에서 장방형의 묘광선이 노출되었으며, 유구의 상부는 지형사평으로 인해 일부 유실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190cm, 너비 50cm, 최대깊이 43cm 정도로 장단비는 3.2:1이며, 장축방향은 N-9°-W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내부조사는 장축방향과 직교하도록 묘광의 중앙에 횡으로 ‘—’자 독을 설정한 후, 하강조사를 실시해 내부퇴적 양상과 구조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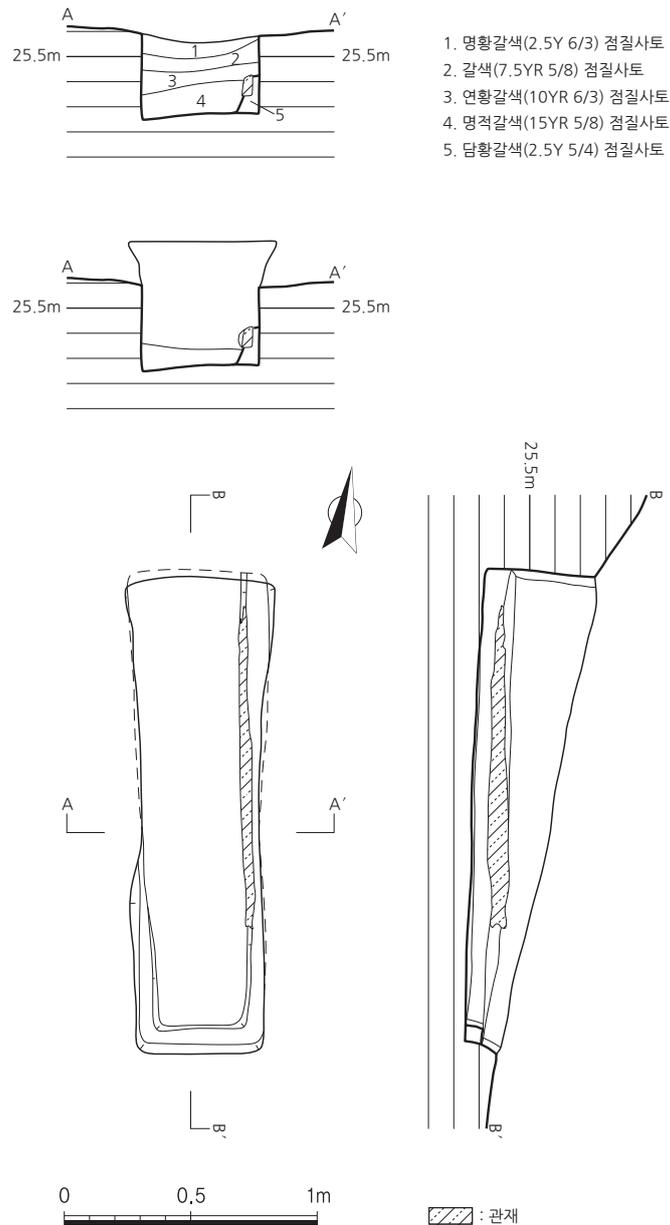
내부 층위는 5개 층으로 충전토(담황갈색 점질사토)를 제외하고 바닥면에는 관재 및 관 부식토가 포함된 명적갈색 점질사토가 확인되며, 그 위로 연황갈색, 갈색, 명황갈색 점질사토가 서쪽으로 갈수록 비스듬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보아 목관의 붕괴는 서쪽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관선은 묘광 바닥에서 약 12cm 높이에서 확인되며, 충전토와 관재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추정되는 목관의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48cm 정도이며 장단비는 4.5:1 정도이다.

구조는 일단광식의 토광목관묘로 벽면 중 양 장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북단벽과 남단벽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바닥면은 풍화암반토를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상하단의 높이 차이는 약 10cm로 경사면을 이룬다. 내부에서 인골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2) 토광묘 2호

가. 유구 (도면 17, 도판 20)

조선 토광묘 2호는 조사지역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해발 25.5m 선상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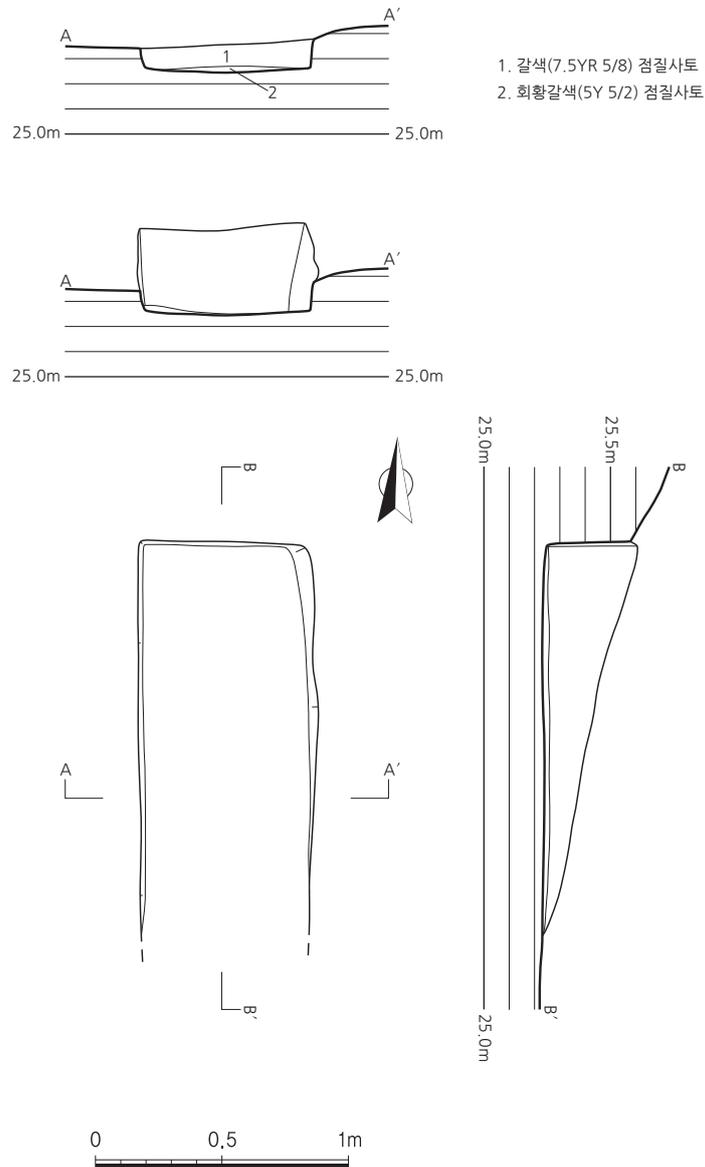


도면 16. 토광묘 1호

5.8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려 토광묘 2호, 북동쪽으로 약 3.2m 떨어져 조선 토광묘 4호가 위치한다. 유구의 윤곽선은 표토 및 자연퇴적층을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선이 노출되었으며, 남쪽으로는 조선 토광묘 3호 윤곽선 위에서 묘광선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잔존길이 160cm, 너비 72cm, 최대깊이 45cm 정도이며, 잔존상태상 장단비는 2.5:1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내부조사는 장축방향과 직교하도록 묘광의 중앙에 횡으로 '—'자 독을 설정한 후, 하강조사를 실시해 내부퇴적 양상과 구조를 파악하였다.

내부 층위는 2개 층으로 바닥면에는 정지토인 회황갈색 점질사토가 얇게 깔려있으며, 그 위로 갈색 점질사토가 함몰된 양상이다.

구조는 일단광식 토광묘로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경사면을 따라 유구의 자연적인 삭평이 이루어져 남단벽이 유실되었다. 바닥면은 풍화암반토를 약간 굴곡지게 굴착한 후, 그 위에 정지토를 얇게 깔아 평편하게 조성하였다. 내부에서 인골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7. 토광묘 2호

3) 토광묘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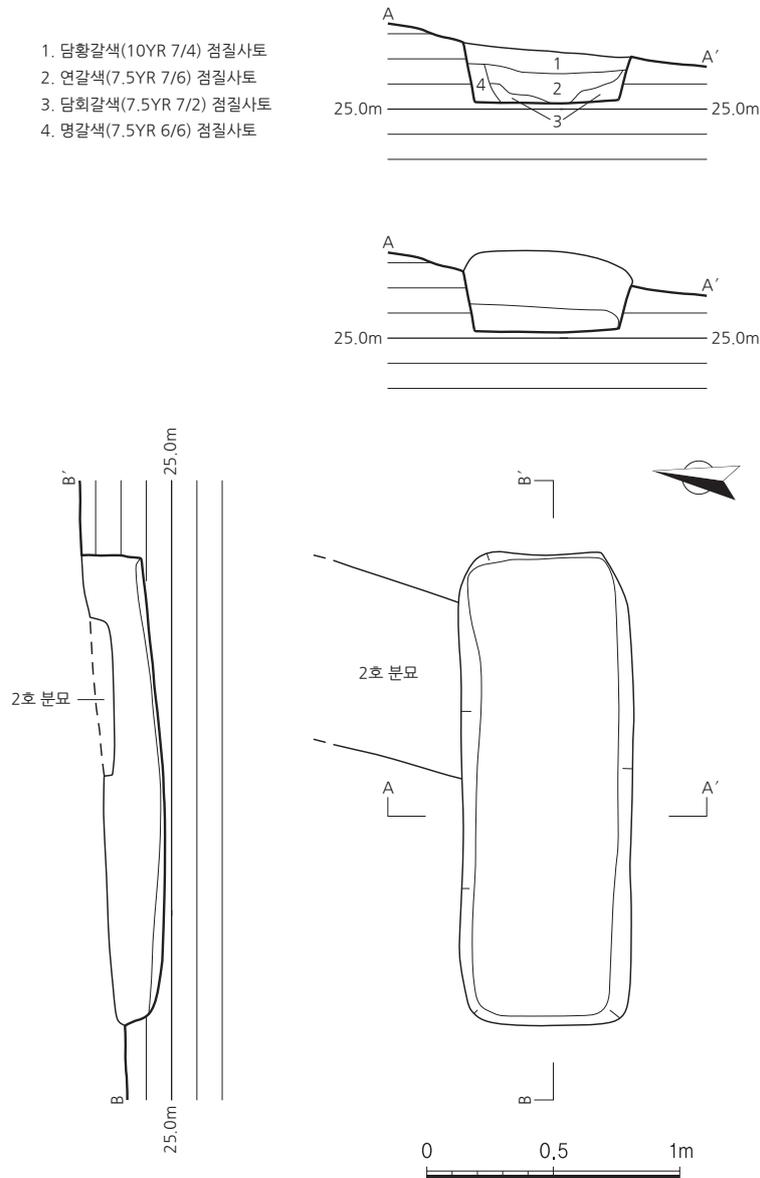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8, 도판 21-①~④)

조선 토광묘 3호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해발 25.3m 선상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2.4m 정도 떨어져 조선 수혈 1호, 북동쪽으로 약 3.3m 정도 떨어져 조선 토광묘 4호가 위치한다. 유구의 윤곽선은 표토 및 자연퇴적층을 제거한 후 기반암인 토양층에서 장방형의 묘광선이

노출되었으며, 북장벽은 조선 토광묘 2호 조성으로 인하여 일부 파괴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192cm, 너비 66cm, 최대깊이 24cm 정도로 장단비는 2.9:1의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81°-W으로 등고선과 거의 평행하다. 내부조사는 장축방향과 직교하도록 묘광의 중앙에 횡으로 '—'자 독을 설정한 후, 하강조사를 실시해 내부퇴적 양상과 구조를 파악하였다.

내부 층위는 4개 층으로 양 측면에는 명갈색 및 담회갈색 점질사토가 비스듬히 쌓여 있으며, 그 위로 연갈색과 담황갈색 점질사토가 함몰된 양상을 보인다.

구조는 일단광식 토광묘로 벽면은 비스듬히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바닥면은 풍화암반토를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상하단과 중앙부의 높이 차이는 약 10cm로 가운데로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내부에서 인골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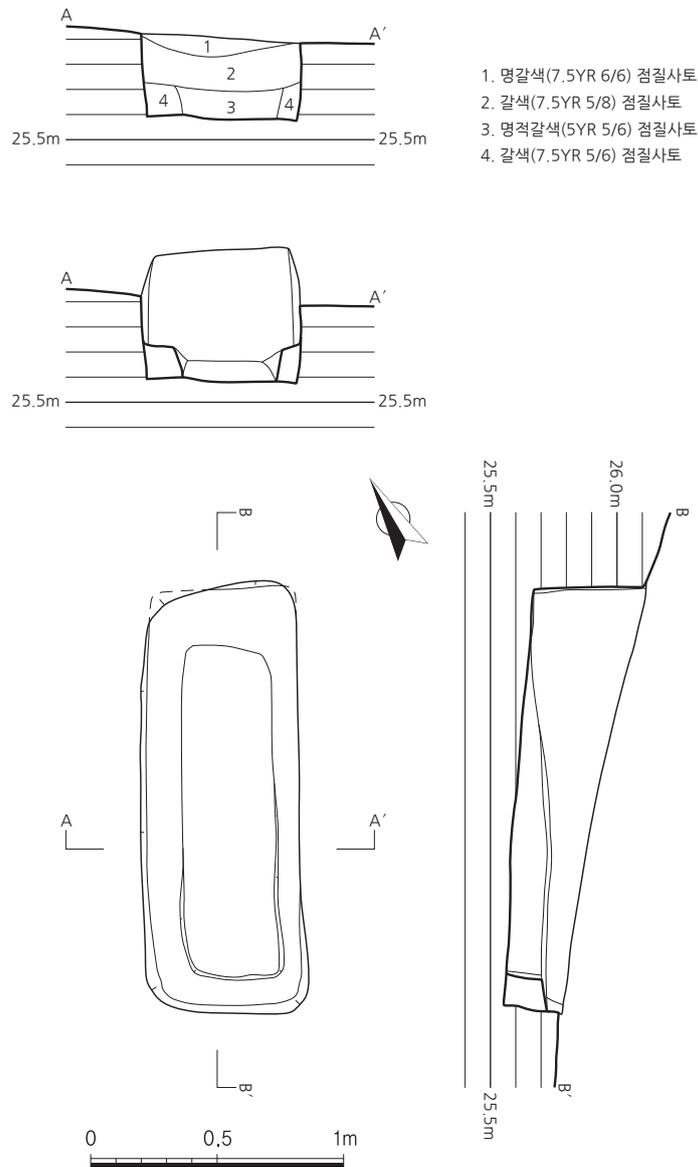
도면 18. 토광묘 3호

4) 토광묘 4호

가. 유구 (도면 19, 도판 21-⑤~⑦, 22-①·②)

조선 토광묘 4호는 조사지역의 동쪽 경계 인근 해발 26.1m 선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약 3.3m 이격되어 조선 토광묘 2·3호가 위치한다. 유구의 윤곽선은 표토를 제거하자 기반암인 풍화암반토에서 장방형의 묘광선이 노출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172cm, 너비 64cm, 최대깊이 43cm 정도로 장단비는 2.6:1이며, 장축방향은 N-28°-W로 등교선에 직교한다. 내부조사는 장축방향과 직교하도록 묘광의 중앙에 횡으로 '—'자 독을 설정한 후, 하강조사를 실시해 내부퇴적 양상과 구조를 파악하였다.

내부 층위는 4개 층으로 충전토(갈색 점질사토)를 제외하면, 명적갈색, 갈색, 명갈색 점질사토가 완만하게 'U'자형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인다. 목관선은 묘광 바닥에서 약 14cm 높이에서 확인되며,



도면 19. 토광묘 4호

층전토의 전체적인 범위를 고려했을 때 추정되는 목관의 규모는 길이 132cm, 너비 40cm이고, 장단비는 3.3:1 정도이다.

구조는 일단광식의 토광목관묘로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바닥면은 풍화암반토를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상하단의 높이 차이는 약 10cm로 경사면을 이룬다. 내부에서 인골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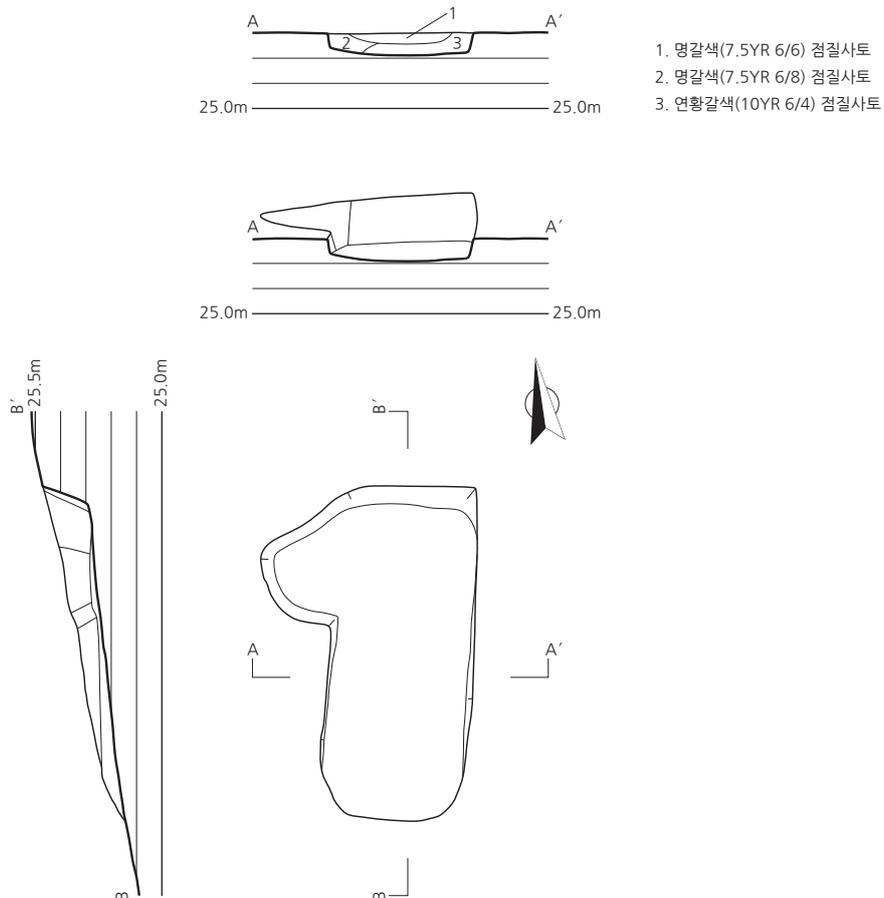
C. 시대미상

1. 수혈

1) 수혈 1호

가. 유구(도면 20, 도판 22-③~⑥)

수혈 1호는 조사지역 중앙부의 해발 25.4m 선상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2.6m 떨어져 고려 토광묘 2호, 동쪽으로 약 2.4m 떨어져 조선 토광묘 2·3호가 자리하고 있다.



도면 20. 수혈 1호

유구의 윤곽선은 표토를 제거한 후 기반암인 풍화암반토에서 평면 부정형으로 노출되었고, 유구의 상부는 지형사평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다. 수혈의 잔존크기는 길이 133cm, 너비 85cm, 최대깊이 19cm 정도이다. 내부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하도록 유구 중앙부에 횡으로 '—'자 형의 토층дук을 설정하여 하강조사를 실시했다.

내부 층위는 3개 층으로 바닥면에서부터 명갈색 및 연황갈색 점질사토, 그 위로 명갈색 점질사토가 완만한 'U' 자형으로 확인되는데, 모두 자연 퇴적층으로 판단된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남단벽은 지형사평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바닥면은 북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경사져 내려가는 양상을 보인다.

IV. 조사성과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예정 사업부지에 해당한다.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실조사일수 14일)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고려시대 토광묘 2기, 조선시대 토광묘 4기, 시대미상의 수혈 1기 등 총 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구의 세부 속성은 아래 【표 5】·【표 6】과 같다.

【표 5】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속성표

시 대	호 수	평면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장단비	장법	출토유물
				묘광	목관			
				길이×너비×깊이	길이×너비			
고 려	1호	말각 세장방형	N-4°-W	189×48×31	-	3.9:1	직장	-
	2호	말각 세장방형	N-13°-W	202×45×18	-	4.4:1	직장	청자 병·접시
조 선	1호	장방형	N-9°-W	190×50×43	180×48	3.2:1	목관	-
	2호	장방형	N-1°-W	160×72×45	-	2.2:1	직장	-
	3호	장방형	N-81°-W	192×66×24	-	2.9:1	직장	-
	4호	장방형	N-28°-W	172×64×43	132×40	3.3:1	목관	-

【표 6】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 시대미상 수혈 속성표

시 대	호 수	평면형태	규모(cm)	출토유물
			길이×너비×깊이	
미 상	1호	부정형	133×85×31	-

위와 같이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고려~조선시대 토광묘는 내부구조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대략적인 시기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토광묘를 중심으로 조성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입지를 살펴보면, 토광묘는 구릉지 남사면 해발고도 25~26m 선상에 위치하며, 일부 중복관계가 확인되나 대부분 3~5m 간격으로 묘역이 겹치지 않도록 나란히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나뉘는데, 고려시대 토광묘는 전자에 해당되며 조선시대 토광묘는 후자에 해당된다. 또 조선시대 3호를 제외한 모든 토광묘가 등고선과 직교하며, 두침 방향은 경사방향을 따라 북향에 가깝게 두었다. 내부구조는 묘광의 굴착방식에 따라 일단광식만 확인되며, 목관을 안치한 조선 1·4호, 목관 없이 직장을 한 고려 1·2호, 조선 2·3호로 세분된다.

토광묘의 조성시기는 부장유물이 소량 확인되어 세분하긴 어렵지만, 고려 2호 부장품과 내부구조 등의 특징을 통해 대략적인 조성시기를 가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시대 토광묘는 2호 묘에서 청자 접시 1점, 청자 병 1점이 공반되었는데, 모두 조질의 녹청자로 유약의 시유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형태를 살펴보면, 접시는 평굽으로 기측면은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 구연으로 이어져 올라가며, 내저면에는 내화토 받침흔이 관찰된다. 청자 병은 바닥이 평편하고, 기측면은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다 동상위에 이르러 부드럽게 축약되어 올라간다. 이러한 형태의 녹청자는 해남 진산리 및 인천 경서동 가마터⁸⁶⁾에서 출토된 조질 청자 출토품이 대표적이며, 11세기경 개경 이외의 지방 수요자들에게 공급되는 청자로 알려져 있다.⁸⁷⁾ 또한 청자 접시의 형태 및 공반관계⁸⁸⁾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인 11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의 제작시기는 대략적으로 12세기대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표 7】 고려시대 토광묘 2호와 인천 경서동 가마터 출토 청자 비교



조선시대 토광묘의 조성시기는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내부 구조상으로 대략적인 조성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토광묘는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두 일단광식으로 목관이 안치된 경우와 직장인 경우로 구분되며, 관정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묘제의 간략화가 진행되는 17세기대에 조성⁸⁹⁾된 토광묘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선시대 토광묘는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은 입지상 토광묘가 대부분 25~26m 선상에서 묘역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 간격으로 조성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86) 國立中央博物館, 1990, 『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

87) 강경숙, 2005,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주)시공사.

88) 남진주, 2007, 「충청지역 고려고분 부장품의 양식」,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 강진청자박물관.

- 위 논문에 따르면 고려시대 중기에는 고분 부장품 중 해무리굽 완이 사라지고, 청자 발, 접시, 병, 주자, 잔탁, 금속유물 등이 공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반 부장된 동전의 제작시기는 대부분 11세기 후반 이후로 유물의 부장시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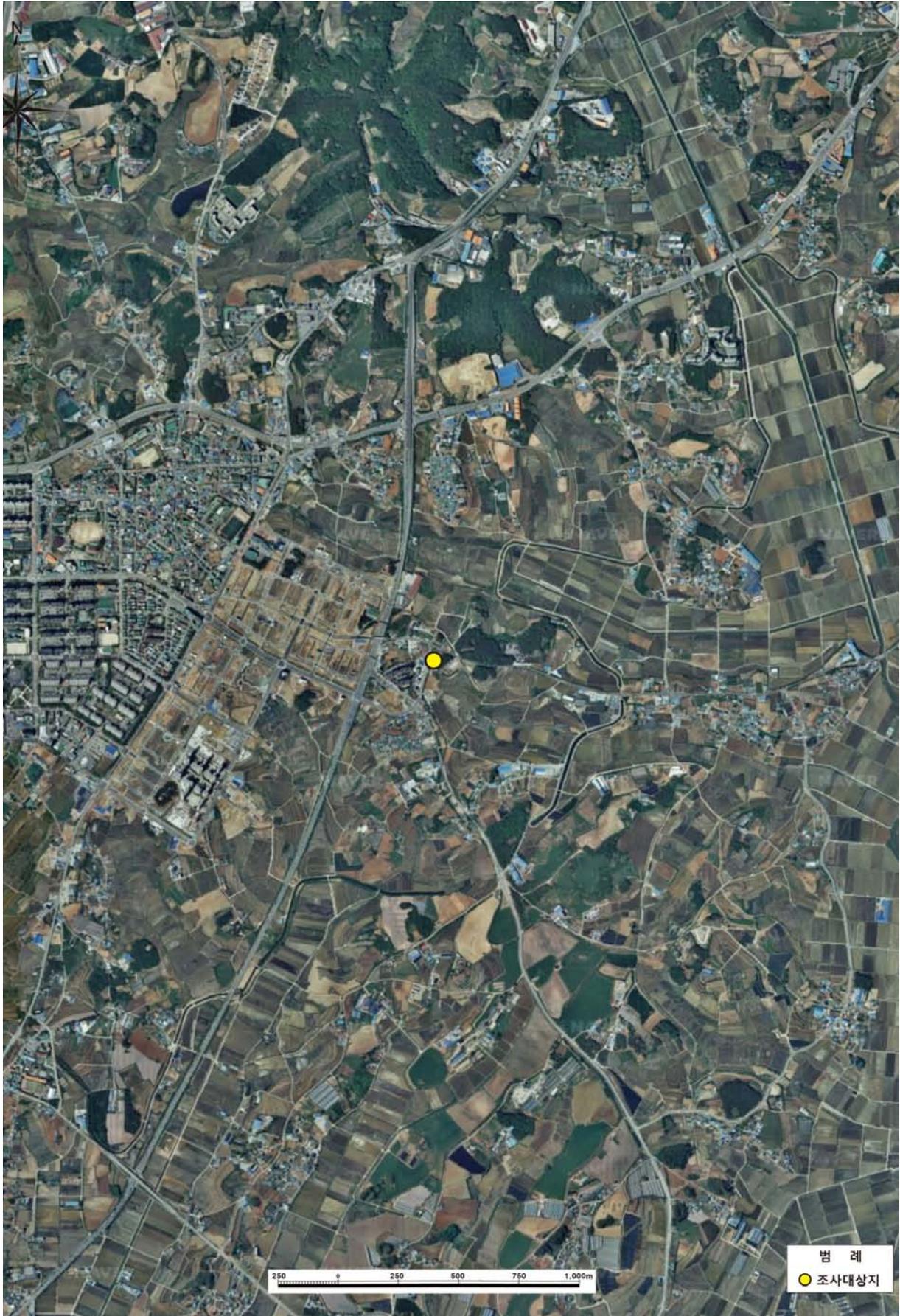
매장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시기적으로는 출토유물 및 내부구조상 12세기부터 17세기대까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본 유적에서 확인된 토광묘는 기존 조사성과와 비교해 대동소이하며 특이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고려~조선시대에 관한 발굴조사 자료의 축적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89) 김경선, 2008, 「조선시대 토광묘의 편년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소리, 2008, 「서울·경기지역 朝鮮時代 中·後期 灰槨墓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 논문에 따르면 목관의 결구방식 중 관정은 조선시대 전기인 15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선시대 중기인 16세기 이후부터는 나비장이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민소리) 이후 17세기대에 이르러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국가적 재난이 계속되어 묘제의 구조가 간략화되어 유물의 부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경선)

도 판



도판 12. 조사대상지 위성사진(Naver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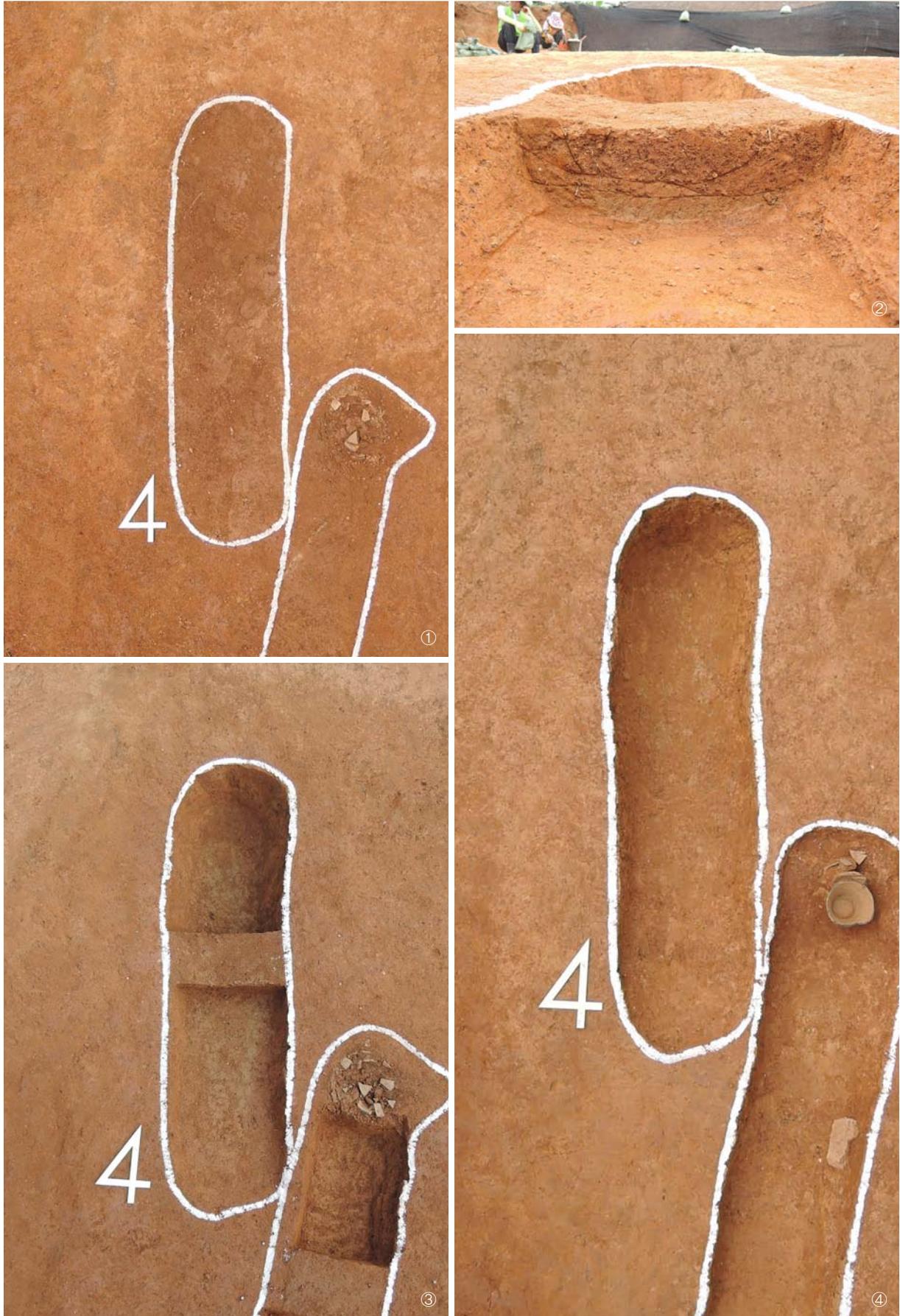
도판 13. 조사 전 전경(북동쪽에서①, 북쪽에서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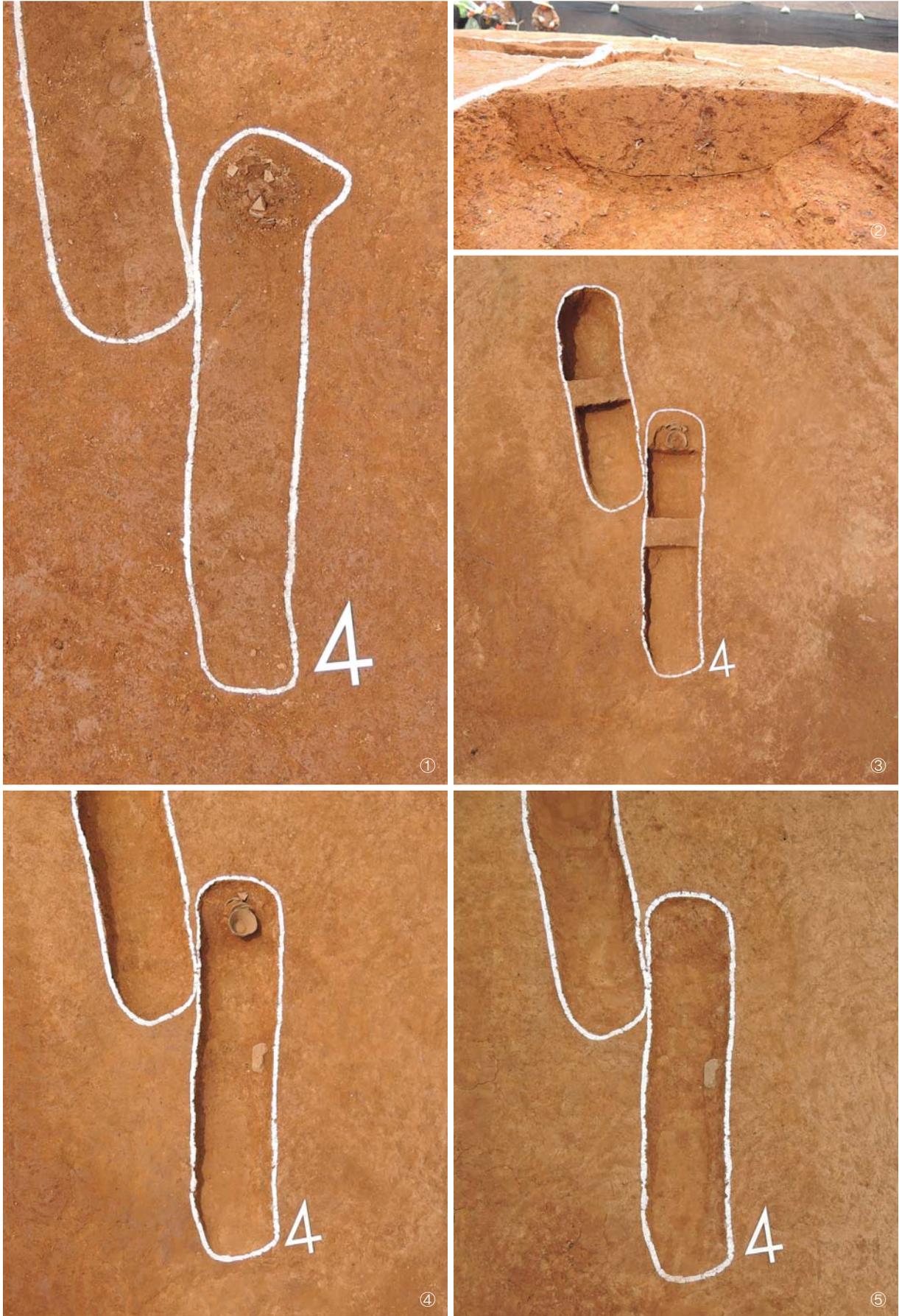
도판 14. 입회조사 대상지(Tr.1 전경①, Tr.2 전경②, 조사 후 전경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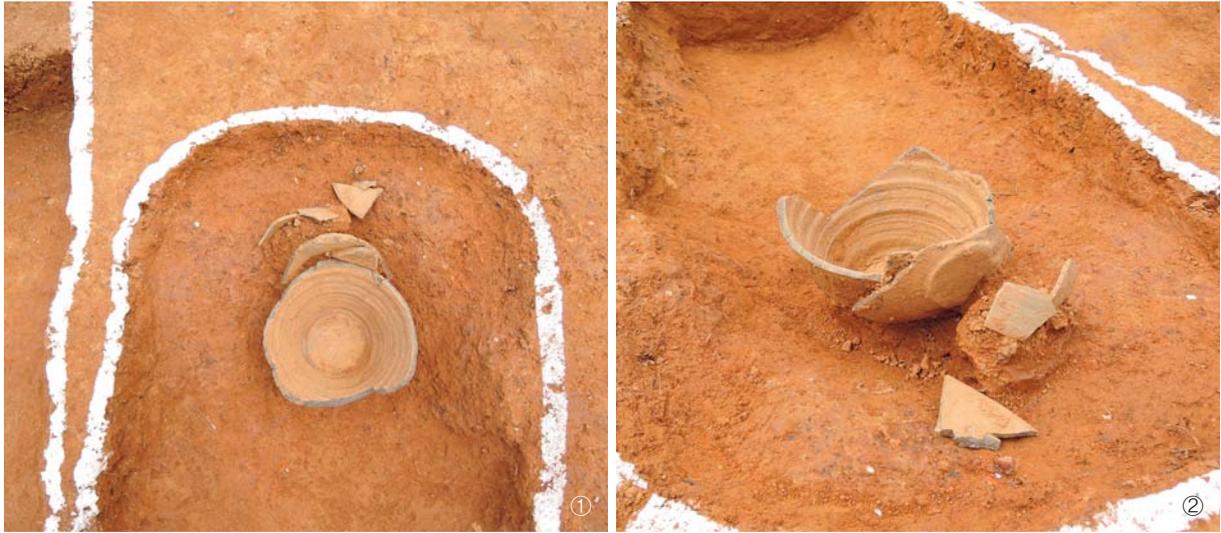
도판 15. 발굴조사 대상지(원경①,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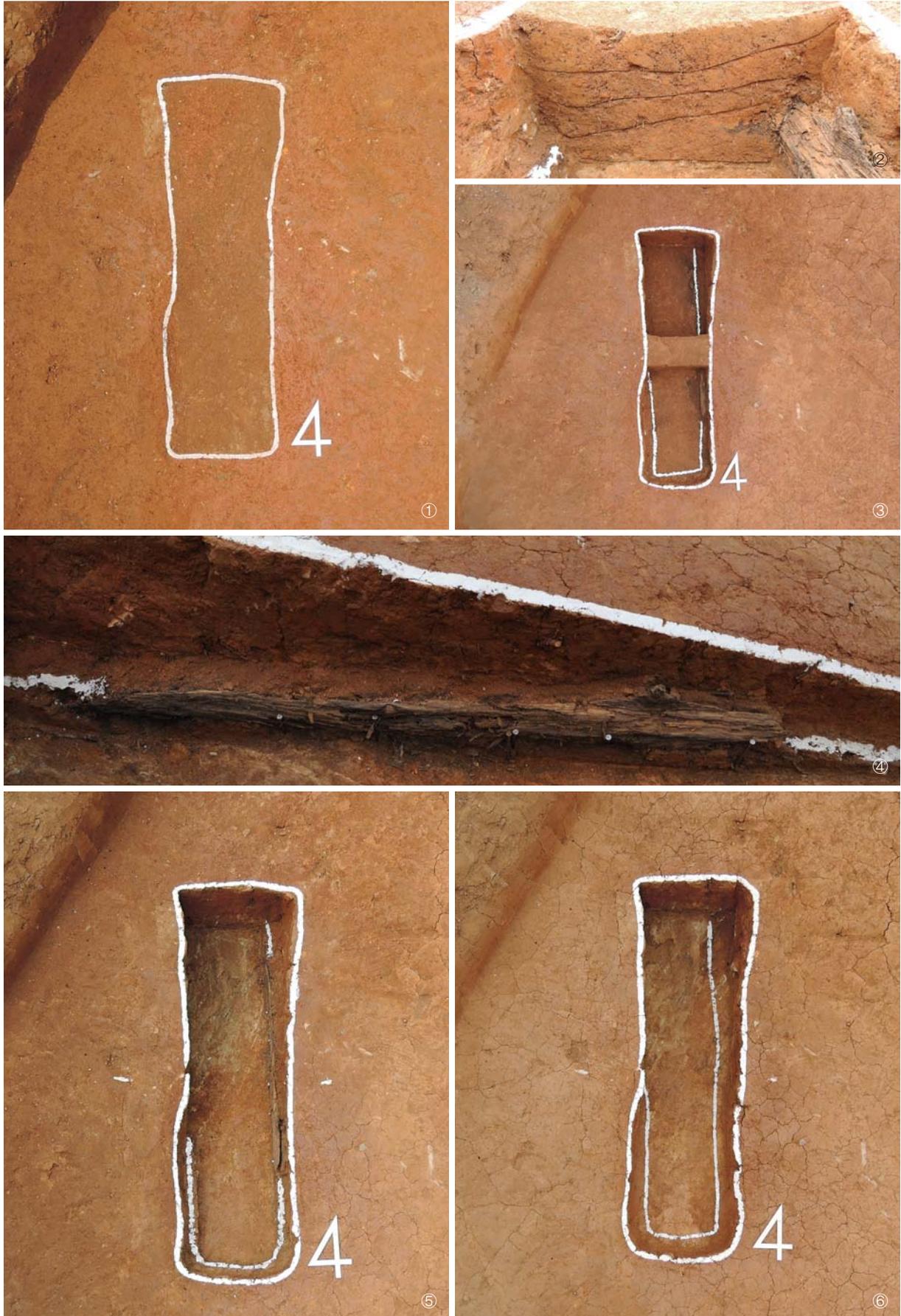
도판 16. 고려시대 토광묘 1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조사완료 후 전경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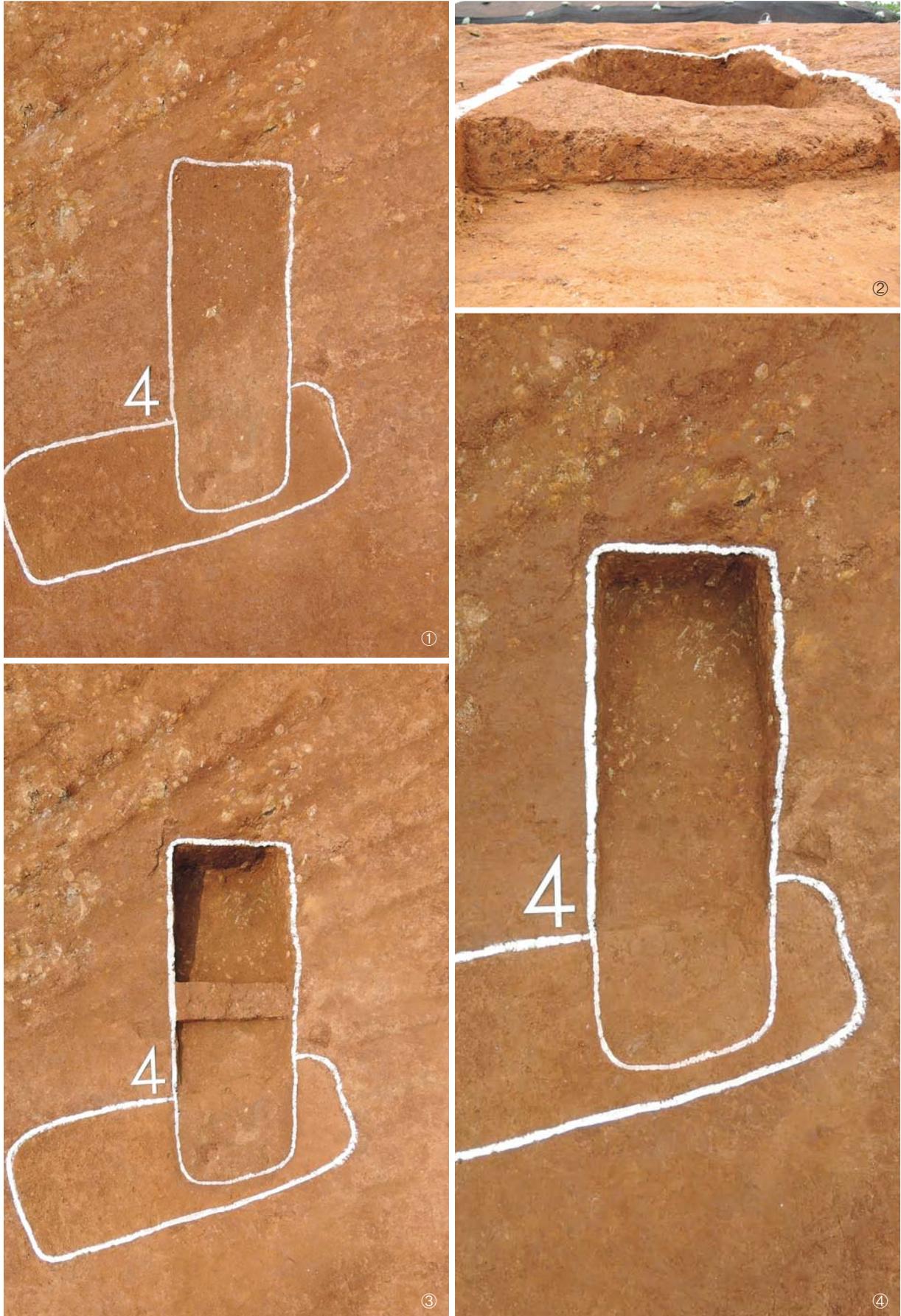
도판 17. 고려시대 토광묘 2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조사 후 전경④·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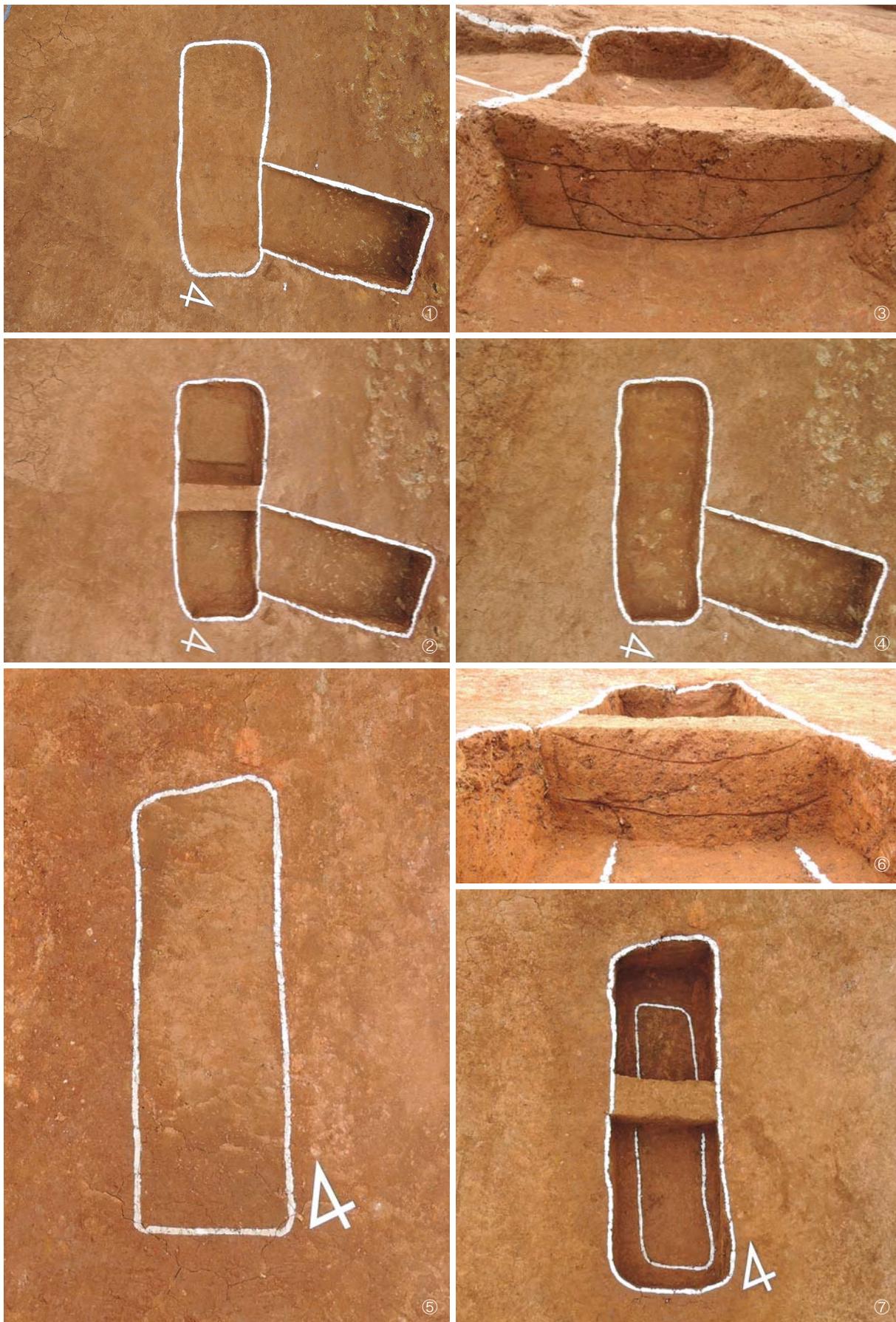
도판 18. 고려시대 토광묘 2호(유물 출토 상태①·②, 출토유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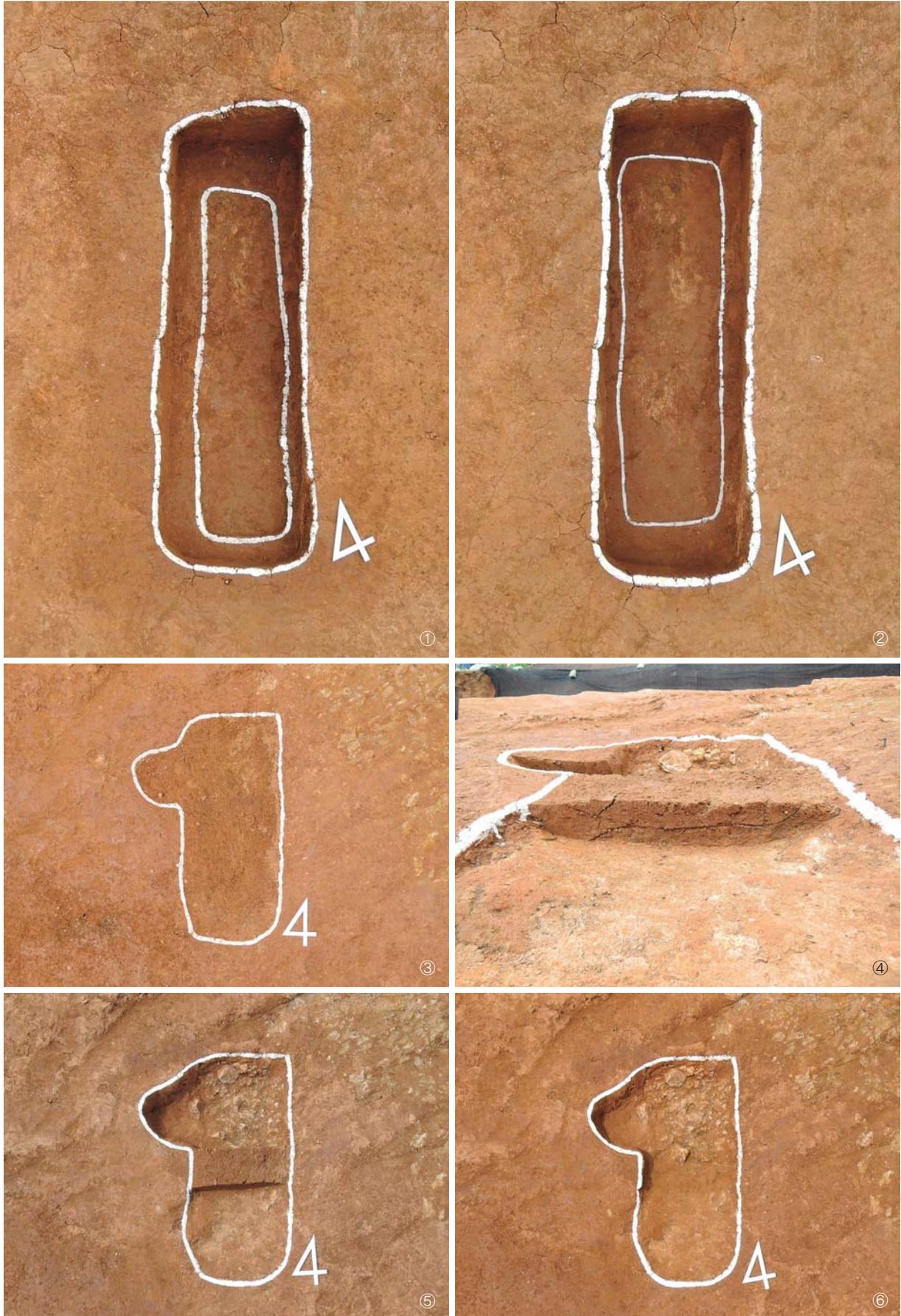
도판 19. 조선시대 토광묘 1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관재 노출 상태④, 조사 후 전경⑤·⑥)



도판 20. 조선시대 토광묘 2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조사 후 전경④)



도판 21. 조선시대 토광묘 3호(조사 전 전경①, 토층②, 조사 중 전경③, 조사 후 전경④), 토광묘 4호(조사 전 전경⑤, 토층⑥, 조사 중 전경⑦)



도판 22. 조선시대 토광묘 4호(조사 후 전경①·②), 시대미상 수혈 1호(조사 전 전경③, 토층④, 조사 중 전경⑤, 조사 후 전경⑥)



도판 23. 학술자문회의①·②

부록

1.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명칭	평택 대반리(405-148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내 유적(국비) 문화재청 허가 제2019-0671호				
유적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405-148번지				
조사면적	345㎡	조사기관	기남문화재연구원		
조사기간	2019년 6월 11일~ 2019년 6월 28일까지	회의 일시	2019년 06월 25일 15:00		
유적현황 및 성격	<p>조사지역은 해방 전까진 내리리 마을의 한 구릉지의 남쪽사면부에 해당한다.</p> <p>조사결과 조사지역의 북쪽과 남쪽은 원모계강 및 근대 교반강으로 인해 연결성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근대~근세시대 조강된 5기, 근세시대 이후 조강된 1기, 시대미상 두레유구 1기 등 모두 세기가 조사되었다.</p>				
조사기관 검토의견	<p>- 조사결과 근대~근세시대 및 근세시대 이후 조강된 6기, 시대미상 두레유구 1기 등 모두 세기의 유구가 확인된.</p> <p>- 북서쪽에서 조사된 유구는 인근지역에서 기록된 사례가 많고 평이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p> <p>- 유구의 간격상대가 양호하지 않고 표층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상에 대한 기록을 채취해 관측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 하므로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p>				
추가 의견	<p>판단되어 현상에 대한 기록을 채취해 관측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 하므로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p>				
자 문 위 원					
소 속	전공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전공전문분야	성 명
연세대학교	고고학	김민준	경남문화재연구원	고고학	신민서
2019년 06월 25일					
기남문화재연구원 귀하					

2. 출토유물 목록

일련번호	유물명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유구
1	청자 접시	15-①	18-③	고려시대 토광묘 2호
2	청자 병 저부편	15-②	18-④	

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평택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 -평택 대반리(405-148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내 유적-			發行日	2021년 6월 4일
發行機關	名稱	재단법인 기남문화재연구원			
	住所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20번길 38(합정동)			
	TEL	(031) 652-0611	FAX	(031) 652-0610	
執筆	이동성, 이연주, 이민규				
校閱	이동성, 김진영				
調査緣由	근린생활시설 조성에 따른 문화유적 구제발굴조사				
調査擔當者	이동성, 김진영, 이정우, 이연주, 이민규				
遺蹟所在地	경기도 평택시 대반리 405-148번지 일원				
調査面積	입회조사 : 814㎡, 발굴조사 : 345㎡				
調査其間	2019년 6월 10일 ~ 2019년 6월 28일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生活遺蹟	조선시대	수혈 1기	.	.	
墳墓	고려시대	토광묘 2기	청자 접시, 청자 병	.	
	조선시대	토광묘 4기	.	.	
.	
.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권별 유적 목록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I	1	경주 황남동 80번지	VII	39	경주 인왕동 809-10번지	
	2	논산 월오리 292-4번지		40	경주 황남동 221-5번지	
	3	경주 친촌리 802번지	VIII	41	청주 노산리 873번지	
	4	청양 온직리 218번지		42	제주 상천리 산99-25번지	
	5	공주 교동 100-2번지 외 1필지		43	고령 본관리 102-1번지	
	6	고령 강정리 36번지		44	경주 사라리 576-7번지	
	7	논산 천호리 282-1번지		45	김해 응달동 760-1번지	
	8	합천 합천리 940-4번지		46	고령 본관리 102-6번지	
II	9	공주 단지리 97번지 외 2필지		IX	47	춘천 근화동 799-12번지
	10	창원 본포리 103-2번지			48	경주 동천동 373번지
	11	칠곡 달서리 106-3번지	49		영월 주천리 1160-3번지	
	12	경주 황남동 229-51번지	50		제주 일도 일동 1300-26번지	
	13	부여 쌍북리 419-3번지	51		서귀포 화순리 375-1번지	
	14	제주시 삼양1동 1661-15번지	X		52	서울 인사동 154-8번지
15	아산 방축동 24-1번지	53		강릉 초당동 292-1번지		
16	서울 청암동 163번지	54		고령 지산리 3-21번지		
17	여수 선원동 450-1번지	55		경산 점촌동 79번지		
18	부여 쌍북리 419-6번지	56		김해 대성동 133-7번지		
19	강화 사기리 산51번지	57		경주 금장리 513번지 외 1필지		
20	홍천 외삼포리 1364-1번지	58		춘천 천전리 78-5번지		
21	김해 동상동 590번지	XI		59	공주 반죽동 204-1번지	
IV	22	함안 괴산리 363-2번지	XII	60	성주 기산리 962-1번지	
	23	경주 성건동 326-1번지		61	김해 서상동 232-3번지	
V	24	경주 황오동 5-8번지		62	세종 월하리 682-6번지	
	25	서울 통의동 7-16번지		63	서울 신당동 247-59번지	
	26	부여 동남리 206-9번지		64	고성 학림리 739-19번지	
	27	제주 상천리 산99-17번지		65	강릉 강문동 127-1번지	
	28	남원 왕정동 산15-4번지		66	세종 월하리 682-21번지	
VI	29	가평 읍내리 601-10번지		XIII	67	경주 황오동 2-17번지
	30	제주 외도 1동 107-5번지	68		경주 황남동 467번지	
	31	서울 목정동 25-12번지	XIV	69	고령 지산리 232-116번지	
	32	서울 체부동 118-20번지		70	문경 갈평리 408번지	
	33	창녕 효정리 825-2번지		71	경주 황남동 297-1번지	
	34	김해 동상동 965-4번지		72	산청 강누리 462-2번지	
	35	청주 송절동 407번지		73	오산 세교동 501-7번지	
VII	36	공주 봉황동 176번지		74	청주 상평리 27-5번지	
	37	부여 쌍북리 325-6번지		75	청주 상평리 27-14번지	
	38	춘천 울문리 249-27번지	XV	76	제주 오라이동 2220번지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XV	77	경주 성동동 172-2번지	XXI	118	구미 동부리 415번지
	78	세종 월하리 682-9번지		119	춘천 근화동 797-1번지
	79	고령 고아리 5-2번지		120	상주 분황리 897번지
	80	세종 월하리 682-8번지		121	고성 성내리 283-2번지 외 2필지
	81	서울 원서동 46번지		122	경주 노서동 117-7번지
	82	경주 사정동 116-10번지		123	고령 박곡리 557-1번지 외 1필지
XVI	83	제주 화순리 522번지	XXII	124	금산 중도리 72-6번지
	84	양평 양수리 708-3번지		125	무안 양장리 1117-2번지
XVII	85	평창 유동리 192번지	XXIII	126	평창 하리 242번지
	86	공주 도천리 369번지 외 2필지		127	부여 군수리 157-3번지 외 1필지
	87	강릉 초당동 394-3번지		128	군산 선유도리 353번지
	88	제주 삼양 일동 1543-13번지		129	순천 행동 121-2번지
	89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130	강릉 초당동 271-9번지
	90	평택 대반리 405-148번지		131	강릉 초당동 271-21번지
XVIII	91	경주 황남동 239-9번지	XXIV	132	경주 노서동 132-51번지
	92	고창 법지리 902번지		133	경주 노서동 132-1번지
	93	춘천 소양로1가 100-10번지		134	경주 노서동 132-52번지
	94	춘천 산천리 433번지		135	대구 남성로 29번지
	95	울산 은편리 586번지		136	서울 저동2가 3-1번지
	96	김해 초정리 383-23번지		137	대구 이천동 338-5번지
	97	공주 반죽동 342번지		138	김해 관동동 109-1번지
XIX	98	성주 대흥리 834-7번지 외 2필지	XXV	139	양평 운심리 86-16번지
	99	경주 황남동 228-3번지 외 1필지		140	공주 반죽동 205-1번지
	100	양평 송현리 284-8번지		141	경주 황남동 226-22번지
	101	경주 서악동 895-3번지 외 2필지		142	춘천 산천리 435-1번지
	102	대구 비산동 270-8번지		143	경주 래태리 891번지
	103	경주 사정동 488-1번지		144	서울 누하동 107-2번지
	104	부산 죽성리 662-1번지		145	청송 송생리 277번지
XX	105	춘천 소양로1가 92-26번지	XXVI	146	홍천 하화계리 175-14번지
	106	공주 봉황동 204번지		147	경주 광명동 276-1번지
	107	충주 칠금동 400-4번지	XXVII	148	김해 담안리 485-20번지
	108	가평 읍내리 626-6번지		149	광주 상림리 129번지
	109	경주 냉천리 75번지		150	제주 삼양1동 1666-2번지
	110	제주 용담 2동 2706-7번지		151	제주 광령리 1607-1번지
	111	부산 임기리 794번지		152	부여 쌍북리 329-2번지
	112	평창 중리 137-7번지		153	경주 성건동 178-7번지
	113	함안 도항리 111-5번지		154	부여 쌍북리 329-6번지
XXI	114	가평 읍내리 764-6번지 외 2필지	XXVIII	155	서귀포 강정동 3162-3번지
	115	고령 지산리 402번지		156	함안 묘사리 산134-10번지
	116	청주 사인리 산13-1번지 외 2필지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117	공주 교동 183-3번지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XXIX		

학술조사보고 제434책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I

| 85 ~ 90 |

2021년 6월 16일 印刷

2021년 6월 18일 發行

編輯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s://www.chf.or.kr>)

發行 : 한국문화재재단(<https://www.chf.or.kr>)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1577-5805 Fax. 054)774-8169
ISBN 978-89-6433-341-9
978-89-6433-018-0(세트)

印刷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Tel. 053)965-7277 Fax. 053)965-7256
